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

조동호 지음

John T. Chase
1905-1987

John J. Hill
1913-2009

Harold Taylor
1904-1976

Patricia A. Kim
1946-Present

Richard G. Lash
1928-2001

Gorden H. Patten
1933-2018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The Early 50-Year (1924-1974)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23

20-10 Beonyeong 8-gil Umsamyun Gyeryongsi Choongnam,
Republic of Korea 32815
Tel(042)841-9697

머리말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출범과 초기 50년 역사는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선교사들과 그들이 조직한 선교회들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선교사들과 선교회들은 대부분 1970년대에 그들의 시대를 마감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별개로 내국인(indigenous nationals) 목회자들에 의한 토종 선교의 기반은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닦여왔다. 따라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후기 50년 역사는 선교사들이나 선교회들이 아닌 내국인 목회자들에 의해서 쓰이고 있다. 내국인 목회자들은 선배들이 눈물과 고난으로 닦고 밟아 다져놓은 환원의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성장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그 이야기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쓰이기를 소망해본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진 십자가에 기대어있다. 제 힘이나 능력으로 선 것이 아니다.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일 수 있고, 그들과 동역한 내국인 목회자들일 수 있으며, 이름도 성도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선배들이 짊어진 십자가에 기대어 환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선배들의 십자가와 눈물과 땀과 배고픔과 고달픔과 외로움이 켜켜이 쌓이고 섞이고 다져져 딛고 설만큼 단단한 환원의 반석이 되고 안전하게 딛고 전진할 수 있는 길이 되었다. 그들에 대한 고마움이 어찌 하늘만큼 땅만큼 크지 않겠는가? 이 소박한 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확신한다. 그 보상이 반세기가 지나 이제야 겨우 소박하게 이뤄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늦지 않게 찾아오신다(God is still on time).

존 J. 힐(John J. Hill) 선교사는 만 26세 때인 1939년 6월 21일 서울에 도착해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였으나 태평양전쟁의 징후로 1940년 11

월 16일 급히 미국으로 철수하였다. 미국으로 돌아간 힐은 목회를 하던 중 1944년 10월 5일 군목학교에 입학하여 5주간의 훈련을 받고 중위로 임관되었다. 힐이 탄 배가 1945년 4월 7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였다. 도시는 일본군에 의해서 거의 파괴되었고, 끔찍한 잔학행위가 자행되었음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사람들이 산 채로 불태워지고 여성과 아이들이 총검에 찢겨서 신체가 벌어진 채였다. 힐은 규모가 큰 수용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힐은 일본군에 잡혀서 수감된 후 기아상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인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소속 선교사들을 발견하고는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레슬리 울프(Leslie Wolfe)의 사모, 윌리스 헤일(J. Willis Hale) 부부, 레이 칼슨(Ray Carlson) 부부와 자녀들, 에디스 쉼멜(Edith Shimmel)과 에델 존스(Ethel Jones)였다. 그들은 여전히 수척하였지만, 해방당시 그들의 건강상태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었다. 힐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필리핀 선교의 개척자 레슬리 울프가 대략 두 주일 전에 사망하였다고 전했다. 선교사 울프는 수감생활로 인한 극심한 영양결핍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힐 중위는 군용비상식량들을 그들에게 가져다주었고, 저녁까지 남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위로하였다. 그들이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에 남아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겪고 있었던 헌신적인 선교사들이었다. 미군들이 수감자들을 구원한 날은 일본군들이 수감자들을 기관총으로 몰살하기로 계획하고 그 실행날짜를 하루 남긴 날이었다. 단 하루 차이로 그들은 하나님이 늦지 않게 그들에게 보낸 미군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1] "4일 늦게"(Four Days Late)라는 찬양이 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늦지 않게 찾아오신다. 최후승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지금도 헌신하고 계신 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희생을 잊지 않으시고 늦지 않게 보상하신다.

잊혀 있던 선배들의 발자취를 되살리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과연 그 일이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할 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인

1) "Letter from Chaplain John J. Hill, Somewhere in the Philippines, April 20, 1945," *Christian Standard*, 5 May 1945: 278.

가? 잊힌 그대로 두어도 누구도 아쉬울 것이 없고, 어쩌면 발굴하지 않고 묻힌 그대로 두어 영원히 잊히도록 방치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는가? 이 질문은 필자가 종종 자신에게 던졌던 물음이다. 하물며 독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민족의 한이 맺힌 서글픈 역사에 서조차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코끝을 찡하게 만들며 눈가에 이슬이 맺히게 하는 가슴시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바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이야기들 속에 담긴 감동이요, 한이며, 안타까움이다. 잘난 선배이든 못난 선배이든 우리 모두는 선배들이 몸 바쳐 겹겹이 쌓아올린 지층위에 발을 딛고 걷고 있다. 우리가 딛고 걷고 있는 지층들 속에 무엇이 매장되어있는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속에 어떤 보물과 고증학적 파편들이 숨어있는지 어찌 궁금하지 않겠는가!

만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나라가 실재함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누추하게 살면서도 가장 작고 약하지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친 선배들과 우리 자신들의 상급이 어찌 명예와 부를 누린 이들의 것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한다.

참고로 본서에서는 협의회/총회에서 교단명칭으로 부르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오늘날 미국에서 불리는 대로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로 표기하였고, 교역자회에서 부르던 '그리스도의 교회'를 역시 오늘날 미국에서 불리는 대로 '그리스도의교회들'(Churches of Christ)로 표기하였다.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교회'(Christian Church)로 표기하였다. 미국에서 한인 제자들(Korean Disciples)은 자신들의 교회들을 한글로 표기할 때 '크리스천 처치'라고 부른다.

환원운동의 선구자들은 자신들의 교회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각각 불렀다: Disciples of Christ, Christian Churches, Churches of Christ. 그러다가 1세기쯤 지난 1906년에 근본주의자들이 Churches of

Christ란 이름으로 갈라져나갔고, 나머지는 Disciples of Christ로 남았다가 Disciples of Christ가 진보신학에 경도되자 여기서 뛰쳐나온 독립교회들이 대부분은 Christian Churches를 사용하였고, 더러는 Churches of Christ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러 진보주의자들인 Disciples of Christ는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신약성경교회가 조선 땅에 처음 전파된 이후 협의회/총회의 교단명칭은 '기독교회'였고, 교역자회는 '기독의교회'였다. 그리고 해방 후 재건된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교단명칭으로 사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에 필자는 오늘날 미국에서 불리는 대로, 협의회/총회와 교역자회를 구분할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 '그리스도의교회들'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다만 개개교회들의 이름은 가급적 현재 그대로 표기하거나 구분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OOO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표기하였다.

2023년 2월 5일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각주 약자표]

CS: Christian Standard
FCK: For Christ in Korea
FL: Flashes from the Lashes
KBM: Korean Broadcasting Mission
KM: Korean Messenger
NBEK: News from Bert Ellis in Korea
NL: News Letter
TC: Tokyo Christian
WL: Wave Lengths from Christian Radio Mission

목차

머리말 ····· 3

I. 도쿄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선교/11

1. '한국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해방 전 명칭 ····· 11
2.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시작 ····· 13
3.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 16
4.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 22
5. 조선'기독교회'를 위해 헌신한 요츠야선교부 소속 선교사들 ·· 31

II. '기독교회'선교부의 한국선교/45

1. '기독교회'(남대문통)의 출범과 J. 마이클 쉘리 선교사 ····· 45
2. '기독교회'(남대문통)의 발전과 존 T. 채이스 선교사 ····· 54
3. '기독교회'(남대문통)의 초기 내국인 사역자들 ····· 93
   1) 김요한 목사 ····· 100
   2) 최상현 목사 ····· 105
   3) 성낙소 목사 ····· 110
   4) 김문화 목사 ····· 128
   5) 박판조 목사 ····· 134
   6) 백낙중 목사 ····· 136
   7) 성수경 목사 ····· 139
   8) 이난기 목사 ····· 141

9) 윤낙영 목사 ····· 143
4. '기독교회'(남대문통)의 새 출발과 존 J. 힐 선교사 ····· 146
5.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과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 182

III. 증가한 선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221
1.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과 내국인 사역자들 ····· 221
1) 최순국 목사(1933.02.08.-2002.09.16) ····· 222
2) 김동수 목사 ····· 230
3) 최윤권 목사 ····· 233
4) 안재관 목사 ····· 242
5) 김진문 목사 ····· 244
6) 독립투사 오현팔(吳鉉八, 1895-1972) 목사 ····· 246
7) 정인소(鄭寅笑, 1907.11.11.-1977.8.27) 박사 ····· 251
8) 이기구 목사 ····· 253
9) 그리스도의 교회가 낳은 사랑의 원자폭탄 진성구 장로 · 256
2.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과 고든 패튼 선교사 ····· 258
3. 선교사들과 내국인 사역자들 사이의 이견 ····· 262
4. 강원도와 경상도지방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 ····· 270
1) 장성만 목사 ····· 270
2) 리차드 래쉬 ····· 310
5. 부산에서의 라디오 방송선교 ····· 317
1) 알렉스와 베티 빌즈(Verlen Alex & Betty Bills) ····· 317
2) 알렉스 빌즈의 동료들 ····· 333
(1) 엑시 제인 풀츠(Exie Jane Fultz) ····· 333

(2) 플로라 매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 ····· 335
(3) 조셉과 맥신 세걸키(Joshep & Maxine Seggelki) 336
(4) 버트와 마조리 엘리스(Bert & Marjory Ellis) ····· 341
3) CRM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 중이던 가족들 ····· 344
4) 한국 CRM의 실패의 원인 ····· 345
5) 라디오 방송선교를 위한 선교사들 ····· 349

IV. '한국 크리스챤 밋숀'의 한국선교/361

1. 존 힐 선교사의 생애 후반기 선교사역 ····· 361
2. 존 힐 선교사의 동료들 ····· 385
1) 노봉욱 장로 ····· 386
2) 고재윤 목사 ····· 388
3) 김히영 교수 ····· 388
4) 김치연 목사 ····· 390
5) 김순철 목사 ····· 391
6) 안일승 목사 ····· 392
7) 버지니아 힐(Virginia Hill) ····· 393
8) 김찬영 박사 ····· 397
3. 힐 요한 선교사의 1976-77년 복귀 시도 ····· 398
4. '한국 크리스챤 밋숀' 소속 선교사들 ····· 401

V.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사도 바울 김은석 목사/409

1. 김은석 목사의 생애 ····· 409
2. 한국의 사도 바울 김은석 목사 ····· 418

3. 떠돌이 전도인 김은석과 성경책 ····· 433

4. 예수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떠돌이 예언자적 삶의 추종자 김은석 목사 ····· 438

5.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본받은 김은석 목사 ····· 446

6. 김은석 목사의 인생추수 ····· 454

7. 김은석 목사의 반천련(伴天連) ····· 463

1) 김명석(주일) 목사(1906-?) ····· 464

2) 박점상 목사/장로(1928.03.23. 음력-2024.1.20) ····· 465

3) 김교인 장로(1890-1970) ····· 470

4) 신현창 장로 ····· 471

5) 정찬성 목사(1913.05.06~1957.04.25) ····· 472

6) 김상호 목사(1922-2007.11.24) ····· 474

7) 만교 최춘선 목사(1921-2001.09.08) ····· 476

8) 창현 함태영 목사(1914.5.24-1983.11.28) ····· 480

9) 이신 목사/신학박사(1927.12.25-1981.12.17) ····· 487

10) 김정만 목사(1927.5.20-2017.8.30) ····· 493

11) 장주열 목사(1923.5.4-1983.12.18) ····· 496

12) 최요한(용환) 목사(1923.01.20-1998.03.28) ····· 497

13) 고광석 목사 ····· 507

14) 지철희 목사 ····· 509

15) 심영진 목사(1921.2.28-) ····· 511

16) 김동열 목사(1922.09.05.-2008.08.23) ····· 514

17) 김성철 목사 ····· 516

맺음 말 ····· 527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의 그리스도의 교회 성명서 ····· 529

I. 도쿄 요츠야선교부(Yotsuya Mission)의 한국선교

1. '한국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해방 전 명칭

일제강점기 때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교단명칭은 **'기독교회'(基督敎會)**였다. 한국에서는 1932년 6월 11일 성낙소 목사가 최초로 교단명칭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관리자설치계를 계출(신고)하였고, 8월 26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1] 성낙소에 이어 조선 '기독교회' 제2대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 목사는 성낙소가 계출한 교단명칭을 1936년 7월 8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를 계출하였고, 8월 21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2]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 소속한 교회들 가운데 38선 이북에 소재한 교회들은 남북분단 이후 생존이 불가능해졌고, 남한의 교회들은 태평양전쟁시기에 대부분 해체되었으나 해방 직후 인천송현교회는 송현성결교회로, 송현교회에서 분리된 인천의 또 다른 교회는 인천제일장로교회(통합)로 재건되었다. 참고로 요츠야선교부에 고용된 한국인 목회자들은 일본에서든 한국에서든 이원균, 이인범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이 성결교회 출신들이었다. 성낙소조차도 구세군 사관이었던 1919년 충북 영동지방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왜경에게 쫓기던 중 구세군으로부터 1920년 9월 25일 강제 포교폐지를 당하였고,[3] 그 직전인 8월부터 1922년 3월까지 경성성서학원(성결교)에서 수학하였으므로 이들 성결교출신들과는 교류가 수월하였다.

그리고 1935년 4월 25일 J.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가

1) 「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2) 「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
3) 「조선총독부관보」 제2438호 02면(대정 9년 9월 25일).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가 1937년 초에 설립한 '기독교회' 선교부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직인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는 별개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란 교단명칭으로 포교관리자계를 계출하였고,[4] 다시 1937년 2월 25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가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여 제2대 기독교회포교관리자가 되었으며,[5] 동년에 '기독교회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40년 6월초에 채이스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들어가고, 존 J. 힐(John J. Hill) 가족마저 미국정부의 철수 명령으로 그해 11월 16일 귀국함으로써 선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채이스는 선교부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듬해인 1941년 2월 24일 서울에 도착하여 3월 23일까지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핍박아래 한 달간 체류하는 동안 제3대 기독교회포교관리자로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 목사를 계출하였다.[6] 그러나 채이스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회들은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 동방요배 등을 거부함으로써 온갖 곤욕을 치렀고, 1944년 6월 30일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소, 포교자 및 포교관리자폐지계가 차례로 계출됨으로써 모두 문을 닫았다.[7]

동석기 목사 또한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및 '기독교회'(남대문통)와는 별개로 1937년 5월 12일 '기독의교회'(基督の敎會)란 교단명칭으로 포교관리자설치계를 계출하였다.[8] 이로써 일제강점기 말에 '기독교회

4) 「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년 6월 15일).

5) 「조선총독부관보」 제3087호 9면(소화 12년 5월 4일).

6) "김요한은 교회들의 법적 대표로서 저자를 대신합니다."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이하 KM), 1941년 5월호; "The Korean Christian Mission(In Retrospect)," KM, 1946년 5월호; 「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7) 「조선총독부관보」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조선선교회'(요츠야선교부), '기독교회' 및 '기독의교회'가 각각 별개로 활동하였다.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와 '기독교회'는 현재 협의회와 총회의 전 교단명칭들이었고, '기독의교회'는 현재 교역자회의 전 교단명칭이었다.

해방 직후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선교부'와 산하 '기독교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의교회**'로 재건되었다. 기독교회선교부는 존 힐 선교사를 거쳐 1955년 11월에 입국한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리스도의교회'라는 명칭이 문서에 쓰인 가장 이른 시기는 1946년 8월이다. 성낙소 목사가 작성한 '그리스도의교회 합동 선언문'(서울 사직공원 내 그리스도의교회 성낙소 선언서)에서이다. 다시 성낙소는 1952년 7월 3일에 발행한 책, 『신약교회 목회학』(그리스도의교회신학교출판부)에서도 '그리스도의교회'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시작

William D. cunningham
(1864.07.19-1936.06.24)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인물로서 최초로 한국 땅을 밟은 인물은 일본에 주재한 독립선교사들이었던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도쿄)과 M. B. 매든(Madden, 오사카)이었다. 그 때가 1907년이었다. 그들은 중국 상해에서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리는 중국개신교선교일백주년대회(China Centenary Missionary Conference)에 참석차 가는 길이었지만, 그들이 배를 타고 상해로 곧

8) 「조선총독부관보」 제3188호 5면(소화 12년 8월 30일).

바로 가지 않고 한국을 찾은 것은 한국이 선교사들에게는 기회의 땅, 곧 수확을 기다리는 황금들판으로 알려져 있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이 평양에 체류하여 교회들을 방문한 때는 평양대부흥운동의 절정기였다. 1907년 1월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평양대부흥운동은 동년 6월까지 절정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커닝햄과 매든은 평양에서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모인 1,200여명이 일제히 그러나 일사분란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평양대부흥운동의 폭풍의 핵을 목격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로 커닝햄에게 한국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는 동양의 마케도니아가 되었다. 그러나 커닝햄은 선교비의 부족으로 그 비전을 당장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며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1909년에 간접선교의 기회가 주어졌다. 일본 도쿄주재 요츠야(四谷)선교부(Yotsuya Mission)에서 침례를 받고 성경훈련을 받았던 어떤 한국인이 서울 YMCA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는 동안에 몇 명의 한국인 개종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이뤄진 최초의 비교파 신약성경기독교 개종자들이었다.[9] 그러나 이 작은 시작도 지속적인 사역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다만 수확을 기다리는 세계 최고의 황금들판인 한국선교를 위해서 매년 1,000달러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홍보만 할뿐이었다.[10]

커닝햄의 기도는 1923년에 가서야 비로소 응답되었다. 미국 아이오와(Iowa) 주에 거주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한국에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울 수 있도록 2천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힘입어 커닝햄은 그해 9월에 선교기지를 세우기 위한 '땅 밟기'를 계획하였으나 불행하게도 9월 1일에 도쿄와 요코하마(橫浜) 일대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11] 한국에 선교기지를 세우는 일은 지진피해수습이 거의 끝난 이듬해 1924년 3월 말에 가서야 실행에 옮겨질 수 있었다. 한국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600달러가 이미 입금된 상태

9)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 이하 TC) 1917년 11월호와 1927년 7월호.
10) TC, 1917년 11월호.
11) TC, 1923년 9-10월호.

조선인그리스도(한국인그리스도의)교회(1924-45)를 설립 요츠야선교부의 사역자들 상좌측부터 이원균(1924.10-1927, 박제곤의 뒤를 이음), 김광춘(1927중반-29.03), 박홍순(1929.04-31, 1930년 4월 27일에 선교기지를 교회로 승격시킴), 하좌측부터 이성록(1930.04-31), 성낙소(1931.09-36.01, 기독교회 사목선교회 포교책임자), 이인범(1936.01-43.09,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책임자)

였다.[12]

윌리엄과 에밀리 보이드(Emily Boyd) 커닝햄 부부는 1924년 3월 25일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수일간 머물며 직접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우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며 예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일을 위해서 도쿄(東京) 제1교회에 다니던 유학생 박제곤이 커닝햄 부부보다 일주일전에 서울에 들어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였다.[13] 요츠야선교부는 1924년 5월에 박제곤을 한국에 보내 선교기지를 개척하도록 하였다.[14] 그러나 박제곤은 복음사역을 반대한 부친의 반대로 사역을 중단하였고, 그를 대신해서 이원균이 10월에 파송되었는데, 그는 1927년 중반까지 서울에 기독교회선교기지를 세우고 일요학교들을 여는 사역을 수행하였다. 이원균이 경성성서학원(성결교) 입학을 위해서 사임함으로써 1927년 중반부터는 김광춘이 이어받아 사역하였고, 도쿄 미카와시마(三河島)조선기독(조선인그리스도의)교회 박홍순 목사가 그의 뒤를 이어받았다.[15] 곧이어 이동혁이 추가로 서울에 투입되었다. 박홍순 목사는 1929년 3월 36일 귀국하여 4월부터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 섬겼다. 1929년 서울에는 4개의 선교기지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에 선교기지(포교소)가 출범한 지 만 6년만인 1930년 4월 27일 드디어 최초의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가 조직되었다. 선교기지도 늘어서 6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이성록이 추가로 서울에 투입되어 늘어난 두 곳을 맡아 운

12) TC, 1924년 3월호.
13) TC, 1924년 6월호.
14) TC, 1927년 7월호.
15) TC, 1929년 11월호.

영하였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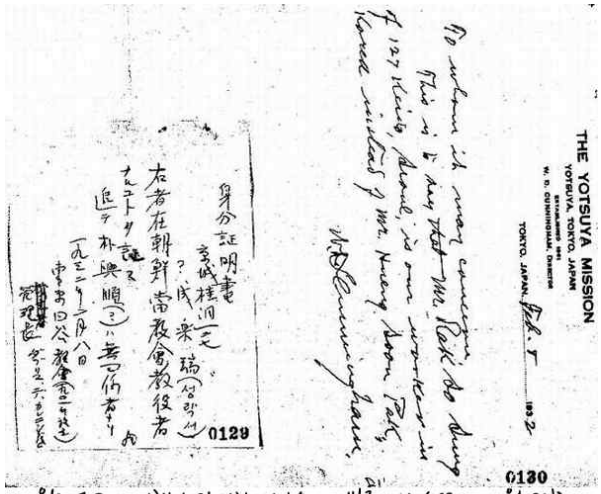
한편 커닝햄은 한국선교를 시작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쿄 미카와시마(三河島), 후카가와(深川) 및 요코하마(横浜)에도 한국인들을 고용하여 선교기지들을 세웠고 '조선기독(한국인그리스도의)교회들'로 발전토록 하였다. 이 시기 곧 1927년 3월에 일본에 입국하여 1934년 11월 미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존과 와네타 채이스((John Trawrick and Wahneta Smith Chase) 부부는 요츠야선교부에서 7년 8개월 동안 월급선교사로 사역하였다. 따라서 채이스는 1931년 1월부터 9월 무렵까지 요코하마조선기독교회를 담임한 성낙소와 그밖에 이인범, 이원균, 윤낙영을 비롯한 다수의 한국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잦았고 일본주재 조선기독교회들을 돕거나 감독하기도 하였다. 이들과는 수년 후 한국에서 동역자로 혹은 경쟁자로 인연이 이어졌다. 참고로 채이스는 1931년 9월 하순에 한국 선교 사역을 시찰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한바가 있다.[17] 채이스는 서울에 1개의 교회와 여러 개의 일요(주일)학교들(Bible Schools)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때는 성낙소가 요츠야선교부로부터 1931년 9월 중순경에 박흥순을 대신할 조선기독교회들의 포교책임자로 임명받고 귀국한 직후였다. 성낙소가 커닝햄의 초청을 받고 일본에 건너간 때는 1930년 5월이었으며 이듬해 9월 무렵까지 줄곧 요코하마에서 사역하였다.

3.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성낙소 목사가 귀국한 이유는 사모의 건강문제 때문이었다. 때마침 요츠야선교부는 박흥순 목사(장로교 출신)를 교체할 능력 있는 설교자를 찾고 있었다. 한의학에 밝았던 성낙소가 한국에 남아있는 사모의 건강을 다스리기 위해 귀국하기를 원하자 요츠야선교부는 그를 서울(京城) 계동 127번지에 있었던 제1교회의 목회자로 임명하고 1931년 10월부터 사역하여 요츠야선교부 제15번째 교회로 발전시킨 인천 난도(남동)교회를 돌볼 책임을 맡겼다.[18]

---

16) TC, 1930년 6월호.
17) TC, 1931년 11월호.



윌리엄 D. 커닝햄이 작성한 성낙소의 신분증명서(1932년 2월 8일)

성낙소는 1931년 "11월 15일에 경성에 도착하여 계동에 거주하며"[19] 포교책임자 직책을 1936년 1월 10일까지 합법적으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가 도쿄의 요츠야선교부로부터 파송된 포교관리자로서 직책을 수행한 기간은 1933년 5월 20일까지 만 20개월에 불과하였다. 이 짧은 기간에 성낙소가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서 한국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남긴 가장 큰 업적은 합법적인 교단이 되게 한 것이었다. 성낙소는 1932년 6월 11일 최초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라는 이름의 교단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계출(신고)하여 8월 26일자 관보에 실리게 하였고,[20] 1932년에 서울의 2개 교회 및 1933년에 인천송현교회를 위해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하였으며, 또 자신과 김문화 목사의 포교계를 계출하였다.

성낙소는 1932년 12월 17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경성교회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경성부 수창동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경성교회에 성낙소의 포교담임자계를, 24일에는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에 김문화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원동)의 포교계를 계출하였고,[21]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아현리에

18) TC, 1931년 12월호, 1932년 1월호, 6월호.

19) 성낙소,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 『기독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이하 자서전)』(1960), 김종기, 조동호 편집(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0).

20) 「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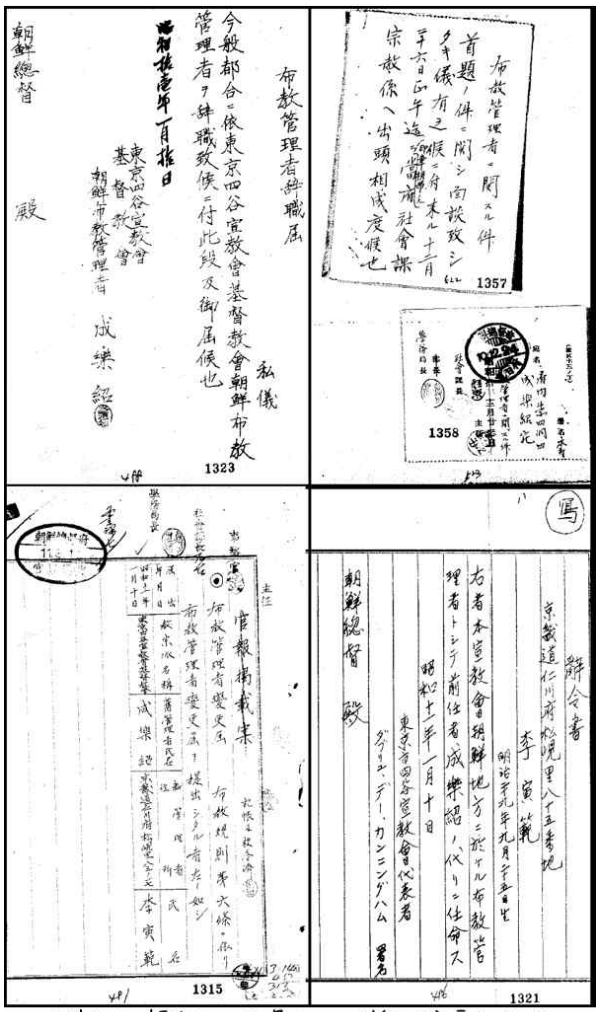
21) 「조선총독부관보」 제1829호 6면(소화 8년 2월 15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설치를 <조선총독부 관보>(1932년 8월 26일자)에 게재하기 위한 기안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아현교회에 김문화의 포교담임자계를 계출하였다.[22] 또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거주)는 1932년 1월 1일 이후로 감독 목회(매월 세 번씩 주일 오후에 설교)하며[23] 요츠야선교부 제16번째 교회로 승격시킨[24]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인천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를 1933년 2월 1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의 포교담임자계를 계출하였다.[25]

1924년 5월부터 1933년 5월까지 만 9년간 조선 땅에서 펼쳐진 요츠야선교회의 선교열매는 성낙소가 계출한 이 세 개의 포교소가 합법적인 면에서 보면 전부였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계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츠야선교부가 이인범을 조선기독교회포교관리자로 파송키 위해서 성낙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심하게 틀어져버렸다. 이인범은 요츠야선교부로부터 1933년 6월 5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 임명받고 동년 9월에 시무하던 도쿄 후카가와(深川)조선기독교회를 사임하고 입국하여 기독교회 인천송현교회를 맡아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1936년 1월 10일이 되기까지 조선총독부의 비협조로 합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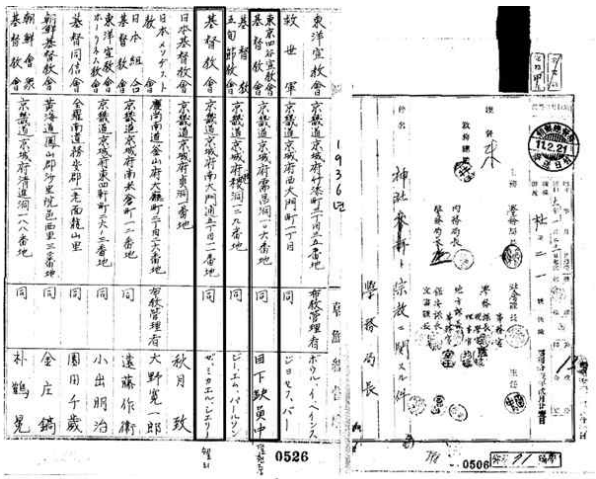
22) 「조선총독부관보」 제1857호 6면(소화 8년 3월 20일).
23) TC, 1932년 8월호.
24) TC, 1933년 6-7월호, 1934년 11월호.
25) 「조선총독부관보」 제1882호 9-10면(소화 8년 4월 20일).



상우측은 조선총독부가 성낙소 목사에게 발송한 소환통보서(전보),
상좌측은 조선총독부에 소환된 성낙소가 쓴 포교관리자 사직계,
하우측은 커닝햄이 성낙소 대신에 이인범을 포교관리자로 임명한 사령서,
하좌측은 이인범이 계출한 포교관리자변경계.
성낙소의 사직계, 커닝햄의 사령서, 이인범의 관리자, 관리사무소 등의
변경계들은 모두 날짜가 동일한 소화 11년 1월 10일이다.

인 포교관리자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윌리엄 커닝햄 선교사의 집요한 노력과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 자작)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이토 마코토는 조선총독부에 종교과를 신설하여 기독교에 우호 정책을 펼쳤던 조선총독부 총독(1919-27, 1929-31) 및 일본 정부 수상(1932-1934)을 지낸 자로서 부부가 커닝햄 부부와 절친한 이웃이자,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를 구두(口頭)로 허가한 인물이었다. 커닝햄은 마코토의 구두허가를 합법적인 허가로 착각하였던 것 같다.

커닝햄은 마코토 자작에게 보낸 1935년 10월 11일 편지에서 성낙소가 "무능하기 때문에," 11월 16일에는 성낙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해임하였다고 하였고, 동년 12월 11일 조선총독부(Chosen Sotokufu, Keijo, Chosen)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는 "성씨를 1933년 5월 20일 해임하였다"고 하였다.



신사 및 종교 관계의 건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1936년 2월 21일 발송 문건)
1935말-36년초 조선총독부산하 포교관리자들의 명단으로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가 "목하결원중"이라고 되어 있다. 성낙소(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 사직계 제출)의 포교관리자 직위를 이인범으로 변경하려던 1936년초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회'(남대문동)의 포교관리자가 'J. 마이클 윌리'로 되어 있다. 윌리가 죽은 1935년 10월 28일 영구 귀국하였다. 그러나 그가 4월 25일에 신고한 포교관리자사직계는 채이스 선교사가 1937년 2월 25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신고할 때까지 그대로 살아있었음을 의미한다.

또 성낙소는 요츠야 선교회의 대적자이고, "자기가 해고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26] 그러나 커닝햄이 성낙소를 해임시킨 것은 성낙소가 무능했거나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포교관리자 자리를 탐낸 이인범의 모략에 현혹되었기 때문이었다.[27] 커닝햄은 1926년에 성결교에서 면직된[28] 이인범을 "조선의 여호수아" 혹은 "조선의 알렉산더 캠벨"이라고 부를 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

한편 압박에 못이긴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성낙소를 소환하기 위하여 옛 주소들로 몇 차례 급전(急電, 전보)을 보냈으나 잦은 이사로 인해 성낙소가 받지 못하자 끝끝내 수소문하여 1936년 1월 10일 기어이 소환하여 포교관리자사직계를 쓰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윌리엄 커닝햄 선교사는 1936년 1월 10일자로 이인범을 동경사곡선교회 조선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 전임자 성낙소를 대신하여 임명한다는 사령서를 다시 작성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하였다. 동시에 이인범은 포교규칙에 의거 포교관리자변경계를 비롯한 모든 관련서류를 이

26)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소화 11년 도서류, 생산기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생산년도: 1936년, 관리번호: CJA0004842).

27) 성낙소, '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 『자서전』.

28) 이명직,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약사』, 1929, 157쪽, 「조선총독부 관보」 제121호 15면(소화 2년 5월 27일).

날짜로 적어 제출하였고 관보에 실린 것은 그해 3월 18일이었다.[29] 커닝햄 선교사는 이 문제의 해결이 있은 지 6개월여 만인 6월 24일 별세하였다. 커닝햄의 절친이자 도우미였던 사이토 마코토(Viscount Makoto Saito) 역시 동년 2월 26일 살해됨으로써 유명(幽明)을 달리하였다.[30]

요츠야선교부는 선교사들이 6개월에 한 번 정도 한국의 기독교회들을 순회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도쿄 그리스도인」 1935년 6월호에 따르면, 커닝햄 자신은 1935년 4월에 네 번째 한국을 순회 방문한다고 하였고, 1936년 3월에도 토마스 힛치(Thomas G. Hitch) 선교사와 함께 한국을 찾았으며, 이 한국방문을 마치자마자 6개월 정도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 4월 24일 동경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였다. 이날 동경 역에는 100여명이 나와 환송하였고, 그 가운데 60여명이 요코하마 항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환송하였다. 아마 아무도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 작별이 될 줄을 몰랐을 것이다. 그로부터 꼭 3개월만인 1936년 6월 24일 커닝햄은 미국 서부에 도착하여 북동부로 대륙을 횡단하던 중 향년 72세로 일본을 떠나온 지 꼭 두 달 만에 미네소타 주 로체스터(Rochester, MN)에서 암으로 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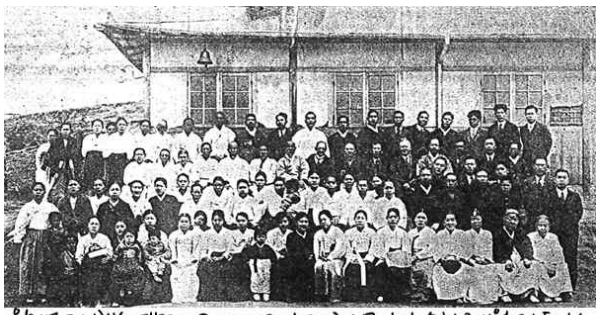
커닝햄 선교사는 1924년 3월 25일 선교기지(포교소)를 세우려고 서울(京城)을 방문한 이후 소천하기까지 만 12년 동안 한국인 사역자들을 고용하여 인천에 3개(송현동, 유동, 금곡동), 서울에 3개(계동, 수창동, 아현동, 기타), 평북 구성군에 2개(방현면, 오봉면), 평북 정주군에 2개(용포동, 근담동), 평안남도(현 황해북도) 중화군 동두면 대류리에 1개, 경남 마산에 1개, 총 12개의 교회와 일본 미카와시마(三河島), 후카가와(深川) 및 요코하마(横浜)에 총 3개의 조선기독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총괄하였다. 이 15개의 교회는 커닝햄이 1901년부터 1935년까지 미국인 선교사들과 일본인 및 한국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35년간 세운 총 28개 교회들의 약 54퍼센트에 달하며, 그것도 커닝햄의 총 선교사역기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이뤄진 업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아쉬운 것은 이들 교회들 가운데 단 한 곳도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

29) 「조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2면(소화 11년 3월 18일).

30) TC, 1936년 4월호.

4.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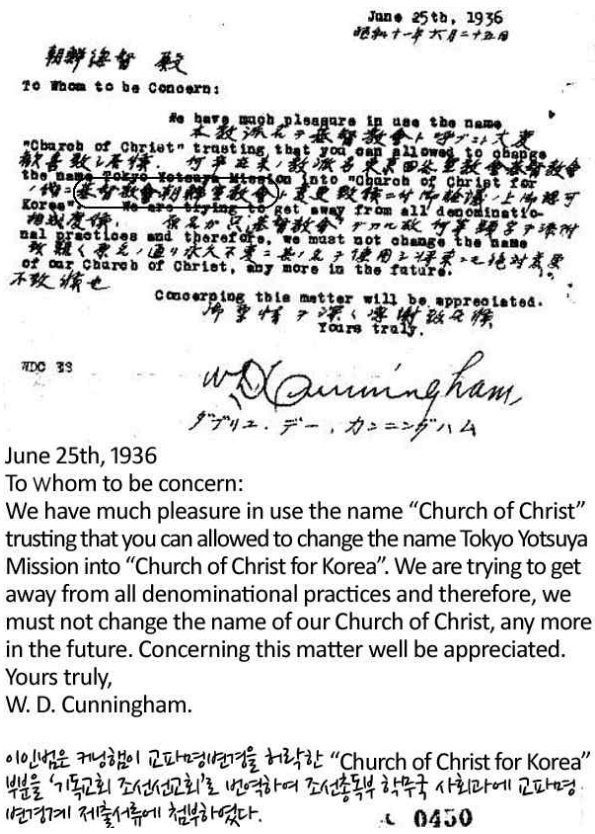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선교사가 소천 3개월 전 토마스 힛치(Thomas G. Hitch) 선교사와 방문했던 인천송현기독교회(1936년 3월)

커닝햄 선교사의 소천이후 조선기독교회들은 포교관리자였던 이인범 목사의 주도아래서 조금씩 발전되어갔다. 아현동에 서울성경훈련원이 세워졌고, 몇 차례 조선기독교회들을 순회방문만 했던 토마스 힛치(Thomas G. Hitch) 선교사가 서울에 주재(駐在)하면서 가족과 함께 서울성경훈련원을 운영하였다. 1937년에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Emily Boyd Cunningham)이 쉼멜(Shimmel) 선교사와 함께 순방하였고, 오웬 스틸(Owen Still) 선교사가 몇 차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교회들을 순방하였다.

서울 제2교회 성경공부반(이인범이 매일 2시간씩 강의, 1937년)
뒷줄 좌측부터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Emily Boyd cunningham), 이난기 담임목사, 이인범 목사, 쉼멜(Shimmel) 요츠야선교부 선교사

이인범이 1936년 1월 10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와 포교관리자주소변경계(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가 받아드려진 이후[31]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일이 교파명변경과 성낙소 목사와 김문화 목사를 면직시킴과 동시에 성낙소 목사의 행적을 철저히 세탁한 것이었다. 이인범은 1936

31) 「조선총독부관보」 제2752호 12면(소화 11년 3월 18일).



June 25th, 1936
To Whom to be Concern:
We have much pleasure in use the name "Church of Christ" trusting that you can allowed to change the name Tokyo Yotsuya Mission into "Church of Christ for Korea". We are trying to get away from all denominational practices and therefore, we must not change the name of our Church of Christ, any more in the future. Concerning this matter will be appreciated.
Yours truly,
W. D. Cunningham.

이인범은 커닝햄이 교파명변경을 허락한 "Church of Christ for Korea" 명을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번역하여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교파명 변경계 제출서류에 첨부하였다. 0450

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에 포교관리자사무소를 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를 계출하였고,[32] 9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수창동 106번지 거주)와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원동정 8의 4번지 거주)의 포교폐지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계출하였다.[33] 이뿐 아니라, 이인범은 1936년 9월 4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아현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의 구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5의 17번지 거주)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34] 동년 12월 23일 포교규칙 제11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인천교회(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89번지)의 구포교소설립자 성낙소를 이인범(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73번지)으로 포교소설립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35] 이로써 성낙소와 김문화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인범은 성낙소 이름으로 신고된 것들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세탁시켰다. 이

32) 「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
33) 「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34) 「조선총독부관보」 제3042호 6면(소화 12년 3월 9일).
35) 「조선총독부관보」 제3143호 9면(소화 12년 7월 8일).

존 T. 채이스 및 윌리엄 D. 커닝햄(1930년초 일본 도쿄)
이인범(성천조선기독교회) 및 류지풍(삼하도조선기독교회)

때문에 인천송현성결교회는 성낙소가 이인범보다 앞선 포교소설립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였다.

1936년 9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부터 포교자폐지를 당한 성낙소와 김문화는 1936년 11월 7일에 '기독교회' 선교사로 입국하여 서울 송월동(게이조 쇼게추조 32-6번지)에 거주하게 된 채이스 선교사와는 각각 1937년(김문화)과 1938년(성낙소)에 재회하였다. 채이스는 1927년에 일본 도쿄로 건너가 1934년 10월까지 요츠야선교부의 월급 선교사로 헌신했었고, 1930년대 초 성낙소와 한국기독교회 개척지에서 사역한 김문화도 요츠야선교부의 월급 사역자였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였다. 하지만 성낙소와 그의 교회는 1939년에 가서야 채이스의 제3호 교회로 편입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성낙소가 채이스와 재회하기 직전에 적선정에 있던 경성기독교회를 내수정 106의 1번지로 옮겨와 '조선야소교회'에 막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조선야소교회는 1938년 3월 3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를,[36]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60번지 거주)의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성교회에 성낙소 목사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37]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적만 두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침례와 매주일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기독교회를 하고 있었고, 채이스와 재회한 때로부터 송월정 32번지 서울성경훈련원에 출석하여 김

36) 「조선총독부관보」 제4024호 3면(소화 15년 6월 21일).
37) 「조선총독부관보」 제4038호 4-5면(소화 15년 7월 8일).

요한, 최상현, 김문화, 백낙중, 박판조 등과 함께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를 연구하였다.

1936년부터 해방 전까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계출(신고)한 포교관리자들과 포교소들 및 포교자들은 다음과 같다.

제1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 이인범 목사 (1936.07.08.-1943.09.17.)

1936.09.04. 인천 송현기독교회(신신근) 및 유정기독교회(김영배)의 포교계 및 성낙소, 김문화의 포교폐지계.

1936년 12월말까지 성낙소 명으로 된 모든 기록을 이인범 명으로 변경계 계출.

1937.05.10. 평북 구성군 오봉기독교회(장신주) 및 방현(Hoken)기독교회(김성산).

1937.05.12. 경성부 마장정기독교회(김상익), 평북 정주군 용포동기독교회 및 문인동기독교회(최성진).

1937.06.21. 인천 금곡정기독교회(정삼선).

1937.10.31. 인천 유정(柳町/柳洞/Yanagicho)기독교회를 '화정(花町)기독교회'로 포교소명칭변경계 계출.

1937.11.04. 마산기독교회(김태희), 경성부 염리기독교회(이난기).

1938.08.22. 영등포기독교회(윤낙영) 계출.

1939.01.31. 대구부 덕산정기독교회(김태희).

1940.03.09. 마산기독교회(송기준).

1940.03.11. 인천부 대화정기독교회(임준식).

1940.03.15. 신마산기독교회(송기준) 및 구마산기독교회, 북마산기독교회.

1940.08.19. 경성부 대흥정기독교회(임공칠).

1942.02.01.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현천리기독교회 계출.

제2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 평산 무웅(신신근) 목사 (1943.09.17.-해방 때까지)

1943.09.30 이인범의 포교폐지계.

1943.09.30 아현정기독교회 포교담임자변경계(이인범을 송산 의웅으로).

1944.09.30 염리정기독교회 포교담임자변경계(이난기를 유지욱으로).

조선기독교회(1924-45)를 섬긴 요츠야선교부의 선교자들 (연도는 사진 촬영시기). 상좌측부터 이원균(1934.12.13. 방현교회 제1대), 김성산(1937년, 방현교회 제2대), 주정국(1935년, 방현교회 제3대), 하좌측부터 최성진(1937년, 방현교회 장로, 용포동교회와 문인동교회 사역자, 독립운동가, 201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음), 장신주(1936년, 오봉교회), 윤형구(1935년, 용포동교회 집사, 예배당 부지 기증자, 커닝햄이 발행한 1936년도 달력 2월에 실린 사진)

이 밖에도 계출되지 아니한 교회들이 여러 개 더 있었다. 계출된 교회들 가운데 인천송현기독교회와 평북 구성군의 방현기독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한 상당히 큰 교회들이었으며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송현기독교회는 해방직후 담임목사 신신근이 별세한 지 8일 만인 1946년 12월 10일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재건되었으나 방현기독교회는 해방 후 공산치하에서 해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현기독교회에는 세 명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두 명이 부자(父子)간으로서 내과 의사들이었다. 아버지(Y. D. Cheh)는 원로장로였고, 아들(R. R. Cheh)은 시무장로였다. 부목사와 여전도사가 있었고, 집사가 10명, 교인이 170여명이었다. 평안북도 구성군과 정주군의 기독교회들은 대체로 1932년 말 혹은 1933년 초부터 자녀교육을 위해서 동경 미카와시마(三河島)조선기독교회로 자리를 옮긴 1937년 초까지 4년 반 정도 방현기독교회를 담임목사로 섬긴 이원균의 영향 아래 세워진 것들이다.[38] 이들 북한 기독교회들에서 몇몇 젊은이

38) TC, 1933년 7월호, 1936년 2월호.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일어로 Hoken)기독교회의 1935-36년 모습. '기독교회'라고 쓴 현판을 건 본당에 600명이 앉을 수 있었다. 이원균 목사는 1933-37년까지 담임하였고, 1936년에 교인이 173명, 장로가 3명, 집사가 7명이었으며, 새 예배당 건축 후 구 건물에 유치원이 입주하였다. 건물은 1935년에, 성도들은 1936년에 촬영 되었다. 뒷줄에 양복을 입은 네 사람은 좌측부터 이원균 목사, 토마스 헛치 선교사, 김영배(통역), 이인범 목사이다. 우측에 양복을 입은 두 사람은 내과의사 가족인 아버지와 아들 장로들로 추정된다.

들이 서울 아현동 성경훈련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이인범 목사가 요츠야선교부로부터 조선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 임명받고 1933년 9월에 입국하여 1943년 9월 30일 포교폐지계가 계출될 때까지[39] 만 10년간(합법적으로는 7년 8개월간) 이룬 업적과 활동내용은 앞서 열거한 '기독교회 조선선교회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계출(신고)한 포교소들과 포교자들'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것들은 「조선총독부관보」에 실린 객관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도쿄 그리스도인」에는 이보다 훨씬 많고 왕성한 이인범 목사의 활동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다. 다만 북한의 기독교회들은 이원균 목사의 영향 아래 세워진 것들이어서 이인범 목사가 비록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였을지라도 그의 영향력은 주로 서울, 인천, 대구 및 마산에 국한되었다. 재직기간동안 이인범은 자신의 부흥강사 자질로 큰일을 해냈으나 정작 자신이 담당한 서울 제1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지는 못하였다. 선교부에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후원이 끊기면 부족한 생계비를 채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3일만(수, 토, 일) 교회를 위해 일하고, 나머지 4일은 나가 돈을 벌겠다고 말할 정도로 교회사정이

39) 「조선총독부관보」 제5024호 20면(소화 18년 10월 30일).

조선기독교회(1924-45)를 섬긴 도츠야선교부의 사역자들
(연도는 사진 촬영시기)
상좌측부터 신신근(1936년, 인천송현교회), 정삼선(1937년, 인천송현교회 및 인천금곡동교회 개척자, 서울성경훈련원 1940년 졸업),
김영배(1937년, 통역 및 인천 유정/화정교회 개척자), 하좌측부터
이난기(1936년, 서울 제2교회), 김상익(1936년, 서울 제3교회,
서울성경훈련원 1940년 졸업), 김태희(1936년, 마산기독교회).

어려웠다. 서울에는 이인범 목사가 시무한 제1교회(아현동) 말고도 마장동기독교회(김상익), 염리기독교회(이난기), 영등포기독교회(윤낙영), 대흥동기독교회(임공칠)가 있었으며, 성경훈련원(신학교, 아현동)에서 배출한 남학생들(정삼선, 김상익, 임준식, 임공칠)은 기독교회들을 개척하였고, 여학생들(임화순, 이권신, 평화일)은 여전도사로 개척된 기독교회들을 섬겼다.

1941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새로운 종교법으로 인해서 일본과 한국의 교회들은 해외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해 말에 터진 태평양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선교사들이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여 1947년에 이르기까지 최소 5년간 모든 선교부가 폐쇄되고 후원이 중단되어 미자립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동방요배와 신사참배 및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로의 통합에 반대했던 한국의 기독교회(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목회자 상당수가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거나 투옥되었다.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책임자였던 이인범 목사는 모진 매를 맞았다.[40] 이점에 있어서는 기독교회(남대문통)의 포교책임자였던 김요한 목사와 소속 목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김요한 목사는 해방 전 세 차례나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다.[41]

---

40) TC, 1940년 9월호.

41)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1947년 5월호).

요츠야선교부의 월간지, 「도쿄 그리스도인」(TC)에서 한국선교를 중단한 1941년 이후 한국교회들에 관한 기사는 일체 없었다. 선교부가 본국으로 철수한 5년간의 공백은 너무 컸고, 세계대전 중이어서 생존 자체가 힘겹던 시절이었다. 1940년대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포교관리자 이인범), 기독교회(포교관리자 존 T. 채이스), 기독의교회(포교관리자 동석기)를 통틀어 30개가 조금 더 되었고, 이 가운데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했던 교회는 평북 구성군의 방현기독교회와 인천의 송현기독교회 정도였다. 이뿐 아니라, 이들 교회들은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가입하는 것과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대부분 흩어지거나 지하로 숨어버렸다. 그리고 해방 후까지 생존했거나 복원된 교회는 신신근 목사의 인천송현기독교회, 이난기 목사의 용산교회, 윤낙영 목사의 아현동교회 정도였다. 요츠야선교부와 관계했던 목회들 가운데 포교관리자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기독교회'에 합류한 사람들은 성낙소, 김문화(1949년 2월초에 별세), 이난기(1948년경에 합류, 당시 68세), 윤낙영(해방 이듬해인 1946년 기독교장로회 증평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성낙소의 권유로 합류, 김은석 목사와도 친분이 있었음. 6·25 동란 때 피난 갔다가 1955년 7월 6일 영등포침례교회 제3대 목회자로 부임)뿐이었다. 평안북도에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소식은 「도쿄 그리스도인」지에 전혀 언급이 없는데다가 남북분단으로 인해서 생사를 알 길이 없다. 이점에 있어서는 동석기 목사가 고향 함경남도 북청군에 세운 10여개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이다. 인천유동교회와 금곡동교회는 일제의 탄압을 견기지 못하고 인천송현기독교회와 통합하였고, 담임목사 신신근이 별세한 지 8일 만인 1946년 12월 10일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재건되었다. 인천송현기독교회가 성결교회가 된 데에는 이인범과 이원균을 비롯해서 김상준, 신신근, 박영선, 주정국, 윤낙영 등 요츠야선교부의 대부분의 한국인 사역자들이 성결교회 출신들이었고, 요츠야선교부는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1941년 3월말 이후 한국선교를 중단하였을 뿐 아니라, 채이스 선교사 측의 사람들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커닝햄이 한국인 여호수아와 알렉산더 캠벨로 불렀던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 이인범 부흥 목사마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수하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저버리고 장로교

커닝햄 선교사(1935-36년경)
커닝햄은 이인범(인천송현기독교회, 좌)을 조선의 알렉산더 캠벨 또는 여호수아로, 이원균(평북 구성군 방현기독교회, 우)을 조선의 발톤 스톤 또는 갈렙으로 치켜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해방 후 장로교단 또는 침례교단에 배척을 몰았다.

회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성결교단으로부터 제명당한 후에 '기독교회' 곧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사역자로서 젊음을 바쳤던 이인범 목사의 1943년 9월 이후의 흔적은 금산제일교회 연역에 나타난 것이 전부이다. 그는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교회에 부임하였고, 1951년에 금산에서 향년 55세로 별세하였다.

이원균 목사는 미카와시마(三河島)조선기독교회를 시무할 당시인 1941년 1월 21일 일본인 목회자들 4명과 이성영 후카가와(深川)조선기독교회 목회자와 함께 선교부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기독교단'이란 통합교단에 가입하기로 가결시켰다.[42] 이때는 해외로부터의 선교후원을 금지한 종교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실제로 그 법은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이성영과 이원균에게 주어지던 선교부의 후원은 중단되었고, 동포들이 조국으로 귀국하거나 흩어짐으로써 생활이 어렵게 되어 귀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귀국 후 이원균이 평북 구성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 무렵 선교사들은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였고, 일본과 한국의 교회사정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도쿄 그리스도인」에서조차도 일체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한국침례교 인물사』에서는 이원균이 1955년 침례교단으로 이적하기 전까지 평양신학교 이사장과 예수교 장로회 함남 노회장을 역임한 것으로 적고 있다.

이 무렵에 이원균은 『율법과 복음』이란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은 비

42) TC, 1941년 4월호.

교파 신약성경기독교를 위해서, 윌리엄 커닝햄 선교사로부터 한국의 갈렙 또는 한국의 발톤 스톤이라 불리며, 20여 년간 헌신한 자신의 사역들에 대한 배신의 글이었으며, 알렉산더 캠벨이 1816년 9월 1일 레드스톤 침례교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서 행한 '율법에 관한 설교'와는 상반된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원균은 비교파 신약성경교회에서 침례교단으로, 알렉산더 캠벨은 침례교단에서 비교파 신약성경교회로 자리바꿈을 함으로써 피차 상반된 길을 걸었다. 이원균 목사는 1955년 침례교로 이적하여 부산 충무로침례교회를 담임하였다. 침례교 총회에서 두 차례 교육부장을 역임하였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침례신학교에서 가르쳤으며, 1966년에는 신학교 교장으로 봉직하였다. 이원균 목사는 1969년 12월 6일 향년 82세의 일기로 소천하였다.

이원균 목사는 성결신학, 그리스도의교회 신학, 장로교 신학을 거쳐 결국 침례교단에 안착하였다. 그리스도의교회와 침례교회는 칼뱅주의를 빼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고, 그리스도의교회처럼 펜윅도 교파명이 아닌 '기독교회'란 명칭을 고집하였으므로 많이 닮아 있었다. 이원균 목사가 펜윅의 가르침을 받고 "고민하던 의문점들이 하나씩 풀려지면서 가슴이 후련해졌다"고 하였지만, 펜윅 선교사는 침례교회를 세운바가 없고, 그가 한국에 세운 교회들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침례교회가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원균은 그리스도의교회의 가르침과 달리, 그의 『율법과 복음』이란 책의 저술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는 칼뱅주의에 경도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조선'기독교회'를 위해 헌신한 요츠야선교부 소속 선교사들

1) 커닝햄 Cunningham, William D. 1864.7.19.~1936.6.24.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목사, 선교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트론 타운쉽(Lower Tyrone Township)에서 농사짓는 메튜 커닝햄(Matthew Cunningham)과 리디아 뉴커머(Lydia

요츠야선교부가 제작하여 배포한 1936년도 1월 달력에 실린 윌리엄 D. 커닝햄과 에밀리 보이드 부부. 커닝햄은 당해년 6월 24일 미국에서 소천하였다. 천안독립기념관 소장자료실에 이 달력이 있다.

Newcomer Cunningham)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농사일을 하며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분위기의 가정에서 보냈다. 어린 커닝햄의 장래 희망은 대학을 졸업하여 교사가 되는 것으로 1887년 여러 해 동안 일하며 저축한 돈으로 캘리포니아 주립사범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나 4년 후 그의 나이 27세 때에 돌연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고, 그리스도의교회의 정신으로 세워진 베다니대학(Bethany College)에 2학년으로 편입하였으며 이곳에서 그의 미래 복음사역에 유익한 많은 경험을 쌓았다.

베다니대학 졸업 후 1894년 7월 29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성 도마교회(St. Thomas Church)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였다. 목회 시절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동일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던 에밀리 B. 보이드(Emily Blackstone Boyd)를 만나, 1898년 6월 2일 결혼하였다. 갓 결혼한 커닝햄 부부는 신혼여행 기간에 해외그리스도인선교회(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1875년 창립)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일본 선교를 제안 받고 준비하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커닝햄의 몸에 이상이 생겨 선교사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커닝햄 부부는 총 4년에 걸쳐 네 차례 더 지원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매번 불가 판정을 받았다. 결국 커닝햄 부부는 독립선교사 신분으로 일본에 가기로 결정했다.

커닝햄 부부는 190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차이나(China) 호에 승선하여, 10월 1일 일본 요코하마(横濱)에 도착하였다. 도쿄(東京)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시간제 교사로 영어를 가르쳤고, 얼마 후 일본 귀족대학에 영어 강사로 채용되었다. 도쿄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인 1901년 11월 1일 선교기금 모금의 방편으로 월간 선교소식지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1902년 선임 선교사들로

부터 요츠야(四谷)선교부를 인수받고, 이곳을 선교본부로 삼고 선교활동을 전개했다.

커닝햄의 지도 아래 수행되는 요츠야선교부의 선교사역에는 분명한 선교정책, 즉 선교 목적과 전략이 있었다. 선교 목적은 선교지에 자립(자전, 자치, 자급)하는 토착교회를 설립하는 것이고, 선교 전략은 여러 분야의 사역들 가운데 복음전도(교회개척)와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교육에서는 성경교육이 강조되었다. 성경교육은 초신자 교육과 본토인 사역자 교육으로 구분되었다. 초신자 교육은 주일과 주중 개설된 성경 관련 교육이고, 본토인 사역자 교육은 교회와 관련 기관에서 사역할 본토인 사역자를 양성하는 교육이었다.

커닝햄은 선교 초기부터 일본인 젊은 교인들을 가르쳐 오다가, 1905년부터 사역자반(Workers' Class)을 개설하여 지도하였다. 이후 요츠야선교부는 선교부 교회의 담임 사역자가 자체적으로 젊은 교인들을 사역자로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게 했다. 요츠야선교부의 일차적 선교대상은 일본인이었으나 1923년부터 그 대상을 한국인으로 확대하였다. 요츠야선교부가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커닝햄이 1907년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모리슨100주년기념국제선교사대회'(Morrison Centenary Missionary Conference)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하면서 부터였다. 당시 한국은 평양대부흥운동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 커닝햄은 이때 1,200명의 교인들이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부흥회를 목도하고 큰 감동을 하여, 한국에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개척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요츠야선교부의 본격적인 한국인 선교는 1923년 이후 도쿄와 요코하마에 사는 재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동 선교부는 선교부에서 훈련을 받은 신실한 한국인 교인들을 도쿄와 요코하마에 파견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도쿄에 2개, 요코하마에 1개의 한국인 교회를 세웠다. 1931년 9월 선교부 제7교회[미카와시마(三河島)조선인기독교회]의 담임 사역자 김상준이 한국인 사역자를 훈련하는 학교(Bible Training School for Korean Workers)를 개설했으나 그의 조기 사임으로 중단되었다. 개척된 한국인 교회들은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사역자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인 교회의 사역자들 중 요츠

야선교부에서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은 극히 소수였고, 대부분은 타 교단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들로 이들은 선교회로부터 급료를 받고 사역하였다.

1924년 요츠야선교부는 한국인 사역을 한국으로 확장하고, 이원균, 박홍순 등을 사역자로 임명하여, 선교기지(포교소)를 개설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1930년 서울에 첫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선교사역은 한강 이북(평안북도)과 제물포(현재 인천) 그리고 한강 이남(마산 대구 등 주요 도시)으로 확장되었다. 1930년대 후반 제물포에서도 교회가 설립되었다. 제물포 제1교회(송현기독교회, 담임 사역자 신신근)는 1936년 9월 교회 자체적으로 한국인 사역자 교육 야간성경훈련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서울에서는 1938년 초 서울 제1교회(담임 사역자 이인범)가 커닝햄이 생전에 계획했던 한국인 사역자 교육 성경훈련원을 개설하고, 2월 중순 입국한 요츠야선교부의 선교사 힛치(Thomas G. Hitch)의 지도 아래 운영하였다. 한국인 사역자를 훈련하는 서울의 성경훈련원은 힛치의 조기 귀국 후에도 한국인 사역자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요츠야선교부가 한국 선교의 재정 지원을 중단한 1941년 3월 이후 문을 닫았다.

한국인 사역자 수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요츠야선교부 교회들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선교부 교회의 빠른 성장에 고무된 커닝햄은 1935년 4월과 1936년 3월 한국을 방문하여 교회들을 시찰하고, 이후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선교여행을 시작하였다. 5월 중순 캘리포니아 주를 출발하여 애리조나 주와 콜로라도 주를 거쳐 미네소타 주 로체스터(Rochester)에 도착한 다음날, 암 진단을 받고 때늦은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6월 24일 별세하였다.

커닝햄이 사망할 당시 요츠야선교부는 한국인 교회 15개(한국에 12개, 일본에 3개)를 세우고, 한국에 12명,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회들과 유치원 및 주일학교들에 다수의 한국인 사역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유해는 펜실베이니아 주 파예트 카운티 코넬스빌(Connellsville Fayette County)의 힐 그로브 묘지(Hill Grove Cemetery)에 안장되었다.

부인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Emily Boyd Cunningham)은 커닝햄 사망 이후 요츠야선교부를 이끌었고, 스틸 부인(Mrs. Owen Still)과 공동

으로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의 전기 *The Flaming Torch*(1939)를 저술했다. 1953년 12월 25일 별세하였고 유해는 그녀의 요청에 따라 도쿄 도시마구(豊島區) 조시가야(雜司ヶ谷) 묘지에 안장되었다. 자녀로는 엘로이즈(Eloise, 1899년 9월 4일 미국 출생), 도리스 얼레인(Doris Elaine, 1902년 8월 29일 일본 출생), 룻(Ruth, 1906년 5월 7일 일본 출생), 커닝햄 2세(William D. Cunningham Jr. 1912년 4월 12일 일본 출생)를 두었다. 차녀 도리스 얼레인은 1928년 7월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어 요츠야선교부의 사역을 보조하였다. 요츠야선교부 제1교회[후에 와카바(若葉)기독교회]의 자리에 커닝햄기념교회가 설립되어 1938년 11월 20일 헌당되었다.

[참고문헌] [TC: Tokyo Christian]. TC 1901~1936; Mrs. W. D. Cunningham and Mrs. Owen Still, *The Flaming Torch: The Life Story of W. D. Cunningham*; Tokyo: The Yotsuya Mission, 1939;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1.htm; Board of Ministerial Relief of the Church of Christ: Application for a Pension Certificate; “Our Forth Anniversary", TC vol. V no.1 Nov. 1905; "Miscellaneous", TC vol.ⅩⅩⅩ no.12, Oct. 1931; Yotsuya Mission Calender, vol. 38 no.1, Nov. 1938; “Yotsuya Mission Annual Report: Timothys", TC vol.XXX no.4, Feb. 1932; https://www.findagrave.com/memorial/90192802/william-d-cunningham;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역사』, 한성신학교, 1991; 백종구, “윌리엄 D. 커닝햄과 한국인 선교-동경 요시야선교회를 중심으로,” 「신학논총」 (2012); 백종구, “도쿄 요츠야선교회와 재일 한인교회: 미카와시마(三河島)조선기독교회의 개척과 성장 (1901-1947)”, 「한국교회사학회지」 53(2019); 백종구,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 쿰란, 2018; 오수강, 『基督의 敎會와 성낙소와의 관계』, 쿰란, 2007.

백종구(전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2) 힛치 Hitch, Thomas G. 캐나다 침례교회의 선교사, 호주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선교사.

토마스 G. 힛치(Thomas G. and Emilie Hitch) 부부 및 딸 애니(Annie)

영국인으로 캐나다 침례교회의 선교사로 부인과 함께 티베트 국경지대에서 다년간 사역하고, 일본에서도 7년간 사역했다. 티베트에서 두 자녀를 잃고 신경쇠약증에 걸린 이후, 남은 딸들의 교육을 위해 호주로 건너가 8년간 거주했다.

힛치는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의 오랜 지인으로 그의 가족은 호주 멜버른 에센돈(Essendon) 그리스도의교회(Church of Christ)의 교인으로, 동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일본 요츠야선교부의 임시직원으로 오게 되었다. 딸 애니(Annie)와 함께 1936년 3월 3일 일본에 도착했고, 도착 직후 3월 19일부터 커닝햄과 함께 선교부의 한국 교회들을 순방하였다.

요츠야선교부에 부임한지 3달 후, 커닝햄의 사망으로 선교부의 일을 떠맡게 되어, 1937년까지 월간 선교소식지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의 편집과 선교부의 회계를 맡고, 1936년 10월 한국을 방문하여 선교부의 교회들을 시찰하였다.

힛치 부인(Mrs. Emilie Hitch)과 딸 앨리스(Alice)는, 막내 딸 룻(Ruth)이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1937년 3월 2일 일본 사역에 합류하고, 큰 딸 에밀리(Miss Emilie A. G.)가 그해 12월 15일 호주를 떠나 일본에 도착하였다. 애니와 앨리스는 선교부 사무실을 도와주고, 성경반을 가르치고, 일본어를 배웠다. 힛치 가족은 찬양

을 잘해서 가끔 교회의 초대를 받아 특송을 하였다.

이즈음 요츠야선교부의 한국 사역이 크게 성장하여, 서신 연락과 선교사의 간헐적 방문보다 더 확실한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에 선교부의 선교사들과 일본인 목회자들이 힛치 가족의 한국 파송을 결정하고, 선교부 자문위원회 다수가 찬성하여, 한국 교회 유급 사역자 13명이 힛치 가족을 한국 선교사로 초청했다. 이 초청에 응하여 힛치는 1938년 2월 18일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 서울 제1교회(아현동)가 개설한 서울성경훈련원(Bible Training School)의 확장계획을 담임 사역자 이인범과 함께 세우기 위해, 한국으로 먼저 왔고, 부인과 가족은 3월 24일 한국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고베(神戶)로 가는 기차를 탔다.

서울에 거주하는 동안 힛치는 5월 초 북쪽 지방의 선교부 교회들을 순방하고, 7월 교외의 외곽 지역에 있는 선교기지 성경학교를 방문했다. 또 성경훈련원의 교장이 되어, 학교를 제1교회에서 그의 임대 주택으로 옮겼다가, 다시 여름 방학 후 9월 아현동 임대 건물 2층으로 옮겼다. 당시 주간반 학생이 남자 7명, 여자 5명, 야간반 학생이 남자 11명, 여자 2명이었다. 학생 중에는 현직 목회자와 여전도자들이 다수였으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재학 중 혹은 졸업 후에 파송을 받았다. 이인범과 힛치 부부, 딸 에밀리가 가르쳤고, 감리교 출신 홍종숙 목사가 교수와 직원으로 합류하였다.

힛치가 선교부 사역을 본격적으로 수행한 1938년 말 한국에는 14개 교회(서울 4개, 인천 3개, 한강 이북 5개, 한강 이남 2개), 사역자가 지도하는 7개 모임(서울 2개, 인천 2개, 신의주 3개), 사역자가 없는 소규모 모임들이 있었다.

1939년 4월 에밀리는 당시 요츠야선교부가 겪고 있는 재정난을 의식하고 선교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역을 중단하고 귀국을 결정했다. 몇 달 후 힛치 또한 그의 건강 때문에 한국 사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티베트 국경지대에서 사역할 때 두 자녀를 잃고 그 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신경쇠약에 걸려 있었고, 그 일 이후로 두 세 차례 신경쇠약으로 고생을 했었다. 또 한국에서의 사역이 너무 과중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어서 또 다른 신경쇠약으로 쓰러질 것 같은

(상)서울성경훈련원 학생들과 토마스 힛치 선교사의 피크닉(1938년)
(하)서울성경훈련원 학생들과 오웬 스틸 선교사(1939년, 아현동)
뒷줄 좌측부터 홍종숙 목사, 이인범 목사, 신신근 목사, 김영배 전도자
(통역, 와세다대 학사, 중국 상해 성요한대학교 역사), 오웬 스틸

위험을 느꼈었다. 힛치 부부는 1939년 여름 화진포에서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가족, 존 J. 힐(John Jesse Hill) 가족, 일본에서 건너온 다수의 선교사들과 함께 휴가를 보낸 후, 요츠야선교부를 사임하고, 8월 말 호주로 떠났다.

힛치가 떠난 이후 서울성경훈련원은 이인범, 홍종숙, 신신근(제물포 제1교회 담임 사역자) 등이 가르치고 운영했다. 서울성경훈련원은 정규 학교가 아닌 성경훈련반으로 다수의 목회자들과 여전도사들을 배출하고 파송하였지만, 요츠야선교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 1941년 3월 이후 문을 닫았다. 힛치의 다른 딸 앨리스는 호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남아 사역(영어성경반 지도)을 계속했다. 그러나 영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영국 정부의 자국민 철수 권유가 있자, 사역을 포기하고, 1940년 10월 30일 호주로 떠났다. 가족으로는 독일 태생 부인(Mrs. Emilie Hitch)과 딸 에밀리(Miss Emilie A. G.), 애니(Annie), 앨리스(Alice M.), 룻(Ruth)이 있었다.

[참고문헌] [TC: Tokyo Christian]. "Enlarged Program for Korea", TC vol.ⅩⅩ? no.10, Aug. 1933; “About People", vol.XXXV no.4, Feb.

1936; “About People", TC XXXV no.6, Apr. 1936; “Miscellaneous”, TC vol.XXXVI no.3, Jan. 1937; "Our Opportunity in Korea", TC vol.37 no.3, Jan. 1938; "Mission News", TC vol.37 no.4, Feb. 1938; “Into Korea”, TC vol.37 no.5, Mar. 1938; “Into Korea”, TC vol.37 no.5, Mar. 1938; "Picture of Yotsuya Missionaries", TC vol.37 no.6, Apr. 1938; "Yotsuya Mission Calendar", Apr. 1938; "The Hitches Go To Korea", TC vol.37 no.7, May 1938; Annie Hitch, "Visit To A Korean Out-Station Bible School", TC vol.37 no.9, Jul. 1938; T.G. Hitch, "Progress And Need In Korea", TC vol.37 no.10, Aug. 1938; Emilie Hitch, “The Bible Training School in Korea”, TC vol.38 no.2, Dec. 1938; "A Visit to Jinsen", "New of the Work", "How the New Church Was Built", TC vol.38 no.4, Feb. 1939; "Opportunity Book of Yotsuya Mission" “Yotsuya Mission‘s Yearly Report", TC vol.38 no.6, Apr. 1939; “Workers Leaving”, TC vol.38 no.11, Sep. 1939; “Special Letter to You", TC vol.39 no.1, Dec. 1939; “Korean Training School”, TC vol.39 no.12, Nov. 1940; 백종구,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 쿰란, 2018.

백종구(전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3) 스틸 Still, Owen 1892.12.3.-1973.7.12.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목사, 선교사.

존슨성경대학(Johnson Bible College)과 신시내티성경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를 졸업하고, 환원협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에서 전도자로 사역했다. 커닝햄 부인(Emily Boyd Cunningham)의 선교사 동원으로 1937년 10월 24일 일본에 도착하여 커닝햄 부인의 사역을 보조했다. 1938년 1월부터 선임 선교사 힛치(Thomas G. Hitch)가 맡았던 월간 선교소식지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의 편집과 선교부의 회계를 인계받고, 선교부 교회들을 순방하여 교회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역의 문제들에 대해 목회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인 셜리 스틸(Shirley Swetnam Still)은 선교

부 제3교회에서 주일 오전 성경반을 개설하였다.

오웬과 셜리 스틸(Owen and Shirley Still) 부부

스틸은 1938년 3월 학생 설교자 훈련반을 시작하고 이어서 일본인 목회자반, 영어 성경반을 열고, 주일에 1개 반을 가르치고, 2개 교회에서 설교했다. 또 7월 주일 오후 자신의 거처에서 선교기지 성경학교를 열었다. 1939년 봄 힛치의 사역을 도우려고 한국을 방문하여, 힛치 관할 아래 있는 서울과 제물포(현재 인천)에서 선교부 교회들을 순방하며 사역들을 시찰하였다.

스틸은, 힛치가 1939년 8월 말 호주로 돌아간 후, 서울성경훈련원(Bible Training School)에서 가르치고 이끌어갈 한국인 사역자 홍종숙, 이인범, 신신근을 「도쿄 그리스도인」에 자세히 소개하였다. 또 새로운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까지 요츠야선교부는 6개월에 한 번씩 선교사를 파견하여 한국의 복음사역을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스틸은 한국의 복음사역 관리 차원에서 1940년 6월과 9월 각기 거의 한 달씩을 한국에서 보냈고, 1941년 초 일본에 일어난 변화(종교단체법과 교회합동)로 인해,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의 복음사역 지원이 3월 이후 끝날 경우를 대비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인 셜리 스틸과 자녀들은, 오웬 스틸 2세와 막내 딸 룻의 건강문제로, 미국 대사관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1940년 10월 31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스틸은 1941년 6월 초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전쟁 중 스틸은 미국에 머무르면서 재미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1941년 9월(40권 11호)~1943년 3월(43권 2호)까지 「도쿄 그리스도인」을 계속 편집했다.

전쟁 종료 후 1947년 2월 중순 일본에 돌아와 요츠야선교부의 재건

에 힘썼다. 그러나 부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최소 1년간 건조하고 따뜻한 지역에서 보내야 한다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1948년 6월 재차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가 당분간 애리조나 주 피닉스(Phoenix)에 머무르면서, 사우스웨스트기독신학교(Southwest Christian Seminary)에서 선교를 가르치고, 새로운 선교교회(Mission Church)를 개척했다.

스틸은, 부인의 건강 때문에 의사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950년 5월 4일 사역지를 옮겨 하와이로 떠났다. 하와이의 오하우(Oahu)섬에서 7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설립을 돕고, 팔롤로 밸리(Palolo Valley), 칼리히(Kalihi), 카네오헤(Kaneohe), 하우울라(Hauula), 와하이아(Wahiawa), 마이레(Maile), 선세트 비치(Sunset Beach)에 있는 교회들에서 목회했다. 1973년 7월 12일 오하우 섬 와하이아종합병원(Wahiawa General Hospital)에서 별세하여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파우(Waipahu, Honolulu County), 밀리라니추모공원(Mililani Memorial Park)에 안장되었다.

부인 셜리 스틸(Shirley Swetnam Still)은 글 솜씨가 있어 환원협회의 월간지 「환원전령」(Restoration Herald)에 기사를 많이 썼고, 커닝햄 부인과 공동으로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의 전기 *The Flaming Torch*(1939)를 저술했다. 별세 후 유해는 스틸의 묘지에 합장되었다. 자녀로는 아들 스틸 2세(Owen Still Jr.)와 딸 엘레노어(Eleanor Sprankles), 레베카(Rebecca Kerby), 룻(Ruth Powell)이 있었다.

[주요저술] "First Impressions of the Yotsuya Mission" (CS 15 Jan. 1938); “Member of Yotsuya Mission to Japanese on West Coast"(CS 25 Jul. 1942).

[참고문헌] [TC: Tokyo Christian, CS: Christian Standard, KM: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Mr. & Mrs. Owen Still", TC vol.XXXVII no.1, Nov. 1937; “Editorial”, TC vol.XXXVII no.2, Dec. 1937; "Mission News", TC vol. 37 no.3, Jan 1938; “Things Of Interest", TC vol.37 no.5, Mar. 1938; "Mission News", TC vol. 37

no.7, May 1938; "The Newest Out-Station Bible School", TC vol.37 no.9, Jul. 1938; "A Visit To Korea", TC vol.38 no.7, May 1939; “Account of A Tour of Yotsuya Mission Churches in Korea", TC vol.38 no.12 Nov. 1939; “Tour of Yotsuya Mission Churches in Korea", TC vol.39 no.1, Dec. 1939; "A School In Tokyo", KM Dec. 1939; "Tokyo Night School for Christian Workers", TC vol.39 no.2, Jan. 1940; “Mission News", TC vol. 39 no.9, Aug. 1940; "Why We Work in Korea", TC vol.39 no.10, Sep. 1940; "My First Trip To Korea", TC vol.39 no.12, Nov. 1940; “Mission News", TC vol.40 no.2, Dec. 1940; “Our Korean Work", TC vol.40 no.7, May 1941; "Brother Still to Spend Summer in America", TC vol.40 no.8, Jun. 1941; "Yotsuya Mission Entering New Field", TC vol.41 no.4, Feb. 1942; "Yotsuya Mission Entering New Field", TC vol.41 no.4, Feb. 1942; "Yotsuya Mission Executive Committee Meets", TC vol.42 no.1, Dec.1942; "Stills Get Health Furlough", TC vol.47 no.3, May-Jun. 1948; Eva Green, “Best Wishes to Stills”, TC vol.49 no.3, May-Jun. 1950;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1.htm; Nora Rebecca Kerby, In Word Or in Deed: The Story of Owen Still, Sr, Mission Services Press, 1970; https://www.findagrave.com/memorial/220401949/owen-stil; 백종구, “윌리엄 D. 커닝햄과 한국인 선교-동경 요시야선교회를 중심으로”, 「신학논총」 (2012); 백종구,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 쿰란, 2018.

백종구(전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1930년대 말에 오웬 스틸은 한국교회들의 방문 소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바가 있다.

첫째, 열정, 온 마음 찬양, 진실한 기도, 박력 있는 설교가 인상적이었다.

둘째, 친절과 환대에 놀랐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높다는데 놀랐다. 돈을 요구할까봐 한가득 걱정으로 한국에 갔지만,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뭄과 가난에 찌들어 있었지만, 주님의 일에 용기있게 나섰다.

넷째, 전도의 영이 충만하였다. 한국인들은 집중적으로 전도에 힘썼다. 그들은 선교기지를 열어 주일학교를 시작하면 곧이어 교회로 발전시켰다.

경북 구성군 방현기독교회 1935년 4월 21일

방현(芳峴)은 일본말로 '호겐'(Hoken)이라 불렸으며, 인구 4,000여명이 사는 구성군의 방현면 면소재지에 교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외국인의 발길이 전혀 닫지 않았던 외진 곳으로써 정주역에서 내려 버스로 25킬로미터 정도 가야하는 거리에 위치하였다. 커닝햄, 힛치, 에밀리 보이드 커닝햄과 쉼멜, 오웬 스틸 등이 이곳을 방문하였고, 1940년에 오웬 스틸이 방문하였을 때는 체육회가 열리는 때였는데, 전 주민의 관심이 스틸에게 쏠림은 물론이고 일경의 눈초리까지 받아야 해서 자리를 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43] 이때의 충격을 오웬 스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방현을 방문했을 때 체육회가 열렸는데, 아이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일경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일경들이 의식을 큰 소리로 진행시켰는데, 체육회는 황국신민서사의 낭독과 제창 및 동방요배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경찰까지도 백인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 현장을 떠나야 했다. 방현은 4,000여명이 사는 면소재지였다.

43) TC, 1940년 9월호.

스틸이 목격한 의식은 정확히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국가 합창(일본국가 기미가요), 2)동방요배(일왕이 사는 곳을 향한 궁성요배), 3)전사 장병 묵도, 4)황국신민서사 낭독, 5)식사(式辭), 6)천황폐하 만세 삼창.

일제는 1937년부터 공식화된 '황국신민의 서사'를 모든 조선인들에게 암기, 제창하게 하고 출판되는 모든 서적에도 반드시 실을 것을 강요하였다. 동방요배는 이미 191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1942년 이후 군국주의 정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각 교회들이 예배 시작 전에 동방요배를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II.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의 한국선교

1. '기독교회'(남대문통)의 출범과 J. 마이클 쉘리 선교사

J.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 가족 (1935.02.24). 한국기독교회 선교를 위해 자원한 선교사로서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도쿄 요츠야선교부의 후원자였고 실행위원의 한 사람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교단명칭은 '기독교회'였다. 그리고 그 '기독교회'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소개한 주체(主體)는 도쿄 '요츠야선교부'였고, 그 중심에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소속의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1864-1936) 선교사 부부가 있었다.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착수된 해는 1924년이다. 그해 3월 25일 커닝햄 부부는 서울에 입국하여 선교기지를 세우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였고, 5월에 도쿄(東京) 제1교회 '기독교회'에 다니던 유학생 박제곤을 파송하였으며, 이후로 다수의 인물들이 요츠야선교부에서 급여를 받고 '기독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였다. 그들은 장로교와 감리교 출신 몇 명을 빼고는 대부분이 성결교 출신이었다. 1932년 6월 11일 최초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라는 교단명칭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계출(신고)한[44] 성낙소는 원래 구세군 사관이었다. 성낙소는 1919년 충북 영동지방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

44) 「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하였다가 1920년 9월 25일 강제 포교폐지를[45] 당한 그해 8월부터 1922년 3월까지 경성성서학원(성결교)에서 수학한 바가 있다.[46] 그 후 성낙소는 구세군에 백의종군하였다가 사관으로 복직되었으나 구세군을 떠난 후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고향인 충남 부여군 화수리에서 1927년 1월 1일 자발적으로 '기독교회'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커닝햄 선교사의 초청을 받고 일본에 건너가 요코하마(橫浜)조선인기독교회를 섬기던 중에[47] 조선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 파송을 받아 1931년 9월 중순경에 귀국하였다. 그 후 이인범 목사에 의해서 1936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가 계출되어[48] 해방 때까지 지속되었다.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관리자들이었던 이인범(제1대)과 신신근(제2대)도 성결교 출신이었다.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 소속되었던 교회들은 오늘날 하나도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남아있지 않다. 남북분단이후 평안북도 구성군과 정주군에 세워졌던 기독교회들의 존폐여부는 알려진 것이 없다. 1943년 5월 인천의 금곡동교회와 유동(화정)교회가 송현기독교회에 병합되었고, 이인범 목사를 이어 포교관리자가 된 신신근 목사가 별세한지 8일 만인 1946년 12월 10일 신신근이 시무했던 인천송현기독교회가 인천송현성결교회로 재건되었으며, 1945년 11월에 송현기독교회에서 분리된, 정삼선이 시무했던, 또 하나의 교회는 인천제일장로교회(통합)로 재건되었다. 나머지 교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한때 요츠야선교부에서 급여를 받고 사역했던 성낙소 목사(경성교회)와 김문화(장로교 출신, 돈암 제2교회) 목사가 30년대 말에, 이난기(감리교 출신, 용산교회) 목사와 윤낙영(성결교 출신, 아현동교회) 목사가 해방 후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의 '기독교회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에 합류하였다. 이난기 목사는 1948-49년 사이에 이미 68세였고, 윤낙영 목사는 1955년 7월 6일부터

45) 「조선총독부관보」 제2438호 02면(대정 9년 9월 25일).
46) 성낙소, '제1장 성낙소의 출생과 가정 및 교양,' 『자서전』.
47) 성낙소, '제2장 자각적으로 신약교회의 명칭을 사용,' 『자서전』.
48) 「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

1958년 전반기까지 영등포침례교회에서 목회하였다. 김문화 목사는 일제강점기 때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1949년 초에 별세하였다. 이로써 끝까지 살아남아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사역을 이어간 인물은 1964년에 별세한 필운동그리스도의교회의 담임목사 성낙소(1890-1964) 뿐이었다.

J. 마이클 쉘리 선교사 가족 환영 기념 사진(1935년 3월 24일)
사진이 촬영된 곳은 인천송현기독교회로서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가 3개월 전에 토마스 힛치 선교사와 함께 방문했던 곳이다. 앞줄 중앙의 외국인 남성이 쉘리이고, 우측이 딸 레이첼이며, 그 옆이 이인범 목사이다. 쉘리 부인 옆은 공립교사 출신으로서 통역을 했던 김영배 집사이다.

커닝햄 선교사는 한국에 주재하되 필요한 선교비용을 알아서 조달할 수 있는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었다.[49] 이 모집에 지원한 인물이 J.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였다. 선교사에 지원할 당시 쉘리는 요츠야선교부의 후원자였고 실행위원의 한 사람이었다. 쉘리 가족은 1934년 1월 16일부터 한국에 입국할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쉘리 가족은 이듬해인 1935년 2월 21일 미국을 떠나 3월 10일 일본에 도착하여 1주일간 요츠야선교부의 선교활동을 견학하였다. 쉘리 가족은 3월 20일경 한국에 도착하여 24일 첫 주일 예배를 이인범 목사가 시무하던 제물포 제1교회(송현기독교회)에서 드렸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935년 4월 25일 쉘리는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115번지(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기독교회(基督教會 南大門通)' 포교관리자설치계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는 별개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계출하였다.[50] 그리고 그것은 이인범 목사가 1936년 7월 8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교파명변경계를 계출한[51] 것보다 무려 14개월 13일이나 빠른 것

49)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 이하 TC, 1933년 8월호.
50) 「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년 6월 15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의 건-경기(국가기록원).

이었다. 여기서 '남대문통'(南大門通)이란 교단의 어떤 파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포교관리자사무소의 주소를 지칭한 것으로써 '남대문로(南大門路)' 혹은 '남대문가(南大門街)'를 뜻한다.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당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기독교회'(남대문통)가 새로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요츠야선교부는 재정의 곤란함을 겪고 있었다. 세계가 경제대공황을 겪고 있던 시기였으며 요츠야선교부는 산하의 모든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선교부의 대표자인 커닝햄은 절대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기조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조선선교에 쓰이는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반면에 커닝햄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의 급여를 깎아서 부족한 예산을 메우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다.

요츠야선교부의 선교사들
앞줄 좌측부터 슈노버(Ruth Schoonover), 커닝햄(W.D. cunningham) 부부, 빤햄(Farnham), 뒷줄 좌측부터 채이스(John T. chase) 부부, 레몬(Vivian Lemmon).

첫째는 존 T. 채이스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이 요츠야선교부를 떠난 것이었다. 커닝햄 선교사가 급여삭감을 항의한 채이스 선교사를 파면했기 때문이다. 커닝햄은 1934년 10월에 채이스를 자기 집으로 불렀고, 찾아온 채이스를 문밖에 세워놓은 채로 파면을 선언하였다. 이에 항의하여 커닝햄의 다른 고용 선교사들인 비비안 레몬(Vivian Lemmon), 그레이스(Grace), 빤햄(Farnham), 루스 슈노버(Ruth Schoonover)도 사임하였으며, 이들 중 채이스 가족을 뺀 나머지 대부분은 일본에서 독립 선교사로 활동을 다시 시작하였다. 이뿐 아니라, 10개 처의 일본인 교회들도 선교부와 단절을 선언하였다.[52]

---

51) 「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

52)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

둘째는 성낙소 목사가 요츠야선교부로부터 1933년 5월 20일 조선지역 포교관리자에서 부당하게 해임되고, 그 대신에 이인범 목사가 1933년 6월 5일 조선기독교회 포교관리자로 선임된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 성낙소는 자신의 『자서전』('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에서 "... 동경 심천교회(東京深川教會) 교역자 이인범(李寅範)이 고향인 황해도 곡산을 방문하는 중에 조선에 귀환하려던 전일에 욕망하였던 것을 재차 발전(發展)키 위하여 동경으로 가서 선교사에게 그럴듯한 모략을 하되, 성군이 본국에서 자기가 포교관리자가 되어 교파를 조직하였다고 보고 한즉 커닝함 선교사가 즉시로 성에게 해직통고서를 발송한 후에 모략자가 후임 하였다."고 적었다. 반면에 커닝햄은 「도쿄 그리스도인」 1933년 8월호 '한국을 위한 확대 프로그램'(Enlarged Program for Korea)에서 교단을 탈퇴한 수십여 개의 교파교회들 가운데 다수가 신약성경교회에 가입을 원하고 있고, 그들의 요청에 부응할 일군을 목회자들이 요청하고 있어서, 한국을 충분히 잘 알고, 복음을 충분히 잘 알며, 복음을 충분히 잘 전파할 인물이 이인범이어서 수도 서울에 강력한 교회를 세우도록 그를 한국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또 그보다 3개월 전 5월호 '이 목사의 두 번째 한국 조사'(Mr. Lee's Second Survey in Korea)에서 많은 지역들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갈렙과 여호수아"인 이인범에게 더 머물면서 "신조는 오직 그리스도뿐인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more about the church that has no creed but Christ)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바랐다고 적었다. 이로써 독자는 이인범 목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커닝햄에게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를 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인범은 자신의 바람대로 동년(1933년) 9월에 시무하던 도쿄 후카가와(深川)조선기독교회를 사임하고 입국하여 기독교회 인천송현교회를 맡아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1936년 1월 10일이 되기까지 조선총독부의 비협조로 합법적인 포교관리자로 활동할 수가 없었다.

셋째는 커닝햄이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를 포용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커닝햄은 일본에 도착한 J. 마이클 쉘리 가족을 도쿄에 묶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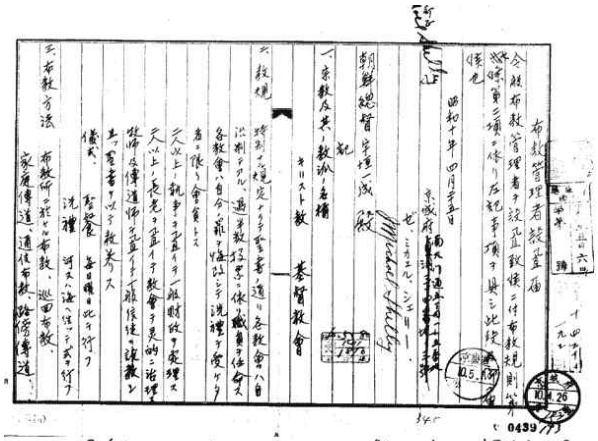
www.bible101.org/ japanmissions/page05.htm.

어두고 싶어 했다. 다수의 선교사들이 선교부를 떠났기 때문에 커닝햄으로서는 떠나버린 선교사들이 맡았던 업무를 대신해줄 다른 선교사들이 몹시 필요했었다. 그러나 쉘리는 도쿄에 머물러 달라는 커닝햄의 간청을 뿌리쳤다. 쉘리는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게 약조(約條)한 본래의 목적대로 한국에서 사역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때 커닝햄이 취했어야할 조치는 이인범을 대신해서 쉘리를 조선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로 세웠어야했다. 그러나 커닝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쉘리가 한국에서 파악한 사실은 이인범이 조선총독부의 포교규칙을 어기고 불법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기독교회들에 미칠 나쁜 결과를 우려한 쉘리는 이 사실을 커닝햄에게 즉시 알렸고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커닝햄은 이 요청을 거절하였다. 커닝햄 선교사는 조선총독부의 포교규칙에 따른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었다. 게다가 커닝햄은 절친한 이웃이었던 조선총독부의 총독(1919-27, 1929-31)과 일본정부의 수상(1932-1934)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 자작으로부터 조선선교를 승인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마코토의 승인은 구두에 불과하였지 포교규칙에 따른 문건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넷째는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를 계출(신고)한 쉘리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5월 25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비정상적인 정황을 고발하는 서신을 작성하여 커닝햄 선교사 후원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추정컨대 쉘리가 취한 이 일련의 재빠른 행동들은 이인범도 커닝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사이토 마코토가 요츠야선교부에 조선포교를 허가하였으니, 조선선교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커닝햄은 그제야 사태파악에 나섰고, 서둘러 성낙소를 이인범으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선결과제들을 제시하면서 신고서를 접수받지 않았다. 다급해진 커닝햄은 사이토 마코토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썼고 직접 만났으며, 수차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서신을 발송하였다. 결국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성낙소와 이인범을 1936년 1월 10일 소환하여 성낙소에게 포교관리자사직서를 쓰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인범의 포교관리자변경계를 접수받았다. 만일 사

이토의 강력한 지원이 없었다면, 만일 쉘리 가족이 선교사역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다면, 만일 총독부가 성낙소 목사에게 사직서를 강제하지 않았다면, 사태의 심각성으로 볼 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요츠야선교부에 의한 조선선교는 1924년에 시작되었으나 교단명칭과 포교관리자를 반드시 등록하고 포교규칙에 따라 교단에서 발생하는 사사건건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1932년 6월 11일에 기독교회를 조선총독부에 등록시킨 인물은 성낙소였다. 요츠야선교부는 그 때까지 무려 8년간을 마코토가 구두로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불법선교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J. 마이클 쉘리(1890.06.07-?)가 1935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 설치 주소가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115번지'로 되어 있다.

J. 마이클 쉘리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유진," 이름을 "J. 미카엘(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 생년월일을 "1890년 6월 7일생" 이라고 적었다. 또 학력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유진대학 신학과 졸업," 경력을 "아메리카 합중국 오리건 주 얌힐(Yamhill) 시 기독교회 감독목사 임명"이라고 기재하였고, "금년 3월 조선선교사로 임명파송"이라고 적었다. 함께 제출된 안수증서를 보면, 쉘리는 1923년 8월 12일 오리건 주 얌힐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것은 그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을 당시 미국에서 12년 이상 목회한 경력을 가진 만 45세의 중년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쉘리는 1935년 4월 25일 계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 원서에서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115번지"로 적었고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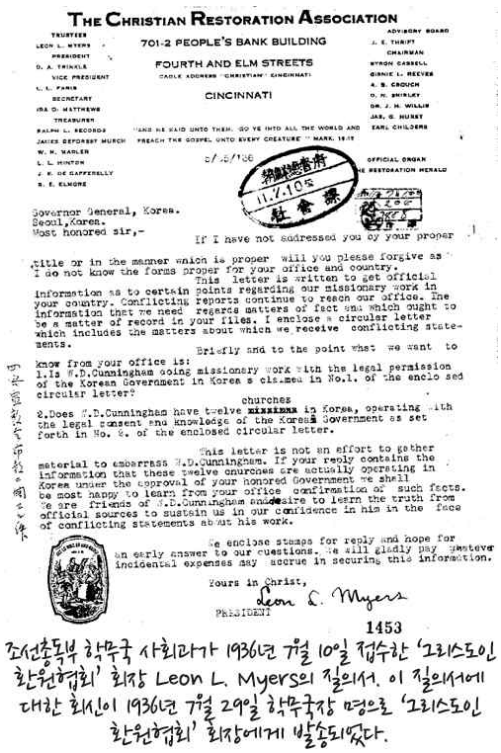
제1항 종교 및 기타 교파 명칭: キリスト教(크리스토교) 기독교회.

제2항 교규(教規): 특별한 규정 없이 성서를 통해 각 교회가 자치제로 과반수 투표로 직원을 임명. 각 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에 한하여 회원으로 인정. 2인 이상의 집사를 두어 일반재정을 정리. 2인 이상의 장로를 두어 교회의 영적 치리를 맡김. 목사 및 전도사를 두어 일반 신도에게 설교 및 성서적으로 권면. 의식에 있어서는 성찬을 매일요일마다 행하며, 세례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행함.

제3항 포교방법: 포교소에서의 포교, 순회포교, 가정전도, 통신포교, 노방전도.

제4항 포교관리자의 권한: 기독교회의 대표, 포교사무 총괄, 교직 신분 진퇴(進退) 및 상벌.

제5항 포교자 감독방법: 관리자가 각 교회를 방문하거나 통신을 통해서 감독 지도.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701-2 PEOPLE'S BANK BUILDING
FOURTH AND ELM STREETS
CINCINNATI

Governor General, Korea.
Seoul, Korea.
Most honored sir,-

If I have not addressed you by your proper title or in the manner which is proper will you please forgive as I do not know the forms proper for your office and country.

This letter is written to get official information as to certain points regarding our missionary work in your country. Conflicting reports continue to reach our office. The information that we need regards matters of fact and which ought to be a matter of record in your files. I enclose a circular letter which includes the matters about which we receive conflicting statements.

Briefly and to the point what we want to know from your office is:

1.Is W.D.Cunningham doing missionary work with the legal permiss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Korea as claimed in No.1. of the enclosed circular letter?

churches

2.Does W.D.Cunningham have twelve missions in Korea, operating with the legal consent and knowledge of the Korean Government as set forth in No. 2. of the enclosed circular letter.

This letter is not an effort to gather material to embarrass W.D.Cunningham. If your reply contains the information that these twelve churches are actually operating in Korea under the approval of your honored Government we shall be most happy to learn from your office confirmation of such facts. We are friends of W.D.Cunningham and desire to learn the truth from official sources to sustain us in our confidence in him in the face of conflicting statements about his work.

We enclose stamps for reply and hope for an early answer to our questions. We will gladly pay whatever incidental expenses may accrue in securing this information.

Yours in Christ,
Leon L. Myers
PRESIDENT

1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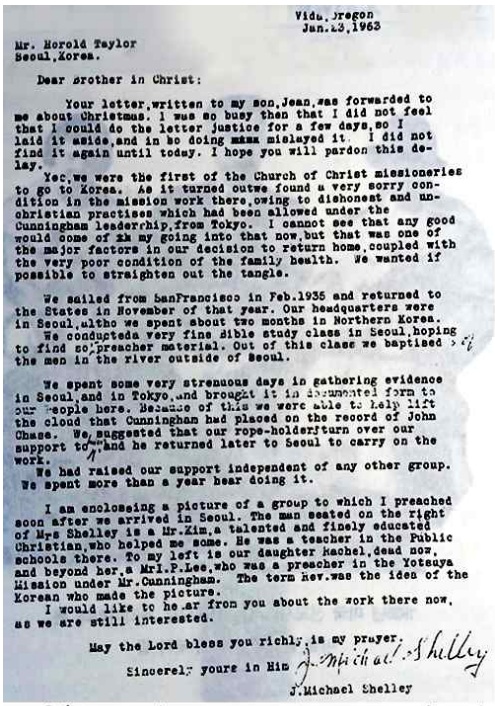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가 1936년 7월 10일 접수한 '그리스도인 환원협회' 회장 Leon L. Myers의 질의서. 이 질의서에 대한 회신이 1936년 7월 29일 학무국장 명으로 '그리스도인 환원협회' 회장에게 발송되었다.

제6항 포교관리사무소위치: 경성부 남대문통 세브란스병원구내.

제7항 포교관리자씨명: J.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y).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는 본래부터 감독자가 없었으나 일제의 통제 아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성낙소, 쉘리, 이인범, 채이스의 포교관리자설치계 또는 포교관리자변경계에 담긴 내용들은 상기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

1924년 이후 1935년까지 요츠야선교부의 선교사들인 커닝햄 부부가 수차례 또 존 채



Vida, Oregon
Jan.23,1963

Mr. Herold Taylor
Seoul,Korea.

Dear Brother in Christ:

Your letter,written to my son,Jean,was forwarded to me about Christmas. I was so busy then that I did not feel that I could do the letter justice for a few days,so I laid it aside,and in so doing mmm misleyed it. I did not find it again until today. I hope you will pardon this delay.

Yes,We were the first of the Church of Christ missioneries to go to Korea. As it turned outwe found a very sorry condition in the mission work there,owing to dishonest and unchristian practises which had been allowed under the Cunningham leadership,from Tokyo. I cannot see that any good would come of us my going into that now,but that was one of the major factors in our decision to return home,coupled with the very poor condition of the family health. We wanted if possible to straighten out the tangle.

We sailed from SanFrancisco in Feb.1935 and returned to the States in November of that year. Our headquarters were in Seoul,altho we spent about two months in Northern Korea.
We conducteda very fine bible study class in Seoul,hoping to find so preacher material. Out of this class we baptised 5 of the men in the river outside of Seoul.

We spent some very strenuous days in gathering evidence in Seoul,and in Tokyo,and brought it in documented form to our people here. Because of this we were able to help lift the cloud that Cunningham had placed on the record of John Chase. We suggested that our rope-holderturn over our support to him,and he returned later to Seoul to carry on the work.
We had raised our support independent of any other group. We spent more than a year hear doing it.

I am enclosseing a picture of a group to which I preached soon after we arrived in Seoul. The man seated on the right of Mrs Shelley is a Mr.Kim,a talented and finely educated Christian,who helped me some. He was a teacher in the Public schools there. To my left is our daughter Rachel,dead now, and beyond her,a Mr.P.Lee,who was a preacher in the Yoteuya Mission under Mr.Cunningham. The term Rev.was the idea of the Korean who made the picture.
I would like to hear from you about the work there now, as we are still interested.

May the Lord bless you richly,is my prayer.

Sincerely yours in His

J.Michael Shelley

마이클 쉘리가 테일러 선교사에게 쓴 편지(1963년 1월 23일)

이스가 한 차례 조선기독교회들의 현황파악을 위해서 방문한 바가 있었어도 순수하게 조선기독교회 곧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만을 위해서 입국한 선교사는 J. 마이클 쉘리 가족이 최초였다. 그의 가족이 한국에서 행한 일은 '기독교회'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계출한 것과 서울에 성경공부반을 개설하여 참여자들 가운데 세 명에게 침례를 베푼 것이었고, 북한지역에서 약 2개월간 사역한 것이었다. 쉘리 가족은 한국에 도착한 이후 열정적으로 선교를 시작하였지만, 세 가지 중대한 이유로 한국 체류 7개월만인 1935년 10월 28일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첫째 이유는 가족의 건강문제였다. 쉘리는 폐병에 걸려 3년간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의 딸 레이첼은 혈우병을 앓았다. 둘째 이유는, 쉘리가 미국 오리건 주, 바이다에서 1963년 1월 23일에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에게 쓴 편지내용에 의하면, "도쿄 주재 커닝햄 선교부의 감독아래 허락된 부정직과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위들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이 매우 유감스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53] 셋째 이유는 커닝햄과의 불화로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오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본토에서는 요츠야선교부에서 해고된 채이스와 커닝햄 사이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때였다. 쉘리와 커닝햄의 불화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 때문에 쉘리는 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서울과 인천 및 도쿄에서 증거자료 수집에 매달렸고,

53)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117.

수집된 자료들을 미국에 가져가 공개하였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환원협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가 조선총독부에 확인서를 요청하는 서신을 몇 차례 주고받는 성가신 일이 있었으나 커닝햄이 채이스의 이력에 깔아놓은 먹구름을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고, 자신에게 선교헌금을 보냈던 후원자들에게 채이스 가족이 한국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쉘리 가족의 한국 선교를 후원했던 많은 수가 채이스 가족에게 후원을 지속하게 되었다.[54] 게다가 쉘리는 채이스가 한국에서 보내준 슬라이드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진들을 보고자 요청하는 교회들을 찾아가 기독교회선교부의 사역자들과 사역들을 설명하였다.[55]

2. '기독교회'(남대문통)의 발전과 존 T. 채이스 선교사

1)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전반기 선교활동(1936.11.07-1940.05.31)

John T. Chase(1905.09.17-1987.0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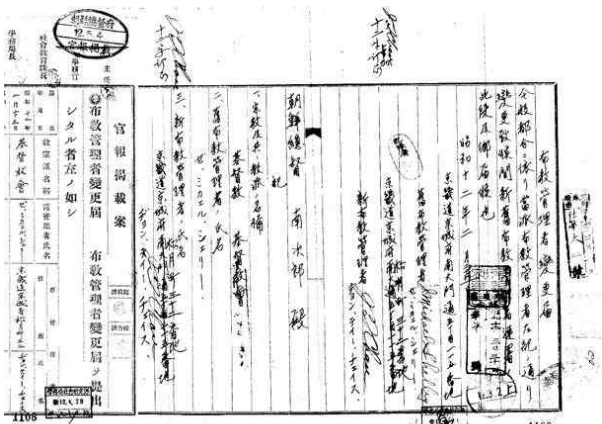
1927년 3월 4일부터[56] 1934년 11월까지 W. D. 커닝햄(Cunningham)의 요츠야선교부에서 7년 8개월간 월급 선교사로 헌신하였던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가족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1936년 11월 7일이었다. 도쿄 요츠야선교부에서 해임되고 본국에 돌아가 잉글우드 하이츠 그리스도의 교회(Inglewood Heights Church of Christ)에서 1년하고 수개월째 목회하다가 다시 선교사가 되어 서울로 온

54) 참고: http://kccs.info/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pdf; "John T. Chase to Evangelize in Korea," *Christian Standard*(이하 CS), 29 February 1936: 209.

55) "Korean Mustard Seeds," KM, 1938년 2월호.

56) TC, 1927년 4월호.

것이었다.[57] J. 마이클 쉘리 가족이 1935년 10월 28일 한국을 떠난 지[58] 만 1년 만이었다. 그리고 채이스 가족이 게이조 쇼게추조(경성부 송월동) 32번지의 큰 건물(영국 해외성서공회 소유)을 임대하여 입주한 것은 그해 12월 말이었다.[59] 그리고 이듬해인 1937년 2월 25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J. 마이클 쉘리를 존 T. 채이스로 바꾸는 포교관리자 변경계를 계출하였다. 채이스가 조선총독부에 계출한 포교관리자변경계를[60] 보면, 쉘리가 1935년 4월 25일에 등록한 "기독교회"란 교파명칭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다만 포교관리자를 "J. 마이클 쉘리"에서 "존 T. 채이스"로, 포교관리자의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115번지"에서 "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로 변경하였다. 그 밖의 것은 쉘리가 제출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채이스가 신청한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 및 관보게재안(1937.02.25)

채이스는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본적을 "아메리카 합중국 테네시 주 브리스틀 시"로, 생년월일을 "1905년 9월 17일생"으로, 학력을 "1926년 6월 12일 아메리카 합중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신학 졸업"으로, 경력을 "1927년 3월 4일부터 1934년 11월 2일까지 동경 선교사 종사" 및 "1934년 12월 1일부터 1936년 3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잉글우드 기독교회 목사로 종사"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1936년 11월 7일 조선선교사로 임명파송"되었다고 적었다.

채이스는 1937년 2월 25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여 조선기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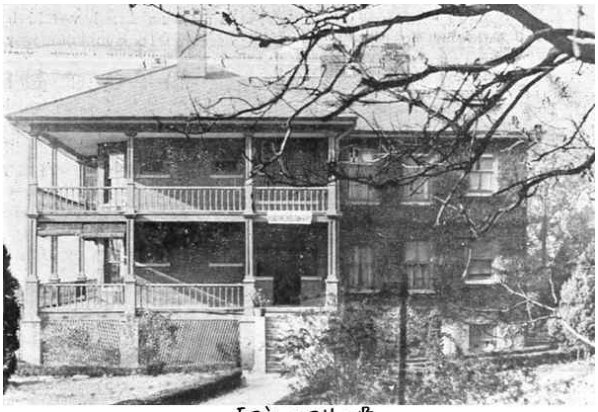
57) KM, 1937년 8월호.
58) TC, 1936년 1월호.
59) KM, 1937년 2월호.
60) 「조선총독부관보」 제3087호 9면(소화 12년 5월 4일);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국가기록원).

회 제2대 포교관리자가 된 지 6개월 반쯤 지난 9월 6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자기 자신의 포교계를 계출하였다.[61] 존 채이스 가족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 도쿄에서 7년 8개월간 사역하였기 때문에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한국인들의 상당수가 일본어를 알아듣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장점으로 채이스는 193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사역에 돌입하여 '기독교회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 격월간지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KM) 및 '한국인성경훈련원'(The 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을 설립하였다.

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Vol. I Seoul, Korea, February 1937 No. I
基督敎會
채이스 선교사가 1937년 초에 설립한 '기독교회'선교부 (Korean Christian Mission) 직인 및 <한국인 전령>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발간호

채이스 부부는 한국어를 익히기 위해서 한국어 교사를 채용하였는데, 그에게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가르쳐 한국인성경훈련원 제1호 학생과 제1호 개척교회 사역자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오산고등보통학교(오산고제)와 협성신학교를 나온 김요한 목사로서 미국 밀샙스 대학(Millsaps College)의 수리학과를 졸업한 후 에모리 대학교(Emory University)에서 B.D.(오늘날의 M.Div)를 받고 귀국한 감리교 목사였다.[62] 김요한은 1919년 춘천감리교회 목사 때인 20대 초중반 때 테일러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경력자였다. 그는 매일 채이스 가족에게 한국어를 가르쳤고, 채이스는 그에게 신약성경교회를 가르쳤다. 김요한은 선교사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자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사도행전 8장을 공부하던 날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침례를 베푸는 장면(행 8:38)에 이르렀을 때 선교사에게 물었다. "선교사님, 어째서죠? 저는 결코 침례를 받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 문답이 있고나서 김요한은 자신도 내

61) 「조선총독부관보」 제3221호 4면(소화 12년 10월 9일).
62) 「동아일보」, 1931년 1월 17일자.



기독교회 선교부 건물
존 T. 채이스 선교사가 1939년 영국 해외성서공회로부터 구입하였다.
(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

시처럼 침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1937년 1월 23일 목욕탕을 세내어 침례를 받았다. 김요한은 물에서 나온 즉시로 목욕탕 종업원에게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인 침례(Christian baptism)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채이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 신약성경 그리스도인입니다."(I am now a New Testament Christian.)고 하였다.[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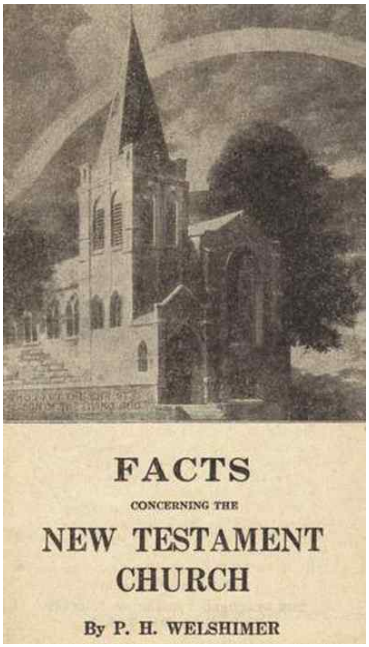
김요한은 채이스 선교사의 첫 번째 학생과 제1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 송월동 선교부 지하실에 설립한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일주일에 4일씩 신약성경기독교에 대해서 학습하던 김요한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제가 내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것을 전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요한은 1937년 2월에 교회가 없는 신당동 지역에 가정집을 임대하였다. 그리고 가족이 그곳으로 이사하여 살면서 3월 7일 첫 주부터 예배를 드림으로써 신당정기독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5월 22일 김요한은 한강에서 자신의 19살 된 아들을 포함해서 5명에게 첫 침례를 베풀었다.[64] 채이스는 1937년 6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하였다.[65]

김요한은 채이스가 선교부 건물 지하실에 개설한 한국인성경훈련원

63) "An Opportunity" and "Investment Returns," KM, April 1937: 1, 3; "Brother Chase Has His First Korean Convert," *CS*, 27 February 1937: 166; "Language Teacher Baptized in Korea," *CS*, 20 March 1937: 237.

64) "Another Victory in Korea," *CS*, 3 July 1937: 602.

65) 「조선총독부관보」 제3178호 10-11면(소화 12년 8월 18일).



에서 대략 4년간 신약성경교회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또 교재로 사용한 P. H. 웰시머(Welshimer)의 *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사실들)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김요한은 선교사들이 부재한 1941년 3월부터 1944년 6월 26일까지 기독교회의 제3대 포교관리자를 지냈다.[66] 그가 포교관리자폐지를 당한 지 나흘 뒤인 6월 30일에 기독교회들은 폐쇄를 당하였다.[67]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또 다른 감리교회 목사가 자신이 저술한 계시록에 관한 소책자들을 팔려고 채이스를 찾아왔다. 그가 바로 평양숭실중학교, 연희전문학교(문과 제1회, 철학과 신학) 및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다년간 연희전문학교 조교수, 신학교 강사 및 감리교 잡지『신학세계』의 편집인을 지냈던 최상현 목사였다. 그 방문의 결과로 최상현 목사 역시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학습하기 시작하였고,[68] 머지않아 성경적인 침례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으며, 1937년 9월 1일에 한강에서 침례를 받았다.[69] 어느 날 최상현은 채이스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감리교회를 탈퇴하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 only)으로서 그리스도(인)의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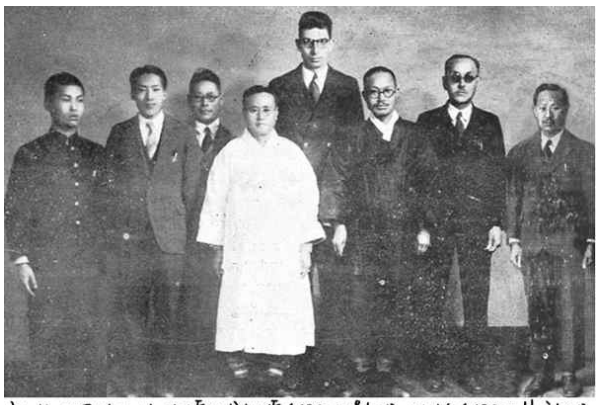
66) "김요한은 교회들의 법적 대표로서 저자(채이스)를 대신합니다." "The Situation in Korea," KM, 1941년 5월호; "The Korean Christian Mission(In Retrospect)," KM, 1946년 5월호); '포교관리자변경계,' 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67)「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68) "Notes From the Hermit Kingdom," *CS*, 19 June 1937: 553; "Methodist Minister Becomes Christian Only," *CS*, 20 November 1937: 1081.

69) "Another Preacher Accepts New Testament Christianity," KM, October 1937, 1; "The Gospel Wins Another Denominational Preacher," *CS*, 9 October 1937: 937.

들의 교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자 선교사가 말하기를, "아 그러세요. 자랑스럽겠군요?" 그러자 최상현 목사가 대답하기를, "예,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상현은 채이스의 제2교회 사역자가 되어 1937년 10월 17일에 첫 예배를 드린 돈암정기독교회를 창립하였다.[70] 최상현이 기독교회로 환원하자, 기독교조선감리회는 1937년 12월 15일 포교규칙 제2조의 의거 최상현(경기도 경성부 천연정 34번지)의 포교폐지계를 계출하였다.[71] 채이스는 최상현이 1937년 10월 17일 제2호 교회인 기독교회 돈암정교회를 개척하자 동년 11월 10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돈암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40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72] 12월 2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최상현(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400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계출하였다.[73]



채이스 선교사의 사역자들/신학자생들(1938년 1월경), 성낙소(1939년 봄/합성) 좌측부터 성수경(성낙소의 아들), 박판조 목사(정릉리교회), 배낙중 목사(왕십리교회), 김도한 목사(신당정교회), 채이스 선교사, 최상현 목사(돈암정교회), 김문화 목사(삼돈암정교회), 성낙소 목사(내수정교회)

채이스의 제3교회는 늦어도 1939년 4월 중순 전에 편입된 성낙소 목사의 내수정의 경성기독교회였다. 성낙소 목사는 1916년 경성구세군사관학교 및 1922년 경성성서학원을 졸업하였으며, 1927년 1월 1일 충남 부여군 화수리 2구 290번지 처가 사랑채에서 기독지교회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1930년 5월부터 1931년 9월까지 채이스의 감독을 받으며 일본 요코하마조선인기독교회를 섬겼고, 1931년 9월부터 1933년 5월까지 20개월 동안 조선기독교회 포교책

70) "Korean Mustard Seeds," KM, December 1937: 2.
71) 「조선총독부관보」 제3304호 4면(소화 13년 1월 24일).
72) 「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3면(소화 12년 12월 16일).
73) 「조선총독부관보」 제3316호 6면(소화 13년 2월 7일).

임자를 지낸바가 있다. 성낙소 목사는 제2대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및 제1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였던 이인범 목사의 보복으로 1936년 9월 4일 기독교회 포교자 자격을 잃었고,[74] 자신의 이름으로 계출(신고)된 모든 것들을 세탁당한 후[75] 조선야소교회에 가입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다. 조선야소교회는 1938년 3월 31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를,[76]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60번지 거주)의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경성교회에 성낙소 목사의 포교담임자 선정계를 계출하였다.[77]

성낙소는 1938년 전반기에 채이스와 재회하였다. 채이스는 '한국인 겨자씨'(Korean Mustard Seeds)에서[78]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대략 7-8년 전에 도쿄에서 한 한국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왔고, 우리는 그 후로 그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12월 24일 아침에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자기가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놀랐을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7-8년 전에 그의 아버지에게 준 명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쿄에서 채이스로부터 명함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성낙소 목사였고, 그의 아들은 성수경(목사)이었다.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가입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김문화로부터 채이스가 한국에 와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도 선뜻 만나지 못하다가 아들을 한국인성경훈련원에 보냈던 것이다.

성낙소는 1938년 11월 4일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았고, 1939년 초에 제3교회로 편입하였으며, 1940년 3월 25일까지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신약성경교회를 공부하였다.[79] 채이스는 1939년 3월 29일 경기도

---

74) 「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75) 「조선총독부관보」 제3042호 6면(소화 12년 3월 9일), 제3143호 9면(소화 12년 7월 8일).

76) 「조선총독부관보」 제4024호 3면(소화 15년 6월 21일).

77) 「조선총독부관보」 제4038호 4-5면(소화 15년 7월 8일).

78) KM, 1938년 2월호.

79) "May I Introduce to You," KM, March 1949; "After Two Years," *CS*, 18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에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 목사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80]

채이스의 제4교회는 박판조 목사가 1939년에 개척만 하고, 담임은 김문화 목사가 맡았던 산돈암정기독교회였다. 김문화 목사는 장로교 출신의 목사로서 성낙소와 함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사역자였으나 이인범 목사의 보복으로 1936년 9월 4일 기독교회 포교자 자격을 잃었다.[81]

김문화는 1937년 6월 7일 박판조와 함께 한강에서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채이스는 한국인성경훈련원에 성실히 출석하여 공부하는 장로교출신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연장자가 어느 날 채이스에게 말하기를, "저는 20여년 이상 많은 선생들로부터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가 구원에 본질이라는 것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라고 하였고, 장로교출신인 이 두 사람이 6월 7일 월요일에 침례를 받고자하여 한강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하였다.[82] 김문화와 박판조는 장로교출신이었고 채이스의 학생들이었다. 그러므로 김문화는 1937년 전반기에 채이스와 재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1937년 4월경에 성낙소에게 채이스의 소식을 전하였고,[83] 1938년 1월경에 촬영한 한국인성경훈련원 제1회 2학기 단체 사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채이스는 그를 김요한, 최상현, 박판조와는 달리 기독교회 목회자로는 소개하지 않았다. 그 때 김문화에게는 섬기고 있는 기독교회가 없었기 때문이다.[84] 채이스는 1940년 1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의 포교계를,[85]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자신의 제4호 교회인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산

March 1939: 262; 17 June 1939: 594; "Three Evangelists," *CS*, 8 July 1939: 666.

80) 「조선총독부관보」 제3726호 9-10면(소화 14년 6월 23일).

81) 「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82) "Another Gospel Victory in Korea," *CS*, 17 July 1937.

83) 성낙소, 『자서전』.

84) KM, 1938년 2월호.

85) 「조선총독부관보」 제3943호 3면(소화 15년 3월 14일).

55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86] 포교규칙 10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에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성북정 109의 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87]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도서출판 한림, 2006: 289)는 김문화 목사를 김동열 목사의 부친으로 적고 있다.

채이스의 제5교회는 박판조 목사가 1939년에 개척한 정릉리기독교회였다. 채이스 선교사가 총애하고 아꼈던 채이스보다 3살 어린 젊은 전도자였다. 박판조는 채이스에게 추천될 당시 수년째 성서공회에 고용되어 있었다. 박판조는 29살 때인 1937년 6월 7일에 김문화 목사와 함께 한강에서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88] 그리고 1937년 11월 1일부터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박판조는 채이스가 자신의 디모데가 될 재목으로 꼽았고, 채이스가 마음을 준 젊고 능력 있는 일군이었다.[89] 박판조는 1938년 5월 3일에 결혼하였다. 채이스는 이 당시 조선에서는 부모가 정해준 배필과 이유를 막론하고 혼인해야 했고, 박판조가 이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신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가정도 부유했다고 적었다.[90] 채이스는 1940년 5월 17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박판조(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계를,[91]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에 박판조(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92]

그러나 채이스의 이들 교회들은 일제에 의해 폐쇄조치를 당하였다. 1941년 3월경부터 1944년 6월 26일 포교관리자폐지계를 신고할 때까지 만 3년간 '기독교회' 제3대 포교관리자였던 김요한은 세 차례나 옥고를

86) 「조선총독부관보」 제3946호 2면(소화 15년 3월 18일).

87) 「조선총독부관보」 제3956호 6면(소화 15년 3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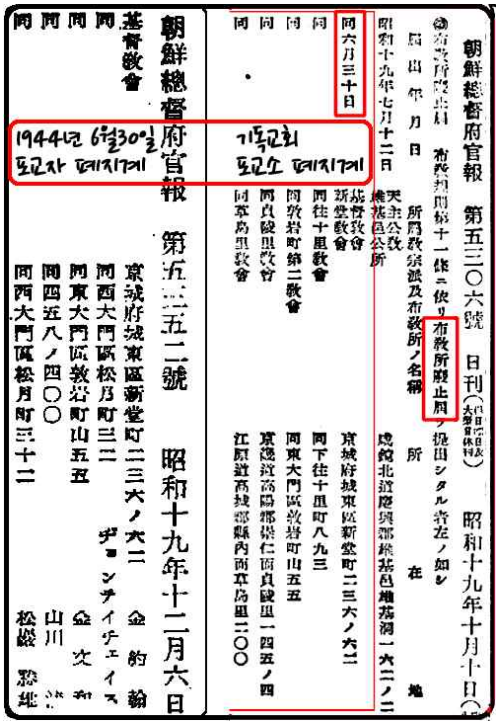
88) "Another Gospel Victory in Korea," *CS*, 17 July 1937: 6; "Korean Christian Mission Notes," 21 August 1937: 769.

89) "Korean Mustard Seeds," KM, December 1937: 3-4; "Introducing Pan Jo Pak of 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 *CS*, 11 December 1937: 1154.

90) KM, June 1938: 1; "For This Cause," *CS*, 2 July 1938: 657.

91) 「조선총독부관보」 제4037호 12면(소화 15년 7월 6일).

92) 「조선총독부관보」 제4035호 2-3면(소화 15년 7월 4일).


朝鮮總督府官報 第五三〇六號 日刊 昭和十九年十月十日
布教所廢止屆 布教規則第十一條ニ依リ 布教所廢止屆ノ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屆出年月日 所屬教宗派及布教所ノ名稱 所在地
昭和十九年七月十二日 天主公教 維基邑公所 咸鏡北道慶興郡維基邑維基洞一六二ノ二
同六月三十日 基督教會 新堂教會 京城府城東區新堂町二三六ノ六二
同 同往十里教會 同下往十里町八九三
同 同敦岩町第二教會 同東大門區敦岩町山五五
同 同貞陵里教會 京畿道高陽郡崇仁面貞陵里一四五ノ四
同 同草島里教會 江原道高城郡縣內面草島里二〇〇
朝鮮總督府官報 第五三五二號 昭和十九年十二月六日
基督教會 京城府城東區新堂町二三六ノ六二 金約翰
同 同西大門區松月町三二 ヂョンチイチェイス
同 同東大門區敦岩町山五五 金文和
同 同四五八ノ四〇〇 山川
同 同西大門區松月町三十二 松巖 聡雄
1944년 6월30일 포교자 폐지계
기독교회 포교소 폐지계

치렀고, 1944년 6월 30일 ‘기독교회’ 포교자 및 포교소폐지계를 신고하였다. 이때 폐지 신고된 포교자는 성낙소를 뺀 채이스와 나머지 목회자들이었으며, 포교소는 신당정교회, 왕십리교회, 돈암 제2교회, 정릉리교회, 초도리교회였다.[93]

채이스 선교사 가족이 1940년 6월 1일 안식년과 모금을 위해서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3년 7여개 월 동안에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이들 다섯 명의 사역자들과 다섯 개의 기독교회들이었다. 나중에 채이스는 그들이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 가입거부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한 것과 그로 인해서 매를 맞고 투옥되는 박해와 교회폐쇄조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암동그리스도(인)의교회(최상현 목사)와 내수동 경성그리스도(인)의교회(성낙소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 눈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같은 결실은 자신이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그들에게 신약성경기독교를 철저히 교육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후의 선교는 살아남은 이 두 개의 교회를 기반으로 확장되어갔다. 이밖에 업적으로는 일제에 빼앗긴 기독교회선교부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끝까지 분투한 것과 존 힐(John J. Hill)을 선교사로 발굴한 것이었다.[94]

93) 「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John T. Chase, "Workers Contacted," *CS*, May 1947: 9.

94) "Another Missionary for Korea," KM, October 1938: 1.

2)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후반기 선교활동(1940.06.01-1956.01.03)

채이스는 1939년 초에 영국해외성서공회로부터 송월동 선교부 건물(가치: 17,000달러)을 10,000달러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95] 모금활동을 시작하여 그해 말에 약정 금액의 절반인 5,000달러를 갚았다. 참고로 채이스가 1938년에 선교비로 후원받은 돈의 총액이 3,405달러 14센트, 월 평균 284달러 18센트였다. 채이스는 이 돈에서 김요한, 최상현, 성낙소, 박판조 등에게 매월 15불씩 생활비와 교회당 임대료로 10달러 정도씩 총 120달러 이상을 지불하였고, 나머지로 기독교회선교부 건물 임대료와 자신의 가족의 생활비, 기타 선교비용으로 사용하였다.[96]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비록 영국해외성서공회가 선교지원차원에서 건물을 헐값에 넘겨주긴 했어도, 10,000달러를 모금하기가 결코 녹록치 않았다. 그나마 주간지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가 모금운동에 협력하였고, 선교기금을 운영한 그리스도인환원협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의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채이스는 나머지 부족금액을 모금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갖기로 하고 1940년 6월 1일에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97] 이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존 힐(John J. Hill) 선교사 가족이 서울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일 년 정도 경과했고 업무를 맡길만했기 때문이다.

힐 가족은 1939년 6월 1일 가노마루(Kano Maru)호를 타고 LA를 떠나 6월 16일 요코하마에 도착하였고, 6월 18일 오사카의 이민국과 세관에 들러 입국심사를 받았으며, 20일(화) 아침에 기차를 타고 밤이 돼서야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였다. 시모노세키에서 탄 배가 뱃고동 울리며 밤새 달려 이튿날(21일) 새벽 6시에 존 힐 가족을 부산에 데려다놓았다. 힐 가족이 마중 나온 박판조와 함께 서울(게이조)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였다.[98]

---

95) KM, 1939년 2월호.
96) "A New Church Started at Seoul," *CS*, 17 June 1939: 594.
97) KM, 1940년 12월 4호.
98) KM, 1939년 8월호.

그러나 채이스가 한국을 떠난 지 4개월쯤 지난 10월에 미국정부는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자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므로 한국을 떠날 것을 충고하였고 배를 보내 철수를 도왔다. 그래서 힐 가족은 한국에 온지 17개월만인 1940년 11월 16일 마리포사(Mariposa)호를 타고 인천항을 떠나 미국으로 철수하였다.[99] 그리고 채이스 선교사의 노력에 결실이 있어서 미국에 돌아간 지 5개월쯤 되었을 때는 영국해외성서공회에 갚아야할 잔금 5,000달러 가운데 부족금액이 150달러만 남게 되었다.[100]

전쟁이 임박한 위기상황 때문에 미국 정부는 선교사들의 한국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였고, 가족들의 입국을 불허하였다. 힐 가족이 귀국을 해버렸기 때문에 채이스는 애써 마련한 선교부 건물과 두고 온 가재도구들 그리고 5명의 목회자들의 생계와 그들의 교회들이 걱정이 되어 미국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채이스는 1941년 2월 24일 가족을 미국에 남겨둔 채 혼자서 서울로 돌아왔다. 교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와 선교부의 재산을 보호할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였다. 채이스가 돌아왔을 때 교회는 하나 더 늘어나 있었다. 채이스는 이들 교회들을 차례대로 방문하여 위로하고 권면하였다. 그러나 채이스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형사들이 붙어 다녔고, 목회자들이 경찰서에 불려가 일제가 스파이로 의심하는 선교사와 나눈 교제 때문에 매를 맞고 선교사와 만나 나눈 모든 내용을 써서 제출해야 했다. 채이스는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체류기간을 겨우 한 달만 채우고 3월 마지막 날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른 채 목회자들과 송별해야 했다. 존 힐은 '힐 요한 선교사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약사'(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에서[101] 이 짧은 체류기간에 채이스는 선교부 건물을 그 곳에 난로공장을 세운 전항섭에게 임대 놓았고, 임대료를 받아 목회자들의 활동비에 보태도록 하였으며, 두 선교사가 사용하던 가구와 은제식기류, 침대보, 재봉틀 등을 모

99)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출판부, 2007): 522; 김승태,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229.

100) "Almost Finished," *CS*, 16 November 1940: 1160.

101) 『쎄메론』(한국성서신학교, 1972년 4월 18일).

두 팔아서 1941년 말까지 목회자들이 쓸 수 있는 활동비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채이스가 전쟁 전에 이들 목회자들로부터 마지막으로 연락을 받은 것은 1941년 10월이었다. 그리고 12월 7일 아침에 일본이 미국 하와이 주의 오아후 섬 진주만에 있는 미군 기지에 기습 공격을 가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1946년 5월호 「한국인 전령」(KM)이 발간되기 전까지 근 4년 반 동안 한국과의 연락은 두절되었다.

존 T. 채이스가 한국에 신약성경교회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집하고 발행한 「한국인 전령」(테네시 주 브리스톨) 1941년 5월호에는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소감이 다음과 같이 실렸다.[102]

테네시 주 브리스톨, 1941년 4월 22일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To Those Who Share:),

우리는 아래의 '한국의 상황'이란 글에서 우리가 한국에 가서 파악한 정황들을 간략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글에 실린 사진들은 과거 몇 년간 우리가 교육한 신실한 한국인 전도자들에 의해서 사역이 수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신실하고 역량 있는 설교가들이고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들의 장래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사역할 수 없는 시기가 오겠지만,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들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마땅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이 잘 세워져왔고, 이들 전도자들도 잘 훈련되어서 사역이 우리 없이도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역량을 다해서 이곳 미국의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며 그간 한국에서 이뤄진 사역들과 되어져가고 있는 사역들을 선교 보고하는 일로써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우리의 형제들에게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역은 여전히 지원되어져야 합니다. 아래의 글에서 언급된 사역에 대한 자금지원은 갚아야할 융자로써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그 후 또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이 마련된 후에 여분의 돈은 한국에서의 사용을 위해 비축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이들 우리의 형제들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

102) KM(Bristol, Tennessee, May 1941), Published in the Interest of New Testament Christianity in Korea, by J. T. Chase, Editor and Publisher.

이 박해의 시기에 그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기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한국에서 승리하였고, 승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난관의 시기에 마음이 약하여지지 맙시다. 우리가 한국인들의 비옥한 마음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사실을 아시고 남자든 여자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놓여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굳건합니다.

한국에서의 여러분의 동료

존 T. 채이스

한국의 상황(The Situation in Korea)

지난 6월에 우리는 잘 진행되던 사역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달 동안 보았던 것과 같은 발전들과 긴박한 국제관계들에 대한 징후는 그 무렵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충격적인 소식, 곧 미국 정부가 극동에 나가 있는 자국민들에게 귀국할 것을 촉구하였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한국과 만주국에 머물던 다른 2백 명이 넘는 선교사들과 함께 힐 선교사 부부도 지난 11월에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그곳에서의 사역은 선교사의 감독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오는 소식들 중에는 상충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엄중한 검열과 다른 이유들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얻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결론은 한국에 가서 우리가 작년 5월에 떠난 이후 한국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최상의 일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우리는 미국정부로부터 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배를 탔습니다. 물론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저는 일본에 2월 21일에 도착하여 도쿄와 오사카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일본제국에 머무는 동안 면전에서 매우 정중한 대우를 관리들로부터 받았습니다.

한국 서울에 2월 24일(월)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설교가들이 나를 서울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 친구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그렇게 할 만큼 용감한 사람들이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보자 기뻐하였고 매우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꺼이 집회들에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혹스런 일이란 것을 나는 이내 알아챘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가깝게 지내면 그는 "외국인 스파이"와 연계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설교가들과 몇 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그 때마다 각각의 설교가들은 회의에서 나눴던 말과 일들을 각각의 관할 경찰서에 보고해

'신당정기독교회' 김요한 목사(1941년 3월)

'돈암정기독교회' 최상현 목사(1941년 3월)

'내수정기독교회' 성낙소 목사(1941년 3월)

'산돈암정기독교회' 김문화 목사(1941년 3월)

'정릉리기독교회' 박판조 목사(1941년 3월)

야했습니다. 대개의 그 같은 모임들과는 달리 담당형사나 경찰이 이들 모임들에 단 한 번도 임석하지는 않았지만, 곧이어 나는 여러 증거로 볼 때, 당분간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함께하는 것보다 교회들이 더 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선교사의 도움 없이 지낸 수개월 후 그 사역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간 가르치고 훈련시킨 설교가들은 남녀무론하고 누구에게나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나는 네 번의 주일들(3월 2,9,16,23일)을 서울에서 지켰습니다. 네 주일들 중 두 주일에는 침례탕이 사용되었습니다. 첨부한 사진들은 3월 16일(일)에 찍은 것들로써 각각 교회가 평균 출석률 또는 평균이하의 출석률을 보였지만, 이들 교회들이 살아 있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출석률이 조금 떨어진 것은 불신자들이 집회들에 참석하는 것을 종종 두려워하기 때문입

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애석하게 여기는 한편, 우리는 선한 뜻이 이 진통의 시기에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씨가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연단 받고 있고 엄격하게 연단 받을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해야 했던 한국 교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철저하게 조사하였고, 기독교회선교부와 관련된 교회들은 신사참배하러 가지 않고 있다고 확신합니다.(The churches connected with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ARE NOT GOING TO THE SHRINE.) 그들은 동방요배하지 않습니다.(They ARE NOT BOWING TO THE EAST.)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교회연합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전 진술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들 교회들은 이 질문에 괴롭힘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종교들 법안(Religions Bill)은 한국에서 보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사와 관찰에 의하면, 몇 가지 사실들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첫째, 교회들과 설교가들은 일종의 성경적 방식에서 수행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둘째, 그들은 여전히 후원이 필요하고, 확실히 그 같은 혜택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 시점에서 선교사가 체류하는 것은, 설사 선교사가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사역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가 돕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닥칠 일제의 의심 때문입니다. 넷째, 후원이 필요하고 전적으로 그럴만한 가치가 있지만,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달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설사 가능하다 할지라도, 가까운 장래에는 그것이 회의적이므로, 매우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후원금을 마련해줘야 하는가였습니다. 힐 선교사 부부가 지난 11월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그들의 가구와 피아노 등을 놓고 나왔고 그것들을 팔아서 사역에 충당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이 지시는 실행에 옮겨졌고, 돈은 사역에 쓰였으며 조심스럽게 쓰였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이타적인 선교사를 결코 안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힐 선교사 부부는 미시건 주 스터지스(Sturgis)에 있고, 처음부터 다시 살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그들이 최소한으로라도 필요한 것이 채워졌으면 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한국에 기금을 남겨서 사역이 수행되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였습니다. 정말 시급한 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 설교가들과 교회들, 믿음으로 낳은 우리의 자녀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인 이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홀로 걸을 수 있

을 때까지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겨우 기어 다닐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들이 일어서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부양해야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았습니다. 침대들, 테이블들, 재봉틀, 침대보들, 은그릇들, 양탄자들, 기타 팔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1941년 말까지 사역을 후원할 충분한 돈을 한국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만약 우리가 여전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바라기는 그들에게 지속해서 기금을 전달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역은 우리가 신뢰하는 김요한, 최상현, 박판조 세 사람의 위원회에 일임하였습니다. 김요한은 교회들의 법적 대표로서 저자(본인)를 대신합니다. 박판조는 협력자인 최상현과 더불어 회계를 맡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충성심과 진실성에 있어서 완벽한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는 미국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가구와 집기들을 판 이 절차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치들이었음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방법밖에 다른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같이 훌륭한 방법으로 성장해온 사역의 지속을 보장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지혜를 짜서 모든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도자 박판조는 우리가 없는 동안 재산의 책임자로서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에 들어가 삽니다. 채플실과 침례탕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계획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마땅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 우리가 돌아가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사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들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오늘날 형제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정으로 싸우고 있는 신약성경 그리스도인들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박해가 그들에게 임박해 있고, 그들 앞에는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3월 23일 주님의 날 저녁에 이들 형제들과 헤어질 때 우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남녀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전쟁에 나가 싸우게 두고 떠나야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그들 중에 계속 체류하는 것은 그들의 짐만 더욱 무겁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아래에 첨부한 몇 장의 사진들을 제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것이 전해진 곳에서 성취되었습니다.

J. T. 채이스
기독교회 선교부

테네시 주 브리스톨

채이스 선교사가 1941년 3월말 이후 한국에서 편지를 받은 것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봄이었다. 채이스는 최상현 목사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고, 두 사람으로부터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았다. 최상현 목사는 편지에서 1941년 후반기에 일제로부터 모든 교회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개의 교회들은 전쟁 중에도 매주일 비밀리에 모여서 말씀선포와 주의 만찬을 빠트리지 않았다고 전하였다.[103] 여기서 1941년 후반기는 그해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새로운 종교법 시행이후를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독교회들은 1944년 6월 30일에 폐쇄를 당하였다.[104]

채이스는 모든 교단에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수개월 전에 이미 철수하고 없는데다가 일제의 압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했던 때에 어렵게 재입국하여 1941년 2월 24일부터 한 달 남짓 머무는 동안 제3대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에 김요한 목사를 계출하였고, 최요한 목사와 박판조 목사에게는 회계를 맡겼으며, 특히 박판조에게는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에 들어가 살면서 재산을 지키는 책임자로 세웠다. 그러나 이듬해인 1942년에 일제는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적산(敵産)으로 선포하였고, 몰수하여 1943년에 한국인(난로공장 사장 임차인 전항섭)에게 팔아버렸다. 이후 채이스 선교사는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1947년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서울에서 한 달 반가량 체류한 때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경에 떠날 때까지 미군정과 대사관에 여러 차례 호소하였으나 기대했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존 힐 선교사의 글, '힐 요한 선교사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약사'(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에 따르면,[105] 서대문구 송월동 32번지의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완전히 되찾게 된 때는 1952년경이었다. 힐 선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103) "The Korean Christian Mission(In Retrospect)," KM, 1946년 5월호.

104) 「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105) 『세메론』(한국성서신학교, 1972년 4월 18일).

> 그러나 1951년 7월 3일까지 남자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오기 시작하였고, 필자도 바로 그 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필자는 부산에서 고아원을 시작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 뵈려고 갔었을 때, 그분은 필자더러 서울에서 시작하도록 권유를 하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필자의 오랜 친구, 당시 젊은 청년이었던 성수경을 찾았으며, 서대문 근처 송월동 32번지에 있었던 구 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동행하였습니다. 전항섭은 탄환이 장전된 연발권총을 들고 우리를 쫓아왔으나 우리가 합법적인 재산 소유자임을 알고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건물의 절반을 차지했고, 전항섭도 나머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약 일 년 후에 미국 대사관과 영국 해외성서공회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침내 전씨를 몰아냈습니다. 그 대신 전씨는 정부가 일본인 자산에서 지불한 정착금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필자는 끝내 재산을 되찾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으며, 전쟁 중 폭격으로 부분적으로 파손된 구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많은 돈을 들여 수리를 마쳤습니다.

채이스는 미군정이 몰수당한 재산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재산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채이스 선교사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미국정부가 한국의 불안한 정세를 이유로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한 미군 장교가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갔고, 채이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106]

> 한국인이 거주하는 동안 건물과 대지는 황폐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조그만 고치면 그 집은 쓸 만할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수도설비를 고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지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 또한 필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구조를 조금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렵 채이스는 잉글우드하이츠 그리스도(인)의교회(Inglewood Heights Church of Christ, Inglewood, Calif.)에서 목회사역을 하였고, 퍼시픽성경신학교(Pacific Bible Seminary)에서 매주 하루씩 강의를 하면서 거의 매일 강연을 다녔으며, 모금과 선교사 모집까지 병행하였다.

---

106) KM, 1946년 5월호.

그 결과 모금 잔액이 1402.07달러에 달했고, 기독교회선교부 소속 선교사들로서 채이스 가족과 힐 가족 및 클라이드 아담스(Clyde Adams) 가족이 포함되었다.[107] 그 여간에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한 청구가 법무부 청구국(Claims Bureau of the Department of Justice)에 접수되었다는 편지가 '한국 주둔 미국군정 본부, 문민 통치자를 위한, 군무국장국'(Adjutant General's Department, For the Civil Administrator, Headquarters,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으로부터 왔다.[108]

채이스는 1946년 12월 23일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머린 팰컨'(Marine Falcon: 바다의 송골매)을 타고 심한 폭풍과 거친 파도와 뱃멀미에 시달리며(배 안에서 2명이 사망) 예정보다 많이 늦은 1월 7일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하였다. 배를 탄 첫 주일날 설교를 맡았지만, 배가 요동을 치는 바람에 서 있기가 너무나 힘든 상태였다. 일본에서는 에롤 로호즈(Errol Rohodes) 대위와 할 마틴(Hal Martine) 군목이 마중을 나와 주었다. 할 마틴(Hal Martin) 군목은 일본 큐슈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할 마틴은 수개월 후에 김포 미항공기지로 전근을 하게 되어 1947-48년 사이에 선교사의 부재를 메우게 되었다. 채이스는 일본에서 1주일을 머문 후에 1월 중순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공을 날았지만, 두터운 구름층에 가려 볼 수는 없었다. 한국입국 수속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 너무나 쉬었지만, 비싼 경비를 지불하고 타고 온 비행기에 난방시설이 없어서 엄청난 추위에 떨면서 서울에 도착하여 군부대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1941년에 다녀간 지 꼭 6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다.[109]

채이스는 서울에서 한 달 반가량 체류한 후 3월 1일에 인천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미육군 수송선인 '캡스 제독'(Admiral W. L. Capps)호에 승선하여 3월 5일 배 안에서 '선교사의 발자취'(Missionary Footsteps)란 글을 썼다. 이 글에 보면, 채이스는 서울에서 머무는 동안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일을 다 하였지만

107) KM, 1946년 5월호.
108) KM, 1946년 10월호.
109) KM, 1947년 5월호.

채이스가 1947년 2월 초에 방문했던 필운동 그리스도(인)의교회
채이스는 이 교회를 예전처럼 내수동교회로 불렀으며, 선교지원금 없이
마련된 이 필운동교회 예배당을 희생의 결과라고 적었다.

최종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최종결과는 1952년에 가서야 나타났다. 서울에 도착한 첫 주에만 수차례 교회들을 방문하였고, 최상현 목사와 성낙소 목사와 수차례 회합을 갖고 앞으로의 사역을 계획하였다. 보충대(Replacement Depot)로 향하기 위해서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채이스는 내수정 교회의 사택에서 최상현 목사와 성낙소 목사와 만나 기도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성낙소 목사는 사도행전 13장을 읽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최 형제와 나를 불러 한국에서 신약성경기독교에로 길을 인도하라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고 느낀다"(I feel that the Lord has called Brother Choi and myself to a definite work, that of leading the way to New Testament Christianity in Korea.)고 하였다. 이어 최상현 목사도 말하기를 "나는 디모데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따라서 더욱 가치 있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라는 압박을 항상 받는다"(I am constantly feel spurred on to more worthy endeavor by the words of II Tim. 4:1,2.)고 하였다. 이 두 목회자들은 고난과 시련도 많이 겪었지만, 경제적으로도 몹시 어려웠기 때문에 채이스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매주 힘닿는 대로 필수품을 공급해 주었다. 채이스는 3월 13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으나 한국에서부터 후두염에 걸려 상당한 기간 고생하였다.

채이스 선교사는 미국에 머물며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구호물자를 수집하여 한국에 보내는 일에 힘썼다. 구호물자들은 필운동 289번지의 성낙소 목사와 필동 2가 124번지의 최상현 목사에게 보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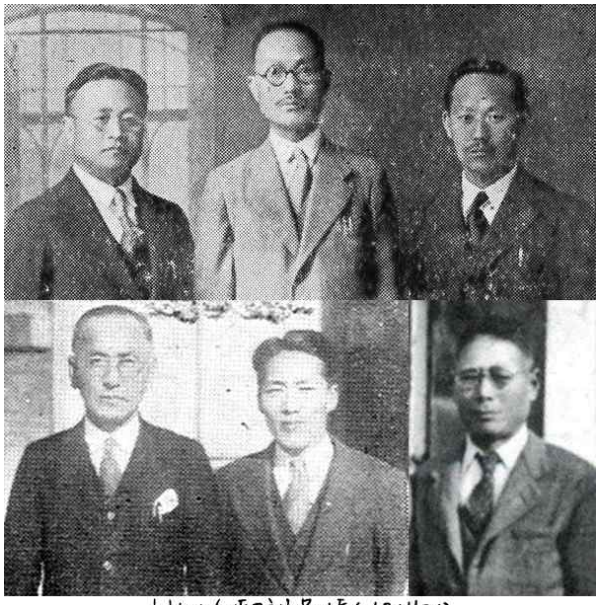
「한국인 전령」(KM) 1947년 5월호에서는 기독교회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 소속 직원으로 채이스 선교사 가족와 힐 선교사 가

채이스 선교사가 1947년 2월 9일 초청받아 설교한 일본인 거류지였던 대방동의 임대건물에 세워진 교파교회. 담임목사 D. W. Chai는 최상현 목사로부터 재침례를 받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으며, 신약성경교회에 관심을 보였다.

족 그리고 최상현 목사와 성낙소 목사만 열거되었다. 일제의 모진 압제와 탄압이란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은 교회는 돈암동(1936년 4월 1일에 돈암리에서 돈암정으로 바꿨다가 1946년 10월 1일부로 돈암동으로 개칭) 그리스도(인)의교회와 성낙소 목사의 내수동 그리스도(인)의교회뿐이었다. 채이스는 1947년 1월 중순경에 주일날 최상현 목사의 돈암동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하였다. 당시 돈암동 교회는 일본 적산가옥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한 성도의 가정에서 모이고 있었다. 난방도 되지 않는 집 2층에 있는 두 개의 방에 성인남녀와 학생들까지 40여명이 모였다. 참석한 다수의 성도는 채이스가 1936-41년 사이에 침례를 베푼 성도들이었다. 그날 채이스는 빌립보서 3장 13-14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다. 전쟁과 박해와 군 칙령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낸 이들과 함께 드린 이 예배는 채이스에게 남다른 감회와 깊은 감명을 준 자신의 희생을 값지게 한 보람찬 경험이었다.

그 다음 주에는 성낙소 목사의 내수동 그리스도(인)의교회에서 설교하였고 (채이스는 1948년 말에 가서야 비로소 내수동교회를 필운동교회로 고쳐 불렀다), 이어진 주일에는 미군부대에서 설교하였다. 주중에는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다. 2월 9일 주일 낮 예배 때 교파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였는데, 최상현 목사가 침례를 베푼 채(D. W. Chai)라는 이름의 감리교 목사가 일본인들이 모여 살던 대방동에 건물을 임대하여 개척한 교회였다. 이 교회에는 각종 교단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채이스는 이 교회가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할 것으로 믿었다.

채이스는 1947년 1-2월 중 서울에 머무는 동안 예전의 사역자들을



초창기 '기독교회' 목사들(상좌부터)
김요한(신당정교회), 최상현(돈암정교회), 성낙소(내수정교회),
김문화(산돈암정교회), 박판조(정릉리교회), 백낙중(공덕동교회)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최상현 목사와 성낙소 목사는 사역을 지속해갔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몹시 추운 날 채이스가 서울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김요한 목사였다. 김요한 목사는 그 무렵 사역을 쉬고 있었다. 김요한 목사는 해방 전 세 차례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고 했다. 김문화 목사는 서울을 떠나 시골에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채이스는 박판조 목사를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가 소련군정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에 머물며 한의업에 종사한다는 것뿐이었다. 이 기간에 채이스는 동석기 목사도 만났다. 동석기는 소련군정이 입북하기 이전에는 북한에 머물며 사역을 펼쳤으나 소련군이 입북하기 직전에 남하하였다. 그러나 사모와 자녀들 일부가 북한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동석기는 말하기를, 소련군이 자신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였다.[110] 「한국인 전령」(KM) 1949년 3월호의 내용은 대부분 채이스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경에 떠날 때까지 한국에서 지낸 보고들로 채워졌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존 힐 선교사 가족이 1949년 2월 15일에 한국에 도착한다는 것이고, 김문화 목사

110) "Workers Contacted," KM, 1947년 5월호.

가 1949년 2월 초에 사망하였다는 소식이다. 채이스는 존 힐 선교사 가족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에 머물러 있었다.[111]

채이스 선교사는 김문화 목사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 바로 얼마 전 겪은 이번 주 가장 큰 손실은 김문화 목사의 서거였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 그는 신약성경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성경의 명백하고 단순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그분의 아들의 집에서 성낙소 목사의 집례와 최상현 목사와 채이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치러졌습니다.[112]

김문화 목사의 별세 및 그가 김동열 목사의 부친이라는 증언과 관련해서 몇 가지 고리들을 연결해 볼 수 있다. 첫째는『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도서출판 한림, 2006: 289)가 김문화 목사를 김동열 목사의 부친으로 언급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김문화 목사의 별세 전인 1947-48년에 최상현, 성낙소, 할 마틴 군목이 부강교회에서 신약성경교회를 한 두 차례씩 강의한바가 있었다는 점이며, 셋째는 지철희 목사가 "김동열 목사님의 부친은 순교를 하셨는데... 일제말엽 때 복음을 전하시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투옥을 당하셨고, 많은 고문과 고통을 받던 중에 해방을 맞이하여 출감하셨는데, 오갈 때가 없어서 부강 그리스도의교회 사택에서 간호를 받으시면서 기거를 하실 때에 내가 딱 한번 뵌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내가 듣기로는 우리 그리스도의교회에서 아주 귀하고 유명한 목사님이시었다... 부강 그리스도의교회에서 순교를 하셨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알았다."고 회고한 바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지철휘 목사는 김문화 목사의 본명인 김용수 또는 이명(異名)인 김용하를 김용환으로 잘못 기억하였다. 넷째는 김문화(김용수)의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에 "朝鮮宣敎會 전도사로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전도에 힘쓰고 일제의 멸망을 설교하다 일경에 피체되어 징역 3년형을 언도받은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적고 있다는 점이다.[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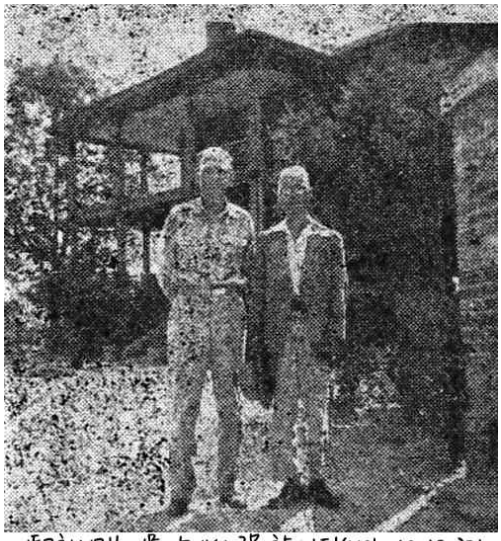
---

111) KM, 1949년 3월호.
112) "A Great Loss," KM, 1949년 3월호.
113) 「공훈전자사료관」, https://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

여기에 적힌 '조선선교회'는 김문화가 성낙소와 함께 이인범으로부터 '포교자폐지' 및 '포교소폐지'를 당했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김문화의 사망일자가 채이스 선교사의 기록과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채이스는 김문화의 별세일자를 1949년 2월초라고 한 반면, 공적조서에는 1957년 4월 28일로 되어있다. 채이스의 보고는 김문화의 장례를 치른 직후에 쓴 것이어서, 만일 김문화가 김용수와 동일인이라면, 사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 7년 뒤에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1956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교회순방에 나섰을 때, 4월 2월 월요일에 신탄진교회를 방문하였는데, 담임목사가 김동열이었다. 3일 화요일에는 부강교회(김은석 목사)를 방문하였다. 공적조서 내용대로라면, 김문화 목사는 이때까지 생존해 계셨어야 한다. 이런 정황들로 미뤄보아 김문화는 김동열의 부친이었고, 별세한 장소는 신탄진교회이거나 부강교회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김은석(부강교회)은 1953-58년 사이에 기록한 성경메모에 동역자들의 별세자 명단을 별지에 기입해 두었는데, 정찬성 목사(1957년 4월 25일), 김재순 목사(1958년 2월 26일), 강순명 목사(1959년 3월 12일)가 포함되었다. 심지어 이신 목사 부친(1954년 6월 16일)과 이종만 목사 모친(1957년 8월 14일)의 별세 일자까지 적어놓았다. 하지만 김은석은 1957년 4월 23일 목포로 내려갔고, 28일 주일에는 강진군 강진읍 용동면과 황동면에 있었으며, 5월 중순까지 전남지역에 머물며 집회를 인도하였다.[114] 공적조서의 내용대로, 김문화 목사가 정찬성 목사의 별세 3일 직후인 1957년 4월 28일 신탄진 혹은 부강에서 별세하였다면, 김은석 목사가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 리가 없다.

1947년 초가을에 군목 할 마틴(Hal H. Martin)이 한국근무를 명받고 부인 에버린(Evelyn)과 아들 게리(Gary)를 데리고 한국에 왔으며 김포항공기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마틴은 한국 근무기간 동안 최상현 목사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인)의교회들 관련자들을 자주 만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115] 채이스 선교사는, 1947년 말까지도 미국정부가

114)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0): 50, 57, 196, http://kccs.info/keskoreanpaul.pdf.



기독교회선교부 건물 앞에서 군목 할 마틴(Hal Martin)과 최상현 목사. 선교사가 없던 1947년 후반기에 전근을 명받고 가족(Evelyn, Gary)과 함께 김포 항공기지에서 1947-48년 사이에 근무하면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많이 도왔다.

한국에 선교사 가족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군목 할 마틴을 한국으로 보내 내국인 사역자들과 교회들을 돕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마틴은 1949년 전반기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매클렐런 공군기지(McClellan Air force Base)에 근무하고 있었고, 채이스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에 50불을 보냈는가하면, 자신과 기지교회의 그룹에서 부활절 헌금과 함께 격려 편지를 채이스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116]

할 마틴은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1910년경에 출생하였고, 부인 에블린은 마틴보다 한 살 위였다. 군목이 되기 전에는 캘리포니아 주 린제이(Lindsay)에서 목회하였다. 공군 군목으로 입대하여 대령으로 제대하였다.

마틴은 어린 군인이었던 폴 잉그램이 한국 기독교회선교부 소속의 선교사가 되도록 영향을 끼쳤다. 마틴은 탁구선수였기 때문에 사병들로부터 인기가 좋았다. 마틴이 미군정시대에 김포 항공기지에서 근무할 당시에 그에게 영향을 받아 제대 후 신학교에 입학한 어린 사병이 있었다. 그가 바로 한국전쟁 중에 선교사로 돌아와 존 힐(John J. Hill)과 함께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에서 사역한 폴 잉그램(Paul Earnest Ingram)이다. 그는 14살에 권투선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많은 경기에서 승리하였으나 학업을 중단하고 16세 때 군에 입대하

115) KM, 1947년 12월호.

116) "On the Trail of the Missionary" and "Words of Encouragement," KM, 1949년 7월호.

여 한국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4월에 잉그램은 다른 네 명의 군인과 함께 마틴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결심한 잉그램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분을 그곳으로 다시 모셔가겠습니다. 그곳은 갈기갈기 찢긴 나라입니다"(I found Christ in Korea. I'm going to take him back there. It's a torn-apart country). 그리고 잉그램은 19세 때 제대를 하고, 링컨성경학교(1944년 설립, 현 Lincoln Christian University)에 입학하여 23세 때인 1952년에 졸업하였다. 잉그램은 학생시절부터 인디애나 주 코빙턴(Covington)에서 이미 3년째 목회를 하고 있었다. 그는 부인 조안(Joan)과 어린 두 자녀들을 데리고 1952년 후반기에 일본 도쿄(東京)에 도착하여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존 J. 힐(John J. Hill) 가족과 함께 일본에 체류하였다.[117] 이 기간에 잉그램은 힐과 함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족을 일본에 남겨 둔 채 한국에 들어와 사역하다가[118] 1953년에 서울에 주재하였다.

최상현 목사는 1947년 10월에 채이스에게 흥미로운 보고를 하였다. 이전에 말했던 자신의 친구가 충청지역에 세운 교회에서 최근에 40명이 침례를 받았고, 인근에 두 개의 교회들이 더 세워졌으며, 이 교회의 요청을 받고 성낙소, 최상현, 할 마틴 군목이 한 두 차례씩 이 교회에 내려가 신약성경교회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했다. 그리고 채이스는 최상현의 친구라는 사람이 장로교인 내과 의사인데, 최상현 목사로부터 가르침과 침례를 받은 분이라고 첨언하였다.[119] 필자의 생각으로는 최상현과 채이스가 언급한 이 충청지역의 교회는 김은석 목사가 세운 부강교회를 말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장로교 목사였던 김은석은 1946년 무렵에 부강그리스도(인)교회를 개척하였고, 의사였던 신현창 장로는 김은석 목사와 함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조직하여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1950년대에 충청이남지역에 수십 개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개척한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 신화신학연구회 출신들이었던 것

117) "Korean Christian Mission," CS, 17 May 1952: 318.

118) Emma Rivers Milner, "Church News: Back to Korea, As Missionary," The Indianapolis Times: 4, Saturday, July 26, 1952.

119) KM, 1947년 12월호.

이다. 신현창은 충남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공헌하였고, 1951년 6.25사변 중에 교통사고로 별세하였다. 김은석은 1963년 1월 21일 충곡리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신 후 탈장으로 별세하였다.

채이스는 한국인성경훈련원의 운영을 힐 선교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미국에 돌아가 1949년 9월 1일까지 주간지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와 함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이란 캠페인을 펼쳐서 50,000달러 기금조성에 힘쓸 계획이었다. 「한국인 전령」(KM) 1949년 3월호에서 채이스의 부인 와네타(Wahneta) 선교사는 채이스는 1949년 3월 1일 이후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할 것이고, 몇 개월 더 모금운동에 전념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채이스는 1948년 10월에 한국으로 떠날 때 7년간 섬겼던 잉글우드 하이츠 그리스도의교회를 8월 말에 사임하고 떠난 것으로 보아 1949년 중에는 가족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힐도 채이스 가족이 9월에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썼다.[120] 그러나 채이스 가족은 예정했던 기간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해 10월 9일을 "Chapels for Korea" Day(주일)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채이스 가족이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날이 1936년 10월 11일이었기 때문이다.[121] 그러나 이때까지 모금된 총액이 2만 달러에 그쳤다. 이 2만 달러 모금을 위해서 채이스는 150개 교회, 6개 대학, 4개의 캠프집회, 2개의 미션스쿨, 5개의 컨벤션에서 설교하였고, 개인들과도 접촉하였다.[122] 그리고 목표한 모금액이 달성된 것은 6·25동란이 터진 직후인 1950년 7월이었다. 모금된 돈은 총 5만 62달러 90센트였다.[123] 이 기금은 전후 군대지원프로그램(Armed Services Aid Program)에 3천 달러가 사용되었고, 일본으로 피신한 힐 가족과 폴 잉그램 가족의 거주지를 구입하는데 일시 사용되

120) "Overcoming Obstacles in Korea," KM, 1949년 7월호.

121) *CS*, 8 October 1949: 650.

122) "Missionary Visits 150 Churches to Present Korean Work," *CS*, 22 October 1949: 678.

123) "Proposed Goal Reached in 'Chapels for Korea' Campaign," *CS*, 8 July 1950: 420.

었다가[124]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에게 모두 이양되었다.[125] 채이스는 자신의 뜻에 반하여 모금이 늦어져 6·25동란 이전에 이 기금이 쓰이지 않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다. 만일 채이스가 그 돈을 자신이 계획했던 시기에 교회건축에 사용했더라면, 교회들이 전쟁 중에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이고, 그 돈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다.[126]

3) 존 T. 채이스 선교사와 요츠야 선교부 및 기독의교회(基督の教會)의 사역자들과의 관계

존 채이스 선교사는 W. D. 커닝햄(Cunningham)의 도쿄 요츠야선교부가 1924년 이후 한국에서 펼친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본인이 요츠야선교부에서 1927년 3월 4일부터[127] 1934년 11월까지 요츠야선교부에서 7년 8개월간이나 사역하였고, 1931년 9월경에는 서울에 1개의 교회와 여러 개의 일요(주일)학교들(Bible Schools)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바가 있기 때문이다.[128] 또 채이스가 한국에 주재선교사로 왔을 무렵에 요츠야선교부의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제물포에 3개, 서울에 3개, 평북 구성군과 정주군에 5개, 마산에 1개, 총 12개가 있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채이스는 1936년 10월까지 "한국에는 선교사 가족도 없고, 설교 사역자 양성소도 없고, 내국인의 교회도 없고, 내국인 전도자도 없고, 선교소식지도 없었다"(No Missionary Family in Korea; No Preacher Training School; No Native Congregation; No Native Evangelist; No Missionary Paper)고 적었다. 그러나 1937년 10월 현재는 선교사 한 가족이 서울에 상주하고 있고, 한국인성경훈련원(The 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

---

124) "Chapels to Be Built in Korea," *CS*, 27 March 1954: 201.

125) "John Chase Turns Over Funds, Endorses Taylor Family for Korea," *CS*, 26 November 1955: 763; "Final Report on 'Chapels Fund'," *CS*, 28 January 1956: 60.

126)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1959년 10월호.

127) TC, 1927년 4월호.

128) TC, 1931년 11월호.

이 제2학기 과정을 진행 중이며, 신당정기독교회와 두 명의 전도자들과 다수가 훈련을 받고 있고,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이 2,250부씩 격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129] 이 보도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커닝햄(요츠야선교부) 선교사의 한국사역에 대해서 열광한 사실로 미뤄볼 때, 채이스 선교사가 미국에 거짓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이인범이 포교책임자로 있는 12개나 되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신약성경교회로 인정하지 않으려했기 때문이다.

채이스는 요츠야선교부의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한국인 사역자들과 교제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필시 채이스가 그들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포교관리자였던 이인범이 그들을 막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채이스 선교사로서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크게 환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채이스는 미국의 그리스도의교회들(Churches of Christ, 아카펠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동석기 목사(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Garrett Biblical Institute, Cincinnati Bible Seminary 졸업)와 강명석 목사(일본 關西學院,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Freed-Hardman College 졸업) 및 요츠야선교부에 소속된 토마스 힛치(Thomas G. Hitch) 선교사와 이인범 목사를 간략히 소개할 때에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채이스는 강명석 목사를 신당정기독교회 1주년 기념예배에 초청하여 설교를 들었고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성낙소 목사도 강명석 목사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 채이스는 토마스 힛치와 사이가 좋았고, 힛치가 한국에 올 때마다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힛치의 빈자리를 채운 오웬 스틸Owen Still)과는 존슨대학교 학부와 신시내티성경대학원의 동문이었으므로 더더욱 관계가 좋았다. 이뿐 아니라, 채이스는 커닝햄의 요츠야선교부에서 1934년에 함께 사임한 후 일본에 남아 독립 선교사로 사역한 빤햄(Farnham)과 루스 슈노버(Ruth Schoonover) 및 오사카성경대학에서 사역한 해롤드 콜(Harold Cole) 가족 등과도 긴밀하게 교제하였다.

---

129) KM, 1937년 10월호.

4)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은퇴 후 생활

채이스가 한국선교에서 완전히 손을 뗀 시점은 1956년 1월 3일이었다. 채이스는 1947년경에 시작한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 짓기 위한 캠페인으로 조성된 기금의 잔액 전부를, 이날 오클라호마 주 마이애미의 제일 그리스도(인)의교회에 보냈다("Final Report on 'Chapels Fund'," *CS*, 28 January 1956: 60). 그리고 이 기금은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교회들의 건축과 수리와 보수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채이스는 목회에도 성공적이어서 1951년부터 1968년까지 17년간 시무한 캘리포니아 주 도우니의 제일 그리스도(인)의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채이스는 은퇴 후 필리핀 세부(Cebu)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전미선교대회(National Missionary Convention)의 창립멤버와 대회장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또 교회연금제도(Church Development Fund)의 창립이사였고, 산호세성경대학(현 William Jessup University)의 이사였으며, 북미주 그리스도인 대회(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NACC)의 유지회원이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82년 NACC로부터 '올해의 목회자'(Churchman of the Year) 상과 1984년 신시내티기독대학교 및 성경대학원에서 '저명한 동문' 상(Distinguished Alumni)을 수상하였으며, 도우니(Downey)와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의 시의원직에도 당선되었다. 하나님의 종이자, 신약성경교회의 참 선교사였던 채이스는 1987년 12월 23일 캘리포니아 주 로디(Lodi)에서 82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별세하였다.

존 T. 채이스 부부의 추모비(Poplar Ridge cemetery)
Piney Flats Sullivan county Tennessee, USA

채이스의 부인 와네타 스미스는 만 100세로 2002년 7월 18일 잠자던 중에 별세하였다. 그녀는 1901년 10월 28

일 테네시 주 포플러 릿지의 존과 미니 스미스의 14자녀들 가운데 12번째로 태어났다. 와네타는 신시내티성경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받고 졸업하였으며,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존 T. 채이스와 결혼하였다.[130]

5) 조선'기독교회'를 위해 헌신한 기독교회선교부 소속 선교사들

(1) 쉘리 Shelley, J. Michael 1890.6.7.-?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목사, 선교사.

J.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 가족 (1935.02.24). 한국기독교회 선교를 위해 자원한 선교사로서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도쿄 요츠야선교부의 후원자였고 실행위원의 한 사람이었다.

미국 오리건 주 유진(Eugene)에서 출생하였다. 유진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1923년 8월 12일 오리건 주 얌힐(Yamhil)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얌힐시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 임명되었다. 한국 입국 수년 전부터 선교사가 되는 것을 꿈꾸어왔으며, 요츠야선교부의 열렬한 후원자로 또 실행위원회의 위원으로 봉사하였다. 쉘리 가족은 1934년 요츠야선교부의 한국 선교사 모집에 지원하여, 그해 1월 16일부터 한국 입국 준비를 하였다. 한국 선교지에서 쉘리와 요츠야선교부는 사역에서는 협력하지만, 재정에서는 분리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쉘리는 독립선교사의 신분으로 (당시는 세계공황 직후로 모금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스스로 선교기금을 모금해야 했다. 쉘리 부부와 딸 라헬(Rachell)은 1935년 2월 21일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도중, 3월 10일 일본에 들려 1주간 월리엄

130) 2002년 7월 23일(화)자 Lodi News-Sentinel: 8의 부고기사.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의 집에 머무르며, 요츠야선교부의 선교활동을 견학하였다. 선교부 3개 교회(일본인 교회 2개, 한국인 교회 1개)를 방문하고, 2개 교회에서 설교하였다. 선교부의 월요일 목회자 모임에 2회 참석하고, 커닝햄 부인(Emily Boyd Cunningham)이 지도하는 2개 성경반에 참석하였다. 요츠야선교부의 사역 모습들, 특히 젊은 설교자를 훈련하는 사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쉘리 가족은 3월 20일경 한국에 도착하여 24일 이인범 목사와 함께 제물포 제1교회(송현기독교회)의 방문을 시작으로, 요츠야선교부가 한국에 세운 교회들을 둘러보았다. 이 때 김영배 전도자가 쉘리의 통역을 맡았다. 한국 교회를 시찰하기 위해 방문한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이 4월 14일 쉘리 가족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고, 1-2달 안에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했다. 쉘리는 4월 25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교파명 '기독교회'를 신고하고, 요츠야선교부와는 별도로 서울에 선교부를 설립하고, 성경공부반을 시작하고, 성경공부에 참여한 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또 북한지역에서 약 2개월 사역하였다. 쉘리 가족은 교파주의를 거부하고 신약성경기독교(New Testament Christianity)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였지만, 두 가지 중대한 이유로 한국 체류 7개월만인 1935년 10월 28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첫째 이유는 가족의 건강문제로 쉘리는 폐병에 걸리고 딸은 혈우병을 앓았다. 둘째 이유는 커닝햄의 지도부 아래 자행된 부정직과 비기독교적 행위들로 인해, 쉘리가 요츠야선교부와 동역하지 못하고 분리되자, 미국의 후원자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다. 쉘리는 비록 한국에 오래 남아서 사역하지 못하였지만, 존 T. 채이스(John T. Chase)가 한국에 나가 사역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도움을 주었다. 첫째는 채이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 무렵 채이스는 커닝햄과 빚은 갈등으로 인해서 요츠야선교부에서 해고당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둘 사이의 논쟁이 미국 본토에서까지 달아오르던 때였다. 쉘리는 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여러 날을 서울과 도쿄에서 증거자료 수집에 매달렸고, 수집된 자료들을 문서형태로 미국에 가져가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커닝햄이 채이스의 이력에 깔아놓은 먹구름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둘째,

자신을 돕던 후원자들에게 채이스를 돕도록 부탁하였다. 가족으로는 부인 마르다(Martha Shelley)와 딸 라헬(Rachell)이 있었다.

[참고문헌] "Yotsuya Mission Executive Committee", *TC* vol.XXXVIII no.3, Jan. 1934; "Recruits for Korea", *TC* vol. XXXIII no. 5, Mar. 1934; "About People", *TC* vol.XXXIV no.6, Apr. 1935; "Entering Korea", *TC* vol. XXIV no.7, May 1935;"A Visit to Korea", *TC* vol. XXXIV no. 8, Jun. 1935; "About People", *TC* vol. XXXV no. 3, Jan. 1936; "John T. Chase to Evangelize in Korea", *CS* 29 Feb. 1936; "The Chases Will Go to Korea", *CS* 28 March 1936;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초기 역사-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1864~1936』, 한성신학교, 1991; 백종구,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 쿰란, 2018; 조동호,『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CS: Christian Standard

TC: Tokyo Christian

백종구(전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2) 채이스 Chase, John Trawick 1905.9.17.-1987.12.23.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목사, 선교사.

존 채이스(John T. and Wahneta Smith Chase) 부부

채이스는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Louisville)에서 로완 F. 채이스(Rowan F. Chase)와 헬렌 R. 채이스(Helen Roberts Chase)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5살에 고아가 되어, 인디애나 주 체스터필드(Chesterfield)에 거주하는 감

리교인 고모와 함께 살았다. 성년이 되기 전 그리스도의교회들 전도자 조지 윈프리(George Winfree)와 이스트린(East Lynn)그리스도의교회 목사 헨리 우드(Henry Wood)로부터 신앙적 영향을 받았다. 1926년 존슨성경학원(Johnson Bible Academy, 후에 존슨성경대학)과 신시내티성경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를 졸업하였다. 졸업 직후 루이지애나 주 배턴루지(Baton Rouge)에 내려가 목회를 시작하고, 동년 7월 자신보다 1년 먼저 성경신학교를 졸업한 와네타 I. 스미스(Wahneta Irene Smith)와 결혼하였다. 목회하던 중 성경신학교와 도쿄(東京) 요츠야(四谷)선교부 윌리엄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의 초청으로 일본 선교를 결정하였다. 채이스 부부는 1927년 도쿄로 건너가 요츠야선교부에서 월급 선교사로 사역하였다. 1930년 6월 커닝햄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요츠야선교부를 맡아 월간 선교소식지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을 편집하고, 선교부 교회들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설교하였다. 일본 사역에서 채이스는 특별히 한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 요츠야선교부가 도쿄와 요코하마(橫浜)에 세운 한국인 교회들을 도왔고, 구세군 사관 출신 성낙소 목사가 사역한 요코하마 한국인 교회를 감독하였다. 요츠야선교부가 1924년부터 시작한 한국 선교 상황을 잘 알았고, 1931년 9월 하순 한국 선교 사역을 시찰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 이런 연유로 일본에서 7년 8개월 동안 사역한 후, 1934년 11월 미국으로 돌아간 채이스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첫 내한 독립선교사 J.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의 후임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채이스는 미국에서 섬기던 캘리포니아 주 잉글우드하이츠(Inglewood Heights)그리스도의교회를 1936년 3월 사임하고, 선교기금 모금에 돌입하여, 10월 1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가족이 한국행 배에 승선하였다. 채이스 가족은 1936년 11월 7일 서울에 도착하고, 크리스마스 직전 서대문구 송월동 영국해외성서공회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하였다. 채이스는 일본에서의 선교 경험으로 입국 전 이미 커닝햄과 같은 선교방법(독립선교)과 선교정책(자립형 토착교회 설립을 목표로 본토인 설교자를 훈련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1936년 가을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로 알려진 사역을 시작하고, 선교부 본부를 임대한 영국해외

성서공회 건물로 정했다. 그리고 사역의 범위를, 당분간 사역 인력이 증가할 때까지, 서울로 제한시켰다. 1937년 초 선교부 본부 건물에서 1명으로 시작한 성경공부반(이후 성경훈련원으로 개칭)은 시간이 가면서, 학생이 증가하고, 교육도 체계를 갖추어 갔다. 성경훈련원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추구하는 신약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한국 목회자가 거쳐야할 필수 코스였다. 타교단 출신 교인이나 목회자는 일정기간 성경훈련원의 교육을 받아야했다. 채이스는 1937년 5월 선임 선교사 웰리가 조선총독부로부터 허가받은 교파명 '기독교회'를 인계받았다. 또 1939년 초 영국해외성서공회로부터 송월동 선교부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매입액의 10%를 지불하고, 잔금은 1940년 5월말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가, 건축기금을 모금하여 처리하였다. 선교사를 동원하는 일에도 시간을 내어, 1936년 봄 존슨성경대학(Johnson Bible College)을 방문하여 존 J. 힐(John J. Hill)을 한국 선교사로 동원하는 데 성공했다. 힐은 갓 결혼한 신부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와 함께 1939년 6월 21일 입국하여 기독교회선교부에서 채이스와 공동사역을 시작하였다. 채이스가 안식년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힐이 기독교회선교부의 사역을 맡아 잘 관리하였지만, 성경훈련원은 일본 경찰에 의해 폐쇄되었다. 1940년 후반 일제의 기독교 탄압이 심해지면서,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철수를 권고했고, 힐 부부는 1940년 11월 16일 인천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채이스는 미국에서 가끔 한국 교회의 소식을 들었지만, 교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1941년 2월 24일 서울에 도착하여 선교부 교회들을 차례대로 방문하여, 위로하고 권면하였다. 그러나, 선교사를 스파이로 의심하는 당국과 일본 형사들의 감시 때문에, 체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서울에서 1달을 머문 후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즈음 한국 교회들은 일제의 요구(신사참배, 동방요배, 일본기독교조선교단 가입 등)에 불응한 까닭에 폐쇄조치를 당하였고, 선교부 건물은 일제가 몰수하여 한국인에게 매각하였다. 서울 방문 후 채이스는 잉글우드하이츠그리스도의교회로 돌아가 목회사역을 재개하고, 퍼시픽성경신학교(Pacific Bible Seminary)에서 강의하고, 미국 교회들을 순방하며 한국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강연도

하며 기금을 모금하였다. 1945년 8월 해방 후, 채이스는 바로 한국 입국을 원하였으나, 정세의 불안정으로, 1947년 초에 겨우 비자를 받아 1월 중순경 입국하였다. 서울에서 머무는 동안 선교부 건물의 회수에 노력을 기울였고 또 선교부 교회들을 방문하여 사역자들과 교인들을 격려하며, 매주 힘닿는 대로 생필품을 공급해 주었다. 전쟁 전 선교부 6개 교회들 중 살아남은 교회는 2개 교회(돈암동교회와 필운동교회)뿐이었다. 채이스는 전후 한국은 복음이 가장 필요한 선교지라고 확신하여, 선교의 범위를 서울 밖으로 확장하고, 전 한국인을 전도의 대상으로 하는 한국복음화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채이스는 1달 반가량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1947년 3월 1일 인천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채이스는 10월 17일에, 힐은 가족과 함께 1949년 2월 18일에 서울로 돌아왔다. 채이스는 이번 한국 방문 때 한국복음화프로그램을 구체화 시켜, 본토인 설교자 훈련·복음전도관 설립·훌륭한 예배당 마련을 목표로 세우고, "[선교사] 설교자" 동원과 "1949년 9월 1일까지 50,000달러 특별기금" 모금을 긴급 사안으로 정했다. 채이스는 성경훈련원을 힐에게 맡기고, 자신은 미국으로 돌아가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와 함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 캠페인을 펼쳤다. 목표액 50,000달러가 모금되면, 채이스 가족은 1949년 9월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채이스가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힐은 성경훈련원을 한국성서신학교(Korea Bible Seminary)로 개칭하여 재개하였다. 힐이 한국에서 기독교회선교부의 사역을 수행하고, 채이스가 미국에서 한국 예배당 기금의 목표액을 거의 달성할 무렵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힐은 부인과 함께 일본으로 피난하고, 채이스는, 예배당 기금 목표액을 1950년 7월에 달성했으나, 전쟁 때문에 한국 입국을 연기하고, 당분간 캘리포니아 주 도우니(Dawney)제일그리스도의교회에서 사역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전쟁은 재산과 인명에 많은 피해를 주어, 1952년 초까지 남한 인구의 절반이 구호를 필요로 하였다. 채이스는 한국인을 위한 구호사업으로 「크리스천 스탠다드」를 통해 구호품과 구호기금을 호소하고, 확보된 구호품을 한국으로 보냈다. 그러나 1954년 9월 하순, 채이스는 동료 선교사 힐의 가정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한국 사역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한국 선교 외에 채이스는 캘리포니아 주 도우니제일그리스도의교회에서 17년간(1951년부터 1968년까지) 시무하고, 은퇴 후 필리핀 세부(Cebu)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전미선교대회(NMC)의 창립멤버와 대회장직을 역임하였다. 또 교회연금제도의 창립이사, 산호세 성경대학(현 William Jessup University)의 이사, 북미주그리스도인대회(NACC)의 유지회원이었다. 채이스는 1987년 12월 23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실마(Sylmar, Los Angeles County)에서 별세하였다. 유해는 미국 테네시 주 설리번 카운티, 파이니 플래츠(Piney Flats, Sullivan County)의 포플러 릿지 묘지공원(Poplar Ridge Cemetery)에 안장되었다. 부인 와네타 아이린 스미스 채이스(Wahneta Irene Smith Chase, 1901.10.28.-2002.07.18)는 미국 초기 환원운동가 라쿤 존 스미스(Raccon John Smith, 1784-1868)의 후손으로, 결혼 후 약 60년 동안 채이스의 든든한 동역자이자 후원자였다. 별세 후 유해는 채이스의 묘지에 합장되었다. 자녀로는 케넷 (Kenneth Chase, 1927년 7월 18일, 일본 출생), 로버트(Robert Chase, 1930년 5월 5일, Tokyo, 일본 출생), 나딘(Nadine Chase, 1933년 3월 15일, 미국 출생), 로이스(Loise Chase, 1938년 1월 28일, 한국 출생)가 있었다. 2002년 10월 30일 서울기독대학교에 채이스기념관 건물이 설립되었다.

[주요저술] "Mr. And Mrs. Chase And The War Situation" (*CS* 4 Sep. 1937); "Missions In Korea" (*CS* 2 Apr. 1938); "What We See In Korea" (*CS* 30 Jul. 1938); "Korean Missionary's Furlough Travels" (*CS* 24 Aug. 1940); "Movements of the Missionaries" (*CS* 25 Jan. 1941); "The Situation In Korea" (*CS* 31 May 1941); "Why the Missionary Exodus?" (*CS* 14 Jun. 1941); "Missionaries and Missions" (*CS* 17 Oct. 1942); "Korea Must Be Freed" (*CS* 20 Feb. 1943); "Post-war Plans Outlined for Evangelism in Korea" (*CS* 17 Mar. 1945); "The Holy Spirit" (*CS* 7 Apr. 1945); "Spiritual Gifts in the Early Church" (*CS* 21 Apr. 1945); "Meaning of Holy Spirit Baptism" (*CS* 14 Apr. 1945); "Relationship of the Holy Spirit to the Christian" (*CS* 5 May 1945); "Men Ought to Pray" (*CS* 22 Dec. 1945); "Korea-"The Land of

Morning Calm"" (*CS* 20 Apr. 1946); "The Korean Christian Mission(In Retrospect)" (*KM* May 1946); "Open Doors in Japan and Korea" (*CS* 15 Feb. 1947); "Wanted: Peace" (*CS* Jun. 1947); "On The Trail of The Missionary" (*KM* vol.VI no.11, Jul. 1947); "Christ, the Remedy for Oppression" (*CS* 17 Apr. 1948); Christ's Ambassadors on the Field" (*CS* 19 Jun. 1948); "A Proposal to Meet a Need" (*CS* 15 Apr. 1950); "Witnessing for Christ in Korea" (*CS* 10 Jun. 1950); "Korean War Brought On From Outside, Says Chase" (*CS* 22 Jul. 1950); "Missionary Problems and the New Testament Answer" (*CS* 16 Oct. 1954); "Peter's Broadening Ministry" (*CS* 5 Dec. 1959); "This Works Well for Us" (*CS* 14 Jul. 1962).

[참고문헌] *CS* Sep. 1932~Jul. 1962; *TC* Apr. 1927-Aug. 1933; *KM* 1937-1949;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Oct. 1959; Betty Dornette, *"An Hour with John Chase", CS* 20 Jan. 1985;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1.htm; Mrs. W. D. Cunningham and Mrs. Owen Still, *The Flaming Torch: The Life Story of W. D. Cunningham*, Tokyo: The Yotsuya Mission, 1939;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Oct. 1959; https://www.findagrave.com/memorial/89811653/john-trawick-chase;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역사』, 한성신학교, 1991; 백종구, "윌리엄 D. 커닝햄과 한국인 선교-동경 요시야선교회를 중심으로", 「신학논총」 (2012); 백종구 "도쿄 요츠야선교회와 재일 한국인교회: 미카와시마(三河島)한국기독교회의 개척과 성장 (1901-1947)", 「한국교회사학회지」 53(2019); 백종구,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 쿰란, 2018; 오수강, 『基督의 敎會와 성낙소와의 관계』, 쿰란, 2007; 조동호,『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CS: Christian Standard

NMC: National Missionary Convention

NACC: 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TC: Tokyo Christian
KM: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FCK: For Christ in Korea

백종구(전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3. '기독교회'(남대문통)의 초기 내국인 사역자들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를 개명)', '기독교회' 및 '기독의교회'가 일제강점기 때인 1924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눈물겹게 행한 선교의 노력들이 1941년 4월 1일부터 일제가 시행한 새로운 종교법과 태평양전쟁(1941-45년까지 연합국과 일본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해방 후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흔적은 인천송현성결교회와 인천제일장로교회(통합) 뿐이다. 그리고 요츠야선교부(일본 조선인기독교회들 및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던 전도자들 가운데 한국전쟁(1950-53) 이전까지 기독교회선교부로 이적(移籍)하여 사역한 목사들은 성낙소, 김문화, 이난기, 윤낙영 뿐이었다. 김문화는 일제강점기 때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1949년 2월초에 별세하였고, 이난기는 1949년에 이미 68세의 고령이었으며, 윤낙영은 1955년 7월 6일 영등포침례교회에 부임하였다. 이로써 끝까지 살아남아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사역을 이어간 인물은 1964년에 별세한 필운동그리스도(인)의교회의 담임목사 성낙소(1890-1964) 뿐이었다.

기독교회선교부에서 1937년 이후 해방 전까지 사역했던 목회자들 가운데 살아남은 교회는 성낙소 목사의 필운동그리스도(인)의교회와 최상현 목사의 돈암동그리스도(인)의교회 뿐이었다. 이 두 개의 교회들이 해방 후 한국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새 출발을 위해 과연 겨자씨가 되었다. 존 채이스(John T. Chase)는 1937년 2월에 발행을 시작한 격월간 「한국인 전령」(Korean Messenger, KM)에 '한국인 겨자씨'(Korean Mustard Seeds)란 칼럼난을 만들어 글을 쓰곤 하였는데, 신당동, 돈암동, 산돈암동, 내수동, 정릉리 등에 세워진 초창기 교회들과 목회자들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슥 4장, 계 11장)

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들 초기 교회들 가운데 과연 이 돈암동교회와 내수동교회(1943년 필운동으로 이전)는 해방 전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도 한국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발전을 위한 겨자씨들 곧 남겨진 종자(파종)씨앗들이었다. 이 두 개의 교회들은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 환란기간(great tribulation)에 남겨놓으신 파종겨자씨들이었으며, 그 교회들의 목회자들이었던 최상현과 성낙소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들이었다. 만일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또 채이스가 계획했던 대로 신당동, 돈암동, 산돈암동, 내수동, 정릉리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번듯한 예배당건축이 이뤄졌더라면, 상황이 발전적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났고, 채이스가 모금한 돈은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에 의해서 1955년 이후 39개의 예배당들을 수리하고 1-2개의 예배당을 구입하는데 모두 쓰였다.

존 채이스 선교사는 1948년 한국에 주재한 선교사가 없고, 미 공군 군목 할 마틴(Hal H. Martin)이 가끔씩 돕는 어려운 상황에서 6개 교회 곧 돈암동교회(최상현), 필운동교회(성낙소), 위동교회(성수경, 성낙소의 아들), 공덕교회(백낙중), 용산교회(이난기), 아현동교회(윤낙영)를 보고하였다.[131] 다시 채이스는 1948년 말까지 10개 교회, 7명의 한국인 목회자에 의해서 총 116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132] 그리고 존 힐(John J. Hill)은 이듬해 1949년 5월까지 15개 교회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힐은 1949년 5월 1일에 신탄진을 방문하였는데 임대한 오래된 창고건물에 250명이 모였다고 했고, 부강교회에서는 신화신학연구회가 주최한 백일성경공부가 김은석 목사와 의사 신현창 장로에 의해서 진

131) "The Year 1948," KM, 1949년 3월호.
132) KM, 1949년 7월호.

행되고 있었다고 썼다.[133] 그러고 나서 동년 7월까지 불과 2개월 만에 채이스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총 19개라고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교회는 두 개였지만, 지금은 한국에 형제들이 서 있는 곳에 열아홉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선 것입니다"(There were two congregations that survived the war, but now there are in Korea NINETEEN churches standing where you brethren stand. That is upon Jesus Christ and His Word.).[134] 여기에서 "형제들이 서 있는 곳"이란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신약성경교회(New Testament Christianity)와 그리스도교 신앙(Christian beliefs)을 말한다. 그로부터 7년밖에 지나지 아니한 1956년에 해롤드 테일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FCK)이란 선교지 6월호에서 교회숫자를 75개로 보고하였다.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이렇게 갑자기 큰 숫자로 불어난 배경의 중심에는 충청이남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한 부강교회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연구회의 백일성경공부가 있었다.

채이스는 1947년 10월에 최상현 목사로부터 충청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고, 40명이 침례를 받았으며, 인근에 두 개의 교회들이 더 세워졌다는 보고를 받았다.[135] 이 보고를 받고나서 채이스는 최상현으로부터 신약성경교회에 대한 가르침과 침례를 받았던 장로교출신 내과의사가 이들 신생교회들을 세운 목사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채이스가 최상현의 보고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현 목사가 보고한 내용이 부강지역의 내과의사 신현창 장로와 부강교회의 담임목사 김은석을 언급한 것이 분명해보이기 때문이다.

박점상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석 목사 가족이 서울 북아현동에 있을 때 박점상은 이웃에 방을 얻어 살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의 교제는 일본에 거주할 당시에 시작되었다.) 김은석 목사가 아직 그

133) 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hristian Standard(CS)*, 25 June 1949: 405.

134) KM, 1949년 7월호.

135) KM, 1947년 12월호.

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기 이전인지라 재건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을 탐색하였는데,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음을 깨닫고 1946년 박점상과 함께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였다. 김은석은, 비록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성령운동에서는 자신과 뜻이 맞지 않았지만, 침례와 주의 만찬 등의 교리가 성경적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박점상은 1947년에 부강으로 내려와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서 일하며 부강교회 건축에 힘을 쏟았다.[136]

김은석 목사(For Christ in Korea, 1957년 9월호)

이 무렵 곧 1947-48년에 부강교회와 신화신학성경연구회는 기독교회선교부에 신약성경교회를 소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는 미 공군 군목 할 마틴(Hal H. Martin)이 김포 항공기지에 근무하면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돕고 있을 때였다. 통역은 미군정 연락관이었던 최상현 목사였다. 김은석 목사의 요청을 받은 후 성낙소, 최상현, 할 마틴 군목이 한두 차례씩 이 교회에 내려가 신약성경교회에 대해서 가르쳤다.[137] 김찬영 목사도 김은석 목사가 할 마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교회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138] 존 힐도 충청이남에 세워진 교회들의 상당수가 김은석 목사의 공덕이라고 말하면서 "김은석은 나중에 세워진 이들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를 세우는데 공헌하였고, 미 공군 군목, 할 마틴을 통해서도 교육과 계몽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139] 하였다. 해롤드 테일러도 한국의 환원운동가 세 분 가운데

136) http://kccs.info/with_home/bbs/board.php?bo_table=person_in&wr_id=27&page=10.

137) KM, 1947년 12월호.

138)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1864-1936)를 중심으로』(한성신학교, 1991): 132.

139) 존 힐,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쎄메론』(한국성서신학교, 1972년 4월 18일).

한 사람으로 김은석을 소개하면서 "남한에 약 25개 교회를 세운 복음의 옹호자"(Gospel father of about 25 congregations in South Korea)라고 하였다.[140]

신약성경기독교를 표방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초기 목회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철저하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였다. 몇 분 안 되는 목회자들 가운데 동석기, 김요한,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 오현팔, 최춘선과 같은 애국지사들과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협력으로 1937-40년 사이에 세워진 다섯 개의 교회들 곧 신당정교회(김요한), 돈암정교회(최상현), 내수정교회(성낙소), 산돈암정교회(김문화) 및 정릉리교회(박판조)는 모두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기를 거부하였고, 동시에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서 1940-45년 사이에 성낙소를 필두로 이들 목회자들은 일경에 불려가 모진 매를 맞았고, 김요한은 세 차례나 투옥된 후유증으로 1944년 6월 26일에 목회를 접었으며, 김문화는 옥고를 치른 후 그 후유증으로 1949년 2월초에 별세하였다. 결국 1944년 6월 30일에 이들 다섯 개의 교회들은 모두 폐쇄조치를 당하였다.[141]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암정 그리스도(인)의교회의 최상현과 내수정 그리스도(인)의교회의 성낙소는 비밀리에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의 만찬예배를 빠트리지 않았다.[142] 채이스 선교사는 이 사실을 1941년 초와 1947년 초에 단기간 입국하여 직접 확인한바가 있다.

한때 「신학세계」의 편집인이었던 최상현은 해방 후 미군정 연락관으로 활동하면서 교회를 지켜냈고, 한의사(무면허)였던 성낙소는 일제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한약방을 열어 생계유지를 하면서 교회를 지켜냈다. 더불어 성낙소의 필운동그리스도(인)교회(46년 개명)에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일군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독립투사 오현팔 목사의 후손들이 필운동그리스도(인)의교회에 출석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오현팔의 손자인 오수강 목사는 성낙소의 손녀와 결혼하였다. 1919년에 장로

---

140) "One Way," FCK, 1958년 2월호.

141) 「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John T. Chase, "Workers Contacted," *CS*, May 1947: 9.

142) KM, 1946년 5월호; 성낙소, 『신약교회 목회학』(제12장, 3절, 2조, 1).

교회로 개척했다가 1940년에 일제에 의해 폐쇄 당했던 자신의 교회를 해방 직후에 그리스도(인)의교회로 복원한 오현팔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온전히 교회를 위해 바친 김은석과 연락하고 지낸 사이였고, 미국 일리노이 주 소재 링컨기독대학교 출신과 재학생들이 합심하여 서울기독대학교의 전신인 대한기독신학교를 설립할 당시 설립상임위원회의 회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김포에 그리스도(인)의교회를 세운 애국지사 최춘선 목사는 김포지역에 거대한 토지를 소유한 거부였으나 6·25 동란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데 전 재산을 사용하였다. 그는 별세 직전 30년간을 맨발로 다니며 전도하였고, 별세 직전 몇 년간 세상에 '맨발의 천사'로 알려졌다.

1940년 6월초에 채이스 선교사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들어가고, 힐 선교사 가족조차 미국정부의 철수 명령으로 그해 11월 16일에 본국으로 돌아가 선교사들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그 해 가을에 채이스가 협력하여 세운 다섯 개의 교회들은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이를 거부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불법집회를 연다는 명목으로 탄압을 받기 시작할 무렵 존 채이스는 선교부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듬해인 1941년 2월 24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3월 23일까지 한 달간 체류하였다. 그 기간에 형사들이 선교사를 따라 붙었고, 채이스와 만나는 사람들을 경찰서에 불러 조사하고 주고받은 모든 이야기를 써서 제출토록 하였다. 이에 채이스는 자신의 존재가 이들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귀국하였다. 채이스는 한국인 목회자들이 선교사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 매를 맞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목회자들은 경찰서에 끌려가 매를 맞는 것에 개의치 않고 채이스와 접촉하였다.[143]

성낙소 목사의 자서전『기독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제9장 대동아 전쟁과 교회 박해'에 따르면, 1940년 가을에 총독부가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이라는 명칭으로 기독교의 모든 교파를 통합하기 위해서 각 교파의 대표들을 피어선 성경신학교내 장로교 총회장 사무실에

143) KM, 1945년 2월호.

모이게 하였다.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도 김문화, 최상현, 성낙소가 참석하였으나 가입에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서 성낙소는 모진 매를 맞았으며, 성낙소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형사가 풀어주어 다행히 옥고는 면하였으나 김요한과 김문화는 나중에 투옥되어 옥고를 치렀다. 당시 힘 있는 교파들은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에 면죄부를 주었으나 신약성경기독교를 표방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조선교단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였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남았다. 그리스도(인)의교회('기독교회')들이 강제로 폐쇄당한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

한편 도쿄 요츠야선교부에서는 1941년 1월 21일 일부 목회자들의 갑작스런 요구에 의해 회합을 가졌는데, 요구한 측에서 다른 3개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고의로 통보를 누락한 모임이었다. 이 모임에서, 커닝햄 부인과 다른 선교사들이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사역자 4명과 조선인교회 사역자 이원균과 이성영이 일본기독교단에의 가입을 다수결로 밀어붙였다.[144] 전 서울기독대학교 백종구 교수의 논문, '윌리엄 D. 커닝햄과 한국인 선교-동경 요시야선교회를 중심으로'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17개 교회들도 이인범 목사의 주도로 1945년 7월 19일에 조직된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였다.[145] 하지만 날짜로만 보면, 1943년 9월 17일에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제2대 포교관리자가 된 신신근(平山武雄)에 의해서[146] 이인범은 이미 1943년 9월 30일 포교폐지가 된 상태였다.[147]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교회들이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였다고 할지라도, 일제가 1940년대 초부터 각 교단에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였고, 가입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가입을 주도한 자가 제1대 포교관리자 이인범이었을 수 있고, 제2대 포교관리자 신신근이었을 수도 있다. 일본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종전 후 '일본기독교단'으로부터 탈퇴

144) "A Statement of Facts," Tokyo Christian(TC), April 1941, 40 no. 6, 3.

145) 서정민, 『한일 기독교 관계사 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323-337; 성낙소, '제6장 포교 관리자와 동지 김상준 목사 결탁,' 『자서전』.

146) 「조선총독부관보」, 5020호, 14면(소화18년 10월 23일).

147) 「조선총독부관보」, 5024호, 20면(소화18년 10월 28일).

하였고, 이 가운데 문을 닫은 몇 개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살아남았다. 반면에 요츠야선교부 소속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교회들은 해방 후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돌아오지 않았다.

채이스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까지 한국에 체류할 당시에 요츠야선교부 소속이었던 이난기 목사(용산교회)와 윤낙영 목사(아현동교회)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합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채이스 선교사의 디모데 박판조 목사는 소련군정이 들어선 이북(초도리기독교회)에서 내려오지 못했고,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김요한은 세 차례나 투옥된 후유증으로 1944년 6월 26일에 목회와 '기독교회' 제3대 포교관리자직을 접었으며, 김문화는 옥고의 후유증으로 1949년 2월초에 별세하였다. 그리고 최상현 목사는 6·25동란 때 공산군에 납북되었고, 백낙중 목사는 공산군에 피살되었다. 채이스의 사역자들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은 목회자는 환갑을 갓 넘긴 성낙소 목사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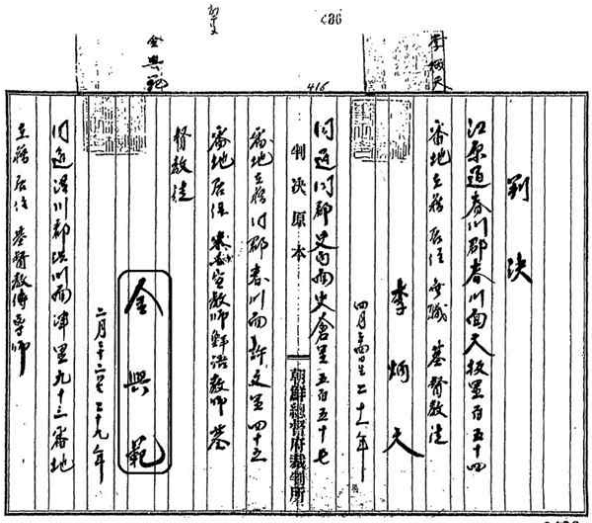
1) 김요한 목사

김요한 목사, 1937년
밀샙스 대학(Millsaps college, 미시시피 주 잭슨)에서 수리학과를 졸업하였고, 에모리 대학교 (Emory University, 조지아 주 어틀랜타)에서 B.D.(오늘의 M.Div)를 받았다.

김요한(金約輪) 목사는 '기독교회' 선교부의 제1호 목사이자 한국인성경훈련원의 제1호 학생이었다. 또 '기독교회'의 제3대 포교관리자였다. 본명은 김흥범(金興範)이며, 동아일보에 따르면, 원산 출생이다. 김요한의 생년월일은, 경성지방법원의 판결문(1919년 6월 12일)에 따르면, 1896(명치29)년 2월 22일생이다.[148] 그러나 동아일보에는 1893년생쯤으로 나타나 있다. 호적나이와 실제나이의 차이로

148) https://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

볼 수 있다. 김요한은 오산고등보통학교(오산고제), 협성신학교, 밀샙스대학(Millsaps College, 수리학과), 에모리 대학교(Emory University, B.D)에서 공부하였다.



이병천(목직, 세브란스전문학교 졸), 김요한(흥범)(목사, 조선어 교사) 원익상 전도사의 조선총독부재판소 경성지방법원 판결원본(1919.06.12)

김요한은 1919년 독립만세사건 당시 춘천감리교회의 목사였고, 테일러 선교사의 한국어 교사였으며, 강원도 춘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선포문과 국민대회취지서' 배포자로 검거되었다.[149] 또 김요한은 춘천검찰국 옥중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병천, 원익상과 함께 1919년 6월 12일 조선총독부재판소 경성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 판결문에 적힌 김요한의 직업은 "목사, 조선어 교사"였다.[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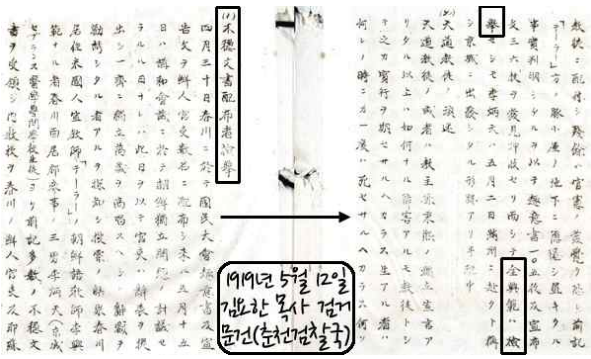
다음의 인용문은 1919년 5월 12일 김요한(홍범) 목사 검거문건(춘천검찰국) 가운데 726-727쪽의 일부이다.[151]

> 4월 23일 경성 세브란스전문학교 졸업생 이병천(李炳天)이라는 자가 경성으로부터 임시정부 선포문을 다수 가지고 와서 이것을 춘천(春川)에 있는 미국 선교사 테일러의 조선어 교사 김홍범(金興範)에게 교부하여

149)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內地 六'(문서철명), '騷擾事件ニ關スル民情彙報(第十六報)'(문서제목), '騷密第1731號;秘受5479號'(大正八年五月十二日 接受, 主管 政務局手決, 第二課印).

150) '김홍범'; '독립운동사 제2권: 삼일운동사(상) - 2 인제군(麟蹄郡)의 운동'(공훈전자사료관, https://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

151) 『독립운동사자료집』 6: 삼일운동사자료집-4. 기독교도(https://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 '2. 강원지역의 3·1독립운동,' 『강원도사 제8권 일제강점기』(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3): 200-202.



널리 관민에 반포·주지시키도록 위탁하였다. 김(金)은 당시 전도사 회의를 위해 춘천에 와 있던 홍천(洪川)교회당의 전도사 원익상(元翊常)에게 사정을 말하고 이를 교부하였던 바, 원(元)은 그 날로 춘천에 거주하는 조선인 관리 수 명에 대하여 이를 보이고, 4월 15일 마침 파리강화회의에 조선독립문제가 상정되어 토의되는 당일이므로 이날을 기하여 조선인 관공리는 일제히 사직을 결행하고, 인민은 다시 맹렬히 독립운동을 할 계획을 말하며 찬성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모두 거절당하자, 다시 다른 지방으로 널리 선전 유포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착수 중에 있었다. 이 사실을 탐지하였으므로 관계자를 전부 검거하여 전술(前述)한 불온 문서 수백 장을 미국인 선교사 테일러의 집돼지 우리 안의 흙 속에 숨겨 둔 것을 발견, 압수하였다.... [중략] 선교사 스토오크스는 4월 중에 임시로 경성에 소집되어, 귀가 후 선교사 테일러의 조선어 교사 김홍범(金興範)에게 임시정부선포문 및 불온 문서 1매를 아무 말 없이 교부한 사실이 있었음을 김홍범이 공술(供述)하였다. 그 후 재조사할 때 동인(同人)은 전에 했던 공술을 취소하고 부인하였는데 약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이후 김요한(홍범)의 포교계(경기도 가평군 내면 읍내리 503번지)가 남감리교회로부터 계출된 것은 1921년 10월 25일이었고,[152] 포교폐지계가 계출된 것은 1923월 3월 12일이었다.[153] 미국 유학을 위해서 목회를 그만 둔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출국을 위해서 춘천 집을 떠난 것은 1923년 10월 18일이었다. 이 사실이 동아일보에 다음과 같이 실렸다. "김홍범씨외유, 강원 춘천군 남감리교회 전도사 김홍범씨는 미국에 유람코자 10월 18일에 경성을 향하야 출발하였더라(춘천)".[154] 김요한이 밀샙스대학(Millsaps College)의 수리학과를 졸업한 후 에모리 대학교(Emory University)에서 B.D.(오늘날의 M.Div)를 받고 귀국하자

152) 「조선총독부관보」 제2786호 2면(대정 10년 11월 25일).
153) 「조선총독부관보」 제3197호 8면(대정 12년 4월 11일).
154) 「동아일보」, 1923년 11월 2일자.

다시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그의 귀국 소식을 전하였다.

> 미국에 부급한 김홍범씨 귀향. 입즉 오산고등보통학교(오산고제)를 졸업하고 다년간 교육계에 종사하든, 김홍범씨(38)는 지난 1924년 미국에 건너가서 「미쓰쓰피」 주 「밀샙스」대학(Millsaps College」에서 수리학과를 마치고 다시 1928년 「조지아」 주 「엠오리」대학 신학과에 입학하야 작년 8월 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신학사의 학위를 어더가지고 이번 귀국하얏는데 동씨는 원산(元山) 출생이며 장차 교육계를 위하야 진력하리라고 한다.[155]

이와 같은 자료들을 근거로 유추해볼 때, 김요한은 대략 1893년에 출생하였고, 춘천검찰국에 검거된 1919년은 대략 26세 때였다. 그리고 30살 무렵에 미국에 건너가 학부와 대학원의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때가 38세였고, 1937년에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를 만난 때는 40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기독교회선교부'의 제2호 목사였던 최상현이 1891년생이고, 제3호 목사였던 성낙소가 1890년생이다. 이들은 1905년생이었던 채이스보다 대체로 10-15살 더 많았다.

김요한은 1937년에 채이스의 한국어 가정교사로 채용되었다가 '기독교회' 곧 그리스도(인)의교회로 환원하였다. 김요한은 춘천감리교회 목사 때인 20대 초중반 때 테일러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경력자였다. 40대 초반에 이르러서 김요한은 비로소 신약성경교회를 만나게 되었다. 채이스와 매일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던 중에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침례를 베푸는 장면에 이르렀을 때, 김요한은 채이스에게 자신도 내시처럼 침례를 받고 싶다고 피력하였고, 채이스는 김요한 목사 부부에게 침례를 베풀었다.[156]

채이스는 기독교회선교부 건물 지하실에 한국인성경훈련원(The 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을 개설하였는데, 김요한은 이 학교의 제1호 학생이 되어 4년간 그리스도(인)의교회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김요한은 채이스가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에 제1호 교재로 소개한 소책자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그리

155) 「동아일보」, 1931년 1월 17일자.
156) KM, 1937년 4월호.

스도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저명한 목사 P. H. 웰시머(Welshimer)가 저술한 20쪽짜리 전도용으로써 제목이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사실들』(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이다.

신당정기독교회 창립주년기념(1938년 3월 6일)
우측에 존 채이스 선교사, 그 앞에 김요한 목사, 그 옆에 강명석 목사
(설교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좌측 끝에 박판조 전도사

1937년 2월에 서울시 안에 인구 3만여 명이 살지만 교회가 없는 곳에 가정집을 임대하였고, 김요한 목사 가족이 그곳으로 이사하여 살면서 그 집에서 3월 첫 주부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채이스의 제1교회가 '기독교회 신당정교회'였다. 채이스는 1937년 6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신당정교회(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계출하였다.[157]

1940년 6월초에 채이스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들어가고, 존 J. 힐(John J. Hill) 가족마저 미국정부의 철수 명령으로 그해 11월 16일 귀국함으로써 선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채이스는 선교부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듬해인 1941년 2월 24일 서울에 도착하여 3월 23일까지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핍박아래 한 달간 체류한바가 있다. 채이스는 이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를 존 T. 채이스에서 김요한(경기도 경성부 신당정 236의 62번지)으로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였다.[158] 아쉽게도 관보에는 포교관리자변경계가 계출된 날짜(月日)가 누락되었다.

1941년 4월 1일 새로운 종교법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선교사들은 입국활동이나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해 12월 7일

157) 「조선총독부관보」 제3178호 10-11면(소화 12년 8월 18일).
158) 「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아침에 일본이 미국 하와이 주의 오아후 섬 진주만에 있는 미군 기지에 기습 공격을 가함으로써 태평양전쟁(1941-45년까지 연합국과 일본과의 전쟁)까지 발발하였다. 게다가 해방 때까지 일제의 발악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신사참배는 말할 것 없고, 행사 때마다 국가 합창(일본국가 기미가요), 동방요배(일왕이 사는 곳을 향한 궁성요배), 전사 장병 묵도, 황국신민서사 낭독,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강요하였다. 심지어 예배당 안에 일장기를 매달게 하였고, 1942년 이후에는 예배 시작 전에 천황 사진을 앞에 놓고 동방요배까지 강요하였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기독교회' 제3대 포교관리자 김요한은 세 차례나 투옥되었다. 채이스의 협력으로 1937-40년 사이에 세워진 다섯 개의 교회들 곧 신당정교회(김요한), 돈암정교회(최상현), 내수정교회(성낙소), 산돈암정교회(김문화) 및 정릉리교회(박판조)가 모두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기를 거부하였고, 동시에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김요한은 1944년 6월 26일 포교관리자폐지계 계출을, 6월 30일에는 이들 교회들의 포교자 및 포교소 폐지계를 계출당하였다.[159]

채이스 선교사는 1947년 1-2월 중 어느 몹시 추운 날 서울거리를 걷고 있다가 우연히 김요한 목사를 만났다. 김요한은 채이스에게 해방 전에 세 차례나 옥고를 치른 후 자신은 목회사역을 쉬고 있다고 말했다.[160] 안타깝게도 김요한 목사의 50대 중반이후의 소식은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

2) 최상현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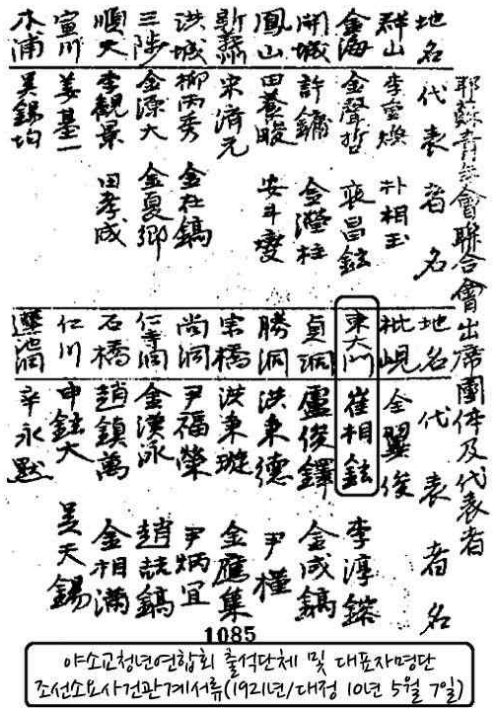
최상현(崔相鉉)은 1891년 12월 27일 평안남도 용강군의 항구 마을인 신녕면에서 아버지 최치홍(崔致鴻)의 아들로 태어났다. 호는 청송(靑松)이었다. 최상현은 진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학을 공부하였고, 진남포의 삼숭학교(三崇學校)를 다녔다. 일제에 재산을 몰수당하여 형편

159) 「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John T. Chase, "Workers Contacted," *CS*, May 1947: 9.

160) '예전 사역자들과의 접촉'(Workers Contacted), KM, 1947년 5월호.

최상현 목사(1891-공산군에 피납)
연희전문학교 제1회 졸업, 연경대학교(수학)
협성신학교 졸업, <신학세계> 편집인 역임

이 어려웠는데도 1912년 평양 숭실중학교를 졸업하였고, 그 무렵에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최상현은 연희전문학교 졸업반이었던 1919년 3·1만세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해외로 발송하는 일을 맡았다. 최상현은 그달 25일에 연희전문학교 문과(철학과 신학)를 제1회로 졸업하였고, 동대문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여 1년간 시무하면서, 연희전문학교 조교수와 동창회 회장직을 겸임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에 최상현은 독립선언서를 영역한 건(件)으로 체포되어 얼마간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후,[161] 중국에 망명(亡命)하던 중 연경대학교에서 잠시 수학하였으며, 미국으로 가려다가 실패하여 귀국하였다. 그러고 나서 최상현은 1921년 3월 동아일보에 『인물평정(人物評定)의 표준론(標準論)』을 연재하면서 문필활동을 시작하였고, 야소교청년연합회 동대문지역 대표를 맡아 활동하였다.



야소교청년연합회 출석단체 및 대표자명단
조선총독사건관계서류(1921년/대정 10년 5월 7일)

최상현은 숭실중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이미 목사가 되고자했기 때문에 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하였고, 학창시절에 3권으로 된 『세계 위인전』을 펴내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161) 기독교문사,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4권: 801.

1922년 4월「신학세계」의 편집을 맡으면서 신앙 및 역사 교양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또 최상현은 출판사에서 일하면서「영데이」(Young Day)를 시작하였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최상현은 1920년대에 전영택(田榮澤), 임영빈(林英彬), 방인근(方仁根), 이은상(李殷相) 등과 함께 기독교문학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다. 최상현은 협성신학교를 졸업 후 1929년 본처사역자로 미국 감리회 조선연회에서 집사목사 안수를 받았다.[162]

최상현이 존 T. 채이스(John T. Chase)를 만난 시점은 집사목사 안수를 받고 궁정교회에 부임하여 첫 목회를 하다가 1931년 체부동교회로 옮긴 후 1935년 목회를 사임하고 성서공회에 관련된 일을 보던 때였다. 최상현은 자신이 저술한 계시록에 관한 소책자들을 팔려고 채이스를 찾아갔다. 그 방문의 결과로 최상현은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학습하기 시작하였고,[163] 머지않아 성경적인 침례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으며, 1937년 9월 1일에 한강에서 침례를 받았다.[164] 어느 날 최상현은 채이스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감리교회를 탈퇴하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 only)으로서 그리스도(인)의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자 선교사가 말하기를, "아 그러세요. 자랑스럽겠군요?" 그러자 최상현 목사가 대답하기를, "예,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상현은 채이스의 제2교회 사역자가 되어 1937년 10월 17일에 첫 예배를 드린 돈암정기독교회를 창립하였다.[165] 최상현이 기독교회로 환원하자, 기독교조선감리회는 1937년 12월 15일 포교규칙 제2조의 의거 최상현(경기도 경성부 천연정 34번지)의 포교폐지계를 계출하였다.[166] 채이스는 최상현이 1937년 10월 17일 제2호 교회인 기독교회 돈암정교

---

162) '최상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은대,『최상현 목사의 사상과 신학』(쿰란출판사, 2007): 20-45.

163) "Notes From the Hermit Kingdom," *CS*, 19 June 1937: 553; "Methodist Minister Becomes Christian Only," *CS*, 20 November 1937: 1081.

164) "Another Preacher Accepts New Testament Christianity," KM, October 1937, 1; "The Gospel Wins Another Denominational Preacher," *CS*, 9 October 1937: 937.

165) "Korean Mustard Seeds," KM, December 1937: 2.

166)「조선총독부관보」제3304호 4면(소화 13년 1월 24일).

돈암정기독교회 창립5주년 기념촬영(1938년 10월 16일)
좌측 두 번째 최상현 목사, 뒷줄 네 번째 존 T. 채이스 선교사

회를 개척하자 동년 11월 10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돈암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400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167] 12월 20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최상현(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의 400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계출하였다.[168]

최상현은 1940년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고, 194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종교법으로 인해서 지원이 끊긴데다가 그해 12월 7일에 태평양전쟁까지 발발한 준엄한 상황에서 일본기독교회 조선교회 가입, 신사참배 및 동방요배를 거부함으로써 교회를 폐쇄당한 뒤에도 비밀리에 모여서 주일을 지켰다.[169] 그 때의 일을 셋째 딸 최윤숙 권사는 진술하기를,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는 항상 전세방이었다. 경찰들에게 끊임없이 추격을 당하던 이래로 교회는 자주 이사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다른 예배도 결코 빠뜨린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또 아들 최윤권 목사는 "최상현 목사는 일본 신사 사당에서 참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일을 구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해초와 새우를 이집 저집 팔러 다녔다"고 하였다.[170]

해방 후 최상현은 1946년 봄에 채이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미군정에 소속되어 한국인과의 연락책(아놀드 장관의 고문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전하였다.[171] 그러고 나서 1947년 1월 중순경에 채이스 선교사가 주일날 돈암동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하였는데, 당시 돈암동교회는

167) 「조선총독부관보」 제3277호 3면(소화 12년 12월 16일).
168) 「조선총독부관보」 제3316호 6면(소화 13년 2월 7일).
169) KM, 1946년 5월호.
170) 『최상현 목사의 사상과 신학』: 391, 399.
171) KM, 1946년 5월호.

일본 적산가옥을 임대하여 살고 있는 한 성도의 가정에서 모이고 있었다. 난방도 되지 않는 집 2층에 있는 두 개의 방에 성인남녀와 학생들까지 40여명이 모였다. 참석한 다수의 성도는 채이스가 1936-41년 사이에 침례를 베푼 성도들이었다. 그날 채이스는 빌립보서 3장 13-14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였다. 채이스로서는 돈암동 그리스도(인)의교회가 일제의 압살정책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신약성경교회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감명 깊은 순간이었다. 채이스는 1948년 12월 12일 돈암동교회의 집회소인 개인주택 2층이 너무 협소하여 70-80명이 앉을 수 있는 널찍한 집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돈의 절반 정도를 협조하였다.

채이스가 1947년 1월 중순에 서울에 도착하여 잠시 머문 후 3월 1일 미국으로 떠난 수개월 후에 일본 큐슈에서 복무하던 공군 군목 할 마틴(Hal Martin)이 김포 미항공기지로 전근을 오게 되었고, 1947년 후반부터 1948년 사이에 채이스 선교사의 부재를 메울 때 최상현(통역)의 협력이 컸다.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겨자씨이자 두 감람나무였던 최상현과 성낙소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로 채이스가 단기방문으로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돈암동교회(최상현 목사, 침례 14명)와 필운동교회(성낙소 목사, 침례 30명)뿐 아니라, 위동교회(성수경 목사, 침례 8명), 공덕교회(백낙중 목사, 침례 19명), 용산교회(이난기 목사, 침례 28명), 아현동교회(윤낙영 목사, 침례 17명)로 발전할 수 있었다.

존 J. 힐(John J. Hill) 선교사 가족이 1949년 2월 18일 서울에 도착하고, 채이스 선교사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경에 떠날 무렵 최상현 목사는 만 57세였으며, 9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이듬해 1950년 6·25사변이 터지고 그 해 8월 최상현은 공산군에 의해 납치된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남은 가족들은 1·4후퇴 때 부강교회(김은석 목사)로 피난하였다. 최윤숙 권사는 그 때의 일에 대해서 진술하기를, "남동생들, 여동생들과 함께 나는 그 교회에서 피난생활을 했고,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먹이셨다. 그곳에서 나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하였다.[172] 최

172) 『최상현 목사의 사상과 신학』: 392.

상현이 공산군에 피체된 계기에 대해서 아들 최윤권은 진술하기를, "내가 공산군에게 체포되었을 때, 내 아버지는 자신을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알았으면서도 혼자서 나의 불공정한 체포에 탄원하려고 중앙 공산당 사무실로 왔다. 공산당정부는 그의 이런 행위가 동기가 되어 마침내 그를 납치했다"고 추정하였다.[173] 아버지 목사에 대한 자녀들의 존경과 감사가 가득한 회고(回顧)와 자녀들이 대를 이어 아버지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헌신한 것을 볼 때, 최상현은 과연 가문전도에도 크게 성공한 훌륭한 목회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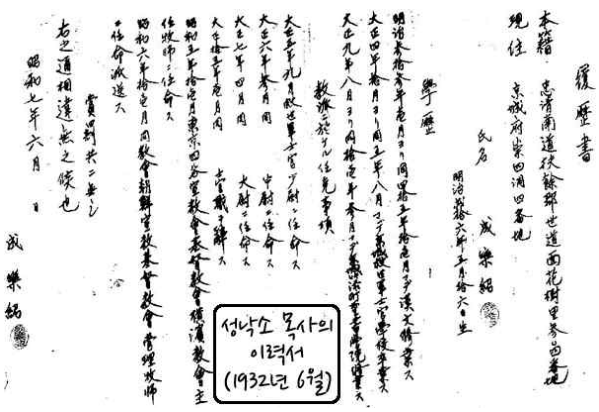
3) 성낙소 목사

성낙소 목사(1890-1964, 내수동, 필운동교회) 한문수학, 경성구세군사관학교, 경성성서학원, '동경자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역임

성낙소(成樂紹)는 1890년(호적상으로는 1893년/명치 26년) 5월 16일 출생하여 1964년 11월 30일 별세하였다.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3의 4번지이다. 1900년 3월부터 1912년 11월까지 한문을 수학하였고, 1915년 11월부터 1916년 8월까지 경성구세군사관학교, 1920년 8월부터 1922년 3월까지 경성 죽첨정(竹添町) 성서학원(아현동 경성성서학원), 1938년부터 1940년까지 '기독교회선교부'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수학(修學)하였다.

성낙소는 홍주성 의병군에 가담하려했다가 기회를 놓치자, 구세군에 가입하였다. 성낙소는 십대 후반, 곧 1908년 10월 정령 허가두 사관(Colonel Hoggard, 영국인)에 의해 한국선교가 시작된 초창기부터 구세군에서 활동하였다. 나라를 잃고 독립을 염원하던 민중이 제복과 군사적 용어를 사용하는 구세군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때였다. 민족의

173) 『최상현 목사의 사상과 신학』: 400.



안위를 염려하던 청년 성낙소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구세군사관이 되려고 결심하였으나 1910년 한일합방이 이뤄지자 포기하였다가 1915년 11월에 경성 구세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16년 9월에 구세군 사관 소위(참위)로 임관되었다. 구세군사관생 때인 1915년 11월부터 1919년까지 부여, 서천, 익산, 영동 구세군전도관에서 목회하였다.

구세군은 1915년 12월 17일 삼용리구세군전도관(충청남도 부여군 남면)에 사관생도 성낙소의 포교담임자계를, 12월 28일에는 포교계(布教届)를 계출한[174] 것을 시작으로 옥북리구세군전도관(충청남도 서천군 서남면),[175] 어량리구세군전도관(전라북도 익산군 망성면),[176] 1919년 3월 5일 계산리구세군전도관(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면), 각계리구세군전도관(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신항리구세군전도관(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에 성낙소의 포교담임자계를 계출하였다.[177]

성낙소는 1919년 이 충북 영동에서 유지들과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왜경에게 쫓겼고, 1920년 7월 30일 포교폐지계를 계출당하였다.[178] 이에 성낙소는 성결교 목사 곽재근의 추천서를 받아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였고,[179] 2년간의 학업을 마친 직후 곧 1922년 3월 구세군에 백의종군하였다. 성낙소는 하사관을 거쳐 정사관에 복직되었으나 1926년 1월 구세군 사관직을 사임하고, 1927년 1월 1일 고향인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2구 290번지 처가댁 사랑방에서

174) 「조선총독부관보」 제1090호 3, 5면(대정 5년 3월 25일).
175) 「조선총독부관보」 제1194호 6면(대정 5년 7월 26일).
176) 「조선총독부관보」 제1772호 4면(대정 7년 7월 3일).
177) 「조선총독부관보」 제2050호 12면(대정 8년 6월 11일).
178) 「조선총독부관보」 제2438호 2면(대정 9년 9월 25일).
179) 성낙소, '제1장 성낙소의 출생과 가정 및 교양,' 『자서전』.

'기독의교회'(基督之敎會)를 시작하였다가 예배처소를 처남의 집(화수리 1구 325번지)으로 옮겼다. 이후 이 기독의교회 출신 청년이 동경신학교에 유학하던 1930년에 성낙소를 '기독교회'(요츠야선교부) 선교사 커닝햄에게 소개하였고, 커닝햄이 도항증과 뱃삯을 보내 성낙소를 일본에 초청함으로써 요츠야선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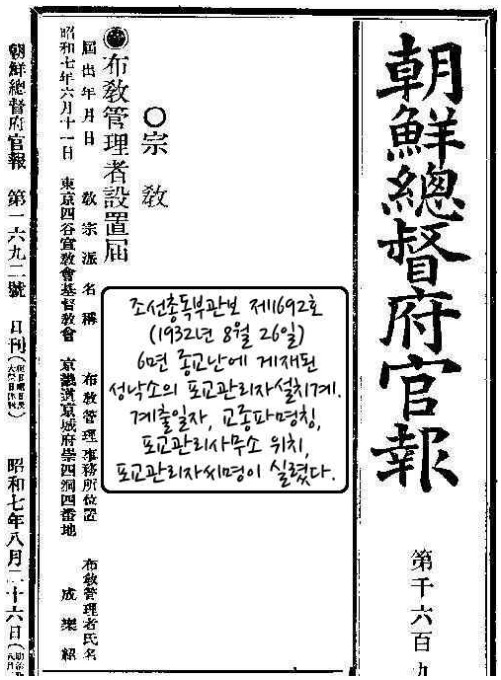
성낙소는 1930년 5월에 동경에 도착하여 커닝햄을 만났다. 이날은 커닝햄 가족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귀국하기 하루 전날이었다. 성낙소는 요코하마시 미야다죠 조선인교회(橫浜市 宮田町 朝鮮人敎會)를 맡기로 하고 먼저 요코하마로 떠났고, 뒷날 요코하마 출항부두에 나가 커닝햄 가족을 환송하였다. 커닝햄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는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의 감독아래 횡빈조선인기독교회를 1931년 1월부터 9월 사임할 때까지 담임하였다. 그리고 성낙소는 1931년 9월(신미년) 하순경에 장로교 목사 박흥순을 대신하여 동경 요츠야선교부 조선지역 포교관리자로 임명을 받고 귀국하였다. 성낙소 목사가 서둘러 한국에 아주 귀국한 이유는 한국에 남아 있는 사모의 병환 때문이었다.

성낙소는 1932년 6월 11일 최초로 '그리스도(인)의교회' 곧 '기독교회'라는 교단명칭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라는 이름으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계출(신고)하였다.[180] 성낙소는 자서전『기독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제5장 본국에 포교 임명(1931)'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관리자설치계를 계출하게 된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성낙소는 1931년(신미년) 9월 하순경에 귀국하여 본가에서 1개월 간 휴양하고, 그 해 11월 15일에 경성에 도착하여 계동에 거주하며 포교를 하려고 한 즉, 일제정책에는 포교하려면, 조선 총독부 종교과에 포교계를 내어 등록된 후에야 하는 고로 포교계를 내는데, 교회 명칭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매우 지연된 것은 기독의 교회라 함은 각 교파도 기독의 교회이니, 기독의 어떤 파라고 하라 하므로, 성낙소의 답은 우리 교회는 교파가 아니고 초대의 교회가 기독의 교회이며, 기독의 각 파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니, 제출한대로 등록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수삼 개월을 힐난하

180)「조선총독부관보」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다가 관리들도 어찌할 수 없으니, 성목사의 임명장을 휴대하고 출두하라고 하므로 지참하였더니, 열람한 결과 동경 요츠야선교회(東京四谷宣敎會) 기독의교회 선교사 커닝함이라고 싸인한 것을 보고는 이와 같이 증정(證正)하여 제출하라고 하기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의교회'라는 명칭으로 제출하였더니 즉시로 등록되어 포교를 활발히 하여 계동, 공덕동, 청엽동, 내수동, 인천 송현동 외 2곳과 평북 구성(平北 龜城)에 기독의교회를 1년 반 동안 7개 교회를 설립하였고, 부여 지방에는 기성(旣成)한 교회였다.


朝鮮總督府官報
第千六百九
○宗敎
布敎管理者設置屆
屆出年月日 敎宗派名稱 布敎管理事務所位置 布敎管理者氏名
昭和七年六月十一日 東京四谷宣敎會基督敎會 京畿道京城府崇四洞四番地 成樂紹
朝鮮總督府官報 第一六九二號 日刊(昭和七年八月二十六日)

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1932년 8월 26일)
6면 종교난에 게재된
성낙소의 포교관리자설치계.
계출일자, 교종파명칭,
포교관리사무소 위치,
포교관리자씨명이 실렸다.

1932년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생산한 기록물철,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설치계에 관한 건」(관리번호 CJA0004799, 문서번호 88-69, 286면) 및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 「사원 창립허가 포교관리 기타의 건」(소화 7년)에 의하면, 성낙소는 1932년 6월 11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포교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에서 교단이름을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를 "성낙소"라고 기재하였고, 주소를 "경기도 경성부 숭4동 4번지"로 적었다.[181] 성낙소는 포교방법으로 "포교소에서의 설교, 순회포교(각 지방 순회하여 전도 강연, 사경회 및 부흥회), 가정전도(가정을 방문하여 성서, 구원, 기도회 인도), 통신포교 및 노방전도"라고 기재하였고, 포교관리자의 권한으로 "총회, 연회, 지방회 의장, 목사안수례 집행, 교역자 임명 등을 관리 감독 등"이라고 적었다. 성낙소는 포교관

181) 「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리자설치계를 계출하면서 요츠야선교부가 1932년 2월 8일 발행하고 윌리엄 D. 커닝햄이 서명한, "경성 계동 127번지의 성낙소 목사를 박흥순 목사를 대신해서 한국 사역자로 임명한다"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성낙소는 포교관리자설치계를 계출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포교관리자설치계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접수된 날짜는 1932년 6월 11일이었고, 심사와 조사를 마치고 결제가 난 날짜는 동년 8월 6일이었으며, 그 내용이 조선총독부관보에 실린 날짜는 8월 26일이었다.

성낙소의 포교관리자설치계를 접수 받자마자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는 25일 일본 동경 문부성 종교과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동경시 사곡구 중정 6번지)가 정규 수속을 받아 포교하고 있는지 사실여부를 취조하여 결과를 알려달라는 조회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일본 문부성 종교과에서는 조선총독부 사회과에서 조회를 요청한 서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관종 34호 소하 7년 7월 11일).

> 문 부 성
> 관종34호
> 1932년(소화7년) 7월 11일
> 문부성 종교과
>
> 조선총독부 귀중
> 6월 27일부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 관한 건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상기의 교회는 당국에 있어서 기독교회의 일파로써 취급하는 것으로 신청한바와 같이 기독교의 일파로써의 승인은 법규상 그런 수속이 정해져있지 않아도 포교 병교회 등에 대해서는 각각 수속을 끝내고 포교하고 있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회답함.

조선총독부는 조회서에 대한 답변을 받고, 8월 20일에 다음과 같은 '관보 게재안'을 작성하였다.

>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에 관한 건
> 경기도 경성부 숭4동 4번지 성낙소에 의해 상기 제목의 신고서를 별지대로 계출한 결과, 동파의 본국의 본부는 내지 동경시에 소재하며, 이것

> 의 연장으로 포교하는 취지에 대하여 만일을 위해 문부성에 조회 한 결과, 실제로 기독교회의 일파로 취급하여 포교 병교회 등에 각각 정당히 수속을 마치고 포교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 상기와 같이 수리하여 하기의 공고와 같이 결정됨.

성낙소 목사가 계출한 포교관리자설치계는 1932년 8월 26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182] 그리고 이 교단명칭은 제2대 포교관리자가 된 이인범 목사에 의해서 1936년 7월 8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로 바꿨다.[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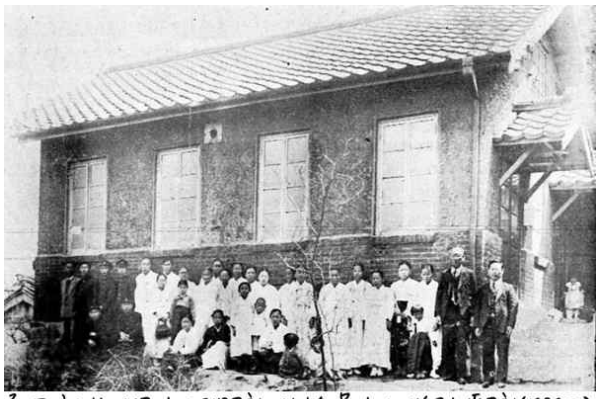
한편 1935년 3월 20일경 한국에 도착한 J.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는 입국 한 달 만인 1935년 4월 25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는 별개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란 교단명칭으로 포교관리자계를 계출하였고,[184] 1936년 11월 7일에 입국한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가 이것을 이어받아 1937년 2월 25일 포교관리자변경계를 계출하여 제2대 기독교회 포교관리자가 되었다.[185] 또 채이스는 1937년에 '기독교회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를 설립하였다.

다른 한편 1936년 9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관리자 이인범으로부터 포교자폐지와 자신의 이름으로 계출(신고)된 모든 것들을 세탁당한 후,[186] 성낙소는 목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적선정에 있던 경성기독교회를 내수정 106의 1번지로 옮겨와 '조선야소교회'에 가입하였다. 다만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적만 두었지, 내용적으로는 침례와 매주일 주의 만찬을 시행하였다. 이런 정황 때문에 성낙소는 1937년 4월에 김문화(金文和) 목사로부터 채이스 가족이 선교사로 서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만나지 않고 있다가 12월 24일에서야 비로소 10대 아들 성수경을 채이스에게 보내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공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낙소가 채이스와 재회한 것은 1938년 전반기였다. 성낙소

---

182) 「조선총독부관보」 제1692호 6면(소화 7년 8월 26일).
183) 「조선총독부관보」 제2883호 6면(소화 11년 8월 21일).
184) 「조선총독부관보」 제2526호 7면(소화 10년 6월 15일).
185) 「조선총독부관보」 제3087호 9면(소화 12년 5월 4일).
186) 「조선총독부관보」 제3042호 6면(소화 12년 3월 9일), 제3143호 9면(소화 12년 7월 8일).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제3교회, 성낙소 목사의 내수정기독교회(1939년)

는 1938년 11월 4일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았고, 1939년 초에 제3교회로 편입하였으며, 1940년 3월 25일까지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신약성경교회를 연구하였다.[187] 채이스는 1939년 3월 29일 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에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성낙소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내수정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포교담임자 선정계를 계출하였다.[188]

성낙소 목사와 내수정(46년부터 필운동)교회는 모든 면에서 가장 확실히 신약성경교회를 실천하였고, 끝까지 살아남았으며, 존 채이스와 존 힐이 미국의 형제들에게 크게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다. 또한 많은 수의 유능한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것은 성낙소와 필운동교회가 내세울만한 업적이다.

성낙소가 1936년 9월 4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포교관리자 이인범으로부터 포교자폐지를 당한 후 적선정에 있던 경성기독교회를 내수정 106의 1번지로 옮겨온 때는 늦어도 1937년경으로 볼 수 있다. 조선야소교회가 1938년 3월 31일 성낙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189]와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의 포교소설치계 및 경성교회에 성낙소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190] 계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역자 측에 따르면, 이 건물을 동석기 목사가 3,000원에 매입한 것은 1939년 9월이었다. 동석기는 이 건물을 성낙소

187) "May I Introduce to You," KM, 1949년 3월; "After Two Years," *CS*, 18 March 1939: 262; 17 June 1939: 594; "Three Evangelists," *CS*, 8 July 1939: 666.

188) 「조선총독부관보」 제3726호 9-10면(소화 14년 6월 23일).

189) 「조선총독부관보」 제4024호 3면(소화 15년 6월 21일).

190) 「조선총독부관보」 제4038호 4-5면(소화 15년 7월 8일).

에게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여 "1945년 9월 내수동교회를 시작하였다."[191] 그리고 경성교회가 1939년 초에 '기독교회선교부'의 제3교회가 되면서 기독교회 내수정교회로 바뀌었다. 채이스가 1941년 2월 24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한 달간 머물면서 촬영한 3월 10일자 사진에는 내수정교회 제2주년으로 되어 있어서[192] 성낙소 목사가 조선야소교회를 떠나 내수정기독교회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39년 초가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그해 9월 이후에 동석기 목사로부터 내수동 106번지 건물을 임대하여 해방 직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운동그리스도(인)의교회(1949년말-50년초)

성낙소의 내수정기독교회는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1941년 후반기에 폐쇄 당하였다. 이후 성낙소는 매주일 예배와 주의 만찬을 비밀리에 진행하던 중에 1943년에 종로구 필운동 289번지에 대지 42평 초가를 매입하여 7월 7일 옮겨간 후[193] 해방 후 그곳에 내수정교회를 복원하였고, 이듬해 1946년에 개명하여 본격적으로 필운동그리스도(인)의 교회 시대를 열었다.

'그리스도의교회'라는 명칭이 문서에 쓰인 가장 이른 시기도 이때 곧 1946년 8월이었다. 성낙소 목사가 작성한 '그리스도의교회 합동 선언문'(서울 사직공원 내 그리스도의교회 성낙소 선언서)에서였다. 다시 성낙소는 1952년 7월 3일에 발행한 책, 『신약교회 목회학』(그리스도의교회신학교출판부)에서도 '그리스도의교회'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

191) 박규현(1962),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약사,' 『그리스도의 교회』 2권: 19-20.
192) 오수강, 『기독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쿰란, 2007): 6.
193) 『기독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202.

(1) 1946년 그리스도의 교회 합동 선언문

성낙소 목사(1890-1964, 내수동, 필운동교회) 한문수학, 경성구세군사관학교, 경성성서학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역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창립하신 교회로 오늘날 각각 분열된 기독교 각 교파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도록 주 예수의 성지를 순응하여 합동 통일 운동을 선언하노라.

요한복음 17장은 주 기도문인 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아시는 바인 동시에 11절 하반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사람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하나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이 됨 같이하게 하옵소서" 하시고, 21절에 "저희로 하여금 다 하나이 되게 하사" 하시고 또 23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화를 내가 저희에게 주어 하나이 되게 하기를 아버지와 나와 하나이 된 것 같이 하오니." 이와 같이 3차나 모든 신자 성도들이 하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신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한 가지 말로하고 상호 분쟁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완전히 합하라." 하셨고, 또 12-13절에 "이는 무타(無他)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요,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여럿이 되며, 바울이 어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하시었으니, 이는 신약시대부터 교회분열이 생길 위험성을 경계함이다. 지금은 모든 신자들이 각각 말하되, 나는 희랍교에 속한 자요, 나는 카톨릭에 속한 자요, 나는 성공회에 속한 자요, 나는 장로교에 속한 자요, 나는 감리교에 속한 자요, 나는 성결교회에 속한 자요, 나는 구세군에 속한 자요, 기타 각 교파에 속한 자라하고 그 단체의 헌법과 장정 규칙을 존중시하고, 성서는 그 다음으로 생각하여 분열됨으로써 분쟁하는 것은 사실이 증명되고 있으니, 성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에 위반되는 것은 구분 설명이 요하지 않는다. 만일 교파 자체로나 신자 자신으로서 합동 통일을 반대하거나 부정한다면, 주님의 기도를 무시하는 자요, 성 바울 사도의 합동 교훈을 부인하는 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을 부인할 신자나 교파는 없을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기약이 왔은즉, 다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 에베

소서 1장 10절에 "기약이 찰 때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여야 한다" 고하였으니, 이제 기약이 찬 때가 왔다. 만물도 통일할 것인데, 그리스도 신자가 통일치 못하면 만물들에게 부끄럽지 않는가? 다시 조선교단의 실정을 살펴보면, 우리 조선의 각 교파나 교회가 악마 왜정시대에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日本基督教 朝鮮教團)이라는 명칭으로 합동 통일한 사실이 있었다. 이는 마귀의 명령으로 합동하여 신사참배하는데 통일 공작의 중심이 되었다. 그런즉 악마에게는 굴복하여 신사참배의 합동 통일은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대로 각 교파 신도의 통일을 부인할 수 있을까? 만일 부인한다면, 주님의 성지인 성경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다. 삼가 조심하라. 그런즉 합동 통일을 함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덮어놓고 합동하자는 것이 아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로 돌아가자. 신약시대의 교회로 돌아가자면, 신약시대의 교회를 찾아야 한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신약성경 중에서 찾아야 한다.

1. 교회 창립자와 머리를 찾자 -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마 16:18; 엡 5:23). 각 교파의 창립자와 머리는 누구인가? 카톨릭은 저스테니안, 성공회는 헨리 8세, 루터교는 마틴 루터, 침례교는 코날드 그레벨, 장로교는 존 낙스, 칼빈교는 칼빈,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 구세군은 윌리암 뿌드, 성결교는 카우만이다.

2. 교회 명칭과 터를 찾자 -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른 이름이며, 그리스도의 터는 그리스도이다(마 16:18; 롬 16:16; 고전 3:11). 그러나 각 교파의 명칭은 성경에 전혀 없다.

3. 교인의 명칭을 찾자 - 오직 그리스도인이라(행 11:26; 갈 2:24; 벧전 4:16). 그러나 각 교파교인의 명칭은 성경에 없다(장로교인, 감리교인 등 . . .).

4. 교인이 되는 방법을 찾자 - ㄱ)믿고 침례받음(마 28:19; 막 16:16). ㄴ)회개하고 침례받음(행 2:38). ㄷ)신앙을 고백한다(행 8:37). 그런즉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받으면 사죄 구원하는 동시에 성신을 선물로 받는다. 침례는 죄의 몸이 죽고 부활과 신생을 얻는다(롬 6:4; 골 2:2). 물과 성신으로 중생한다(요 3:5). 약식 세례는 성경에 없다. 이는 기원 753년에 로마법왕 스티븐 2세가 애돌프스의 집에 시작된 것이다.

5. 침례는 누가 행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찾자 - 목사, 집사, 성도들이다. 침례받는 자는 누구나 행할 수 있다(행 2:38-41; 8:38; 9:17-18). 이상은 사도, 집사 빌립이, 성도 아나니아가 시행하였음. 목사만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교파들의 주장이다.

6.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일을 찾자. 칠일 중 첫날은 주일이요, 일요일이 아니다(행 2:41-42; 20:7).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일곱째 안식일 다음날인 오순절날 성령강림하신 날이요,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 명이 침례받아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 주일이요, 유대교에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다.

7. 신약시대 교회에서 주일을 예배 일로 지켰는가?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위해 모였다(행 2:41-42; 20:7). 주일에 주의 만찬을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안식일을 지켜 유대교인 율법으로 돌아감이 어떨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대교가 아니다.

8.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성경만 믿는다. 성경 이외에 헌법이나 규칙은 죄가 된다(계 22:18). 이상에 대하여 더 알고자 하거나 깊이 연구하시려면 성경에 나타난 신약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 교파와 교인들이여 우리 모두 교회의 합동 통일 운동을 위하여 힘을 합칩시다. 다른 교파에서 신학을 마친 교역자들은 우리 신학 별과를 단기로 수양하니 같이 합시다. 환영합니다.

서기 1946년 8월 일
서울 사직공원 내 그리스도의 교회 성낙소 선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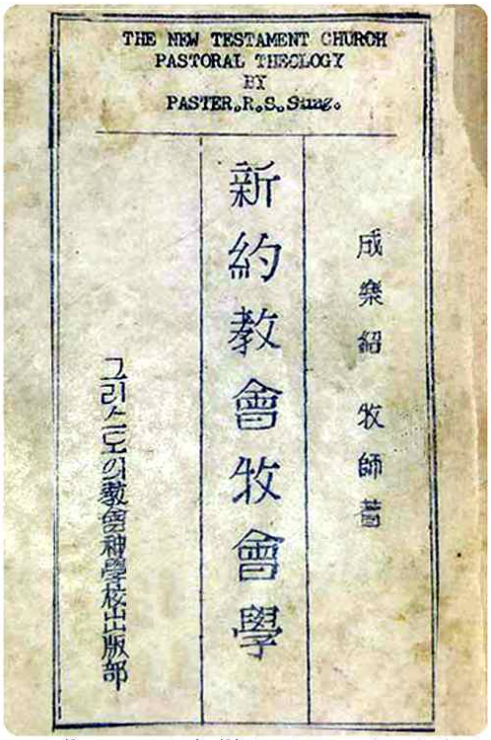
필운동교회는 해방직후까지 '기독교회선교부'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가장 확실하게 살아남은 자기 건물을 가진 유일한 교회였다. 그 덕분에 존 힐 선교사는 1949년 2월 18일에 입국하여 거주하던 연지동의 임대저택에서 개교한 신학교를 이곳 필운동교회로 옮겨 1950년 6월 25일전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채이스 선교사가 1948년 10월 17일에 단기 입국했을 때 성낙소 목사는 만 58세였다. 필운동교회는 1948년 11월 21일 주일 오후에 채이스의 한국방문환영회를 성대하게 열어주었다. 또 이 무렵 필운동교회는 아현동교회의 목사 윤낙영의 생활비를 후원하고 있었다. 힐은 1949년 전반기경에 필운동그리스도(인)의교회에 참석했는데, 그 때 67명이 참석하였다고 했다[194].

(2) 『신약교회 목회학』에 나타난 성낙소 목사의 신약교회

성낙소 목사의 저술에는 『기독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자필 자서전, 1958년경)가 있고, 1953년 6월 10일 인쇄되어 동년 7월 3일 발행된 『신약교회 목회학』이 있다. 『신약교회 목회학』은 서언부터 목차까지가 8쪽, 내용이 282쪽이며, 책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12.5, 17센

194) 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S*, 25 June 1949: 405.



성낙소 목사의 <신약교회 목회학>(1953년 7월 3일 발행)

티미터이다. 본서는 활자(活字) 인쇄본이 아니라, 필사(筆寫) 인쇄본이다. 주목해야할 점은 이 책의 제목이 '신약교회 목회학'(The New Testament Church Pastoral Theology)이라고 한 점이다. 책의 제목에서도 그렇고, 내용에서도 성낙소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격이 '신약성경교회'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자서전과 본서를 통해서 볼 때, 성낙소는 당대에 그리스도(인)의교회운동의 성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신학지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신약교회 목회학』에 나타난 성낙소 목사의 신약교회에 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①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란 인식이 분명하였다.

본서 '제18장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파교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읽을 수 있다.

첫째, 교회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교회'이어야 한다.

둘째, 교파교회의 명칭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넷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의

지체이다.

여섯째, 교파적 신앙과 주의를 경계하여야 한다.

일곱째, 모든 교파는 신약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여덟째, 교파분열은 비성경적이다.

아홉째, "신앙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수(受)하고, 신자가되면 주일성찬으로 예배하는 신약 중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일(唯一) 교회이다.

② 신약성경에 기초한 교회, 즉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인식이 분명하였다.

책의 제목을 "신약교회 목회학"이라고 정한 것이나 서언(緖言)에서 "신약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란 표현을 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첫째, 교회는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사도들이 신봉(信奉)하던 그 신경(信經)과 그 교리(敎理)와 그 신학(神學)을 성경그대로 고수(固守)"(제3장, 2절)하는 신약성경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 교회는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실천, 즉 사도전통을 모본(模本)하여야 한다는 성경해석학적 인식이 분명하였다. 특히 성경 중 신약시대의 신앙교리를 강조해야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교회가 주님의 성훈(聖訓)과 사도들의 교훈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제3장, 3절, 3조).

셋째, 교회의 조직과 치리는 인위적인 교리를 배척하고, 신약교회 교리는 성경중교리(聖經中敎理)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제3장, 3절, 3조).

넷째, 그리스도는 교회는 '성경이 명한대로' 혹은 '하나님이 명한 대로' 따라야 한다는 신념(信念)이 철두철미(徹頭徹尾) 하였다.

> 聖書를 減하지도 말고, 異點을 加하지도 말고, 新約書中에 있는 그리스도의 敎會로 還元하야 一敎會가 되도록 祈禱하며, 役事할지니다(제18장, 3절).
>
> 우리가 聖經中에 있는 聖禮를 行할 時에는 聖經中에 記한 法을 依할지니, 何敎派立法이나 何人의 意見이나 方便을 推尋하지 말고 聖書에 根據하야 如何히 할지니라(제12장, 2절, 3조, 2).

③ 그리스도인 침례(Christian Baptism)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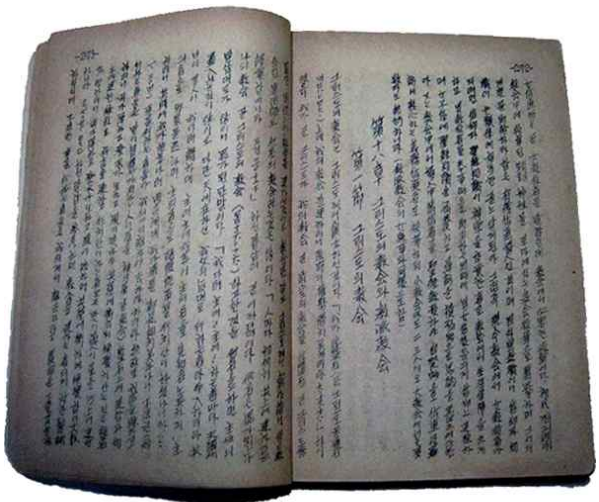
첫째, '제12장 목회자와 성례급예식(聖禮及禮式), 제2절 침례(浸禮)'에서 약식세례는 서기 753년에 시작된 것으로써 "일종(一種) 허명(虛名)의 의식화하여진 것"이므로 "차(此)는 성경위반이다."고 하였다.

둘째, 침례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깨달아 주님을 믿고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 誰던지 福音을 聽하고, 覺而信主하고, 過去 不信 不義 不法 不行과 其他諸般 罪惡을 眞心으로 悔改하고, 信仰告白하고, 浸禮를 受할 수 있고(제12장, 2절, 1조).

셋째, 침례는 죄로 물든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물속에 장사하였다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여 성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 罪의 몸는 十字架에 釘死하고, 水中에 葬事하였다가 主任의 復活에 合하야 水과 聖神을 重生(新生)하야 上帝의 子女로 道의 乳으로 長成聖潔하나니(제12장, 2절, 1조).



성낙소 목사의 <신약교회 목회학>(1953년 7월 3일 발행) '제18장 그리스도의교회와 교파교회' 272-3쪽 부분

넷째, 침례는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합당하게 여기셨으며, 십자가에서 고난의 침례를 받으신 후에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대(大)사명(使命)이며, 친히 아끼시고, 세우시고, 명령하셨으므로, 인간이 감(敢)히 변개(變改)치 못할 성례(聖禮)임을 피력 하였다.

> 浸禮를 主께서 當身이 親愛하시고 立하시고 命令하였으니 人間으로서는 敢히 變치 못할 것이오, 變치 못할지니라(제12장, 2절, 2조).

다섯째, "침례는 기독교의 구원방법에 있어서 중대한 성례(聖禮) 중(中) 일(一)이" 된다고 하였다. 한 생명(生命)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에는 수정, 배아, 태아, 출산, 성장의 과정을 차례로 거치게 된다. 수정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배아단계나 태아단계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정부터 출산까지 모든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 출산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죄(赦罪)의 구원도 믿음만으로 혹은 회개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 성낙소 목사는 이런 뜻으로 "침례는 기독교의 구원방법에 있어서 중대한 성례(聖禮) 중(中) 일(一)이" 된다고 하였다.

> 救援이 곧 赦罪이다. 信仰하고 浸禮를 受하는 人은 救援을 得할 것이오 하였으니, 信仰만하면 다 되는 것이 안이오, 浸禮를 受하여야 한다. 又는 "悔改하야 예수 그리스도의 名으로 浸禮를 受하고 罪赦함을 得하라. 然하면, 恩惠의 聖神을 受하리니" 하였으니, 悔改만 하면 다 된 것이 안이오, 浸禮를 受하여야 한다. 然則 信仰하고, 悔改하고, 信仰告白하고, 浸禮를 受하여야, 救援을 곧 赦罪를 得할 뿐만 안이라, 恩惠로 聖神을 受한다고 主任과 使徒 배드로가 有力하게 말삼하시였다(제12장, 2절, 2조).

여섯째, 그리스도인 침례를 "중생(重生)의 침례," "죄 사함과 성신을 수(受)하는(행 2:38)" 침례로 인식하였다. 또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고(막 16:16), 죄사(罪赦)함을 받고(행 2:38), 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롬 6:3-7), 부활하고(고전 15:29), 중생하고(롬 6:5, 골 2:12, 딧 3:5, 행 2:38), 그리스도로 옷 입고(갈 3:27),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심왕(尋往)하고(벧전 3:21), 성령을 선물로 받는(행 2:38) 유익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우리 그리스도의 敎는 主 여호와 하나님 創造主의 말삼이신 그리스도

> 께서 十字架에 犧牲하시고 復活하사 우리 人類를 贖罪救靈의 光明이 照하야 誰던지 그리스도를 믿고 悔改浸禮를 받으면 聖神이 卽時 內住한 重生者가 主의 名으로 祈禱하면 信仰이 점점 長成하야 聖潔의 生活을 할 것이오, 聖神의 結果가 있어야 한다. 異蹟은 赦罪重生의 大하고 聖經에만 있는 異蹟, 요나의 異蹟과 같이 水中에서 重生의 異蹟이다.(제6장, 2절, 8조, 1)

일곱째, 침례의 집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평신도일지라도 신앙생활이 무흠하면 집행할 수 있음을 성경적인 전거(典據)를 들어 설명하였다.

> 浸禮 執行者는 浸禮를 受한 者로서 信仰이 聖書中에서 無欠하고, 聖神이 充滿者면 執行할 수 있음. 牧師라도 信仰生活에 聖書的 欠陷이 有한 者는 執禮資格을 喪失하였음으로 執行할 수 없을 것이다. 牧師나 長老나 執事나 平信徒나 聖書的 信仰生活이 無欠한 者가 執行함이 可하고, 牧師만 專行的으로 執行權을 聖書中에 주지 안이하였다(제12장, 2절, 3조, 1).

여덟째, 어떠한 경우에도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되며, 유아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으로 침례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 幼兒는 天國에 入할 資格이 有함은 예수님이 證明하셨다(太 18:3). 又난 病中에 主의 福音을 覺悟하고 確實한 信仰과 悔改와 告白이 分明하면, 浸禮를 施할 수 있으나, 危篤中 不完全 意識으로 信主한다는 것으로로마 天主敎式으로 하면 안 된다. 浸禮가 안이고 略式洗禮는 容納할 聖書中에 條件이 없는 까닭이다. 囚獄罪人의게 傳道하야 確實한 信仰 悔改가 分明하면, 何人 男女를 莫論하고 獄官의 承認을 請하야 執行할 수 있나니라(제12장, 2절, 3조, 2).

④ 주의 만찬 중심의 주일예배를 강조하였다.

첫째, 일요일을 성찬예배일로 인식하였다(제12장, 3절, 1조). 구약교회의 5대 제법(祭法) 곧 번제(燔祭), 평제(平祭), 소제(素祭), 죄제(罪祭), 건제(愆祭)가 신약교회에서는 찬송, 기도, 헌금, 성찬, 성경설교로 바꿨으며, 안식일 대신 7일중 수일(首日) 즉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꿨으며, "주님이 일차(一次) 자기를 희생의 제사를 헌(獻)하사 죄를 속

(贖)하시고(히 9:26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주님의 성찬예배로 5대 제전(祭典)을 대신하였다."고 하였다. 또 "구약예전은 신약의 영자(影子,그림자)니, 할례는 신(身)의 사(事)요, 침례는 신심(身心)의 사(事)이며, 제례는 의식(儀式)이오, 성찬예배는 영(靈)의 사(事)이다."고 하였다(제12장, 1절).

둘째, 초대교회에서의 주일예배는 떡을 떼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 (3)主의 晩餐 - 主日 禮拜는 初代敎會 創立日로부터 始作한바 主님의 死中復活을 記念하는 無酵餠과 葡萄汁盞으로 主님의 살과 피를 代身하야 祝辭하고 浸禮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參與하야 主님의 十字架 犧牲祭를 記念하는 聖禮이니 初代敎會에서 安息日을 바리고 主日禮拜가 主의 晩餐으로 創立하였다. "七日中 首日에 我等이 餠을 擘하려하야 集하였더니"(行 20:7). 日曜集會는 餠을 擘하기 위하야 모였음이라. "恒常 使徒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交際하며 餠을 떼여 먹으며 祈禱하기를 務하더라"(行 2:42). 此는 곧 五旬節에 聖神降臨日, 그리스도인 浸禮 始作日, 그리스도의 敎會創立日, 主日禮拜에 聖餐式한 것이다. 그런고로 모든 集會中에 主日禮拜가 此聖禮로 由하야 聖禮中 首位되는 聖會로 嚴守하는 것이다(제6장, 2절, 6조, 1).

셋째, 주의 만찬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명령하신 것임을 인식하였다.

> 使徒들이 主의 遺言의 命令을 受하였음으로 敎會를 始作하면서 主日인 日曜日集會는 主의 晩餐禮拜로 實行順從한 것을 聖書中에서 明白히 發見하였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敎會에서는 그대로 聖書的으로 主의 命令을 遵行하야 安息日이 안이고 곧 禧日에 神靈과 眞理인 十字架의 記念으로 聖餐의 禮拜를 奉行할지니라(제12장, 3절, 1조, 5).

넷째, 주의 만찬의 집례는 목사, 장로, 집사가 집행할 것이나, 만일 교직자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집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 新約時代 敎會創立日인 日曜日에 主님의 遺言이며 命令을 受한 使徒들이 遵守하야 執行하였고(行 2:42), 바울 使徒도 主께 受한 命令을(고전

11:23) 各敎會에서 執行하도록 하였으니, 牧師, 長老, 執事가 執行할 것이오, 萬一 敎職者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主日에 執行하면 된다. 主日은 浸禮 받은 信者가 禮拜한다. 緣故로 初代敎會에서는 安息日 翌日은 七日中 首日에 餠을 擘하는 禮拜集會(行 20:7)하였음으로, 安息日이 廢하고 主日禮拜가 始作된 것이니, 家庭에서도 信者들이 主日禮拜에 餠을 誠意로 擘하야 食하고 上帝를 讚頌하였다. 今日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敎會에서 主日은 聖餐禮拜인 故로 牧師가 없는 敎會에서는 平信徒들만 모여서 信徒中의 一人이 集禮한다. 大東亞戰爭時와 6·25事變 當時에 各家庭에서 或防空壕에서 山野江邊에서 主日을 當하면 家族的으로 個人的으로 聖餐禮拜를 主日마다 奉行하였다. 牧師가 없으면 家族 個人이 禮拜하지 못할 法이 聖書中에 無한 同時에 信者가 集禮할 것이니라(제12장, 3절, 2조, 1).

다섯째,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에 대해서 논하였다.

主日은 男女聖徒가 여호와 上帝께 神靈과 眞理로서 聖晩餐禮拜를 奉行하는 것이 聖旨의 禮典이다. 그러나 聖書中에 注意의 警戒가 嚴然하다(고전 11:30-32). 또 그렇타고 해서 主日 聖餐禮拜를 廢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然則 聖書대로 資格者는 堂堂히 參與할 것이니라. 1)浸禮를 受한 者로서 信仰生涯中에 있는 者. 2)良心으로 回顧 곧 自醒하고 悔改한 後에야 食하고 飮할 것이오. 3)主의 몸과 피를 分辨하야 十字架의 釘死와 復活을 記念할 者이니라. 以上 三種의 以外에 處地에서는 絶對로 參與치 못할지니라(제12장, 3절, 2조, 2).

제대로 된 신학서적 한 권 없던 70여 년 전, 그것도 6·25사변 중, 성낙소 목사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신념이 이러했을진대 석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가 넘쳐나는 오늘에는 그 수준이 어떠해야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성낙소 정도의 인식을 가진 목회자를 쉽게 찾을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한 신학도의 탄식을 들어보자.

....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들을 만나면, 그렇게 깊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제겐 큰 교만이자 정죄 받아 마땅할 부분이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들과의 교제가 망설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냥 어

린 후배의 푸념으로 이해해 주시길^^) ....

1924년 이후 척박한 한국 땅에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개척하고 일궜던 선배 목사들의 열정과 신념은 대단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모두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회 등 타 교단에서 환원한 분들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없어서였지만, 왜 오늘날에서조차 우리 가운데서 환원 2-3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앓고 있는 가장 큰 고질병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의교회를 너무 모른다는 점이고, 그리스도(인)의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김요한, 최상현, 성낙소, 김은석, 동석기, 강명석, 이신과 같은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인물들의 역량(力量)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고, 오늘의 우리가 그들에 대해 자부심과 존경심을 갖기에 충분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신약성경교회의 선구자였던 성낙소 목사의 깊은 영성과 복음에의 뜨거운 열정이 그대로 전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는다.

4) 김문화 목사

「도쿄 그리스도인」(Tokyo Christian, TC) 1933년 10월과 11월호에 실린 채이스가 쓴 글에 김문화(金文和) 목사의 영문이름 이니셜(M. W. Kim)로 볼 수 있는 인물이 언급되어 있다. 이 글에 따르면, 그는 일본 요츠야선교부 소속의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한국의 교회개척지에서 사역하고 있었으며, 그해 8월에 7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만일 이 사람이 김문화였다면, 그가 어떻게 존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의 초기 사역자가 되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김문화 목사(1940년 초, 산돌암정교회)

김문화는 장로교 출신의 목사로서 성낙소와 함께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의 사역자였으나 이인범 목사의 보복으로 1936년 9월 4일 기독교회 포교자 자격을 잃었다.[195]

김문화는 1937년 전반기에 채이스와 재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문화는 1937년 6월 7일 박판조와 함께 한강에서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채이스는 한국인성경훈련원에 성실히 출석하여 공부하는 장로교출신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연장자가 어느 날 채이스에게 말하기를, "저는 20여년 이상 많은 선생들로부터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가 구원에 본질이라는 것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라고 하였고, 장로교출신인 이 두 사람이 6월 7일 월요일에 침례를 받고자하여 한강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하였다.[196] 김문화와 박판조는 장로교출신이었고 채이스의 학생들이었다. 그는 1937년 4월경에 성낙소 목사에게 채이스의 소식을 전하였고,[197] 1938년 1월경에 촬영한 한국인성경훈련원 제1회 2학기 단체 사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채이스는 그를 김요한, 최상현, 박판조와는 달리 기독교회 목회자로는 소개하지 않았다. 그 때 김문화에게는 섬기고 있는 기독교회가 없었기 때문이다.[198] 채이스는 1940년 1월 23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김문화의 포교계를,[199]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자신의 제4호 교회인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산 55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200] 포교규칙 10조에 의거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에 김문화(경기도 경성부 성북정 109의 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201] 1940년 가을에는 총독부가 소집한 각 교단 대표들의 모임에 최상현, 성낙소와 함께 참여하여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1940년대는 조선인들에게 매우 엄중하고 험난한 시기였다. 1941년 4

195) 「조선총독부관보」 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196) "Another Gospel Victory in Korea," *CS*, 17 July 1937.
197) '제7장 기독의 교회 선교사와 신학교 시작,' 『자서전』.
198) KM, 1938년 2월호.
199) 「조선총독부관보」 제3943호 3면(소화 15년 3월 14일).
200) 「조선총독부관보」 제3946호 2면(소화 15년 3월 18일).
201) 「조선총독부관보」 제3956호 6면(소화 15년 3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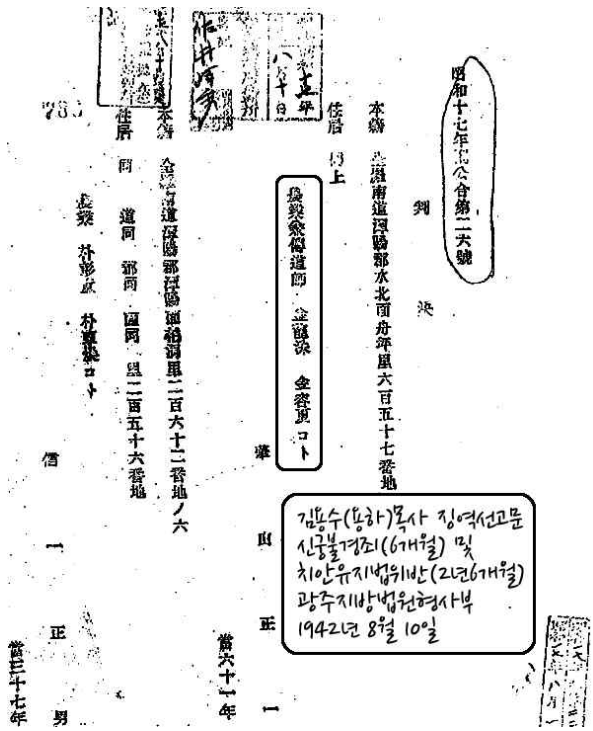
월 1일 새로운 종교법의 시행으로 선교사들의 입국활동이나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해 12월 7일에 태평양전쟁(1941-45년까지 연합국과 일본과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시기에 신사참배는 말할 것 없고, 행사 때마다 기미가요 합창, 동방요배, 전사 장병 묵도, 황국신민서사 낭독,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강요당하였다. 심지어 예배당 안에 일장기를 매달게 하였고, 1942년 이후에는 예배 시작 전에 천황 사진을 앞에 놓고 동방요배까지 강요하였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기독교회' 곧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목회자들은 신사참배, 동방요배 및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 가입에 반대함으로써 체포되어 심문과 고문을 당하였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6월 30일에 포교자 및 포교소 폐지계를 계출당하였다.[202]

「한국인 전령」 1947년 5월호 '예전 사역자들과의 접촉'(Workers Contacted)에 따르면, 채이스는 1947년 1-2월 중 서울에 머무는 동안 예전의 동역자들과 접촉하려고 애썼는데, 김문화는 서울을 떠나 시골에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경까지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채이스는 김문화 목사의 부고를 접하게 되었다. 장례는 그의 아들의 집에서 이뤄졌고, 성낙소 목사가 주관하고 최상현 목사와 채이스 선교사가 보조하였다. 김문화 목사는 사망하기 한 주전에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설교하였고,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으로 청중을 집중하게 만드는 훌륭한 설교가였다.

필자는 김문화 목사가 김동열 목사의 부친인가를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김문화 목사가 김동열 목사의 부친이라고『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289쪽)가 명기(明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부(可否)를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김동열의 부친은 김용수(金龍洙, 자: 용하/容夏)로서 전라남도 담양(潭陽) 사람이다. 국가공훈록과 조선총독부재판소 광주지방법원형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김용수는 1882년 7월 7일생이며, 1957년 4월 28일에

202)「조선총독부관보」 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John T. Chase, "Workers Contacted," *CS*, May 1947: 9.



별세하였다. 본적과 거주지는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水北面) 주평리(舟枰里) 657번지였다. 학력은 8세 때부터 서당에서 한문을 수득(修得)한 것이 모두였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제27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에 반대하여 1938년 평양신학교를 자퇴하고 동향인 박동환(평동) 및 조용택과 함께 낙향하였다는 글도 있으나 확실치 않다. 박동향과 조용택은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에서 박용수가 3년형을 받을 때 각각 2년형을 받은 같은 지역의 목회자들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김용수의 학력을 "무(無)"라고 적었다. 한때 불교(佛敎)신앙을 갖기도 하였으나 1924(대정 13)년경 장로회파 야소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후 담양군 담양면의 집에서 농사일을 하며 전도포교에 종사하였다. 판결문에 김용수의 직업이 "농업겸전도사"라고 적힌 이유이다.

김용수는 전라남도 순창군(淳昌郡), 고창군(高敞郡), 추자도(楸子島), 제주도(濟州島) 등지에서 예수교의 순회전도사(巡廻傳道師)로 활동하다가 1935(소화 10)년경 담양으로 돌아와 포교활동 중에 일제가 강요하는 동방요배(東方遙拜)와 신사참배(神社參拜)를 우상숭배라고 거부했다가 1938년 5월 20일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담양경찰서에 1개월간 구류당하였다. 1938년 6월에 일본종교인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신앙은 허구적인 것이고 위장된 것임을 역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다. 1939년 8월 10일에는 예수교 부흥회에서 '사후중생론'(死後重生論), 1939년 12

월 4일에는 '천국총론'(天國總論), 1940년 5월 19일에는 '말세(末世)와 예수의 재림론(再臨論)' 등을 주제로 일제의 멸망을 설교하였다. 이후 일제 경찰에 붙잡혀 문초(問招)를 받고 61세 때인 1942(소화 17)년 8월 10일 광주지방법원형사부에서 소위 "신궁불경죄"(神宮不敬罪)로 징역 6월형, 소위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 총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판결문에 실린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203]

국가공적개요에 김용수는 박동환(평동) 및 조용택과 함께 조선선교회(朝鮮宣敎會) 전도사로 되어있다.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계출(신고)된 교단들에는 도쿄 요츠야선교부(윌리엄 커닝햄 선교사)의 후원을 받았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가 유일하다. 김문화 목사는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의 전신인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에서 서울 아현동에서 포교활동을 하였으나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 이인범 목사로부터 1936년 9월 4일 포교폐지계를 계출당하였다.[204] 그러나 김동열 목사의 부친인 김용수 목사는, 광주지방법원형사부의 징역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장로교회 목회자였다. 김용수는 1930-40년대 초 기간에 장로교 전도사로서 전라도지역에서 포교활동을 하였고, 김문화는 '기독교회' 목사로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와 '기독교회 선교부'에 소속되어 같은 기간에 경기도 경성부에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이 점이 크게 다른 점이다. 김동열 목사는 부친 김용수가 장로회 소속 목회자였으나[205] 세례를 매우 중요시 하여 김동열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였다.

이밖에도 다른 점은 별세 일자이다. 국가공훈록에는 김용수의 별세 일자가 1957(혹은 1956)년 4월 28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문화의 별세 일자는 1949년 2월 초이다. 남아 있는 사진들을 면밀히 비교해보면, 얼굴형은 거의 비슷한데 머리까락의 차이가 난다. 김용수는 머리까락

---

203) 국립대전현충원 공훈록보기;『독립유공자공훈록』6권(1988년 발간); '김용수 등 판결문,'「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diquest/Search.do#;.

204)「조선총독부관보」제3007호 5면(소화 12년 1월 26일).

205) 김동열,『요한복음 영해』하2 (도서출판 소복, 2014): 120.

이 많았던 반면, 김문화는 머리까락이 많지 않았다.

「한국인 전령」(KM) 1949년 3월호의 내용은 대부분 채이스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경에 떠날 때까지 한국에서 지낸 보고들로 채워졌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존 힐 선교사 가족이 1949년 2월 15일에 한국에 도착한다는 것이고, 김문화 목사가 1949년 2월 초에 사망하였다는 소식이다. 채이스는 존 힐 선교사 가족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에 머물러 있었다.[206]

채이스 선교사는 김문화 목사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 바로 얼마 전 겪은 이번 주 가장 큰 손실은 김문화 목사의 서거였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 그는 신약성경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성경의 명백하고 단순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그분의 아들의 집에서 성낙소 목사의 집례와 최상현 목사와 채이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치러졌습니다.[207]

김문화 목사의 별세 및 그가 김동열 목사의 부친 김용수(용하)라는 증언을 다음의 고리들로 연결해 볼 수는 있겠다. 첫째는『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도서출판 한림, 2006: 289)가 김문화 목사를 김동열 목사의 부친으로 언급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김문화 목사의 별세 전인 1947-48년에 최상현, 성낙소, 할 마틴 군목이 부강교회에서 신약성경교회를 한 두 차례씩 강의한바가 있었다는 점이며, 셋째는 지철희 목사가 "김동열 목사님의 부친은 순교를 하셨는데... 일제말엽 때 복음을 전하시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투옥을 당하셨고, 많은 고문과 고통을 받던 중에 해방을 맞이하여 출감하셨는데, 오갈 때가 없어서 부강 그리스도의교회 사택에서 간호를 받으시면서 기거를 하실 때에 내가 딱 한번 뵌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내가 듣기로는 우리 그리스도의교회에서 아주 귀하고 유명한 목사님이시었다... 부강 그리스도의교회에서 순교를 하셨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알았다."는 글을 남겼다는 점이다. 다만 지철휘 목사는 본명인 김용수 또는 이명(異名)인 김용하

206) KM, 1949년 3월호.

207) "A Great Loss," KM, 1949년 3월호.

를 김용환으로 잘못 기억하였다.

김문화의 별세 소식은 채이스가 김문화의 장례를 치른 직후에 쓴 것이어서, 만일 김문화가 김용수와 동일인이라면, 채이스의 별세연도가 더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김동열은 1953-57년 사이에 신탄진에서 목회활동을 하였으나 이미 그 이전 1940년대 말부터 부강교회에서 개최된 신화신학연구회의 백일집회들에 참여하였다.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1956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교회순방에 나섰을 때, 4월 2월 월요일에 신탄진교회를 방문하였는데, 담임목사가 김동열이었다. 3일 화요일에는 부강교회(김은석 목사)를 방문하였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김문화 목사와 김용수 목사가 별세한 장소는 신탄진교회이거나 부강교회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부강교회의 김은석 목사는 동역자들의 별세자 명단을 성경에 기입해 두었는데, 정찬성 목사(1957년 4월 25일), 김재순 목사(1958년 2월 26일), 강순명 목사(1959년 3월 12일)가 포함되었다. 심지어 이신 목사 부친(1954년 6월 16일)과 이종만 목사 모친(1957년 8월 14일)의 별세 일자까지 적어놓았다. 하지만 김은석은 1957년 4월 23일 목포로 내려가 28일에는 주일이었는데, 강진군 강진읍 용동면과 황동면에 있었으며, 5월 중순까지 전남지역에 머물며 집회를 인도하였다.[208] 국가공훈록대로, 김용수 목사가 정찬성 목사의 별세 3일 후인 1957년 4월 28일에 별세하였다면, 김은석 목사가 몰랐거나 성경메모에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5) 박판조 목사

박판조(朴判祚)는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보다 3살 어렸다. 박판조는 장로교신자였고, 채이스에게 추천될 당시 수년째 성서공회에 고용되어 있었다. 박판조는 채이스를 만나 한국인성경훈련원에 출석하던 중에 자청하여 1937년 6월 7일 김문화 목사와 함께 한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박판조는 이때 29살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 채이스는 한국인성경훈련원에 성실히 출석하여 공부하는 장로교출신의 두 사람

208)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2010): 50, 57, 196, http://kccs.info/keskoreanpaul.pdf.

박판조 목사의 결혼사진(1938년 5월 3일)

이 있는데, 6월 7일 월요일에 침례를 받고자하여 한강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하였다.[209] 박판조는 침례를 받은 후에도 다니던 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개월 후 박판조는 채이스에게 자기가 장로교회를 떠나겠다는 것과 복음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을 피력하였다. 그래서 박판조는 1937년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채이스는 그를 디모데가 될 재목으로 꼽았고, 마음을 준 젊고 능력 있는 일군이었다.[210]

박판조는 곧바로 김요한 목사의 신당정기독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938년 5월 3일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채이스는 이 당시 조선에서는 부모가 정해준 배필과 이유를 막론하고 혼인해야 했고, 박판조가 이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신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가정도 부유했다고 적었다. 또 채이스는 '한국인 겨자씨(Korean Mustard Seeds)'에서 박판조의 동생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하였다. 박판조의 동생이 전차운전사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열렬한 감리교신자였던 한 동료 학생이 박판조의 동생에게 '기독교회'(그리스도의교회)를 단지 새로 생긴 이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박판조는 김요한 목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감리교 목사였고, 미국에서 7년 넘게 공부한 애국지사 김요한 목사가 나서서 이단이라고 말한 그 젊은

209) "Another Gospel Victory in Korea," *CS*, 17 July 1937: 6; "Korean Christian Mission Notes," *CS*, 21 August 1937: 769.

210) "Korean Mustard Seeds," KM, December 1937: 3-4; "Introducing Pan Jo Pak of 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 *CS*, 11 December 1937: 1154.

이에게 그리스도(인)의교회를 설명하였더니, 그 젊은이가 복음을 받아들여 그 후로 신당정기독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211]

박판조는 1939년에 김문화 목사가 담임을 맡았던 산돈암정기독교회를 개척하였고 동년에 정릉리기독교회를 개척하여 담임하였다. 채이스는 1940년 5월 17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박판조(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계를,[212] 제9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기독교회 정릉리교회(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145의 4번지)에 박판조(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213]

박판조는 채이스를 대신해서 1939년 6월 21일 새벽 6시에 부산에 도착한 존 힐(John J. Hill) 선교사 가족을 서울로 안내하였다. 존 힐 가족은 1939년 6월 1일 가노마루(Kano Maru)호를 타고 LA를 떠나 일본 요코하마와 시모노세키를 거쳐 21일 새벽 6시에 부산에 도착하였고, 박판조의 안내를 받아 오후 3시에 서울에 도착하였다.[214]

그리고 모든 교단에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없는데다가 일제의 압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했던 때에 채이스 선교사가 어렵게 재입국하여 1941년 2월 24일부터 한 달 남짓 머무는 동안에 박판조 목사는 선교사들의 공백 기간에 '기독교회선교부'의 회계와 관리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박판조는 이듬해인 1942년에 일제가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적산(敵産)으로 선포하고 몰수하여 1943년에 임차인 전항섭에게 매도할 때까지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에 입주하여 살면서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215]

이후 박판조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기독교회에서 시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도리교회는 1940년 여름에 존 힐과 김요한 목

---

211) KM, June 1938: 1, 3; "For This Cause," *CS*, 2 July 1938: 657.

212) 「조선총독부관보」 제4037호 12면(소화 15년 7월 6일).

213) 「조선총독부관보」 제4035호 2-3면(소화 15년 7월 4일).

214) KM, 1939년 8월호.

215) The Korean Messenger(Bristol, Tennessee, May 1941), Published in the Interest of New Testament Christianity in Korea, by J. T. Chase, Editor and Publisher.

사가 두 주간동안 인도한 집회가 끝날 무렵 달빛이 비취는 동해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된 33인들로 세워진 교회였고, 이후에 최상현 목사가 협력한 교회였다.[216] 초도리교회는 다른 기독교회들과 함께 1944년 6월 30일 포교자 및 포교소폐지계를 당하였다.[217]

존 채이스 선교사는 해방 후 박판조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들려오는 소식은 그가 소련군정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에 머물며 한의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218]

6) 백낙중 목사

백낙중 목사(1949년 12월 9일, 6.25때 피살)

백낙중은 외국어학교를 졸업한 후 오랜 기간 공립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부부가 다 교사였다. 백낙중은 당시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이 무렵에 교사였던 부인과 함께 30년 지기(知己) 최상현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그도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태평양전쟁 직전까지 교편을 잡고 있던 기간에 시간을 쪼개서 근 4년간 김요한,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 박판조와 함께 신약성경교회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백낙중은 1938년 1월경에 촬영된 한국인성경훈련원 학생들의 단체 사진에 포함되어 있고, 당시 최상현 목사가 개척한 돈암정기독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존 J. 힐(John J. Hill) 선교사는 1972년에 남긴 '한국 그리스도(인)의

---

216)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쎄메론』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Responsive Koreans by John J. Hill Missionary to Korea," *CS*, 15 February 1947: 118.

217)「조선총독부관보」제4256호 13면(소화 16년 4월 2일); 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제5352호 5면(소화 19년 12월 6일); 제5387호 3면(소화 20년 1월 23일).

218) "Workers Contacted," KM, 1947년 5월호; John T. Chase, "Workers Contacted," *CS*, May 1947: 9.

교회들의 선교 약사'에서 백낙중 목사가 왕십리기독교회를 시무하였다고 하였는데,[219] 1940년 10월 26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포교소설치계가 계출된 왕십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하왕십리정 893번지)를[220]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왕십리기독교회는 1944년 6월 30일 일제에 의해 포교소폐지계를 당하였다.[221]

백낙중은 해방직후 자신이 세운 공립학교 교실에 공덕그리스도(인)의교회를 개척하였다. 존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가 태평양전쟁으로 백낙중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1948년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백낙중은 공덕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고 있었고, 교인들은 그가 세운 공명학교의 학생들이었으며, 집회소는 그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실이었다. 또 1949년 5월 8일 존 힐이 공덕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참석한 인원이 125명이었는데 소수의 성인남녀와 아이들과 백낙중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었다.[222]

백낙중은 존 힐이 1949년 2월 18일에 입국하여 연지동에서 개교했다가 학생이 많아져 필운동그리스도(인)의교회로 옮긴 '한국기독성경신학교'(Korean Christian Bible Seminary)의 교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949년 12월 9일자 사진들에 의하면, 이 신학교의 교수들은 존 힐, 성낙소, 최상현, 백낙중 네 사람이었고, 이때의 학생들 중에는 최춘선(목사, 애국지사), 오현팔(목사, 독립투사), 이홍식(전도자)도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열거된 한국인 교수들이 모두 존 T. 채이스(John T. Chase)가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교육하고 협조하여 신약성경교회를 개척하게 한 사람들이고, 일제의 탄압을 이기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목회자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최상현 목사는 6·25전쟁 때 공산군에 납북되었고, 백낙중 목사는 공산군에 살해되었다. 최상현은 미군정 때 연락관을 지낸 인물이었고, 백낙중은 미군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통역관으로 일한 교육가이자 목회자였다.

---

219)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쎄메론』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220)「조선총독부관보」제4162호 5면(소화 15년 12월 5일).

221)「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222) 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S*, 25 June 1949: 405.

그런 그들의 경력이 공산군들에게 납북되고 살해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 성수경 목사

성수경 목사와 John and Wahneta Chase(1967년 4월)
[오수강, <기독의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필운동교회,2007)]

성수경 목사는 성낙소 목사의 아들이다. 1937년 12월 24일 아침에 아버지가 일본 요츠야선교부에서 존 채이스(John T. Chase)로부터 건네 받은 명함을 들고 채이스를 찾아갔다. 성수경은 그 때부터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 공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1938년 1월경에 촬영된 한국인성경훈련원 학생들의 단체 사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223]

채이스는「한국인 전령」1949년 3월호에서 성수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 성수경은 성낙소의 아들로서 29살이며,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다년간 한국인 중학교 교사였으나 현재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고, 장차 자신의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는 유능한 일꾼이며, 그리스도(인)의교회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필운동교회와 위동교회 사이를 아버지와 교대로 오가며 정기적으로 설교하고 있다. 우리는 이 소년을 일곱 혹은 여덟 살 때부터 알고 지냈다.[224]

채이스가 성수경을 처음 만난 것은 1937년 12월 24일이었고, 1949년 3월에 29살이었으므로 채이스가 성수경을 처음 만났을 때 성수경의 나이는 17살 혹은 18살 때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년을 일곱 혹은 여

223) "Korean Mustard Seeds," Korean Messenger(KM), February 1938.
224) "May I Introduce to You," KM, March 1949: 2.

덟 살 때부터 알고 지냈다."는 "우리는 이 소년을 열일곱 혹은 열여덟 살 때부터 알고 지냈다"로 이해될 수 있다.

필운동교회는 성낙소 목사가 일제강점기 말엽 한약방(무면허)을 운영하여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중 1943년에 매입한 종로구 필운동 289번지의 42평 초가로써 80여명이 앉을 수 있는 허름한 건물이었다. 채이스가 1947년에 방문했을 때 필운동교회는 엷은 흙벽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었으나 1948년 말과 1949년 초에 방문했을 때는 벽이 수리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예배처소가 필요했던 것은 다른 교회들과 다름이 없었다.

위동교회는 시골에 위치하였고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무렵 위동교회는 개척된 지 6개월 정도 되었으며, 예배처소는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는 친구가 소유한 집이었다. 채이스 선교사가 1947년에 한국에 왔을 때, 성수경은 날조된 살인 누명을 쓰고 서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고, 혐의를 벗고 석방되기를 기다리는 몇 달 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2년 후 성수경은 채이스에게 말하기를 수감 중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다. 성수경은 아버지 성낙소와 교대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위동교회를 섬겼다.[225] 채이스 선교사가 단기방문으로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들은 소식은 필운동교회에서 30명, 위동교회에서 8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었다.[226]

성수경은 존 힐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송월동 32번지의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되찾는 일에도 힘썼다. 존 채이스가 힘쓴 10여 년간의 피나는 노력과 존 힐과 성수경의 노력으로 '기독교회선교부'의 재산을 1952년 중반 경에 돌려받게 되었다. 그 때의 상황을 존 힐은 다음과 같이 썼다.

> 그러나 1951년 7월 3일까지 남자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오기 시작하였고, 필자도 바로 그 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필자는 부산에서 고아원을 시작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 뵈

225) "Come with Me," KM, March 1949: 2.
226) "The Year 1948," KM, March 1949: 1.

려고 갔었을 때, 그분은 필자더러 서울에서 시작하도록 권유를 하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필자의 오랜 친구, 당시 젊은 청년이었던 성수경을 찾았으며, 서대문 근처 송월동 32번지에 있었던 구 선교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동행하였습니다. 전항섭은 탄환이 장전된 연발권총을 들고 우리를 쫓아왔으나 우리가 합법적인 재산 소유자임을 알고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건물의 절반을 차지했고, 전항섭도 나머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약 일 년 후에 미국 대사관과 영국 해외성서공회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침내 전씨를 몰아냈습니다. 그 대신 전씨는 정부가 일본인 자산에서 지불한 정착금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필자는 끝내 재산을 되찾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으며, 전쟁 중 폭격으로 부분적으로 파손된 구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많은 돈을 들여 수리를 마쳤습니다.[227]

1950년대에 성수경은 존 힐을 도와 '기독교회선교부' 고아원을 보살폈고, 1960년대 이후에는 대한기독교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다.

8) 이난기 목사

이난기 목사(동산교회)

이난기(李蘭基) 목사는 1941년에 회갑이었고, 1949년에는 68세였으므로 1881년생이었을 것이다. 이난기는 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하였다. 1921년 11월 29일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 북본정 남감리교회에 포교계가 계출되었고,[228] 1922년 11월 4일 강원도 이천군 안협면 거성리에 포교자거주지이전계가 계출되었으며,[229] 1923년 11월 1일 강원도 이천군 안협면 거성리 361번지에서 포교폐지계가 계출되었다.[230] 1923년에 이

227)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쎄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228) 「조선총독부 관보」 제2525호 10면(大正10年 1月 14日).
229) 「조선총독부 관보」 제3080호 6면(大正11年 11月 16日).
230) 「조선총독부 관보」 제3403호 7면(大正12年 12月 15日).

난기 목사의 포교폐지계가 계출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강원도 이천군 안협면 거성리는 3·1독립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곳이고, 그 지역 사람 18명이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곳이다. 그리고 1923년은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서 9월 1일부터 3-4주에 걸쳐서 재일조선인 수천여명이 억울하게 살육을 당한 해이다.

경성아현정기독교회(1936년 3월 22일)
중앙에 커닝햄과 힛치 선교사가 보인다. 이 여행이 커닝햄의 마지막 조선 방문이었다. 이 순방을 마치고 6월 24일 별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이난기 목사를 위해서 포교계를 계출한 곳은 남감리교회가 아니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였다.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목회자들의 대다수가 성결교 출신이었던 만큼, 감리교 출신 목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교회들(기독교회 조선선교회)에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알 길이 없다. 아무튼 이난기가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서울 제2교회를 개척한 때는 1923년 포교폐지를 당한 지 13년만인 1936년 곧 50대 중반 때였다. 1936년 말까지 서울에는 2개 교회만 있었다. 이난기는 개척교회를 위해 선교부의 지원 없이 건물을 구입하였고, 건물에 챙을 덧대어 사람들이 마당에까지 앉을 수 있도록 집회장소를 넓혔다.[231] 그의 포교계가 계출된 주소는 경기도 경성부 아현정 429의 4번지였고, 1937년 11월 13일이었다.[232] 그리고 1938년 8월 25일 경기도 경성부 서대문구 염리정 3의 53번지로 포교담임자선정계가 계출되었다.[233]

1941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새로운 종교법 때문에 선교후원

231) TC, May 1936.
232) 「조선총독부 관보」 제3019호 5면(소화12년 2월 9일).
233) 「조선총독부 관보」 제3567호 5면(소화13년 12월 8일).

이 불가능해지자 요츠야선교부는 이난기에게 9개월 치 임대료인 190엔을 한몫에 보내주었는데, 교회는 이 돈에 700엔을 보태 빚 890엔을 모두 갚고 예배당을 구입하였다. 또 회갑을 갓 넘긴 이난기 목사는 교회가 자신에게 사례비로 매월 20엔을 주고,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만, 자신은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맙다는 인사편지를 선교부에 보냈다. 이난기 목사는 이 약속을 굳건히 지켰다. 도쿄 요츠야선교부는 이난기의 목회사례를 매우 고무적인 본보기로 여겼다.[234]

그리고 1944년 9월 30일 염리정교회 포교담임자가 이난기에서 유지욱으로 바뀌었다.[235] 이난기 목사가 또 다시 포교를 폐지당한 것이 1943년 9월 17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제2대 포교관리자가 된 신신근(平山武雄)이[236] 주도했을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난기 목사는 해방 후 다시 목회를 시작하였고, 1948년에 이난기와 그의 용산교회가 존 T. 채이스(John T. Chase)의 '기독교회선교부'(The Korean Christian Mission)에 합류하였다.[237] 채이스가 1948년 10월 17일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까지 한국에 체류할 당시에 이난기는 만 68세였고, 신약성경교회에 대한 신념도 확고하였다. 용산교회는 탄탄한 교회로서 불교사원으로 일본인이 건축한 건물에서 모였다. 정부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채이스가 처음 방문해서 느낀 용산교회의 특징은 남녀가 구별된 자리에 앉았는데 한국의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여성신도 숫자보다도 남성 신도가 더 많다는 점이었다.[238]

9) 윤낙영 목사

윤낙영 목사는 1930-40년대 동안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목회하였

234) TC, May 1941.
235) 「조선총독부 관보」 제5353호 1면(소화19년 12월 7일).
236) 「조선총독부관보」 5020호, 14면(소화18년 10월 23일).
237) "The Year 1948," KM, March 1949: 1.
238) "May I Introduce to You," KM, March 1949: 2.

다. 윤낙영 목사는 1920년에 세례를 받고 동경성서학원(성결교)에서 공부하였고, 슬하에 9명의 자녀를 두었다. 1927년 3월에 동경기독교회(성결교)를 설립하여 28년까지 시무하였고 풍교교회와 3개의 기도처를 개설하였다.[239] 1930년대에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선교사 윌리엄 커닝햄이 세운 도쿄 요츠야선교부에 고용되어 조선선교회 기독교회(포교관리자 이인범 목사) 산하 기독교회들(아현정, 영등포)을 개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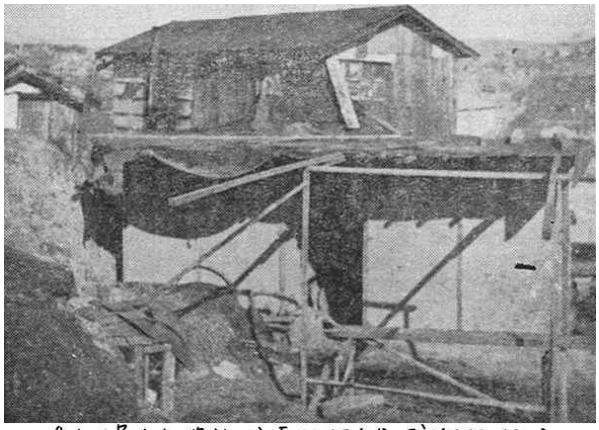
요츠야선교부의 조선선교회 기독교회 서울 제4교회였던 아현정기독교회는 윤낙영 목사에 의해서 12명이 침례를 받고 1938년 5월 8일 아현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권신 여전도사가 이 교회를 도왔다. 그러고 나서 윤낙영은 영등포기독교회의 담임목사로 선정되었다. 이때 비로소 포교관리자 이인범 목사는 1938년 8월 22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윤낙영(경기도 경성부 흑석정 37번지)의 포교계를,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영등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영등포정 256번지)의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계출하였다. 또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영등포기독교회에 윤낙영(경기도 경성부 흑석정 37번지)의 포교담임자선정계를 계출하였다.[240]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증평교회에서 목회하였다. 그리고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가 1948년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1949년 2월 중순까지 한국에 체류할 당시에 윤낙영 목사와 그의 아현동교회는 성낙소의 인도로 '기독교회선교부'의 교회들에 합류되어 있었고 1940년대 말까지 아현동에서 목회하였다.

윤낙영 목사의 아현동 그리스도(인)의교회는 좁고 가파른 흙길 언덕에 있었다. 채이스는 1949년 1월 12일 수요일 밤에 설교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 가야했다. 감기에 걸린 상태인데다가 눈까지 쌓인 밤이었다. 교회에 오가는 길이 너무 더럽고 미끄러웠다. 그러나 일행이 도착할 무렵에 80여명의 교인들이 2층의 천정이 낮은 두 개의 방을 메우고 있었고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천정이 너무 낮아 채이스는 상체를 꼿꼿이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를 마쳐야했고, 예배 후 아래층

239)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http://kcm.kr/dic_view.php?nid=40150: 208.11.28 입력.

240) 「조선총독부관보」 제3567호 4-6면(소화 13년 12월 8일).



윤낙영 목사가 시무한 아현동 그리스도(인)의교회(1948-49년) 방 두칸짜리 2층이 집회소였고, 80여명이 출석하였다. 천정이 낮아 채이스 선교사는 상체를 세우지 못했고,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되었다.

에서 다과를 먹는 중에 채이스는 예배가 파했는데도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2층에 남아 여전히 힘차게 부르는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했다. 1949년 당시 성낙소 목사의 필운동교회가 윤낙영 목사의 생활비를 후원하고 있었다.[241] 아현동 그리스도(인)교회의 윤낙영 목사는 1949년 전반기경에 기독교회선교부(존 J. 힐 선교사)가 85달러를 주고 매입한 만리동 소재의 오래된 건물을 수리하여 교회를 새로 개척하였다.[242]

김성철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윤낙영 목사(아현동교회)의 집이 병점과 오산사이에 있었다는 것과 김은석 목사(부강교회)와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은석 목사의 서울집이 아현동 금화산 언덕에 있었는데, 1950년에 이화여자대학원에 다니던 윤낙영 목사의 큰 딸과 언니 뒷바라지를 하던 여동생이 건넌방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다. 동년 8월에 12세의 김성철이 수개월간 병으로 자리에 누웠다가 겨우 회복된 양아버지 김은석 목사를 모시고 피난을 가던 중에 병점과 오산사이에서 윤낙영 목사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둘째 딸만 집에 남아있고 가족이 모두 피신하였기에 만나지 못한바가 있었다.[243]

1952년 9월 14일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평택리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 평택교회(평택시 비전동)를 개척하였고, 1954년 3월 사임하였다.[244]

---

241) "Too Many People?" and "The Year 1948" and "May I Introduce to You," KM, March 1949.

242) 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S*, 25 June 1949: 405.

243)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도서출판 시시울, 2020): 84-86.

244) '교회연역,' http://www.ptbc1.net/main/sub.html?pageCode=4.

1955년 7월 6일에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영등포교회 제3대 담임목회자로 부임하여 1958년 전반기까지 목회하였다.[245]

4. '기독교회'(남대문통)의 새 출발과 존 J. 힐 선교사

1) 존 J. 힐 선교사의 초기 선교활동(1939.06.21-1940.11.16)

존과 에스더 힐(John and Esther Hill) 선교사 부부(1939년)

존 J. 힐(John Jesse Hill)은 1913년 3월 22일 오클라호마주 아피톤(Ahpeatone)에서 태어나 1931년 인디애나 주 로웰(Lowell) 고등학교를 차석(Salutatorian)으로 졸업하였고, 1936년 5월에 테네시주 소재 존슨성경대학(현 Johnson University)을 차석(Salutatorian)으로 졸업하였다. 힐은 로웰에서 10살 때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이후로 줄곧 그리스도(인)의교회 신자였다. 힐은 성경대학 3학년 때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잃은 자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도가 복음의 구두 선포 곧 "전도의 미련한 것"(by the oral proclamation of the gospel - "the foolishness of preaching"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설교자가 되려고 하였고, 다른 어떤 직업(부름)도 동료 인간들과 주 예수님을 그토록 위대하게 섬길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입문하였다고 했다.[246]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때 장래사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던 힐은 존 T.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가 1936년 봄에 존슨성경대학을 방문하였을 때 그와 선교사역에 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학장 알바 로스 브라운(Alva Ross Brown)은 그런 힐을 채이스에게 적극 추천하였다.[247]

---

245) '교회연역,' http://youngchim.com/?page_id=609.
246) *CS*, 15 September 1934: 646.
247) KM, October 1938.

힐은 존슨성경대학을 졸업한 그해 1936년 7월 5일 로웰교회의 오후 예배 때에 목사안수를 받았다.[248]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 에일머(Aylmer, Ontario)에 소재한 그리스도의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다. 이 기간에 힐은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지에 실은 글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과 "제자들 교회"(Disciples church)로 부르거나 불리지 말고 "그리스도의교회"(church of Christ)로 불러야하고 불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24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은 캐나다나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인디애나 주 로웰 공공도서관(Lowell Public Library in Indiana)이 지방지 「로웰 트리뷴」지에 실린 존 J. 힐(John Jesse Hill)에 관한 기사들을 취합한 내용들과[250] 「크리스천 스탠다드」지에 실린 기사를 보면, 힐은 목회를 시작하여 2년이 막 지난 1938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 위한 준비를 1년간 하였다. 존슨성경대학의 학장 알바 로스 브라운과 채이스 선교사가 존 힐이 한국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하도록 교회들에게 강력히 추천하였다. 브라운 학장은 "힐이 (되돌아갈 수 없도록) 자신이 건너온 다리들을 불태우고 있고(He is "burning his bridges behind him", 가능하다면 신속히 선교지에 가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브라운은 힐이 대부분의 교과목들에서 A학점을 받은 매우 훌륭하고 특별한 성숙한 사고력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표명한 인재라며 강력히 추천하였다.[251] 그리고 힐은 이듬해인 1939년 4월 22일 에드워드 J. 캐인(Edward J. Cain, minister at Connersville)의 주례로 인디애나 주 워렌 출신의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 of Warren, Indiana)와 혼례를 치렀다.[252] 그러고 나서 꼭 한 달이 지난 1939년 5월 23일 존(만 26세)과 에스더(18세) 힐 부부는 한국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였다.

존과 에스더 힐은 1939년 6월 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고쿠사이 여객

248) "Ordination," *CS*, 18 July 1936: 702.

249) *CS*, 2 January 1937: 23.

250) https://www.lowellpl.lib.in.us/hilljohn.htm.

251) "Another Missionary for Korea," *CS*, 3 September 1938: 856; 10 September 1938: 893.

252) "Missionary J. J. Hill Marries," *CS*, 13 May 1939: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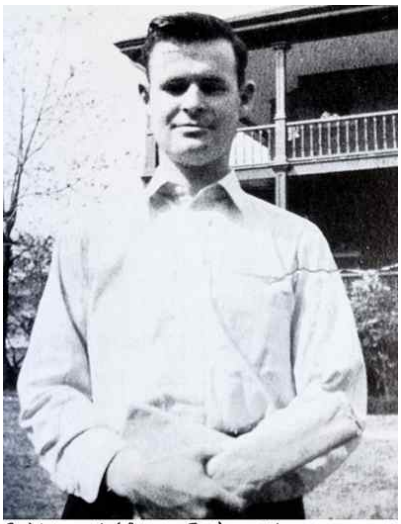
선(Kokusai Line)인 가노마루(Kano Maru)라 불린 일본 화물수송선을 탔다. 12명의 승객 가운데 3명은 교파교단의 선교사들이었다. 배는 보름만인 6월 16일 금요일에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하였다. 그레이스 빤함(Miss Grace Farnham) 선교사가 요코하마까지 마중 나와 도쿄로 안내하였다. 힐 부부는 도쿄에서 토마스 힛치(Thomas G. Hitch) 선교사의 딸 앨리스(Alice Hitch)와 한국으로 건너간 힛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요츠야선교부에 투입된 오웬 스틸(Owen and Shirley Still) 선교사 부부 그리고 존스(Miss Jones) 선교사를 만났다. 고향(Lowell, Indiana) 사람이자 감리교 선교사인 메이 베일리(Miss May Bailey)도 만났다. 이튿날 요코하마에서 출발하여 배로 오사카에 6월 18일 주일날 도착하였다. 선교사 M. B. 매든(Madden)이 마중을 나와 이민국수속과 세관 검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었다. 화요일까지 매든 가족과 해롤드 콜(Harold Cole) 선교사 가족 그리고 브랠리(Braley) 가족을 방문하였고, 오사카의 명소와 선교지를 둘러보았다.

오사카에서 화요일에 기차를 타고 밤에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였다. 밤새 배로 이동하여 수요일 아침 6시경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채이스 선교사가 박판조 형제를 부산에 보내 힐 부부를 서울로 안내하게 하였다. 6월 21일 오후 3시에 서울(Keijo, 경성)에 도착하였다. 채이스와 힛치 부부가 서울역으로 마중을 나와 주었다. 채이스의 부인은 중국에 가고 없었으므로 며칠이 지난 후에 만날 수 있었다.[253]

1939년 여름에 선교사 가족들이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진포에서 함께 휴가를 가졌다. 해롤드 콜 부부(Harold Cole, 오사카), 루스 슈노버(Ruth Schoonover, 도쿄), 토마스 힛치(Thomas G. Hitch) 부부와 딸 앨리스(Alice), 존 채이스 가족 및 존 힐 부부가 함께 하였다. 이 휴가 모임은 토마스 힛치 가족의 송별회를 겸한 것이기도 하였다. 힛치 부부와 딸 애니(Annie)는 이 휴가를 끝으로 8월말에 한국과 일본을 떠나 호주로 영구 귀국하였다. 힛치의 딸들 가운데 에밀리(Emilie)는 이미 4월에 귀국하였고, 도쿄에서 사역을 했던 앨리스(Alice)는 영국정부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여 1940년 10월 30일 귀국하였다. 이 무렵에 힐

253) "A News Letter," KM, 1939년 8월호; "New Missionaries, Mr. and Mrs. John J. Hill Arrive in Korea," *CS*, 2 September 1939: 858.

은 일본 동경에서 활동했던 W.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1864-1936) 선교사 부부의 일생기(一生記), 『타오르는 횃불』을 읽고, 특히 한국 선교에 관련된 부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254]


존 힐(경성부 송월정 기독교회선교부, 1939-40년)

1939년 후반기에 사역을 시작한 존 힐은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면서 영어성경클래스들을 운영하였고, 한국인성경훈련원에서도 강의를 하였다.[255] 그리고 12월 31일 내수정교회에서 7명의 여성들이 침례를 받을 때 성낙소 목사를 보조하였다. 침례를 받은 여성들 가운데 2명은 박판조 목사가 막 개척한 제4교회(산돈암정기독교회) 신자들이었다. 힐은 1939년 한 해 동안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총 88명이었고, 1940년 2월 1일까지 2개의 교회가 개척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256] 이 기간에 힐은 「크리스천 스탠다드」지에 보낸 글에서 도로가에 세워진 수많은 간판들을 보고 또 그 막강한 영향력을 생각할 때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로가나 자기 소유지에 전도용 간판들을 세우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257]

1940년 1-2월 동안에 38명이 침례를 받았다. 존 채이스 가족이 안식년과 모금을 위해 6월 1일 미국에 들어간 사이 힐 선교사가 선교부의 책임자로 사역을 감당하였다.[258] 힐은 3월 중순경에 내수정기독교회에 영어성경클래스를 개설하였다. 클래스 시간은 주일 저녁 6시 30분부터

---

254)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Taejon Korea, 18 April 1972), http://kccs.pe.kr/rmes002.htm; 初譯: 『쎄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再譯: 조동호, http://kccs.pe.kr/rmp002.htm(1999.3);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재단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30-39.

255) "1939 Viewed from January 1940," KM, 1940년 2월호.

256) "The Voice of the Hills," KM, 1940년 2월호.

257) *CS*, 1939년, 날짜와 페이지 미상.

258) "Korean Mustard Seeds," KM, 1940년 4월호.

7시 30분까지였는데, 이 시간에 클래스를 개설한 이유는 클래스가 끝나마자마자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저녁집회로 영어성경클래스 참석자들을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영어성경클래스 모임 때 7명이 참석하였는데, 참석자 대부분은 '기독교회'(그리스도의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학생들이었다. 그날 저녁 성낙소 목사는 침례에 대해서 설교를 한 후에 혹시 침례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놀랍게도 영어성경클래스에 참석한 7명의 학생들 가운데 4명이 침례를 받겠다고 자원하였다. 그리고 4명의 자원자들 가운데 2명은 그 밤에 즉시 침례를 받고 싶다고 자원함으로 기독교회선교부로 자리를 옮겨서 그 밤 9시 30분에 2명이 침례를 받았다. 그 가운데 한 명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장로교회 목사의 아들이었다. 그 학생은 침례를 받은 후에 말하기를,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a real Christian)이 된 것 같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259]

또 힐은 선교지에서의 일상 곧 자신의 주일날 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 오전에 아침식사를 하고 성경을 조금 공부한 다음 교회에 갈 차비를 한다. 10시 15분에 교회를 향해 출발한다. 교회는 대략 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45분 정도 걷거나 전차를 타거나 하여 오전 11시 예배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도착한다. 오후 1시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오후 3시에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기독교회선교부로) 온다(전 주일에는 13명이 침례를 받았다). 이 침례예식은 종종 오후 4시까지 지속된다. 오후 4시 30분에 영어로 진행되는 외국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나선다. 오후 6시에 예배를 끝내고 걸어서 집으로 온다. 그러고 나서 대략 20분 이상 걸리는 한국인교회로 간다. 그리고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영어성경클래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8시 30분까지 한국어 설교예배를 경청한다. ('외국인들인' 우리에게는 한 시간 내내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9시경에 저녁을 먹는다.[260]

존 힐은 6월부터 11월 중순까지 5개월 반 동안 기독교회선교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업무가 갑자기 많아졌다. 기독교회 제2대 포교관리자

---

259) "Hill Top Experiences, By J. J. Hill," KM, 1940년 4월호.
260) "A Lord's Day at the Mission," KM, 1940년 4월호.

인 존 채이스 가족이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이다.[261] 힐은 이때 만 27세였고 선교사경력 1년차였다. 채이스는 힐보다 8살이 더 많은 35살이었고 선교사경력 11년차였다. 채이스 가족은 경기도 경성부 송월정 32번지 기독교회선교부 건물구입에 따른 부족금액을 모금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갖기로 하고 1940년 6월 1일에 서울을 떠나 18일에 미국에 도착하였다.[262]

존 채이스 가족이 한국을 떠난 지 4개월쯤 지난 10월에 미국정부는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자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므로 한국을 떠날 것을 충고하였고 배를 보내 철수를 도왔다. 그래서 존 힐 부부는 한국에 온지 17개월만인 1940년 11월 16일 총 219명의 미국인들을 태운 마리포사(Mariposa)호를 타고 인천항을 떠나 미국으로 철수하였다. 이들 가운데 189명이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이었다. 이듬해인 1941년 9월에는 일제에 입건되거나 기소되었던 잔류(殘留) 선교사 22명 가운데 대부분이 철수하였고, 끝까지 잔류한 원한경(H. H. Underwood)을 포함한 40여명은 1941년 12월 7일 아침에 발발(勃發)한 태평양 전쟁이후 일제에 억류되었다가 1942년 6월에 연합국이 억류한 일본인과 맞교환을 위해 부산항을 출발하여 일본으로 이송되었고 8월이 되어서야 미국 뉴욕에 도착할 수 있었다.[263] 이 같은 사실은 채이스가 기독교회선교부 재산보호와 내국인 사역자들의 일 년치 교회운영비 마련을 위해서 1941년 2월 24일 급거(急遽) 입국하여 3월말까지 체류할 당시에도 조선 땅에는 여전히 꽤 많은 선교사들이 잔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힐은 철수 직전에 "변화하는 조선"이란 글을 「크리스천 스탠다드」에 실었다.[264] 힐이 기독교회선교부의 총괄책임을 맡은 1940년 6월 1일부터 11월 16일 철수 직전까지 5개월 반 동안 남긴 가장 큰 업적은 초도리기독교회를 개척한 것이었고, 추가로 왕십리기독교회가 개척된 것이었다.

---

261) "Missionaries' First Year in Korea," *CS*, 24 August 1940: 842.

262) "Some Accomplishments," KM, 1940년 12월호.

26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435-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외국인 선교사 추방 사건).

264) *CS*, 12 October 1940: 1050.

1940년 여름 힐과 김요한 목사가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에 갔을 때, 초도리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 할머니는 수년 전 감리교회 선교사와 접촉을 했었고, 여전히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집에서 전도 집회를 여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이 집회가 두 주간 이어지는 동안 마을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었고, 집회가 끝날 무렵에 33명이 달빛이 비취는 동해바다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초도리기독교회가 개척되었다. 이후에 최상현 목사도 협력하였다. 초도리기독교회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0번지의 벽돌집을 구입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는데, 일본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훼방을 놓았다. 일본은 한국에 체류하는 선교사들을 모두 스파이로 간주할 뿐 아니라, 그들과 교류하는 한국인들을 의심하여 핍박하였으며 건물을 구입하거나 건축하는 것을 불허하였다.[265] 그리고 9월 17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초도리기독교회의 포교자로 송암 승웅의 포교계가 계출되었다.[266] 초도리와 화진포 지역은, 김일성의 별장이 남아있는 것에서 보듯이, 해방직후 소련군정과 북괴치하에 있다가 6·25동란 때 국군의 북진으로 수복된 지역이다. 초도리교회의 목회자로 계출된 자는 경성부 송월절 32번지에 주소를 둔 정릉리기독교회의 포교자였던 박판조 목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4년 6월 30일 초도리교회의 포교소폐지계 및 포교자폐지계가 계출되었다.[267]

왕십리기독교회는 백낙중 목사에 의해서 1940년 9-10월경에 개척된 것으로 추정된다.[268] 왕십리기독교회(경기도 경성부 하왕십리정 893번지)는 1940년 10월 26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포교소설치계가 계출되었기 때문이다.[269] 그리고 왕십리기독교회는 1944년 6월 30일 일제에 의해 포교소폐지계를 당하였다.[270]

---

265) "Responsive Koreans by John J. Hill Missionary to Korea," *CS*, 15 February 1947: 118.

266)「조선총독부관보」제4130호 4면(소화 15년 10월 28일).

267)「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제5352호(소화 19년 12월 6일).

268)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269)「조선총독부관보」제4162호 5면(소화 15년 12월 5일).

270)「조선총독부관보」제5306호 1면(소화 19년 10월 10일).

힐은 1940년 가을에 한국인성경훈련원을 개강하였으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일본경찰이 찾아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경훈련원을 폐쇄하라고 시달하고 돌아갔다. 이후로 일제는 선교사들을 더 심하게 탄압하였고, 특권을 박탈하였으며, 감시를 강화하였다.

2) 존 J. 힐 선교사의 태평양전쟁기간의 활동(1940.11.17-1949.02.17)

존 힐(John J. Hill), 에스더(Esther Beavans), 첫째 브루스(Bruce), 둘째 버지니아(Virginia), 셋째 수잔(Susan). 3살 때인 1944년경 군목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

1940년 11월 16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온 후 존 힐은 한국 상황을 주시하며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동안 목회에 매달렸다. 힐은 미국에서 교회들을 섬기는 동안이나 태평양전쟁 중에 군목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한국에 돌아갈 희망을 꺾지 않았다. 힐은 미시간 주 스터지스(Sturgis, Mich.)에서 1941년 1월부터 1943년 4월경까지 교회를 섬겼고 1944년 9월 20일까지는 웨스트버지니아 주 패든시티(Paden City, West Virginia)에서 목회하였다. 이 무렵 힐은 에스더 비반즈와의 사이에서 브루스(Bruce), 버지니아(Virginia), 수잔(Susan)을 낳았다. 힐은 1944년 10월 5일 로웰을 떠나 매사추세츠 주 포트 데븐(Ft. Deven, Mass.)에 소재한 군목학교에 입학하였고, 5주간 훈련을 마친 후 중위로 임관되었으며, 루이지애나 주 클레이본 캠프(Camp Claiborne, LA)에 배치되었다

존 힐 중위는 1945년 3월 6일부터 해외근무를 시작하였다. 힐이 탄 배는 몇 차례 잠수함을 잘 피한 끝에 4월 7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였다. 힐이 군목이 된지 6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 도시는 일본군에 의해서 거의 파괴되었고, 끔찍한 잔학행위가 자행되었음이 곳곳에

서 드러났다. 사람들이 산 채로 불태워지고 여성과 아이들이 총검에 찢겨서 신체가 벌어진 채였다. 힐은 규모가 큰 수용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힐은 일본군에 잡혀서 수감된 후 기아상태에 빠졌다가 회복 중인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소속 선교사들을 발견하고는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레슬리 울프(Leslie Wolfe)의 사모, 윌리스 헤일(J. Willis Hale) 부부, 레이 칼슨(Ray Carlson) 부부와 자녀들, 에디스 쉼멜(Edith Shimmel)과 에델 존스(Ethel Jones)였다. 그들은 여전히 수척하였지만, 해방당시 그들의 건강상태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었다. 힐은 버논 뉴랜드(Vernon Newland) 부부가 이미 수일 전에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했고,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필리핀 선교의 개척자 레슬리 울프는 힐이 수용소를 방문하기 대략 두 주일 전에 사망하였다고 전했다. 선교사 울프는 수감생활로 인한 극심한 영양결핍에서 회복되지 못했던 것이다. 힐 중위는 군용식량들을 그들에게 가져다주었고, 저녁까지 남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위로하였다. 그들이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에 남아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겪고 있었던 헌신적인 선교사들이었다. 미군들이 수감자들을 구원한 날은 일본군들이 수감자들을 기관총으로 몰살하기로 계획하고 그 실행날짜를 하루 남긴 날이었다. 단 하루 차이로 그들은 하나님이 늦지 않게 그들에게 보낸 미군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271]

힐은 제41사단에 소속되어 필리핀 북부 전투지역과 남쪽 민다나오 잠보안가(Zamboanga, Mindanao)에 3개월 정도 주둔하였다. 그러고 나서 9월 18일경 필리핀을 떠나 3주쯤 후에 일본에 도착하였다. 향해 중에 역사적인 바탄(Bataan, 제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 코레히도르(Corregidor, Manila만 입구의 화산섬)와 오키나와를 보았다. 일본에서는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를 둘러보았는데, 재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힐은 10월 7일 이후 원자폭탄에 의해 파괴된 히로시마(Hiroshima) 근교의 히로(Hiro)에 주둔하였다.[272]

---

271) "Letter from Chaplain John J. Hill, Somewhere in the Philippines, April 20, 1945" *CS*, 5 May 1945: 278.

272) "Letter from Chaplain Hill, October 29, 1945," CS, 22 December 1945:

힐은 민다나오 섬 잠보안가(Zamboanga)에 근무할 당시 8월 12일 주일날에 425명에게 설교하였다. 힐은 채플 때 초청에 응한 23명 가운데 6명에게는 바다에서 침례를 베풀었고, 17명한테서는 재헌신을 끌어냈다. 일본에서는 10월 28일 주일에 힐의 "그리스도인 목회에로의 부름"이란 설교를 듣고 5명의 젊은 군인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초청에 응하였다. 복음에로의 초청에는 4명이 추가로 신앙을 고백하였으며 이튿날 침례를 받기로 하였다.[273]

그리고 1946년 1월 1일 시코쿠(Shikoku)에서 24사단에 합류하여 일본에서 6개월간 주둔하는 동안 히로(Hiro)에 이어서 1-2월에는 마쓰(Matsue), 오노미치(Onomichi), 마츠야마(Matsuyama)에서 근무하였고, 3월에는 오카야마(Okayama)에 주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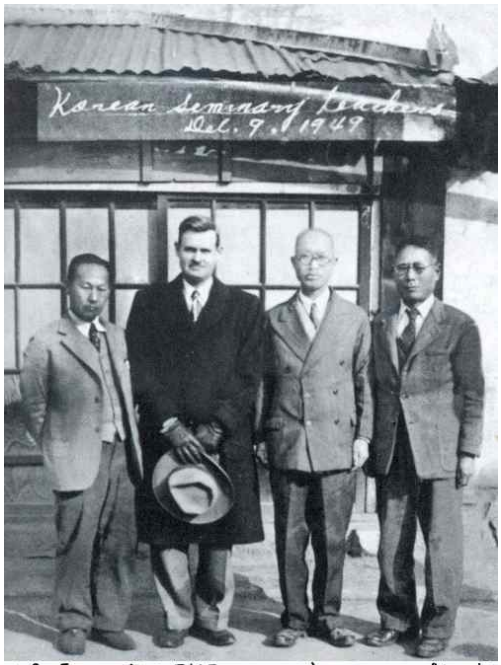
존 힐 중위는 1946년 4월 1일에 일본을 떠나서 미국 시애틀에 12일 도착하였다. 그리고 19개월간의 군목 근무를 마치고 5월 14일 제대하였다. 힐 선교사는 제대 후 미국정부로부터 한국에 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동안 1946년 7월부터 인디애나 주 월턴(Walton)과 온워드(Wonward)의 그리스도의교회들에서 설교하였으며, 그리스도인봉사캠프와 집회 등에서 강연하였다. 9월 9일부터는 제대군인지원법(Army G. I Bill of Rights, 2차 대전 종전을 앞둔 1944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대군인지원법을 만들어 전역 군인에게 대학진학 등록금 전액지원, 주택, 의료,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 권리장전)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교단소속이었던 버틀러대학교의 신학대학원(School of Religion, Butler University)에 입학하였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듬해인 1947년 8월 8일 M.A.학위를 받았다. 힐은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길게 공부할 수 없었다. 1년 만에 마칠 수 있는 학위과정을 택한 이유가 그 때문이었다. 힐은 제대 후부터 섬겨왔던 인디애나 주 월턴(Walton)과 온워드(Wnward)의 그리스도의교회들을 1948년 6월 1일경에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선교모금 여행에 돌입하였다. 이런 노력과 기도 끝에 존 힐은 1940년 11월 16일 한국에서 강제로 철수한지 8

808.

273) "Letter from Chaplain Hill, October 29, 1945," *CS*, 22 December 1945: 808.

년 3개월만인 1949년 2월 18일 서울에 도착하였다.[274]

3) 존 J. 힐 선교사의 제2차 입국 선교활동(1949.02.18-1950.06.25)



한국기독성경신학교(필운동그리스도의교회, 1949년 12월 9일)
교수진: 좌측부터 성낙소, 존 힐(John J. Hill),
최상현(공산군에 피납), 백낙중(공산군에 피살)

존 힐 선교사의 서울에서의 사역은 1949년 2월 18일부터 1955년까지 이어졌다. 힐 가족은 1949년 2월 18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연지동에 있는 2층 건물, 곧 송월동 선교부 건물과 사이즈가 비슷한 건물(2가족 거처, 지하실, 창고, 1-2개의 교실, 침례탕, 차고, 정원, 잔디, 방이 있었음)을 남장로교회로부터 월 75달러의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였다. 힐 가족은 그 건물에 들어가 살면서 그곳에서 3월 15일 이전의 한국인성경훈련원(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을 한국인기독성경신학교(Korean Christian Bible Seminary)로 이름을 바꿔서 개교하였다. 18명의 남학생들이 등록하였고, 야간학생들은 50여명이 넘었다. 강의는 오전에 3시간씩 일주일에 네 번, 야간에 2시간씩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이뤄졌다. 최상현 목사와 성낙소 목사가 사도행전, 기본원리, 누가복음, 야고보서 등을 가르쳤고, 힐 자신은 신약서간들, 설교학, 요한복음, 마태복음, 계시록 및 영어성경클래스에서 한 시

274) "Hills Make Plans for Return to Mission Field," *CS*, 10 April 1948: 229; "Latest News from the Hills of Korea," KM, 1946년 10월호; "Latest Word from the Hill Family," KM, 1947년 12월호; "Overcoming Obstacles in Korea by John J. Hill, Seoul, Korea, April 28, 1949," KM, 1949년 7월호; https://www.lowellpl.lib.in.us/hilljohn.htm.

간 반 정도 그리스도교 기초들을 가르쳤다. 또 힐은 주일 아침과 목요일 밤에 영어성경클래스를 운영하였다. 힐은 매주 9시간 반을 강의하였다. 에스더 비반즈 힐도 금요일 오후에 가르쳤다. 보통 한 반에 7-10명 정도가 수강하였으나 영어성경클래스의 경우에 많을 때는 40-50명이 수강하였다. 교육비는 무료였으나 몇몇 학생은 생활이 어려워 매월 5-10달러의 생활비를 받아야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또 힐은 이 연지동 건물에 침례탕을 만들고 이곳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이 신학교의 학생이기도 했던 김포교회의 최춘선 목사의 사모가 힐이 구입한 천으로 5일간에 걸쳐 꿰맨 여섯 벌의 침례복이 사용되었다.[275]

한국기독성경신학교(필운동그리스도의교회, 1949년 12월 9일)
앞줄 왼쪽부터 이흥식, 오현팔, 최춘선(둘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성낙소, 최상현, 배낙중, 존라 에스더 비반즈(Ester Beavans) 힐

신학교는 사직동 앞에 있는 필운동 그리스도의교회로 옮겼다. 학생 수가 70명에까지 이르렀다. 많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새로 세워지기도 했고, 교파 교단들에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해 오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한강 이남의 동서남북으로 번져 나갔다. 김은석 목사는 충청 이남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가 세워지는데 공헌하였고, 미 공군 군목 할 마르틴도 도움을 주었다. 이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의 출석 인원은 60-70명 정도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갑작스런 남한 침공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기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276]

---

275) "Overcoming Obstacles in Korea by John J. Hill, Seoul, Korea, April 28, 1949," KM, 1949년 7월호; "Korean Bible Institute Reopened After Having Been Closed in 1940," *CS*, 16 April 1949: 243; "Korean Missionaries Face Obstacles Because of Lack of Facilities," *CS*, 27 August 1949: 549.

276)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1949년 5월 8일 존 힐이 공덕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참석한 인원이 125명이었는데 소수의 성인남녀와 아이들과 백낙중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었다.[277] 아현동 그리스도(인)의교회의 윤낙영 목사는 1949년 전반기에 존 힐이 85달러를 주고 매입한 만리동 소재의 오래된 건물을 수리하여 교회를 새로 개척하였다.[278] 존 힐은 1949년 5월까지 15개 교회가 있다고 했다가 이내 18개로 수정하였다. 힐은 1949년 5월 1일에 신탄진을 방문하였는데 임대한 오래된 창고건물에 250명이 모였다고 했고, 부강교회에서는 신화신학연구회가 주최한 백일성경공부가 김은석 목사와 의사 신현창 장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다고 썼다.[279]

힐은 1949년에 488명이 침례를 받았고, 1950년 1월부터 6월까지 최소 403명 침례를 받았으며, 힐 가족이 한국에 입국한 1949년 2월 18일 이후 6·25전쟁 직전까지 16개월 동안 882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였다. 교회는 42개로 증가하였다. 1950년 전반기에만 13개가 개척되었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6월에 최춘선에 의해서 부여에서 23명이 침례를 받고 교회가 개척되었다.[280] 참고로 존 채이스는 1948년 말까지 10개 교회, 7명의 한국인 목회자에 의해서 총 116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281] 1937년부터 1950년 6월까지 총 42개의 교회에서 1950년 전반기에 세워진 13개와 1948년까지의 10개를 빼면, 1949년에만 19개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0년 전반기에 기독교회선교부에 소속된 설교자들, 신학생들, 여전도사들은 총 75명 정도였고, 그 가운데 설교자가 40명을 차지하였다. 신학교 강의는 존 힐과 최상현, 성낙소가 성경과목들을 가르쳤고, 최상

277) 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S*, 25 June 1949: 405.

278) 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hristian Standard, 25 June 1949: 405.

279) John J. Hill, "'Progress of Work in Korea Encouraging,' States John J. Hill, Missionary," *CS*, 25 June 1949: 405.

280) "Hill Family Moves to Tokyo May Return to States," CS, 9 September 1950: 564; "John Hill, Missionary, Begins Work with Koreans and Japanese in Japan," CS, 16 September 1950: 581; CS, 19 May 1951: 309.

281) KM, 1949년 7월호.

현과 백낙중이 영어를 가르쳤으며, 최상현은 역사과목도 가르쳤다. 존 힐과 신현창(의사, 부강교회)이 헬라어를 가르쳤다.[282] 한국전쟁을 겪고 난 직후인 1955년 11월 말에 입국하여 기독교회선교부의 사역 곧 존 T. 채이스와 존 J. 힐의 선교사역을 물려받은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1956년에 실시한 전수조사에 의하면,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총 75개였다.[283] 이 75개의 교회들은 존 채이스와 존 힐이 선교사역을 중단해야했던 1955년 말엽까지 최상현과 성낙소를 비롯한 여러 초기 사역자들과 함께 흘린 눈물과 핍박과 헌신과 희생의 결과물이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이렇게 갑자기 큰 숫자로 불어난 배경에는 충청 이남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한 부강교회의 김은석 목사와 그의 신화신학연구회의 백일성경공부 및 목포교회의 최요한 목사를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의 눈물과 고난이 있었다.

4) 존 J. 힐 선교사의 한국전쟁 중과 직후의 선교활동(1950.06.26-1955.07)

해방 후 교회숫자가 42개로 불어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또 다시 큰 시련을 맞게 되었다. 힐 가족은 26일 새벽 3시경에 약간의 옷들과 두 권의 성경책 및 선교기록들만 겨우 챙겨서 인천에서 피난 배를 탔고, 배 안에서 부인 에스더에게 산통이 있었으므로, 배가 일본 땅에 닿자마자 후쿠오카(Fukuoka)의 군병원으로 직행하였다. 에스더는 병원에 도착해서 7월 1일 여아 린다 룻(Linda Ruth)을 출산하였다. 그들은 태어난 지 6일된 갓난아기를 안고 26시간이나 열차를 타고 동경에 도착하여 요츠야선교부의 해롤드 심즈(Harold Sims) 선교사의 집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284] 힐은 8월 한 달 동안 동경 미카와시마(三河島) 소재 요츠야선교부의 조선인기독교회들과 일본인기독교회들을 돕고, 이

282) "Korean Christian Mission Past, Present, Future," CS, 19 May 1951: 309.

283)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이하 FCK) 6월호.

284) John T. Chase, "Mr. and Mrs. John J. Hill Are Safe in Army Hospital in Japan," *CS*, 15 July 1950: 436; "Hill Family Moves to Tokyo May Return to States," *CS*, 9 September 1950: 564; "Heartaches of War" and Harold Sims, "Missionary's View on Korean War," TC, July-August 1950: 2-3.

후 가루이자와(Karuizawa)에 머물면서 한국어를 배웠다.[285]

힐 가족은 전쟁기간에 일본 도쿄에 집을 구입하여 거주하였다. 힐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한국에 들어와 사역을 하였지만, 가족은 일본에 남아있어야 했다. 1951년 9-10월경에 집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돈은 3,626달러 72센트였다. 이 집은 존 채이스가 모금한 돈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기독교회선교부에 있었다. 전후에 이 집은 팔렸고 판매대금은 기독교회선교부에 귀속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폴 잉그램(Paul Ingram)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집이 구입되기 전에는 월세 150달러 이상을 내야하는 임대주택을 얻어 살았다.[286]

그해 9월 서울이 수복되자 11월 5일 힐은 한국에 돌아와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28일 신학교를 개교하였다. 힐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썼다.

> 가장 중요한 한국인 지도자요, 설교자였으며, 교수였던 최상현과 두 명의 우리의 지도자들, 김양선[부강교회]과 최주민[왕십리교회]이 그들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납북되었고, 의심의 여지없이 서울의 다른 많은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의 시신들이 대충 묻은 무덤들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이기구의 처는 미군의 폭격에 의한 장애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김광수의 식구들도 피살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함께 공부했던 신학생들 가운데 몇 사람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287]

6·25전쟁 중에 이기구의 아내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굴 속에 숨어 있었고, 동굴 입구에 떨어진 포탄의 폭발로 사망한 다른 100여명과 함께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땅을 파고 그녀를 매장하려던 순간 그녀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것을 안 남편 이기구는 그녀를 리어

---

285) "John Hill, Missionary, Begins Work with Koreans and Japanese in Japan," *CS*, 16 September 1950: 581.

286) "Hill Family Purchases House in Tokyo; Mr. Hill to Return to Korea," *CS*, 3 November 1951: 691.

287) "First Letter Received from J. J. Hill after His Return to Korea," *CS*, 25 November 1950: 738; "Monetary Losses Slight Compared to Suffering of Koreans, Says Missionary," *CS*, 16 December 1950: 787; "Korean Christian Mission Past, Present, Future," *CS*, 19 May 1951: 309.

이기구 목사(신갈그리스도의교회, 1952년 10월 3일 개척)와 김동수 목사(통역)

카에 싣고 내달려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으나 반신불구가 되었다.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1956년 3월 26일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의 모친이 테일러에게 "몸의 한 쪽이 마비된 채 힘없이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듯 그녀(이기구의 아내)의 두상(정수리)에 난 커다란 흉터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회복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288]

김광수 목사 장립기념(1953년 9월 13일)

서울에 남아있던 성낙소, 한형태, 이기구는 공산주의자들의 심문을 받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들을 공산주의 기독교단체 '민주기독교연맹'(Democratic Christian League)에 가입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연맹' 가입은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1939년 매입한 선교회 건물은 3-4개의 폭탄을 맞았다. 힐은 파손된 이 건물의 소소한 부분부터 수리를 시작하였다.[289] 힐이 거주했던 연지동 건물은 전체가 털리고 약탈당했다. 차, 가구, 옷, 음식, 비품, 기념품, 책을 잃

288) Harold Taylor, "Middle Schools," FCK, 1956년 6월호.

289) "Korean Missionary Begins Repairs on Damaged Mission Property," CS, 9 December 1950: 771.

었다. 음식은 귀하고 가격은 폭등했다. 힐은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을, 전항섭씨가 여전히 방 2개와 지하실을 점유하고 있긴 했지만, 결국 손에 넣었다. 신학교는 1950년 11월 28일 재개되었고, 출석한 10명의 학생들을 3명의 교수들이 가르쳤다.[290]

힐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12월 11일 다시 일본으로 철수하기까지 5주간 동안 서울에 머무는 동안 거의 모든 한국인 설교자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공산군에 납북되거나 살해된 목회자들을 제외한 모든 설교자들이 각자의 강단으로 복귀하였다. 그들은 집과 재산의 손실과 교인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힐이 보고한 한국의 전쟁 상황을 듣고 미국 교인들이 보내온 구재헌금 가운데 964달러 73세트는 11-12월 중에 설교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쓰였고, 단지 63달러 78센트만 선교주택 수리에 쓰였다. 신학교가 다시 재개되었고 18명의 학생들이 출석하였다.[291]

중공군의 개입으로 서울의 안전이 위험해지자 힐은 1950년 12월 11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일본에 있는 동안 힐은 한국인들이 보낸 편지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한국인 설교자의 절반은 안전하였고, 몇 명은 가까운 섬으로 피신하였다. 흩어진 설교자들은 각자가 피난처에서 설교하고 침례를 베풀었으며, 남부에서는 교회들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집과 모든 소유를 잃었다. 힐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매월 200-300달러씩 보냈다. 힐은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1951년 6월 18일 일본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부산에 두 주간 머물면서 15명가량 되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소속 피난민들을 챙겼다. 힐은 당시 부산에서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292]

> 6월 18일에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2주 동안 부산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피난민 형제들 15명가량을 만나 도움을 주었습니다.

---

290) "Monetary Losses Slight Compared to Suffering of Koreans, Says Missionary," *CS*, 16 December 1950: 787.

291) "Hill Gives Outline of Work in Korea," CS, 27 January 1951: 51.

292) "John Hill Returns to Korea; Resumes Evangelistic Work," *CS*, 4 August 1951: 483.

우리는 6월 24일과 7월 1일 [주일]에 나무 아래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 24일에 우리와 함께 일할 성실한 교파교단 설교자 한 명을 포함하여 세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큰 천막을 사서 거기 있는 형제들이 거처와 예배장소로 쓰도록 부산에 두고 왔습니다.

최춘선과 성수경 형제들과 나는 부산을 출발하여 이틀간의 힘든 여정 끝에 7월 5[목]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입성하여 통행 및 거주증명서를 확보하고 보니 서울은 황폐하고 버려졌지만 깨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서울 서대문구 송월동 32-6번에 있는 기독교회선교부 저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비록 건물은 수리들을 요구하는 나쁜 상태였지만 우리가 작년 11월에 방문했을 때보다 크게 손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건물 내부에 우리의 소유물들은 거의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방충망들이나 기타 가재도구도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출입문자물쇠들이 고장 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대대적인 수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수경은 필운동교회의 집회들을 재개하였고 최춘선은 김포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형제들이 우리가 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준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고아원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1952년 기독교회선교부 보육원
식사시간, 성수경 목사와 존 J. 홀 선교사

1951년 7월 5일 힐은 최춘선(김포교회 사역자)과 성수경(필운동 교회 사역자)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 서대문 근처 송월동에 있는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을 되찾기 위해 성수경과 동행하였다. 전항섭은 탄환이 장전된 연발권총을 가지고 쫓아왔으나 선교회가 합법적인 소유자임을 알고 물러갔다. 서울에 도착한지 이틀째가 되는 저녁부터 전도 집회를 갖기 시작하였다. 매일 저녁 참석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8월 4일 폭격을 당해 부서진 송월동 32번지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에서 고아 21명을 수용하여 '그리스도의교회보육원'(Christian Mission Orphanage)을 시작하였다. 곧이어 2명은 친척들이 데려가 19명이 남게 되었으나 곧 이어

수용인원이 늘기 시작하였다. 최초 보육원 사역자들은 낸시 홍, 요리사 신여사, 차선생, 존 힐, 성수경, 조선생 부부였다.[293] 곧이어 1953년에는 김종기(목사), 최상현 목사의 딸 최윤숙(권사, 최윤권 목사의 누님)도 직원으로 수고하였다. 나중에 대전 판암동 고아원의 총무가 된 박중현, 안나, 안 여사, 김동수(목사/통역, 해남교회 개척자), 한길자도 직원으로 수고하였다. 서울에 '그리스도의교회보육원(1951-1988. 1953년경 부평으로 이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힐은 인천(1952-현재), 대전(판암동 애생원, 1951-1970), 대구(1952-1954)에 각각 1개씩의 고아원의 설립과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우리의 서울 고아원이 시작된 지 얼마 못되어 이종만 형제가 인천에 고아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필자는 일정한 액수를 돕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한 한 힘껏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낡은 2층 학교건물에 수용하고 있어서 아주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은 세워진지 21년이 지난 지금도 90명가량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
> 그 후 오래지 않아 우리 선교부는 송씨의 감독아래 있는 대전 판암동에 하나, 대구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고아원을 더 세우는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그들 고아원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쟁 중에 4개의 고아원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제로 돕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그들은 몇 곳의 미군부대들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번은 필자가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일본에 가 있는 동안, 도날드 캠포스라는 한 공군병사가 서울 고아원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기 고향에서 발행되는 신문, 「미네아폴리스 스타」지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신문에 그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 편지가 신문에 실리고 난 다음부터 고아들을 위한 헌옷 새 옷 보따리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미국 전역의 여러 교회들과 기관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1천 보따리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중의 일부는 전혀 새 옷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헌옷 가지 하나라도 버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선교부 건물 3층 넓은 다락에 쌓아두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분류해서 그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에 있든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인의류는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난 1955년까지도 옷 보따리의 일부가

293) "Korean Officials Make Change in Orphanage Regulations," *CS*, 15 September 1951: 581.

남아있었습니다.[294]

1952년 기독교회선교부 보육원
공부시간, 성수경 목사와 존 J. 힐 선교사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 고아원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내국인 사역자들은 최윤권 목사, 노봉욱 장로, 성수경 목사였다. 힐이 조선 경성부 송월정에 머문 1939년과 1940년에 이들은 각각 초등학생, 중학생, 20세 청년이었다. 성수경과 최윤권은 각각 힐의 동역자들인 성낙소 목사와 최상현 목사의 아들들이었다. 성수경은 힐보다 6살 정도 어렸고, 노봉욱은 힐보다 12살 정도 어린 중학생이었다. 노봉욱은 평남 용강군 오신면 내덕리 노촌 (노씨만 모여 사는 마을) 부락에서 태어나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5세에 서울로 올라와 휘문중학교에 입학하여 돈암동에 하숙을 정한 후, 중학교에 입학한 1939년 봄 첫 주일 때부터 줄곧 돈암정기독교회에 출석하였다. 최윤권은 힐보다 18살 정도 어렸다.[295]

존 채이스 선교사는 일제에 빼앗긴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1949년까지도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 존 힐 선교사는 재산관리인으로부터 5-6월경에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언질을 받은 것은 4월 22일이었다.[296] 그러나 이 재산은, 힐 요한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1952년경에 곧 몰수당한지 10여년 만에 비로소 환수가 이뤄졌다. 1955년에 힐

294)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30-39.

295) 노봉욱 편저, "나와의 만남: 에덴원 이사장 노봉욱,"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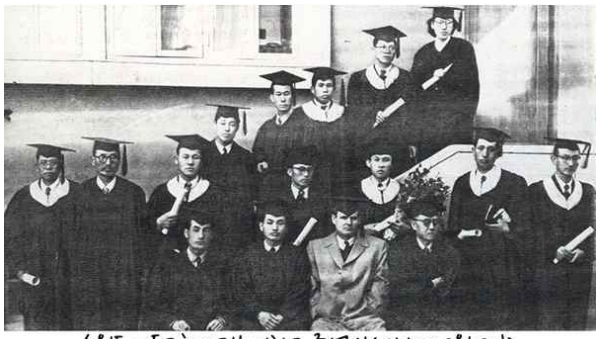
296) "Overcoming Obstacles in Korea," KM, 1949년 7월호.

요한 선교사의 사역을 이어받은 테일러 선교사는 이 선교부 건물을 포함해서 1958년에 새로 지은 신학교 건물까지 모두 팔아서 북서울 역천동(현재 신사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대학교)를 건립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채이스가 눈물과 수고로 마련하고 지켜내려고 했던 이 건물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남의 손에 넘어갔다.

앞줄 좌측 세번째 폴 잉그램(Paul Ernest Ingram)
네 번째 김동수 목사(통역), 다섯 번째 성낙소 목사(1953년경)

힐의 가족은 1953년 5월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1954년 여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힐에게는 가장 혹독한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힐은 에스더의 비행을 존 채이스 선교사에게 폭로한 폴 잉그램에게 나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잉그램은 이 무렵 25살가량이었고, 에스더는 34살이었으며, 힐은 41살이었다. 선교사들 사이의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로 인해서 당시 그리스도의교회신학교 교감이었던 성낙소 목사는 1954년 6월 25일 신학교를 휴교 조치하고, 채이스에게 내한을 요청하였다. 이 일로 존 채이스가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Long Beach)에서 1954년 6월 22일에 발송한 전보 내용 곧 한국 선교사들인 존 힐 부부에 대한 모든 보증을 철회한다는 것과 존 채이스와 존 힐로부터 관련된 진술을 들은 후견인들(Burris Butler, Harrold McFarland, Roy B. Shaw, W. L. Jessup)이 채이스의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 1954년 7월 3일 「크리스천 스탠다드」지에 실렸다.[297] 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접한 채이스와 힐의 모교회 장로들, Christian Standard의 편집자와 다른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후원자들은 힐 가족의 한국선교사역 승인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힐이 기독교회선교부와 한국인들

297) "To All Friends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CS, 3 July 1954: 429; "Regarding the Chase Telegram," CS, 4 September 1954: 562.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 신학교 졸업식(1955년 3월 3일)
앞줄 좌측부터 이신, 김동철 존 힐, 김동수(통역),
졸업생(무순): 김현숙(뒷줄 끝), 함태영(좌측 세 번째), 최병식,
강태수, 송창현, 조국형, 성수경, 정희건, 이종윤, 김병석, 유현성, 변승택

사역에서 손을 완전히 떼야한다고 권고하였다.[298] 동년 9월 하순에 내한한 채이스는 성낙소, 힐, 잉그램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힐과 잉그램을 귀국하도록 조치하였다. 폴 잉그램은 1955년 1월 8일 귀국하였고, 힐은 버티다가 1955년 11월 말에 입국하여 기독교회선교부의 사역 곧 존 T. 채이스와 존 J. 힐의 선교사역을 물려받은 해롤드 테일러(Harold and Ada Taylor) 선교사 부부에게 새로 지은 신학교 건물을 포함한 송월동 선교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1955년 7월 5일 본의 아니게 쫓겨나다시피 한국을 떠나야 했다.[299] 이때 힐은 세 자녀(부루스, 버지니아, 수잔)만 데리고 떠났고, 에스더 비반즈는 린다 룻과 함께 한국에 남아있었다.[300] 그리고 존 T. 채이스가 한국선교에서 손을 완전히 뗀 시점은 1956년 1월 13일이었다.[301]

에스더 에벌린 힐(Esther Evelyn Hill)은 1920년 11월 17일 인디애나 주 워렌(Warren, IN)에서 아버지 로렌스 리로이 비반즈(Lawrence Leroy Beavans)와 어머니 미러 해밀턴(Mira Hamilton) 사이에서 태어나 2006년 2월 4일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San Antonio, TX)에서 86세에 별세하였다.

---

298) "Regarding the Chase Telegram," *CS*, 4 Sep 1954: 562; 27 August 1955: 546, 555.

299)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재단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24; 성낙소, '제21장 두 선교사 귀국과 신학교 휴교와 유무악기파 합동 건,' 『자서전』.

300)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1959년 10월호.

301) John T. Chase, "Final Report on 'Chapels Fund'," *CS*, 28 January 1956: 60.

에스더가 1939년 6월 21일 아침 부산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나이는 만 18세였다. 그리고 한국에 온지 17개월만인 1940년 11월 16일 인천항에서 총 219명의 미국인들과 함께 미국으로 철수하기 위해서 마리포사(Mariposa)호를 탄 다음 날 배 안에서 만 20세 생일을 맞이하였다.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며 중일전쟁을 펼치면서 조선인들에게는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하고 황국신민서사를 낭독하게 하며 미국 선교사들을 스파이로 간주하던 최악의 시기였던 1939-40년 사이 암울한 조선 땅에서 선교사 부인으로서의 생활은 젊은 에스더에게는 외로움과 그리움의 시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미국에서도 경제대공황기여서 매우 어렵던 시기였다. 만 20세에 미국으로 돌아간 직후에는 목회자 부인의 삶을 시작하였고, 20세 초반에 이미 세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다. 게다가 남편인 존 힐이 군목이 되어 태평양전쟁터로 떠남으로써 또 다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야했을 것이다. 존 힐이 제대한 이후에도 목회하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혼자서 세 명의 자녀를 키우며 많은 일을 감당해야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부는 세 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1948년 2월 18일 해방 된 한국 땅으로 돌아왔고, 서울 연지동에 살면서 매우 활발하게 선교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불행히도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으로 피난해야했다. 갓 서른 살에 일본에 거주하게 된 에스더는 남편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주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아니한 한국에 가서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일본 도쿄에서 혼자서 네 자녀들을 돌보며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야했을 것이다.

에스더는 1950년 6월 26일 새벽 3시경에 한국을 탈출할 때 만삭의 몸이었다. 힐 가족은 약간의 옷들과 두 권의 성경책 및 선교기록들만 겨우 챙겨서 인천에서 피난 배를 탔고, 배 안에서 부인 에스더에게 산통이 있었으므로, 배가 일본 땅에 닿자마자 후쿠오카(Fukuoka)의 군병원으로 직행하였다. 에스더는 병원에 도착해서 7월 1일 여아 린다 룻(Linda Ruth)을 출산하였다.[302]

---

302) John T. Chase, "Mr. and Mrs. John J. Hill Are Safe in Army Hospital in Japan," *CS*, 15 July 1950: 436; "Hill Family Moves to Tokyo May Return to

이 때 태어난 '린다 룻'의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은 린다 룻이 존 힐의 부고문(2009년)에서와 힐의 세 번째 부인인 아이린의 부고문(2011년) 모두에서 존 힐의 생존자 혹은 별세자에서 이름이 빠져 있기 때문이고, 에스더 비반즈의 부고문(2006년)에서만 '린다 왕'(Linda Wang)이 에스더의 생존하는 딸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낙소 목사의 자서전에 따르면, 기독교회선교부에 운전수 왕씨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에스더 힐 사이에 비행관계가 힐 가족이 1953년 5월경에 안식년을 갖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이다. 힐이 안식년을 갖는 동안 기독교회선교부의 책임을 만 24살가량의 폴 잉그램 선교사가 맡았는데, 힐 가족이 미국에 머무는 사이에 잉그램이 에스더와 왕씨 사이의 비행관계를 존 채이스에게 폭로하였다는 것이다. 1950년 7월 1일 일본 후쿠오카 군병원에서 태어난 '린다'가 왕씨의 딸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다. 물론 '린다 왕'이란 이름이 왕씨와 결혼한 후 남편의 성을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에스더가 별세할 당시 만 56세였을 '린다 왕'(Linda Wang)이 미혼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에덴보육원의 설립자 노봉욱 이사장에 따르면, 힐의 부인 에스더 비반즈가 한국인 신학생 2명과 부적절한 혼외관계에 빠진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하였고, 그 중 한 명은 결혼한 두 아이를 가진 아빠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에스더가 4명의 자녀를 가진 한국인 남자 친구와 살기 위해 둘 사이에서 난 아이를 데리고 1955년에 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303] "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일본 후쿠오카(Fukuoka)의 군병원에서 30살에 출산한 '린다'로서 왕씨의 딸일 가능성이 있다. 에스더가 힐에게 태어난 세 자녀를 놓고 35살에 오직 당시 5살이었을 '린다'만을 데리고 가출하여 살림을 꾸린 남자는 이(李)씨 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에스더의 유가족들에 1940년대에 힐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 말고도 이씨 성의 한국이름을 가진 네 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린다 왕'과 또 다른 세 명의 딸들이 더 있었는데, 이 마

States," *CS*, 9 September 1950: 564; "Heartaches of War" and Harold Sims, "Missionary's View on Korean War," TC, July-August 1950: 2-3.

303) 노봉욱 편저, "John J. Hill 이력서,"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24.

지막 세 명의 딸들은 바르(Barr)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거나 바르씨가 먼저 부인에게서 얻은 딸들일 수 있다.

에스더는 린다와 이씨와 그의 네 아들들과 함께 하와이에서 살다가 텍사스 주 포트 샘(Fort Sam)에서 일자리를 얻어 이주하였고, 여러 남성들을 사랑하였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샌안토니오(San Antonio)에서의 도시생활을 즐겼다. 에스더 에벌린 바르 (비반즈)[Esther Evelyn Barr (Beavans)]는 86세로 2006년 2월 4일 별세하였다.[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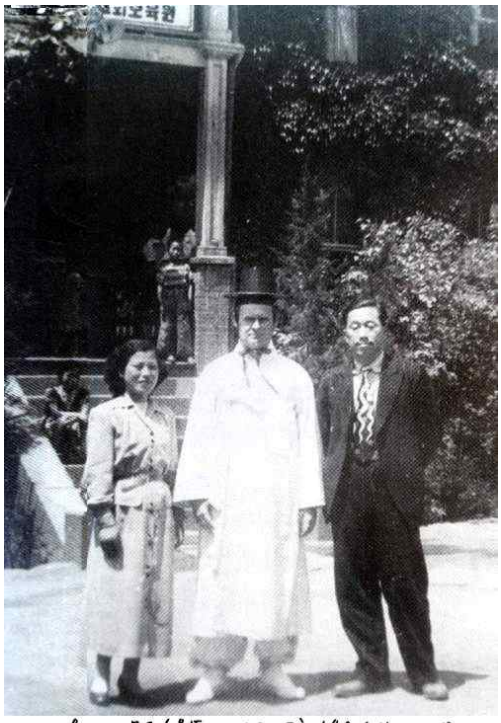
5) 기타 선교사들의 입국활동

1950년대 초에 몇몇 선교사들이 입국하였다. 1929년경에 출생한 폴 어네스트 잉그램(Paul Ernest Ingram)은 1952년에 힐의 선교를 돕기 위해 선교사가 되었다. 잉그램은 14살에 권투 선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많은 경기에서 승리하였으나 학업을 중단하고 16세에 군에 입대하여 미군정시대에 김포 항공기지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앞글들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소속의 할 H. 마틴(Hal H. Martin)이라는 군목이 있었다. 마틴은 탁구선수였기 때문에 사병들로부터 인기가 좋았다. 그 무렵 4월에 잉그램은 다른 네 명의 군인과 함께 마틴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결심한 잉그램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분을 그곳으로 다시 모셔가겠습니다. 그곳은 갈기갈기 찢긴 나라입니다"(I found Christ in Korea. I'm going to take him back there. It's a torn-apart country). 그리고 잉그램은 19세 때 제대를 하고, 링컨성경학교(1944년 설립, 현 Lincoln Christian University)에 입학하여 23세 때인 1952년에 졸업하였다. 잉그램은 학생시절부터 인디애나 주 코빙턴(Covington)에서 이미 3년째 목회를 하

---

304) John T. Chase, "Mr. and Mrs. John J. Hill Are Safe in Army Hospital in Japan," *CS*, 15 July 1950: 436; "Hill Family Moves to Tokyo May Return to States," *CS*, 9 September 1950: 564; "Heartaches of War" and Harold Sims, "Missionary's View on Korean War," Tokyo Christian, July-August 1950: 2-3; https://www.legacy.com/us/obituaries/sanantonio/name/esther-barr-obituary?pid=88864608.

고 있었다. 그는 부인 조안(Joan)과 어린 두 자녀들을 데리고 1952년 후반기에 일본 도쿄(東京)에 도착하여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존 J. 힐(John J. Hill) 가족과 함께 일본에 체류하였다.[305] 이 기간에 잉그램은 힐과 함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족을 일본에 남겨 둔 채 한국에 들어와 사역하였다. 잉그램은 1953년 한국에 입국하여, 힐의 가족이 안식년(1953년 5월-1954년 여름 전)으로 미국에 머무는 동안, 기독교회 선교부를 맡아 관리하였다. 힐의 부재 기간에 선교부 고아원을 운영하였고, 장충동 건물에서 신학교를 재개하였으며, 기독교회선교부에 인접한 땅을 추가로 매입하여 미군의 도움으로 3층짜리 신학교 건물을 세웠다. 잉그램은 1954년 9월 하순 존 T. 채이스(John T. Chase)의 주도로 열린 선교사 회의에서 '기존 선교사들의 한국 사역 철수'가 결정된 이후, 1955년 1월 8일 한국을 떠났다.[306]


서울 서대문구 송월동 그리스도의교회보육원(1952년경)
최윤숙 선생(최윤권 목사의 누님)과 존 힐 선교사

1954년에 입국한 메리 반힐(Mary Barnhill)은 대전 판암동에 위치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보육원인 애생원에서 사역하였다. 애생원은 1951년에 설립된 후 1958년까지 송조순이 원장으로 섬긴 보육원으로, 반힐은 애생원에서 숙식하며 헌신하였다. 반힐은 사역 도중 전염성 B형 간염에 걸려 서울 송월동 기

305) "Korean Christian Mission," *CS*, 17 May 1952: 318; Emma Rivers Milner, "Church News: Back to Korea, As Missionary," The Indianapolis Times: 4, Saturday, July 26, 1952.

306) 성낙소, '제21장 두 선교사 귀국과 신학교 휴교와 유무악기파 합동 건,' 『성자서전』.

독교회선교부 건물에서 요양하였다. 리라 톰슨(Lila Thomson)이 부평 보육원에서 돌아와 반힐을 간호하였는데, 그녀도 간염에 전염되고 말았다. 이 불행한 일로 반힐은 1955년에 출국하였다.

1953년 입국한 리라 톰슨(Lila Thompson)은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 선교부 보육원에서 사역하였다. 기독교회선교부 보육원은 존 J. 힐(John J. Hill)이 1951년 8월 4일 서울 송월동 선교부 건물에 설립한 것으로 19명의 고아들로 시작되었는데 곧 이어 수용인원이 크게 늘어나 부평으로 옮기게 되었다. 톰슨은 부평보육원의 부지매입과 건축을 책임졌고, 1956년까지 그곳에서 숙식하며 헌신한 진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성이었다. 이후 톰슨은 상처한 미군 중사 히람 힐러(Hiram Hiller)와 결혼한 후 1956년 3월 미국으로 돌아갔다. 톰슨은 히람 힐러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고, 나중에 얻은 아들이 미국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리라 톰슨 힐러는 35세에 별세한 것으로 추정된다.[307]

제인 키넷(Jane Kinnett)은 1955년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 있는 '기독교회 선교부'의 일을 도왔다. 1955년에 메리 반힐(Mary Barnhill)과 리라 톰슨(Lila Thompson)이 둘 다 B형 간염에 걸렸고, 이로 인해서 반힐이 귀국할 때 제인 키넷트도 함께 1955년 11월 미국으로 돌아갔다.

하워드 데이비스(Howard Davis)는 한국전쟁 직후 1953년에 내한하여 장충동 신학교에서 교수로 헌신하다가 이듬해 일본으로 돌아갔다. 데이비스는 부인 캐스린(Kathryn)과 함께 1951년에 일본에 입국하여 1964년까지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에서 교회를 개척하던 선교사였기 때문이다.

로버트 웨스트(Robert West)는 한국전쟁 직후 1953년에 내한하여 장충동 신학교에서 교수로 헌신하였다. 웨스트는 부인 오드리(Audrey)와 함께 1953년에 일본에 입국하여 도쿄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사역을 하다가 1956년 사역지를 오카야마(Okayama, 岡山)현 하야시노(林野)로 옮겨 교회를 개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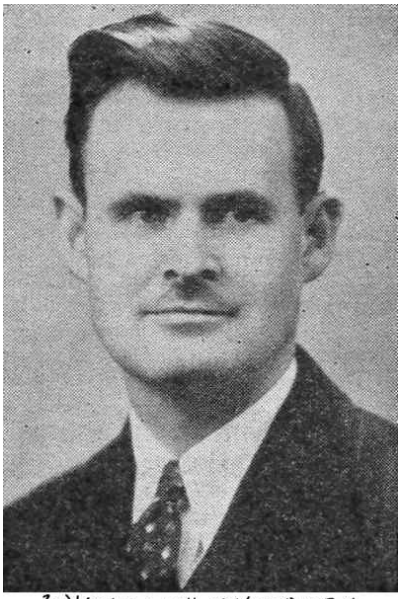
그리고 해롤드 테일러가 1955년 11월에 기독교회선교부의 책임자로

307) https://www.findagrave.com/memorial/60883965/lila-maxine-hiller.

한국에 입국했을 때, 서울에 남아 있던 선교사는 한 달 전에 결혼한 리라 톰슨 힐러(Lila Thompson Hiller)뿐이었다. 남편인 히람 힐러의 한국주둔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라 톰슨 힐러는 이듬해인 1956년 3월에 미국으로 돌아갔다.[308]

6)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위해 헌신한 기독교회선교부 소속 선교사들

(1) 힐 Hill, John J. 1913.03.22.-2009.11.04.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목사(D.D.), 신학교 설립자 및 교장, 교회개척자.


존 힐(John J. Hill, 1946년경) 선교사

존 J. 힐(John Jesse Hill) 선교사는 1913년 3월 22일 오클라호마 주 아피톤(Ahpeatone)에서 태어나 1931년 인디애나 주 로웰 고등학교를 차석(Salutatorian)으로 졸업하였고, 1936년 테네시 주 존슨성경대학(Johnson Bible College, 현 Johnson University)을 우등(Salutatorian)으로 졸업하였다. 1947년에는 인디애나 주 버틀러 대학교(Butler University)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1963년에 콜로라도 주 버튼 칼리지 및 신학교(Burton College and Seminary)에서 명예신학박사(D.D.) 학위를 받았다. 존 힐은 미시간, 웨스트버지니아,

308)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역사』(한성신학교, 1991);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선교』(재단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1.htm; Harold Taylor,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October 1959: 3-4.

인디애나 등지에서 목회활동을 했고, 태평양 전쟁 때 미 육군 군목(대위 예편)으로 미국, 필리핀, 일본에서 복무하였다. 존 힐은 존슨성경대학 4학년 재학시절 존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한국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대학 졸업 후 2년간 온타리오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선교사로 나오기 위해서 1938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1939년에는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와 결혼하였다. 또 같은 해 미국에서 일본 동경에서 활동했던 W. D.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1864-1936) 선교사 부부의 일생기(一生記), 『타오르는 횃불』을 읽고, 특히 한국 선교에 관련된 부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1924년 이후 한국에는 도쿄 요츠야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일하는 한국인 목회자들이 있었으나 조선선교회 기독교회 소속이었고, 1935년 3월에 미국교회에서 파송된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와 그의 가족이 입국하였으나 가족의 건강문제로 그해 11월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출신의 토마스 G. 힛치(Thomas G. Hitch)와 그의 가족이 요츠야선교부의 조선선교회 기독교회 선교사로 입국하였으나 그들 역시 1939년 존 힐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도착한 직후 수개월이내에 출국한 상태였다. 1936부터 1940년까지 약 4년 동안 한국에서 기독교회 선교부를 설립하여 활동했던 존 채이스 선교사 부부도 한국을 떠날 채비를 하는 상태여서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이 거의 없던 불모지나 다름없던 때인 1939년 6월 21일 서울에 입경하여 1972년 은퇴할 때까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특히 존 힐은 1959년 이후 대전시 가장동에 한국성서신학교(한성신학교)를 세워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였고, 1964년 4월 17일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챤 밋숀을 허가받았으며, 신학교 안에 선교부를 두고 충청도와 전라도에 집중적으로 교회들을 세우고 후원금을 알선하였다. 존 힐은 1940년 가을부터 채이스 선교사가 설립한 목회자 양성소를 서울에 개교하였으나 일제 말기의 발악적인 기독교탄압으로 인해서 수개월도 유지시키지 못한 채, 짐을 꾸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서울주재 미국 대사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른 미국인 선교사 가족들과 함께 그해 11월 16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인들의 철수 후 일 년 정도 지나서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이

일본과 전쟁에 휘말리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었다. 존 힐은 1948년 2월 18일에 한국으로 되돌아왔고, 서울 연지동에 살면서 1949년 3월 15일 서울성서신학교를 개교하여 본격적으로 목회자 양성에 들어갔으나 불행히도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갑작스런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으로 피난하였다. 일본에 머무는 일 년여 동안 존 힐은 한국어 공부에 주력하였다. 그해 11월에 한국에 돌아와 5주간 머무는 동안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신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전쟁의 악화로 그해 12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음 해인 1951년 7월 3일 한국에 돌아온 존 힐은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 선교부'에서 1951년 8월 4일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크리스천 미션 고아원을 시작하였고, 인천과 대전 판암동, 대구에 각각 고아원 설립을 돕고 후원하였으며, 아이들의 미국입양을 도왔다. 그 후 존 힐은 가정문제로 1955년 한국을 떠났다가 미혼 여성이었던 제인 키넷트(Jane Kinnett) 선교사와 1956년 5월 25일 재혼하여 1959년 8월에 부산을 통해서 재입국하여 대전에 정착하였으며, 동년 12월 1일 한국성서신학교를 개교했다. 이밖에도 대전시 가장동에 버지니아 고아원을 설립하였으며, 1959년 이후 세 곳의 고아원들, 곧 부산의 성광원, 연무대의 에덴보육원, 인천 그리스도의교회 고아원들과 고등공민학교, 맹아학교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였다. 존 힐 선교사는 1972년 6월 60세 때에 은퇴하였다. 존 힐은 부인 제인이 소천한 후 이듬해인 1983년에 미조리 주 조플린(Joplin)에서 아이린(Irene Waltma, 1913-2011)을 만나 재혼하였다. 존 힐은 소천 때까지 에덴보육원과 한국의 열악한 5개 그리스도의교회들을 매월 후원하였고, 수천 권의 성경을 러시아에 반입시켰으며, 나병환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후원하였다. 존 힐은 2009년 11월 4일(수) 오후 4시 58분 96세로 미주리 주 조플린에서 별세하여 호프 산 공원묘지(Mt. Hope Cemetery)에 영면하였다.

[주요저술]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Taejon Korea, 18 April 1972), http://kccs.pe.kr/rmes002.htm; 初譯: 『쎄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再譯: 조동호, http://kccs.pe.kr/rmp002.htm(1999.3).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서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2006);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서울: 쿰란출판사, 2018);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조동호, 『힐 요한 선교사(John Hill)』(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 "In Memory of John J. Hill, 1913-2009", https://masonwoodard.com/book-of-memories/2136655/hill-john/obituary.php; "Irene Waltman Hill, Obituary", https://www.parkermortuary.com/obituary/1233910.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소장)

(2) 키넷 Kinnett → Jane Hill 1921.10.23.-1982.06.29.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제인 힐(Jane Kinnett Hill, 1921-1982) 선교사

1921년 10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출생하여 1946년 오리건 주 유진(Eugene)의 노스웨스트 기독대학교(현 Bushnell University)를 졸업하였다. 졸업한 1946년 10월 31일부터 중국 쿤밍에서 선교사 사역을 시작하여, 1949년에는 미얀마 북부에서 1년간 사역하였다. 그리고 1951년 9월부터 1955년 여름까지 일본 오사카(大阪) 성경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다가 1955년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 있는 '기독교회 선교부'의 일을 돕다가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던 메리 반힐(Mary Barnhill)과 리라 톰슨 힐러(Lila Thompson Hiller)가 B형 간염에 걸리자, 반힐과 함께 1955년 11월 미국으로 돌아

갔다. 제인은 이듬해인 1956년 5월 25일 존 힐과 결혼하였다. 제인은 몰리 챤이라는 중국 고아 소녀를 비공식으로 입양하여 데리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건너와 존 힐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제인은 초등부터 중등과정까지 가르치는 크레스톤 그레이드 학교(Creston Grade School)에서 교사로 일한바 있으며, 힐과 결혼한 후인 1956년부터 1959년까지 인디애나 주 레이크 카운티 소재 초등학교에서 가르쳤다. 1959년 8월에 한국으로 돌아와 대전에 정착하였으며, 1972년 6월 은퇴 후 미국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사역하는 동안 1973년 9월부터 1976년 6월까지 학교 요리사로 일하였다. 제인은 B형 간염으로 1982년 6월 29일 소천 하였다.

[주요저술] Jane Hill, '한국에 있어서의 잊혀지지 않을 일들', 『쎄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再譯: 조동호, http://kccs.pe.kr/rmp003.htm(1999.3).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서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2006);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서울: 쿰란출판사, 2018);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조동호, 『힐 요한 선교사(John Hill)』(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 "In Memory of John J. Hill, 1913-2009", https://masonwoodard.com/book-of-memories/2136655/hill-john/obituary.php; "Irene Waltman Hill, Obituary", https://www.parkermortuary.com/obituary/1233910.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소장)

(3) 잉그램 Ingram, Ernest Paul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폴 잉그램(Paul and Joan Ragsdale Ingram) 선교사 가족
좌측부터 Joan, Paulette, Paul Ingram, David

폴 어네스트 잉그램(Paul Ernest Ingram)은 1929년경에 출생하여 1952년에 링컨성경학교를 졸업하였다. 한국에서 존 힐과 함께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에서 사역하였고, 4개 주에서 목회사역을 하였으며, 플로리다 주에 두 개의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도왔다. 2012년 4월 9일 미주리 주 멕시코(Mexico, MO)에서 별세하였다.[309]

그는 14살에 권투 선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많은 경기에서 승리하였으나 학업을 중단하고 16세에 군에 입대하여 미군정시대에 김포 항공기지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소속의 할 H. 마틴(Hal H. Martin)이라는 군목이 있었다. 마틴은 탁구선수였기 때문에 사병들로부터 인기가 좋았다. 그 무렵 4월에 잉그램은 다른 네 명의 군인과 함께 마틴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결심한 잉그램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분을 그곳으로 다시 모셔가겠습니다. 그곳은 갈기갈기 찢긴 나라입니다"(I found Christ in Korea. I'm going to take him back there. It's a torn-apart country). 그리고 잉그램은 19세 때 제대를 하고, 링컨성경학교(1944년 설립, 현 Lincoln Christian University)에 입학하여 23세 때인 1952년에 졸업하였다. 잉그램은 학생시절부터 인디애나 주 코빙턴(Covington)에서 이미 3년째 목회를 하고 있었다. 그는 부인 조안(Joan)과 어린 두 자녀들을 데리고 1952년 후반기에 일본 도쿄(東京)에 도착하여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존 J. 힐(John J. Hill) 가족과 함께 일본에 체류하였다.[310] 이 기간에 잉그램은 힐과 함께 기회가 주어

309) Lincoln_RESTORER_June2012_Final.pdf.

310) "Korean Christian Mission," *CS*, 17 May 1952: 318; Emma Rivers Milner,

질 때마다, 가족을 일본에 남겨 둔 채 한국에 들어와 사역하였다. 잉그램은 1953년 한국에 입국하여, 힐의 가족이 안식년(1953년 5월-1954년 여름 전)으로 미국에 머무는 동안, 기독교회선교부를 맡아 관리했다. 힐의 부재 기간에 선교부 고아원을 운영하고, 장충동 건물에서 기독교 성경신학교를 재개하고, 기독교회선교부에 인접한 땅을 추가로 매입하여 미군의 도움으로 3층짜리 신학교 건물을 세웠다. 잉그램은 1954년 9월 하순 존 T. 채이스(John T. Chase)의 주도로 열린 선교사 회의에서 '기존 선교사들의 한국 사역 철수'가 결정된 이후, 1955년 1월 8일 한국을 떠났다.[311]

부인 조안 잉그램(Joan Ragsdale Ingram)은 1928년 8월 19일 미국 인디애나 주 클린턴 카운티 커클린(Kirklin, Clinton County)에서 레스터와 에바 래그즈데일(Lester C. and Eva Gwin Ragsdale)의 딸로 태어났다. 잉그램과는 신학교에서 만나 1950년 1월 22일에 결혼하였다. 그녀는 1944년에 제임스타운(Jamestown)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녀는 켄터키기독대학(Kentucky Christian College), 링컨성경대학(Lincoln Bible College) 및 퍼시픽성경대학(Pacific Bible College)에서 공부하였다. 조안은 "Parkview Christian Church의 창립 회원이었다. 암 투병 끝에 2002년 1월 31일 73세의 일기로 인디애나 주 플레인빌(Plainville)에 소재한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조안은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출판하였다.[312]

[참고문헌]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Oct. 1959;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역사』 , 대전: 한성신학교, 1991;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선교』, (재단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백종구,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Church News: Back to Korea, As Missionary," The Indianapolis Times: 4, Saturday, July 26, 1952.

311) 성낙소, '제21장 두 선교사 귀국과 신학교 휴교와 유무악기파 합동 건,'『자서전』.

312) Posted Thursday, January 31, 2002 7:00 pm Journal Review in Crawfordsville, Indiana; Gill Funeral Home in Washington, IN; Lincoln_RESTORER_June2002_Final.pdf; Emma Rivers Milner, "Church News: Back to Korea, As Missionary," *The Indianapolis Times:* 4, Saturday, July 26, 1952.

교회의 역사』, 서울: 쿰란, 2018; Posted Thursday, January 31, 2002 7:00 pm Journal Review in Crawfordsville, Indiana; Gill Funeral Home in Washington, IN; Lincoln_RESTORER_June2002_Final.pdf; Emma Rivers Milner, "Church News: Back to Korea, As Missionary," The Indianapolis Times: 4, Saturday, July 26, 1952.

FCK: For Christ in Korea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소장)

(4) 반힐, 톰슨, 데이비스, 웨스트

***반힐** Barnhill, Mary Louise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선교사역을 도우려고 미국에서 한국을 찾아온 선교사로 대전 판암동에 위치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보육원인 애생원에서 사역하였다. 애생원은 1950년대 초에 설립된 후 1958년까지 송조순이 원장으로 섬긴 보육원으로, 반힐은 1954년 입국하여 애생원에서 숙식하며 헌신했다. 사역 도중 전염성 간염에 걸려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에서 요양하였다. 리라 톰슨(Lila Thomson)이 부평보육원에서 돌아와 반힐을 간호하였는데, 그녀도 간염에 전염되고 말았다. 이 불행한 일로 반힐은 1955년에 출국하였다.

[참고문헌]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Oct. 1959;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선교』, (재단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FCK: For Christ in Korea

***톰슨** Thompson, Lila 1925.08.26.-1961.06.17.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선교사역을 도우려고 미국에서 한국을 찾아온 선교사로, 1953년 입국하여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 보육원에서 사역하였다. 기독교회선교부 보육원은 존 J. 힐(John J. Hill)이 1951년 8월 4일 서울

송월동 선교부 건물에 설립한 것으로 처음 19명의 고아들로 시작했는데 곧 이어 수용인원이 크게 늘어나 부평으로 옮기게 되었다. 톰슨은 부평보육원의 부지매입과 건축을 책임지고, 1956년까지 그곳에서 숙식하면 헌신한 진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성이었다. 이후 톰슨은 상처한 미군 중사 히람 힐러(Hiram Hiller)와 결혼한 후 1956년 3월 미국으로 돌아갔다. 톰슨은 히람 힐러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고, 나중에 얻은 아들이 미국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톰슨은 한국에서 얻은 간염으로 35세에 별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Oct. 1959;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선교』, (재단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https://www.findagrave.com/memorial/60883965/lila-maxine-hiller.

FCK: For Christ in Korea

*__데이비스__ Davis, Howard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부인 캐스린 데이비스(Kathryn Davis)와 함께 1951년 일본에 입국하여 1964년까지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에서 교회를 개척하였다. 한국전쟁 직후 1953년 내한하여 신학교육에 헌신하다 이듬해 일본으로 돌아갔다.

[참고문헌]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1.htm; 김찬영, 『한국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역사』, 한성신학교, 1991;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선교』, (재단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__웨스트__ West, Robert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부인 오드리 웨스트(Audrey West)와 함께 1953년 일본에 입국하여 도쿄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사역을 하다가, 1956년 사역지를 Okayama(岡山)현 하야시노(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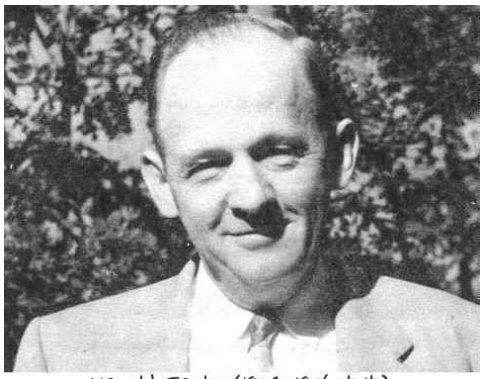
野)로 옮겨 교회를 개척하였다. 한국전쟁 직후 1953년 내한하여 신학교육에 헌신하다 일본으로 돌아갔다.

[참고문헌]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1.htm;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역사』, 한성신학교, 1991;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선교』, (재단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백종구(전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5.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과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1) 한국 주재 선교사가 되기 이전 사역과 입국 배경


Harold Taylor(1904-1976.05.15)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는 1904년경에 태어났다. 그는 토마스와 마리아 세이어(Thomas S. and Maria Etta Hoffa Sayer)의 딸인 에이더(Ada Maryellen Sayer)와 1924년경에 결혼하였다. 에이더는 1906년 1월 18일에 태어났다. 테일러는 에이더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 러렌드(Leland)와 글렌(Glenn)을 두었고, 한국에서 페니 류(Penny Lou)를 입양하였다.

테일러 선교사는 한국에 오기 전, 1945-1946년경에 티베트(Tibet)족의 선교로 유명한 러셀 몰스(Russell Morse)를 도와 중국에서 '윈난성 중국인기독선교부'(Yunnan Chinese Christian Mission)를 이끌었고, 1949년부터 1955년까지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 가미우마(東京都 世田谷區上馬)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이끌었다.[313]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세력을

일본 거주 선교사들과 러셀 몰스 선교사 가족(1952년 6월 27일)
러셀(Russell Morse)이 미얀마 접경지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에 공산군에 체포되어 일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15개월간 독방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직후 도쿄 요츠야선교부에 도착하여 선교사들과 찍은 기념사진. 앞줄 좌측부터 그레이스 빤햄, 호프 심즈, 로이스 심즈, 실비아 심즈, 커닝햄 여사, 스티븐 플리노어, 플리노어 여사(줄리어스 모친), 줄리아 플리노어(Fleenor), 거트루드(Gertrude)와 러셀 몰스 부부, 둘째 줄 좌측부터 마벨 버트레이(Mabel Buttray), 에스더 힐, 이사벨 더트모어(Dittemore), 에이더 테일러, 라번 몰스(La verne Morse, 러셀의 아들, 조동호 목사의 윤사), 제인 키네트(Kinnett), 셋째 줄 좌측부터 스탠리 버트레이, 폴 버트레이, 줄리어스 플리노어, 해롤드 심즈, 해롤드 테일러, 비안즈 여사(에스더 힐의 모친), 버지니아 플리노어.

크게 확장하자 미국 영사가 선교사들에게 중국을 떠나라고 충고하였고, 이에 테일러는 가족을 미국에 보내놓고 자신은 중국에 남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무렵 요츠야선교부의 해롤드 심즈(Harold Sims)가 테일러에게 일본으로 올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테일러는 상황이 좋아져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요츠야선교부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테일러는 1949년 10월 18-20일에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 그리스도인 대회에 강사로 참석하였고, 이후 한국으로 사역지를 옮기기 전까지 요츠야선교부에서 협력자로서 사역하였다.[314]

테일러 부부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이름을 따서 가미우마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였다. 교인이 20여명쯤 되었을 때인 1953년에 테일러 가족은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돌아갔고, 그 사이에 커닝햄 사후에 요츠야선교부가 1948년에 설립한 동경성서신학교에 다니는 젊은 신학생이 교회를 맡았으나 교회가 퇴보하였으며, 새로 부임한 젊은 신학생 나카무라(M. Nakamura)가 맡은 다음부터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테일러 선교사 가족이 1954년에 도쿄로 돌아와 부흥회를 개최하면서 교회는 더욱 부흥되었다. 이듬해인 1955년 봄에 나카무라는 신학

313)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

314) "Welcome to the Taylors," TC, 1949년 9-10월호; Mr. and Mrs. Harold Taylor, "Red Threat Forces Taylors to Flee China," TC, 1950년 7-8월호.

교 졸업을 앞두고 그 교회에 출석하던 자매 야에코 가마다(Yaeko Kamada)와 결혼하였고,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혼슈지방으로 목회를 떠났다. 나카무라가 떠난 후 테일러가 그 교회를 다시 맡아 1955년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를 맡아 동년 11월 13일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섬겼다. 테일러가 한국으로 떠난 후 그 교회는 요츠야선교부와 합의하에 일본양식으로 건축된 선교사 주택을 예배당 겸 사택으로 매입하였다. 매입비의 절반은 교회가 다른 절반은 테일러 선교사가 부담하였다. 테일러가 한국으로 떠난 후 가미우마 지역선교는 앤드류 패턴(Andrew Patton) 이 맡았다.[315]

해롤드 테일러가 한국 주재 선교사가 된 배경에는 존 J. 힐의 첫 번째 부인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의 외도가 있었다. 이 일로 힐과 폴 잉그램과 존 채이스 사이에 분열이 발생하였다. 힐은 에스더의 비행을 존 채이스 선교사에게 폭로한 폴 잉그램에게 나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에스더의 비행 소식을 접한 채이스와 힐의 모교회 장로들,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 CS*)지의 편집자와 다른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후원자들은 힐 가족의 한국선교사역 승인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힐이 한국기독교회선교부와 한국인들 사역에서 손을 완전히 떼도록 권고하였다.[316] 1954년 9월 하순에 내한한 채이스는 성낙소, 힐, 잉그램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힐과 잉그램을 귀국하도록 조치하였다. 폴 잉그램은 1955년 1월 8일 귀국하였고, 힐은 버티다가 1955년 7월 5일 쫓겨나다시피 한국을 떠나야 했다.[317] 그리고 존 채이스 자신은 1955년 11월 말에 입국한 해롤드 테일러(Harold and Ada Taylor) 선교사 부부에게 '기독교회선교부'의 모든 사역(목회자 양성, 교회설립, 보육원운영, 등)과 재산(송월동 선교부 건물과 토지, 신학교 교사, 보육원, 등)과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 짓기 위해 수년간 모금한 기금까지 모두 물려준 후 1956년 1월 13일 한국선교에

315) Andrew Patton, "Kamiuma Church," TC, 1956년 겨울호.

316) "Regarding the Chase Telegram," *CS,* 4 Sep 1954: 562; 27 August 1955: 546, 555.

317)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재단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24; 성낙소, '제21장 두 선교사 귀국과 신학교 휴교와 유무악기파 합동 건,' 『자서전』.

서 손을 완전히 뗐다.[318]

해롤드 테일러 가족(Harold Taylor Family, 1950년경).
해롤드, 리랜드(Leland), 글랜(Glenn), 에이더(Ada)

존 T. 채이스와 존 J. 힐 사이에 불거진 불협화음은 1953-54년에 미국에서 기사화되곤 하였다. 그 무렵에 해롤드 테일러 가족은 안식년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기사들을 모두 읽고 있었다. 테일러는 1953-55년 사이에 채이스와 힐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입장차가 있음을 알고 자신이 한국에 오기 전에 두 사람 모두 '기독교회 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에서 은퇴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테일러가 한국에 왔을 때, 내국인 사역자들이 테일러에게 채이스 편인지, 아니면, 힐 편인지를 묻곤 했다. 이신 목사는 힐 선교사에게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의 문화와 관습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적어 보냈다. 존 J. 힐 선교사는 이신 목사의 편지를 비롯해서 한국인들이 자신을 선교사로 와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발행되는 선교관련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월간지 「환원전령」(Restoration Herald) 1956년 5월호에서 밝혔다. 그 기사는 힐 선교사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 글이었다. 그러나 테일러는 진짜 문제가 내국인 지도자들이 믿고 실천하는 것들이 무슨 기독교인지를 그들 자신이 이해하고 있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테일러는 또 내국인 사역자들이 선임 선교사들, 곧 채이스와 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테일러 자신이 어느 한 쪽 편에 서서 일하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국인 사역자들은 테일러를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았다. 1956년 2월 7일까지는 테일러의 한국에서

318) John T. Chase, "Final Report on 'Chapels Fund'," *CS*, 28 January 1956: 60.

의 사역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나 그 이후 내국인 사역자들 가운데 아무도 채이스나 힐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황을 장악하였고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실례로 서울 종로구 관수동교회의 임 목사는 신학교 이사장으로서 힐에게 편지를 썼던 분이지만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확신하였다.[319]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내린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실상과 전임 선교사들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정확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에스더 비반즈의 비행에도 불구하고, 존 J. 힐에 대한 내국인 목회자들의 평판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존 힐의 처신은 선지자 호세아가 고멜에게 취한 것과 흡사하였다. 존 힐은 그녀와 이혼할 생각이나 선교를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러한 존 힐을 일컬어 내국인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성자'라는 말이 돌았다. 존 힐의 가정사를 냉정하게 처리한 존 T. 채이스 선교사에 대한 내국인 목회자들의 평탄도 나쁘지 않았다. 채이스의 하염없는 헌신과 수고를 모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내국인 목회자들이 이들 두 사람이 다시 한국에 선교사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비록 그들이 뜻하지 않게 한국을 떠나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롤드 테일러가 넘어설 수 없는 더한 존경과 사랑을 한국인들로부터 받았다. 결국 존 힐은 1959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대전 가장동에 자리를 잡고 한국성서신학교를 세워 목회자들을 배출하였고, 김은석 목사의 텃밭이었던 충청이남지역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지극히 섬겼다. 그 결과 존 J. 힐 곧 힐요한 선교사는 내국인 목회자들로부터 가장 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는 1955년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선교사역을 여러 해째 지속해왔고, 러셀 몰스(Russell Morse)나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과 같은 베테랑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켜본 경력선교사였다. 테일러는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 과정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복구과정을

319) "Unity and Peace," FCK, 1956년 6월호.

지켜봤고, 6·25전쟁 직후인 1955년 11월에 한국에 들어와 1960년 4·19 혁명과 1961년 5·16혁명을 거쳐 1972년 유신체제까지 격동기 19년을 한국에서 보냈다.

테일러는 존 T. 채이스, 존 J. 힐, 폴 잉그램(Paul Ingram), 메리 반힐(Mary Barnhill), 리라 톰슨 힐러(Lila Thompson Hiller)가 했던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의 모든 사역을 인수받고, 1949년 이후 채이스 선교사가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지와 함께 모금운동을 펼쳐 모아놓은 거액의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까지 인수받음으로써 날 수 있는 날개까지 얻은 셈이었다. 이 때문에 테일러가 한국에서 떠맡은 일들은 그가 중국과 일본에서 하던 사역들보다 훨씬 책임이 컸고, 또 자신의 뜻과 역량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커다란 기회였다.

그렇다고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상황이 테일러 선교사에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걸음마 단계에 있던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게 선교사들의 도움은 아기들에게 필요한 엄마들의 도움처럼 절실한 것이었지만, 에스더의 비행과 선교사들 간의 분열로 인해서, 일부 내국인 사역자들의 저변에는 선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일정 부분 깔려 있었다. 게다가 테일러 선교사가 모든 일에 주도권을 쥐고 토착적 문화와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후원방식에서 미국식 정책으로 몰아가려는 태도에 반발하는 목회자들이 있었다. 이런 정서가 서울지역에서는 성낙소 목사를 중심으로, 충청이남지역에서는 김은석과 이신 목사들을 중심으로 표출되었고, 심지어는 테일러 자신이 주선해서 미국에 보낸 내국인 사역자들에게서조차 표출되었다. 테일러 선교사는 일부 내국인 사역자들의 이런 태도를 분열주의 또는 교파주의로 보았고, 일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스스로 판단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도 했다. 한편 테일러 선교사가 분열파로 여겼던 내국인 사역자들도 현실적으로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시켜 나감으로써 심각한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변증법적인 발전이 돋보였다. 선교부에 인접한 수도권에서보다는 오히려 토착적이고 자생적인 김은석, 이신, 최요한 목사들이 주도한 충청이남지역에서 교회와 목회자 숫자가 더 빠르게 늘어났다.

테일러는 1950년대 후반기에 충청이남지역의 교회들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순회하면서 관계를 쌓아갔으나,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 돌아와 대전에다 '한국크리스챤미숀'(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과 한국성서신학교를 세운 존 J. 힐이 옛정과 내국인들의 사정을 이해할 줄 아는 인간적인 면과 거리상의 이유들로 인해서 충청이남지역의 사역자들과 더 긴밀히 연대함으로써, 선교사 일인체제에서 누렸던 리더십을 힐 선교사와 나눠 가져야 했다. 또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최윤권 목사, 최순국 목사, 안재관 목사 등에 의해서 선교회들이 늘어나고, 용산에 대한기독교신학교가 세워짐으로써 리더십은 더욱 다변화되었다.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 가족 좌측부터 리랜드(Leland), 에이더(Ada), 페니 루(Penny Lou), 글렌(Glenn), 해롤드(Harold)

1960년대 전반기에 테일러와 힐은 신학교를 세우고 키우는 일과 보육원들과 고등공민학교들에 전력을 쏟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나 경쟁심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들이 대부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긴다는 점에서도, 서울 선교부와 대전 선교부 사이에 어느 정도 경쟁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런 경쟁심조차도 오히려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변증법적인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반면에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는 같은 수도권에 있었던 데다가 테일러 선교사로서는 대한기독신학교가 서울성서신학교에서 일해 줄 것으로 믿었던 내국인 사역자들, 곧 자신의 주선으로 미국에 들어가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내국인 사역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신학교였으므로 마음이 불편하였을 것이다. 이런 불화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수도권에 '최초'와 '전통'이란 수식어가 주어진 기독교회선교부와 서울성서신학교를 갖고 있었고, 고든 패튼(Gorden Patten, 배도은) 선교사 때인 1981년 3월 학기부터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가 서울성서신학교 캠

퍼스에서 대한기독교신학교란 이름으로 통합됨으로써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리더십을 취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1955년 11월부터 1974년 은퇴할 때까지 한국에서 쏟은 헌신과 남긴 업적들은 후대인들에게 기리 기억되고 존경받을만한 족적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토착적 문화와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후원방식과 '비교파교회 플랜'에서 미국식으로 몰아가려한 점과 그로 인해서 내국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점은 그의 업적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었다. 또한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관련 자료가 1962년 3월까지 뿐이란 점도 아쉬운 점이다. 1962년 이후 은퇴한 1974년까지 12년간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해롤드와 에이더 테일러가 쓴 글들은 「한길」에 많이 담겨 있다. 누군가 그 글들을 취합하여 연구한다면, 그의 관점과 사상 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롤드 테일러는 한국에 주재한 그 어떤 선교사들보다도 더 단호히 미국식 신약성경교회를 한국에 이식하려고 하였다.

2) 한국입국 이후의 사역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것은 1955년 11월이었다.[320] 그가 한국에서 행한 사역들은 다음과 같이 1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테일러는 추락된 기독교회선교부의 지도력 복원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테일러는 존 채이스(John T. Chase), 존 힐(John J. Hill), 폴 잉그램(Paul Ingram), 메리 반힐(Mary Barnhill), 리라 톰슨(Lila Thompson Hiller)이 했던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의 모든 사역을 인수받고, 추락된 기독교회선교부의 지도력 복원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존 채이스가 모금한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은 테일러가 기독교회선교부의 지도력을 복원하고 분열을 치유하는데 큰 힘

320)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1959년 10월호.

이 되었다.

(2)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순회하였고, 교회들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① 1956년 1월 24-28일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서 발행한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FCK) 1956년 6월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1월 중에 이신 목사와 함께 5일간 전라남도 지역의 교회들을 순방하였다. 전남에 19개(56년 연감에는 17개)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있었으나 5곳을 방문하였다고 적었다. 기차로 12시간 걸려 도착한 함평에서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한 목회자의 형제였던 고등학교 교장을 만났고, 이분이 마련해준 오래된 군용 트럭을 타고 날이 어둡고 눈이 쌓여 길이 미끄러워 위험천만한 시골길을 달려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마을 교회에 도착하였다. 함평에서 7마일(1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상점도 의사도 없는 40호 정도의 시골마을이었다. 신생(新生)이란 이름은 "새 삶"이란 뜻으로써 마을사람 전체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테일러와 이신이 방문한 날은 100일 저녁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다. 김은석 목사가 남긴 성경메모에 따르면, 김은석은 1월 22일 신생마을에 도착하였고, 1월 25일(수) 아침에 침례식이 있었다.[321] 이 언급으로 보아 테일러와 이신이 신생마을에 도착한 날은 24일 화요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요일 아침에 국내 목회자들은 테일러에게 침례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5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김은석은 테일러의 방문에 대해서 아예 침묵하였다. 테일러 선교사는 이날 수요일 오후에 영광교회를 방문하였고, 다음날 26일(목)에 115명의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었던 보육원을 방문하였다. 테일러는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 여러 상자의 의류구호품을 선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목포에 도착하였다. 테일러는 그곳에 아직 그리스도(인)의교회가 없지만, 한 장로를 만났다고 하였는데, 테일러가

321)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시시울, 2020): 175.

방문한 곳은 최요한 목사가 시무하는 유달교회(순복음)였을 것이고, 그가 만난 장로는 목포시 죽교동 399번지의 진성구 장로였을 것이다. 유달교회는 진성구 장로의 집 2층에 있었고, 이 유달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소'가 있었다. 테일러는 진 장로를 통해서 목포에 그리스도(인)의교회가 들어서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테일러는 다음날 27일(금)일에 대전에 도착하여 대전보육원(판암동, 애생원)과 교회(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하였다. 그리고 28일 새벽 4시 30분 기차로 서울로 귀경하였다.[322] 그리고 일주일의 상당부분을 감기로 침대에 누워 지냈다.[323]

② 1956년 3월 31일-4월 4일

대구 (신천동?) 그리스도의 교회 1호 예배당과 사택 (1956년 3월 31일)

테일러 선교사는 3월 31일(토) 최순국(통역)과 함께 대구교회를 방문하여 새로 건축한 예배당의 입당예배에 참석하였다. 일주일간 지속된 부흥회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7명의 새 신자가 침례를 받았다. 대구교회는 구 건물을 팔아 건축기금을 마련하였고, 부족한 돈은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에서 지원받았다. 4월 1일(부활주일) 오후에 버스로 김천터미널까지 가서 또 한 시간을 걸어서 김천교회에 도착하여 저녁 설교를 하였다. 이날 밤에 4명의 결신자가 생겨 다음날 월요일에 저수지에서 침례식을 가진 후, 기차로 신탄진에서 내려 김동렬 목사가 시무

김천 (대보?)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

322) "To the Far Corners," FCK, 1956년 6월호.
323) "That They All Might Be One," FCK, 1956년 6월호.

하는 교회를 방문하였다. 화요일에는 김은석 목사가 시무하는 부강교회를 방문하였다. 그때 부강교회에서는 신화신학성경연구회가 열리고 있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의하고 저녁에 두 번 더 강의하였다. 이날 테일러는 총 5시간을 강의(설교)하였다. 그리고 새벽 2시 기차를 타고 귀경하였다.[324] 김은석 목사는 이날부터 한 주간동안 부강교회에 머물렀으나 테일러 선교사의 방문에 관해서 성경통독메모에 적지 않았다.

③ 1957년 1월

테일러 선교사는 1957년 1월 신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기간을 이용하여 제2차 남부순회전도여행을 시도하였다. 광주와 목포, 제주(2개 교회가 있었음), 부산, 대전으로 이어지는 전도여행이었다.[325]

④ 1957년 3월 19-26일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호에 의하면, 테일러는 최순국과 함께 경상도와 강원도지역 교회들의 방문길에 나섰다. 그들은 3월 19일(화) 밤에 부산행 기차를 탔다. 이튿날 테일러와 최순국은 부산에서 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빌즈(Verlen Alex & Betty Bills) 선교사 가족을 만나 몇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울산으로 향했다. 울산교회는 기독교회선교부로부터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에서 1956년에 1,400달러를 후원받아 장로교회로부터 헌 예배당을 매입하였던 곳이다. 테일러는 그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집회 때 설교를 했는데 120여명이 출석하였다. 이후 테일러와 최순국의 교회순방은 영양, 삼척, 강릉, 주문진, 38선 이북 고성으로 이어졌고, 26일 화요일 밤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울산에서 기차, 트럭, 버스를 타고 위험한 도로들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 속에 자리 잡은 1,000여 호의 마을로 이뤄진 영양이었다. 영양에 외국인이 온 것은 처음이어서 아이들이 예배 중에 외국어를 듣고서는 신기해하면서 웃었다. 작은 흙집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

---

324) "Our First Chapel," FCK, 1956년 6월호.
325) "Training Preachers," FCK, 1957년 2월호.

다. 그 밤에 테일러와 최순국은 오(현팔)목사가 운영하는 한약방에서 묵었다.

테일러와 최순국은 토요일(23일)에 네 개의 다른 노선의 버스들을 갈아타고 동해안의 가파른 도로들을 달렸다. 목적지까지 3시간을 남겨 놓은 지점에서 밤이라서 버스가 끊겼다. 주일날 아침 5시에 다시 출발하여 삼척교회에 일찍 도착하였다. 아침 9시에 삼척교회의 이 아무개 할머니가 해주는 아침식사를 먹었다. 삼척교회는 서울성서신학교에 다니는 박병호 형제가 집에 와 있는 동안에만 섬기고 있는 곳이었다. 최순국은 이곳에서 한 차례 말씀을 전파했는데, 고향에 온 듯이 편안한 모습이었다고 적었다.

그들은 주일날 정오쯤에 교회를 나와서 버스를 타고 강릉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주문진으로 향하였다. 저녁에 주문진교회에 집회가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주문진에는 김 아무개 형제의 집이 있었고, 그곳에서 교회가 모였다. 그 주일저녁에 12명이 결신하였고, 이튿날 3월 25일(월)에 바닷가로 나가 12명이 침례를 받았다. 거대한 바위가 매서운 바닷바람을 막아줬지만 추위에 떨어야 했다. 그러나 구세주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소리만큼은 드높았다고 적었다. 월요일 저녁에도 자정까지 집회를 열었다. 주문진교회는 서울성서신학교에서 일 년간 공부한 여전도사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날 오전에 침례를 받은 여신도들도 이 여전도사의 결실이었다.

3월 26일 화요일 아침 6시에 그들은 열 번째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38선 넘어 고성에 갔다가 산을 넘어 서울로 오는 길에서 버스에 세 개의 타이어가 펑크가 났고 다른 문제들까지 겹쳐 서울도착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밤 9시가 돼서야 도착하였다. 주문진교회를 떠나던 아침에 점심에 먹으라고 찐 계란 12개를 싸줬는데, 최순국 형제는 먹지를 않았고, 테일러에게는 너무 많은 양이었으며, 이 여행에서 50대 초반의 테일러는 적어도 20대 초반의 최순국보다 자신이 더 잘 어려움을 견딘 것 같다고 소회하였다.[326]

326) "To the Uttermost Parts," FCK, 1957년 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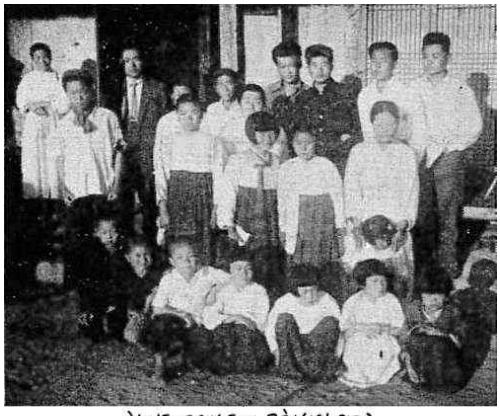
⑤ 1957년 4월 29일

1957년 4월 29일에 서울과 인근 지역의 목회자, 장로 및 집사들의 연합집회를 열었고, 40명이 참석하였다. 테일러는 집회의 주제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참여토록 하였으며, 집회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집회는 새로 지은 인천교회에서 모이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적었다.[327]

⑥ 1957년 6월 3-10일

테일러는 6월 3일에 충청도, 5일과 7일에는 전남, 9일에는 제주도에서 연합집회를 열 계획을 세웠다. 테일러는 이들 집회들을 통해서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절반 이상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7월말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 만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테일러는 가능하다면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순회할 계획이었다.[328]

⑦ 1958년 5월 18-25일



하이도 그리스도의 교회(1958년)
(임혜숙 전도사, 전남 무안군 하의면 하태)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8월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한길사 직원 방 아무개(통역)씨와 동행하여 1958년 5월 18일 주일에 부강교회를 방문하였고, 송(조순) 형제가 운영하는 판암동 애생원을 방문하였다. 5월 19일에 광주로 내려갔고, 20일(화)에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교회(최용호 목사의 사모 박정자의 고향 교회)를 방문하여 100여명이 참석한 수요일 저녁집회에 설교하였다. 22일(목)에 강진, 23일(금)에 진성구 장로의 모교회이자 6·25전쟁 때 순

327) "Report of Progress," FCK, 1957년 6월호.
328) "Report of Progress," FCK, 1957년 6월호.

교자들이 많이 나온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교회, 24일(토)에 전남 무안군 하의면 하태리 하의도교회(임혜숙 전도사)를 방문한 후, 25일(주일) 오후에 상경하였다.[329]

⑧ 1959년 6월 8-10일

테일러 선교사는 1959년 6월 8-10일 전라도지방을 순회하여 박치환 형제가 새로 개척한 곳에서 설교하였는데 이날 읍장을 비롯해서 21명이 결신하였다.[330]

⑨ 1962년 2월 7-8일, 2월 16-23일, 3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62년 3월호에 따르면, 2월 7-8일 홍성으로 선교여행을 하였다. 안양교회 장주열 목사와 안재관 목사가 동행하였다. 홍성에 장 아무개 목사가 시무하는 1년이 채 안된 교회가 있었다. 테일러는 2월 16-23일 순회 때 목포교회를 가는 길에 홍성에 들러 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주일(18일)에는 목포교회에서 설교하였고, 월요일에는 임 아무개 통역과 함께 전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목요일(22일)에 군산을 거쳐 23일 상경하였다. 또 3월 중에는 전주를 다시 방문할 것과 목포에서 열리는 일주일 성경공부에 참석하여 최윤권 목사와 함께 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22개 교회들에서 2명씩 참석하는 모임이라고 소개하였다.[331]

(3)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적절히 배분하였다.

존 T. 채이스 선교사는 1949년 2월 중순부터 주간 「크리스천 스탠다드」(*Christian Standard*)지와 함께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이란 캠페인을 펼쳤다. 채이스는 9월 1일까지 50,000달러 기금이 모이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재입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금마련이 늦어진데다가 이듬해엔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입국을 포기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존 힐의 첫 번째 부인 에스더 비반즈가 일으킨 스캔

329) "Daily Doings," FCK, 1958년 8월호.
330) "Midsummer Harvest," FCK, 1959년 10월호.
331) "To the Villages and Cities," FCK, 1962년 3월호.

조동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 충주시 동량면)

들 처리문제로 존 힐과 폴 잉그램 사이에 또 존 힐과 존 채이스 사이에 분열이 있었고, 이 사건은 선교사들이 모두 사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채이스는 기금마련이 늦어지고 자신이 재입국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까지 보실 수 있는 그분의 섭리 때문에 우리는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들 예배당을 짓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예배당들을 지었더라면 전란 중에 모두 파괴되었을 것이다".[332]

해롤드 테일러가 한국에 왔을 때, 채이스는 선교부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테일러에게 인계하였고, 쓰고 남은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은 테일러 가족을 후원하는 오클라호마 마이애미 제일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넘겼다. 1955년 11월에 입국한 테일러는 이듬해 2월에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설문지를 보내 교회 상황들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후원계획을 세웠고, 마이애미 교회는 테일러에게 이 기금을 보냈다.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 최춘선 목사)

테일러의 후원계획은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만큼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그는 그의 선임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주던 후원금을 끊고 긴급 상황에서만 후원을 하였다. 테일러의 이 후원정책은 채이스가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조성할 때 세웠던 계획, 곧 꽤 훌륭한 예배당을 10여 채 이상 세우겠다

332)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1959년 10월호.

는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게다가 그의 정책은 많은 내국인 사역자들에게 그를 배척하는 원인이 되었다. 반면에 테일러의 이 정책으로 인해서, 채이스가 원했던 것만큼 훌륭한 건물은 아니었지만, 11개의 새 예배당이 건축되었고, 1개의 구 건물이 장로교회로부터 매입되어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사용되었으며, 34개의 교회들이 신축 또는 수리를 위한 보조금을 받았다. 테일러는 이 사실을 1959년 10월호에 실은 '기독교회선교부의 역사'(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에서 밝혔다.[333]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6년 6월호에 따르면,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처음 6개월 동안 보고 느낀 소감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시골에 있었고, 가난하고 작은 교회들이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열심을 내는 훌륭한 성도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담임목사의 생활을 책임질 만큼 넉넉하지 못했고, 일부 교회들은 일주일 내내 체류하는 목회자를 두지 못하였다.[334] 테일러는 이 무렵 전국에 교회가 75개 있었지만, 그 가운데 5개 정도만 도시에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시골이나 도시들의 공유지를 점유한 판자촌 또는 피난민촌에 있었다고 전하였다.[335] 2년 후인 1958년 2월호에서 테일러는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후원받은 교회들이 대부분 텐트나 초라한 건물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초가지붕이거나 마루도 없는 교회들이었다고 적었다.[336]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6년 6월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전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교회의 형편을 조사하였다.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후원이 시급한 세 개의 교회들에게는 건축 또는 매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였다. 오클라호마 주 마이애미 교회로부터 받은 10,000달러 가운데서 은행 수수료로 10달러, 대구교회 예배당 건축에 460달러, 울산교회 예배당 매입에 1,400달러, 용신(영신?)교회 예배당에 101달러

333)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1959년 10월호.
334) "To the Far Corners," FCK, 1956년 6월호.
335) "Preachers and Problems," FCK, 1956년 6월호.
336) "The Chapels Program," FCK, 1958년 2월호.

72센트를 지불하고 8,028달러 28센트의 잔액이 남았음을 보고하였다.[337]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1956년 2월에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교회들의 역사, 재적인원, 출석인원과 건물상태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답장을 보내온 교회들 가운데 그 당시 침례 교인이 1,379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0명 미만인 교회가 9개, 20명 미만인 교회가 22개 이상, 50명 이상인 교회가 4개였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출석 교인들은 침례 교인들보다 10배 정도 많았다. 이들 가운데 몇몇 교회들만이 적절한 크기의 건물을 갖고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정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테일러는 기금이 헛되게 쓰이지만 않는다면 가능한 많은 교회들에게 도움을 줄 생각이었다. 또 그 계획에 대해서도 교회들에게 알렸다.[338]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호가 발행될 시점까지 테일러가 도움을 준 교회는 39개였다. 아직 돕지 못한 교회들까지 다 후원하려면 5,000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시점까지 테일러가 받은 기금은 총 28,857달러 83센트였다. 이 가운데 존 T. 채이스로부터 넘겨받은 돈은 18,424달러 88센트였다. 그리고 39개의 교회들을 건축하거나 수리 또는 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26,776달러 51센트였고, 송금료 22달 41센트, 환전료 10달러, 기타(순회 및 국내 송금료) 119달러 12센트였으며, 잔액은 1,929달러 79센트였다.[339]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2월호에서 테일러는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후원받은 교회들이 대부분 텐트나 초라한 건물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초가지붕이거나 마루도 없는 교회들이었다고 전하면서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0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덧붙여서 테일러는 1만 달러를 더 모금해서 쓰게 되면 총 5만 달러를 쓰게 되는 것이지만 (그간 쓰인 기금이 4만 달러였던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때 힐과 잉그램 가족을 위해서 일본 도쿄에 매입했던 두 채의 주택을 매도한 대금도

337) "Chapels in Korea," FCK, 1956년 6월호.
338) "The Chapels Program," FCK, 1957년 6월호.
339) "The Chapels Program," FCK, 1957년 6월호.

테일러에게 전달되었다.) 이 5만 달러는 미국에서 예배당 한 채 짓는 비용에 불과하고, 한국의 교파교단들의 큰 교회 예배당 두 채 정도를 짓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적었다.[340]

이 당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처한 형편을 기준으로 볼 때, 존 T. 채이스가 처음 기획했던 대로 서울과 같은 큰 도시에 번듯한 예배당을 단 한 개라고 건축했어야 한 일과 테일러가 행한 대로 기존 교회들의 건축보조와 예배당들의 수리보수에 기금을 쪼개 쓴 일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더 잘한 일이었을지 아쉬움을 모두 다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

(4)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일 년에 1-3 차례 발행하였다.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Thank You

Some of you may think of "Taylor's out there all alone." But we don't feel that way. We are conscious of the fact that there is a great number of Christian friends back of us in prayer, and, too, it is by your giving that we are able to be here and to do what we can in Korea. It is a great fellowship in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in the ministry of Mercy to these people. We give thanks for you and pray for you daily. From your letters we see that you are aware of the fact that we need help. We are glad to say that we indeed have help. God is with us! It is His work and He is working. We have faced big problems and there are still more, but we are relaxing. We see that we are to do only the difficult (and that with help from above), while the Lord Himself is doing the impossible. All glory is for Him!

On Palace Grounds in Seoul

Opening Day at Pachen Middle School

house reminded us of a Korean bus, filled twice without unloading! I understand that two whole villages tried to get inside that night. It was a good meeting, with four responses to the Gospel. After walking 8 miles, riding fifty (rough) miles and preaching twice, I was ready for bed. But, no, we will first have a meeting with the young people and go to bed later!

On Monday we had a baptismal service in a pool beside the rice fields. Then we walked back to Kimchon and took the train to Shintan where Bro. Kim Dong Yul has been pastor. I spoke on "The Bride of Christ," and learned afterwards that there were two Methodist preachers in the audience! The next day we had an early start with our first message at the 4:30 a.m. prayer meeting.

Then some more sleep before breakfast and trip to the next

joy for you folk and for us to help these innocent victims. Surely as Christians we can do no l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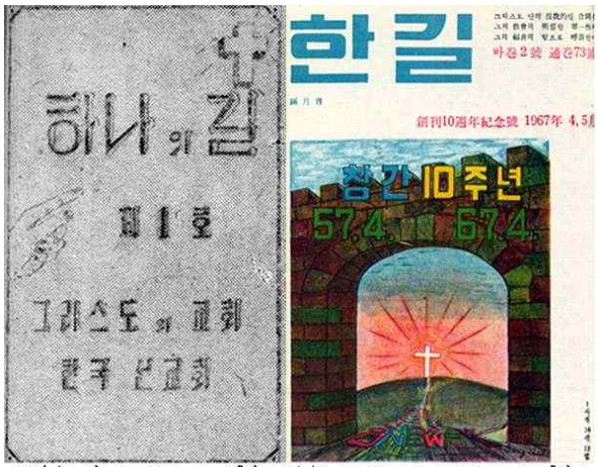
Two more handicapped children were pointed out to us. They are deaf and dumb. Another, a small girl, though she is 12 years old, caught our eye. She was inside one of the rooms, and we noticed that she seemed to be in distress. Although she might easily be judged one of the prettiest children among the 150 in the Inchon Orphanage, she wore an expression which dug deep into one's sympathy. We thought, "What would the folk in the States do if they could see her?" But we knew the answer, from the many responses which have been made to the call of Korea's needs, both through missionaries and by the U.S. servicemen. The next day we made an appointment at the hospital in Seoul and she entered there the following week. She is now back at the orphanage, in a cast after an operation on her back. They said it was "T.B. of the bone." Bro. Ee, in charge of the Orphanage, says that this girl has good faith in the Lord, and we know that the Lord is able, so let us pray for Miss Kim Hyun Ja.

We have had one other similar decision to make with another girl, this one the small daughter of one of the preachers. We saw her at her home at Kimchon on April 1st. She is 10 years old. I saw that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her eyes. They said that she was slowly losing her sight. Knowing that this

필자가 쓴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5)』의 상당 부분은 선교사들이 발행한 선교지들 덕분이었다. 이 선교지들을 받아본 미국 그리스도인들 혹은 대학들이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보관하여 디지털화하지 않았다면,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이야기 상당 부분이 밝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필자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후원자들에게 썼거나 프린트했던 선교지들의 상당부분을 확보하였다.

(5) 1957년에는 월간 「한길」(*One Way*)을 창간하였다.

340) "The Chapels Program," FCK, 1958년 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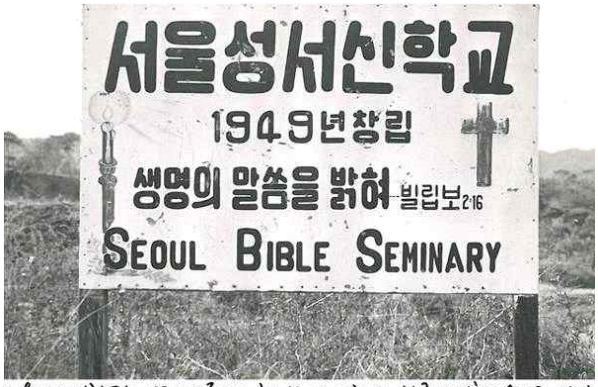
한길 창간호 표지(1957년 4월호) 및 창간 10주년 표지(1967년 4,5월호)

해롤드 테일러는 내국인들의 이견을 좁히고, 자신이 주도하는 '비교파교회 플랜' 곧 '신약성경기독교'를 전국에 소개하며, 목회자들의 설교준비와 목회사역을 돕기 위해서 월간「하나의 길」(One Way)을 1957년 3월에 창간하여 4월에 창간호(제1호)를 1,500부 발송하였으며, 1962년 10월 1일「한길」로 개명하였다.「한길」은 처음에는 신문형식으로 발간되다가 13호부터는 잡지형식으로 바꿨다. 매호마다 묵상(QT), 교리, 선별된 기사들이 담겼고, 12-16쪽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말에는 합본이 제공되었다.「한길」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뿐 아니라, 많은 타 교파 교회들과 학교들, 그리고 군목들에게도 발송되었다.[341]

테일러는「한길」이 목회자들에게 신약성경의 계획과 교리들을 이해하고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따라서「한길」에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환원운동과 신약성경교회정신 및 신앙들이 담겼고, 토마스 캠벨의『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 발톤 스톤의「스프링필드장로회유언서」(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 아이작 에레트의「우리의 위치」(Our Positions)를 비롯해서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저명한 학자 및 목사들의 글들이 지속적으로 번역되어 실렸다.

(6) 신학교 캠퍼스 이전 프로젝트(New Seminary Project)를 실행에 옮겼다.

341) "Report of Progress," FCK, 1957년 6월호.



서울성서신학교는 1937년 존 T. 채이스에 의해서 한국성경훈련원으로 시작되었으나 1940년 3월 25일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선교사들의 철수로 문을 닫았다가 1949년 봄학기에 개교하였으며, 1981년 3월 2일 대한기독교신학교와 통합하여 오늘의 서울기독대학교가 되었다.

1950년대 전반기에 있었던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와 힐(John J. Hill) 선교사의 분열은 협의회와 총회로 나뉜 분열의 전조적 사건이었다.

힐은 채이스의 발굴에 의해서 선교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채이스의 '기독교회선교부'(Korean Christian Mission)에 소속된 선교사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직접후원방식의 선교정책에 적극적이었던 채이스의 신념 때문에 힐의 신분은 채이스에게 예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것이었다.

1959년 3월 13일 서울성서신학교(송월동) 졸업식

태평양전쟁의 발발 조짐으로 조선주재 교단들 선교사들의 상당수가 1940년 11월 16일 인천항을 통해서 철수한 이후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는 1949년 2월 18일 존 J. 힐이 재입국하기까지 대략 8년간은 선교사들이 장기 체류할 수 없었던 공백기였다. 그 기간에 존 T. 채이스가 몇 차례 입국하여 단기선교를 펼치긴 하였으나 신학교는 폐쇄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 신학교를 다시 연 것은 존 J. 힐이었다. 입국 직후 힐은 채이스의 한국인성경훈련원(Korean Bible Training Institute)을 다시 열었으나 후에 그 이름을 서울성서신학교(Seoul Bible

Seminary)로 변경하였다. 이 신학교는 1949년 3월 15일 연지동에 마련된 힐의 임대저택에서 시작되었으나 학생이 많아져 필운동교회로 옮겨졌으며, 6·25전쟁 직후에 다시 잠시 중단되었다.

신학교는 채이스가 송월동 선교부에 1937년에 한국인성경훈련원이란 이름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1940년 3월 25일에 첫 졸업생들인 김요한 목사, 최상현 목사, 성낙소 목사, 김문화 목사, 박판조 목사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박판조를 빼고는 모두 이미 각자의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거나 구세군 사관출신이었으며, 박판조는 학생전도사였다. 이듬해에 이 신학교는 일제에 의해서 폐교 당하였다.

1960년 4월 1일 서울성서신학교 졸업식
전년 6월 3일에 매도된 송월동 신학교에서의 마지막 졸업식이었다.
앞줄 가운데 좌측부터 에이더와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부부, 김동수 목사
(통역), 리처드와 멜바 래쉬 선교사 부부

해방 후 이 신학교의 문을 다시 연 인물은 존 힐 선교사로서 1949년 3월이었다. 이때 힐은 '훈련원' 대신에 '신학교'(seminary)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서 서울성서신학교가 힐에 의해서 1949년에 세워진 것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1955년 3월 3일의 졸업식을 제1회로, 1960년 4월 1일 졸업식을 제4회로 본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었다고 본다. 송월동 선교부 재산을 되찾지 못해서 6·25전쟁 이전에는 잠시 연지동과 필운동에서 신학교가 개교되었으나 힐이 1949년에 다시 연 신학교는 이름만 'institute'에서 'seminary'로 바꿨을 뿐 채이스 선교사가 세운 송월동 선교부 신학교의 연장이었고, 또 송월동 선교부가 팔릴 때까지 신학교가 그곳에 있었으며, 힐 선교사는 채이스 선교사가 하던 일을 맡아 지속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서울성서신학교의 시작은 1949년이 아니라, 1937년이라야 옳다. 서울기독대학교의 연역은 이 점을 반영하여 개교연도를 1937년으로 잡고 있다. 참고로 1955년까지 힐을 도와 신학교에서 교수와 교감을 지낸 성낙소 목사는 자서전, 『기독의 교회

와 성낙소와의 관계』(1958년경)와 『신약교회 목회학』(1953년)에서 이 신학교의 이름을 '그리스도의교회신학교'라고 불렀다.

역촌동의 7,087평의 서울성서신학교 새 부지(1960년).
구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 부지는 총 396평이었다.

서울성서신학교는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송월동 선교부의 재산(토지 396평과 그 위에 세워진 선교부 건물과 신학교 건물)을 1959년 6월 3일까지 모두 팔고, 7,087평의 역촌동(현재 신사동) 땅위에 새 캠퍼스를 마련하여 1963년에 개교할 때까지 잠시 중단되었으며,[342] 그 공백기에 목회자가 양성된 곳은 힐 선교사가 1959년 12월에 대전에서 시작한 한국성서신학교였다.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전국에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75개였고, 서울성서신학교 학생들은 40여명이었으며, 일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서울에까지 와서 가르쳐야했기 때문에 교과과정은 과목당 6주씩 집중교육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343] 6주간 집중교육방식은 일본 오사카성서신학교(Osaka Bible Seminary)에서 하던 방식이었다. 장성만 목사가 1961년에 마크 맥시(Mark G. Maxey)를 비롯한 일본 주재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3개월짜리 비자를 가까스로 두 차례 받아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 두 학기를 마친 것도 이 6주간 집중강의였다. 장성만 목사의 멘토(mentor)였던 마크 맥시가 가노야에서 운영한 학교(Institute at the Christian Center)도 6주간 집중강의를 하곤 하였다.[344] 강사초빙문제와 학생들의 경제적 형편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는 일본도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기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정기간 생활비를 벌어야했고, 선교사들과 내국인 목회자도 연중 내내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또 교통도 나빠 먼 길을 매주 오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

342) "The New Location," FCK, 1960년 5월호.

343)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1959년 10월호.

344) Mark G. Maxey, "Linkletter No. 109," LinkLetter: A Monthly Report by Mark G. Maxey Family to the Friends of the Kyushu Christian Mission Kanoya, Kagoshima, Japan, March 1960: 1.

테일러는 1955년 11월 한국에 입국하여 기독교회선교부를 인수받고, 1959년 6월 3일까지 신학교 3층 건물을 포함해서 서대문구 송월동 32-6번지의 선교부 재산을 모두 팔았고, 그 때문에 북서울 역촌동(현재 신사동)에 캠퍼스부지를 매입하여 교사와 기숙사를 짓기까지 몇 년 동안 신학교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그러나 테일러는 처음부터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교부(교육부)인가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었고, 또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넓은 캠퍼스와 시설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일을 추진하였다.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6년 6월호에 따르면, 1956년에 신청한 인가신청이 부지가 8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거부되었다. 이때부터 테일러는 신학생들이 늘어나 장소가 협소다면서 송월동 부지와 건물을 팔고 더 싸고 넓은 부지를 물색하여 선교부와 신학교를 이전시켜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야 정부로부터 대학인가를 받을 수 있고, 인가를 받아야 좋은 학생들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학생들이 병역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345] 그러나 그의 재임기간에 대학으로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재정결핍이 여러 이유들의 하나였겠지만, 정부인가가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을 것이라는 사고(思考) 즉 일부 근본주의 선교사들이 가졌던 편향된 사고 때문이었거나 동일한 사고를 가진 후원자 또는 후원교회들의 반발 때문이었을 것이다. 전자보다는 후자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20세기 초중반에 자유주의 신학에 굴복한 유서 깊은 33개의 대학 및 대학교들을 역시 자유주의 신학에 편향된 '그리스도인의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에게 빼앗긴 충격적인 경험을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후원이 절대적인 테일러 선교사로서는 그들의 반발을 극복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대학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에 이르러서이다. 앞에서 언

345) "Seminary Registration," FCK, 1956년 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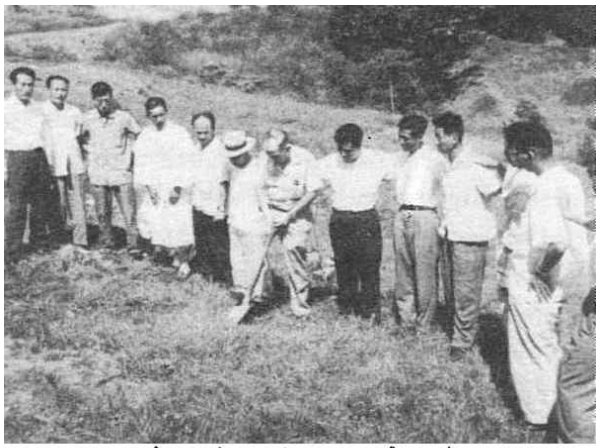
급되었듯이 그리스도의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의 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와 대학(교)들 및 신학대학원들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장악되자, 그리스도의제자들에서 탈퇴한 독립교회들 곧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성경신학의 보수를 위해서 세운 대부분의 대학들의 명칭이 'Bible College' 및 'Bible Seminary'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생모집의 수월성과 생존을 위해서 'Bible'을 'Christian'으로 대부분 바꿨고, 'College'에서 'University'로 상당수가 개편되었다. 온라인과 첨단 디지털시대가 되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뿐 아니라, 목사나 신부가 되기를 외면하면서 미국에서도 신학교들과 신학대학들이 학생모집이 되질 않아 재정곤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서 오랜 역사와 명성을 쌓았던 신학교와 신학대학들조차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테일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8월호에서 자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두 개의 확연이 드러난 문제들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70여개의 어린 교회들이 있었고, 그것들 대부분이 2-3명의 신실한 목회자들의 열정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로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돌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양떼를 제대로 돌볼 훈련된 목회자들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개의 교회들이 시골이나 피난민 지역들에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도시들에 교회들을 세워야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였다는 것이다.[346]

서울을 제외한 다른 10개의 대도시들에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단지 6개뿐이었는데, 그 가운데 2개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고, 오직 한 개의 교회만이 한명의 장로를 두었다고 하였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단지 몇 개만이 상태가 좋은 교회였고, 그들 가운데 1958년 5월 22일에 방문했던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교회는 80여명의 성도에 2명의 장로가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장로들이 목회자를 내보냄으로써 그 목회자가 인근지역의 타교단으로 갔다고 하였다. 테일러는 작은 교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맏형교회들이 대도시에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신학교, 정부로부터 인가가 난 신학교가 필요하다고

346) "Working with Him," FCK, 1958년 8월호

확신하였다.[347]



서울성서신학교 기공식(1961년 8월 28일)
12개 교회들의 대표들이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테일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8월호에서 월드비전의 래츠(Mr. Raetz)가 '그리스도인 미군센터'로 쓰기 위해서 송월동 선교부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계약서까지 쓰고, 7월 한 달 동안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고 하였다. 그런데 1959년 5월호에서는 1958년에 선교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던 사람에게 할부금 형식으로 계약하였으나 매입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1,500달러의 수입이 생겼으나 거의 일 년에 가까운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였다. 테일러는 또다시 부동산소개소에 부지와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고, 그세 시세가 올라 4만 달러 정도는 되어보였다. 그 돈이면 송월동 선교부의 부지보다 20배 정도와 초기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이 된다고 하였다.[348]

이 무렵 송월동 선교부신학교의 학생수용능력이 25명이었으나 새 캠퍼스의 수용능력은 250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테일러는 교수충원과 관련해서 최윤권이 산호세 신학대학 졸업을 1년 남겨놓았고, 최순국이 링컨성서대학으로 유학을 떠날 채비를 마쳤으며, 김진문이 1960년부터 교수진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시점에 신학교는 휴교상태였다.[349]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9년 10월호와 1960년 2월호 따르면, 선교부 건물과 토지는 1959년 6월 3일에 팔렸다. 60일 이내에 집을 비워주기

347) *Ibid.*
348) *Ibid.*
349) *Ibid.*

1963년 서울성서신학교 개교식
앞줄 우측부터 김치묘 목사, 박두진 시인, 정인소 박사, 최윤권 목사, 해롤드, 에이더 테일러 부부, 고든, 사론 패튼 부부, 한 사람 건너 차원봉 목사

로 했기 때문에 이사할 곳을 찾아야했다. 테일러는 집을 비워줘야할 날짜를 이틀 남기고 방 8개짜리 집을 일 년간 전세로 얻었다. 2층 건물로써 송월동 32-6번지에서 가까운 141번지에 있었다. 그곳에 선교부, 「한길」 사무실, 2층에 집회소(Gospel Hall)와 전도센터를 두었다. 나머지 짐은 특히 신학교의 책걸상은 이전 송월동 신학교 건물의 지하실에 12월 1일까지 임시로 둘 수 있도록 새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다. 테일러 가족은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전세 내어 이사하였다.[350]

1964년 3월 9일 서울성서신학교 졸업식
앞줄 우측부터 이종만, 고든 패튼, 둘 건너 최윤권, 구광서, 해롤드 테일러, 성낙소 (이상 목사)

「한국에 그리스도를」 1961년 10월호에 따라면 테일러 가족은 안식년을 마치고 6월에 한국에 돌아왔다. 그리고 테일러는 동년 8월 28일에 12개 교회들의 대표들과 함께 기공식을 갖고, 2층 교사와 남녀기숙사 및 식당을 건축하였으며, 그동안 중단되었던 서울성서신학교는 새 캠퍼스에서 1963년 3월에 개강하였다. 교수들은 테일러 선교사, 최윤권 목사, 1962년에 입국한 고든 패튼(Gorden Patten, 배도은) 선교사, 박두진 시인 등이었다.[351]

---

350) "Moving Days," FCK, 1959년 10월호.

351) "After Three and One-Half Months," FCK, 1961년 10월호; "Disappointed - But" and "A Place for the Pattens," FCK, 1962년 3월호.

(7)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보육원을 직접운영(부평) 또는 후원(인천 숭의동, 대전 판암동)하였고, 구호물자를 보급하였다.

부평보육원은 힐 요한 선교사와 리라 톰슨(Lila Thompson Hiller)이 송월동 선교부에서 시작한 보육원으로써 리라 톰슨이 부지매입과 건축을 책임지고 부평으로 옮긴 것이어서 기독교회선교부가 모든 살림을 책임졌다. 또 기독교회선교부는 대전 애생원을 직접 관리하였고, 인천 보육원과 함께 학비, 책값, 기성회비 등을 후원하였다. 하지만, 재원부족으로 전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어서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도록 주선하였다.

부평 보육원(좌측 상), 인천 보육원(좌측 하, 숭의동교회), 대전 판암동 애생원(우측)의 1957년 모습

테일러는 이들 보육원생들에게 매주 1회 예배와 연 2회 성경학교를 개최하여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만 18세가 되어 퇴원하는 원생들 중에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성서신학교에는 보육원 출신의 신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다.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9년 5월호에 따르면, 1958년 10월에 부평보육원의 원생들이 원장에 반대하여 데모를 일으켰고, 그 수습책으로 설하운 목사가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설목사는 이 보육원을 도내 최고 보육시설 가운데 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아냈다.[352]

설하운 목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2월호에 따르면, 1956년 12월 27일 김형옥 자매와 테일러 선교사의 주례와 김동수 목사의 통역으로 혼례를 치렀다. 신학생 때 설하운은 선교부신학교의 관리과장으로 섬겼고, 구호의류를 보육원들과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1957년 3월에 선교부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도원동교회를 시

352) "These Little Ones," FCK, 1959년 5월호.

무하다가 부평보육원 원장 밑 부평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로 취임하였다.[353]

부평보육원에서 발생한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1958년 12월 대전 판암동 애생원에서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일간지에 기사화가 되고, 법적문제로까지 번졌다. 테일러 선교사는 해결책으로 전에 부평보육원에서 총무로 일하다가 일이 힘들어서 사임하고, 서울에서 전에 했던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던 박정훈 형제를 불러 원장으로 앉혔다. 테일러가 1960년 1월 11일에 애생원을 찾았을 때, 애생원은 월드비전의 도움으로 건물에 대한 담보권이 풀렸고, 새로운 이사진, 새로운 원장과 새 이름을 갖게 되어 마치 새로운 장소 같았다고 전하였다.[354]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보육원들에 보낼 헌옷들을 1956년 여름부터 일 년에 두 차례 10월과 4월에 보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맞춰 미국의 형제들이 구호물자를 보내주기를 요청하였다. 10월에는 보내줘야 보육원들이 겨울채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테일러는 이 옷들을 수선할 재봉틀도 보내 줄 것을 미국 교회들에 요청하였다. 보육원 아동들의 숫자만큼이나 수선이 많다보니까 재봉틀의 수명이 짧았던 것이다.[355]

(8) 세 개의 중학교들의 설립을 돕고 순회하였으며 후원하였다.

포천중학교(좌측 상, 1961년 개교일), 신alert중학교/신alert교회(좌측 하, 1957년), 영광농축기술학교(포천중, 제1회졸업식)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6년 6월호, 1957년 6월호, 1959년 5월호에 따르면, 테일러는 세 개의 중학교를 돕고 있었다. 테일러 선교사는 이들 학교들이 발전하여 고등학교를 설치하게 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목회자 지망생들을 모

353) "Korean Wedding," FCK, 1957년 2월호.
354) "These Little Ones," FCK, 1959년 5월호.
355) "Clothing," FCK, 1957년 6월호.

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두 곳은 필요한 도움을 줬고, 한 곳은 매월 75달러씩 지원하였다. 이 액수는 교사들 봉급의 절반이 조금 못되는 액수였다. 매월 지원했던 학교는 영광농축기술학교로써 38선 근처 포천에 있었다. 테일러 선교사가 설립자였고, 박혁 목사가 교장이었다. 그곳에 박혁 목사가 시무하는 그리스도(인)의교회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학생 17명으로 시작되어 62명으로 늘었고, 대부분 남학생들이었다. 농업을 강조하는 중학교로써 매일 성경공부를 가르쳤다. 이 학교 캠퍼스 안에 고등공민학교가 별도로 하나 더 있었다.[356]

신갈에는 이기구 목사가 운영하는 중학교가 있었다. 금광을 운영하는 동서의 도움으로 교사를 건축하였지만, 5천 달러 정도의 빚 때문에 거의 팔릴 뻔하였다. 졸업생들 가운데 서울성서신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테일러는 입학을 거부하면서 고등학교 설치를 주문하였다. 1957년 봄에 시작된 고등학교에 10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하였고, 그 가운데 7명이 신학교 지망생들이었다. 이 무렵 전교생이 95명이었다.[357]

서울 근교에 김 아무개 형제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다. 300여명의 학생들이 대부분 북에서 넘어온 가족들의 자녀들이었다. 난로도 없는 세 개의 천막교실에서 수업이 이뤄졌다.[358]

(9)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신약성경교회 조직에 힘썼다.

테일러는 1961년 3월 13일 재단법인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을 설립하였다.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은 그동안 선교사들 각각의 명의나 그들의 대리인 명의로 되어 있던 당시의 재산들을 모아서 설립된 법인이다. 이 재단법인에는 강릉에 있던 래쉬 선교사 명의의 재산과 기독교회선교부가 운영하던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대학

356) "Middle Schools," FCK, 1956년 6월호; "Middle Schools – A Real Need," FCK, 1957년 6월호, 1959년 5월호.

357) "Middle Schools – A Real Need," FCK, 1957년 6월호.

358) "Middle Schools – A Real Need," FCK, 1957년 6월호.

좌측 상: 1956년경의 돈암동교회(천막교회), 우측 상: 1958년 건축 중인 돈암동교회와 이순호 목사 가족. 테일러 선교사는 100여명이 모이는 돈암동교회 건축을 마지막으로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프로젝트를 종결하고자 하였다. 아래: 1959년 10월 19-21일에 돈암동교회에서 모인 목회자 친목회. '축 창립 22해 돌맞이'는 돈암동교회 창립(1937년) 22주년을 뜻한다.

교), 그리스도의교회 보육원(1951년 설립), 대전 그리스도의교회 보육원(애생원, 1950년대 초 설립), 월간「하나의 길(한길)」등이 귀속되었다. 초대 이사장 해롤드 테일러, 상무이사 1인(조셉 세걸키), 이사 3인(에이더 테일러, 리차드 래쉬, 맥신 세걸키), 감사 1인(멜바 래쉬)으로 구성되었다. 1964년 이사진이 이사장 해롤드 테일러를 제외하고 이복선, 배도은(미국명 고든 패튼), 박정훈, 박근일로 교체되었다.[359]

테일러는「한국에 그리스도를」1960년 2월호에서 창립 22돌을 맞이한 돈암동 교회가 1959년에 겪었던 시련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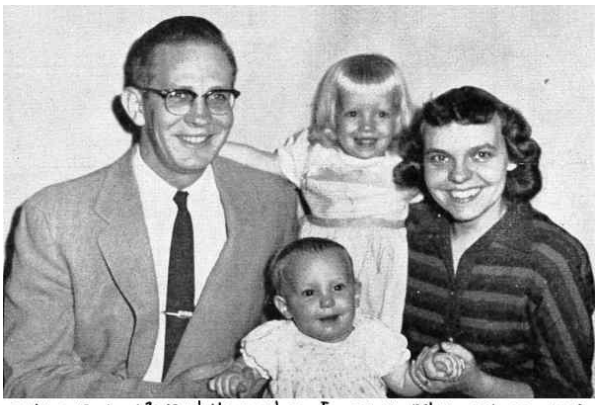
한국의 다른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돈암동교회도 역시 구성원들의 견해와 행동에 의해서 또는 상충하는 교리들에 의해서 혼란에 빠져들었다. 7월에 돈암동교회의 대표자들이 선교사를 찾아왔다. 그들의 설교자가 교회를 침례교회로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절반 가량의 교인들이 예배를 보이콧하고 있었다. 그들은 선교사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다. 테일러 선교사는 양진영이 모인 자리에서 입장을 전했고, 수요일에 침례교 목사는 사임하였다. 그 이후 테일러는 돈암동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혹은 치리목사로 사역하였다. 27명이 침례를 받았고, 출석인원 25명이 50명으로 배가되었다. 9월

359) 최재운,『한국 그리스도의교회사』(태광출판사, 2005): 106-109, 134-139.

에는 성경공부 반을 조직하여 기본 교리를 가르쳤다. 또 제대로 된 신약성경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최초로 부수정관이 포함된 정관(조직플랜)을 만들었다. 테일러는 돈암동교회를 모델로 삼아 모든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신약성경교회로 조직될 수 있기를 바랐다.[360]

(10) 선교사 가족들을 모집하여 한국교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였다.

테일러는 리처드 래쉬(Richard and Melba Lash) 가족과 고든 패튼(Gorden and Sharon Patten, 배도은) 가족을 선교사로 영입하여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다.


래쉬 선교사 가족(좌측부터 리처드, 돈, 도로시, 멜바, 1957년 이전)

래쉬 가족은 1957년 5월 27일 배로 미국을 출발하여 6월 24일 부산에 도착하였으며, 27일 서울에 도착하였다.[361] 래쉬 가족은 1년 정도 기독교회선교부에 머물며 한국말을 익히는 동안 서울성서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한국교회 상황도 살폈다. 그러고 나서 1958년 5월 10일 강릉으로 이사하였다. 신학교에서는 9일 12시 30분에 송별파티를 열어 환송하였다. 이후 래쉬는 부산으로 옮겨 장성만 목사와 더불어 경남정보대학을 일구는데 힘썼으며, 서울성서신학교와 대전의 한국성서신학교 모두에 필요에 따라 협력하였다.

고든 패튼은 1954년에 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의 물적 영적 궁핍을 깨닫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미국으로 돌아가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1960년에 과정을 마쳤고, 1962년 5월 25일 부인과 두 딸과 함께 미군이 아닌 선교사로서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한국에 도착한지 2개월 후에 셋째 딸이 태어났다.

---

360) "Ton Am Dong," FCK, 1960년 2월호.

361) "First Word from the Lashes," FCK, 1957년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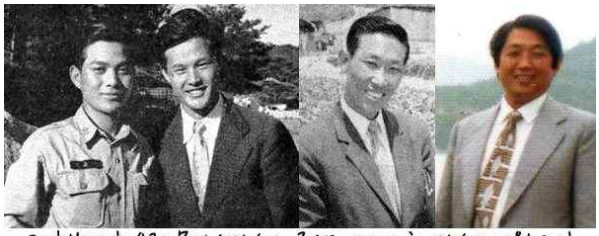
고든 패튼(배도은) 선교사 가족(1962년 입국 당시의 모습)
좌측부터 레이첼 마리(Rachel Marie), 샤론(Sharon collver)과
고든 패튼(Gorden H. Patten) 부부, 레베카 루스(Rebekah Ruth).
패튼 선교사는 1980년 한 해 동안에 부인 샤론의 별세와 네 딸 가운데
장녀 레베카 루스가 존슨성경대학 재학 중에 별세하는 큰 고통을 겪었다.

고든 패튼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였다. 아직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오리건 주 코티지 그로브(Cottage Grove, Oregon)의 집을 떠나 군에 입대하였다. 그가 근무를 희망한 나라들 가운데 극동이 가장 마지막 희망지였고, 한국이 희망 근무지 목록의 가장 마지막 나라였다. 그러나 군이 그를 보낸 곳은 바로 한국이었다. 그때가 1954년 6·25전쟁직후라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전쟁고아도 많았던 때였다. 패튼은 준비가 되는대로 한국에 다시 오겠다는 포부를 갖고 미국에 돌아가 제대하자마자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성경대학에 입학하였다. 패튼은 산호세성경대학에서 오리건 주 유진(Eugene Oregon)의 대학가(College Street) 그리스도(인)의 교회 출신인 샤론 콜버(Sharon Collver)를 만나 결혼하였다.[362]

(11) 장래가 촉망한 내국인 젊은이들을 지도자들로 키우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주선하였다.

테일러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서울성서신학교를 역촌동으로 이전하여 발전시키는 동시에 내국인 교수진과 교회 지도자 확보를 위해서 인재발굴에도 힘썼다. 테일러는 최순국, 최윤권, 김진문, 안재관 등을 발굴하여 미국유학을 주선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장래가 촉망한 내국인 젊은이들을 사진과 함께 기사화하여 미국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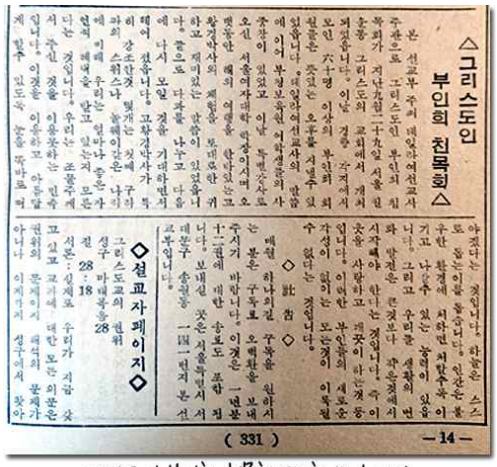
362) "A Place for the Pattens," FCK, 1962년 3월호;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한성신학교, 1991): 151-153.



좌측부터 최윤권 목사(1956년, 중위로 제대 후 1956년 12월 31일 도미 유학), 최순국 목사(1956년, 1958년말-1959년 초 도미 유학), 안재관 목사(1959년, 1960년대 초 도미 유학), 김진문 목사(1980년대, 1970년대 초 도미 유학)

유학생활에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비록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문화와 내국인들의 정서를 잘 헤아리지 못하여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신학교와 인재를 키우고자했던 그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만하였다.

(12) '그리스도인 부인회 친목회'를 조직하여 월1회씩 모임을 갖도록 장려하였다.



△그리스도인 부인회 친목회△

본 선교부 주최 테일러여선교사 주관으로 그리스도인 부인회 친목회가 지난九월二十九일 서울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개최되었읍니다. 이날 경향 각지에서 모인 六十명 이상의 부인회 회원들은 뜻있는 오후를 지낼수 있었읍니다. 테일러여선교사의 말씀에 이어 부평보육원 어학생들의 사중창이 있었고 이날 특별강사로 오신 서울여자대학 학장이시며 오랫동안 해외 여행을 한바있는 고황경박사의 체험을 토대로한 귀하고 재미있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끝으로 다과를 나누고 다음에 다시 모일 것을 기대하면서 헤어 졌읍니다. 고황경박사가 특히 강조한것 몇개는 첫째 구하라의 스위스나 놀웨이같은 나라에 미래 우리는 얼마나 좋은 자연적 해내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물주께서 주신 것을 이용못하는 민족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아름답게 할수 있도록 눈을 똑바로 떠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이를 돕습니다. 인간은 불우한 환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이기고 나갈수 있는 능력이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활의 변화 발전은 큰것보다 작은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고 개끗이 하는것 등입니다. 이러한 부인들의 새로운 각성이 없이는 모든것이 이룩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 訛 告 ◇

매월 하나의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료 오백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一년분 十二권에 대한 송료도 포함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월동 一四一번지 본 선교부입니다.

◇설교자페이지◇

그리스도교의 권위
성구 마태복음 28
절 28 : 18
서론 : 성제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교과에 대한 모든 의문은 권위의 문제이지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까지 성구에서 찾아

(331) —14—

그리스도인 부인회 친목회 제1회 모임 기사
1961년 9월 29일 필운동교회에서 60명 이상의 부인들이 모여 제1회 모임을 개최하여 서울여자대학 학장 고황경박사의 강연을 들었다<한길: 하나의 길>(1961년 10월호): 14.

테일러 선교사 부부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친목회 모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월1회 모임을 갖도록 장려하고 추진하였다. 당시 서울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7개 있었고, 한국 교회들의 성도는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상호 독립적이었다. 따라서 교제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교통비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함께 모여야 할 목적과 동기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기독교회선교부'가 주최하고 테일러 선교사의 사모 에이더가 주관하여 "그리스도인 부인회 친목회' 제1회 설립모임이 1961년 9월 29일 오후 2시부터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열렸다. 경향 각지에서 60명 이상의 부인들이 참석하였다. 에이더 테일러 선교사의 말씀과 부평

보육원 여학생들로 구성된 사중창이 있었다. 이어서 특별강사로 모신 서울여자대학의 학장 고황경 박사의 강연이 있었다. 고 박사는 여성으로서 세계 여행가이자 제네바 유엔회담의 한국대표였다. 이 날의 뜻깊은 행사에 대해서 에이더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363]

> 그녀의 연설에서 고 박사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착하고 깨끗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했듯이, 재건이 지속되려면 그 같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르웨이와 스위스를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가진 두 나라들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때 일어섰고, 오늘날 노르웨이는 전기를 개발함으로써 암흑기에서 벗어났고, 스위스는 세계의 원더랜드(산악지형)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장애는 그들이 강한 성품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어떻게 핸디캡을 더 큰 승리로 바꿔야 하는지 지적하였습니다.
>
> 부평보육원의 10대 소녀들이 특별 찬양을 하였습니다. 다과가 제공되는 동안 여러 교회의 대표자들이 다른 찬송가들을 불렀습니다. 60명이 넘는 여성들이 참석하여 나눈 화기애애한 교제는 그 모임이 모두에게 축복이었음을 나타냈습니다. 만장일치로 우리는 매달 만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이 모임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1. 그리스도인 친교를 제공하고; 2. 그들의 영적 및 문화적 비전을 넓히도록 도우며; 3.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주님을 더 잘 섬기도록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제2회 '그리스도인 부인 친목회'는 동년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필운동교회에서 모였다. 에이더 사모의 설교가 있은 후, 숙명여자대학교 김윤숙 교수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주부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이후 다과회가 있었다. 제3회 모임 역시 필운동교회에서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모이기로 하였다.[364]

이 무렵에 그리스도인대회 및 교역자 수련회 등이 활기를 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윤권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365]

---

363) 「한길: 하나의 길」 1961년 10월호: 14; Ada Taylor, "New Steps in Christian Fellowship," FCK, 1961년 10월호.

364) 「한길: 하나의 길」 1961년 11월호: 9.

365)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2003): 68.

교역자회도 생기를 찾기 시작하였고 그리스도인대회도 시작되었다. 제2회 그리스도인대회 및 교역자회는 신탄진에서 있었고, 제3회 및 제4회는 서울 임마누엘수도원에서 있었다. 제3회 때는 최윤권 목사가 대회장을 하였고, 제4회 때는 최순국 목사가 하였다. 이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환원운동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던 때도 없다. 이때에 수고한 동역자들 중에는 4·19때 국회의원을 지낸 정인소 박사도 있다.

초기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연합회 모임들
좌측 상(1959년): (앞줄)성낙소, (뒷줄)심영진, 장성만, 최요열, 이신
우측 상(1961년 부강교회): '신약교회로의 환원: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란 주제와 이신 목사가 강연하는 모습.
좌측 하(1962년 신탄진): 앞줄 우측부터 심영진, 한숙자, 최요열, 이종만, 뒷줄 우측부터 존 힐, 000, 임춘봉, 정인소 박사, 성낙소, 이신, 고광석, 장주열, 소고민(통역). 우측 하(1962년 신탄진): 천막 연합회 모습.

하지만, 테일러 선교사는 이들 모임에 대해서 침묵한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몇 장 안 되는 사진들에서도 테일러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테일러는 '비교파교회 플랜'에 적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목회자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1959년 8월에 재입국하여 대전 가장동에 정착한 존 힐 선교사는 1961년 부강교회에서 개최된 연합회와 1962년 신탄진에서 개최된 모임에 모두 참석하였다. 1962년 신탄진에서 개최된 집회 사진에서 최요열 목사(한국성서신학교 교수와 목회자, 목포교회 최요한 목사의 동생)와 한숙자 사모가 중앙 의자에 앉은 이유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지도자급 목회자들이 부득이 새소망순복음교회(초중고시절 필자가 출석한 교회)를 맡아 떠나는 부부에게 송별하기 위함이었다. 10년 후 최요열 목사는 필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2년 2월에 한국성서신학교 제2대 교장이 된 김찬영 목사에게 필자를 친필로 소개하였다.

3) 은퇴 후 생활

해롤드 테일러(Harold and Ada Taylor)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부부는 1955년 이후 19년간 서울에 머물면서 활동을 하였고, '기독교회선교부'의 모든 일을 후임자인 고든 패튼(Gorden Patten, 배도은) 선교사에게 넘기고 만 70세 때인 1974년에 은퇴하였다. 그러나 부부 모두 은퇴 후의 여생이 길지 못하였다. 테일러는 1976년 5월 15일 교회 제직소풍 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오후 8시 13분에 만 72세로 별세하였고, 부인 에이더(Ada Maryellen Sayer)는 캘리포니아 주 샌타클래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의 산호세에서 1980년 10월에 만 74세로 영면하였다.[366]

4)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위해 헌신한 기독교회선교부 선교사들

(1) 테일러 Harold Taylor 1904-1976.05.15.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목사, 신학교 교장.

해롤드 테일러는 1904년경에 태어났다. 1924년경 토마스와 마리아 세이어(Thomas S. and Maria Etta Hoffa Sayer)의 딸인 에이더(Ada Mary Ellen Sayer)와 결혼하였다. 테일러는 1945-46년경 중국선교에 참여했으며 중국이 공산화된 후 일본으로 건너와 동경 요츠야 선교부(Yotsuya Mission)를 도와 선교활동을 하다가 한국 선교사였던 존 채

366) "Ada Mary Ellen Sayer," *The Family Records of Elsie Klinger Eaves:* http://eavesphotos.com/EKE-o/p1295.htm, 게시일자: 2018년 1월 24일.

이스(John T. Chase)의 소개로 1955년 11월 13일 입국하여 '기독교회선교부'의 책임선교사가 되었다. 이후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군사혁명, 1972년 유신체제에 이르기까지 격동기 19년을 한국에서 보냈다.

1956년 2월에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설문지를 보내서 교회들의 역사, 재적인원, 출석과 건물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테일러는 이 조사를 근거로 1957년 전반까지 39개의 교회에 재정을 지원하였고, 1959년 10월경까지 총 11개의 새 예배당 건축, 1개의 장로교회 예배당 매입, 34개 교회들의 수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돈의 대부분은 전임자였던 채이스 선교사가 6·25전쟁 발발 직후인 7월까지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이란 캠페인을 통해서 모금한 기금에서 충당되었다.

또 테일러 선교사는 부임한 이듬해인 1956년 초에 시작하여 수년에 걸쳐서 도서(島嶼)지방까지 전국의 교회들을 순차적으로 순방하여 가르치고 설교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교도소 전도, 학원 전도, 시청각 전도 등에 힘쓰기도 했다. 테일러의 후원계획은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만큼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그의 선임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주던 후원금을 끊고 긴급 상황에서만 후원을 하였다. 테일러는 각 교회가 예배당을 짓거나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조자립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가 부담할 수 없는 부분만 보충해 주는 방식을 취하여, 채이스가 남긴 선교기금과 자신이 추가로 모금한 기금을 보다 많은 예배당의 건축과 보수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테일러는 기존의 신학교 캠퍼스 이전 프로젝트(New Seminary Project)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테일러는 서울 서대문구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의 재산(토지 396평과 그 위에 세워진 선교부 건물과 신학교 3층 건물)을 1959년 6월 3일까지 모두 팔고, 7,087평의 역촌동 땅위에 새 캠퍼스를 마련하여 1963년에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대학교)로 개교시켰다.

테일러는 내국인들의 이견을 좁히고, 자신이 주도하는 비교파교회 플랜 곧 신약성경기독교를 전국에 소개하며, 목회자들의 설교준비와 목회사역을 돕기 위해 월간 「하나의 길」(One Way)을 1957년 3월에 창간하여 1962년 10월 1일 「한길」로 개명하였다. 「한길」은 처음에는 신

문형식으로 발간되다가 13호부터는 잡지형식으로 바뀌었다. 매호마다 묵상(QT), 교리, 선별된 기사들이 담겼고, 12-16쪽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말에는 합본을 만들어 제공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뿐 아니라, 많은 타 교파 교회들과 학교들, 그리고 군목들에게도 발송되었다. 이밖에도 테일러는 1956년부터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을 일 년에 1-3차례 발행하였고, 신약성경교회 조직에 힘썼으며, 여성들의 친교모임을 조직하여 월 1회씩 모임을 갖도록 장려하였다.

또 테일러는 6·25 전쟁 이후 심각한 문제가 된 전쟁고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 보육원을 직접운영(부평) 또는 후원(인천 숭의동, 대전 판암동)하였으며, 3개의 중학교 설립을 돕고 순회하며 후원하였다. 또 리처드 래쉬(Richard and Melba Lash, 라시득) 가족과 고든 패튼(Gorden and Sharon Patten, 배도은) 가족을 선교사로 영입하여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다. 이뿐 아니라, 테일러는 장래가 촉망한 내국인 젊은이들을 지도자들로 키우기 위해서 최순국, 최윤권, 김진문, 안재관 등의 미국유학을 주선하였다.

테일러는 1961년 3월 재단법인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을 설립하였다.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은 그동안 선교사들 각각의 명의나 그들의 대리인 명의로 되어 있던 당시의 재산들을 모아서 설립된 법인이다. 이 재단법인에는 강릉에 있던 래쉬 선교사 명의의 재산과 기독교회선교부가 운영하던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대학교),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1951년 설립),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애생원, 1950년대 초 설립), 월간 「하나의 길(한길)」 등이 귀속되었다. 초대 이사장 해롤드 테일러, 상무이사 1인(조셉 세걸키), 이사 3인(에이더 테일러, 리차드 래쉬, 맥신 세걸키), 감사 1인(멜바 래쉬)으로 구성되었다. 1964년 이사진이 이사장 해롤드 테일러를 제외하고 이복선, 배도은(미국명 고든 패튼), 박정훈, 박근일로 교체되었다.

테일러는 선교부의 모든 일을 후임자인 고든 패튼(배도은)에게 넘기고 만 70세 때인 1974년에 은퇴하였다. 그러나 부부 모두 은퇴 후의 여생이 길지 못하였다. 그는 1976년 5월 15일 교회 제직소풍 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오후 8시 13분에 만 72세로 별세하였다. 부인 에이더는 캘리포니아 주 샌타클래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의 산호

세에서 1980년 10월에 만 74세로 영면하였다.

[주요저술] Harold Taylor. FCK: For Christ in Korea(Digitized by Dr. Scott Seay of the Christian Theological Seminary, Indianapolis, Indiana, 2 July, 2015); "Our First Chapel", FCK, June 1956: 1; "No Mama, No Papa?" and "Middle Schools", FCK, June 1956: 1-2, 4; "Seminary Registration", FCK, June 1956: 4; "Preachers and Problems", FCK, June 1956: 5; "Report of Progress", FCK, June 1957: 1-2; Ada Taylor, "Changes at Bupyung" and "Suffer the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 and "Middle Schools-A Real Need", FCK, June 1957: 3-5; "The Chapels Program", FCK, June 1957: 2; "To the Uttermost Parts", FCK, June 1957: 3; "The Chapels Program", FCK, February 1958: 2; "Working with Him", FCK, August 1958: 1; "Daily Doings from Our Diary-May", FCK, August 1958: 2; "These Little Ones" and "Your Middle School Needs You", FCK, May 1959: 3-4; "First Word from the Lashes", FCK, September 1957: 1-2; "Moving Days", FCK, October 1959: 1;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FCK, October 1959: 3-4; "The New Location", FCK, May 1960: 3; "A Place for the Pattens", FCK, March 1962: 3.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146-48, 155;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서울: 쿰란출판사, 2018): 131-140, 2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221-27;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서울: 환원출판사, 2003년 수정증보판): 48, 56, 132; 최재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태광출판사, 2005): 106-09, 134-39. “Ada Mary Ellen Sayer", The Family Records of Elsie Klinger Eaves: http://eavesphotos.com/EKE-o/p1295.htm.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III. 증가한 선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

1.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과 내국인 사역자들

여기에 소개되는 내국인 사역자들은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에서 언급한 인물들에 국한되었다. 서울성서신학교 초기 졸업생들 가운데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발전에 기여한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았지만, 자료의 부재로 인해서 부득이 이 글에서는 테일러 선교사가 남긴 자료와 필자가 확보하여 작성한 자료들에 국한하였다.

1924년 이후 '기독교회'란 교단명칭으로 시작된 선교는 일제강점기 말인 1941년까지 도쿄 '요츠야선교부'와 '기독교회선교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해방 후 '기독교회선교부'는 6·25전쟁과 같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이어갔고 그 명맥이 J. 마이클 쉘리(J. Michael Shelley)로부터 시작되어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김요한(金與範, 제3대 포교관리자), 존 J. 힐(John J. Hill),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고든 패튼(Gorden Harry Patten)에 이르기까지, 1935년부터 1991년까지 56년간 이어졌지만, 요츠야선교부는 1941년에 한국선교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다. 그 바람에 해방 직후 '인천송현기독교회'는 '송현성결교회'로, 송현기독교회에서 분리된 인천의 또 다른 교회는 '인천제일장로교회'(통합)로 재건되었다. 심지어 요츠야선교부는 해방 후 유일하게 재건된 재일본 조선인기독교회인 도쿄 '미카와시마(三河島)조선기독교회'에서조차 1960년에 손을 떼는 바람에 '미카와시마조선기독교회'는 1974년 11월 창립 50주년에 맞춰 '동경복음교회'(초교파)가 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는 미국에서 공부한 내국인 사역자들이 만든 선교회들이 증가하면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 동력이 커지게 되었다.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도 서울성서신학교 한곳뿐이던 것에서 대한

기독교신학교와 한국성서신학교(대전)까지 추가로 설립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 선교회들이 증가하게 된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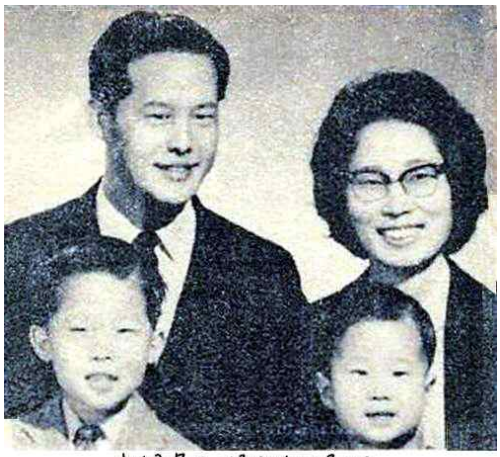
첫째는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선교정책이 중앙집권식이 아니라 직접후원선교 방식이기 때문이었다. 직접후원선교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총회나 협의회로부터 인준을 받아 파송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개 교회들과 개인들로부터 후원자들을 모집하여 선교사가 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이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신학교들에서 공부한 많은 나라의 내국인들(indigenous nationals)에게 후원자를 모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둘째는 선교사들은 해외에 나가서 언어, 문화, 음식과 기후차이, 낙후된 환경 등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 반면에 내국인들에게는 그 같은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선교학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셋째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미국의 신학교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능한 학생들을 받아서 공부시켜 돌려보내는 데 헌신적이었다. 이것이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여러 신학교들에 유학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선교회를 만들어 후원자들을 모집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내외국인 개인들이 만든 선교회 이름들은 대부분 교단의 공식기구들이 아니며, 한국에서 쓰였거나 쓰이는 이름들이 아니다. 반면에 존 T. 채이스의 '기독교회선교부', 해롤드 테일러의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 및 존 J. 힐의 '한국크리스챤밋숀'(한국그리스도의교회유지재단)은 교단의 공식기구들이다.

1) 최순국 목사(1933.02.08-2002.09.16)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시에 소재한 브라이트신학대학원(Brite Divinity School)의 이상훈 박사의 '우리의 대선배 최순국 목사', '최순국', '북미주태평양아시아인제자들의 약사'에 의하면, 최순국 목사는


최순국 목사 가족(1960년 중반)
사모 손명희, 미동, 데이비드(선동)

1933년 일본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유교신자였고, 모친은 불교신자였다. 그러나 그는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담임교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손톱이 모두 뽑히는 고문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사실에 최순국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기독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부모의 종교들은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그에게 그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못하였지만, 기독교는 그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최순국은 독립심과 의지가 강하고, 종종 별난 사람으로 여겨질 만큼 인정이 많았다. 이런 성품 때문에 6·25전쟁 중에는 공산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재일본 한인 34명으로 구성된 학도의용군에 자원입대하여 전투에 참여하였고, 생존자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367]

이 일이 있고나서 최순국은 존 J. 힐(John J. Hill) 선교사가 운영한 서울성서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의 결혼식 주례도 김은석 목사가 맡았다. 이 때문에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최순국'이란 이름이 몇 차례 나온다. 그는 1953년 8월 4일 존 힐 선교사의 통역으로 창현 함태영 목사가 세운 충남 논산군 부적면 신교리교회와 복음중학교를 방문하였고,[368] 테일러 선교사가 발행한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호에 의하면, 최순국은 군입대를 꼭 한 달 앞둔 시

367) Timothy Lee, "Soongook Choi: Our taesonbae," Fall/Winter 2002-03 Bulletin(Vol. 72, No 2) of the Disciples Divinity Hous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http://kccs.info/Choi DDH bio.pdf: 3; Timothy S. Lee, "J. Soongook Choi," http://kccs.info/BIO-Soongook Choi.pdf; Timothy S. Lee, '최순국 장학금,' http://kccs.info/2011 Kagiwada Memorial Sunday.pdf: 10.

368)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시시울, 2020): 250.

점에서 테일러와 함께 1957년 3월 19일 밤기차로 부산에 내려가 이튿날 방송국 설립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던 알렉스 빌즈(Alex Bills) 가족을 만나 환담을 나눴고, 울산을 거쳐 영양, 삼척, 강릉, 주문진, 38선 이북 고성까지 돌아 26일 화요일 밤에 서울로 돌아온 교회순방 일정을 소화하였다.[369] 1958년 3월 30일 주일에는 리처드 래쉬(Richard Lash) 선교사의 통역으로 김은석 목사가 시무하는 충남 부강교회를 방문하였다.[370] 버트 엘리스와 조셉 세걸키의 1959년 7월 부산방송선교서신에 의하면, 최순국은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의 통역관이기도 했다.[371]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최순국은 6·25전쟁 직후 서울성서신학교에 다니며 그리스도(인)의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 중반 최순국 목사

테일러의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2월호 내용에 비춰볼 때, 존 힐의 사모 에스더 비반즈(Esther Evelyn Beavans Hill)의 비행 사건으로 선교사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그로 인해 1954년 6월 25일 신학교가 휴교하는 사태에 이른[372] 어느 시점에 최순국은 부모님이 계신 일본으로 건너가 요츠야선교부의 동경성서신학교를[373] 다니던 중에 테일러 선교사 가족이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를 맡아 1955년 11월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테일러를 찾

369) "To the Uttermost Parts," FCK, 1957년 6월호.

370)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228.

371) Bert Ellis and Joe Seggelke, Kilocycles: Korean Broadcasting Mission, July 1959: 2.

372) 성낙소, '제21장 두 선교사 귀국과 신학교 휴교와 유무악기파 합동 건,' 『자서전』.

373) 1948년 4월 10일 개교, "Bible College Opens in April," TC, March-April 1948: 1.

아가 선교부 상황을 설명해 주었으며, 본인도 1955년 12월 31일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테일러에게 신실한 협력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시점에 맞춰 최순국이 찾아왔고, 테일러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며 선교사를 도운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374]

테일러는「한국에 그리스도를」1957년 6월호에서 최순국이 4월 20일에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서 한국군에 입대하였다고 전하면서 자신들이 1955년 11월에 입국해서 직면했던 난관들을 놀랍도록 지혜롭게 처리해 준 23살의 젊은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채이스 선교사가 20대 후반의 박판조에게 보인 애정이 훌륭한 미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지도자감이란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테일러 선교사가 20대 초반의 최순국에게 보인 애정은 그가 입증한 지혜와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최순국은 이미 서울성서신학교의 학생신분으로서 존 힐 선교사의 통역을 맡아 일을 했던 경력자였고, 기독교회선교부가 분열에 휩싸였을 때 그 싸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이었으며, 젊지만 지혜가 많고 테일러에게 헌신적이어서 분열에 휩싸였던 기독교회선교부에 평온을 되찾게 하고, 내국인 목회자들이 자신의 리더십 아래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운 공신이었기 때문이었다. 테일러는 최순국이 1955년 12월 31일에 일본에서 돌아와 자신을 찾아온 일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신 일이라고 굳게 믿었다.[375] 테일러 선교사는 1958년 2월호에서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최순국은 미국에 유학하게 될 것이고, 아무 때라도 제대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실제로 최순국은 이 무렵에 제대한 것으로 추정된다.[376]

6·25동란 때 학도의용군이었던 최순국은 미군부대에 편입되어 미 공군사병이었던 데일 브라운(Dale Brown)을 만나 친구가 되었다. 최순국이 1959년에 미국에 유학할 수 있었던 데는 데일의 도움이 컸다. 이후 데일은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Disciples of Christ)에서 목회하였다.[377] 첨부한 칼라 사진 두 장(이상훈 박사 제공)은 데일 브라운 목사

374) "Chueh Soog Gook," FCK, 1957년 2월호.

375) "To the Army," FCK, 1957년 6월호.

376) "'Futures' for the Work," FCK, 1958년 2월호.

377) 참고: "Chueh Soog Gook," FCK, 1957년 2월호에 테일러는 Dale Brown를 Irwin Brown으로 잘못 표기하였다.

가 촬영한 것들로써 가족사진은 1960년대 초에, 독사진은 1950년대 중반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사진은 최순국 목사 가족과 데일 브라운 목사 가족이 함께 찍은 것이다.

1960년대 초 최순국 목사 가족과 데일 브라운(Dale Brown) 목사 가족

최순국은 1959년 가을학기부터 시작하여[378] 1961년에 링컨기독대학(현 Lincoln Christian University)에서 문학사(A.B), 1962년에 신약신학을 전공하여 문학석사학위(MA)를 받고, 동년에 목사안수도 받았다. 이어 1965년에 밴더빌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B.D. 오늘날의 M.Div)를 받고,[379] 1966년 8월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을 떠나서 동년 9월 1일경에 부산에 도착하였다.[380] 귀국하여 1969년까지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시무하면서[381]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대학교)의 설립협의회 회장과 교수 및 제2대 교장을 역임하였다.

최순국은 1964년 8월 26일 조직된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대학교) 설립협의회(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의 회장직을 맡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대한기독교신학교는 최윤권 목사의 리더십으로 최순국, 안재관과 같은 링컨기독대학 출신 또는 재학생이 중심이 되어 1965년 3월에 설립되었다. 상임위원에는 안재관, 최윤권(실무 학장), 장성만, 조충연, 최순국, 최요한, 이종만, 임명진, 강병천, 김현숙, 김진문(설립협의회 서기 겸 교무처장), 김규상, 김태수, 구광서(설립협의회 총무), 오현팔, 심영진, 성수경, 양해문이었고, 미국인

---

378) "The Seminary," FCK, 1959년 5월호: 2.

379) "Soongook Choi: Our taesonbae," *Ibid*; "J. Soongook Choi," *Ibid*; '최순국 장학금,' *Ibid*

380) "Letter 1: Dear Friends in Christ," Dong' Yuk, March 29, 1966.

381) Korea Evangelistic Mission(KEM) News: "A Letter to Adelphos Christou," January 1971: 2.

고문에 단 드웰트(Don DeWelt), W. L. 제섭(Jessup), 빌 전킨즈(Bill Junkins), 존 피얼스(John R. Pierce), 아이러 리드(Ira B. Read)였다. 대학설립과 동시에 「환원」지도 발간되었다.[382]

인천 보육원에서 그리스도의교회 수련회 중에 인천 해변에서 좌측부터 김진문, 이종만, 최순국, (장혁, 김윤옥, 장정우 가족) (아상 목사), 김문태 장로

최순국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복음전도협의회(Korea Evangelistic Association)를 만들었고, 1960년대 동안 격월 선교지 '동역'(Dong' Yuk)을 후원자들에게 발송하였다. 1971년 1월부터는 '한국복음전도협의회'를 '한국복음선교회'(Korea Evangelistic Mission, KEM)로 이름을 바꾸고, 월간 선교지 '한국복음선교회 소식지'(KEM NEWS)를 발송하였다. 최순국은 이 선교회를 기반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교수와 목회자와 방송선교사로 왕성하게 사역하였다. 1968년부터 라디오 기독교 방송국의 시간을 사서 최윤권, 김일엽(KEM 라디오방송 담당자)과 함께 방송설교와 '이형과 더불어'라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설교는 서울, 대구, 부산, 이리, 광주에서 주일 오후 5시에, 서울을 제외한 대구, 부산, 이리, 광주에서는 주일 오전 8:30에도 방송이 나갔다. '이형과 더불어'는 CBS에서 매주 2회 10분간 방송되었다. 1970년에 송출된 방송결과를 보면, 청취자들로부터 2,729통(평균 매주 52통)의 편지를 받았고, 182통의 전화를 받았으며, 26번 개최된 모임에 297명이 참석하였다. 그 결과 243명이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고, 172명이 침례를 받았다.[383]

최순국은 1974년 미국 시카고로 이민하여 10월 20일에 시카고 그리

382) Soongook Choi, "Reports - Plans Interpretation" of the 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 20 November 1965; Leaflets of the 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 November 1965.

383) Korea Evangelistic Mission(KEM) News: "A Letter to Adelphos Christou," January 1971: 2.

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23년간 은퇴할 때까지 섬겼다.[384] 이 교회도 다른 한인 그리스도(인)의교회들처럼 중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단에 가입하였다. 유근희 박사(태평양아시아인 사역 실행목사), 노동국 목사(제자들신학원 동문, 일리노이 주 알링턴 하이츠에 소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소속 에버그린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 목회자), 이상훈 박사(텍사스 주 포트워스 시 소재 브라이트신학대학원 교수) 등이 최순국 목사의 영향을 받은 한인 그리스도(인)의교회 지도자들이다.[385]

최순국은 1989년 노트르담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시카고 파크릿지(Park Ridge)에 소재한 루터교종합병원(Lutheran General Hospital)의 정규직 원목으로도 사역하였다.[386]

최순국은 일본에서 당한 인종차별, 한반도에서 겪은 동족상잔의 뼈저린 경험을 거울삼아 일찍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인종화합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였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민족들 간의 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 타민족 공동체들 사이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최순국은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감동을 주며, 평화롭게 하고, 용서를 실천하며, 화해를 도출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신념으로 최순국은 '한인제자들교회협회'(Korean Disciples Convocation)를 설립하였고, '제자들교회신학원'(Disciples Divinity House)의 동문들인 데이비드 가기와다(David Kagiwada), 조 앤 가기와다(Jo Anne Kagiwada) 등과 합력하여 현재 80여개 교회들이 가입해 있는 '북미주태평양아시아인제자들'(North American Pacific/Asian Disciples, NAPAD)을 조직하였다".[387]

최순국은 그리스도(인)의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 교단의 총괄 이사회의 회원을 역임하였고, '제자들교회신학원'의 이사를 1989-97년에 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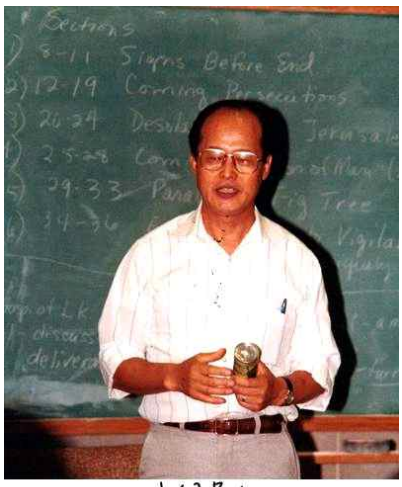
384) "Chicago Christian Church (Korean)," KEM NEWS, vol. 10, no, 3, September 1974: 1-2.

385) "Soongook Choi: Our taesonbae," *Ibid.*

386) "J. Soongook Choi," *Ibid*; "Soongook Choi: Our taesonbae," *Ibid.*

387) "J. Soongook Choi," *Ibid*; "Soongook Choi: Our taesonbae," *Ibid*; Timothy Lee, "In View of Existing Conditions: A Brief History of the North American Pacific/Asian Disciples, 1891-2010," *Discipliana*, Spring 2012: 6, http://kccs.info/The History of NAPAD TSL.pdf.

임하였다. 그는 또 미국 인디아나 주 인디애나폴리스 시 파티마 연수원(Fatima Retreat)에서 1984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개최된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Disciples of Christ) 산하 아시아계 미국인 제자들(American-Asian Disciples, AAD)의 제3차 회의 때 회장(소집자)으로 선출되어 아시아계 미국인 교회들을 이끌었다. 또 최순국은 1993년에 결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한국인 목회자회'(Disciples of Christ Korean Fellowship)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봉사하였다. 2000년에는 이 친목회가 '한국인제자들교회협회'로 발전되었다.



최순국 목사

최순국은 1990년에 찾아온 뇌졸중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던 사역을 내려놓고 1997년 3월에 은퇴하였다. 은퇴식은 그가 23년간 섬겼고, 한인 교회들에 지도력을 제공했던 시카고 한인 그리스도(인)의 교회(Chicago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북미주태평양아시아인제자들'(NAPAD)로부터 감사패를 증정 받았으며, 그의 삶과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내사역국'(Division of Homeland Ministries, DHM)에 '최순국장학기금'이 설립되었다. '북미주태평양아시아인제자들'(NAPAD) 사역에 소속된 학생들이 정규 신학대학원에서 정식학생으로 등록한 경우에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순국은 또 2000년 그리스도(인)의교회 교단에서 평가한 지난 1백년간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36명의 사역자 중에서 아시안 남성으로는 유일하게 선발되었고, 지난 20세기 그리스도의 제자들 100대 목사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시카고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창립자이자 대학기독교신학교의 공동설립자인 최순국 목사는 2002년 4월 14일 알링톤 하이츠 소재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서울기독대학교로부터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서울기독대학교 이강평

총장이 직접 시카고를 방문하여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388]

이상훈 박사는 '가기와다 주일, 의장의 메시지'("Kagiwada Sunday, Moderator's Message")이란 글에서 "슬프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교단의 존경을 받는 한 목사는 60대에 뇌졸중을 일으켜 반쯤 마비되었습니다. 입원한 그는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고통스러운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병원의 같은 층에 또 다른 남자가 도착했는데, 역시 반쯤 마비되었지만 훨씬 더 젊은, 아마도 40대였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희망을 포기하고 물리치료를 거부하면서 의기소침해하였습니다. 그 젊은 남자에 대해 알게 된 목사님은 그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를 만난 목사님은 자신과 같은 나이 든 남자도 포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젊은이가 너무 쉽게 포기한다고 꾸짖었습니다. 며칠 후, 그 젊은 남자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다리 운동을 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불굴의 정신을 발휘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순국 목사였습니다".[389]

최순국 목사는 2002년 9월 16일 별세 하였다. 사모 손명희로부터 미동과 데이비드(선동) 두 아들을 두었다.[390]

2) 김동수 목사

테일러 선교사는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FCK) 1957년 6월호에서 김동수 목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김동수 형제는 나이가 67세이다. 육신은 날로 쇠하여가지만, 그의 신념만큼은 더욱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있다. 그는 이미 9년간 선교부의 통역과 교수로 섬겼으며, 부인이 병약하여 간호에도 힘쓰고 있다. 또 김동수는 행방불명된 네 아들들의 아이들(손주들)을 돌보고 있다.[391]

---

388) 조동호,『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2016): 250-58.

389) Timothy Lee, "Kagiwada Sunday, Moderator's Message," Tell It, August 2011; http://kccs.info/2011 Kagiwada Memorial Sunday.pdf: 1.

390) "Soongook Choi: Our taesonbae," *Ibid*

391) Harold Taylor, "Bro. Kim Dong Soo--," FCK, 1957년 6월호.

김동수 목사(1950년대 중반, 힐과 테일러의 통역)

김동수 목사를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년도는 대략 1952년에서부터 60년 경까지이다. 테일러 선교사가 언급한 9년은 햇수로 9년이고, 실제로는 만 8년을 의미한다. 그렇더라고 이 수치는 김동수 목사가 힐 요한 선교사가 해방 후 재입국한 1949년 초창기부터 힐과 함께 사역했다는 의미가 된다. 존 J. 힐 가족은 1949년 2월 18일에 재입국하였다. 힐 선교사를 도왔던 김동수 목사는 최순국이 군에 입대하면서 다시 테일러 선교사를 돕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목사는 해남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테일러 선교사가 영문으로 소개한 김동수 목사의 간증이다.

김동수 목사(통역)와 이기구 목사
신calle 그리스도의교회(천막 집회소 입구, 1952년 10월 3일 개척)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내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밖에는 달리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때 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죄악에서 빠져나올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우셨고 능히 나를 죄의 나락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영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지 일 년 되던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지만, 술을 끊지 못했고, 중독이 되도록 마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세군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날 때까지는 술을 끊어보려는 나의 노력이 번번이 허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했을 때 그분은 나에게 술을 거부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세주로 발견하였고, 그분이 내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구세군에서는 결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지 않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만족도 얻지 못했습니다.

해남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자 김동수 장로/목사
1979년 10월 1일 장성우 장로의 목사 안수식 때

나는 구세군 사역에 오랜 기간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9년 전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존 J. 힐 선교사를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제대로 침례를 베풀어주었습니다. 비로소 나는 마음에 만족을 얻었고, 그로부터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사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 해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해주신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6·25동란이 터지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피난을 가야했습니다. 모일 모시에 서울이 폭격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난길에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있었고, 그들이 말하기를 더 이상 어느 곳에도 숨을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던 집으로 가지 않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곧바로 공산군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군들이 우리가 살았던 곳 근처에까지 와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후 3-4시까지 총질을 해댔습니다. 나중에 내가 나가봤을 때 나는 우리가 살았던 곳이 포탄을 맞아 박살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무슨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뜻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살던 집으로 가지 않은 것은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때가 1951년 1월 4일 공산군들이 두 번째 남침한 때였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많은 체험들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전쟁 중에 행방불명이 된 네 명의 아들의 일을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것은 정말 비극이었다고만 말하겠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첨언하기를, "그렇습니다. 김 형제는 슬픔을 아는 사람입니다."고 하였다.

3) 최윤권 목사

최윤권 목사는 교회설립자, 대학설립자, 보육원 설립자이다. 또 강단 및 방송설교가, 교육가, 저술가이며 환원운동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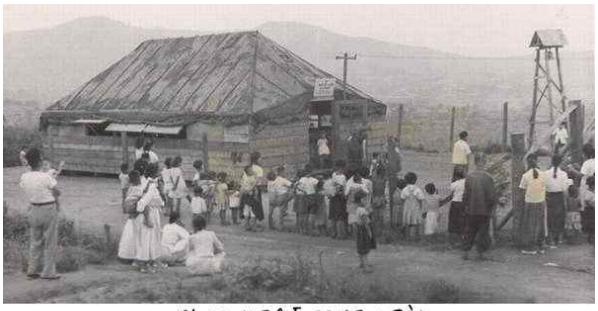
최윤권은 1932년 2월 13일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전 '기독교회') 제1세대 목사이자 1919년 3·1만세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영역한 건(件)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독립 운동가로서 조선소요사건에 연류 됐던 야소교청년연합회 동대문지역 대표였으며, 문필가였던 최상현 목사의 둘째 아들로 서울 평동에서 출생하였다. 최윤권은 자신의 나이 만 18세 때인 1950년에 부친이 납북되는 환난 속에서 6·25전쟁 막바지에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3년간 복무 후 육군 중위(연락장교)로 예편하였다.[392]

---

392) Harold Taylor, "The Son of an Outstanding Family," FCK, 1957년 2월호: 5.

1956년 12월 31일 부산을 떠나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1961년 11월에 귀국한 최윤권 목사

최윤권은 1956년 가을학기에 맞춰 도미하려했으나 유학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3개월간 서울성서신학교에서 영어강사, 통역, 「한길」지 편집 등의 일을 도움으로써 '기독교회선교부'로부터 부족한 비용을 보조받아 12월 31일 부산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배에 오를 수 있었다.[393] 최윤권은 미국에서 1960년 '산호세성서대학'(현 William Jessup University)과 1961년 '링컨기독신학교'(현 Lincoln Christian Seminary of the Lincoln Christian University)를 졸업하고, '한국기독복음선교회'(Korea Christian Gospel Mission, KCGM, http://www.kcgm.org/)를 만들어 1961년 11월 8일 귀국하였다.[394]



1950년대 도원동 그리스도의 교회
도원동은 마포구 도화동 쪽으로 경사진 산비탈에 이루어진 동리였다.

귀국 후 최윤권 목사는 도원교회에서 목회하였다. 이듬해인 1962년 2월 5일 테일러 선교사의 자택 홀에서 선교사의 주례와 이신 목사의 사회로 민지온 씨와 결혼하였다. 테일러는 그들이 결혼식 직후 바로 일터로 돌아갔다고 했다. 민지온 사모는 그녀의 직장인 학교로 갔고, 최윤권은 연속되는 도원교회 집회준비로 갔다고 했다.[395] 최윤권은 1963년에 통신신학을 개설하였다. 통신신학은 한

393) *Ibid.*
394) Harold Taylor, FCK, 1961년 10월호: 6.
395) Harold Taylor, "Wedding Bells," FCK, 1962년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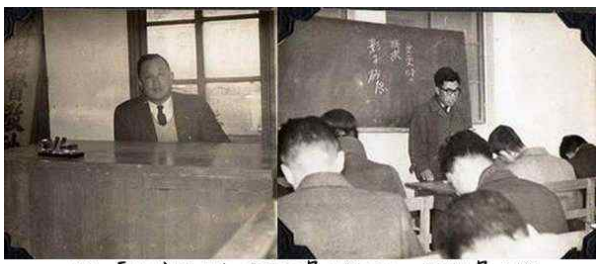
때 학생이 2,000여명에 이르렀고, 점자과에도 맹인 설교자가 100여명이나 있었다. 1964년 중앙그리스도의교회를 비롯하여 13개 이상의 교회들을 설립하였다. 성경연구원을 시작하였고, 「환원」지를 창간하였다. 환원출판사를 통해서 14권이 넘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 시기에 최윤권은,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기독교회선교부'의 선교기금사용방식 또는 선교지원방식을 놓고 내국인 목회자들과 갈등을 일으키자, 테일러와 갈라져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대한기독교신학교' 기성회를 조직하였다. 여기서 '기성회'란 1964년 8월 26일 조직된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대학교) 설립협의회(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를 말한다. 대한기독교신학교는 최윤권 목사의 리더십으로 최순국, 안재관과 같은 링컨기독대학 출신 또는 재학생이 중심이 되어 1965년 3월에 설립되었다. 상임위원에는 안재관, 최윤권(실무 학장), 장성만, 조충연, 최순국, 최요한, 이종만, 임명진, 강병천, 김현숙, 김진문(설립협의회 서기 겸 교무처장), 김규상, 김태수, 구광서(설립협의회 총무), 오현팔, 심영진, 성수경, 양해문이었고, 미국인 고문에 단 드웰트(Don DeWelt), W. L. 제섭(Jessup), 빌 전킨즈(Bill Junkins), 존 피얼스(John R. Pierce), 아이러 리드(Ira B. Read)였다.[396] 그리고 1965년 3월 18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임시 교사에서 '대한기독교신학교'를 개교하였다. 최윤권 목사가 교장을 맡았고, 공동설립자 최순국 목사는 기성회(설립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대한기독교신학교(원효로 임시교사, 1965년경)

396) Soongook Choi, "Reports - Plans Interpretation" of the 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 20 November 1965; Leaflets of the Korea Christian College Planning Association, November 1965.

구광서, 강병천, 성수경, 심영진, 이신, 김진문, 최윤환, 김규상 등이 강의를 맡아 가르쳤다. 동년 여름 효창동 소재 구 철도청 관사를 사들여 교사로 사용하였다. 대학설립에 대해서 최윤권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 일 년 후 테일러 선교사와 갈라진 최윤권 목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더불어 대한기독교대학 기성회를 조직했다. 기성회 회장은 최순국 목사가 맡았고, 1965년 3월 18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임시 교사를 마련하여 대한기독교신학교를 개교하였다. 최윤권 목사가 교장을 맡았고, 구광서 목사, 강병천 목사, 성수경 목사, 심영진 목사, 이신 목사, 김진문 목사, 최윤환 목사, 김규상 목사 등이 교수하였다. 물론 이 학교가 개교되기까지 선교사들로부터, 혹은 반대하는 교역자들로부터 핍박과 방해공작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무수한 협박장과 신체적 위협까지 느꼈다. 그러나 학생들은 모여들었고 교수들은 보수 없이도 열심히 가르쳤다. 그리하여 공백 되었던 교회와 교회 없던 농어촌들을 메워줄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 되었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을 도와줄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획되고 준비되고 실행되었다. 1965년 여름에는 최윤권 목사 소유 가옥과 최윤희 권사 소유 가옥을 팔아 효창동에 전 철도청 관사를 사들여 교사를 만들었으며, 최윤권 목사도 아주 그곳에 이주해서 살았다.[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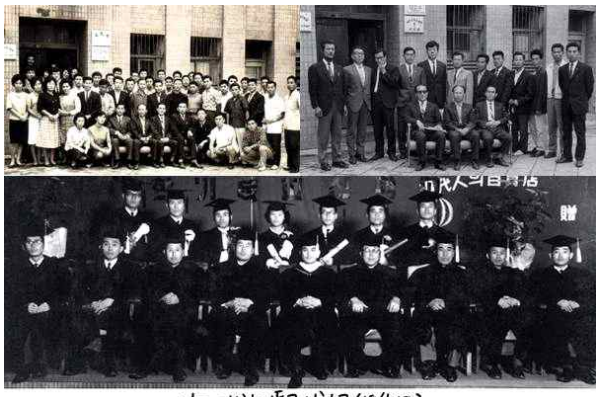
대한기독교신학교 교수, 구광서 목사(좌)와 강병천 목사(우)

대한기독교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친 구광서 목사와 강병천 목사는 이종만 목사, 맨발의 천사 최춘선 목사, 정희건 목사(전도자), 이홍식 전도자 등과 함께 6·25전쟁 직전 직후에 존 J. 힐이 운영한 신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구광서 목사는 월남한 교역자 및 교육자로서 신학교 졸업 후 돈암동교회, 중앙교회, 도원동교회 등에서 시무하였고, 1965년에는 최윤권 목사와 더불어 대한기독교신학교를 시작하여 오랫동안 부교장으로 수고하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으며, 1994년에 별세하였다. 강병

397)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한국문화인쇄, 2003): 61.

천 목사는 일제강점기 때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분으로서 해방 후 귀국하여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집회를 인도하며 중앙교회 등에서 목회를 하면서 대한기독교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으며, 1993년에 미국에서 별세하였다.[398]

대한기독교신학교는 개교 첫 해인 1965년 12월 10일에 제1회 졸업식을 가졌다. 김순옥(장성우 목사의 사모)을 비롯해서 7명이 졸업하였다. 이들은 모두 편입해온 학생들이었다. 1967년에 졸업한 5명과 1968년에 졸업한 10명도 편입생들이었다.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4년 과정을 마친 졸업생 20명이 배출된 해는 1969년이었다. 이 시기에 최홍철, 편무해, 문언식, 김용우, 백무길, 신조광, 유근희, 전주섭, 정동기, 박희한, 심한우, 김명성, 김춘국, 우심언, 육윤식, 김일엽, 이복원, 한정웅 등이 졸업하였다.



상: 대한기독교신학교(1965년)
좌측: 교수(김진문, 성수경, 최윤권, 김규상) 및 학생들(원호로 임시교사)
우측: 교수(이신, 성수경, 최윤권, 김규상/우측끝) 및 목회자들이 함께했다.
하: 제1회 졸업식(1965년 12월 10일)
교수(좌측부터 최윤환, 김규상, 심영진, 이신, 최윤권, 구광서, 강명천, 성수경, 김진문) 및 졸업생들(중앙 흑일점은 장성우 목사의 사모 김순옥).

대한기독교신학교는 1972년 2월 학교법인 환원학원과 4년제 각종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1981년 3월부터는 고든 패튼(Gorden Patten) 선교사가 테일러 선교사의 대를 이어 운영하던 서울성서신학교와 통합하여 서울성서신학교 캠퍼스에서 대한기독교신학교란 이름으로 새 출발하였다. 이후 1985년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로 지정되었고, 1997년 12월 대한기독교대학교로 승인을 받은 후, 1999년 12월 서울기독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최윤권 목사는 이곳에서 교장, 학장, 총장, 이사장 등을 고루 역임하였다.

398) *Ibid*: 40.

최윤권은 대한기독교신학교를 설립한 이듬해인 1966년에 지온보육원을 설립하였다. 결혼 후 빈민동네였던 도원동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았고 버려진 아이들도 있었다. 교인들 가운데 정신장애를 가진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의 네 명의 자녀들을 집에 데려다가 돌본 것이 첫 출발이었다. 1981년에 별세한 민지온 여사의 이름을 딴 지온보육원은 대한기독교신학교 캠퍼스에서 시작되어 나중에 강서구 개화동 325-11번지로 옮겼다.[399]

최윤권 목사는 방송선교와 출판에도 열정을 보였다. 1970년대에 기독교방송을 통해서 최순국 목사, 김일엽 목사와 함께 '이형과 더불어'를 진행하였고, 그 후 단독으로 기독교방송 혹은 극동방송을 통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아워,' '성서로 돌아가자,' '기쁜 소식' 등을 방송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심야에 대북방송까지 하였다. 1988년부터 90년대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 속의 성경'이라는 텔레비전 종교 프로그램도 방송하였다.

최윤권 목사는 많은 책을 저술하였다. 저서로는『깨어진 십자가 I권』(금성사, 1965), II권(홍익제, 1972), III권(태광출판사, 1982),『이형과 더불어』(최윤권, 최순국, 김일엽)(환원출판사, 1971),『기독교 기본교리』(환원출판사, 1973),『1년 52주 설교집』(초석출판사, 1986),『최윤권 목사 칼럼』(노벨문화사, 1988),『구원이란 무엇인가』(사랑선교회, 1990),『그리스도의 교회란 무엇인가?』(1991),『못 박히신 것 외에는』(환원출판사, 1993),『교회가 하나 되는 길』(홍익제, 1992),『신앙의 의미』(쿰란출판사, 1996),『눈물 속에 뜨는 무지개』(문연사, 1997),『내가 누구인가』(쿰란출판사, 2000), 수정증보판『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서울문화인쇄, 2003),『인생의 열쇠』(쿰란출판사, 2006)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다수의 영문 저서들이 있다: *Restoration Movement in Korea; My Dear American Friends; Yours Because of Calvary; With These Children, Forever; Love Is Eternal; Korean Christian Church History; First Christian Mission to China; Praise Through Pain.* 이들 영문서적들은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그리스

399) *Ibid*: 63.

도인들 사이에서 읽혔다.

최윤권 목사 성역 51주년 및 산수연 감사예배(2011년 2월 22일)
박국자 사모(지은보육원 원장)와 아들 최우식 박사(좌측, KCGM 책임자)

최윤권 목사는 신약성경교회운동을 펼친 환원운동가이다. 그는 이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도원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면서 통신신학을 개설하였고, 「환원」지를 발간하였다. 그는 「환원」지 '창간사'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400]

> 주님의 십자가가 산산조각이 났다. 사람들의 생각과 고집과 분쟁으로 그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또 갈라졌다. 그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십자가를 사람들이 다시 한 번 깨트린 것이다.
>
> 환원! 환원이란 돌아가자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물들여지지 않은 성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교권투쟁에 멍들지 않은 초대교회로 찾아가자는 것이다. 가운자락에 가려지지 않은 그리스도를 찾아가자는 것이다. 이 작은 잡지는 이 돌아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갈라진 한국교회의 살길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최윤권 목사는 『깨어진 십자가』 제1권 부록에 '우리의 주장'(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란 글을 실었다.[401]

> (1) 우리의 주장(믿는 것):
>
> ① 우리의 신조는 성령의 감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상도 아니며 그 이하도 아니다.
>
> ②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 사도행전에 계시되었으며 그 계획은 사도시대나 지금이나 다름없음을 믿는다.
>
> ③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매장 및 부활의 복음이 이를 듣고 순종하

400) *Ibid*: 57.
401) *Ibid*: 58-60.

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다.

④ 우리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는다. 그런고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함을 얻는다.

⑤ 우리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에 따르는 침수세례는 죄인을 구하는 구원의 중요한 단계임을 믿는다.

⑥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신약성경이 완전한 계시임을 믿는다.

⑦ 우리는 사죄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죄인의 마음에서 되는 것이 아님을 믿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인간의 감정은 믿을 수 없다.

⑧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 관하여 성경이 한말, 안 한말을 분명히 구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모두 의견에 속한 것이며 의견에 속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끊을 수 없다.

⑨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자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자들로 구성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한 교회를 인정하심을 믿는다.

⑩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의 교육, 예배, 의식, 봉사 등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신약성경만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2) 우리의 주장(안 믿는 것)

① 우리는 구교의 가톨릭주의, 신교의 교파주의 및 모든 종파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열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② 우리는 모든 인위적인 신조 및 학설을 비판 없이 믿지 않는다.

③ 우리는 성경에 없는 약식세례 및 유아세례를 믿지 않는다.

④ 우리는 신약성서에 계시되지 않은 여하한 교회도 믿지 않는다.

⑤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어떠한 인간의 생각도 믿지 않는다.

⑥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여하한 도덕률도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그의 피 없이는 아무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⑦ 우리는 사람이 '믿음만,' '회개만,' '세례만' 혹은 '행위만'으로 구원받음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약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룬 자와 끝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는 자를 구원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이 환원운동이 적절히 이해되고 또한 적절히 실행될 때에 교회의 단순성과 순수성을 환원시킬 수 있으며 신약성경에 계시된 대로 교회를 재건할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아직까지 신약교회를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였으며 물론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 우리의 목표와 길이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위적 신조, 명칭, 교리 및 의식을 버리고 성서를 연구하며 바른길을 찾기를 호소한다.

최윤권 목사는『깨어진 십자가』제2권에 환원운동의 호소들(Pleas)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402]

(1) 우리가 믿는 것은

① 하나의 교회이다. 즉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당이 아무리 장엄하고 그 조직이 아무리 세도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다.

② 하나의 책이다. 즉 성경이다. 이것외의 신조도 헌장도 규약서도 강령도 필요 없다. 물론 성경외의 여하한 책도 계시서도 경전도 수양서도 기도문도 우리의 신앙을 구속치 못한다.

③ 하나의 신앙고백이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간증이다. 이외의 여하한 신앙고백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④ 성경에 있는 이름이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신자, 크리스챤, 제자, 성도 혹은 형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결코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혹은 어떠한 교파교인으로 불리기를 거절한다.

⑤ 성경에 있는 의식이다. 즉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그리스도나 그의 사도들이 실천한 형식과 목적 그대로 순종한다.

⑥ 성경에 있는 정신 및 생활이다.

⑦ 성경에 있는 목적 그대로이다. 즉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이룸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려함이다.

이상의 원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우리의 주장은

①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다.

② 그리스도밖에는 신조가 없다.

③ 성서만이 믿음과 행실의 유일의 율법이다.

④ 고로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로써 해결한다.

⑤ 개인적 의견에 관한 것은 자유이다.

⑥ 신약성서에 기초한 기독교의 단합이다.

⑦ 성서에 관한 것은 성서의 이름으로 부른다.

⑧ 일체의 인위적 명칭 및 신조를 배격한다.

⑨ 성서에 명령된 의식을 명령 그대로 실천한다.

⑩ 각개 교회는 독립적 존재이다.

한마디로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신약성서에 계시된 그대로의 이름, 신조 및 조직만을 갖고 성서의 명령을 의식과 생활에 있어 순종함으로써 하나 되기를 우리는 호소하는 것이다.

최윤권 목사는 이 환원정신을 공유하고 운동하는 교회들이 1970년도

402) *Ibid*: 71-73.

『기독교연감』에 92개의 그리스도(인)교회들과 39개의 그리스도의교회들이 실렸고, 1976년도 『기독교연감』에 각각 106개와 51개가 실렸다고 하였다.[403]

최윤권 목사는 1997년에 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또 2007년에는 링컨기독대학교(Linclon Christian University)에서 공로가 큰 동문에게 수여하는 '환원상'(Restoration Award)을 'Kingdom Leadership'을 인정받아 수상하였다.[404]

4) 안재관 목사

안재관 목사

젊은 최순국이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초기 몇 년간 겪었던 난관들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함으로써 선교사로부터 "이 형제는 1956년 우리들의 오른팔이었다."는[405] 칭송을 들었다면, 역시 젊은 안재관은 최순국이 1959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1960년부터 테일러의 "넘버원 조력자"(Our No. 1 Helper)이자 "신실한 조력자"(faithful helpers)라는 칭송을 들었다. 테일러는 이들 최순국과 안재관에 대한 감사가 깊다(Our appreciation for them is deep.)는 표현도 하였다.[406]

안재관이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를 도왔던 시기는 테일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을 뿐 아니라, 매우 골치 아픈 시기였다. 테일러 선교사는 송월동 선교부의 재산(토지 396평과 그 위에 세워진 선교부 건물과 신학교 건물)을 1959년 6월 3일까지 모두 팔았고, 새로 구입한 7,087평의 역촌동(현재 신사동) 땅위에 새 캠퍼스를 세워야했기 때문이다.[407]

---

403) *Ibid*: 69-70.

404) https://lincolnchristian.edu/wp-content/uploads/2021/01/Past-Restoration-Award-Recipients-2021.01.pdf.

405) "'Futures' for the Work," FCK, 1958년 2월호: 2.

406) "Red Tape," FCK, 1960년 2월호: 2.

이 시기에 서울성서신학교는 강의가 중단된 휴교상태였다. 테일러는 "Red Tape"란 말을 종종 언급하였다. 이 말은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뜻하는 영어표현으로써 17세기 영국 관청에서 공문서를 빨간 테이프로 묶어 보관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들 문서를 보려면 매번 이 테이프들을 풀고 다시 묶고 하는 일을 반복했어야 해서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테일러는 한국 관청에서의 일처리가 매우 더디고 각종 규제가 많았던 것에 대한 불평을 '레드 테이프'란 말로 쏟아낸 것이다. 이 골치 아픈 일들의 해결사가 바로 안재관이었던 것이다. 안재관은 서울성서신학교 근무시절 송월동 부지와 재산에 엉킨 실타래를 풀어 매도가 가능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신학교가 문교부(교육부)로부터 인가를 얻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법전에 근거하여 일을 처리한 테일러 선교사의 수족이었다. 그래서 테일러는 역촌동 새 부지 위에 신학교를 건축함에 있어서 안재관은 다른 조력자들보다 "두 배로 중요하다"(bears double significance)고 했다.[408]

안재관 목사는 1970년에 미국 '링컨기독신학교'(현 Lincoln Christian University)를 마치고 귀국하여 서울성서신학교가 아닌 대한기독교신학교에서 가르쳤고, 대한기독교신학교의 설립협의회 상임위원과 제2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안재관 목사는 1973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에는 김성철 목사와 함께 글렌데일 기독교회(1975, Glendale, CA)와 가데나 기독교회(1976, Gardena, CA)를 개척 목회하였다.[409] 이 때 안재관 목사는 '제자들 교회' 곧 '그리스도(인)의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에 가입하였고, 한인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제자들 교회'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남가주기독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안재관 목사는 2020년 6월 2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향년 90세를 일기로 미국에서 별세하였다. 환송예배는 7월 16일 오후 3시 캘리포니아 주 위티어(Whittier, CA)에 소재한 로즈 힐스 메모리얼 파크(Rose Hills Memorial Park)에서 크리스천(그리스도인의)교회[Christian

407) "The New Location," FCK, 1960년 5월호.
408) "We Are Not Alone," FCK, 1960년 5월호: 2.
409)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시시울, 2020): 108.

Church(Disciples of Christ)]의 교단장으로 열렸다.[410]

5) 김진문 목사

김진문 목사
한성신학교 교장(1982-85년)

김진문 목사는 1933년 2월 11일생으로서 평남 용강군 신녕면 신암리가 고향이다. 김진문은 1950년 진남포 제일 고등학교, 1960년 서울성서신학교, 1961년 중앙신학교, 1963년 숭전대학교 영문과를 각각 졸업하였다. 김진문은 1975년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명문인 임마누엘기독신학교(Immanuel School of Religion, 현 Emmanuel Christian Seminary of the Milligan University)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듬해인 1976년에 김진문 목사는 미국에서 '한국복음선교회'를 만들어 귀국하였다. 또 1984년 미국 국제신학대학원 신학박사 과정을 마쳤다.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는 김진문이 서울성서신학교 졸업반 때인 1959년에 이미 그를 교수진에 합류시킬 생각을 밝히면서 "김진문 형제는 1960년에 교수진을 도울 준비가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411] 실제로 그는 1962-1964년에 서울성서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1965년에 김진문 목사는 대한기독교신학교로 옮겨 교수로서 1971년까지 6년간, 또 1982년에 한성 신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1985년까지 3년간 교수와 교장의 직책으로서 신학교들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였다. 1983-1984년에는 한국기독교신학연구원 교수로도 섬겼다.

김진문 목사는 1966년 8월 4일 목사 안수를 받았다. 김진문 목사는

410) 「미주중앙일보」(Los Angeles, 입력: 2020.07.08.), https://news.koreadaily.com/2020/07/08/society/community/8457501.html.
411) "The Seminary," FCK, 1959년 5월호: 2.

1957-1962년 남산동 그리스도의 교회, 1962-1967년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1968-1971년 도원동 그리스도의 교회, 1976-1985년 신설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각각 시무하였고, 1985년에는 한국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김진문 목사는 지병으로 1985년 11월 10일 낮 12시에 별세하였다.

김진문 목사의 <교리학 개론>(102쪽)
1962년 2월 15일 계자씨사(발행인 임명진)에서 발행

김진문의 저서에 『교리학개요』가 있다.[412] 이 책은 서론부터 차례까지가 12쪽, 내용이 90쪽, 도합 102쪽으로써 1962년 2월 15일 임명진 장로가 발행하고 계자씨사에서 인쇄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필경(筆耕) 곧 등사원지에 철필로 글을 써서 등사기로 찍어낸 책이란 점이다. 「교리학개요」의 발행처는 그리스도의교회(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48번)로써 아마도 김진문 목사가 1957-1962년 사이에 시무한 남산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그보다 8년 5개월 정도 먼저 출판된 성낙소 목사의 『신약교회 목회학』과 출판방식이 동일하다는 점이다.[413] 『신약교회 목회학』은 서언부터 목차까지가 8쪽, 내용이 282쪽, 도합 290쪽으로써 1953년 7월 3일 성원경(成原慶)이 발행하고 제일복음사(대표 김광치/金光治)에서 인쇄하였다. 『신약교회 목회학』의 발행처는 그리스도의교회신학교 출판부(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송월동 32의 6)로써 성낙소 목사가 교수로 헌신했던 곳이다. 이 두 권의 책은 모두

412) http://kccs.info/kimjinmoonchdoc.pdf.
413) http://kccs.info/sungnsntpt.pdf.

지철희 목사께서 소중히 간직하시다가 2010년 11월 21일 별세하시기 수년 전에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에 기증한 귀한 교단의 보물이다.

김진문 목사는 이 책의 서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를 통하여 한국에 들어온 지가 백여 년이 되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 강산에 전파된 지가 칠십 여년이 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급진적으로 전파되어 오늘날에는 무려 백여만 신도를 헤아리게 되었다.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는 사십여 종파로 분리되어 순진한 양떼들을 당혹케 함은 또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유전과 미신적인 신앙에서 깨어나서 성서적 신앙으로 돌아올 때가 된 줄로 믿는 바이다. 우리는 이것을 외쳐왔고, 또 앞으로도 외쳐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특색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1. 본서는 한글 전용으로 교리를 성서가지고 조직화한 것으로 일반 평신도까지도 개화할 수 있게 하였다. 2. 설교사나 성경 연구가에 필요하게 꾸몄으며, 구구한 이론적 설명을 피하고 성구로써 그 해답을 주었다. 3. 창세기부터 묵시록에 이르는 성서적 교리를 순서 있게 조직화 하였다."고 하였다.

6) 독립투사 오현팔(吳鉉八, 1895-1972) 목사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항일독립운동 및 사회유공)을 수여받고 있는 오현팔 목사(1971년 12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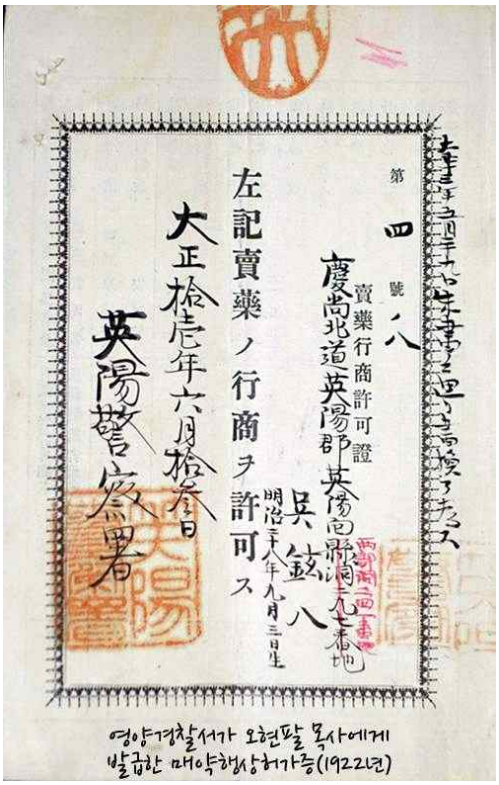
신약성경교회를 표방하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 그리스도의교회들의 초기 목회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철저하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였다. 몇 분 되지 않은 목회자들 가운데 동석기, 김요한, 최상현, 성낙소, 김문화, 오현팔, 최춘선과 같은 애국지사들이 있었고, 존 J. 채이스 선교사의 협력으로 1937-40년 사이에 세워진 다섯 개의 교회들은[414] 모두 일본기독교회 조선교단에 가입하기를 거부하였고, 동시에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

해서 1940-45년 사이에 성낙소 목사를 필두로 이들 목회자들은 일경에 불려가 모진 매를 맞았고, 김요한 목사는 세 차례나 투옥되었으며, 김문화 목사는 옥고를 치렀다. 1941년 후반기에는 다섯 개의 교회가 모두 폐쇄조치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암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최상현 목사와 내수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낙소 목사는 비밀리에 주일을 성수하면서 주의 만찬예배를 빠트리지 않았다. 채이스 선교사는 이 사실을 1941년 초와 1947년 초에 단기간 입국하여 직접 확인한 바가 있다.

한때 「신학세계」의 편집인이었던 최상현 목사는 해방 후 미군정 때 연락관으로 활동하면서 교회를 지켜냈고, 애국지사였던 최춘선 목사는 김포지역에 거대한 토지를 소유한 거부였으나 6·25동란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데 전 재산을 사용하였다. 그는 별세하기 직전 몇 년간 세상에 '맨발의 천사'로 알려졌다. 한의사(무면허)였던 성낙소 목사는 일제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한약방을 열어 생계유지를 하면서 교회를 지켜냈다. 더불어 성낙소 목사의 필운동(46년에 개명)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일군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독립투사 오현팔 목사의 후손들이 필운동교회에 출석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오현팔 목사의 손자인 오수강 목사는 성낙소 목사의 손녀와 결혼하였다. 오현팔 목사는 바울처럼 자신을 온전히 교회를 위해 바친 김은석 목사와 연락하고 지낸 사이였고, 미국 일리노이 주 소재 링컨기독대학 출신과 재학생들이 합심하여 서울기독교대학교의 전신인 대한기독신학교를 설립할 당시 설립상임위원회의 회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오현팔(吳鉉八, 1895-1972) 목사는 자가 여경(呂卿)이며, 호는 호암(虎巖)인데, 본적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이며, 1895년(명치 28년) 9월 3일생이다. 연희전문학교를 1919년 3월에 졸업한 최상현 목사보다 4년 늦은 1923년에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았다. 1919년 2월에 교회를 영양읍 서부동에 창립하였다. 조선야소교장로회는 1921년 2월 25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오현팔 목사(경북

414) 신당정교회(김요한 목사, 미국 에모리 대학교 목회학석사 출신), 돈암정교회(최상현 목사, 연희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 내수정교회(성낙소 목사, 한의사), 산돈암정교회(김문화 목사) 및 청량리교회(박판조 목사).



영양경찰서가 오현팔 목사에게 발급한 매약행상허가증(1922년)

영양군 영양면 현동)의 포교 계를 계출하였다.[415] 1922년 영양경찰서는 오현팔 목사에게 매약행상허가증(賣藥行商許可證)과 함께 매약행상기록부를 발급해주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약사들에게 약품의 처방명, 제조국, 제조자명, 매약업자명, 매약허가사항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였다.

오현팔은 1913년 9월부터 의성인 김원교, 청송인 윤용암 등과 항일모의 군사훈련을 시작하였고, 1915년 2월에 광복단 본부 밀사로부터 경북도책 간부 및 영양군책에 임명되어 민족정신 고취 밀명을 받아 활약하였으며, 1919년 3월에 독립만세운동 밀령을 받아 영양읍 현동 앞 시골에서 시위하였고, 이후 월남 이상재, 민세 안재홍 등 재경 인사와 남정석 등과 항일운동단체를 조직하여 영양군 청기면 및 영양읍 시장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영양경찰서에 체포 구금되었다. 1919년 10월 광복단 밀사이자 상해임정 밀사인 영해사람 이겸호 등과 연락하여 극비리에 소총 등 50여점을 들여왔으며, 본군 석보면 포산리에서 만세운동 중에 군중에게 발포하던 왜경 및 헌병들에게 호암 오현팔 목사의 매부인 안성룡 외 2명이 전사하였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되어 3년간 옥고를 치렀다. 특히 1930년 1월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등에 민족단결과 항일애국운동에 관한 시론(詩論) 논문을 게재하여 그 필화(筆禍)로 경상북도 경찰부에 체포 구금된 일이

415) 조선총독부관보 제2686호 1면(대정10년 7월 23일).

있었다. 그 후 굴원동지회라고도 하는 오오회(五五會)를 권국찬(權國燦), 이철호(李喆浩), 주원술(朱元述), 조훈석(趙薰錫)과 함께 조직하였고, 오오회를 일방만우회(一方晩友會)로 확대하여 항일독립에 노력하는 한편, 국산품 장려운동과 일제의 농지매입을 반대하는 연사로 활약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오현팔은, 1927년 8월 27일자 '조선일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국찬 등과 함께 1927년 신간회 영양지부를 설립하였고, 지역 주민들에게 일본상품 불매 및 항일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오현팔 목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였다. 이 때문에 영양교회는 1940년 4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철거당하였다. 1942년에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동양의 간디'라는 죄목으로 장기 구금되기도 했다.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세워진 독립투사 호암 오현팔 목사 (1895~1972, 영양교회)의 추모비(1982년 10월 9일 제막)

오현팔 목사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지역분할 정책도 비판하였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영양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1919년에 개척한 장로교회가 1940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쇄된 것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복원한 것이었다.

오현팔 목사는 "지금까지는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독립쟁취를 위해 싸웠으나 이제 나라를 찾고 국권을 회복했으니 더 이상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각 정당의 초대와 국회의원 공천 등의 유혹을 일체 거절하였다. 더욱이 가족들에게 자신의 항일투쟁사나 그간의 고통과 압박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함구하도록 하는 등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결코 나서지 않았다.

오현팔 목사는 자신의 설교문에서 말하기를, "모리적(謀利的) 신앙가와 사대적(事大的) 신앙가들에게 속지 말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써야

할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통일교니 감리교니 천주교니 성결교니 장로교니 안식교니 하는 교파가 곧 당파가 용인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교회뿐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이자. 이것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뜻일 것이다."고 하였다. 오현팔 목사는 또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순종하려는 교회다. 성경을 이탈해 규칙을 만들어 교인을 구속하고 마취시키는 수단과 방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어그러진 시대에서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풍요로웠던 재산을 독립을 위해 모두 사용하고 남은 것이 별로 없었을 때에도 오현팔 목사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신앙의 본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오현팔 목사는 목회자이면서 한의사로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의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약을 3첩 이상 짓지 않았고 심지어 돈을 받지 않을 때도 많았다.

주일이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보리갱죽을 해놓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전도자로 삼아 월급을 줘가면서 함께 살았다. 오현팔 목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과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삶과 신앙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였다.

오현팔 목사는 1963년 3월 1일 영양군수로부터 항일독립운동 공적표창을 받았고, 1971년 7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항일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표창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20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항일독립운동 및 사회유공자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여받았다. 독립투사 호암 오현팔 목사의 추모비가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1982년 10월 9일 제막되었다. 오현팔 목사는 1972년에 별세하였다.[416]

---

416) 디지털 영양군지(https://www.yyg.go.kr/yyggunji) 『상권: 지리와 역사』: 442-444, 483; 『중권: 인물과 자랑』: 60, 221, 474-5; 『하권: 민속과 문예』: 393; 최성주 기자, "하나님의 사람은 민족, 사회, 이웃에 책임 있는 모습이어야," 「들소리신문」(입력 2010.08.25.), http://www.ing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070.

7) 정인소(鄭寅笑, 1907.11.11-1977.8.27) 박사

1961년 8월 17일 부강 부영초등학교 운동장
좌측부터 이종만 목사, 정인소 박사, 성낙소 목사, 애신 목사, 장성만 목사

『대한민국 인사록』, 『(사진으로 본) 국회 20년 부록: 역대 국회의원 약력』, 『역대 국회 의원 총람』 등에 따르면, 정인소는 소년시절부터 민족해방운동으로 일제 때 특별 고등요시찰인(日帝時特別高等要視察人)이 되어 128회의 검속투옥이 있었다. 특히 세계어(에스페란토)보급, 금주, 단연(斷煙), 아편, 공창(公娼), 축첩(蓄接) 등을 폐지하는 운동을 활발히 펼쳤다. 광복 후에는 군정청 학무국 계몽강사로 활약하였다. 사재를 투자하여 애지세계사(愛之世界社), 국제금주동맹, 한국세계어총연맹 등을 창립하여 총재에 취임하였다.

정인소는 조선행정 사찰관, 아마 세계어 전문학관 관장, 국학대학 교수, 국민대학 교수, 푸람파싸 대학 학장, 국제웅변대학 학장, 청주대대학원 원장, 신생활일보사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자신이 설립한 한국세계어협회(Korea Esperanto-Asocio)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오랫동안 방송설교를 하였다.

정인소 박사는 청주대학대학원 원장을 지냄으로써 보궐선거에서 5대 국회의원(지역구 충청북도 음성, 소속정당 무소속)으로 당선했으나 5·16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의원선서를 하지 못하였다. 2013년 7월 13일자 경향신문, '48시간 국회의원 아시나요?'와 2013년 12월 8일자 중앙일보, '48시간 국회의원 괴산 김사만·음성 정인소…DJ도'에 따르면, 정인소는 1961년 5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충북 음성에서 제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기쁨을 누렸다. 이날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정인소, 김사만, 김성환, 김종길, 김대중(전 대통령) 총 5명이었다. 이들

1960-62년경 한국성서신학교 이사진과 교수진
앞줄 우측부터 이홍만 목사, 김현숙 전사, 제인 힐 선교사, 김희영 교수 사모, 최대한 목사, 뒷줄 우측부터 존 힐 선교사, 최대열 목사, 임춘봉 목사, 임명진 장로, 이신 박사, 정인소 박사(원안), 심영진 목사.

은 선거 다음날인 5월 14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의원 당선증을 받았다. 하지만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곧바로 국회는 해산되어버렸다. 이 바람에 이들 다섯 명은 금배지도 달지 못하고, 본회의장 단상에서 의원선서도 하지 못한 채, 세비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의원직을 마감해야했다. 이들이 의원 신분을 유지한 것은 1961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었으나 시간상으로는 48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후 정인소는 8번 고향과 서울에서 총선에 도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정인소 박사는 일본 대판 부립중학교, 중국 북경 외국어 전문학교 세계어과, 일본 구주제대(九州帝大) 법대 법문학부 정경과(政經科)를 각각 졸업하였고, 미국 피풀스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인소는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더불어 세계평화 수립에 분투노력하였으나 반민특위가 조선총독부 경무부 촉탁, 황민생활사 사장을 지낸 경력을 문제 삼아 기소한 바가 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해서 재판은 중단되었다.

정인소는 '한국에스페란토학회'(Korea Esperanto-Instituto, KEI)와는 별도로 1945년에 또 다른 조직인 '한국세계어협회'(Korea Mondlingvo-Asocio, KMA)를 독자적으로 설립하였다. 1947년 4월에는 '아마 세계어 전문학관'을 개관하여 관장으로 취임하였고, 『세계어 문법』(36쪽, 프린트 판)을 내고, 6월 14일에는 서울 YMCA에서 '세계어 대강연회'(주제: 조선의 장래와 세계어)를 개최하였다. 8월 14일에 '아마 세계어 전문학관' 제1기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9월에 그의 『세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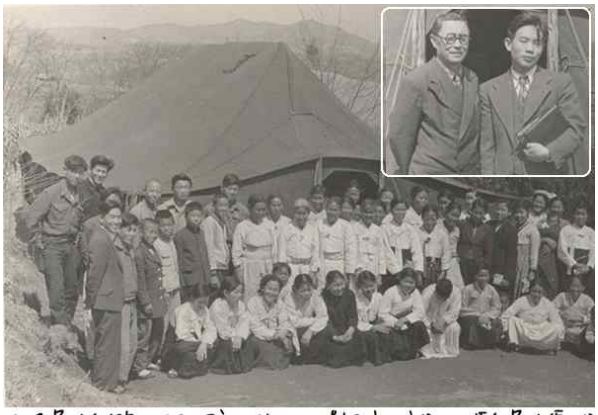
사전』(228쪽)과 『세계어 문법』(40쪽)이 애지세계사 출판으로 발행되었다. 시조사가 발행하는 1948년 9월호 「시조」(時兆)에 '문명국가의 금주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52년 한국세계어협회를 사단법인화하고 『세계어의 사명』이란 책도 출판하였다. 1956년에 『세계어 문법강의』(64쪽, 한국신생활사), 1957년에 『세계어 교과서』(96쪽, 한국신생활사)를 출판하였다.

참고로 '에스페란토'는 폴란드의 안과 의사 루도비코 라자로 자멘호프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 목적으로 창안한 세계어, 곧 인공어이다. 자멘호프는 고등학교 때인 1878년에 시험판을 만들었으며, 10여년에 걸쳐 에스페란토의 문법과 어휘를 개량하여 1887년에 『첫 번째 책』(Unua Libro)를 발표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1962년 신탄진)
앞줄 우측부터 심영진 목사, 한숙자 사모와 최도열 목사 부부, 이종만 목사, 뒷줄 우측부터 존 J. 힐 선교사, 한 사람 건너 임춘봉 목사, 정인소 박사(원안), 성낙소 목사, 이신 목사, 고광석 목사, 장주열 목사, 소교민 목사

정인소 박사가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와 서울성서신학교에 얼마나 관여하였는지는 1963년 개교식에 참석한 것 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에 정인소 박사는 1960년대 초 존 J. 힐 선교사와 연관된 한국성서신학교 및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행사들에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인소는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의 동역자이기보다는 존 J. 힐 선교사의 동역자로 분류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중요한 인물이었다. 아래의 사진들은 그가 한국성서신학교의 이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선교사들과 내국인 동역자들, 특히 충청이남지역 사역자들과 고루 교제하였음을 보여준다. 정인소 박사의 옷차림은 늘 소박하였고, 검정 고무신을 즐겨 신었다.

8) 이기구 목사


이기구 목사(신갈그리스도의교회, 1952년 10월 3일 개척)와 김윤수 목사(통역)

이기구 목사는 1952년 10월 3일 신갈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또 같은 지역에 중학교를 세워 건물을 짓고 운영하던 중에 존 J. 힐과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기구 목사는 금광을 운영하는 동서의 도움으로 중학교 교사를 건축하였다. 그러나 5천 달러 정도의 빚 때문에 거의 팔릴 뻔하였다. 졸업생들 가운데 서울성서신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해롤드 테일러는 입학을 거부하면서 고등학교 설치를 주문하였다. 1957년 봄에 시작된 고등학교에 10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하였고, 그 가운데 7명이 신학교 지망생들이었다. 이 무렵 전교생이 95명이었다.[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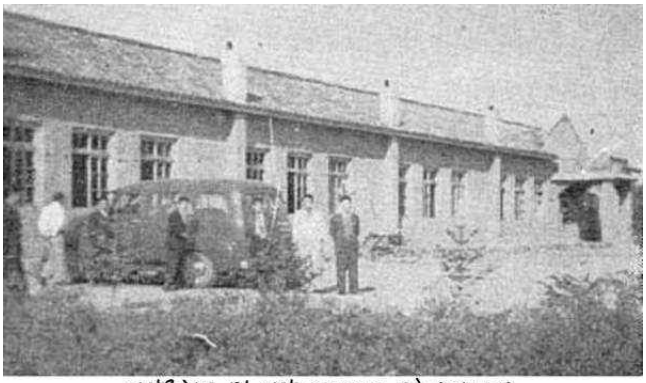
6·25전쟁이 터진 수일 후 서울은 인민군과 공산주의자들로 넘쳐났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공기를 들고 인민군을 환영하였다. 과거에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보도연맹(국민보호선도연맹) 출신들은 이때다 하여 곳곳에 "인민군환영"이란 현수막을 내걸고 피켓을 들기 시작하였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한사람이었던 김창준 목사(북한 최고인민상임위원)는 이만규와 함께 1947년 2월 24일 '기독교민주동맹'을 출범시킨 좌익세력의 대표였는데 인민군과 함께 서울에 나타나 태평로에 사무실을 내고 '기독교민주동맹' 위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피난가지 못한 목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418] 이때 서울에 남아있던 이기구 목사는 성낙소 목사, 한형태 목사와 함께 공산주의자들에게 불

417) Harold Taylor, "Middle Schools – A Real Need," FCK, 1957년 6월호.

418) '기독교민주동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5981); '기독공보55년사/ (19)6·25전쟁과 좌익의 득세,' 한국기독공보(http://m.pckworld.com/article.php?aid=2547989961).

려가 심문을 받고 '기독교민주동맹'에 가입하라는 위협과 회유를 받았으나 그들은 끝까지 "신약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맹'에 가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존 힐 선교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 우리는 많은 교인들이 서울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서울에 머물기로 선택한 세 명의 서울 설교자들의 이야기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독교 세력을 통합하고 통제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공산주의 조직인 '기독교민주연맹'에 가입하도록 그들을 설득하고자 했던 공산주의자들에게 집요하게 위협과 회유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사들은 신약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맹'에 가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공산주의자들을 역겹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우리의 목사들이 공산주의 군대에 적합하지 않다며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기독교민주연맹'에 가입한 많은 목사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419]



신갈중학교 및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

6·25전쟁 중에 이기구 목사의 사모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굴 속에 숨어 있었고, 동굴 입구에 떨어진 포탄의 폭발로 사망한 다른 100여명과 함께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땅을 파고 그녀를 매장하려던 순간 그녀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것을 안 남편 이기구는 그녀를 리어카에 싣고 내달려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으나 반신불구가 되었다.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1956년 3월 26일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의 모친이 테일러에게 "몸의 한쪽이 마비된 채 힘없이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듯 그녀(이기구의 아내)의 두상(정수리)에 난

419) John J. Hill, "Monetary Losses Slight Compared to Suffering of Koreans, Says Missionary," *CS,* 16 December 1950: 787.

커다란 흉터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회복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420]

이기구 목사는 훗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 넘어 갔다.[421]

9) 그리스도의 교회가 낳은 사랑의 원자폭탄 진성구 장로

Love Your Enemies

(The following story compares well with a more famous one in the book, The Christ of the Korean Heart. That one tells the wartime experiences of one Chin Song Koo.)

Bro. Chin Song Koo was an elder in the Sang Wul ri Church of Christ when, in 1950, the Communists came to his part of extreme southern Korea.

One morning as Bro. Chin was going toward his fields of ripened rice he suddenly found himself surrounded by several of his fellow villagers. Their leader spoke: "Don't hold your nose so high. The world is quite changed now and it is time for you Christians, Yankee's dogs, to vanish away." Bro. Chin saw that he faced only cold, stern, unsympathetic eyes. It was obvious that his attackers were seeking the applause of their leaders, the Communist army which was then just over a small hill from his village.

That night Bro. Chin was confined in a small room, waiting for the "peoples' judgment" the next day. No doubt that his fate was already decided before he was caught. He was very frightened and he thought that his days on earth were finished. He prayed that he might be prepared for the end. The peace of the Lord came to him and his nerves were settled.

Next morning Mr. Chin found himself in a cave on a mountainside, not knowing how he had come there. As he sat pondering his situation his past life came before him. He recalled especially a dream which he had soon after he was married. He had seen a tree with two branches, one with five fruits on it, and the other with three fruits. Then he saw the three fruits fall to the ground.

Finally Bro. Chin crawled down the mountain and was taken in by a woodchopper who, with his wife, took care of him for several days, until the Communists had been forced back north and Bro. Chin's village was again set free. With much anxiety for his family he hastened home to find that his three sons had been beaten to death by his Communist neighbors, and that those men had been captured. Then friends gave Mr. Chin a gun that he might take his revenge against those men.

Tears flowed down his face as our brother considered his situation. He has lost his three children and his heart seemed to be full of sorrow and hatred. Then it came to him that these feelings were strange to him as a Christian. Before him were three graves and the murderers of his children. What should he do?

Out of the village and around the hill went three men followed by a fourth with a gun. A little later three shots were heard, and everyone thought that vengeance had been taken.

But, being a Christian, Bro. Chin had released the three men and six months later they returned to their home. During the spring of 1951 three men were seen silently to place wreaths on three little mounds on the hillside not far from Bro. Chin's home.

This spring (1957) Bro. Chin and his wife are expecting their fifth post-war child. Bro. Chin believes that at least some dreams come true! (This brother is a member of the Board of Trustees of our seminary here in Seoul.)

진성구는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창립자이자 장로였다. 6·25동란 때인 1950년 11월 6일에 마을 빨갱이들에 의해서 교인 35명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교회이다. 1950년대 초에 이동 신학교였던 신화신학성경연구회(그리스도의 교회)가 최요한 목사의 유달교회(당시 순복음교회)에서 모였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진성구 장로가 제공한 목포시 죽교동의 건물 2층이었다. 진성구 장로는 최요한 목사의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1957년 9월 창립 때부터 교회를 떠난 1968년까지 10여 년간 섬겼고, 김은석 목사가 자주 그의 집에서 묵었다.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료들에게 김교인 장로(전남 함평)와 더불어 진성구 장로의 집(목포)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드로아의 가보의 집과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처럼 선교의 허브들이었다. 또 진성구 장로는 1957년 무렵 테일러 선교사가 운영했던 서울성서신학교의 이사로 섬겼다.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가 발행한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7년 2월호에 진성구 장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20) Harold Taylor, "Middle Schools," FCK, 1956년 6월호.

421)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서울문화인쇄, 2003): 47.

진성구 장로는 1950년 10월 말 어느 아침에 수확을 앞둔 벼를 살펴보려고 논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 진성구 장로를 에워쌌다. 그리곤 "거만하게 굴지 마라. 세상이 바뀌었다. 양키의 똥개들인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해 버리겠다."며 주동자가 엄포를 놓았다. 그들의 눈은 살벌했고 강경했으며 냉정했다. 그들의 이 소행은 마을의 나지막한 언덕 너머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군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꾸민 짓이 분명해 보였다.

그들은 그날 밤 진성구를 작은 방에 가뒀다. 내일 진성구를 인민재판에 세울 심산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진성구를 납치하기 전부터 이미 그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있었다. 진성구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제 이 땅에서의 내 삶은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였다. 진성구는 최후를 잘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평안이 임했고, 마음이 안정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진성구는 자기 자신이 산중턱 동굴에 버려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그곳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진성구는 쪼그리고 앉아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연 살아온 지난날이 회상되었다. 특히 그가 결혼직후에 꿨던 꿈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때 그는 꿈에서 두 개의 가지가 돋아난 큰 나무를 보았는데, 한 가지에는 세 개의 열매가 매달려 있었고, 다른 가지에는 다섯 개의 열매가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세 개의 열매를 매단 나뭇가지의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는 꿈이었다.

정신을 차려 진성구는 산에서 기어서 내려왔고, 벌목꾼에게 발견이 되어 그들 부부로부터 수일간 정성스런 간호를 받았다. 그 사이에 공산군들이 쫓겨 북쪽으로 퇴각하였고, 마을은 그들로부터 해방되었다. 진성구는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세 아들들이 이미 마을 빨갱이들로부터 살해된 후였다. 마을의 빨갱이들은 곧 체포되었다. 친구들은 진성구에게 총을 건네주면서 그들에게 복수하라고 등을 떠밀었다.

이 목불인견의 상황에 처한 진성구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세 명의 아들들을 모두 잃은 그의 마음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듯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구는 그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그리스도인인 자신에게 웬일인지 낯설게만 느껴졌다. 자신의 눈앞에는 금지옥엽 같은 아들들을 묻은 세 개의 무덤들이 있고, 또 그들을 죽인 살인마들이 있었으며, 자신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이 일을 어찌해야하는가?

마을 밖에 언덕 주변으로 세 사람이 끌려갔고 또 한 사람이 권총을 들고 그들을 뒤따랐다. 얼마쯤 후에 세 발의 총소리가 났다. 그 총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보복살인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었던 진성구는 그들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6개월 후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951년 봄철에 세 사람이 말없이 세 개의 작은 무덤위에 꽃다발을 놓고 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 무덤들은 진성구의 집에서 가까운 언덕비탈에 있었던 것이다.

금년 봄(1957)에 진성구 장로와 그의 부인은 6·25동란이후 낳은 다섯 번째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 진성구 장로는 적어도 몇몇 꿈들은 이뤄진다고 믿고 있다.[422]

2.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과 고든 패튼 선교사

패튼 Gorden Harry Patten 배도은 1933.06.24.-2018,09.20,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목사, 신학교 교장, 교회개척자, 문서선교, 교도소선교, 한국'기독교회' 선교부 마지막 선교사.

Gorden H. Patten(1933.06.24.-2018.09.20)

패튼은 1933년 6월 24일 오리건주 코티지 그로브(Cottage Grove)에서 아버지 해리(Harry)와 어머니 루스(Ruth Mainwaring) 사이에서 태어났다. 브롬바에서 블루 마운틴 초등학교(Blue Mountain Elementary School)를 다녔고, 1951년에 코티지 그로브 고등학교(Cottage Grove High School)를 졸업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3년 후 패튼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코티지 그리스도의 교회(Cottage Grove Church of Christ)를 출석하였다.

고든 패튼은 미군에 징집된 직후인 1954년 1년간 한국에서 근무하였다. 패튼이 근무를 지망한 나라들 가운데 극동이 가장 마지막 희망 근무지였고, 한국은 희망 근무지 목록의 마지막 나라였다. 그러나 패튼이

422) Harold Taylor, "Love Your Enemies," FCK, 1957년 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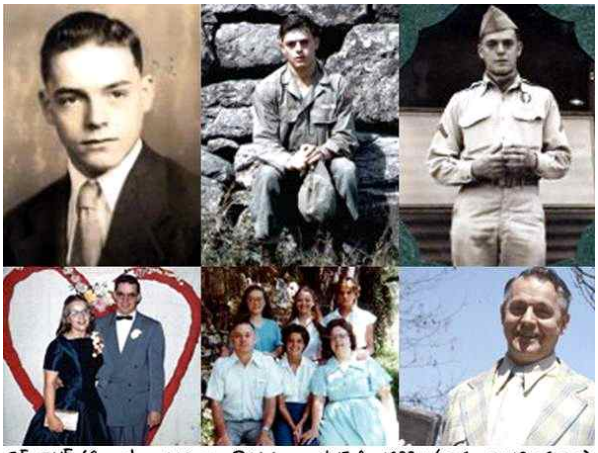
보내진 곳은 그가 택한 마지막 선택지였던 한국이었다. 그때가 1954년 6·25전쟁 직후라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전쟁고아도 많았던 때였다. 패튼은 준비가 되는대로 한국에 다시 오겠다는 포부를 갖고 미국에 돌아가 제대하자마자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성서대학(현 William Jessup University)에 입학하였다. 패튼은 산호세성서대학에서 오리건 주 유진(Eugene Oregon)의 대학가(College Street)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인 샤론 콜버(Sharon Collver)를 만나 결혼하였다.

고든 패튼 선교사와 백무길 목사(통역), 1985년

고든과 샤론 패튼 부부는 1960년에 대학을 함께 졸업하였다. 그리고 1962년 5월 25일 두 딸과 함께 선교사의 자격으로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한국에 도착한지 2개월 후에 셋째 딸이 태어났다. 선교 초창기에 패튼은 서울 서대문구 송월동에서 1963년에 역촌동(현 신사동)으로 옮겨온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대학교)에서 가르쳤고, 월간지 「한길」 발행과 부평보육원을 도왔으며, 두 차례 부산을 왕래하였다. 1964년에 가정에서 영어성경반을 시작하였고 새 집을 지어 이사하였다. 그간에는 신학교 기숙사에서 거처하였었다.

고든 패튼은 1965년부터 66년까지 「한길」지에 영지주의, 몰몬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등의 이단에 관한 글들을 게재하였다. 또 1968년에는 「한길」지에 라쿤 존 스미스("Raccoon" John Smith)의 전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969년까지 발톤 W. 스톤(Barton W. Stone), 월터 스콧트(Walter Scott),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 등 환원운동가들을 소개하였다.

패튼은 1966년에 첫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온 후 부터는 문서선교에 힘썼다. 성경공부 교재를 출판하였고, 1968년 교도소선교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과 『반석 위에』라는 책을 번역 출판했다. 1970년에는 30여


고든 패튼(Gorden Harry Patten, 배도은, 1933.06.24.-2018.09.20) 고든의 10대, 20대(군복무) 및 결혼, 부인 샤론 콜버(Sharon collver)와 네 딸(1970년대 후반), 그리고 성경을 손에 든 고든 패튼(배도은) 선교사.

종류의 전도지 50만 장을 찍어 교도소 전도용으로 활용하거나 교회에 보냈다. 패튼의 문서선교는 1975년 태광출판사를 설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태광출판사는 성서주석과 같은 많은 종교서적과 전도용 전단들을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하여 출판하고 보급하였다. 1977년까지 총 23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1982년에 4권의 책과 10만장의 전도지를 발간하였고, 1984년에는 두 권의 새로운 책을 발간하는 등 1988년까지 총 58권의 도서를 출판하였다. 패튼은 자신이 직접 『기독교 교리』(1972), 『회복된 예언서들의 권위』(1975), 『밝혀진 비밀(요한계시록연구)』(1983) 등을 저술하였다. 그는 또한 보수 선교단체에 의해 문화사역이 활성화되던 1971년 복음영화를 교도소, 군부대, 교회, 고아원 등지에서 상영함으로써 복음전도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패튼은 1972년에 두 번째 안식년을 보낸 후 귀국하여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가 은퇴한 1974년에 마이클 쉘리(제1대 포교관리자, 1935-36), 존 채이스(제2대 포교관리자, 1937-41), 김요한(제3대 포교관리자, 1941-44), 존 힐(제4대 책임자, 1948-55), 해롤드 테일러(제5대 책임자, 1955-74)에 이어서 제6대 '기독교회선교부'의 책임자에, '재단법인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의 제3대 이사장과 존 채이스(제1대, 1937-40), 존 힐(제2대, 1940-55), 해롤드 테일러(제3대, 1955-74)에 이어서 제4대 '서울성서신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 1975년 이광 고등공민학교(현재 학력인정학교)를 인수하여 개교하였고, 1979년에는 신학교 이전을 위해서 안양에 부지를 매입하였다. 1978년에 미국에서 데보라 햄(Deborah Ham)을, 1979년에는 데비드 워너(David Warner) 가족을

고든 패튼(배도은) 선교사 가족(1962년 입국 당시의 모습)
좌측부터 레이첼 마리(Rachel Marie), 샤론(Sharon collver)과
고든 패튼(Gorden H. Patten) 부부, 레베카 루스(Rebekah Ruth).
패튼 선교사는 1980년 한 해 동안에 부인 샤론의 별세와 네 딸 가운데
장녀 레베카 루스가 존스턴경대학 재학 중에 별세하는 큰 고통을 겪었다.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동역하도록 하였다. 1980년 부인 샤론 콜버(Sharon Collver)가 별세하였고, 네 딸 가운데 장녀인 레베카 루스(Rebekah Ruth)가 미국에서 사망하는 슬픔 속에서도,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의 통합에 합의하여 1981년 3월 2일 통합감사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이후 통합신학교(대한기독교신학교)의 이사장직을 수행하였다. 1982년에는 329명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1983년에 선교부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선교부 건물을 완공시켰다. 패튼은 보람교회를 창립하였다.

좌측부터 박정상 목사, 고든 패튼 선교사, 윤영중 목사
2007년 8월 6일 75주년 기념대회장에서

고든 패튼 선교사는 한국에 온 이후 30년간 정열적인 신학교 교수로서, 이사장으로서, 서적 발행인으로서,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목회자 양성과 발전에 주력하였다. 패튼은 원서들을 들여와 우리말로 번역 출판함으로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신학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고, 부평 고아원 후원, 군인선교 및 교도소 선교, 보람교회 창립을 통해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발전에 크게 헌신하였다. 또 보람교회 내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이광고등공민학교에서 중학생들을 교육하였다.

고든 패튼 선교사는 1991년 5월 19일 서울 영동교회(이강평 목사 시무)에서 한국 선교 3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후 패튼은 귀국하였다. 귀국 후에도 패튼은 한국과 중국으로 선교여행을 지속하였다. 패튼은 1995년에 오리건 주 포크 카운티 폴스시티 그리스도(인)의 교회(The Falls City Christian Church in Polk County, Oregon)에서 목회하였다. 패튼은 2018년 9월 20일 오리건 주 아데어 빌리지(Adair Village)에서 85세를 일기로 소천하여 고향 땅인 브롬바 공원묘지(Brumbaugh Cemetery)에 영면하였다.

[주요저술] 배도은, 『기독교교리』(서울: 태광출판사, 1972); 배도은, 『밝혀진 비밀(요한계시록연구)』(서울: 태광출판사, 1983); 배도은, 『회복된 예언서들의 권위』 차원봉 옮김(서울: 태광출판사, 1975).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151-53, 156;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서울: 쿰란출판사, 2018): 140-42, 2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195, 202, 236, 244-47, 250, 264; Harold Taylor, "A Place for the Pattens," For Christ in Korea, March 1962: 3; http://kccs.pe.kr/rmp016.htm;

https://www.tributearchive.com/obituaries/3347387/Gorden-Harry-Patten;

https://www.cgsentinel.com/article/gorden-harry-patten;

https://www.smithlundmills.com/obituaries/Gorden-Harry-Patten?obId=3347387;

https://www.ancestry.com/genealogy/records/rebekah-ruth-patten-24-9dcf3h.

3. 선교사들과 내국인 사역자들 사이의 이견

1) 수도권의 동파(East)와 서파(West)

테일러 선교사는 종종 분열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서 활동한 20여 년간 실제로 분열은 없었다. 그가 말한 분열이란 대개가 불화, 이견 혹은 견해차라고 말해도 좋을 만한 것이었다. 필자의 은사인 신시내티성서대학원(Cincinnati Bible Seminary of the Cincinnati Christian University)의 역사학자 제임스 노스(James North)는 수업 중에 미국의 비교파주의 신약성경교회를 미국식 민주주의 교회라고 말한 바 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식하고자 했던 신약성경교회가 바로 이 미국식 민주주의 교회였던 것이다. 반면에 일부 내국인 사역자들이 생각한 비교파주의 신약성경교회는 한국식 그리스도(인)의교회였던 것이다. 한국적 토양과 기후에 잘 맞는 토착적 그리스도(인)의교회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테일러 선교사는 일부 내국인 사역자들의 이런 시도를 교파주의 또는 분열주의로 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목회자들은 교파교회들의 제도를 많이 차용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신약교회로의 환원: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라는 주제와 이신 목사가 강연하는 모습(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 예배당)

테일러 선교사가 계획했던 비교파주의 플랜은 한국문화와 종교상황 속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의 협의회도 총회도 테일러 선교사가 원했던 조직은 아니며, 개교회들의 조직과 직책도 마찬가지로 선교사가 원했던 100퍼센트 미국식 신약성경교회는 아니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단 한 번도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미국식 신약성경교회였던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헌신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는 다른 한국적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고 수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교 초기에 테일러

선교사가 가졌던 내국인 사역자들에 대한 오해는 점차 누그러졌으리라고 본다. 게다가 내국인 지도자들도 선교사들이 강조한 비교파주의 신약성경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였고 환원정신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신약성경교회에 대한 사명감도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성낙소 목사가 1952년에 출판한 목회학 책의 제목이 『신약교회 목회학』인 것과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존 힐 선교사 참석)의 주제가 '신약교회에로의 환원'인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경)

테일러는 자신이 발행한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1960년 2월과 5월호에서 수도권 목회자들을 성낙소 목사를 따르는 동파(East)와 자신을 따르는 서파(West)로 분류한 바가 있다. 동파와 서파 사이에 대화 모임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59년 11월 10일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동서간 회의'(An East-West Conference)를 개최하였으나 서파는 참석하지 않았고, 동파만이 참석하였다. 그날 동파는 자기들이 뭔가를 결정하면 그 결의안 사본을 테일러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일러에게 전달된 결의안이 없었다.[423] 성낙소 목사는 근본적으로 채이스의 사람이었다. 채이스의 사람들 가운데 해방 후에도 사역을 지속한 사람들은 최상현 목사, 성낙소 목사, 백낙중 목사 세 사람이었으나, 6·25전쟁 중에 최상현 목사는 납북당하고, 백낙중 목사는 공산군에 피살당하여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60살이 갓 넘은 성낙소 목사뿐이었다. 한학자요, 한의사(무면허)였던 성낙소 목사는, 비록 체구는 왜소했지만, 성격이 곧고 날카로워 선교사들에게 쓴 소리를 하는 목회자였다. 무엇보다도 성낙소 목사는 신약성경교회에로의 환원에 대한 신념이 매우 강하였

423) Harold Taylor, "Frank-Talk Meetings," FCK, 1960년 2월: 4; FCK, 1960년 5월호: 2.

다.

좌측부터 조충연 목사와 방재사(1960년)
이들은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온 후 서울성서신학교 건축에 참여하였다.

테일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성낙소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예를 들어서 필운동 교회는 가장 오래된 교회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장로를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또 테일러는 부교역자였던 조충연과 한 명밖에 없던 방(Pang) 집사까지 필운동 교회를 떠난 것은 성낙소 목사가 테일러의 비교파주의 플랜, 곧 신약성경교회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플랜에 반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고하였다.[424] 테일러 선교사는 1959년 3월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필운동교회를 떠나 홍재동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던 조충연과 또 필운동교회를 떠난 방 집사를 서울성서신학교 건축현장에 투입시켰다.

2) 충청이남권의 반선교사 정서

또 충청이남지역에 기반을 둔 김은석 목사와 이신 목사 등은 성령운동을 하는 목회자들인데다가 선교사들(채이스, 힐, 테일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아니한, 스스로도 자생적이고 토착적인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목회자들임을 자긍하는 이들이었다.[425] 그들은 채이스를 만나 교류한 적이 없고, 1947-48년 사이에 미 공군 군목 할 마틴,[426] 1949년

424) Harold Taylor, "Frank-Talk Meetings," FCK, 1960년 2월: 4.

425) 이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전개,' http://kccs.pe.kr/rmw001.htm;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 38.

426) '마틴 Martin, Hal H.' http://kccs.info-인물자료(국외).

이후 존 J. 힐 그리고 1956년 이후부터는 해롤드 테일러와 집회 때 또는 도움을 청하려고 갔을 때 얼굴을 보는 정도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교사들의 지시를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배타적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서울성서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사이에 교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편해하였다. 1950년대 초에는 이런 불편을 참지 못하여 정찬성 목사, 김상호 목사(오산리 금식기도원 주임목사로 섬김), 최요한 목사(몇 년 후 돌아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움), 김교인 장로(부강교회 창립멤버, 함평 석성리 신생교회를 순복음교회로 바꿈)[427] 등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떠나 순복음으로 넘어갔다.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 가족
좌측부터 페니 루(Penny Lou), 해롤드(Harold),
에이더(Ada), 레랜드(Leland), 글렌(Glenn)

테일러 선교사는 채이스와 힐 사이에서 빚어진 분열을 일치와 평화로 바꿔보려고 노력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또 테일러는 목포 유달교회(최요한 목사가 진성구 장로의 집 2층에 개척한 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 몇 차례 참석하여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였다. 테일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은 지속되었다.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2월호에서 테일러는 말하기를, 1956년 8월에 목회자 대회(수련회)가 소집되었는데, 교단을 장악하려는 한 그룹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고, 선교사들을 배척했다고 하였다. 테일러는 도쿄에서도 그 보다 일 년 전

427) '김교인(1890-1970) 장로' http://kccs.info-인물자료(국내).

에 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 조직은 선교사들을 배척했다"(This organization was set against the missionaries.)고 하였다. 목회자 대회 후에 테일러가 들은 이야기는, "만약 테일러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면, 기금과 물자를 우리에게 넘겨 우리가 그것들을 배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신학교 운영도 우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1955년 12월에 누군가가 테일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단지 당신의 돈을 원할 뿐이다."고 했다고도 한다. 테일러는 이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후 그는 그들의 조직, 곧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회계, 목사안수위원회, 목사심의위원회 등이 적힌 계획서를 보았다고 한다. 이에 테일러는 전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 같은 조직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 편지의 결과로 소수의 교회들만이 그 조직에 가입하였고, 나중에 10여개의 교회들이 다시 탈퇴하였다고 적었다.[428]

테일러는 이 새로운 조직, 곧 협의회가 성경학교를 시작하였고, 서울에서 남쪽으로 80여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였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한 목사에게 맡겼던 돈의 얼마를 차지하는데도 성공하였다고 적었다. 그들은 또 힐 요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같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테일러 선교사가 지목하여 말한 곳은 부강의 신화신학성경연구회였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테일러 선교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7년 6월호에서 이제 협의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회의 리더와도 이전의 친교를 회복하였다고 적었다. 더 이상 총회장 따위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으며 비교파주의 플랜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429]

그러나 테일러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처럼 이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2월호에 따르면, 1957년 8월에 테일러 선교사는 한국에 온지 두 달도 채 되지 아니한 래쉬 선교사와 통역 문(대연)과 함께 전남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열리는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 참석하였다. 이신과 김은석 목사가 가르쳤는데, 12명의 목회자들과 2명의 여전도사들(Bible women)

428) Harold Taylor, "One Year in Korea," FCK, 1957년 2월호: 1.
429) Harold Taylor, "Report of Progress -," FCK, 1957년 6월호: 1.

이 수업에 참석하고 있었다(김은석, 이신, 김재순, 임남규, 이안식, 도주일, 김규상, 박병우, 안영숙, 임혜숙, 등). 테일러와 래쉬의 시간에는 이신 목사와 문(대연) 형제가 통역하였다. 수업이 모두 끝난 후 테일러는 이신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는데, 밤새도록 12시간을 항해한 끝에 제주도에 닿았다. 기독교회선교부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제주교회(천막) 방문을 마치고 목포로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파도가 높아 고생이 많았다고 적었다. 그런데 이 같은 정황이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서 방증되고 있다. 다만 다른 점은 선교사가 주도하는 이 연합집회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내국인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김은석 목사는 1957년 8월 30일(금)자 메모에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목포 유달교회당에서 봉독함. 이번 집회는 진행해 가기가 극난인 것인데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유는 선교사 주최라 함이다."고 하였고, 31일(토)자 메모에서는 "아침은 또한 목포성경연구소에서 7:5-8장까지 봉독함.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한 것은 선교사들에(의) 행사가 불이(의)함으로 동참 아니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데 몇 분은 같이 하자하고, 어떤 분은 곧 그만 두자 함이라. 그런고로 내 마음은 복잡함을 금할 수 없으며, 알고 보며(면) 부족함은 누구에도 있습니다. 저녁때에 목포 진(성구) 장로님 방에서 고린도후서 9-12장까지 봉독함. 김재순, 임남규, 이신, 김은석 4인이 결의 부강서 9월 17일부터 성경공부 시작하기로 함" 이라고 적었으며, 9월 1일자 메모에서는 "이 주일 아침은 목포교회당에서 예레미야애가 1-2:7까지 봉독함. 금번 목포에 도착하여 있음은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전남 전도자 수양회 중에 강사로 옴이다."고 하였다. 또 9월 2일(월)자 메모에서는 "아침에 목(포) 교회당에서 고린도후서 13장을 봉독함. 금번 목포 모임은 태일라 선교(사)가 주최로 전남 교역자수양회. 목포 어떤 냉면집에 가서 선교자(사) 내슈(래쉬)와 문대연 통역 형 같이 함. 냉면은 일기(一器) 2백환이다."고 하였고, 9월 3일(화)자 메모에서는 "아침은 갈라디아서 3:1-4:11까지를 목포교회당에서 봉독함. 오후에 4:12-6장까지를 목포교회 진(성구) 장로 방에서 봉독함. 선교자 테일러 씨에게서 돈 6천환을 여비로 받았다. 테일러씨는 ○○○(이신)와 같이 제주도에 가심과 금번 교역자집회는 금일로 마쳤

다."고 적었고, 9월 4일(수)자에서는 "아침은 목포교회당에서 에베소서 1:1-2:12까지 봉독함. 선교사 내슈, 문대연씨도 서울에 가시고, 이안식, 도주일, 김규상, 박병우, 안영숙, 임혜숙, 다 작별하고..."라고 적었다.[430]

3) 반선교사 정서의 원인

테일러 선교사와 내국인 사역자들 사이의 이견 또는 내국인들의 반선교사 정서의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테일러 선교사는 모든 일에 주도권을 쥐고 토착적 문화와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후원방식에서 미국식 정책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는 이전의 선교사들, 곧 채이스와 힐이 취했던 방식, 곧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매월 후원금을 주던 방식을 폐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한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혹은 단회적으로 후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점은 테일러 선교사가 초기에 취한 '한국에 예배당을' 기금을 사용한 방식에서도 잘 드러났다. 그는 전국의 교회들에 설문지를 보내 각 교회의 상황파악에 나섰고, 각각의 교회가 예배당을 짓거나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조자립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가 부담할 수 없는 부분만 보충해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로써 테일러는 보다 많은 교회들을 짓거나 보수하는 일에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내국인 사역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하였다.

둘째, 서울성서신학교와 신화신학성경연구회 사이의 이견은 이미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인 1950년대 초 존 J. 힐 선교사 때부터 있어왔다. 이견의 핵심은 성령론이었고, 교단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목회자들도 있었다. 1953년 4월 8일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가 광주에서 있었는데, 이때 이미 김상호 목사와 정찬성 목사, 최요한 목사가 순복음 교단으로 넘어갔고(자신의 유달교회를 신화신학성경연구회 집회소로 쓰게 할 정도로 김은석 목사, 이신 목사 등과 교제를 끊

430)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시시울, 2020): 217-18.

지 않았던 최요한 목사는 결국 몇 년 후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다시 돌아옴), 테일러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한 초기에 김교인 장로도 마을 주민이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이었던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를 가지고 순복음 교단으로 넘어갔다. 그는 이 순복음교회에 땅까지 기증하였다.

충청이남 지역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들은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라 성령의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김은석, 이신, 최요한의 영향 하에 세워진 교회들이었다. 선교사의 영향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교사의 돈이었지, 가르침은 아니었다는 말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테일러가 분열주의자로 주목한 목회자들은 바로 이들 충청이남지역 목회자들이었다. 그들은 조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신화신학성경연구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육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서울성서신학교를 운영하면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충청이남 지역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최윤권 목사는 김은석 목사를 일컬어 "90여개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환원운동의 용사이다."고 적었다.[431]

4. 강원도와 경상도지방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

1) 장성만 목사

장성만 목사(1932.11.29.-2015.12.6)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큰 인물이었다. 그는 목회자이자 교육자였고, 정치가이자 문필가였으며, 사회 활동가였다. 그는 대학교회의 전신인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였고, 현 경남정보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장, 경남공업전문대학(현 경남정보대학교) 학장 및 동서대학교 총장을

431) 최윤권, 『내가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서울문화인쇄, 2003): 41.

25세 무렵의 장성만 목사

역임하였다. 그는 또 제11,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정당 발기인 및 부산시 당위원장, 민정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다. 청년 장성만을 곁에서 지켜본 선교사들인 알렉스 빌즈(V. Alex Bills), 리차드 래쉬(Richard Rash), 마크 맥시(Mark G. Maxey) 뿐 아니라, 장성만 목사보다 4살 아래인 김찬영 목사도 장성만 목사의 탁월한 지도력과 깊은 신앙심에 대해 증언하였다. 김찬영은 20대 초반에 장성만 목사가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직한 세족회 회원이었다.[432]

이 글에 기술된 장성만 목사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에 맞춰 그의 청년시절 곧 그의 2,30대에 집중되었다. 또 이 글은 청년 장성만 목사가 어떻게 하여 큰 인물이 되었는지, 그 배경과 원인에 집중되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선교사들의 증언, 곧 장성만의 2,30대를 곁에서 지켜봤던 선교사들의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성만 목사는 생전에 '나의 삶 나의 보람'과[433] 「국민일보」에 42차례에 걸쳐 연재된 '역경의 열매'[434] 및 「부산일보」에 실린 '내 인생의 멘토, 선교사 마크 지 맥시'[435] 등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피력해 놓았다. 그러나 장성만 목사는 자

---

432) V. Alex Bills, "Young Men," Wave Lengths from Christian Radio Mission(이하 WL), October 1958, Number 44.

433) 장성만, '나의 삶 나의 보람,' 『民石 張聖萬 博士 華甲記念 論文集』(부산: 民石 張聖萬 博士 華甲記念 論文集 編纂委員會, 1992).

434) 장성만,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2009년 4월 5일부터 5월 22일자). 자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http://kccs.info/with_home/bbs/board.php?bo_table=person_in&page=8).

435) '내 인생의 멘토-장성만 동서학원 설립자 편: 선교사 마크 지 맥시,' 「부산일보」(게재: 2015.03.10.).

신의 청년시절에 관해서 자세히 기술한 바가 없다.

(1) 장로교에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개종: 1932-1950년대 초

① 신학교에 입학한 동기

장성만은 음력으로 1932년 11월 2일생이고, 양력으로는 11월 29일생이다. 2015년 12월 6일 별세하였으므로, 이 땅에서 만 83년하고 일주일을 더 살았다. 장성만은 "부산시 토성동에서 부친 장용환(張容煥) 씨와 모친 박보질(朴甫質) 씨"[436] 사이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위로 누님 둘, 아래로 동생 셋이 있었다. 부친이 사업을 하였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지냈으나 중학교 2학년(15세) 때인 1946년 여름에 부친이 콜레라에 걸린 지 나흘 만에 돌아가셨다'.[437] 알렉스 빌즈는 장성만이 3대째 믿어온 장로교집안 출신으로서 할머니가 처음 믿었고, 아버지도 집사였다고 썼다.[438]

1946년 미군정하에서 중학교가 6년제로 개편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자면 1951년 초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제가 바뀐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고, 바뀐 학제가 이듬해 입학생들부터 시행되었다면 5학년을 마친 1950년 초에 졸업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해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신학교에 입학했으므로, 비록 그 신학교가 서울에서 내려와 임시교사에서 개교한 신학교라 할지라도, 6·25 전쟁을 피해 부산에 내려온 신학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9년 존 J. 힐 선교사와 1965년 최윤권 목사도 임시교사에서 신학교 수업을 한 바가 있다. 장성만은 공산군이 낙동강에서 후퇴할 무렵인 1950년 9월 말쯤에 입대해서 미 육군 제2사단에 배치되었다가 만 20세가 된 1952년 말쯤에 제대한 것으로 추정된다.[439]

알렉스 빌즈 선교사는 장성만 목사가 다닌 신학교를 "경남장로교성

436) 최훈규,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자: 고 장성만 박사 추모특집: 장성만 목사의 신앙,' 「지역사회」(2016년 봄호): 7.

437) 역경의 열매(1),' 2009년 4월 6일자.

438) V. Alex Bills, "Shung Man Chang," WL, September 1958, Number 43.

439) '역경의 열매(2),' 2009년 4월 7일자.

서신학교"(Kyungnam Presbyterian Bible Institute)라고 했고,[440] 장성만 목사 자신은 "영남성서신학교"(Yung-Nam Bible Institute)라고 했다.[441] 이 무렵 부산에 '경남노회 성서신학원'이 있었는데, 혹시 이 학교를 다녔을는지 모른다. 장성만이 제대 후 복학하였을 당시에 장로교단에 분열이 있기는 하였으나 부산에 장로교 신학교는 '경남노회 성서신학원' 한 곳 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442]

장성만의 꿈은 동아대학(1946년 개교)에 입학하여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한 후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부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삶과 죽음에 관한 생각이 깊어져 나라보다는 백성과 이웃과 자신의 구원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신학을 택한 가장 큰 이유였다.[443] 물론 가정형편도 고려되었을 수 있다. 목사가 되겠다는 장성만의 신념은 6·25 참상을 겪으면서 더욱 깊어졌는데, 제대하자마자 주저함 없이 1953년 1월 4일 첫 주일에 대교 교회를 시작한 것만 보아도 그의 신념이 얼마나 확고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이때가 만 20살을 갓 넘긴 때였다.

(2)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택하게 된 동기

① 장성만이 장로교회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택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미군 군목과의 만남 때문이었다.

장성만이 장로교회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택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 그 첫째는 신학교 시절인지, 아니면 중학교시절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미군 군목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었

---

440) "Shung Man Chang," *Ibid.*

441) Mark G. Maxey, "Bro. Chang Tells His Own Story," LinkLetter: A Monthly Report by Mark G. Maxey Family to the Friends of the Kyushu Christian Mission Kanoya, Kagoshima, Japan, n.d.. 이 글은 맥시의 추천서 성격의 글로써 1963년 9월 하순경에 미국으로 발송한 서신으로 추정됨.

442) '경남성서신학원 거제분원 개강예배,' 「시사코리아뉴스」(입력: 2009.03.17) 및 '경남성서신학원 33회 졸업식으로 평신도지도자 배출하다,' 「한국기독공보」(입력: 2010.12.20.).

443) "Bro. Chang Tells His Own Story," *Ibid.*

다고 진술하였다.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아래와 같은 진술 때문인데, 이 진술은 장성만이 미군 군목을 만난 시기가 신학생 때였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진술은 동석기 목사로부터 받은 영향과 혼합된 부분이 있어 보일 뿐 아니라, 두 번째 이유로 인해서 크게 약화되고 만다.

> 저는 장로교에 소속된 영남성서신학교에 입학하였고, 성경공부에 진력하였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우연히 한 집회에서 어떤 미군 군목을 만났고, 그로부터 저는 저에게는 전혀 새로운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집회 후에 저는 제게 새롭게 인식된 복음에 관해서 그분과 긴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의 설교에 전율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분의 설교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바울과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순수한 복음이란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444)

두 번째 또한 아래와 같은 진술 때문인데, 1949년이면 신학생 때가 아니라 중학교 5학년 무렵이기 때문이다. 이 진술은 불과 9년 전에 있었던 일의 회고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고 착각이 있었다고 해도 앞뒤로 1년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 저는 단순한 진리를 알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복음의 단순성을 수용하고,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정말 따르며, 모든 인위적 요소들을 충실히 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에로 침례를 받았고, 일생을 환원운동에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하였습니다. 그 때가 1949년 4월이었습니다.445)
>
> 그 일 후에 저는 군에 입대하였는데, 6·25전쟁이 터진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수많은 전사자들을 보면서 복음전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대 후 1953년 1월 첫 주일에 식구들과 이웃들을 포함해서 총 일곱 명이 저희 집에 모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대교 교회의 시작이고, 기억할 귀한 날입니다.446)

이것은 미군 군목을 만난 시기가 6·25전쟁이 터지기 이전이었고, 입

---

444) "Bro. Chang Tells His Own Story," *Ibid.*
445) "Bro. Chang Tells His Own Story," *Ibid.*
446) "Bro. Chang Tells His Own Story," *Ibid.*

대 전이었으며, 그때에 이미 장성만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였음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제대하자마자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알렉스 빌즈의 증언인데, 그는 장성만이 미군 군목을 만난 시기를 부친이 돌아가신 해이자 중학교 2학년 때인 1946년 때였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 12년 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 혼란기에 장성만은 미군 군목을 만나게 되었고, 군목은 그에게 주님의 길을 좀 더 완벽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장성만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수용하였고, 그리스도에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군목의 이름은 잊혔지만, 그는 분명코 무명의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447]

이 빌즈의 진술은 장성만 목사로부터 직접 청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오류가 있고, 혼합된 점이 있다고 보여서 1946년 설은 수용되기 어렵다.

18세의 학생 장성만에게 신약성경교회의 중요성을 깨우친 이 군목이 누구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출신 미군 군목으로서 1949년 4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는 할 마틴(Hal H. Martin)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마틴은 규슈에서 복무하다가 1947년 초가을에 한국 복무의 명을 받고 김포 항공기지에서 근무하였고, 부인 에버린(Evelyn)과 아들 게리(Gary)도 한국에 있었다. 장성만 목사가 미군 군목을 만난 1949년 4월이면, 마틴이 한국에서 복무를 시작한지 1년 6개월가량 밖에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부산을 방문한 군목이 마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틴은 한국 복무기간 동안 최상현 목사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인)의교회들 관련자들을 자주 만났고 그들을 찾아 도움을 주었다. 게다가 1947년 말까지는 미국정부가 한국에 선교사 가족들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이므로 상주한 선교사가 없던 때였다.[448]

---

447) "Shung Man Chang," *Ibid.*

448) John T. Chase, "Missionary Footsteps," The Korean Messenger, KM, May

② 장성만이 장로교회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택하게 된 두 번째 계기는 동석기 목사와의 만남 때문이었다.

장성만이 부산에서 미군 군목을 만난 1949년에 서울에는 존 J. 힐 선교사 가족이 있었다. 힐은 1940년 11월 16일에 한국에서 강제로 철수당하여 미국에 머무는 동안 19개월간의 미 육군 군목으로 복무를 마치고 1946년 5월 14일 제대하였고, 버틀러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1947년 8월에 M.A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강제로 철수당한지 8년 3개월만인 1949년 2월 18일 재입국하여 3월 15일부터 서울 연지동 임대 건물에서 신학교를 열고 있었다.[449] 이듬해인 1950년 6·25전쟁의 발발로 힐은 일본으로 피신하였고, 1951년에는 부산에 6개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보고가 힐 선교사에게 전달되었다. 이들 교회들은 6·25전쟁으로 부산에 피난 온 목회자들에 의한 것이었다.

> 2월에 힐 선교사는 서울 목회자들 가운데 두 명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들은 21명의 내국인 전도자들이 부산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힐 선교사는 "부산 인근에 여섯 개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근채의 편지에는 손으로 그린 지도가 들어 있었는데, 그 지도에 새로운 장소들에 여섯 개의 교회들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450]

존 힐 선교사는 1951년 6월 18일 부산에 돌아와 7월 5일까지 머물렀다. 그는 당시 부산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썼다.

1947: 7 and "The Year 1948," KM, March 1949: 1. 할 마틴에 관한 자료: http://kccs.info/with_home/bbs/board.php?bo_table=person_out.

449) "Latest News from the Hills of Korea," KM, October 1946: 2; John J. Hill, "Latest Word from the Hill Family," KM, December 1947: 1, 3-4; John J. Hill, "Overcoming Obstacles in Korea," KM, July 1949: 2; "Responsive Koreans," *CS*, 15 February 1947: 118; "Korean Missionaries Face Obstacles Because of Lack of Facilities," *CS*, 27 August 1949: 549;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188-192.

450) "John Hill Granted Permission to Return to Korea," *CS*, 19 June 1951: 403.

> 나는 부산에서 2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피난민 형제들, 그중에서 15명을 만나고 도왔다. 우리는 6월 24일과 7월 1일에 나무 아래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6월 24일에는 3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는 우리와 함께 일할 신실한 교단 설교자도 포함되었다. 나는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예배 장소로 사용되도록 큰 천막을 사서 거기에 남겨 두었다.[451]

이 같은 증언은 만 21살이 된 장성만이 1953년 1월 4일 대교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이미 부산에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김광수 장로(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피난 때인 1952년 2월 20일 부산 동구 수정동 대지공원에 천막을 얻어 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했다고 했고, 임학균 전도자에 의하면, 또 다른 교회가 부산으로 피난 와 있던 이홍식 전도자와 몇몇 형제자매들에 의해서 1951년 2월 4일 용두산 일대에 교회를 설립하여 첫 예배를 드리고 영주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렀다고 증언하였다. 이 두 교회는 1954년 7월 20일에 통합되어 지금의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교역자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김광수는 1952년 봄에 일본 이바라키 국립대학의 캐논이 내한하여 부산에서 공중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하지 말아야할 이유를 설명한 바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452] 이런 정황들은 동석기 목사가 왜 부산에 있었는지를 알게 해준다. 그가 부산에 머무른 이유가 단지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이곳에 그리스도의교회들(교역자회)이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장성만은 동석기 목사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그때 나는 아주 귀한 분을 만나게 됐다. 함경도 북청이 고향인 동석기 목사님이었다. 그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실력 있는 목회자였다. 백발의 노목사가 대교동 미국문화원 강당에서 강연회를 열고 있었다. 그때 처음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일주일 동안 열린 집회에 계속 참석했다. 동 목사님의 메시지는 나의 마음에 큰

451) John J. Hill, "John Hill Returns to Korea; Resumes Evangelistic Work," *CS,* 4 August 1951: 483.

452) '김광수 장로,' http://kccs.info/kangsu.htm 및 '영남 환원의 산실: 부산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http://kccs.pe.kr/CHURCH/xianch36.htm.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453]

이 진술은 미국 군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알게 되었다는 앞선 진술과 상충되는 것 같으나 실은 장성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가입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진술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6·25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온 목회자들에 의해서 부산에 몇몇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 그리스도의교회들이 개척되었던 것이고, 동석기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교회들(교역자회)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석기는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이민노동자였으나 미국 본토로 건너가 감리교계통에서 학부와 원부를 모두 마치고 돌아와 감리교에서 목회하다가 재차 도미하여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및 그리스도의교회들 계통 신학교들에서 다시 공부한 후에 환원하였고, 그리스도의교회들(교역자회)의 목사로서 한국에 파송된 분이었다. 다음의 글은 만 21세의 장성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가입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한 것이다.

> "성경 이외의 어떤 인위적인 교리나 신조도 거부한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파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매주 성만찬을 갖는다. 세례 대신 침례를 정례화한다." 동 목사님의 강연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것은 한국교회를 향한 광야의 외침이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껏 머릿속에 그려온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다. "바로 이것이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등록했다. 장로교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으로 바뀐 것이다. 지금까지는 할머니의 신앙으로 버텨왔으나, 이제는 나의 신앙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신앙의 독립선언이었다. 1953년 1월 1일. 인생 여정의 한 획을 긋는 날이다. 우리 집 2층에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했다. 교인은 총 7명. 비록 초라한 예배당이었지만,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을 베풀었다. 실로 감격적인 예배였다.[454]

(3)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의 개척과 사역(1953-1960년대 초)

---

453) '역경의 열매(3),' 2009년 4월 8일자.
454) '역경의 열매(3),' 2009년 4월 8일자.

장성만 목사의 성공의 발판을 살펴봄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미군 군목과의 만남과 동석기 목사와의 만남이 있은 후, 그가 신약성경교회 질서에로의 환원정신을 옳게 여겨 자발적으로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했다는데 있다. 이 선택이 그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것이었다. 이 대교 교회가 있었기에 몇 년 후 그를 도와준 알렉스 빌즈와 마크 맥시 및 리차드 래쉬를 만날 수 있었다.

장성만 목사의 1953-56년 사이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 시기에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에서 존 힐(John J. Hill)을 비롯한 다수의 여선교사들이, 55년부터는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가 선교활동과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쏟고 있었다. 다른 한편 충청이남지역에서는 김은석 목사를 중심으로 이신 목사와 최요한 목사 등이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신학교는 서울시 서대문구 송월동에 있었고, 충청이남지역에서도 김은석 목사, 신현창 장로, 이신 목사 등이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장성만 목사가 교단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57년부터였다.

공중예배 중에 악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한 동석기 목사에게 영향을 받았던 장성만이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한 이후 소속을 어디에 두었었는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두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교회들에 두었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50년대 초기에는 유무악기파의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았었다. 무엇보다 50년대 중반이후에 부산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선교사들이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알렉스 빌즈였다.

① 알렉스 빌즈(Verlen Alex Bills)

알렉스 빌즈는 1951년에 일본 오사카(Osaka)에 선교사로 부임하여[455] '크리스천 라디오 밋숀'(Christian Radio Mission, CRM)을 세웠

455)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5.htm.

알렉스 빌즈(Alex Bills) 가족
1956년 6월 한국에 입국하기 직전, 막내 아들 가이 돈(Guy Don)의 출생 전 사진. 좌측부터 베티(Betty), 캐스린(Kathleen), 벌렌2세(Verlen II), 리베카(Rebecca), 벌렌 알렉스 빌즈.

고, 월간소식지 「파장」(Wave Lengths)을 발행하였다. 「파장」은 1952년 11월 6일 CRM에 합류한 엑시 제인 풀츠(Exie Jane Fultz)가 책임지고 발행하였다.[456] 그녀는 1953년 4월 고베로 옮겨가 CRM의 전파 선교방송을 이어갔고, 「파장」을 1959년 2월(47번)호까지 발행하였다.[457] 이후 풀츠는 1959년 6월 8일 '니폰 크리스천 방송 협회'(Nippon Christian Broadcasting Association)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458]

빌즈는 라디오방송국 설립과 방송선교를 위해서 일본에서 5년, 한국에서 5년 동안 사역하였다. 빌즈는 라디오방송국 설립을 추진하는 동안 상업방송국들의 시간을 사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다양한 라디오선교프로그램들을 방송하였다. 빌즈는 1954년 말에 한국정부로부터 부산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세워도 좋다는 허가서를 받고,[459] 1956년 9월 24일 법인(CRM Incorporated)을 미국에 설립하였으며,[460] 전 가족이 동년 12월 13일에 부산으로 옮겨와 의욕적으로 활동하였다.[461] 그러나 자금부족으로 방송국설립이 무산되자 1961년에 CRM의 모든 사역을 접고 귀국하였다.

빌즈가 장성만 목사를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

456) "Exie Arrives," WL, December 1952: 2.

457) Exie Jane Fultz, "First-Fruits in Kobe, Japan," Fall Newsletter of Exie Fultz 1953: 1-2.

458) "NCBA Inaugural Meeting," News Releases: Nippon Christian Broadcasting Association, September 1959: 1-2.

459) "Radio Station Permit Granted," WL, March 1955: 1.

460) "C.R.M. Incorporated," WL, October-November 1956: 1.

461) "Bills Family Arrive in Korea," WL, January 1957: 1-2.

바다에서 침례를 베푸는 장성만 목사
부산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 1957년 6월경

1957년 6월부터였다. 참고로 장성만은 이 무렵 20대 중반이었고, 목사안수를 1960년(28세)에 받았지만,[462] 빌즈는 그가 대교 교회의 목회자였다는 점에서 항상 '장성만 목사'라고 칭하였다. 빌즈는 부산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지난 몇 주간 사이에 침례를 보고해왔는데, 그 가운데 시내 중심에 있는 대교 교회가 가장 활동적이었다며 장성만 목사의 침례식 사진을 두 장이나 「파장」에 싣고 소개하였다. 사진만으로 보면, 이때 바닷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총 8명이었고, 남자가 2명, 여자 6명이었다. 빌즈는 장성만을 포함한 몇몇 설교자들과 장로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공부를 주도하였고,[463] 대교 교회에서 일련의 특별집회를 인도하기도 했다.[464]

바다에서 침례를 받기 전 기념사진
부산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 1957년 6월경

중요한 것은 빌즈의 전 가족이 1956년 12월 13일 부산으로 이사한 이듬해 곧 1957년 초중반부터 장성만 목사가 빌즈

462)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488; '20년 동안 청소년 가장에게 장학금 지급; 장성만 목사 - 마지막 소망은 기독교 문화재단 말들 것,' 「한국기독신문」(2009.1.24.).

463) "And the Lord Added," WL, June 1957, No. 32: 1-2.

464) "Local Churches," WL, November 1957, November. 35: 2.

의 라디오선교사역에 긴밀히 동역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장상만은 빌즈의 모든 행사에 얼굴을 내밀었고, 빌즈는 그를 방송설교 담당으로 채용하기에 이르렀다. 빌즈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방송국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물론 설교를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복음의 메시지들입니다. 따라서 한국말 복음의 소리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춘 누군가를 찾는 것이 정말 엄청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장성만 목사를 그 일의 적임자로 찾게 해주신 것이 기쁩니다. 그는 부산에서 최근 직원으로 합류하였고, 라디오 설교와 라디오 성경강좌들을 방송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자료준비에 쏟고 있습니다.[465]

만25세 때 강단에 선 장성만 목사(1958년)
좌측 의자에 앉은 분은 조 세겔키 선교사이다(대교 교회).

이 무렵 '크리스천 라디오 밋숀'(Christian Radio Mission, CRM)에 소속되어 부산에 온 선교사들, 곧 플로라 매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 1957.10.8.-59.2.25), 조셉 세겔키(Joseph Seggelki, 1958.1.31.-61.7) 가족, 버트 엘리스(Bert Ellis, 1958.5.3.-82.6) 가족은 빌즈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1958년 10월 25일 한국에 머문 선교사들과 미국에 대기 중인 선교사 가족들이 모두 탈퇴할 때까지[466] 대교 교회를 중심으로 장성만 목사와 긴밀히 사역하였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교 교회에 출석하였는데, 빌즈는 그 이유를 대교 교회가 그들이 출석하기에 편리한 곳에 위치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467] 그러나 구른지 양과

---

465) "Shung Man Chang," *Ibid.*

466) Joe Seggelke, News Letter #3, January 1959.

467) '장성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의 사진설명,' WL, July 1958, Number. 42: 3.

세걸키 및 엘리스 가족은 1958년 10월 25일 빌즈 가족과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빌즈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장성만과 대교 교회에 발길을 끊었다.

장성만 목사가 이끈 세족회 회원들(1958년 10월경)
뒷줄 좌측부터 알렉스 빌즈, 장성만, 김홍균(통역), 우측 끝 김찬영

이런 상황의 악화와 갈등 속에서도 빌즈는 꾸준히 장성만 목사와 대교 교회에 관련된 소식을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알렸다. 세족회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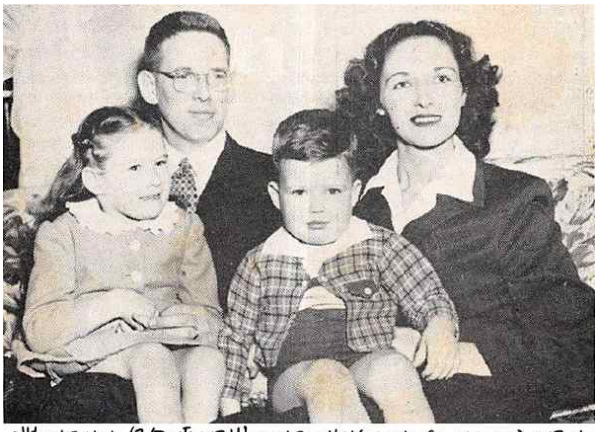
여기 부산에서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되려는 젊은이들의 훈련은 지향하는 바가 약간 다릅니다. 그 비전은 장성만 목사에게 속합니다. 그가 지도하는 젊은이들은 대개가 대학생들이었으나 그들은 목회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교회들을 섬기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성만의 비전은 그들이 가능하다면 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일반교육을 받는 것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알렉스가 지도하는 매주 성경공부도 그런 차원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입니다. 게다가 장성만 목사는 자주 젊은이 그룹을 데리고 산이나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들은 어떤 농가의 방들을 빌려서 며칠씩 함께 숙식하며 공부합니다. 우리는 여름 방학을 끝낸 직후 이 같은 성경공부를 속개했습니다. 그런데 장래가 더욱 촉망되는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름방학동안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젊은이는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려고 시골의 고향마을로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런 손실을 메우고 그들의 자리를 채워줄 다섯 명의 새로운 젊은이들이 입회하였습니다. 이들 젊은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기에 중심 교회를 떠나 교회가 없는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4백만 부산지역에 우리에게 속한 교회가 2-3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결과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형태입니다. 사방이 다 교회가 필요한 곳들입니

다.[468]

이로써 우리는 젊고 유능한 20대의 장성만 목사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질 발판을 깔아준 인물이 알렉스 빌즈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성만 목사가 대교 교회를 개척한지 만 4년쯤 된 1956년 12월 13일에 알렉스 빌즈의 가족이 부산으로 옮겨왔다. 이듬해부터 장성만 목사는 빌즈의 동역자로 활동했고, 빌즈 선교사를 보려고 서울과 강릉뿐 아니라, 특히 일본에서 다수의 선교사들이 부산을 찾아왔으며, 선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젊고 유능한 20대의 장성만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본 규슈에서 사역하는 마크 맥시였다.

② 마크 맥시(Mark Gregory Maxey)



일본 가고시마 '규슈기독선교부'의 마크 맥시(Mark G. Maxey) 선교사 가족(1956년경) - 뒷쪽 마크와 폴린(Pauline), 앞쪽 폴라(Paula)와 월터(Walter Mark). 마크 맥시 선교사는 한국을 자주 방문하였고, 젊은 장성만 목사를 발굴하여 그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마크 맥시는 알렉스 빌즈가 장성만에게 깔아준 발판에 날개를 달아준 인물이었다. 맥시 선교사 가족은 1950년 8월 27일 미국에서 배를 타고 9월 12일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하였다. 그들이 일본의 땅 끝 도시 가노야(Kanoya)에 안착한 것은 동년 10월 20일이었고, 그곳에 '규슈기독선교부'(Kyushu Christian Mission)를 세워 사역을 시작하였다.[469]

맥시는 1944년 6월부터 1949년 8월 30일까지 5년간 미육군 군목으로

468) "Young Men," WL, October 1958, Number. 44: 1-2.

469) Mark G. Maxey, "Thumbnail History," LinkLetter, June 1951: 2.

사역하였는데 그 가운데 몇 년은 일본에서 근무하였다. 전쟁 직후 미 군정의 통치로 일본정국이 안정된 1947년에는 전 가족이 일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맥시 부부가 일본에서 선교사역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 것도 그 무렵이었다. 맥시는 선교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1949년 8월 30일 미시건 주 배틀 크리크(Battle Creek)에서 제대하였다. 맥시 가족이 규슈를 선교지로 정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선교사들이 가지 아니한 곳,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서 선교하고 싶다는 것이 그 첫 번째였고, 나중에 미해군항공기지가 있는 가노야에서 군목 폴 쿡(Paul Cook)이 다수의 일본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교회를 시작한 바가 있었다는 소식과 그들로부터 초청을 받고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사역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 그 두 번째였다. 물론 맥시는 그 전에 규슈나 가노야에 가본 일이 전혀 없었다.[470]

맥시가 195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한국에 한 때 일본에서 사역했던 동료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에 도쿄 요츠야선교부에서 잠시 사역했던 해롤드 테일러 가족이 있었다. 또 부산에는 1951년부터 일본 오사카(Osaka)에서 5년간 라디오방송선교를 했던 알렉스 빌즈 가족이 있었다.

둘째는 한국이 선교사들에게는 "추수를 기다리는 지상 최고의 황금들판"(the ripest mission field in the world)으로 알려진 곳이었기 때문이다.[471] 맥시는 "일본에서 한 사람의 개종자는 한국에서 100명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한 영혼을 구하기가 한국에서보다 100배나 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다.[472]

셋째는 한국이 6·25전쟁으로 많이 피폐해 있었기 때문이다. 맥시의 한국에 관한 1951년 반응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나날이 물가가 상승하

---

470) Mark G. Maxey, "1955 Kyushu Report, Summary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Kyushu Christian Mission in Kanoya" LinkLetter, November 1955: 2-3. 이 자료는 맥시 선교사 가족이 미국에서 발간한 첫 안식년 소식지(1955년 6월부터 56년 9월까지)이다.

471) "Korean Work," TC, February 1932: 2.

472) Mark G. Maxey, Linkletter No. 106, November 1959: 1.

고 있어서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473]

넷째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산에서 규슈의 관문인 후쿠오카까지의 거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보다 훨씬 짧다. 밤배를 이용하면 하룻밤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이다.

다섯째는 맥시는 자신이 사역하는 가노야를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나사렛과 같다"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게 멸시당하는 동양의 나사렛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따뜻했던 맥시는 도쿄 요츠야 선교부의 윌리엄 D. 커닝햄과 존 T. 채이스가 그러했듯이, 소외되고 어려운 한국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474]

맥시가 부산을 방문하여 장성만 목사를 최초로 만난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57년 이후이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는 1959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83년 4월에도 맥시는 대만을 거쳐 (장성만 목사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부산, 대전, 서울의 학교들과 사역자들을 만났는데, 그는 장성만 목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장성만 목사 내외는 토요일 오후와 저녁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25년간 친근한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그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써 그가 부산에 세운 대학에서 봄학기 신앙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475]

여기서 맥시가 말한 "25년간"이란 말은 1959년을 말한 것이다. 1959년 5월 2일은 미국 개신교 선교사 존 릭긴스(John Liggins)가 규슈 나가사키 항에 상륙한지 일백 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모두 끝난 후 맥시는 켄터키 주 루이빌에 소재한 성서대학(The College of the Scriptures)의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신의 친형제인 티브스 맥시(Tibbs Maxey)를 오사카성서신학교 교장인 마틴 클라크(Martin Clark)와 상의하여 강의와 설교를 목적으로 한 달간 일본에

---

473) Mark G. Maxey, "Some Questions Answered," Linkletter, June 1951: 4.
474) Mark G. Maxey, "Why Kyushu?" Linkletter: 2..
475) Mark G. Maxey, Linkletter No. 261, May 1983: 1.

초청하였다. 이때 맥시는 친형제 티브스 맥시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에 상주한 해롤드 테일러 가족과 부산에 상주한 알렉스 빌즈 가족을 만나 교제하였다. 이때 맥시는 장성만 목사를 처음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983년 4월은 그때로부터 25년째였다.[476]

맥시는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온 1963년 9월 하순경에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보낸 장성만 목사 소개장에서 1962년 6월 이전까지 부산을 세 차례 다녀왔다고 진술하였다.[477] 이 가운데 한번은 1961년 7월 중하순으로써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 6주간의 집중교육을 마친 장성만 목사와 함께 입국하여 10일간 체류하였다. 대교 교회의 장성만 목사가 그들을 안내하였고 대전에서는 존 힐 선교사 가족의 환대를 받았다. 이 때 25명의 한국인 목사들을 만났고, 부산과 대전에 있는 교회들에서 8번 설교하였다.[478]

이때 빌즈 가족은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보이며, 조와 맥신 세걸키 가족도 1961년 7월에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갔고,[479] 버트 엘리스 가족만 부산에 남아 있었다. 엘리스는 1958년부터 1962년 안식년을 갖기까지 조셉 세걸키와 함께 한국방송밋숀(Korean Broadcasting Mission)을 설립하고 부산문화방송(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여 매일 3년간 전파선교를 하였으며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공부 그룹들을 조직하여 가르쳤다. 엘리스는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하고는 유대관계를 가졌으나 1958년 10월 이후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알렉스 빌즈와 협력했던 장성만 목사하고는 유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480]

맥시가 1962년 6월 이전까지 부산을 방문한 나머지 한 차례는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시점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1960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이후 일본에 상주한 선교사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한

476) Mark G. Maxey, Linkletter No. 103, July 1959: 1-2.
477) Mark G. Maxey, Linkletter No. 134, September 1963: 3.
478) Mark G. Maxey, Linkletter No. 120, September 1961: 1.
479) Richard G. Lash, "Letter #38," Flashes from the Lashes(이하 FL), 3 October 1962: 1.
480) Joe Seggelke, Bert Ellis, "Dear Friends," Korean Broadcasting Mission, Pusan, Korea. 1961: 1-2.

예배당앞에서 담소하는 장성만 목사(26세)와 도쿄 요츠야 선교부의 해롤드 심즈 선교사, 1958년 10월말부터 11월말사이

때는 1950년대 중반부터로 추정된다. 1955년 11월부터 해롤드 테일러 가족이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에 상주하였고, 1957년 한국에 들어온 리차드 래시(Richard G. Lash, 라시득) 가족이 1958년 5월 10일 이후 강릉에 상주하였다. 또 알렉스 빌즈(Verlen Alex and Betty Bills) 가족이 1956년 12월 13일 이후 부산에 상주하였다. 특히 해롤드 테일러는 서울성서신학교를 운영하면서 6주간 집중강의를 도입하였는데,[481] 이 강의의 강사로 일본에 상주한 선교사들을 초빙하여 두 과목을 맡아 가르치게 하였다. 1957년 10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 6주간 집중강의에 요츠야선교부에 소속된 앤드류 패턴(Andrew Patton)이 초빙되었고,[482] 이듬해인 1958년 10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 6주간 집중강의에는 요츠야선교부에 소속되어 태평양 전쟁 직후 도쿄 미카와시마(삼하도)조선인교회를 재건한 해롤드 심즈(Harold Sims)가 초빙되었다.[483] 심즈는 이 기간에 부산을 방문하여 알렉스 빌즈 가족과 장성만 목사와 그의 교회를 방문한 바가 있다. 빌즈는 그들이 함께 찍힌 사진을 「파장」에 게재하였다.[484] 또 알렉스 빌즈 가족이 1961년 새해를 함께 보내기 위

481)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232.

482) Andrew Patton, "Trip to Korea," TC, Winter 1958, vol. 57, No.3: 2; Harold Taylor, "Activities and Ministries," FCK, February 1958: 3. On Oct. 21.

483) TC, Fall 1958, vol. 58, No. 2: 2.

484) WL, December 1958-January 1959, Number. 46: 2.

해서 일본 규슈 가노야에 상주한 맥시 가족을 방문하여 교제하고 몇 차례 설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485] 맥시 가족 또한 빌즈 가족이 있는 부산을 1959년과 60년에 두 차례 방문하여 젊고 유능한 장성만 목사를 만났고, 1961년 일본에 초청하여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 두 차례 6주간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맥시가 장성만을 돕게 된 이유는 세 가지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장성만은 20대의 젊은 목회자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유능함과 지도력을 선교사들 앞에서 십분 발휘하여 확실한 눈도장을 받았기 때문이고, 맥시 또한 젊고 유능한 내국인 사역자 양성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장성만의 비전이 맥시와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비전 때문에 맥시는 오사카성서신학교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였고,[486] 자신도 가노야에 학교(Institute at the Christian Center)를 세워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양성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자립의 기반을 돕겠다는 계획을 1956년에 실행에 옮겼으며,[487]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처럼 자신의 학교에서도 6주간 집중강의 또는 2주간 집중강의를 시행하기도 하였다.[488] 맥시는 도쿄 요츠야선교부에 상주한 해롤드 심즈를 강사로 초빙하기도 하였다. 심즈는 일본어가 능통하였기 때문에 1961년 1월 9일부터 2주 동안 매일 저녁 7시 15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 강의에서 로마서를 일본어로 강의하였다.[489]

둘째, 윌리엄 D. 커닝햄과 마찬가지로 맥시도 한국사정의 어려움과 한국에서의 복음전파력에 주목하였다. 맥시는 장성만 목사와 리차드 래시의 초청을 받고 1966년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였

485) Mark G. Maxey, Linkletter No. 115, January 1961: 1-2.

486) Mark G. Maxey, Linkletter No. 117, April 1961: 1-2.

487) "1955 Kyushu Report, Summary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Kyushu Christian Mission in Kanoya," Linkletter, November 1955: 8. On return(1955년 6월에 시작한 안식년을 끝내고 1956년 9월 일본에 돌아가면), we will start a school to train young men and women for Christian leadership and evangelism, and secondarily, to teach them skills which will help them to be self-supporting. Land for such a school has already been purchased adjacent.

488) Mark G. Maxey, Linkletter No. 109, March 1960: 1.

489) Mark G. Maxey, Linkletter No. 115, January 1961: 2.

는데, 이 방문이 맥시에게 특별했던 것은 한국에서 이뤄진 모든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선교 현장들(부산, 대전, 서울, 강릉)과 현지 선교사들(장성만 가족, 리차드 래시 가족, 존 힐 가족, 최순국, 최윤권, 해롤드 테일러 가족)과 그들이 세운 대학들(동서기독실업대학, 한국성서신학교, 대한기독교신학교, 서울성서신학교)과 다수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강연들과 설교들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때의 소감을 맥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이즈음 매우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 나라는 일본의 서쪽 인근의 이웃나라 한국이다. 한국은 매우 늦게 출발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수준에 도달할 희망은 아직은 수년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믿음에 관한 한 한국은 숫자와 열정이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갖는다. 그들과의 친교는 정말 신나는 경험으로써 나는 그 같은 것을 다시 경험할 기회를 항상 고대한다.[490]

이 같은 이유로 맥시는 자주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1965년 가을에는 신시내티성경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의 신약학 교수 루이스 포스터 교수(Lewis Foster)를 일본에 초청하여 함께 한국을 방문하였다.[491] 포스터 교수는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석사와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약학 석학으로서 영어성경 NIV[신국제개역]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였고, NIV주석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주석을 쓴 학자였다. 맥시로서는 자신의 주선으로 미국에 건너가 석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와 본국에서 성실히 일하는 일본 규슈 가노야교회의 히데오 요시이 목사와 부산에 1965년 2월 1일 영남기독교실업학교를 개교시킨 대교 교회의 장성만 목사를 포스터 교수에게 내보이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반면에 포스터 교수로서는 자신이 가르친 히데오 요시이 목사와 장성만 목사가 미국에 남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 성실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는 만족감이 충만했으리라 추정된다. 또 맥시는 1969년 3월말

---

490) Mark G. Maxey, Linkletter No. 164, November 1966: 1.

491) Mark G. Maxey, Linkletter No. 150, July 1966: 1-2. 포스터 교수는 장성만 목사와 필자의 은사였다.

에도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성서신학교에서 특강과 설교를 하였다. 제인 힐 선교사의 1969년 5월자 사신에 의하면 맥시는 이 방문 때 22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492] 또 힐 요한 선교사가 유물로 남긴 사진들에 의하면, 맥시 부부(Mark and Pauline Maxey)는 아홉 살 된 막내딸 호프(Hope Maxey, 1960년 10월 4일생)를 한국에 데려온 것을 볼 수 있다. 맥시 선교사 가족은 부산실업전문학교가 정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고 신입생 120명을 모집한 1971년 봄학기 신앙수련회에 초청을 받아 재학생 55명까지 포함한 전교생 175명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였는데, 이때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여명이 넘었다.[493] 맥시는 이후로도 자주 대학신앙수련회 등에 초청강사로 방문하였다.

셋째, 맥시는 이미 히데오 요시이(Hedeo Yoshii)라는 젊고 유능한 목회자를 돕고 키우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학습을 받았기 때문이다. 히데오 요시이와 장성만은 1932년 동갑으로써 미국에 유학하기까지 각각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과 복음에의 사명감을 스스로 입증한 유능한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맥시는 이 두 사람을 미국에 보냈다. 그러나 이전 세대들 곧 선배 선교사들이 경험했던 실패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유학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였고, 길어도 1년 반을 넘기지 않도록 하였다.[494] 이 일에 맥시는 성공했고, 무엇보다 장성만 목사의 상상을 초월한 성공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맥시는 1959년 7월 선교사로서 첫 결혼식 주례이자 장대비가 쏟아지는 우중에 치른 히데오 요시이의 결혼식을 마친 소감을 다음과 같이 썼다.

> 그렇게 우리는 초창기 개종자들이 성숙해지고 결혼하며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무튼 미래를 위한 희망이 보인다.[495]

---

492) Mark G. Maxey, Linkletter No. 183, April 1969: 1-2; 조동호, 『힐 요한 선교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 55-56.

493) Richard G. Lash, Letter #81, FL, 1 May 1971: 3.

494) Mark G. Maxey, Linkletter No. 118, June 1961: 4. 필자는 히데오 요시이 목사의 장남 마코토(구마모토 현립대학 영어영미문학과 과장교수)와 신시내티성서신학교에서 4년간 함께 석사과정을 밟았다.

495) Mark G. Maxey, Linkletter No. 103, July 1959: 2.

(4) 일본과 미국에서 신학 수학

① 일본 유학

일본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 교장 마틴 클라크 (Martin B. Clark)와 함께 촬영한 사진

장성만 목사의 일본 유학기간은 짧았다. 그는, 1961년에 오사카성서신학교에 편입학하였는데, 그해에 3개월짜리 비자를 가까스로 두 차례 정도 받아 두 학기 곧 6주간 집중강의에 두 차례 참석하고서 졸업장을 받았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6주간 집중강의는 서울성서신학교에서뿐 아니라,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도 이뤄진 일종의 관행이었고, 맥시 본인도 가노야에서 운영한 학교(Institute at the Christian Center)에서 6주간 집중강의를 하곤 하였다.[496] 강사초빙문제와 학생들의 경제적 형편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는 한국은 물론 일본도 경제적으로 어렵던 때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정기간 생활비를 벌어야했고, 선교사들과 내국인 목회자도 연중 내내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또 교통도 나빠 먼 길을 매주 오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장성만 목사의 유학 비자를 받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맥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1961년 5월 말에 장성만 목사가 일본의 우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한국 최남단 부산에 소재한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496) Mark G. Maxey, Linkletter No. 109, March 1960: 1.

그는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 6개월 방문비자를 받고자 했습니다. 해롤드 심즈와 내가 편지들을 쓰고, 서류들을 작성하였으며, 공무원들을 찾아가 "그림의 떡처럼 그럴싸한"("pie in the sky") 약속을 하고 나서야 그에게 3개월 체류비자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관계는 신약성경시대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하여 상대하지 않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497]

이 점에 대해서 장성만 목사도 "당시 한일외교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비자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맥시 선교사는 수십 번 일본 법무성을 찾아가 비자발급을 요청했다. 규슈에서 도쿄를 오가며 보낸 시간만 해도 엄청난 것이었다."고 했다[498].

일본 규슈 섬 가노야 선교센터를 방문하여 맥시 가족과 함께 촬영한 사진

맥시는 이어서 입국비자를 받은 장성만 목사가 일본 규슈 섬 가노야 선교센터를 방문하여 주변의 교회들뿐 아니라, 폴 프랫트(Paul Pratt) 선교사가 상주한 가고시마 지역의 교회들까지 방문하여 설교하였다고 적었다. 장 목사는 그리스도뿐 아니라 공산주의가 그리스도교와 세계에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맥시는 일본이 공산주의라는 일촉즉발의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일본인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지성들은 미국을 멀리하고 소련에 기울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맥시는 장 목사가 이 방문을 끝내고 6주간의 집중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사카로 갔고, 오사카와 도쿄에 주재한 선교사들과 목사들 및 일본인 지도자들을 방문하였으며, 자기 가족은 한국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499]

---

497) Mark G. Maxey, Linkletter No. 119, July 1961: 2.
498) '역경의 열매(4),' 2009년 4월 9일자.
499) *Ibid.*

이 여행에서 장목사가 일본에 체류한 기간은 한 달 반 정도로 추정된다. 6주간의 학업을 마친 직후 맥시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맥시 가족은 1961년 7월 중순경에 한국을 방문하여 10일 정도 체류하였다. 대교 교회의 장성만 목사가 그들을 안내하였고 대전에서는 존 힐 선교사 가족의 환대를 받았다.[500]

장 목사는 그해 일본 그리스도인 대회 기간이었던 3월 31일에 헌당 예배를 드린 새로 지은 건물에서 수업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교장은 마틴 클라크(Martin B. Clark)였다.[501]

장성만 목사는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여러 지역을 여행할 비용을 마련하는 행운을 얻었다. 데이비스 선교사의 초청으로 나고야에 갔을 때 역에서 내려 선교사 부부와 함께 한 음식점에 들렀는데, 때마침 그 음식점에서 개업 2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장성만이 경품추첨에 뽑혀 대형 냉장고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장성만은 그 냉장고를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였고,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대표적인 소설가 7인을 방문해 취재기를 작성하였다. 이 취재기를 바탕으로 '일본 대표 작가 회견기'라는 글을 써서 「부산국제신문」에 실었고, 나중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기행문을 신문에 연재하였다.[502]

② 미국 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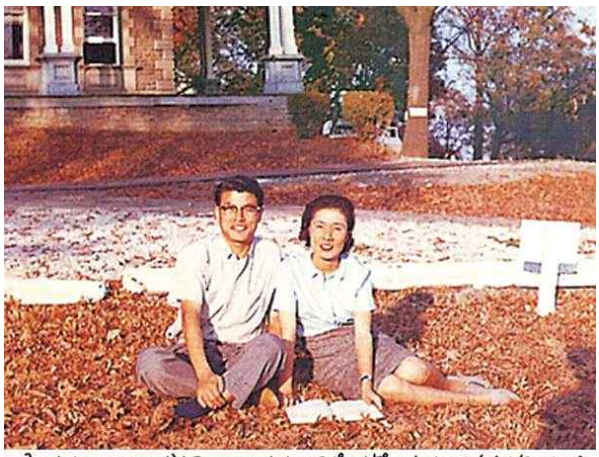
장성만 목사에게 미국 유학의 길이 열린 것은 동갑내기 히데오 요시이 목사의 탓도 있다. 맥시는 히데오 요시이 목사를 1961년 8월에 미국에 보낼 때의 방법과 경험을 그대로 살려 만 2년 후인 1963년에 장성만 목사를 미국에 보냈다.

맥시는 1961년에 장성만 목사를 일본 오사카성서신학교에 편입시켜 일 년간 공부하게 하고, 히데오 요시이 목사는 미국 신시내티성서신학

500) Mark G. Maxey, Linkletter No. 120, September 1961: 1; Linkletter No. 121, December 1961: 1.

501) Mark G. Maxey, Linkletter No. 117, April 1961: 1.

502) '역경의 열매(5),' 2009년 4월 10일자.


미국 신시내티성서신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을 당시의 모습(1963-4년). 이곳에서 장성만 목사는 신학을, 박종순 사모는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였다.

교로 보내 1년간 석사과정을 밟게 하였다.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요시이가 장성만보다 1년 먼저 1948년에, 장성만은 1949년에 침례를 받았다. 요시이는 영어를 잘해서 아직 고등학생 때인 1950년부터 맥시를 도왔고, 장성만은 20대 중반이었던 1957년부터 알렉스 빌즈를 도왔다. 신학교에 입학한 시기는 장성만이 요시이보다 1년 빨랐고 1953년 1월에 개척함으로써 단독목회도 요시이보다 일찍 시작하였다. 다만 요시이는 오사카성서신학교에 입학한 1951년 4월부터 그해에 개척된 교회를 1959년 4월까지 8년간 봉사하였다. 신학교는 1956년에 졸업하였다. 1959년 5월부터는 맥시 선교사 가족이 상주한 가노야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2017년 7월 30일 만 84세로 별세하기까지 섬겼다.[503] 장성만 목사는 2015년 12월 6일 만 83세로 별세하였다. 히데오 요시이 목사보다 미국에는 2년 늦게 갔는데, 천국은 그보다 2년 먼저 갔다. 요시이 목사는 평생 가노야 교회를 섬기면서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반면, 장성만 목사는 평생 대교교회를 섬기면서 세 개의 대학교를 세우고 운영하였으며,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하였다.

요시이 목사는 맥시 선교사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어렵게 미국유학비자를 받고 1961년 8월 3일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504] 맥시는 히데오 요시이 목사의 미국입국비자를 받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였다.[505] 이 점에 있어서는 장성만 목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맥시

503) Mark G. Maxey, Linkletter No. 118, June 1961: 1-2; Vol 48_2, "Summer-Winter 2017," News Letter of the Kagoshima Christian Mission.

504) Mark G. Maxey, Linkletter No. 121, December 1961: 1.

는 미국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온 직후인 1963년 9월 하순경에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발송한 장성만 목사를 위한 추천서 내용에서 미국입국비자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기술하였다.

> 그 같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와 더불어 유학 비자를 받아내기까지 한 해 동안 좌절을 맛보며 두 정부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관료주의와 싸우며, 서신들을 주고받았습니다.[506]

맥시 선교사 가족은 히데오 요시이 목사가 1961년 8월부터 1962년 6월까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한 직후 1962년 6월부터 미국에서 안식년 일정을 소화한 후 1963년 9월 14일 일본 가노야 선교센터에 귀착하였다.[507] 그리고 수일 후 맥시 선교사는 안식년을 소화한 일정을 정리한 글과 함께 장성만 목사를 위한 별지 추천서를[508]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발송하였다. 맥시 선교사는 1964년 1월 서신에서도 장성만 목사의 결혼소식을 알리면서 장성만을 교회에 연사로 초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509] 맥시 선교사의 강력한 추천 덕분에 장성만 목사는 미국 유학시절 분주하게 많은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 자신의 비전을 밝힐 수 있었다.

(5) 교회(혹은 선교) 확장으로서 교육사업

① 리차드 래쉬(Richard Glenn Lash, 라시득) 선교사와의 만남

---

505) Mark G. Maxey, Linkletter No. 119, July 1961: 1.

506) Mark G. Maxey, "Introducing Shung Man Chang of Korea," Linkletter, September 1963: 3.

507) Mark G. Maxey, Linkletter No. 121, December 1961: 1; Linkletter No. 134, September 1963: 1-2.

508) Mark G. Maxey, "Introducing Shung Man Chang of Korea," Linkletter, n.d.: 1과 장성만 목사가 직접 쓴 별지 자기 소개서: Mark G. Maxey, "Introducing Shung Man Chang of Korea," Linkletter, September 1963: 4.

509) Mark G. Maxey, Linkletter No. 136, January 1964: 2.

래쉬 선교사 가족
좌측부터 리처드(Dick Lash), 돈(Dawn),
도로시(Dorothy), 멜바(Melba), 1957년 이전

래쉬 선교사 가족은 해롤드 테일러의 권유로 1957년 6월 24일 입국하여 '기독교회선교부'의 선교사역에 참여하였다. 그는 약 1년간 서울에 머물면서 서울성서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1958년 5월 10일 선교지를 강릉으로 옮겼고, 8월부터 강릉시 옥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래쉬 가족이 부산을 방문한 첫 사례는 1957년 6월 24일 부산항에 내렸을 때이다. 그들은 빌즈의 집에서 이틀간 머물렀는데 그때 장성만 목사를 처음 봤을 수 있다.[510] 그리고 이듬해인 1958년 1월 9일 부산 광안리 해변의 인근 부지에서 라디오 방송국 건립 기공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장성만 목사는 물론이고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에서 사역하던 리차드 래쉬 선교사 가족도 참석하였다.[511] 또 래쉬 가족은 1961년 3월 10일에 시작된 안식년을 마치고 1962년 10월 22일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이때 방송국 식구들이 마중을 나갔고, 부산에서 이틀간 체류하였으므로 이때 또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래쉬 가족의 짐이 다음 배에 실렸기 때문에 짐을 찾기 위해서 다시 부산을 방문하였으므로 이때 다시 장성만 목사를 만났을 수 있다.[512] 이 몇 번의 짧은 만남만으로도 래쉬 선교사는 장성만 목사가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젊은이란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다. 이런 확신 때문에 래쉬는 장성만 목사를 1963년 2월말에 강릉지역의 부흥강사로 초빙하게 되고, 이 부흥회 때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알게 되는 극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

510) "First Word from the Lashes," FCK, September 1957: 1.

511) V. Alex Bills, "Ground Breaking," WL, February 1958, Number. 37: 1.

512) Richard G. Lash, "Letter #39," FL, 23 November 1962: 2; "Letter #30," 10 February 1961: 1; "Letter #31," 30 March 1961: 1.

었다. 다음의 글은 래쉬가 부흥회 강사초빙 전에 이미 벌써 장성만 목사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지난 가을 우리는 춘계전도부흥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흥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거의 알지 못했지만 2월말과 3월초 곧 한파가 끝나가고 농번기가 닥치기 전 농한기에 열기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강사로는 부산의 장성만을 초빙하였습니다. 부산의 장은 30세가량 된 젊은이입니다. 그는 사각턱형의 잘생긴 친구로서 자신이 확고히 세운 신념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넘치고 틀림없습니다. 그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가 쓴 첫 번째 책은 1,000부가 인쇄되었는데 20일 만에 다 팔렸습니다. 두 번째 책도 요사이에 출판되었습니다. 부산지역 신문들에 실린 그의 칼럼은 인기리에 읽히고, 그의 집에 찾아오는 친구들 중에는 부산시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강사로 초빙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집회가 뜨거울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513]

래쉬는 이 부흥회가 2월 25일(월)부터 3월 3일(일)까지 있었고 성공적이어서 기대감을 최고조로 충족시켰다고 피력하였다. 참석자도 지난 부흥회 때보다 남자들이 배나 더 많았고, 심지어는 여자들보다 더 많았다고 전했다.[514] 다음의 글은 래쉬 선교사가 전하는 장성만 목사에 관한 영웅담이다.

> 장 목사는 다음 날 부산에서 왔는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복덩이란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아침식사 전 기도회(1 시간)와 점심식사 전 사경회(1시간 반)를 인도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풍부하고 실용적인 공부와 묵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정에 달한 것은 저녁집회였습니다. 강사로서 그는 탁월합니다. 그의 설교는 극적이고 유머러스하고 표현력이 뛰어나고 흥미로워서 그가 말하는 한 시간 내내 그는 있지도 않은 좌석 가장자리에 군중을 붙들어둘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평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어린애들까지도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스릴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복음은 우리 마을 전체에서 가장 신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밀착'(scoots)의 빈도로 군

513) Richard G. Lash, "Letter #40," **FL**, 20 February 1963: 3-4.
514) Richard G. Lash, "Letter #41," FL, 4 April 1963: 1.

> 중의 밀도를 측정합니다. 밀착이란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한 뒷자리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당겨 앉으라고 요구하는 횟수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약 150명 수용) 더 이상 밀착할 수가 없었고 탁구장까지 넘치게 찼습니다. 강릉에서 집회를 마친 후 주문진에서도 3일 밤 동안 집회가 속개되었는데 나는 한번은 한 불쌍한 사람의 처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예배당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지만, 그는 틈에 자리하게 되었고, 발은 돌아선 채였으며, 얼굴은 뒷벽을 향하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태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했습니다. 돌아앉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어깨 너머로 보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즐기는 듯싶었습니다. 나는 처음 이틀 밤 집회에 몇몇 가족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트럭으로 데려오고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번은 우리의 3/4톤 픽업트럭에 27명을 태운 적도 있습니다. (내가 이 픽업봉사를 시작한 것은 12마일 떨어진 주문진에 사는 세 명의 젊은이들이 남자들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녁도 거른 채, 버스를 탈 20센트가 없어서 그렇게 먼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515]

이 부흥집회는 일요일 오후 강릉에서 안수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최(종묵?)는 집사로, 김 집사는 장로로 장립되었고, 침례 받을 사람이 강릉에 6명, 주문진에 8명이 있었다. 장 목사는 3월 6일 비행기로 부산으로 돌아갔다. 그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공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516]

② 래쉬 선교사와 함께 한 부산에서의 교육사업

래쉬는 강릉에서 선교사역의 한계, 두 딸의 교육문제, 부산에서 함께 일하자는 장성만 목사의 지속적 권유로[517] 이삿짐을 픽업트럭에 실고 1963년 11월 1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출발해서 임대한 부산의 집에 다음 날 오후 2시에 도착하여 짐을 풀었다.[518] 부산으로 옮긴 후 1964년부터 강릉과 대전의 한국성서신학교를 오가며 사역하였다. 때마침 존 힐 선교사 가족은 세계여행 겸 교사(校舍) 건축모금을 위해서 1964년

515) Richard G. Lash, "Letter #41," FL, 4 April 1963: 2.
516) *Ibid.*
517) Richard G. Lash, "Letter #44," FL, 20 November 1963: 1-4.
518) Richard G. Lash, "Letter #44," FL, 20 November 1963: 1-3.

6월 초에 시작한 안식년으로 비운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한국성서신학교를 오가다가 2학기부터 출강하였고, 1965년 봄 학기에는 한주 걸러 이틀씩 출강하였다. 1964년부터 일 년에 두 차례씩 있었던 졸업식에도 대부분 참석하였다. 1964년 12월, 1966년 12월, 1971년 6월 한국성서신학교 졸업식 사진에서 리차드 래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967년 1월부터는 안식년을 가졌다.[519] 아래의 글은 그가 부산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밝힌 것이다.

> 장 목사는 부흥강사로 강릉에 왔을 때 그가 우리에게 고향인 부산지역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강릉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크고 더러운 항구 도시 부산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도시의 분주하고 소란스러움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취향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또 나는 5월에 부산에서 열린 컨벤션에 참석했을 때 장과 나는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의 책무는 크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곳에서 우리 일의 전망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만큼이나 우리가 해야 한다고 느꼈던 것만큼 우리 앞에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루었습니다. 장은 일 년간 유학을 떠났고, 지금 신시내티성서신학교에서 바쁘게 지냅니다. 우리는 그의 귀국 전까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그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520]

장성만 목사는 신시내티성서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동서기독교교육재단(Christian Education for Far East)을[521] 만들어 1964년 늦은 여름 입국하였다. 장성만 목사는 이 재단 설립의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나는 미국 여러 교회를 다니며 메시지를 전했다. "나는 한국에 기술대학을 설립할 것이다.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 여러분의 기도

519) Richard G. Lash, "Letter #46," FL, 4 June 1964: 4; "Letter #48," 2 December 1964: 2; "Letter #50," 24 April 1965: 2.

520) Richard G. Lash, "Letter #44," FL, 20 November 1963: 1.

521) "Far East"가 '극동'이란 뜻이지만, 장성만 목사 본인에게는 '동서'를 뜻했다.

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은 곳곳에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크고 비밀스런 것을 준비하신 것이다. 사업가인 웰렌 밀러는 내게 결정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주었다. "장 목사, 너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재단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모금을 해서 너를 돕겠다. 아주 좋은 멤버들을 소개하겠다." 즉시 재단이 구성됐다. 윌리엄 홀 목사가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대학원 동기인 쉬퍼드 목사 부부, GM의 중역인 로버트 레슬리 부부와 밀러씨가 이사로 참여했다. 독신 여성 우체국장인 알리스 레이버거는 재정 담당을 자처하고 나섰다. 실로 황금멤버였다.[522]

1965년 2월 1일 개교한 '영남기독교실업학교'
개교 첫 해에 19명이 입학하여 2년 후 14명이 졸업하였다.

래쉬는 한국에 돌아온 장성만 목사와 많은 꿈과 생각과 의견을 나눈 후 결국 11월 19일 중요한 결심에 도달했다고 했다. 그 결심은 이듬해 봄 2월에 부산에 영남기독교실업학교(Christian Workers Training Institute)를 개교하는 것이라고 했다.[523]

1965년 2월 2일(화요일, 설날)자 래쉬의 서신에 의하면, 2월 1일에 '영남기독교실업학교'(Christian Worker's Training Institute)가 개소되었다고 썼다. 1월 30일 토요일에 입학시험과 면접이 있었고, 20명 모집에 33명이 지원하였다. 31일 주일에 부산시내 교회에서 특별감사예배가 드려졌고, 2월 1일 월요일에 입학생 19명의 개강예배가 있었다. 이때의 모토는 "성경과 보습을 들고!"(Take up the Scriptures and a spade!)였다. 강의는 1964년 가을에 임대해 놓은, 한때 교실로 사용됐던 그래서 책걸상과 칠판들이 모두 구비된, 건물의 사무실과 큰 홀을 빌려[524] 수요일 3일부터 시작되었다. 2일이 설날이었기 때문이다. 수업

522) '역경의 열매(10),' 2009년 4월 16일자.
523) Richard G. Lash, "Letter #48," FL, 2 December 1964: 2.

방식은 오전에 신학교 커리큘럼의 과목들을 가르쳤고, 오후에는 농장에서 농업실습을 하였다. 농장의 첫 프로젝트는 돼지사육이었고, 나중에 염소와 젖소도 들여왔다.[525] 장성만 목사와 래쉬 선교사는 계간지 「로고스」(LOGOS)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었고, 개교한 1965년부터는 월간지로 바꿨다.[526]

1965년 11월 20일 장성만 목사 부부와 래쉬 선교사 부부가 이층건물 '알파 홀' 건축을 위해 첫 삽을 뜨는 기공식 장면

같은 해 11월 20일에는 부산시 변두리(당시는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부락)에 땅을 매입하여 이층건물 '알파 홀'(1971년에 래쉬 기념관으로 변경)을 건축하는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1966년 4월 2일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동서기독교실업학교(Far East Christian Vocational College)로 개명하였다. 또 1966년 동 실업학교 강당에 세운 대학교회와 진영 그리스도의 교회 등을 설립하였다.

장성만 목사는 4개월의 노력 끝에 여권과 미국방문비자를 받아 1969년 8월 하순에 6개월간 체류하면서 대학을 홍보할 목적으로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로 건너갔다.[527] 이때 만든 홍보지를 보면 1965년부터 1970년까지, 곧 개교 후 부산실업전문학교로 정부인가를 받기 전까지 만 5년간의 학교운영의 목표와 모토는 분명했다. 그것은 설교자와 농업기술을 익힌 평신도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었고, 특히 농촌목회자가 자립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가르치는데

524) 장성만 목사는 이 건물이 동래 온천장의 2층 건물이었다고 말했다.
525) Richard G. Lash, "Letter #49," FL, 2 February 1965: 1.
526) Richard G. Lash, "Letter #49," FL, 2 February 1965: 2.
527) Richard G. Lash, "Letter #73," FL, 25 August 1969: 1.

있었다. 따라서 2년 과정의 교육의 초점을 성경교육과 농업교육에 두었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을 "농촌의 복음화와 근대화," 대학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노동의 존엄성"을 가르치는데 두었다(trying to teach two things – the blessedness of the Word of God and the dignity of labor). 대학의 모토는 "한 손에 성경을, 다른 손에 보습을 들자!(Take up the Bible in one hand and a shovel in the other.)였다. 또 1969년 미국에서의 모금홍보지에 의하면, 동서기독교실업학교(Far East Christian Vocational College) 졸업생 44명 가운데 목사 8명(19%), 그리스도인 농부 11명(26%), 주부 및 가사보조 9명(20%), 입대자 6명(14%), 진학자 2명(4%), 교사 2명(6%), 그리스도인 일군 5명(11%)라고 소개하였다.

또 이 홍보지에 실린 장성만 목사에 관한 내용을 보면, 1932년 11월 2일 부산에서 출생, 1953-1963년까지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1965년부터는 부산 제일 그리스도(인)의 교회 목사, 동서기독교실업학교 교장이라고 소개했고, 또 『일본에 관한 에세이』, 『상한 갈대』(The Bruised Reed), 『하나님과 국가』, 『씨앗을 심는 자』」를 저술한 신약성경 믿음의 저자라고 했으며, 동아대, 영남성서신학교(Youngnam Bible Institute), 오사카성서신학교(Osaka Bible Seminary), 신시내티성서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 수학이라고 학력을 적었다.

박동순 사모에 관한 내용을 보면, 1939년 8월 30일 울산에서 출생, 이화여자대학교와 신시내티성서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 수학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1963년에 워싱턴 D.C.에서 결혼했다는 것과 세 자녀 미국(5살, 제국, 현 동서대학교 총장), 미영(4살), 제원(2살, 현 국회의원)의 이름도 소개하였다.

래쉬 선교사는 앞서 소개한바 대로 장성만 목사 개인의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장은 엄청나게 강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언제나 기관(학교)의 꿈이었고, 추진력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조력자였을 뿐입니다."라고 했다.[528] 래쉬는 또 박동순 사모와 그의 가족들, 곧 장성만 목사의 처가 식구들의 영향력에 대

528) Richard G. Lash, "Letter #81," FL, 1 May 1971: 2.

해서도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교회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장이 아내로 맞은 처가의 친척인 것 같습니다. 처남이 우리들에게 주변을 보여주고 도시의 다양한 랜드 마크들 -- 고등학교, 또 한분의 친척이 도시의 초대 시장이었던 시기에 한 조상이 기증 한 토지, 또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이끌다가 일본인에게 살해된 그의 할아버지의 기념비를 보여주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박 형제는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며, 미국에서 다년간 교육을 받은 대학교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억누를 수없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낙천적이고 무사태평한 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우리 아이들과 동년배인 자녀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명목상의 신자였지만, 최근에 와서야 그의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담배를 끊고 부지런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는 부산교회에서 장로에 장립되었습니다. 1월 3일에 이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었고, 공중목욕탕에서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을 사람이 7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4명이 박 장로가 전도한 동료 대학교수들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전직 학장이자 어린 시절 친구였으며, 장 목사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다른 두 명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공입니다.[529]

이 글에서 래쉬가 소개한 장성만 목사의 손위(7세 정도) 처남 박 장로는 박동화 박사로서 부산수산대학 교수를 거쳐 통영(統營)수산전문대 학장 및 창원대 총장(1987-91)을 지낸 인물이다. 1970년 5월 28일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인가 및 부산실업전문학교 예비 인가가 났을 때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2011년 5월 7일 향년 86세의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장성만 목사는 처가 식구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가 있다.

> 장인 박정수씨는 오랜 판사생활을 거쳐 부산시 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장모 최정선 권사는 부산YWCA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었다.[530]
>
> 1963년 성탄절은 축복의 절기였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DC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김운용·박동숙씨 부부가 살고 있었다. 김운용씨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태권도의 세계화에 기여한 국제적 인물이다. 당시 그는 주미 대사관 참사관으

529) Richard G. Lash, "Letter #49," FL, 2 February 1965: 2.
530) '역경의 열매(7),' 2009년 4월 13일자.

로 근무하고 있었다. 박동숙씨는 아내의 바로 윗 언니다. 처가는 1남5녀인데, 모두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장녀 동춘씨는 교사이고, 둘째 동근씨는 한신대 이장식 교수의 아내다. 3녀 동숙씨는 김운용씨, 4녀 동순은 나와 결혼했다. 5녀 동혜씨는 언론인 장주석씨의 아내다. 장남 동화씨는 창원대 총장을 지냈다.[531]

③ 부산실업전문학교 정부인가와 래쉬 선교사의 은퇴

장성만 목사 부부가 학교법인 동서학원 '부산실업전문학교' 예비인가(1970년 5월 28일)를 받은 후 현판식을 하는 장면

1970년 전문학교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 인가된 학교의 이름은 부산실업전문학교였다. 장성만 목사는 인가 직후 신입생 80명 모집에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했지만,[532] 이 숫자는 인터뷰를 받아 적은 기자의 실수였거나 이후 대학의 경쟁률이 피크에 도달했던 때를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래쉬는 승인된 입학정원이 120명이었고, 입학시험이 있었던 날은 1971년 2월 15일 월요일이었으며, 시험을 치른 인원은 279명이었다고 적었다.[533] 실제로는 2.3대 1정도였던 것이다.

정부로부터 120명 입학정원의 승인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한 것은 1970년 6월 1일이었다. 장성만 목사는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을 36번 왕래했다고[534] 말한 반면, 래쉬는 5년간 24번이라고 썼다. 래쉬는 이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 우리는 우리 학교가 신청한 정부인가가 승인됐다는 공식통보를 6월 1일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531) '역경의 열매(10),' 2009년 4월 16일자.
532) '역경의 열매(14),' 2009년 4월 21일자.
533) Richard G. Lash, "Letter #80," FL, 18 February 1971: 1.
534) '역경의 열매(11),' 2009년 4월 17일자.

> 학생모집에 유리한 '입장'이 된다는 것과 우리가 수용시설을 갖추는 때부터 정부가 승인한 입학정원 120명을 해마다 모집할 수가 있고, 우리학교가 2년제이므로 등록학생을 24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축해야할 교사와 시설규정을 충족시키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학생회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2년 안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야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진을 위해 내딛는 큰 걸음이자 매우 감사해야할 일입니다.
>
> 또한 그것은 매우 긴 투쟁의 끝입니다. 장 목사는 그 일의 대부분을 수행해 왔고, 나는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내가 시도해볼 믿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을 성취해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정부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은 미국에서 받아내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5년간 24번이나 부산과 서울을 오간 고생과 그 일에 돈이 얼마나 쓰였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 나는 기쁠 뿐입니다.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다하자면 너무 많은 용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535]

래쉬는 11월 26일자 서신에서 인가난 정원과 재학생까지 200여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한 동 더 짓고 신구 건물의 페인트칠도 새로 하고 캠퍼스 조경도 모두 마쳐 보기에 좋게 되었다고 썼다.[536]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에 관해서만큼은 장성만 목사와 래쉬 선교사간의 입장차가 분명했던 것 같다. 래쉬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무인가로 운영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장성만 목사는 "인가를 받지 않으면 졸업생들의 취업이 어렵다.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무인가로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1969년 8월 25일자 서신에서 래쉬는 장성만 목사가 6개월 기한으로 미국으로 대학홍보를 위해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글을 첨부하였다.

> 학교 운영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닌 그 한 가지 곧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개종시키고 교회의 성장을 장려하는 목표에 한 수단이기를 중단한다면,

---

535) Richard G. Lash, "Letter #77," FL, 25 June 1970: 4. 이 서신을 쓰기 시작한 날은 6월 25일이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추신을 붙인 날짜는 7월 3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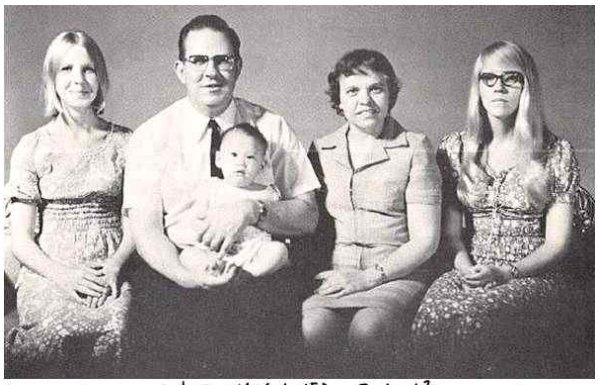
536) Richard G. Lash, "Letter #79," FL, 26 November 1970: 1.

> 우리는 지금까지 문을 닫는 것이 더 좋겠다는 우리의 요청을 놓쳐온 것일 것입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지도자들인 우리에게 필요한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기도해주십시오.[537]

리차드 래쉬의 고민이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독립교회들)은 교단(연합그리스도인선교회, 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과 33개가량의 훌륭한 대학(교)들을 자유주의신학(자들)에게 통째로 빼앗긴 쓰라린 경험(trauma)을 갖고 있었고, 그 같은 함정에 다시는 빠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오직 성경과 복음'으로 강하게 표출되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중반에 새로 세워진 30-40여개의 대학들의 이름이 대부분 'Bible College'들이었고, 몇 개만이 'Christian College'들이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선교지가 자유주의신학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랐고, 그래서 대학개편에 매우 소극적이었거나 부정적이었다.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기독교회선교부 신학교를 송월동에서 역촌동의 너른 캠퍼스(서울성서신학교)로 옮겨 정부인가를 받으려했다가 포기(또는 반대에 부딪친)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또 선교사들은 내국인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는 일에도 소극적이었거나 부정적이었다. 맥시 선교사에게서 보았듯이, 1900년대의 선교사들은 내국인 젊은이들을 주선해서 미국의 대학(교)들에 보내면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정착해버리는 또 다른 안 좋은 경험에 익숙해 있었다. 선교사들이 인재 키우는 일에 소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반면에 장성만 목사(경남정보대학), 최윤권 목사(대한기독교신학교), 김찬영 목사(한성신학교)에게서 보듯이, 내국인들은 정부인가와 대학개편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아무튼 래쉬 선교사는 장성만 목사를 지극히 존경했고, 그를 헌신적으로 도왔지만, 학교의 발전과 함께 찾아올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의 문제, 곧 신학교 커리큘럼으로 시작은 했지만 정작 신학교는 아닌 농업을 가르치는 실업학교가 앞으로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길과 선교사인 자신이 가야할 길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다른 이유들이 더해져 그는 결국 한국에서의

537) Richard G. Lash, "Letter #73," FL, 25 August 1969: 2.



리차드 래쉬(라시득) 선교사 가족
좌측부터 돈(Dawn), 리차드(Richard), 케빈(Kevin), 멜바(Melba), 도로시(Dorothy). 1971년 8월 31일 부산을 떠나기 이틀전 사진

선교를 접고 미국으로 아주 떠나기로 결심하였는데, 그 시기가 바로 학교가 정부 인가를 얻고 학생들이 몰려오는 시점 곧 자신이 빠져도 학교의 자립과 발전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바로 그 시기였던 것이다.

래쉬는 1971년 5월 1일자 서신에서 재학생을 포함해서 등록한 학생수가 175명이라고 했고, 장성만 학장은 정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또 다시 서울과 부산을 오가고 있다고 했다. 그해 춘계 신앙수련회 때 마크 맥시 선교사가 강사로 초빙되었는데, 침례를 받은 인원이 30명 이상이었다고도 했다. 이때 래쉬는 자신의 결심을 마크 맥시 선교사하고 의논했을 것이고, 맥시는 이때 자신의 모교에서 선교학 교수를 구한다는 소식을 래쉬에게 귀띔해준 것으로 보인다.[538]

래쉬 선교사는 자신과 가족이 15년간의 한국 사역을 끝내고 8월경에 한국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선언하게 된 이유를 "학교 인가(승인)가 생각보다 빨리 났고, 따라서 입학정원의 증가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수입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졌으며,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제한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발전하는 학교에 남아 그 공을 함께 누릴 수 있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자신보다 더 유능한 인물이 자기가 차지한 자리에 대신 설 수 있도록 자신이 빠져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적었다.[539]

래쉬는 두 차례 안식년을 가진 햇수를 제외하면 4년씩 세 차례 총 12년간 사역하였다. 학교에서의 송별예배는 1971년 7월 15일에 있었다.

---

538) Richard G. Lash, "Letter #83," FL, 11 October 1971: 2.
539) Richard G. Lash, "Letter #81," FL, 1 May 1971: 1-4.

1971년 7월 15일 래쉬 선교사 가족을 위한 송별예배 직후에 장성만 목사는 1966년에 건축된 '알파 홀'을 '래쉬 기념관'으로 바꾼 현판과 벽면에 래쉬 선교사의 미소 띤 얼굴을 부조한 동판을 깜짝 공개함으로써 래쉬 선교사의 노고에 보답하였다.

이때 장성만 목사는 래쉬 목사에게 깜짝 선물을 선사했는데, 그것은 1966년에 지은 첫 번째 건물의 이름을 '알파 홀'에서 '래쉬 기념관'으로 바꾸고, 건물 벽면에 래쉬의 미소 띤 얼굴의 동판부조를 부착한 것이었다.[540] 이때 장성만 목사의 나이는 39살이었다.

장성만은, 비록 화려한 학력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온 재원의 마음을 사로잡을만한 문학적 재능과 소양이 있었고, 판사출신의 변호사였던 장인과 장모(부산 항서교회의 권사 및 여전도회 회장)와[541] 교수 처남과 한국의 지도자급 인물들이었던 동서들의 마음을 살만한 패기와 미래가 보이는 유능한 젊은이였다. 장성만 목사의 20대를 지켜본 알렉스 빌즈와 30대를 지켜본 리차드 래쉬도 장성만 목사의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에 매료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소학교를 나왔으므로 일어가 가능했을 것이고, 짧은 기간 일본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곳 선교사들의 마음을 얻을 만큼 믿음과 신뢰감이 있었으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많은 것을 습득하였고, 훗날 일본에서 경남정보대학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일 년 조금 넘게 머물렀지만,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신의 꿈을 성취시킬 교육재단설립을 성취시킨 것만 보아도, 비록 그 때가 한국의 사정이 어렵던 1960년대였고, 세 명의 선

540) Richard G. Lash, "Letter #82," FL, 31 July 1971: 2-3.

541) 김길창, 『순산 김길창 박사 자서전, 설교집』(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1972): 100-101.

교사들 곧 알렉스 빌즈와 리차드 래쉬와 마크 맥시가 그들의 선교서신들에서 장성만 목사를 자주 소개한 덕도 보긴 했겠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재능이 많고 믿음직한가를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당히 선보인 얼마나 유능한 30대의 젊은이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가 마크 맥시, 알렉스 빌즈, 리차드 래쉬 선교사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얻은 것은 구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이었다. 마크 맥시는 내국인을 함부로 유학을 알선해주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었다. 그가 히데오 요시이를 미국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도 그를 고등학생 때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10년을 지켜본 다음이었다. 황무지에서 오늘의 학교법인 동서학원의 경남정보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를 일궈낸 것과 재선의원으로서 민정당 정책위원장이 된 것과 국회부의장이 된 이런 점만 보아도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들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발한 장성만 목사의 노력과 타고난 지도력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 만한 그래서 그분의 넘치는 자비를 입을 만한 신앙이 투철한 목회자였다.

2) 리차드 래쉬

래쉬 Richard Glenn. Lash 라시득(羅時得) 1928.11.26-2001.12.02.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목사, 경남정보대학교 공동설립자.

리차드 래쉬(Richard Lash)는 1953년 12월에 두 살 연하인 멜바 톰프킨즈(Melba Tompkins)와 결혼하였다. 리차드와 멜바 래쉬(Richard and Melba Lash) 가족은 1957년 1월말에 일본 오키나와로 가기로 했던 선교계획을 한국으로 바꿨다. 이 결정에 해롤드와 에이더 테일러(Harold and Ada Talor)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이때 래쉬 부부는 링컨성서신학교(현 링컨기독대학교)에서 추가 수업을 받고 있었다. 테일러 부부는 1955년 11월 13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줄곧 래쉬 부부가 한국으로 오게 되기를 바랐다.[542]

래쉬 선교사는 1957년 한국에 도착해서 약 1년간 서울에 머물면서

Richard G. Lash 라시득(1928-2001)

테일러 선교사의 주선으로 한국말을 공부했고, 테일러 선교사가 교장으로 재직했던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1958년 5월 10일 강릉으로 선교지를 옮겼다. 선교지를 서울에서 강릉으로 옮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으나, 첫째는 테일러 선교사가 존 T. 채이스 선교사 및 존 J. 힐 선교사가 키워온 '기독교회선교부' 건물과 부지 및 신학교 건물과 부지를 1958년에 모두 팔았기 때문이다. 신학교는 새 부지와 건물이 마련되기까지 운영이 중단되어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 래쉬의 사모 멜바는 1958년 4월 24일에 쓴 선교서신에서 테일러가 3월 31일자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사람을 만난 것으로 언급하였고, 자신들도 4월 하순에 강릉에 거처를 계약했다고 적었다. 둘째는 한반도 남서쪽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제법 많지만, 강릉에는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강릉에서 북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어촌에 가정교회가 한 곳 있었고, DMZ에 가까운 곳에 또 한 곳이 있었으며, 강릉에서 남쪽으로 7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또 한 곳이 있었지만, 건물이 팔리고 교인들이 흩어졌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적었다. 더 남쪽으로 내륙 산악지역 한 곳에 교회가 있었고, 또 다른 지역의 부잣집에서 6-7명이 모인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목사는 동해안 연안에 한 명밖에 없다고 적었다.[543] 래쉬 가족은 동해안 최북단에서 부산까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상황이 이처럼 열악한 강릉지역을 선교지로 선택하였던 것이다. 당시에는 도로 사정과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자동차로 17시

542) 테일러 선교사의 모교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아직 없다. 하지만, 1950년 후반기에 테일러가 초청했거나 추천해서 짧은 기간 함께 일했던 리차드 래쉬, 조셉 세걸키, 최윤권 목사(석사과정), 최순국 목사, 안재관 목사가 링컨성서신학교 출신들이었던 점은 테일러 역시 링컨성서신학교 출신이었을 가능성을 높인다.

543) Richard G. Lash, "Letter #13," FL, 24 April 1958.

간이 걸렸다고 한다. 1960년 6월 16일 래쉬가 쓴 서신에 의하면, 래쉬 가족, 특히 멜바는 강릉에서 얻은 선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5·16군사혁명으로 인한 사회불안, 과중한 업무, 각종 질병, 문화충격, 언어충격, 사단의 방해까지 겹쳐 좌절과 실망으로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리곤 했다며 특별 기도를 부탁하였다.[544] 다음 달 1960년 7월 20일자 서신에서 멜바는 이렇게 적었다.

> 친구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의 매일 드리는 신실한 기도후원이 없이는 여기서 우리의 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좀처럼 누그러질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압박에 날마다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매일의 전투에서 기꺼이 기도로써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임무를 띠고 이곳 "최전선"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후에서 신실하게 "실탄"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임무를 수행해나가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편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를 어떻게 설명해야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언어를 쓰는 분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친교로 격려를 받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영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모국어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찬양하지 못한 채 수개월씩 지내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같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보내신 서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온기가 되는지를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지가 중요치 않을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545]

래쉬는 1958년 8월부터 강릉시 옥천동에 장소를 마련하고 복음전도를 시작하였으며, 초등, 중등 및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래쉬의 강릉지역 활동은 주로 교회 개척과 후원에 집중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주문진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회건축과 설교자의 후원에 조력하였다. 또 강릉시 옥천동을 중심하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1964년 교회건물을 새로 건축하였다. 6월 17일 기공식을 가진 후 8월에 완공하였다.[546] 래쉬는 병산교회를 시작하였고, 구절교

544) Richard G. Lash, "Letter #26," FL, 16 June 1960.
545) Richard G. Lash, "Letter #27," FL, 20 July 1960.
546) Richard G. Lash, "Letter #47," FL, 24 August 1964.

회는 그의 도움과 동해 지역 교회들에 의해 창립되었다. 또 래쉬의 통역을 맡았던 최종묵이 래쉬의 도움을 받아 평산교회를 개척하였다.

주문진 교회는 서울성서신학교에 다녔던 어느 여학생에 의해서 설립되어 자립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영동교회는 어느 석탄 광부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강릉교회는, 1959년 11월 25일자 서신에 의하면, 주일날 70-100명 정도가 모였고, 여름성경학교 때는 아이들이 평균 80여 명씩 모였다. 동년에 한국인 전임목회자가 부임하였다.[547]

래쉬의 통역은 최종묵이 맡아 수고를 했는데, 통역으로 사역하는 동안 평산교회를 개척하여 설교하다가 래쉬 가족이 부산으로 옮겨간 1964년부터는 전임 목회자로 사역하였다. 그리고 1967년경부터는 강릉교회를 담임하였다. 강릉교회는 그가 부임하기 일 년 반 전에만 해도 재정의 곤란을 겪었던 교회인데, 그가 부임한 이후로 강릉교회는 크게 부흥하여 재정자립을 이루게 되었다. 강릉교회가 개최한 한 집회에서 38명의 결신자가 나왔고, 걷힌 헌금이, 약정한 헌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10만(333달러)원이었다는 소식을 들은 래쉬는 감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당시 10만원은 그 교회의 일 년치 예산에 해당되는 큰 액수의 돈이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래쉬가 최종묵 목사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놀랜 것은 그가 입고 있는 새 양복이 교회가 그에게 선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548] 1964년 2월 11일자 서신에 의하면, 평산교회는 250여명이 출석하였는데 대다수가 초신자들이었다.[549]

래쉬는 1963년부터 한국인교회지원자클럽(Korean Church Helpers Club, KCHC)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 클럽에 자신을 포함해서 세 명의 지도자를 두고, 선교헌금 100불을 종자돈으로 삼아 시작하였다. 이 돈이 매월 조금씩 불어나기를 바랐고, 미국의 후원자들뿐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들이 이 클럽에 동참해 주기를 바랐다. 매년 다섯 번째 주일을 KCHC의 날로 정하여 지키자고 하였다. 래쉬는 이 무렵 한국에서는 1천불이면 꽤 괜찮은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다고 적었다.[550] 이 클

547) Richard G. Lash, "Letter #23," FL, 25 November 1959.
548) Richard G. Lash, "Letter #77," FL, 25 June 1970.
549) Richard G. Lash, "Letter #45," FL, 11 February 1964.
550) Richard G. Lash, "Letter #42," FL, 26 June 1963: 3.

럽(KCHC)에 모금된 돈이 탄광(영동)교회와 주문진교회 등의 예배당 건축에 쓰였다. 주문진교회는 1971년 후반기에 출석인원이 100여명에 이르렀다.[551]

1963년 11월 20일자 서신에 의하면, 강릉에서의 사역의 제한성, 두 딸의 교육문제, 장성만 목사가 지속적으로 부산에서 함께 일하자는 권유 등으로 인해서 부산으로 선교지를 옮기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552] 196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산에서 활동하였다. 래쉬는 장성만 목사가 귀국하기 전에 강원도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가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부산에서 함께 대학설립을 하기로 이미 오래 전에 약속한 바 있었다. 장성만 목사는 미국 신시내티성서신학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 학업과 교회순방을 마치고 1964년 늦은 여름에 귀국하였다. 그 공백 기간에 래쉬는 부산에서 대전 한국성서신학교로 출강하였다. 1964년 12월, 1966년 12월, 1971년 6월 졸업사진에서 리차드 래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래쉬는 장성만 목사와 함께 1964년 가을에 동래 온천장에 작은 2층 건물을 세 얻어 1965년 2월 1일 영남기독교실업학교로 2년제 대학과정을 출범시켰다. 같은 해 11월 20일에는 부산시 변두리(당시는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부락)의 땅을 매입하여 이층건물 '알파 홀'(후에 래쉬기념관으로 변경)을 건축하는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1966년 4월 2일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동서기독교실업학교로 개명하였다. 이 학교는 현재의 경남정보대학교, 동서대학교 및 부산디지털대학교로 발전되었다.

래쉬는 1971년 5월 1일자 서신에서 15년간의 한국 사역을 끝내고 8월경에 한국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선언하였다. 안식년을 가진 3년을 제외하면 4년씩 세 차례 총 12년간 사역하였다. 그 일을 래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 바쁘게 살았던 기간이었고, 기쁨과 역경이 함께한 나날들이었다. 그 기간에 우리는 가볍게 깰 수 없는 많은 관계들을 형성시켜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과 단절해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이다. 그게 아니면, 나는

551) Richard G. Lash, "Letter #61," FL, 9 March 1967; "Letter #73," 25 August 1969: 2; "Letter #83," FL, 11 October 1971: 1.

552) Richard G. Lash, "Letter #44," FL, 20 November 1963.

"스트레칭"이란 말을 대신 써야할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대양을 가로지르는 작별여행에서 살아남을 또 우리가 미국 어느 곳엔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은 후에도 여전히 때로는 우리를 잡아당길 꽤 많은 관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553]

이렇게 결정한 데에는 학교 인가(승인)가 생각보다 빨리 났고, 따라서 입학정원의 증가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수입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졌으며,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제한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발전하는 학교에 남아 그 공을 함께 누릴 수 있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자신보다 더 유능한 인물이 자기가 차지한 자리에 대신 설 수 있도록 자신이 빠져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목회 경험은 없지만, 목사관에서 보고 자랐으니 가능하지 않겠느냐, 혹은 지난 14년간 11,000통, 거의 매일 2매 정도의 편지를 쓰느라 타이핑을 했으니 작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의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하였다.[554] 래쉬 가족은 한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얼마 전 '케빈'이라고 이름을 지은 미숙아를 입양하였다.

한국을 떠나기로 작정한 1971년 8월 첫 주에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당시는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교정에서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목회자 수련회가 개최되어 한꺼번에 작별인사를 할 수 있었고, 둘째 주부터 강릉지역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다섯 개 교회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기쁨으로 둘러볼 수 있었다. 주문진교회는 출석교인이 거의 100명에 가까웠고, 탄광(영동)지역 교회는 새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래쉬가 방문하기 전날 5명의 새신자가 침례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아름다운 산중에 새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도 방문하였다.[555]

비행기 삯을 아끼기 위해서 래쉬는 두 딸과 함께 멜바와 케빈보다 먼저 8월 31일에 한국을 떠났다. 멜바와 아기 케빈은 며칠 뒤에 한국을 출발하였다. 래쉬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

553) Richard G. Lash, "Letter #81," FL, 1 May 1971: 1.
554) Richard G. Lash, "Letter #81," FL, 1 May 1971: 3.
555) Richard G. Lash, "Letter #83," FL, 11 October 1971: 1.

어, 미네소타성서대학에 시간제 선교학 교수로 채용되었고, 동시에 학교가 소재한 로체스터 프레전트 그로브(Pleasant Grove)에 소재한 60-70명 정도의 교인을 가진, 그러나 100여명이 출석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설교자로 채용되었다. 교회소유의 큰 목사관이 있어서 주택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556]

이후에 래쉬는 멜바와 이혼하였고, 한국인 여성 최규순(Ruth)과 재혼하여 강원도 강릉, 병산 등에서 함께 동역했던 최종묵 목사 부부가 거주하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정착하여 살다가 73세로 2001년 12월 2일에 별세하여 제대군인의 장례식(military honors)으로 조지아 주 그윈넷 카운티(Gwinnett County), 스넬빌(Snellville) 이터널 힐스 메모리 가든즈(Eternal Hills Memory Gardens)에 영면하였다. 래쉬는 재향군인이었다.[557]

부인 멜바는 1930년 7월 19일 일리노이 주 댄버즈(Danvers)에서 아버지 에드워드 톰프킨즈(Edward Tompkins)와 어머니 셀마(Thelma) 사이에서 태어났다. 밀턴(Milton) 고등학교를 1948년 졸업한 후에 캐나다 앨버타에 소재한 프레이리 신학교(Prairie Bible Institute in Alberta)에서 2년간 수학하였다. 멜바는 리처드 래쉬와 이혼한 후 2004년 10월 19일 윌리엄 바드웰(William "Bill" Bardwell)과 재혼하여 프레전트 그로브에서 가까운 스튜어트빌(Stewartville)에 거주하며 갈보리 침례교회에 출석하였다. 멜바(Melba T. Lash)는 2019년 6월 18일(화) 88세를 일기로 별세하여 프레전트 그로브에 소재한 유니온 공동묘지(Union Cemetery)에 영면하였다.[558]

[주요저술] Flashes from the Lashes(FL), 24 April 1958: 1-4; FL, 25 November 1959: 1-2; FL, 16 June 1960: 1-2; FL, 20 July 1960: 1-4; FL, 5 September 1960: 1-2; FL, 3 November 1960: 1-3; FL, 10 February 1961: 1-2; FL, 30 March 1961: 1-2; FL, 25 May 1961: 1-2; FL, 1

---

556) Richard G. Lash, “Letter #83,” FL, 11 October 1971: 2, 4.

557) 황필남, ‘아틀란타 선교여행 소식, 구제로 살아난 한국인들’, http://pnhwang.com/xe/1012 (게시 2010.06.05.).

558) https://www.postbulletin.com/obituaries/melba-lash-stewartville (게시 June 20, 2019).

September 1961: 1-2; FL, 2 December 1961: 1-2; FL, 15 February 1962: 1-4; FL, 18 May 1962: 1-2; FL, 23 July 1962: 1-2; FL, 3 October 1962: 1-2; FL, 23 November 1962: 1-4; FL, 29 February 1963: 1-5; FL, 4 April 1963: 1-4; FL, 26 June 1963: 1-4; FL, 31 August 1963: 1-2; FL, 20 November 1963: 1-4; FL, 11 February 1964: 1-4; FL, 4 June 1964: 1-4; FL, 24 August 1964: 1-2; FL, 2 December 1964: 1-2; FL, 2 February 1965: 1-4; FL, 24 April 1965: 1-2; FL, 9 March 1967: 1-4; FL, 25 September 1967: 1-2; FL, 4 July 1969: 1-4; FL, 25 August 1969: 1-4; FL, 21 November 1969: 1-3; FL, 6 February 1970: 1-4; FL, 5 May 1970: 1-4; FL, 25 June 1970: 1; FL, 9 October 1970: 1-4; FL, 26 November 1970: 1-2; FL, 18 February 1971: 1-2; FL, 1 May 1971: 1-5; FL, 31 July 1971: 1-4; FL, 11 October 1971: 1-4; FL, 22 November 1971: 1-2.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155;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서울: 쿰란출판사, 2018): 142-43, 2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494-500; 최재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서울: 태광출판사, 2005): 99-100. https://www.postbulletin.com/obituaries/melba-lash-stewartville [게시 June 20, 2019]; 황필남, '아틀란타 선교여행 소식, 구제로 살아난 한국인들', http://pnhwang.com/xe/1012. [게시 2010.06.05].

5. 부산에서의 라디오 방송선교

1) 알렉스와 베티 빌즈(Verlen Alex & Betty Bills)

(1) 알렉스 빌즈의 생애와 방송선교에의 비전

1950년대 이후 부산에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DECEMBER 1951

Wave Lengths

from CHRISTIAN RADIO MISSION Osaka, Japan

Recorder On Way

THANKS to the assistance of Isabel and the Mervyn E. Green Memorial Missionary Fund we now have complete recording studio equipment (except the disc equipment mentioned elsewhere) on its way. Clarence Moore of International Radio and Electronics has assembled the equipment of professional quality—Magnecorder tape recorder, microphones, turn-table, pick-up arm, amplifiers and such. It is expected to arrive in Japan early in December. It is not completely paid for, but we feel sure that regular gifts from our supporters will enable us to pay it out soon.

Mrs. Dittemore is also bringing

<따장(Wave Lengths, December 1951)지 및 알렉스와 베티 빌즈(Alex and Betty Bills) 선교사 가족 작은 딸 레베카(Rebecca)와 큰 딸 캐스린(Kathleen)

and Churches of Christ)과 관련하여 두 개의 원대한 꿈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나는 한국인 장성만 목사가 펼친 교육 100년 대계(大計)의 성공한 꿈이었다. 그의 꿈은 오늘날 학교법인 동서학원의 경남정보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로 실현되었다. 또 하나는 벌렌 알렉스 빌즈가 펼친 실패한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라디오방송국에의 꿈이었다. 자금 부족으로 알렉스의 꿈이 비록 실패로 끝나긴 하였으나 그의 꿈은 아름답고 옳았으며 원대한 것이었다. 그가 실패한 라디오방송국에의 꿈은 그 자신도 그리스도(인)의교회들도 아닌, 1954년 5월 1일 재단법인 한국복음주의 방송협회 창립(초대 이사장 황성수)으로 시작된 오늘날의 '극동방송'(FEBC)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오늘의 FEBC는 알렉스의 꿈이 옳았고, 반드시 성공했어야 할 위대한 과업이었다는 점을 잘 말해준다.

알렉스 빌즈(Verlen Alex Bills)는 1921년 4월 12일에 태어나 2002년 5월 14일에 별세하였고, 베티 빌즈(Betty Fay Bills)는 1927년 8월 10일에 태어나 2012년 3월 2일(금)에 별세하였다. 두 사람은 교회 캠프에서 만나 결혼하였다. 알렉스 빌즈는 그곳 캠프에서 매일 저녁 말씀을 설교한 전도자였고, 베티는 예배 때 반주를 한 피아니스트였다. 그들은 1947년에 결혼하여 55년간 함께 살았다.

알렉스와 베티는 '크리스챤 라디오 밋숀'(Christian Radio Mission, CRM)을 세워 일본에서 5년, 한국에서 5년간 방송전파선교사로서 선교방송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뿐 아니라, 후속사역(follow-up work)으로 성경통신강좌, 교회개척, 지도자육성 등의 선교사역에 전념하였다. 반면에 베티는 음악 사역자로서 라디오선교방송 프로그램을 위해서 노래

한 합창단과 앙상블을 지도하였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베티는 마을이 태풍으로 위태롭게 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출하였다. 이에 정부는 그녀의 용감한 행동을 칭송하며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빌즈 가족은 1961년에 CRM사역을 완전히 접고 고향 미국 텍사스 주로 돌아갔고, 후일 텍사스 주 휴스턴 소재 트리니티 교회(Trinity Church)에서 사역하였다. 이때 트리니티 성서신학교/사우스텍사스 성서신학교를 세워 교수로도 활동하였다. 그는 후일 오순절 은사운동의 역사가와 자료수집가로 변신하였고, 그가 소장했던 4천권의 서적은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데이비드 알렌 허버드 도서관 특별서고(David Allan Hubbard Library's Special Collections)에 기증되었다.[559]

베티 빌즈(Betty Bills)

베티는 선교사, 목사, 교수였던 알렉스의 아내요, 목회파트너로서 미국으로 돌아간 후 아마릴로(Amarillo) 고등학교에 조지 거슈윈회(George Gershwin Society)를 창립하여 회장을 역임하였다. 베티는 40년간 피아노교습을 하였으며, 전국 피아노 교사 협회(National Guild of Piano Teachers)와 다른 전국 음악조직들에서도 오랜 기간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베티는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음악과 피아노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오클라호마시티 대학교에서 '제2언어로써의 영어교육'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베티는 또 제2언어로써의 영어교육제공사의 교사로서 근무하며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그녀는 다년간 텍사스 주 휴스턴에 소재한 한 사립기독학교에서 교장을 역임하였다. 이뿐 아니라, 베티는 라이프송 합창단(LifeSong Choir)에서도 20여 년간 봉사하였다. 현재 그

559) https://oac.cdlib.org/findaid/ark:/13030/c8dv1rvj/entire_text/.

의 자녀들 가운데 세 사람(Becca Bills Upham, Guy Don Bills, Kathleen Harder)이 라이프송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2006년 선교연주여행 때에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가졌고 방송도 되었다.[560]

알렉스와 베티는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었다. 그중 캐스린(Kathleen Harder), 베카(레베카, Becca Bills Upham), 벌렌 알렉스 빌즈 2세(Verlen Alex Bills II)는 일본 오사카에서 나서 일본과 한국에서 자랐고, 가이 돈(Guy Don Bills), 브라이언(Brian L. Bills)은 한국에서 나서 자랐다. 캐스린과 베카는 미주리 주 조플린(Joplin, Missouri)에 소재한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소속 오자크 기독대학(Ozark Christian College)을 졸업하였다.[561]

(2) '크리스챤 라디오 밋숀'(Christian Radio Mission)

일본의 베테랑 선교사인 마크 맥시(Mark Maxey)의 '일본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선교 백년'(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에 의하면, 알렉스와 베티 빌즈 부부는 1951년에 일본 오사카(Osaka)에 선교사로 부임하였다. 빌즈 가족이 일본에 건너간 것은 라디오전파선교를 위한 것이었다.[562] 1952년 가을에 엑시 풀츠(Exie Fultz)가 일본에 주재한 알렉스 빌즈를 돕기 위해 합류하였고, 풀츠는 전파선교방송의 후속사역(follow-up work)과 성경통신과정의 사역을 맡았다.[563]

알렉스 빌즈의 비전은 기독교복음을 전할 라디오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가 처음에 선교방송국을 세우려고 계획했던 곳은 중국 서부지역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국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본을 택하였다. 일본이 상업방송국을 허가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일본으로 갔지만, 일본정부도 허가할 생각이

---

560) https://www.youtube.com/watch?v=Ef9IeI6fY8s.

561) http://www.LifeSongChoir.org.

562)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9.htm.

563) "A New Work to Begin in Kobe, Japan," Fall Newsletter of Exie Fultz, 1953(First-Fruits in Kobe, Japan): 2.

없었다. 알렉스 빌즈는 그 대안으로 상업방송국들의 시간을 사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라디오선교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일본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라디오선교방송은 이미 1947년에 시작되었다. 알렉스가 1951년 일본 오사카에 온 이후로는 '크리스챤 라디오 밋숀'(Christian Radio Mission, CRM)이 선교방송을 총괄하고 주도하였다. 1952년에 오사카성서신학교의 해롤드 콜(Harold Cole)이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갔을 때 기금을 모음으로써 빌즈는 오사카에서 가장 큰 방송국의 시간을 사서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송출하게 되었다.[564] 이후 호카이도에 있는 미군 군목들이 기금을 모아 그곳에서 일본어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는데, 이것을 주도한 인물은 로버트 스코트(Robert S. Scott)였다. 그 사이에 마닐라의 DZAS(FEBC 곧 극동방송사가 한국보다 8년 6개월 앞선 1948년 6월 4일 필리핀에 개국시킨 라디오방송국) 단파방송국들이 CRM에 프로그램의 제작을 요청해왔다.[565] 그들은 그것을 일본(인)을 향해서 송출하는 방송국들에 넘겼다. 또 다른 진전은 인디애나 주 가레트(Garrett)의 월터 코블(Walter Coble) 부부가 영어프로그램의 제작을 CRM에 의뢰하였다. 그들은 그것을 유럽 라디오 룩셈부르크에서 방송하였다.[566] CRM은 유럽의 청취자들이 보내온 후속(follow-up) 서신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성경통신과정과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알렉스 빌즈가 설교를, 부인 베티 빌즈가 오르간 반주를, 오사카성서신학교의 마틴 클라크(Martin B. Clark)가 독창(solo)과 프로그램의 아나운서로 자신의 재능을 기

우측은 알렉스 빌즈가 방송설교를 녹음하고 있는 모습이고, 좌측은 오르간 연주자인 베티 빌즈와 방송 아나운서겸 솔로 찬양자인 마르틴 B. 클라크(오사카성서신학교 교장)가 방송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모습.

564) "On the Air-in Japan," Wave Lengths, WL, December 1952: 1.

565) "Daily Broadcast Now Available," WL, September 1953: 1.

566) "European Broadcast Begins Radio Luxembourg April 4th!," WL, January 1952: 1, 4.

부하였다. 1954년 11월호 「파장」(Wave Lengths, WL)에서 빌즈는 "오사카에서 엑시 풀츠가 지난 한 주에만 새로운 청취자들이 보내온 서신이 30여 통이었고, 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성경통신과정에 등록하기를 원하였으며, 다른 사람들도 방송된 설교에 십분 관심을 보여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간청'(Plea, 환원과 일치에 관한 호소)에 관한 설교 및 기타 문헌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고를 하였다"고 했다.[567] 이 유럽 라디오 선교에 관해서 빌즈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 그것은 10년 전 프랑스에서 한 젊은 군인이 유럽선교사역에 자신의 삶을 바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살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부모인 월터 코블(Walter Coble) 부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럽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기념기금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코블 부부와 알렉스 빌즈간의 우연한 만남은 라디오 전파에 복음을 실어서 유럽에 보낸다는 중요한 생각(whole idea)을 갖게 되었습니다 CRM(Christian Radio Mission)은 프로그램 준비에 동의하였고, 코블은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복음방송선교'(Gospel Broadcasting Mission)라는 이름아래 그들의 사역을 만들었습니다. 영국 전역을 포함하고 유럽 전역의 영어 사용자들에게 도달하는 150,000와트 송신기가 있는 라디오 룩셈부르크에서 방송시간을 샀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성경기독교의 단순한 메시지를 방송하는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월터와 미니 코블(Walter and Minnie Coble)의 많은 희생과 기부가 있어서 이것이 가능하였습니다. 모든 제작 및 후속사역은 오사카에서 수행됩니다. 매일 설교 사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통신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성경계획에 따른 일치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역의 열매는 교회와 개인이 앞으로 수년간 신약성경방식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과 영국의 많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에게 참되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방송설교는 미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예배에 참석하여 듣는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568]

'크리스챤 라디오 밋숀'(CRM)의 최종 목표는 방송국을 설립하여 자

---

567) "Program Production Notes," WL, July 1952: 3; "Bible Christian Broadcast on Radio Luxembourg," WL, November 1954: 3.

568) "Bible Christian Broadcast Begins: Third Year on the Worlds Most Powerful Commercial Radio Station..., WL, April 1954: 1.

신의 방송을 송출하는데 있었다. 그렇게 되면, 상업방송국의 시간을 비싼 가격에 사서 일주일에 몇 번 짧은 시간 전파를 쏘는 대신에 매일 몇 시간씩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최적지에 기독교라디오방송국을 세우도록 허가를 내주는 국가를 찾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한국정부였다. 1954년 말에 한국정부는 부산에 기독교라디오방송국을 세워 운영해도 좋다는 허가서를 내주었다.

알렉스 빌즈는 일본에서 월간소식지 「파장」(Wave Lengths)을 발행하였다. 「파장」은 1952년 11월 6일 CRM에 합류한 엑시 제인 풀츠(Exie Jane Fultz)가 책임지고 발행하였다.[569] 또 알렉스는 부인 베티와 함께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 가르쳤다. 알렉스는 기독교라디오방송 관련 과목들(기독교라디오, 시청각매스컴)을 가르쳤고,[570] 베티는 음악을 가르쳤다. 두 사람의 강의는 모두 미래의 방송요원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밖에도 중고등학교 등에서 영어성경을 가르쳤다.

CRM이 기독교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작하여 FM상업방송국의 시간을 사서 방송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가 필요하였다. 알렉스와 엑시 풀츠는 오사카에 스튜디오를 마련해보려고 애를 썼다. 1954년 말에는 오사카성서신학교가 캠퍼스에 부지를 제공하고, CRM이 스튜디오와 사무실로 쓸 건물을 짓기로 합의를 보았다.

한편 알렉스 빌즈는 일본에서 전파선교를 시작한지 만 일 년 만인 1952년 1월에 이미 한국과 오키나와가 방송국 설립의 최적지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하였고,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에 라디오선교방송국을 세우려는 의지를 불태웠다.[571] 또 빌즈는 1952년 여름에 이미 장로교회 목사의 딸로서 그해 여름 나고야 캠프에서 침수세례를 받은 김 씨를 통해서 자신의 프로그램 곧 성경 드라마(dramatization)와 설교형태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토록 하였고 음악과 말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어로

---

569) "Exie Arrives," WL, December 1952: 2.

570) "Seminary Offers Radio, Visual Aids," WL, September 1951: 2; "A-V Institutes," WL, December 1951: 1, 4.

571) "Prospects for a Missionary Radio Transmitter," WL, January 1952: 3.

만들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라디오방송국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았다.[572] 일본에서는 "이것이 삶이다"(This Is Life)라는 방송선교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일 아침 6:30-7:00시에 NJB_JOOR을 통해서 전파선교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독창, 뚜엣, 여성합창, 라디오 성경드라마, 설교 등으로 꾸며졌으며, 이후 홋카이도를 비롯한 일본 전역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본어로 방송되었다.[573] 유럽에서는 '성경 그리스도인 프로그램'(The Bible Christian Program)이 매주 월요일 밤에 영어로 유럽의 17개국에 방송되었으며, 2백만 명이 청취하였다.

알렉스 빌즈는 1953년 9월에도 선교사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호의를 강하게 신뢰하며 인천에 라디오기독교방송국 설립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생각은 극동방송사(FEBC)가 1954년 5월 1일 재단법인 한국복음주의방송협회를 창립하여 그해 7월 27일 체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무선국 허가를 취득한 후 1956년 12월 23일 인천시 학익동에 라디오방송국을 개국한 시점보다 빠른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 빌즈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 오늘날 전 세계 선교지에서 한국은 정말로 문이 활짝 열린 곳입니다. 알렉스 빌즈는 9월 10일에 한국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제시된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기회들에 필요한 후속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대만과 한국은 정부들이 기독교 선교 활동에 호의적인 유일한 국가들입니다. 일본은 그것을 그냥 허용합니다만, 한국은 우리에게 와서 복음으로 그들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한국정부는 그곳, 아마도 서울 근처 인천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세우려는 우리의 계획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곳(인천)은 우리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와 러시아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가 각각의 열린 문 안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친구 여러분들께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574]

---

572) "Mrs. Exie Fults to Become Co-Worker with CRM in Japan This Fall," WL, July 1952: 2; "Summer Activities: Korean Work and Radio Station Permit," WL, September 1952: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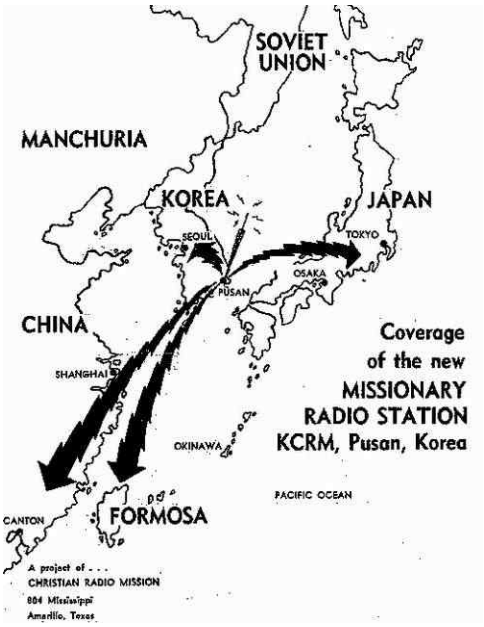
573) "On the Air-in Japan," WL, December 1952: 1; "'This Is Life' on Hokkaido," WL, September 1953: 1.

574) "Also Korea," WL, September 1953: 3.

1954년 4월에는 극동방송이 자신들에게 정기적인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이것은 극동방송사가 한국에서 곧 시작할 라디오방송을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 극동방송사는 이미 알렉스 빌즈에게 일본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 바가 있었다.

>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전파되는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의 큰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알렉스 빌즈는 3-4월에 서울에서 몇 주 동안 머물며 한국어 설교들을 녹음하여 나중에 준비할 프로그램들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합창단들의 찬양도 녹음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들과 음악은 오사카에서 단일 프로그램으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사(Far East Broadcasting Company, FEBC)은 우리에게 한국어 프로그램의 정규적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현대 세계 전체는 아니더라도 동양에서 단연코 가장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575]

1954년 11월호 「파장」에서 알렉스 빌즈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계획을 피력하였다.



한국(KOREA)

한국은, 작금의 세계에서 기독교선교에 가장 큰 기회의 나라로써, 우리가 행동해 주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들은 준비를 마쳤고, 빌의 가족은 부산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도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건물매입도 가능합니다. 동양선교회는 전시(戰時)에 본부로 사용했던 건물을 우리에게 4천불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기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가 라디오선교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 정부는 즉시 국영

575) "Also Korea," WL, April 1954: 4.

> 방송국들의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해 줄 것이며, 우리가 한국인 방송직원들을 훈련하고 다른 필요한 기초 작업을 펼치는 동안 준비될 기독교복음 프로그램들을 송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주택 매입에 필요한 돈의 절반 이상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역에 교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신다면, 이 일은 착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부금은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하던 일은 엑시 풀츠와 우리의 훌륭한 일본인 직원들이 지속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유럽에서의 영어방송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역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크게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이 소유한 라디오선교방송국을 세운다는 궁극적인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방송국 허가서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산은 우리가 전파사역을 펼쳐나갈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한국 정부는 기독교사역에 대해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호의적일 것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전파를 송출하기에 최적인 바다에 인접한 곳들, 무관심지역인 일본의 서부연안에 일본어 방송을, 광둥, 상해, 대만에 이르는 중국의 연안 도시들에 중국어 방송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 프로그램들은 남쪽 대한민국을 커버할 뿐 아니라, 심지어 북한의 죽의 장막까지 침투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전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절실하며, 호응도가 높은 심장부에 세 나라의 언어로 방송할 기독교라디오방송국을 세우는 것입니다.[576]

알렉스 빌즈는 1955년 1월 7일 CRM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 대한민국은 부산에 방송국 설립을 허가하였습니다. 정말로 수년간의 꿈과 기도가 처음으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신약성경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의 이야기가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 다시는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시로 추가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엔지니어링) 섹션을 이끌 선교사가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하고 방송국의 프로그래밍 목적을 담당할 다른 선교사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삶을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과 준비를 갖춘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송출할 10,000와트 방

576) V. Alex Bills, “Korea,” WL, November 1954: 1.

송국을 세우기 위해서 토지구입, 빌딩구입, 장비구입 및 기타 부대비용에 필요한 경비를 약 $100,000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일 '와트'당 $10에 해당됩니다.[577]

빌즈는 1955년 3월호 「파장」에서 1954년 말에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부산에 기독교선교라디오방송국 설립허가서를 받고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전하였다.[578] 또 빌즈는 1956년 4월 서신에서 허가서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적었다. "그 문서는 한국 정부가 부산에 라디오 선교방송국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을 승인한 허가서였습니다." 빌즈는 이것이 과거 10년간 이 목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한 결과라고 피력하였다. 부산 라디오기독교방송국의 설립은 대한민국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의 장막인 북한, 중국, 러시아를 커버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도구라고 확신하였다. 알렉스 빌즈는 부산에 선교방송국을 설립해도 좋다는 허가서를 받자마자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함께 사역할 선교사들의 모집과 기금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였다.[579]

알렉스 빌즈는 1956년 3월 「파장」지에서 자신의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580] 첫 단계로써 1956년 6월(실제로는 12월 13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에 부산으로 이사하여 땅을 사고, 이미 매입이 끝난 부산의 주택을 수리하며, 작은 방송기지와 선교사들의 주택들을 짓기 시작하여 가을이나 겨울쯤에 건축을 끝내면 방송장비들을 구입하여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부산지역에 방송한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에 필요한 기금이 5만2천불이고, 이후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방송을 제작하여 한국 전역, 중국, 일본에 전파를 송출하는데 4만8천 불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알렉스가 10만 불을 목표로 모금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알렉스 빌즈의 또 다른 서신에 의하면, 10,000와트(watt)를 송출할 수 있는 방송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577) "To: C.R.M. Home Committee," Christian Radio Mission, Tokyo, 7 January 1955: 1.

578) "Radio Station Permit Granted," WL, March 1955: 1.

579) "Dear Friend," Christian Radio Mission, April 1956.

580) "Bills Family to Sail in June," "Plans for Christian Radio Station Proceeding According to Schedule," Korea: the Mission Field," WL, March 1956: 1-2.

비용이 10만 불 정도라고 보았다. 당시보다 10년 혹은 20년 후까지 버트 엘리스와 조셉 세걸키 가족의 급여가 4-5백 불이었고, 싱글이었던 버지니아 힐의 급여가 150불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였다. 오늘날의 원화가치로 보면 10-12억 원에 해당되는 액수였다. 1950년대에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개 교회와 개인들을 상대로 이 정도의 큰돈을 모금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큰돈은 이미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에 필요한 비용과는 별도로 추가로 필요한 돈이어서 더더욱 모금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알렉스 빌즈는 1와트당 10불이 필요하며, 그 돈이면 200명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계산에 따라 5천불이면 500와트를 살 수 있고, 10만 명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또 알렉스 빌즈는 1956년 3월호 「파장」에서 한국선교의 중요성을 재차 피력하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지들 가운데 한 곳이며.... 지금은 모든 선교지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고 하였다. 그는 또 "한국은 선교역사가 8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극동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일본이 인구의 0.5퍼센트, 인도가 1퍼센트인 것에 비해 한국은 7퍼센트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는 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한국에서 종교는 애국심과 무관하지만, 일본에서는 다수가 종교인을 애국심이 약한 자로 간주한다.

둘째, 교단의 선교회들이 정책적으로 한국에는 보수주의 선교사들을 보낸 반면, 일본과 중국에는 진보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셋째, 한국에는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많았다. 이들이 끼친 영향이 크다.

넷째, 오늘날 한국에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바치는 충성심 가득한 우리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 사역은 그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근대 교파주의 교단들에 인도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

1956년 5월호 「파장」에 의하면, 알렉스 빌즈는 켄터키 주 루이빌에서 개최된 북미주그리스도인대회(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NACC)에 참석하였고, 5월 9일(수) 저녁에 일백여 명 정도가 모인 한 세션에서 자신의 방송선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알렉스 빌즈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난 직후에 인디애나 주 윌리엄스포트(Williamsport)에 소재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더글러스 딕키(Douglas Dickey)란 목회자가 일어나 제안하기를, 각각의 교회에서 50명 단위의 후원클럽을 만들어 각 사람이 향후 20개월 동안 매 주 25센트씩 기부하게 하자고 하였다. 계산상으로는 매 클럽 당 1,083불의 모금이 가능한 제안이었다. 이 '50클럽"(50 Clubs) 제안에 알렉스 빌즈는 한껏 고무되었다. 이런 클럽이 100개만 매월 운영된다면, 자신의 구상은 성공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 모임을 마치자마자 알렉스 빌즈는 이 모임에서 25명의 설교자들과 지도자들이 6만5천 불의 기부를 CRM에 약속하였다고 「파장」과 서신을 통해서 선전하였고, 이후 각 교회가 이런 형식의 후원클럽을 운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50클럽'을 통해서 후원금이 당도하긴 했어도 그 액수는 미미하였다.[581]

(3) CRM 법인설립

알렉스 빌즈 가족은 1954년 말에 한국정부로부터 부산에 라디오선교방송국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허가서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갔고,[582] 1956년 12월호 「파장」에 의하면, 무려 22개월간의 미국 체류를 끝내고 1956년 11월 16일에 한국을 향해서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배를 탔다고 적었다. 미국 체류기간이 길어진 것은 함께 일할 선교사 모집과 기금모금이 원활하지 못한 탓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기간에 법인의 설립과 9명의 새로운 사역자들을 모집하는데 성공하였다.[583] 여기에는 네 가족과 한명의 독신 여성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CRM의 가족은 12명의 성인과 12명의 자녀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알렉스 빌즈 가족은, 1956년 12월 서신에 따르면, 11월 20일에 일본 도쿄에

581) $65,000 for CRM," WL, May 1956: 1.
582) "C.R.M. Incorporated," WL, October-November 1956: 1.
583) "Bill.s Family Arrive in Korea," WL, January 1957: 1-2.

1956년 9월 24일 알렉스 빌즈가 법인정관에 서명을 하는 모습
뒷줄 좌측부터 버트 엘리스(Bert Ellis), 더글러스 딕키(Douglas Dickey),
로버트 릴리(Robert Lillie), 제임스 퍼니스(James Furniss),
마조리 엘리스(Marjory Ellis), 벌렌 알렉스 빌즈(V. Alex Bills),
엑시 풀츠(Exie Jane Fultz, 우측 끝)

도착하였고, 1957년 1월호 「파장」에 의하면, 1956년 12월 13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584] 한국 상륙이 늦어진 이유는 미국 내 위원회와 새로 모집된 사역자들과의 좌담이 있었고, 출발 전까지도 기금의 모금이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 라디오 사역 관계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내려 며칠간 머물러야 했으며, 일본에 거주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과의 좌담 때문에도 두 주간 머물러야 했다.

1956년 9월 24일 일리노이 주 댄빌(Danville)에 소재한 제2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CRM Incorporated'의 법인설립정관에 서명하는 모임이 있었고, 일리노이 주 국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법인회사가 출범되었다. 이 서명식에 벌렌 알렉스 빌즈(V. Alex Bills), 엑시 풀츠(Exie Jane Fultz), 더글러스 딕키(Douglas Dickey), 로버트 릴리(Robert Lillie), 제임스 퍼니스(James Furniss), 버트와 마조리 엘리스(Bert & Marjory Ellis)가 참석하였다.[585]

(4) 한국 CRM의 성과

한국에서의 사역은 생각보다 진척이 매우 더뎠다. 1957년 1월 16일 서신에서 알렉스 빌즈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 다시 생각해 보니, 토지매입이 다음 단계는 아닙니다. 다음의 일은 여

584) "Bills Family Arrive in Korea," WL, January 1957: 1-2.
585) "C.R.M. Incorporated," WL, October-November 1956: 1.

> 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토지매입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한 건에만 14,000불의 비용이 듭니다. 우리가 기금을 확보하기까지는 사실 아무 것도 더 이상 진척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건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면,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돈이 정확히 필요한 시간에 수중에 들어올 것입니다. '50클럽'을 통한 모금도 물론 토지매입에 필요한 시간 내에 충분히 채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빠르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챤 라디오 밋숀' 교우들에게 우리와 함께 앞으로 한 거름 내딛기를 요청합니다.[586]

1957년 4월호 「파장」에서 알렉스 빌즈는 한국에서의 사역을 다소 서두른 경향이 있지 않았는가를 의심하였다.

> 기초부분은 건물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눈에 거의 띄지 않습니다. 건축자는 종종 기초가 구조물의 다른 부분을 잘 떠받쳐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위기가 크게 닥치면, 기초는 무시당하거나 지나치게 서둘러집니다. 기초는 친구들에게 보여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이곳 한국에서 우리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적인 라디오사역을 위해서 수년간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현실만을 볼 때는 거의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587]

1957년 7-9월호 「파장」에 의하면, 한국에 도착한지 7개월 만에 토지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고,[588] 1958년 2월호 「파장」에 의하면, 1958년 1월 9일에서야 부산시 광안동 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589] 여기까지 오는데 만 13개월이나 걸렸다. 알렉스 빌즈는 부지선정의 신중과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은 기금이 부족해서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었다. 계획(작전)도 좋았고, 조직과 노하우(실전경험)도 있었지만, 돈(실탄)이 부족하였다. 오사카에서 해오던 사업의 유지에다 큰 자금을 요하는 부산에서의 새로운 사업을 위한 모금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무렵 미국도 경제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1930년대 경제대공황, 태평양전쟁과 제2차 세계

586) "Dear Fiends," Christian Radio Mission, 16 January 1957.
587) "Alex Writes from Korea," WL, April 1957: 1.
588) "Land...," WL, July-September, 1957: 1.
589) "Ground Breaking," WL, February 1958: 1.

부산시 광안리에서의 라디오 방송국(CRM) 기공식 모습
좌측부터 김홍균, 알렉스 빌즈, 장성만 목사(26세), 1958년 1월 9일.

대전, 한국동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존 T. 채이스 선교사가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모금과 '한국에 예배당을'(Chapels for Korea) 짓기 위한 $50,000 기금조성에 걸린 긴 시간들을 감안해 본다면, 알렉스 빌즈에게는 채이스의 시간보다 최소 2-3배나 더 긴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은 세계 전역에 흩어져 헌신하고 있는 미국인선교사들과 토착인선교사들(indigenous nationals)의 모금각축장이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알렉스 빌즈가 부산에서 진행시킨 건축도 대부분 시멘트블로크를 찍어 말린 후 집을 짓는 수작업이었다. 1958년 9-10월경에 비로서 기초작업을 시작하여 12월호 「파장」에서야 비로소 기초를 완성하고 블록을 쌓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590] 12월 26일에는 마룻대(ridgepole)를 올리는 상량식을 가졌다.[591] 알렉스 빌즈가 부산에 온지 만 2년이 되는 때였다.

1958년 12월 26일 상량식 모습
알렉스 빌즈 부부(좌측), 김희영 CRM 번역 및 음악보조(우측에서 4번째),
장성만 CRM설교 및 대교 교회 목사(우측에서 2번째)

590) "More Progress in Korea," WL, December 1958-January 1959: 1.
591) "Hurry the East," WL, February 1959: 1-2.

이 상량식에 목수들과 김홍균(CRM 매니저), 장성만(CRM 설교담당, 대교교회 목사)과 김히영(CRM 번역과 음악보조)도 참석하였다. 통역 김히영은 CRM에서 PD로 사역하다가 1963년부터 대전에 올라와 김찬영을 대신해서 힐 요한 선교사의 사역을 도왔다.[592]

그러나 이 상량식에 알렉스 빌즈가 한국에 불러들인 다른 선교사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CRM의 소식지인 「파장」도 1959년 2월(47번)호를 끝으로, 그것이 마지막 소식지가 아니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결과론적으로 알렉스 빌즈가 추진한 부산에서의 사역은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했고, 이에 실망한 선교사들과 미국에서 대기 중이던 선교사들이 CRM을 탈퇴함으로써 실패로 끝난 허황된 꿈이 되고 말았다.

2) 알렉스 빌즈의 동료들

(1) 엑시 제인 풀츠(Exie Jane Fultz)

엑시 제인 풀츠(Exie Jane Fultz)

엑시 풀츠는 부친 밀턴 월터스(Milton Walters)와 모친 내니 밴스(Nannie Vance) 사이에서 1918년 2월 14일 미국 일리노이 주 마셜(Marshall)에서 출생하여 11살 때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고, 마셜 타운쉽 고등학교를 1935년에 졸업하였다. 25세 때 결혼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때 남편과 사별하였다. 엑시는 스마트 어피어런스 뷰티(Smart Appearance Beauty) 대학을 1945년에, 신시내티성서신학교를 1949년에 졸업하고, 버틀러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재학하던 중에 방송선교사의 소명을 받았다.

592) "Kim," WL, March 1958: 1; "Shung Man Chang," WL, September 1958: 1, 3;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51.

1951년에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1952년 11월 6일에 알렉스 빌즈(Verlen Alex Bills)가 창립한 '크리스챤 라디오 밋숀'(Christian Radio Mission, CRM)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일본 오사카에 상륙하였다. 오사카에서 편지업무와 일본어 성경통신강좌와 유럽인을 위한 영어 성경통신강좌를 담당하였고, 마슈바라 중학교(Matsubara Middle School)에서 영어 수업에 베티와 함께 보조교사로 참여하기도 하였다.[593] 엑시는 1953년 4월에 고베로 옮겨가 CRM의 전파선교방송 고베 통신원들과 함께 후속사역(follow-up work)을 담당하였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이들이 고베에서도 생겨났고, 고베에 그리스도(인)의교회가 세워졌다. 알렉스 빌즈는 방송국 설립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으로 옮겨가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엑시 풀츠가 서서히 그의 업무를 이어받아 일본 전파선교방송을 책임지기 시작하였다.[594]

엑시 풀츠에 의한 CRM 소식지인 「파장」(Wave Lengths, WL)은 1959년 2월(47번)호까지만 남아 있다.[595] 이후 엑시 풀츠는 자신이 1958년부터 계획한 '니폰 크리스천 방송 협회'(Nippon Christian Broadcasting Association)를 1959년 6월 8일에 설립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 1960년 1월부터는 방송진행표를 뜻하는 「큐시트」(The Cue Sheet)란 소식지를 2개월마다 한 번씩 발행하였다.[596] 엑시 풀츠는 일본 CRM의 사역을 사실상 책임졌던 인물로서 알렉스 빌즈가 일본에서 펼쳤던 모든 사역을 그대로 이어갔다.

알렉스 빌즈의 충실한 사역자였던 엑시 풀츠는 고베 근처 아와지 섬(Awaji Island)에 토지를 매입하였고, 거기에 FM라디오 방송국을 세우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풀츠는 클라우드 리킨즈

---

593) "Announcing A New Recruit for the Christian Radio Mission, Osaka, Japan," n.d., 1952: 2; "Exie Arives," WL, December 1952: 2; Exie Fultz, NewsLetter, April 1953.

594) "A New Work to Begin in Kobe, Japan," Fall Newsletter of Exie Fultz, 1953(First-Fruits in Kobe, Japan): 2.

595) Exie Fultz, "NCBA Inaugural Meeting," News Releases: Nippon Christian Broadcasting Association, September 1959: 1-2.

596) The Cue Sheet: By-Monthly News-Publication of Nippon Christian Broadcasting Association, January-February, 1960: Vol, 1, No. 1.

(Claude Likins)의 도움으로 아와지 섬에 카리야(Kariya)교회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풀츠는 도쿄에서 다년간 사역한 후에 아와지 섬으로 다시 건너가 은퇴 때까지 그녀의 선교사역을 이어갔다.[597]

(2) 플로라 매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

플로라 매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

플로라 매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는 1934년 3월 10일 미국 인디애나 주 헤브론(Hebron)에서 출생하였으며, 한국에 나올 당시 갈색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23세의 독신 여성이었다. 1952년에 헤브론 고등학교를, 1957년에 링컨성서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링컨신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였다. 그녀는 업무비서, 음악보조, 성서강의를 위해서 1957년 10월에 한국에 입국하였다.[598] 그러나 알렉스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플로라 매이 구른지는 심사숙고 끝에 1959년 2월 25일 배로 부산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부산을 떠나기 직전에는 조셉 세걸키와 버트 엘리스의 새로 막 시작한 방송선교를 도왔다. 조셉과 맥신 세걸키에 의하면, 그녀는 1958년 10월에 한국에 머문 선교사들과 미국에 대기 중이던 선교사들이 모두 탈퇴함으로써 장래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다행히 그녀는 일리노이 주 졸리엣(Joliet)에 소재한 선교단체(Mission Services)에 직원으로 초빙되어 1959년 2월 25일에 한국을 떠났다.[599]

---

597) Exie Fultz, "Dear Christian Friends," Nippon Christian Broadcasting Association, August 18, 1961;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9.htm.

598) Verlen Alex Bills, "Flora Maye Guernsey Joins CRM," WL, January 1957: 1-2; The Christian Radio Mission Story, May 1957: 4; "Workers Arrive," WL, November 1957: 1-2.

599) Joshep Seggelki, "Dear Christian Friends," News Letter #3, January 1959:

구른지는 존스(Jones)와 결혼하였으며, 1976년 링컨 크리스천 대학교로부터 저널리즘 분야의 환원상을 수상하였다. 링컨 크리스천 대학교는 '플로라 매이 구른지 기념 기부 장학금'(Flora Maye Guernsey Jones Memorial Scholarship)을 수여하고 있다.
https://lincolnchristian.edu/wp-content/uploads/2020/10/Existing-Endowed-Scholarships-2020.10.14.pdf.

(3) 조셉과 맥신 세걸키(Joshep & Maxine Seggelki)

조셉 세걸키(Joe Seggelke) 선교사 가족
좌측부터 보니 조(Bonnie Jo), 조셉(Joe Seggelke), 마크(Mark), 알렌(Allen), 맥신(Maxine), 에드윈 딘(Edwin Dean)

조셉 세걸키(Joshep Seggelki)는 태평양 전쟁 때 항공모함에 승선하여 전기기사로 복무하였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맥신 앰버그(Maxine Amberg)와 결혼하여 1946년부터 일리노이주 링컨에 거주하면서 링컨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링컨성서신학교에 입학하여 1957년에 졸업하였다. 조셉 세걸키는 1956년 9월 9일 링컨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 안수식 때 세걸키는 "주님이 뜻하시면,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광고하였다. 세걸키와 같은 해에 링컨성서신학교를 졸업한 플로라 매이 구른지도 세걸키의 안수식 때 자신도 한국에 선교사로 갈 것이라고 말하였다.[600]

조셉은 2년 반 동안 블루밍 그루브 그리스도(인)의 교회(Blooming Grove Christian Church)를 목사로 섬겼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 1년 반 동안은 약 40여개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설교하였다.[601] 조셉 세걸

1; "How It All Started," The Seggelkes - Missionaries to Korea, 1960: 2.

600) "How It All Started," The Seggelkes - Missionaries to Korea, 1961: 3.

키는 CRM의 업무추진담당자(Traffic Manager)로 1958년 1월 31일에 한국에 입국하였다.[602]

1957년 12월 26일 오후 3시 30분에 미국 일리노이 주 링컨을 출발하여 1958년 1월 7일 오후 6시 30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탔고 1월 26일에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 일본의 첫인상은 깨끗하고 매력적인 나라였다. 1월 28일 짐을 찾아 고베로 가는 배를 탔다. 고베에는 엑시 풀츠(Exie Fultz), 마틴 클라크(Martin Clark), 이사벨 디트모어(Isabell Dittemore) 등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오사카 성서신학교를 방문한 후 오후 1시 배를 탔고 다음 날 아침 8시에 일본 시모노세키 인근의 모지(Moji)에 도착하였다. 다시 출발하여 부산 만에 31일 아침 8시에 도착하였다. 멀리 보이는 부산의 모습은 컬러풀한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음울한 모습이었지만, 한국의 이민국 직원들은 일본인들보다 훨씬 친절하였다. 부산항에는 플로라 매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와 알렉스 빌즈(Alex and Betty Bills) 가족이 마중 나와 있었다. 출입국관리소를 빠져나오자 '크리스챤 라디오 밋숀'(Christian Radio Mission)의 중창단이 조셉 세걸키 선교사 가족을 환영하였다. 그들에 대한 첫인상은 매우 좋았고 친절하였다.[603]

부산에서 처음 출석한 교회는 장성만 목사가 시무하는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조셉과 맥신 세걸키는 미국에 보낸 두 번째 서신(1958년 5월)에서 대교교회의 색다른 예배풍경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였다.

>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표현하는 몸짓, 미소, 따뜻한 환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고 한국어 수업을 여러 번 받은 후에 한국어 찬송가를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집회소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습니다. 그것은 마치 관습에 따라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닥에 앉습니다. 한쪽에는 여성들이, 다른 쪽에는 남성들이 앉습니다. 여자들은 여성들에게 주의 만찬을 배찬하고 남자들은 남성들에게 주의 만찬을 배찬합니다.[604]

---

601) The Christian Radio Mission Story, May 1957: 7.
602) "New Workers Arrive," WL, March 1958: 1-2.
603) "Greetings from Pusan, Korea!," News Letter #1, n.d., 1958: 1-3.

또 조셉 세걸키 선교사는 버트 엘리스 가족이 5월 3일에 도착하였다는 것과 아울러 굳맨 가족, 클레멘스 가족, 클레어 포웰이 한국에 도착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피력하였다. 다른 한편 엘리스 가족이 오던 날 집에서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항구에 마중을 나가기 전에 한 달 치 급료와 각종 청구서를 해결할 300불을 은행에서 찾아 빌즈의 요리사에게 맡겼는데, 엘리스 가족을 데리고 빌즈의 집에 돌아와 보니 식사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돈도 요리사도 사라지고 없었다는 황당한 경험을 소개하였다. 다른 한편 장성만 목사의 대교교회가 4월에 14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조셉 세걸키가 7명, 장성만 목사가 7명씩 침례를 베풀었다는 소식도 전하였다.[605]

조셉과 맥신 세걸키는 1959년 2월경에 쓴 세 번째 서신에서, 자신들이 선교와 선교지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부산에 온지 일 년이 조금 지났지만 실망이 컸던 것과 CRM에서 탈퇴하게 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계획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만큼 결코 이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사실이었습니다. CRM에 대한 실망감은 정말 커져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과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 즉 우리가 CRM에서 사임했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난 1958년 10월 25일, 미국 내 위원회의 여섯 분..., 미국 내 사역자들(Ray Goodman family, Bob Clemens family, Lewis Myers family, and Clair Powell),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들(Bert Ellis family, Flora Maye Guernsey, and the Seggelke family)은 벌렌 알렉스 빌즈에 대한 신뢰의 부족과 CRM의 사역방법이 우리와 국내에 계신 분들에게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에 사임하였습니다.[606]

버트 엘리스도 '한국방송선교'(Korean Broadcasting Mission, KBM) 지에서 조셉과 동일한 보고를 하였다.

---

604) "Annyong-hasimnikka," News Letter #2, July 1958: 1; "Looking Back," The Seggelkes - Missionaries to Korea, 1961: 4.

605) *Ibid*

606) "Dear Christian Friends," News Letter #2, February 1959: 1.

> 우리가 한국에 도착한 지 몇 달 안 되어 우리는 그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며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이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헛된 시도를 행한 후에 조셉과 저 그리고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미국 내의 다른 사람들이 조직(CRM)에서 탈퇴하였습니다.[607]

또 다른 전단에서 조셉 세걸키는 말하기를, 그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프로젝트는 예상되었던 것대로 되지 않았고, 실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적었다.[608]

KILOCYCLES
한 국 방 송 선 교 회
Korean Broadcasting Mission
Pusan, Korea
THE BERT ELLIS FAMILY THE JOE SEGGELKE FAMILY
Volume 1, Number 2 Pusan, Korea July, 1959

이신 목사가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한 젊은 농부에게 설교 복사본을 건네고 있다. 이 농부는 이신 목사에게 오이와 호박으로 보답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세걸키 가족과 엘리스 가족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으려고 힘썼고, 한국에 오려고 준비 중인 미국의 예비 선교사들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플로라 매이 구른지는 1959년 2월 25일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1959년 초부터 버트 엘리스 부부와 조셉 세걸키 부부는 합심하여 '한국방송선교'(Korean Broadcasting Mission, KBM)를 설립하고 부산문화방송(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여 4월 15일부터 매일 하루 두 번, 일주일에 세 시간씩 방송을 시작하였다. 소요비용은 급여를 포함해서 하루에 23불씩이었다. 부산문화방송 사장과도 친해져서 조셉과 버트는 부산문화방송국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하였다. 1958년 12월에는 테일러

607) "Dear Brother Phillips," Korean Broadcasting Mission(이하 KBM), n.d.
608) "How It All Started," The Seggelkes - Missionaries to Korea, 1961: 3.

이신 목사와 고재천 목사가 부산문화방송 아나운서와 함께 수요일 밤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부부, 래쉬 부부, 여러 한국인 사역자들의 추천을 받아 방송설교자로 이신 목사를 채용하였다. 선교방송과 함께 걸려오는 전화상담, 가정에서의 성경공부, 전도용 문서발송을 통해서 후속선교를 이어갔다.[609]

'한국방송선교'(KBM)는 1959년부터 계간으로 「킬로사이클」(Kilocycles)이란 이름의 소식지를 발행하였다. 비용은 세걸키 가족과 엘리스 가족이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알렉스 빌즈를 도왔던 더글러스 딕키(Doug Dickey, Williamsport, IN) 목사가 회계를 맡아주었다. 이들은 주일 저녁에 별도의 예배모임을 시도하였고, 설교 때 통역을 사용하였다. 매주 평균 35명 정도 참석하였다. 조셉과 버트는 방송선교와는 별도로 각각 별도의 성경공부반도 운영하였고, 1959년 9월에는 교회를 개척하였다. 출석인원은 50-70명 정도였다. 버트와 조셉의 가족 역시도 자금 부족으로 애를 먹었다. 라디오방송 송출에 매일 필요한 $23이 한 달에 세 번 정도밖에는 채워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버트 가족의 경제난이 심하였다. 날이 갈수록 빚이 늘었기 때문에 1959년 9월부터는 방송을 하루 한 번으로 줄였다. 세걸키의 경우 1960년 서신에 의하면, 매월 200불 정도의 후원금이 채워지지 않고 있었다.[610]

조셉 세걸키 가족은 1960년 6월부터 안식년을 떠나는 테일러를 대신해서 서울에 머물렀으며, 테일러 가족이 돌아오면 안식년을 가진 후 1962년 봄에 돌아올 계획이었다. 버트 엘리스 가족은 1962년에나 안식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이었다. 따라서 부산에서의 일은 버트 엘리스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다.[611]

---

609) "Looking Back," The Seggelkes - Missionaries to Korea, 1961: 5.

610) KBM, Kilocycles, July 1959: 2-4.

611) "How It All Started," "Looking Back," and "The Futures," The Seggelkes - Missionaries to Korea, 1961: 4-7.

1960년 4월 서신에서 조셉과 맥신은 4월 15일에 이신 목사가 서울에 올라가 목회하기 위해서 사임하였다고 적었다. 이신은 이때 부산문화방송을 통해서 매일 밤 10시에 행한 설교들을 모아 기독교문사에서 1980년에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을 펴냈다. 이때 이신 목사는 방송뿐 아니라, 두 개의 신문에도 기사를 실었다.

세걸키 가족은 1960년 6월부터 안식년을 떠나는 해롤드 테일러(Harold and Ada Talor) 가족을 대신해서 서울 '기독교회선교부'의 책임을 맡았다가 1961년 7월에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1962년 7월에 한국으로 돌아와 더욱 활기차게 선교할 계획이었고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1962년 6월 서신에 의하면, 한국으로 돌아올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출발할 배까지 예약해 둔 상태였다.[612] 그러나 그들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였다. 리처드 래쉬의 서신에 의하면, 조셉 세걸키 선교사 가족은 1962년 한국정부로부터 비자를 거부당하였다. 그들에게 비자가 거부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 후 세걸키는 모교인 링컨 크리스천 대학교 프린트숍(Print Shop)에서 퇴직 때까지 부인과 함께 프린터로 일하였다.[613]

(4) 버트와 마조리 엘리스(Bert & Marjory Ellis)

버트 엘리스 가족은 알렉스가 한국정부로부터 선교방송국 설립 허가서를 받고 나서 부산에 세우려고 한 방송국의 프로그램제작부 담당자로 입국하였다.

버트는 신시내티성서신학교, 링컨성서신학교 및 밀리건 대학에서 수업을 받았고, 플로이드 존스 종교음악학교(Floyd Jones School of Sacred Music, Indianapolis, IN)에 입학하면서부터 목회를 시작하여 한국에 오기 직전에는 미주리 주에 소재한 카불(Cabool)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3년째 담임한 것을 비롯해서 총 18년간 목회사역을 하였다.

---

612) "Dear Friends in Christ," The Seggelkes - Missionaries to Korea, June 1962: 1.

613) Flashes from the Lashes, 3 October 1962: 1; https://www.legacy.com/us/obituaries/lincolncourier/name/joseph-seggelke-obituary?id=24517795.

버트 엘리스 선교사 가족
좌측부터 버트 엘리스(Bert Ellis), 존(John), 마조리(Marjory)

그는 목회자로서 다년간 크고 작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감독한 유경험자였다.[614]

1958년 3월 소식지에 의하면, 엘리스 가족은 1958년 4월 7일 혹은 9일에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올드 콜로니 마리너(Old Colony Mariner)에 올라 5월 3일에 부산항에 도착하였다.[615]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버트 엘리스 가족이 한국에서 행한 사역은 조셉 세걸키와 함께 한국방송밋숀(Korean Broadcasting Mission)을 설립하고 부산문화방송(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여 매일 3년간 전파선교를 한 것이었다. 다섯 개의 성경동아리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운영하였고, 이들 동아리에 125명 정도가 등록하였다. 또 라디오 방송 청취자들과 기타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통신강좌를 개설하였으며 한번에 100명 정도 등록하였다. 시내 선교부 건물 채플에 동광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를 드렸고, 평균 40여명, 최고 100명까지 참석하였다. 어린이 주일학교는 참석인원이 평균 300명이 넘었다.[616] 아래의 글은 버트 엘리스가 1960년에 필립스(Brother Phillips)에게 보낸 글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 당신은 조셉 세걸키와 나와 우리의 가족들이 원래 라디오선교방송국을 짓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도착한 지 몇 달 안 되어 우리는 그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며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이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헛된 시도를 행한 후에 조셉과 저 그리고 그 프로

614) "Ellis Family to CRM," WL, May 1956: 1-2.
615) "Ellis Family Arrives," WL, June 1958: 1.
616) "Past 1958-62," KBM, n.d.: 1.

젝트와 관련된 미국 내의 다른 사람들이 조직(CRM)에서 탈퇴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조셉과 저는 이곳의 상황을 조사하고 미주리 주 카불(Cabool, Missouri)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와 일리노이 주 링컨(Lincoln, Illinois)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후원과 감독 아래 한국방송밋숀(KBM)을 결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958년 후반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방송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가 한국 최초의 상업 라디오 방송국인 부산의 부산문화방송국(HLKU)의 소유자 및 운영진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방송국의 공식 고문이 되었고 우리의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복음을 방송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방송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지만 후한 할인을 받았고, 우리의 도움과 관계 형성이 없었다면, 종교방송인이 이곳 극동에서는 전문 라디오 산업계에 인기가 없는 현실에서 방송을 할 수 있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1959년 4월 15일부터 HLKU를 통해 매일 2개의 복음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시작했고, 6개월 동안 매일 2개의 프로그램을 계속하다가 우리가 다른 활동들도 하고 있어서 재정과 제작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 1개의 프로그램으로 줄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셉과 저는 저희 집에서 성경수업을 열기 시작했고 저희 집에서 일요일 오후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것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1959년 9월, 이 활동에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져서 우리는 주일 아침에 2시간 쓰는 조건으로 시내에 있는 공간을 빌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1960년 3월에 이 활동의 실제적 발전을 위한 공간을 임대하였습니다. 우리는 라디오 방송국 건물에 사무실이 있었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하였습니다. 우리는 라디오 방송국이 잘 보이는 시내 건물의 3층 전체와 2층의 절반을 임대하였습니다. 3층은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사용됩니다. 2층은 현재 한국인 6명으로 구성된 직원들과 우리 자신을 위한 사무실을 위한 공간입니다. 자리를 잡자마자 모든 수업과 활동을 이 건물로 옮겼습니다. 현재 교인은 25명이며, 전원이 우리가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매주 5개의 학생성경 동아리와 3개의 성경 수업이 있습니다. 교회는 일요일에 정기 예배를 드립니다.[617]

버트와 마조리 엘리스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년 정도의 안식년 끝에 1964년 4월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때 학생성경동아리가 4개였고, 참석인원이 100여명에 이르렀다. 동광교회는 여전히 지속되었고, 어린이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어린이의 숫자는 1965년 12

617) "Dear Brother Phillips," KBM, 1960: 1.

월 기간에 평균 425명, 12월 19일에는 510명, 성탄절에는 550명까지 참석하였다.[618]

1966년 1월에는 동아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산에 개척되었다. 1966년 5월에 이 교회의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어린이는 350-400명에 이르렀다. 엘리스 부부는 초교파인 부산 연합신학교에서도 가르쳤다.[619]

엘리스 가족은 1982년 6월경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에서 18년 목회, 한국에서 25년 선교를 비롯해서, 1983년 6월 서신에 의하면, 47년 가까이 사역하였다. 1983년 11월은 버트가 65세가 되는 해였다. 외아들 존은 밀리건대학을 나온 후 휘튼대학으로 옮겨서 MA 신약학석사를 마쳤다. 그 후 존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휘튼대학에 남아 직원으로 8년간 일하였고, 그 후 몇 년 동안은 보안 및 안전 책임자의 감독 직책을 맡았다. 버트와 마조리 엘리스가 한국에서 은퇴 후 미국으로 돌아간 후부터는 존도 하던 일들을 다 그만 두고 목회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임지를 찾고 있었다.[620]

3) CRM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 중이던 가족들

(1) 레이와 로레타 굳맨(Ray and Loretta Goodman)

레이와 로레타 굳맨(Ray and Loretta Goodman)은 미 공군에서 8년간의 전자기술자로 일하였다. 일리노이 주 빌리빌(Believille) 소재 제일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한 집사(1961년에는 장로)로서 링컨성서신학교를 졸업하는 1958년에 한국에 올 계획이었다.

(2)밥과 필리스 클레멘스(Bob and Phyllis Clemens)

밥과 필리스 클레멘스(Bob and Phyllis Clemens)는 1958년에 발파라

618) "Past 1958-62," KBM, n.d.: 2; "Dear Christian Friends," KBM, January 1966: 1.

619) "Past 1958-62," KBM, n.d.: 2.

620) "Dear Co-workers," Berean Christian Center, June 1983: 1-2.

CRM의 기술부를 담당하러갔던 레이와 로레타 굿맨(Ray and Loretta Goodman) 가족

CRM의 공학부를 담당하러갔던 밥과 필리스 클레멘스(Bob and Phyllis Clemens) 가족

CRM의 엔지니어링과 기계설비 분야에서 감독과 자문을 맡으러 갔던 클레어와 헬렌 포웰(Clair and Helen Powell) 가족

CRM의 교육업무를 담당하러 갔던 루이스와 돌로레스 마이어스 (Lewis and Dolores Myers)

이소(Valparaiso) 기술학교를 마치고 전자기술 준(準)학사를 1958년 10월에 받으면 한국에 입국할 계획이었다. 해군에서 전자학 분야에 복무하였다. 밥은 CRM이 내분을 겪자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에 소재한 WICS-TV에 엔지니어로 취업하였고, 밥과 필리스는 버트 엘리스와 조셉 세걸키가 새로 시작한 한국방송선교(KBM)의 미국 대리인(representatives)으로 봉사하였다.

(3) 클레어(Clair Powell)

클레어 포웰(Clair Powell)은 엔지니어링과 기계설비 분야에서 감독과 자문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클레어는 하와이에서 단기 선교사로 사역한 경험을 갖고 있었고, 라디오 엔지니어 일급 자격증 소유자로서 가족을 미국에 두고 부산에 와서 일 년간 머물 계획이었다.

(4) 루이스와 돌로레스 마이어스(Lewis and Dolores Myers)

루이스와 돌로레스 마이어스(Lewis and Dolores Myers) 부부는 교육업무를 맡아보기 위해서 1959년에 부산에 오려고 계획하였다.

4) 한국 CRM의 실패의 원인

1972년에 힐 요한 선교사는 한국 CRM의 실패의 원인이 "심한 내분과 버트 엘리스와 조셉 세걸키의 반대" 때문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한국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첫째, 선교사들 간의 친분을 보면, 힐 요한과 제인 부부는 1959년 8월 부산에 입국하였을 때 알렉스 빌즈의 집에서 2개월을 체류하다가 대전으로 올라왔다. 대교교회 장성만 목사는 방송설교자로,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교수와 힐 요한 선교사의 통역이 되기 직전에 김히영은 알렉스의 CRM에서 번역과 음악PD로 사역하였다. 반면에 장성만 목사와 함께 동서기독교실업학교를 개척한 리처드 래쉬 가족은 조셉 세걸키 가족과 절친하였다. 래쉬는 세걸키 가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빌즈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래쉬 가족은 세걸키 가족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여름휴가 등을 함께 보내곤 하였다. 서울에 주재한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가족은 알렉스 빌즈나 조셉 세걸키 가족 모두와 대체적으로 잘 어울렸다.

둘째, 알렉스 빌즈는 한국 정부로부터 부산에서의 라디오선교방송국 설립과 운영에 대한 허가서를 받고, 그 허가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22개월간 모금운동을 펼쳤고, 그 허가서를 가지고 1956년 12월 13일에 부산으로 옮겨왔다.

셋째, "심한 내분"이란 설립자와 협력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갭을 좁히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알렉스 빌즈는 방송선교라는 비전을 품은 이상주의자였고, 그 비전을 이미 5년 넘게 현실로 옮기고 있었던 강력한 추진자였다. 알렉스 빌즈는 실제로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러나 버트와 조셉은 알렉스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아니한 냉철한 현실주의자들이었다. 버트는 1960년에 필립스에게 쓴 서신에서 "그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며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이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the idea was impractical and the man who had originated the project was completely untrustworthy)고 말하였다. 자신들이 CRM에서 탈퇴한 것은 "엉망진창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헛된 시도를 행한 후에"(After vain attempts to do something with the mess) 내려진 결단

이라고 하였다.[621]

넷째, 그들 사이에 있었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자금부족이었다. 거대한 프로젝트에 비해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지난날 한성신학교가 대학개편이란 비전을 품고 캠퍼스를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로 옮기고 나서 근 20년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기대와 실망으로 파도타기를 시키다가 끝내는 폐교에 처한 상황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한성신학교 재학생, 동문, 교직원들이 겪었던 실망과 좌절감은 필설로 다 표현될 수 없는 것이듯이, 알렉스의 설교와 프레젠테이션에 감동받아 그와 그의 선교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한국에 건너온 선교사들이 선교방송국 공사의 진척과 진행과정을 보고나서 느낀 실망감과 좌절감 또한 그에 못지않았을 것이다. 조셉 세걸키의 1959년 1월경의 서신에 의하면, 선교와 선교지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부산에 온 지 일 년이 조금 지났지만, "계획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만큼 결코 이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사실이었습니다. CRM에 대한 실망감은 정말 커져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과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 즉 우리가 CRM에서 사임했다는 소식을 처음 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난 1958년 10월 25일, 미국 내 위원회의 여섯 분..., 미국 내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들은 벌렌 알렉스 빌즈에 대한 신뢰의 부족과 CRM의 사역방법이 우리와 국내에 계신 분들에게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에 사임하였습니다."라고 적었다.[622]

이 실망은 곧이어 알렉스의 사업을 비현실적이고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비판한 그들 자신에게서도 찾아왔다. 버트와 조셉은 선교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이신 목사를 비롯한 직원들을 퇴사시켜야 했고, 부산문화방송에서 시간을 사서 송출하던 방송 횟수를 매일 2회에서 1회로 줄였으며, 끝내는 3년 만에 방송선교를 접어야 했다. 총회와 총회산하의 선교국에 크게 실망하여 탈퇴했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개교회가 선택한 선교사들에게 직접 후원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모금에 탁월

621) "Dear Brother Phillips," KBM, 1960: 1.
622) "Dear Christian Friends," News Letter #2, February 1959: 1.

한 재능을 갖추지 않는 한 누구나 자금부족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 중도에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알렉스에게도 닥쳤을 것이다. 동료들의 부정적인 견해는 미국 교회들에 알려졌을 것이고, 그것이 알렉스에게는 진행하던 사업을 접어야할 만큼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결국 알렉스 빌즈 가족은 1961년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1983년까지 부산에 남은 버트 엘리스 가족도, 1962년 5월 서신에 의하면, 선교자금의 부족으로 1년 반 동안을 그나마도 넉넉지 못한 생활비의 절반을 빚을 갚는데 써야했다.

> 지난 4년 동안 우리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재정이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빨리 확장되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가족은 빚을 갚기 위해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았습니다.623)

엘리스 가족은 가까스로 비용을 마련해 1962년 7월경에 본국으로 돌아가 긴 안식년을 보내다가 1964년에야 돌아왔고, 1983년까지 총 25년간 부산에서 사역하였다.

크든 작든 하나의 조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조직 안에 일치와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1953-55년 사이 존 J. 힐, 폴 잉그람, 존 T. 채이스(서울 선교부) 사이의 내분, 1958년 한국 CRM의 내분, 1977년 존 힐과 김찬영의 내분,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한성신학교의 내분은 조직의 순수성을 빙자로 내분(개혁)을 일으키는 것과 순수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일치와 평화를 지키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에 대해서 숙고하도록 만드는 사건들이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 그리스도의교회들의 운동은 신약성경교회의 본래성과 순수성과 능력을 회복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신약성경교회 회복과 일치운동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견해차로 인한 분열이 자주 있어왔다는 것을 환원운동사는 잘 말해준다.624)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 그리스도의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의 순수성에 관한 논쟁은 초대교회 이

623) “Dear Friends,” KBM, May 1962: 2.
624) http://kccs.info/스톤-캠벨운동의 분열사.pdf 참고.

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1950년대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도 이 문제의 연속이었다. 다른 한편 순수성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평화와 일치를 지킨 때도 많았다는 것을 환원운동사는 보여준다. 순수성의 문제는 분열을 가져오고, 일치와 평화의 문제는 순수성을 해친다. 이 두 가지 순수성과 포용 사이의 갈등,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 그리스도의교회들 방식으로 말하자면, 신약성경교회회복과 일치운동 사이의 갈등을 3세기에 걸쳐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단체는 이 지상에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 그리스도의교회들을 빼고는 아무데도 없다.[625] 우리는 일치와 순수성 사이에 늘 갈등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건하게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조절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능력이 부족할 때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라디오 방송선교를 위한 선교사들

(1) 빌즈 Verlen Alex Bills 1921.04.12.-2002.05.14.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라디오방송 선교사, 목사.

알렉스 빌즈(Verlen Alex Bills)는 1921년 4월 12일에 태어났다. 빌즈는 교회 캠프에서 만난 여섯 살 연하인 피아니스트 베티(Betty Fay Bills, 1927년 8월 10일생)와 1947년에 결혼하였다. 빌즈 부부는 라디오 전파선교를 위해서 1951년에 일본 오사카(大阪)에 선교사로 부임하였다. 빌즈의 비전은 기독교복음을 전할 라디오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빌즈는 '크리스천 라디오 밋숀'(CRM: Christian Radio Mission)을 세워 일본에서 5년간 상업방송국들의 시간을 사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라디오선교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일본에서는 '이것이 삶이다'(This Is Life)라는 방송선교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일 아침 6:30-7:00시에 NJB_JOOR을 통해서 전파선교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

625) 그리스도의 교회들 운동 대사전(대한기독교서회, 2015) 참고.

램은 독창, 뚜엣, 여성합창, 라디오 성경드라마, 설교 등으로 꾸며졌으며, 이후 홋카이도를 비롯한 일본 전역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본어로 방송되었다. 유럽에서는 "성경 그리스도인 프로그램"(The Bible Christian Program)이 매주 월요일 밤에 영어로 유럽의 17개국에 방송되었으며, 2백만 명이 청취하였다.

알렉스 빌즈는 일본에서 월간소식지 「파장」(Wave Lengths)을 발행하였다. 또 빌즈는 베티와 함께 오사카성서신학교에서 가르쳤다. 알렉스 빌즈는 기독교라디오방송 관련 과목들(기독교라디오, 시청각매스컴)을 가르쳤고, 베티는 음악을 가르쳤다. 빌즈는 일본이 상업방송국을 허가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일본으로 갔지만, 일본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부산으로 눈을 돌렸다. '크리스천 라디오 밋숀'(CRM)의 최종 목표는 방송국을 설립하여 자신의 방송을 송출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최적지에 기독교라디오방송국을 세우도록 허가를 내주는 국가를 찾는 것이 큰 숙제였다. 이 숙제를 해결해 준 것이 한국정부였다. 1954말에 한국정부는 빌즈에게 부산에 기독교라디오방송국을 세워 운영해도 좋다는 허가서를 내주었다. 빌즈는 이 허가서를 근거로 1956년 9월 24일 법인 '크리스천 라디오 밋숀'(CRM Incorporated)을 미국에 설립하였으며 그해 12월 13일 전 가족이 부산으로 옮겨와 1961년까지 5년간 방송전파선교사로서 선교방송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뿐 아니라, 후속사업(follow-up work)으로 성경통신강좌, 교회개척, 지도자육성 등의 선교사역에 전념하였다.

빌즈는 라디오방송국건립을 위해서 미국에서 활발한 모금활동과 함께 건립될 라디오방송국에서 함께 사역할 일군들을 모집하였다. 이에 플로라 매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 양이 CRM의 업무비서, 음악 보조, 성경 강의를 위해 1957년 10월에 입국하였고, 조셉 세걸키(Joshep & Maxine Seggelki) 가족이 CRM의 업무 추진 담당자(Traffic Manager)로 1958년 1월 31일 입국하였으며, 버트 엘리스(Bert & Marjory Ellis) 가족이 CRM의 프로그램 제작부 담당자로 1958년 5월 3일 부산을 통해 입국하였다. 그밖에도 레이 굳맨(Ray and Loretta Goodman) 가족, 밥 클레멘스(Bob and Phyllis Clemens) 가족, 루이스 마이어스(Lewis and Dolores Myers) 부부, 클레어 포웰(Clair Powell)

이 엔지니어링과 기계설비 분야를 담당하기 위해서 입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빌즈는 1958년 1월 9일 부산시 광안동 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고, 1958년 9-10월경에 기초 작업을 시작하여 12월 26일에는 마룻대(ridgepole)를 올리는 상량식까지 가졌지만, 자금 부족으로 방송국건립이 끝내 무산되었다.

빌즈 가족은 1961년에 CRM사역을 완전히 접고 미국 텍사스 주로 돌아갔고, 휴스턴 소재 트리니티 교회(Trinity Church)에서 사역하였다. 이때 트리니티 성서신학교/사우스텍사스 성서신학교를 세워 교수로도 활동하였다. 그는 후일 오순절 은사운동의 역사가와 자료수집가로 변신하였고, 그가 소장했던 4천권의 서적은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 데이비드 알렌 허버드 도서관 특별서고(David Allan Hubbard Library's Special Collections)에 기증되었다.

부인 베티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음악 사역자로서 라디오선교방송 프로그램을 위해서 노래한 합창단과 앙상블을 지도하였다. 또 베티는 마을이 태풍으로 위태롭게 되자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출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그녀의 용감한 행동을 칭송하며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베티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 아마릴로(Amarillo) 고등학교에 조지 거슈윈회(George Gershwin Society)를 창립하여 회장을 역임하였고, 전국 피아노 교사 협회(National Guild of Piano Teachers)와 다른 전국 음악조직들에서도 오랜 기간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또 베티는 제2언어로써의 영어교육제공사의 교사로서 근무하며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다년간 텍사스 주 휴스턴에 소재한 한 사립기독학교에서 교장을 역임하였다. 또 베티는 라이프송 합창단(LifeSong Choir)에서 그의 자녀들 가운데 세 사람(Becca Bills Upham, Guy Don Bills, Kathleen Harder)과 함께 20여 년간 활동하며 2006년 선교연주여행 때에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갖기도 하였다. 빌즈는 2002년 5월 14일에 별세하여 클라인 메모리얼 파크(Klein Memorial Park, 32599 State Highway 249, Pinehurst, TX 77362)에 영면하였다. 부인 베티 페이 빌즈(Betty Fay Bills)는 2012년 3월 2일(금)에 별세하였다.

[주요저술] "Exie Arrives", Wave Lengths from Christian Radio Mission(WL), December 1952: 2; “Korea", WL, November 1954: 1-2; "Radio Station Permit Granted", WL, March 1955: 1; “Bills Family to Sail in June” and “Plans for Christian Radio Station Proceeding According to Schedule” and “Korea: the Mission Field", WL, March 1956: 1;“Dear Friends", Christian Radio Mission, April 1956; “$65,000 for CRM” and “C.R.M. Board Meeting", WL, May 1956: 1-2; "C.R.M. Incorporated", WL, October-November 1956: 1-2; “Bills Family Departs for Korea", WL, December 1956: 1-2; “Dear Friends in America", Christian Radio Mission, December 1956; “Bills Family Arrive in Korea", WL, January 1957: 1-2; “Dear Friends", Christian Radio Mission, 16 January 1957; “Alex Writes from Korea", WL, April 1957: 1; “Land", WL, July-Sept. 1957: 1-2; "Workers Arrive", WL, November 1957: 1-2; "Ground Breaking", WL, February 1958: 1,3; "Kim", WL, March 1958: 1; “Blocks", WL, July 1958: 1-2; “Foundations", WL, October 1958: 2,4; “More Progress in Korea", WL, December 1958-January 1959: 1-2; “Hurry the East", WL, February 1959: 1-2.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155;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서울: 쿰란출판사, 2018): 154-55, 2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500-25; “First-Fruits in Kobe, Japan", Fall Newsletter of Exie Fultz 1953: 1-2; “NCBA Inaugural Meeting", News Releases: Nippon Christian Broadcasting Association, September 1959: 1-2; Mark Maxey, “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 http://www.bible101.org/japanmissions/page05.htm, [게시 2018년 1월 24일]; “Obituary,” https://www.legacy.com/amp/obituaries/houstonchronicle/332438.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 구른지 Flora Maye Guernsey 1934.03.10-? 미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라디오방송업무 선교사.

플로라 매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는 1934년 3월 10일 미국 인디애나 주 헤브론(Hebron)에서 아버지 델버트(Delbert)와 어머니 안나(Anna)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1952년에 헤브론 고등학교(Hebron High School)를, 1957년에 링컨 크리스천 대학(현 Lincoln Christian University)을 졸업하였으며, 기독교교육을 전공하였다. 구른지는 한국에 나올 당시 갈색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23세의 독신 여성이었다.

그녀는 '크리스천 라디오 밋숀'(Christian Radio Mission, CRM)의 업무비서, 음악보조 및 성경강의를 위해서 1957년 10월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러나 CRM의 라디오방송국 건립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구른지는 심사숙고 끝에 1958년 10월에 CRM을 사직하였고, 일리노이 주 졸리엣(Joliet)에 소재한 선교단체(Mission Services)에 직원으로 초빙되어 1959년 2월 25일에 배로 부산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부산을 떠나기 직전에는 조셉 세걸키(Joshep Seggelki)와 버트 엘리스(Bert Ellis)가 새로 막 시작한 방송선교를 도왔다.

구른지는 존스(Jones)와 결혼하였으며, 1976년 링컨 크리스천 대학교로부터 저널리즘 분야의 환원상을 수상하였다. 링컨 크리스천 대학교는 '플로라 매이 구른지 기념 기부 장학금'(Flora Maye Guernsey Jones Memorial Scholarship)을 수여하고 있다.

[주요저술]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155;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서울: 쿰란출판사, 2018): 155, 2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513-14, 516-17; Joshep Seggelki, "Dear

Christian Friends", News Letter #3, January 1959: 1; Alex Bills, "Flora Maye Guernsey Joins CRM", Wave Lengths, January 1957: 1-2; The Christian Radio Mission Story, May 1957: 4; "Workers Arrive," WL, November 1957: 1; https://lincolnchristian.edu/wp-content/uploads/2020/10/Existing-Endowed-Scholarships-2020.10.14.pdf; https://www.ancestry.com/1940-census/usa/Indiana/Flora-Maye-Guernsey_1vlj7h.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3) 세걸키 Joseph Thomas Seggelke 1925.10.14.-2013.06.25.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라디오방송선교사.

조셉 세걸키는 1925년 10월 14일 일리노이 주 해밀턴(Hamilton)에서 아버지 조지(George H)와 어머니 넬리 마리(Nellie Marie, Hawkins) 사이에서 태어났다. 세걸키는 1943년에 링컨 커뮤니티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태평양 전쟁 때 경항공모함인 USS 카우펜스(USS Cowpens Aircraft Carrier)에서 전기기사로 미 해군에서 복무하였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4월 7일 두 살 연하인 맥신(Maxine Amberg)과 일리노이 주 링컨(Lincoln)에서 결혼하였다. 세걸키는 1957년에 링컨 크리스천 대학(현 Lincoln Christian University)를 졸업하였다. 이때가 32살이었다.

세걸키는 한국에 선교사로 입국하기 전까지 일리노이 주 팔마이라에 소재한 블루밍 그로브 그리스도(인)의 교회(Blooming Grove Christian Church in Palmyra)에서 목회하였으며, 다년간 링컨 크리스천 대학에서 설교하였다. 세걸키는 1956년 9월 9일에 안수를 받았고, '크리스천 라디오 밋숀'(CRM: Christian Radio Mission)의 업무추진담당자(Traffic Manager)로 1958년 1월 31일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러나 CRM의 라디오방송국 건립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그해 5월 3일에 입국한 버트 엘리스(Bert Ellis)와 1957년 10월에 입국한 플로라 매이

구른지(Flora Maye Guernsey) 등과 함께 1958년 10월에 CRM을 사직하고, 1959년 초부터 버트 엘리스와 합심하여 '한국방송선교'(KBM: Korean Broadcasting Mission)를 설립하고 부산문화방송(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여 4월 15일부터 매일 하루 두 번, 일주일에 세 시간씩 방송을 시작하였다. 부산문화방송 사장과도 친해져서 세걸키와 엘리스는 부산문화방송국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하였다. 1958년 12월에는 이신 목사(수년 후 Vanderbilt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를 고용하여, 방송설교, 전화상담, 성경공부, 전도용 문서발송 등의 후속선교를 이어갔다. '한국방송선교'(KBM)는 1959년부터 계간으로 「킬로사이클」(Kilocycles)이란 이름의 소식지를 발행하였고, 주일 저녁에 별도의 예배모임을 시도하였다. 세걸키와 엘리스는 방송선교와는 별도로 각각 별도의 성경공부반을 운영하였고, 1959년 9월에는 교회를 개척하였다.

세걸키 가족은 1960년 6월부터 안식년을 떠나는 해롤드 테일러(Harold and Ada Talor) 가족을 대신해서 서울 '기독교회선교부'의 책임을 맡았다가 1961년 7월에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1962년 7월에 한국으로 돌아와 더욱 활기차게 선교할 계획이었고,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할 배까지 예약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세걸키 가족은 1962년에 한국정부로부터 비자를 거부당하여 끝내 입국하지 못하였다. 그 후 세걸키는 모교인 링컨 크리스천 대학교 프린트 숍(Print Shop)에서 27년 동안 부인과 함께 프린터로 일하였다. 퇴직 후에는 13년 동안 가족 기업인 '키 프린팅'(Key Printing)에서 부인과 아들과 함께 일하였다. 세걸키는 다년간 '링컨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장로로 섬겼고, 40년간 '그리스도인 모퉁이 주일학교 분반'(Christian Corner Sunday School Class)을 맡아 가르쳤으며, 교회의 선교팀에서 봉사하였다. 또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 도시빈민선교 단체'(Inner City Mission in Springfield)를 창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사로 섬겼다. 2013년 6월 25일 88세를 일기로 일리노이 주 링컨에서 별세하여 일리노이 주 리버턴에 소재한 캠프 버틀러 국립묘지(Camp Butler National Cemetery in Riverton)에 영면하였다.

부인 맥신(Maxine Amberg)은 1927년 3월 1일 일리노이 주 링컨에서 클레런스(Clarence)와 루엘라(Luella, Brake) 앰버그(Amberg)의 딸로

태어났다. 맥신은 1945년 애틀랜타 고등학교를 1945년 졸업하였고, 링컨 크리스천 대학을 다녔다. 맥신은 '링컨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였다. 맥신(Maxine Amberg)은 2017년 7월 16일 일리노이 주 링컨에 소재한 '크리스천 빌리지'(The Christian Village)에서 90세를 일기로 별세하여 일리노이 주 리버턴에 소재한 캠프 버틀러 국립묘지(Camp Butler National Cemetery in Riverton)에 영면하였다.

[주요저술] NL: News Letter #1, January 1958: 1-4; NL #2, July 1958: 1-2; NL #3, January 1959: 1-2; KBM: Korean Broadcasting Mission, Kilocycles, July 1959: 1-4; NL #4, Kilocycles, January 1960: 1-2; "Dear Friends in Christ", Kilocycles, April 1960: 1-5; "Dear Friend in Christ", KBM, November 1960: 1; "Dear Friend in Christ", KBM, April 1961: 1; KBM, December 1961: 1-2; Christmas 1961: 1; KBM, before 1962: 1; KBM, February 1962: 1; The Seggelkes-Missionaries to Korea, June 1962: 1.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155;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서울: 쿰란출판사, 2018): 156-57, 2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514-19; Alex Bills, "New Workers Arrive", Wave Lengths, March 1958: 1-2; Richard Lash, Flashes from the Lashes, 3 October 1962: 1; Alex Billes, "Ellis Family Arrives", Wave Lengths, June 1958: 1;
https://www.legacy.com/us/obituaries/lincolncourier/name/maxine-seggelke-obituary?id=22038831;
https://newherald.news/maxine-amberg-seggelke-p2918-96.htm;
https://pantagraph.com/news/local/obituaries/joseph-seggelke/article_10463f3a-df80-11e2-95b7-0019bb2963f4.html;
https://www.legacy.com/us/obituaries/lincolncourier/name/joseph-se

ggelke-obituary?id=24517795.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4) 엘리스 F. Bert Ellis 1918-2003.12.06.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라디오방송선교사, 목사(STD), 교회개척자.

엘리스는 일리노이 주 매튠(Mattoon) 출신으로써 태평양 전쟁 때 미 육군 군목의 조수로 복무하였다. 엘리스는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성서신학교(현 Cincinnati Christian University), 일리노이 주 링컨 크리스천 대학(현 Lincoln Christian University) 및 테네시 주 밀리건 대학(현 Milligan University)에서 수학하였고,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 자유개신교 성공회 대학에서 목회학석사(B.Div) 학위를, 캔자스 주 위치타(Wichita)에 소재한 베레안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신학박사학위(Doctorate of Sacred Theology)를 받았다. 엘리스는 플로이드 존스 종교음악학교(Floyd Jones School of Sacred Music, Indianapolis, IN)에 입학하면서부터 목회를 시작하여 한국에 오기 직전에는 미주리 주에 소재한 카불(Cabool)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3년째 담임한 것을 비롯해서 총 18년간 인디애나 주, 일리노이 주, 오하이오 주, 테네시 주, 미주리 주들에서 목회하였다. 또 엘리스는 목회자로서 다년간 크고 작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감독한 유경험자였다.

버트 엘리스는 부인 마조리(Marjory Ruth) 및 외아들 존 에드먼드(John Edmund)와 함께 알렉스 빌즈(Verlen Alex Bills)가 한국정부로부터 선교방송국 설립 허가서를 받고 나서 부산에 세우려고 한 방송국의 프로그램제작부 담당자로 1958년 5월 3일에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버트 엘리스 가족이 한국에서 행한 사역은 조셉 세걸키(Joseph T. Seggelke)와 함께 한국방송밋숀(KBM: Korean Broadcasting Mission)을 설립하고 부산문화방송(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여 매일 3년간 전파선교를 한 것이었다. 엘리스는 다섯 개의 성경클럽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운영하였고, 라디오 방송 청취자들과 기타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통신강좌를 개설하였다.

부산시내 선교부 건물 채플에 동광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1966년 1월에는 동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엘리스 부부는 초교파인 부산 연합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다.

엘리스 가족은 1982년 6월경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에서 18년 목회, 한국에서 25년 선교를 비롯해서, 47년 가까이 사역하였다. 버트 엘리스는 2003년 12월 6일 토요일 켄터키 주 루이빌에 소재한 유대인 병원에서 85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주요저술] KBM: Korean Broadcasting Mission, Kilocycles, July 1959: 1; “Dear Friends”, February 1960: 1-3; “Dear Friends, Co-Workers in Christ”, Kilocycles, April 1960: 1-4; “Dear Brother Phillips", KBM, n.d.: 1-2; “Dear Friends", KBM, n.d.(1961?): 1-2; “Dear Friends", KBM, May 1962: 1-2; “Introduction to Korea", 1963: 1-17; “The Christian Mission”, KBM, Vol. 8, No. 12, December 1964: 19-20, 28; “Dear Christian Friends", KBM, January 1966: 1-2; “Dear Friends of Missions", KBM, 8 February 1966(date of receipt): 1-4; “Dear Friends”, KBM, February, March, April 1966: 1-3; “Dear Friends", KBM, April 1966: 1-2; “Dear Friends", KBM, May 1966: 1-2; “Dear Friends”, KBM, May-June 1966: 1-2; “Dear Christian Friends", News from Korea, August, September, October 1966: 1-2; “Dear Christian Friends", Our Sincere Thanks, 12 September 1966: 1; “Past 1958-62, Present 1964-, Future", KBM, n.d.(1966?): 1-4; KBM, December 1966: 1-2; “Dear Christian Friends", KBM, January 1967: 1-2; “Dear Friends", KBM, September 1967: 1-3; “Dear Christian Friends", KBM, December 1967: 1-3; “Dear Christian Friends", KBM, January-February 1968: 1-2; “Dear Christian Friends", KBM, June 1968: 1-2; KBM News Release, 1968: 1-2; “Dear Christian Friends", KBM, Christmas 1968: 1-2; “Dear Christian Friends", KBM, August 1969: 1-3; “Dear Christian Friends", NBEK: News from Bert Ellis in Korea, September 1976: 1-2; “Dear Christian Friends", NBEK, February 1977: 1-2; “Dear Christian Friends", NBEK, May 197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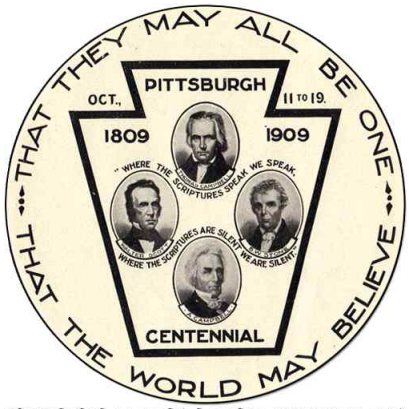
"Dear Christian Friends", NBEK, October 1977: 1-2; "Dear Christian Friends", NBEK, January-February-March 1978: 1-3; "Dear Christian Friends", NBEK, October-November-December 1978: 1-3; "Dear Christian Friends", NBEK, January-July 1979: 1-3; "Dear Co-Workers in Christ", NBEK, August-October 1979: 1-2; "Dear Co-Workers in Christ", NBEK, September 1979-January 1980: 1-2; "Dear Co-Workers in Christ", NBEK, February-May 1980: 1-2; "Dear Co-Workers", NBEK, December 1981: 1-2; "Dear Co-Workers", Berean Christian Center, Dr. Bert Ellis, June 1983; 1-2.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155;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서울: 쿰란출판사, 2018): 156-57, 2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519-20; Alex Bills, "New Workers Arrive", Wave Lengths, March 1958: 1-2; Alex Bills, "Ellis Family Arrives", Wave Lengths, June 1958: 1;
https://www.legacy.com/us/obituaries/louisville/name/f-ellis-obituary?id=27715965.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의 '환원운동의 원칙'

책은 성경만(No Book but the Bible)
신조는 그리스도만(No Creed but the Christ)
명칭은 하나님의 것으로만(No Name but the Divine)
주장은 복음만(Our Plea Only the Gospel)
일치의 근거는 성경(신약)으로만(The Basis for Unity the Bible Alone)
기본교리에는 통일을(In Essentials Unity)
의견에는 자유를(In Opinions Liberty)
매사에는 사랑으로(In All Things Charity)



백주년대회 포스터(피츠버그 1909.10.11-19.)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
"모두 하나가 되어...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그리스도인환원협회의 모토
"일어나 건축하자"(느 2:18)

IV. '한국 크리스챤 밋숀'(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의 한국선교

1. 존 힐 선교사의 생애 후반기 선교사역

1) 존과 제인 힐(John and Jane Hill) 가족의 재입국과 후반기 생애

존과 제인 힐 부부와 딸 버지니아 힐 선교사 가족
존 힐(John J. Hill)은 1956년 5월 25일 제인(Jane Kinnett)과 재혼하여 데니(Denny)와 티나(Tina)를 낳았고, 한국에서 쌍둥이 형제 리노(Lino)와 더그(Doug)를 입양하였다. 재혼 전에 존에게는 세 자녀, 브루스(Bruce), 버지니아(Virginia), 수잔(Susan)이 있었고, 결혼 전 제인은 미혼자로서 몰리 챤이라는 중국인 고아 소녀를 비공식으로 입양하여 데리고 있었다.

1950년대 충청전라지역에서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김은석은 1963년 1월 21일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리에서 별세하였다. 이때는 이미 존 J. 힐(John J. Hill) 선교사가 대전시 서구 가장동에 터를 잡고 한국성서신학교를 시작한지 만 3년이 된 시점이었고, 짧지만 김은석도 동역했던 기간이어서 김은석의 사역은 존 힐에게 충분히 인계된 셈이었다. 따라서 대전에서 새로 시작한 존 힐은 김은석의 터전인 충청전라지역을 선교사역지로 물려받은 셈이 되었다. 존 힐이 1955년 7월 5일에 서울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를 아주 떠난 후, 동년 11월에 기독교회선교부를 물려받은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가 4년간 여러 차례 순방(巡訪)함으로써 충청전라지역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세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존 힐이 해롤드 테일

러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충청전라지역에서 누릴 수 있었다.

첫째는 김은석 목사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테일러 선교사의 후원방식과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었고, 한국인을 이해하고 사랑했던 힐을 반기는 기운이 역력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충청전라지역에서 영향력이 컸던 김은석 목사가 1963년 1월 21일 별세하였기 때문이다. 김은석은 1950년대 말경 종기(腫氣)치료를 위해서 '강신규'(전도사)의 거처에 머물며 간호를 받았던 일로 목회자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침거에 들어갔다가 별세하기 전까지 만 3년(1960-62)가량 대전에 둥지를 틀고 1959년 10월경부터 선교사역을 새로 시작한 존 힐 선교사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도왔기 때문이다.

셋째는 때마침 이 짧은 시기는 테일러 선교사가 서울 서대문구 송월동의 기독교회선교부와 서울성서신학교의 부지 396평과 그 위에 세워진 선교부 건물과 신학교 건물을 1959년 6월 3일까지 모두 팔고, 1963년 3월에 다시 개강할 때까지 7,087평의 역촌동(현 신사동) 땅위에 새 캠퍼스를 조성 중이던 때였다. 서울성서신학교가 3년간 문을 닫았던 바로 그 시기인 1959년 12월 1일에 존 힐은 대전에서 한국성서신학교를 시작하였다.

이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1960년대는 존 힐과 한국성서신학교의 영향력이 충청전라지역에 크게 미친 기간이었다. 충청전라지역에서의 힐 선교사의 영향력이 김은석 목사만큼 크지는 못하였지만, 학생들의 상당수가 충청전라출신이었다. 이 시기만큼은 존 힐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다른 선교사들과 신학교들보다 훨씬 더 컸다. 또 이 시기는 존 힐 선교사의 생애 황금기였다. 일제의 탄압도 더 이상 없었고, 6·25와 같은 전쟁도 더 이상 없었다. 학생들과 목회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도 받았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선교자금이었다. 그는 1972년 6월, 한국 나이로 60세 때 한국에서 은퇴하였다. 그의 은퇴가 빨랐던 이유는 모금의 어려움이 다른 현실적인 이유들 속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힐은 1955년에 후임자인 해롤드 테일러(Harold and Ada Taylor) 선교사 부부에게 새로 지은 신학교 건물을 포함한 송월동 선교부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쫓기다시피 한국을 떠나야 했다. 이듬해인 1956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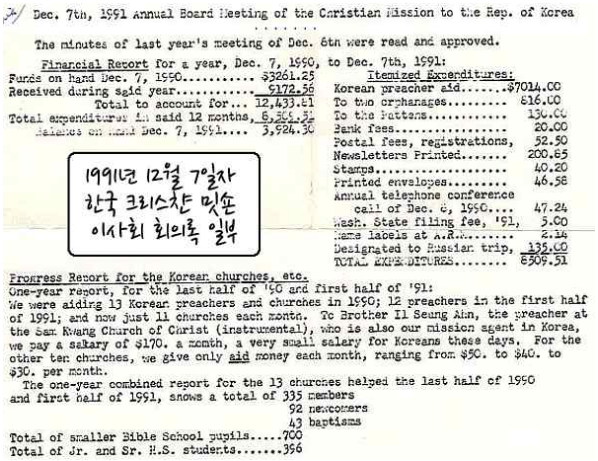
25일 존 힐은 중국, 미얀마, 일본,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경험한 미혼여성 제인 키넷트(Jane Kinnett)와 재혼하였고, 1959년 8월에 부산을 통해서 재입국하여 알렉스 빌즈 가족과 함께 2개월을 지낸 후, 선교사가 없던 대전에 정착하였다.

존 힐은 제인과의 사이에서 데니(Denny)와 티나(Tina)를 낳았고, 한국에서 쌍둥이 형제 리노(Lino)와 더그(Doug)를 입양하였다. 재혼 전에 힐에게는 세 자녀, 브루스(Bruce), 버지니아(Virginia), 수잔(Susan)이 있었고, 제인은 몰리 챤이라는 중국인 고아 소녀를 비공식으로 입양하여 데리고 있었다. 제인은 초등부터 중등과정까지 가르치는 크레스턴 그레이드 학교(Creston Grade School)에서 교사로 일한바 있으며, 힐과 결혼한 후인 1956년부터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인 1959년 전반기까지 인디애나 주 레이크 카운티 소재 초등학교에서 가르쳤다. 존 힐이 1972년 6월 은퇴 후 미국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목회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인 힐은 1973년 9월부터 1976년 6월까지 학교 요리사로 일하였다. 제인은 B형 간염으로 1982년 6월 29일 별세하였다.

존 힐은 제인과 함께 생애 50대를 한국에서 보낸 1960년대가 가장 성공적인 황금기였다. 그들 부부는 이미 선교사들이 정착한 서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대전에 정착하여 가장동에 한국성서신학교와 '한국 크리스챤 밋숀'(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을 세워 1972년 6월까지 10여년 넘게 교장으로 봉직하면서 주일마다 교회들을 찾아가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설교하며 침례를 베풀었다. 이밖에도 존 힐은 1959년 이후 세 곳의 고아원들, 곧 부산의 성광원, 연무대의 에덴보육원, 인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고아원들과 고등공민학교, 맹아학교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였다. 그는 1939년에 시작한 파란만장한 한국에서의 대역사를 마치고, 1972년 6월에 영구 귀국한 후에도 별세할 때까지 한국의 미자립 교회들을 후원하였고,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했던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산 증인이자 역사 그 자체이다.

존 힐 선교사는 본국에 돌아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을 돕고 있었음을 그가 남긴 몇 장의 카본카피와[626] 1991년 12월 7일자 한국 크리스챤 밋숀 이사회 회의록(사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남겨진 카본카피에 의하면, 1978년 5월과 7월에는 밥 워릭(Bob and Joyce Warrick) 선교사 부부 앞으로 편지와 돈이 송금되었고, 1978년 9월에는 노봉욱 장로, 1982년 1월에는 죠 가맨(Joe R. Garman) 선교사 그리고 1989년 10월에는 안일승 목사 앞으로 힐 요한 선교사의 편지와 돈이 송금되었다. 이 돈은 한화(韓貨)로 환전된 다음 힐이 돕고자 한 후원자들에게 보내어졌다.


Dec. 7th, 1991 Annual Board Meeting of the Christian Mission to the Rep. of Korea

The minutes of last year's meeting of Dec. 6th were read and approved.

Financial Report for a year, Dec. 7, 1990, to Dec. 7th, 1991:

Funds on hand Dec. 7, 1990..... $3261.25
Received during said year..... 9172.56
Total to account for... 12,433.81
Total expenditures in said 12 months, 8,509.51
Balance on hand Dec. 7, 1991.... 3,924.30

Itemized Expenditures:

Korean preacher aid.....	$7014.00
To two orphanages.....	816.00
To the Pattons.....	130.00
Bank fees.....	20.00
Postal fees, registrations,	52.50
Newsletters Printed.....	200.65
Stamps.....	40.20
Printed envelopes.....	46.58
Annual telephone conference call of Dec. 6, 1990....	47.24
Wash. State filing fee, '91,	5.00
Name labels at A.R.M.....	2.34
Designated to Russian trip,	135.00
TOTAL EXPENDITURES.....	$509.51

1991년 12월 7일자 한국 크리스챤 밋숀 이사회 회의록 일부

Progress Report for the Korean churches, etc.

One-year report, for the last half of '90 and first half of '91:

We were aiding 13 Korean preachers and churches in 1990; 12 preachers in the first half of 1991; and now just 11 churches each month. To Brother Il Seung Ahn, the preacher at the Sam Kwang Church of Christ (instrumental), who is also our mission agent in Korea, we pay a salary of $170. a month, a very small salary for Koreans these days. For the other ten churches, we give only aid money each month, ranging from $50. to $40. to $30. per month.

The one-year combined report for the 13 churches helped the last half of 1990 and first half of 1991, shows a total of 335 members
92 newcomers
43 baptisms

Total of smaller Bible School pupils.....700
Total of Jr. and Sr. H.S. students.....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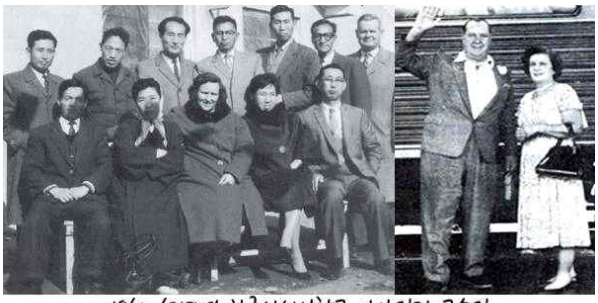
1991년 12월 7일자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일 년에 한차례 12월 초에 있었고, 이사들의 이름과 회의내용을 볼 수 있다. 재정보고에 따르면, 1990년 이월잔액이 3,261불 25센트였고, 1991년 수입이 9,172불 56센트였으며, 지출이 8,509불 51센트였다. 1990년에는 2곳의 보육원과 13명의 목회자와 교회들을 도왔으나, 1991년의 전반기 6개월은 12개 교회, 후반기 6개월은 11개 교회를 도왔다. 도움을 준 액수는 목회자의 경우 매월 50불에서 30불까지였다. 삼광 그리스도의 교회 안일승 목사가 매우 적은 액수의 급여(매월 170불)를 받고 대리인의 역할을 여러 해 동안 수행하였다. 필자도 무보수로 잠깐 동안 존 힐 선교사를 위해서 대리인 업무를 보았으나 안일승 목사가 재차 이어받았다.

존 힐은 제인이 별세한 후 이듬해인 1983년에 미조리 주 조플린(Joplin)에서 아이린(Irene Waltma, 1913-2011)을 만나 재혼하였다. 미국인들은 노년에 혼자 남게 되는 경우, 짝을 만나 재혼하는 일이 매우 흔하다. 존 힐 선교사는 2009년 11월 4일 만 96세로 별세할 때까지 에덴보육원과 한국의 열악한 5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매월 후원하였

626) cc.: 타자기에 두 장의 용지와 그 사이에 먹지를 넣어 복사본을 만든 것.

고, 이사회 회의록에 적시되었듯이 러시아 단기전도사역에도 참여하였다. 힐은 수천 권의 성경을 러시아에 반입시켰고 나병환자들을 후원하였다. 존 힐은 2009년 11월 4일(수) 오후 4시 58분 96세로 미주리 주 조플린에서 별세하여 호프산공원묘지(Mt. Hope Cemetery)에 영면하였다.[627]

2)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챤 밋숀'의 설립과 모금의 어려움



1960-62년경 한국성서신학교 이사진과 교수진
앞줄 우측부터 이종만 목사, 김현숙 집사, 제인 힐 선교사, 김희영 교수의 사모, 최요한 목사, 뒷줄 우측부터 존 힐 선교사, 최요열 목사, 임문봉 목사, 임명진 장로, 이신 박사, 정인소 박사, 심영진 목사, 오른쪽의 외국인 부부가 해롤드와 에스더 디바르(Harold and Esther DeBar)이다.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챤 밋숀'은 1964년 4월 17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선교재단이었다. 노봉욱 에덴보육원 원장이 발로 뛰어 어렵게 받아낸 것이었다. 인가 장소는 충남 대전시 가장동 79-5(구획정리 후 21-5)번지였으며, 설립이사들은 힐 요한, 힐 제인, 해롤드 드바르(Harold DeBar), 에스더 드바르(Esther DeBar), 임명진 장로, 노봉욱 장로 였다. 이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으로 개명되었으며, 현재 32개의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다.

존 힐은 1964년 5월 2일자로 미국의 대리인인 드바르(De Bar)에게 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냈다.

(1) 대전 유천동 교회건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00불이 즉시 필요하다. (충남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 곧 현재의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한다. 63년 9월경에 시멘트벽돌로 40평 교회를 신축하고 있었고, 이 무렵부터 도마기독지교회로 불렀다. 시멘트벽돌로 40평 건

627) "In Memory of John J. Hill, 1913-2009," https://masonwoodard.com/book-of-memories/2136655/hill-john/obituary.php; "Irene Waltman Hill, Obituary," https://www.parkermortuary.com/obituary/1233910.

1963년 9월경에 시작한 40평 크기의 성화교회(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축라 예배드리는 모습(1964년 8월 26일 촬영). 이 무렵부터 성화교회는 '도마기독지교회'로 불렸다.

물을 짓기 직전에는 흙벽돌로 지은 20평 가량의 건물이었고 한국성서신학교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흙벽돌 건물 직전에는 천막교회였다.)

(2) 섬에 보낼 신약성경, 전도지, 복음서, 연필 등이 필요하다.

(3) 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3명의 남성이 침례를 받았고, 2명의 여성 신학생들(이영선, 하봉례)이 가서 설교하고 있다.

(4) 최요한은 성공적인 부흥목사이며, 많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부흥집회들을 인도하는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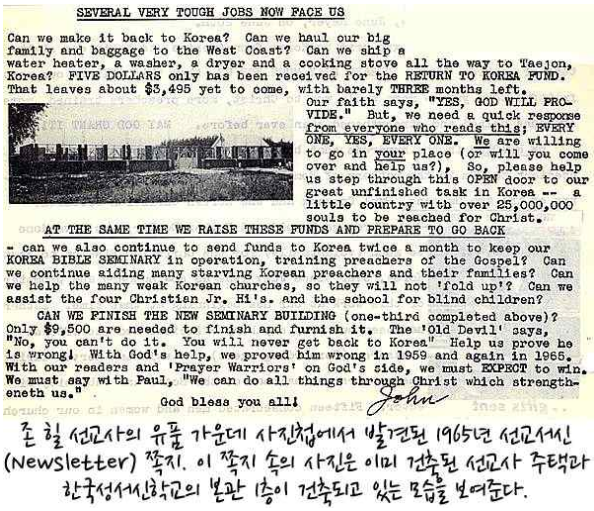
(5) 마명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있었던 결혼식과 신혼부부를 소개하였다.

(6) 성공적인 시골 교회로서 마명리 그리스도의 교회당과 성도들을 소개하였다. 힐은 1964년 4월에 그곳을 방문하여 설교하였고, 6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며,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7) 목포 인근의 압해도를 방문하여 순복음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에서 3일간 설교하였다. 안방이 비좁아 마당에 멍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다. 존 힐 선교사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의교회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사진첩에서 발견된 1965년 선교 소식(Newsletter) 쪽지에 의하면, 모금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보여준다. 한국에 돌아가는데 필요한 경비 3,500불 가운데서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금된 돈이 불과 5불에 불과하다면서 2,500만 한국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필요한 가전도구들을 대전에 실어 보낼 수 있을지를 소식지를 받아보는 이들에게 묻고 있다. 쪽지의 글(그림)은 1965년 재입국을 앞둔 상황에서 모금이 얼마나 힘겹고 눈물겨운 싸움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힐은 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한국인과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걸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난관들



SEVERAL VERY TOUGH JOBS NOW FACE US

Can we make it back to Korea? Can we haul our big family and baggage to the West Coast? Can we ship a water heater, a washer, a dryer and a cooking stove all the way to Taejon, Korea? FIVE DOLLARS only has been received for the RETURN TO KOREA FUND. That leaves about $3,495 yet to come, with barely THREE months left.

Our faith says, "YES, GOD WILL PROVIDE." But, we need a quick response from everyone who reads this; EVERY ONE, YES, EVERY ONE. We are willing to go in your place (or will you come over and help us?), So, please help us step through this OPEN door to our great unfinished task in Korea -- a little country with over 25,000,000 souls to be reached for Christ.

AT THE SAME TIME WE RAISE THESE FUNDS AND PREPARE TO GO BACK

- can we also continue to send funds to Korea twice a month to keep our KOREA BIBLE SEMINARY in operation, training preachers of the Gospel? Can we continue aiding many starving Korean preachers and their families? Can we help the many weak Korean churches, so they will not 'fold up'? Can we assist the four Christian Jr. Hi's. and the school for blind children?

CAN WE FINISH THE NEW SEMINARY BUILDING (one-third completed above)? Only $9,500 are needed to finish and furnish it. The 'Old Devil' says, "No, you can't do it. You will never get back to Korea" Help us prove he is wrong! With God's help, we proved him wrong in 1959 and again in 1965. With our readers and 'Prayer Warriors' on God's side, we must EXPECT to win. We must say with Paul, "We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eth us."

God bless you all!

John

존 힐 선교사의 유품 가운데 사진첩에서 발견된 1965년 선교서신 (Newsletter) 쪽지. 이 쪽지 속의 사진은 이미 건축된 선교사 주택과 한국성서신학교의 본관 1층이 건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가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가족과 짐 가방을 서부 해안에 끌어 옮길 수 있겠습니까? 온수기, 세탁기, 건조기, 요리용 스토브를 한국 대전까지 실어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돌아가기 위한 기금이 겨우 5불밖에 모금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석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3,495불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 소식지를 읽는 모든 이들로부터 신속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모든 분들, 예, 모든 분들이요. 우리는 기꺼이 여러분의 계신 지역에 방문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열린 문을 통해서 - 그리스도를 위해서 찾아가야할 2,500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사는 한 작은 나라 - 한국에 펼쳐놓은 우리의 끝내지 못한 대사업에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꼭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이들 기금들을 모금하며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한국성서신학교를 보존하여 운영하고 복음 전도자 양성을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한국에 계속해서 기금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많은 한국인 목회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연약한 한국의 교회들을 도와서, 그래서 교회들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네 개의 기독중학교들과 맹아어린이학교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학교 신축건물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위의 사진: 3분의 1의 공정을 보인 신축건물) 그것을 끝내고 설비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고작 9,500불입니다. '옛 마귀'는 말하기를, "안 돼. 넌 그것을 할 수 없어. 넌 결코 한국에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가 옳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1959년에 입증하였고, 또 다시 1965년에 입증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우리의 독자들과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서명) 존(John).

쪽지 뒷면에는 1959년 힐 요한, 힐 제인 선교사부부가 한국에 나와 대전에 정착할 시점부터 힐 선교사 부부를 미국 대리인들로서 자원하여 도운 해롤드와 에스더 드바르(Harold and Esther DeBar) 부부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스타' 드바르 부부

해롤드와 에스더 드바르 부부입니다. 그들은 1959년 7월 이후로 우리가 새로 시작한 때인 그 당시 이 사역의 공동 설립자들이요 발기인들로서 '한국 크리스챤 밋숀'(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을 위해 (자원하여)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에스더는 우리의 매우 능력 있고, 능률적이며, 헌신적인 재정담당자(발송 대리인)이었습니다. 해롤드는 그동안 선교이사회 회장과 홍보 담당자로서 섬겨오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에서 15명의 남녀 성별된 분들이 이사들로서 활동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조언과 도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보내진 기부금은 세금감면이 됩니다.

3) 1960년대 충청전라지역 교회 상황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소계**	북한	서울	경기	강원	경남	경북	부산	**합계**
1924-42년 요츠야선교부 설립					**0**	4	5	5			5		**19**
1935-41년 존 채이스, 존 힐					**0**		6		1				**7**
1950년 6월 25일 전까지, 존 힐													**42**
1953-58년 김은석 목사 주소록	9	14	28		**51**		2			2	4		**59**
1955년 해롤드 테일러 전수조사													**75**
1957년 기독교연감	6	13	17	0	**36**								**51**
1965년 기독교연감	19	16	24	1	**60**								
1970년 기독교연감													**92**
1971년 존 J. 힐 주소록	21	14	26	2	**63**		10	5	2		2		**82**
1976년 기독교연감													**106**
1985년 협의회 주소록													**286**

존 힐에 의하면, 6·25전까지 42개, 해롤드 테일러에 의하면, 1955년까지 전국에 75개 교회가 있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가

324쪽에서 인용한『기독교 연감』(1957)에 의하면, 1956년 충북에 13개, 충남에 6개, 전남에 17개, 총 36개의 교회가 있었다. 1965년『기독교연감』에 의하면, 1964년 충북에 16개 교회, 충남에 19개 교회, 전남에 24개 교회, 전북에 1개 교회, 도합 60개의 교회가 있었다. 1956년에 36개였던 것이, 힐 요한에 의해서 대전시 서구 가장동 21-5번지에 최초의 한국성서신학교 교사(校舍)가 지어지던 1964년까지 만 8년 만에 24개가 더 늘어나 60개가 되었던 것이다.[628]

김은석 목사가 성경에 삽입시킨 주소록에 적힌 교회들로는 경기 2, 경남 3, 경북 4, 서울 7, 전남 29(30), 충남 10, 충북 14, 장소 미확인 2, 도합 72곳이었다.[629] 이들 교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추정되는 것만을 계수하여 표에 삽입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주소록에서 계수된 59개 교회는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1955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75개보다 16개나 적은 숫자이며, 1956년『기독교연감』에 실린 것보다는 8개가 많은 숫자이다. 그리고 1956년『기독교연감』에 실린 숫자는 전수조사에 의한 것보다 무려 24개나 적은 숫자이다.

존 힐 선교사의 주소록에는 총 88개의 주소가 영어와 한글이 섞인 자필로 실려 있다. 그 가운데 겹친 주소가 2개, 교회가 아닌 주소가 4개, 따라서 총 82개가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주소들이다: 서울 10, 전남 26, 전북 2, 충남 21, 충북 14, 경북 2, 강원 2, 경기 5.[630] 이들 가운데서 김은석 목사의 주소록과 겹치는 주소는 21개(전남 10, 충남 3, 충북 8개)이다. 이것은 김은석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1946-1959년 사이에 충청도와 전라도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1971년까지 최소한 21개 정도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김은석 목사의 주소록과 존 힐의 주소록에 실린 교회들이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전체 숫자가 아니었다란 점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는 리차드 래쉬(Richard Lash) 선교사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5개 교회들이 성

628)『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도서출판 한림, 2006): 324.

629) 조동호,『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도서출판 시시울, 2020): 28-31;『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7): 298-300; http://kccs.info/그리스도의교회이야기_증보판20181113.pdf.

630) 조동호,『힐 요한 선교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1): 21-30; http://kccs.info/hilljohn.pdf.

장하고 있었고, 부산에도 장성만 목사가 개척하여 시무한 대교교회와 버트 엘리스(Bert Ellis) 선교사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2개 교회들(동광교회, 동아교회)이 더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존 힐 선교사 가족과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가족이 은퇴한 1970년대 초반 곧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협의회)의 선교역사가 50년(1924-1974)이 되는 해에는 총 100여개의 교회들이 있었음을 1976년 『기독교연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무렵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들(교역자회)에도 50여개의 교회들이 있었다.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협의회)의 100여개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들(교역자회)의 50여개의 숫자가 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일제강점기 말에 어렵게 세워진 교회들이 모두 폐쇄되거나 해체 당하였고, 해방 후 재건된 교회들이나 개척된 교회들은 또다시 6·25전쟁으로 대부분 흩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이들 교회들은 대다수가 6·25전쟁이후에 재건되었거나 시작된 것들이다.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협의회)의 경우는 해방 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와 서울성서신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을 통해서, 1960년대부터는 추가로 설립된 한국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에 의해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신학교들에 힘입어 1976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 무려 180개 교회들이 증가(2.7배)하여 총 286개로 성장하였다. 이 숫자는 적지 아니한 교회들이 타 교단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자들'의 숫자이므로 개척된 교회들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들(교역자회)은 그리스도신학대학과 성경통신교육원(BCC)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에 의해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충청전라지역 교회 상황을 보면, 1946-59년까지의 김은석 목사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영향으로 충청과 전남에 50여개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고, 존 힐 선교사와 한국성서신학교의 10여년의 선교사역의 결과물은 충청과 전남에서 12개 교회가 증가한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존 힐의 주소록에 실린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을 포한한 것이 아닐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이 숫자는 타 교단으로 이적한 교회들과 생존에 실패한 교회들의 숫자가 빠져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소폭으로나마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부침이 극심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1960-70년대는 1980년대를 위한 긴 인고의 시간들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시절에는 신학교들이 대학으로 개편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다. 많이 늦기는 하였지만, 1972년 2월에 대한기독교신학교가 정부로부터 학교법인 환원학원과 4년제 각종학교 설립인가를 받았고, 1981년 3월 2일에는 서울성서신학교와 통합하였다. 한국성서신학교는 그보다 9년이나 늦은 1981년 2월 16일 학교법인 성령학원과 한성신학교로 4년제 각종학교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존 힐이 1960년대에 누렸던 충청전라지방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최윤권 목사와 대한기독교신학교로 점차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나 학력인정지정은 한성신학교(1983년 10월 5일)가 대한기독교신학교(1985년 2월 2일)보다 1년 먼저 받았다. 이로써 입학정원이 늘어나고 이들 신학교들에서 배출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면서 1980-90년대에 가장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1) 존 힐 선교사의 자필 주소록에 명기된 목회자들(50명)

강경준, 고광석(윤식), 고재윤, 김동식, 김동열, 김봉섭, 김상식, 김상신, 김순철, 김영신, 김용순, 김은성, 김일순, 김재술, 김재업, 김정만, 김중현(장로), 김치연, 김칠성, 김현경, 김형주, 라명환, 명연재, 명철재, 민홍기, 박옥채, 설하운, 송영히, 심영진, 안병호, 안일승, 양정식, 오현팔, 유덕례, 이규승, 이백호, 이사돈, 이순애, 이안식, 임병선, 장주업, 장휘명, 조규석, 조충연, 최요한, 최용호, 최이선, 최태시, 함명덕, 함태영(창현).

(2) 존 힐 선교사의 자필 주소록에 명기된 교회들

강원도 강능(릉)시 병산리 병산 그리스도의 교회
강원도 강능(릉)시 옥천동 사서함8호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교항리 ---주문진 그리스도의 교회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내천동 706 안양 그리스도의 교회 장주열 목사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 김재업 목사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 이황리 장호원(황정) 그리스도의 교회 안병호 전도사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 655, 부평 그리스도의 교회 설하운 전도사
경기도 인천시 숭의동 231 숭의 그리스도의 교회 김영신(?) 목사
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 안동복음중학교 양정식 목사
경북 안동군 풍산면 죽전동 그리스도의 교회 송영히 전도사
경북 영양군 영양면 서부동 영양 그리스도의 교회 오현팔 목사
부산시 부산진구 금성-개척관 내, 김봉섭 목사
부산시 중앙 YMCA내 -
서울 마포구 대흥동 18 신촌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산 53 갈현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서대문구 역촌동 산 42-2 역촌 그리스도의 교회 김상식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99 홍제동 그리스도의 교회 조충연 목사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 274 돈암 그리스도의 교회 민홍기 목사
서울 영등포구 외발산동 197-3 광명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용산구 도원동산 10, 도원동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용산구 효창동 5의 198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종로구 명륜동 4가 85-4 대학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9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연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강진군 기룡리 103 기룡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강진군 작천면 중앙리 작천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강진읍 서성리 103 강진읍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광주시 금동 46 금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동열 목사
전남 광주시 학익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동열(?) 목사
전남 목포시 고하도 고하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목포시 대안동 11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최요한 목사
전남 무안군 이로면 외달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신안군 압해면 매화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여천군(여수시) 돌산면 우두리 세구지 백초 그리스도의 교회 장휘명 전도사
전남 여천군(여수시) 화양면 장등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그리스도의 교회 최이선
전남 영암군 학산면 평리 그리스도의 교회 이순애
전남 진도군 군내면 대사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사(산)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해남군 계곡면 여수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해남군 송지면 매화리 그리스도의 교회 김형주 전도사
전남 해남군 옥천면 동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화당리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해남군 현산면 상구신리 구신리 그리스도의 교회 김일순 목사
전남 해남군 화산면 마명리(방축리) 그리스도의 교회 김중현 장로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사포리(평호리) 그리스도의 교회 명연재 전도사
전남 해남군 화(황)산면 삼호리(옥동리) 삼호 그리스도의 교회 김상신 전도사, 유덕례
전북 김제군 백산면 조종리 태매, 대산 그리스도의 교회 라명환 전도사 <전북 김제군 공덕면 공덕리 금아 (대산교회), 김일수 남자집사, 염소 키우는 분)>
전북 전주 금암동 728-156 그리스도의 교회 최용호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논산군 부적면 탑골리 금성 그리스도의 교회 함명덕 목사
충남 논산군 연무읍 동사(산)3동 880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논산군 양촌면 산직2구 신정 그리스도의 교회 이백호 전도사
충남 대덕구 탄동면 내동리 그리스도의 교회 명철재 전도사
충남 대덕군 북면 석봉리 신탄진 그리스도의 교회 김용순 목사
충남 대덕군 유성면 죽동리 그리스도의 교회 김칠성 전도사
충남 대전시 가양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재술
충남 대전시 대사동 그리스도의 교회 이사돈 목사
충남 대전시 대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동식 전도사
충남 대전시 도마동 그리스도의 교회 심영진 목사
충남 대전시 산성동 450 그리스도의 교회 임병선 목사
충남 대전시 석교동 그리스도의 교회 박옥채 전도사
충남 대전시 선화동2구 315번지 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치연 목사
충남 대전시 신흥동 161-33 신흥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현경 목사
충남 대전시 판암동 476 판암 그리스도의 교회 고재윤 목사
충남 마산군 은봉면 산동리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보령군 주포면 마강2리 구슬 그리스도의 교회 최태시 전도사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황골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천원군(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그리스도의 교회 김순철 전도사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그리스도의 교회 강경준 전도사
충북 괴산군 불정면 과전리(외령리) 영촌 그리스도의 교회
충북 괴산군 불정면 영천리 반능 그리스도의 교회 김정만 목사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리 그리스도의 교회 이안식 목사
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그리스도의 교회 고광석(윤식) 목사
충북 주원군(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노은 그리스도의 교회

충북 중원군 동양면 조동리 그리스도의 교회 조규석 목사
충북 중원군 소태면 덕은리 덕은(조기암) 그리스도의 교회
충북 중원군 소태면 복탄리 그리스도의 교회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리 그리스도의 교회 안일승 목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양촌 그리스도의 교회 김은성 목사
충북 청원군 남일면 방서리 방서리 그리스도의 교회 함태영(창현) 목사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그리스도의 교회 이규승 전도사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 송정 그리스도의 교회, 치 전도사
충북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 그리스도의 교회

4) 존 힐 선교사가 후원한 학교들

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 안동복음중학교

충남 논산군 연무읍 논산 순의도중학교(현 연무여자중학교)

존 힐 선교사는 충남 논산군 연무읍 에덴보육원의 설립자 노봉욱 원장이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 철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로버트 스나이더(Robert M. Snyder) 박사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논산 순의도 중학교, 양정식 목사가 운영한 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 안동복음중학교, 장호원과 충주에 세워졌던 총 네 개의 기독교 중학교들과 이리 맹아 어린이학교를 지원하였다. 그가 지원했던 이들 학교들 가운데는 자금부족으로 두 곳이나 문을 닫았지만, 1965년의 선교소식지에 의하면, 존 힐 선교사는 이들 수백 명의 가난한 소년 소녀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모금에 힘썼다.

5) 존 힐 선교사가 설립했거나 후원한 보육원들

대전 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 애생원

충남 논산군 연무읍 에덴 보육원

존 힐 선교사는 1951년 8월 4일 서울 송월동 선교부에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Christian Mission Orphanage)을 시작하였고, 이종만 목사가 1952년 8월 1일에 설립한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1950년대 초에 설립된 대전 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 애생원, 1952년에 설립된 대구 배성보육원, 1959년 이후 홍경채가 설립한 부산 성광원, 노봉욱 장로가 1959년 10월 15일에 설립한 논산(연무) 에덴보육원에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냈다. 또 자신의 맏딸 버지니아가 대전 선교부에 1968년에 설립한 보육원(Taejon Christian Orphanage)을 직접 관리하였다. 이밖에도 충남 부여군 합송리에 구애보육원이 있었다. 이 무렵 힐 부부는 고아들의 미국 입양에도 힘을 썼다. 충남 논산군 연무읍 순의도 중학교 설립기금의 3분의 2를 지원한 로버트 스나이더(Robert M. Snyder) 박사는 부산 성광원 법인 설립과 대전 선교부 보육원 건물건립도 지원하였다.

미국 시카고의 김순철 목사의 회고대로, 존 힐 선교사는 일제치하와 전쟁후유증으로 궁핍하고 고단했던 한국에 와서 신학생들을 "어버이가

된 심령으로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셨으며....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된장국의 국거리를 사 나르시던 정성 어린 손길"을 가졌던 심성이 매우 따뜻한 분이었다. 1961년 3월 2일에 쓴 춘선(崔春善)의 감사서신에 따르면, 힐 요한 선교사는 일기가 불순했는데도 불구하고 춘선의 결혼식이 있었던 인천까지 찾아가 축하하고 선물까지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정성과 생명의 손길이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있게 하였던 것이다.

6) 한국성서신학교의 설립과 건축

(상) 한국성서신학교 개교 당시 교수와 학생들(1959-60년 겨울) 충남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심영진 목사 시무 성화 교회당 앞(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앞줄 왼쪽부터 제이콥 존 힐 부부,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 뒷줄 왼쪽부터 오재건, 고재윤, 뒷줄 오른쪽부터 고광석, 김찬영 (좌하) 성화 교회당에서의 수업 장면: 난로 우편 뒤 고광석, 난로 우편 앞 김찬영. (우하) 1958년 8월에 흙벽돌로 건축된 20평 규모의 성화교회

1955년에 가정문제로 한국을 떠났던 힐은 이듬해인 1956년에 제인과 재혼하였고, 3년 후인 1959년 8월에 제인과 두 살이 다 된 아기 데니를 데리고 부산을 통해서 재입국하였다. 부산에서 두 달 동안 알렉스 빌즈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선교사가 없는 대전에 정착하였다. 알렉스 빌즈(Alex V. Bills) 가족은 1956년부터 부산에서 기독교 방송 선교부를 창립하여 전파선교를 감당하면서 방송국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때였다. 1950년대 말까지 부강교회와 선화교회를 설립하는 등 충청과 전라권에서 목회자 육성과 교회개척에 힘을 쏟으며, 수십여 개 교회들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두었던 김은석 목사와 논산(연무) 에덴보육원과 순의도 중학교 설립자 노봉욱 장

로가 힐 가족의 대전 정착에 큰 힘을 보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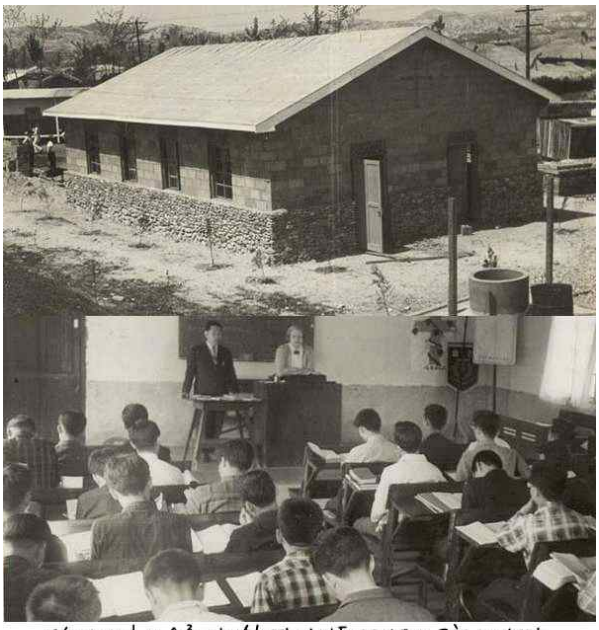
한국성서신학교는 '대전성서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존 힐(John Hill) 선교사에 의해서 1959년 12월 1일에 개교되었다. 첫 수업은 대전광역시 도마동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당 (당시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 심영진 목사시무. 1958년 8월에 신축된 20평 흙벽돌집)에서 20여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으며, 교수진은 존과 제인 힐 부부, 김은석 목사, 심영진 목사, 김태수 목사(통역), 김찬영(통역) 등이었다. 이듬해인 1960년에 부산에서 이신 목사가 교수진에 합류하면서 대전역에서 가까운 선화교회(고광석 목사시무)로 옮겼다. 이신은 1959-60년에 부산문화방송에서 방송설교를 하고 있었다.

힐은 1961년에 가장동 유등천변의 큰 부지를 매입하여 천막교회를 시작하였고, 선교사 주택, 예배당, 학생숙소 등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때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근로 장학 명목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가장동 캠퍼스 시대가 열리면서 1962년 3월에 교명을 서울에서 쓰던 한국성서신학교(Korea Bible Seminary)로 바꿨고 이 명칭은 20년간 사용되었다. 당시 테일러 선교사가 송월동 선교부 재산을 모두 팔았고, 현 서울기독대학교 캠퍼스 부지와 건물을 매입할 때까지 수년 동안 신학교 운영이 중단되고 있었다. 이로써 1940년대에 간헐적으로 운영되었던 신학교의 맥을 잇는 동시에 1950년대 기간에 김은석 목사(1963년 1월 21일 소천)의 신화신학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회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충청 전라권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한국성서신학교와 존 힐 선교사의 지도력아래 놓이게 되었다.

한국성서신학교의 최초 강의실 겸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였던 건물 외벽에 걸렸던 한국성서신학교 현판(이신 목사 제작)

힐 선교사는 1964-65년 사이에 생애 두 번째 안식년을 보내기까지 가장 긴 만 5년의 기간을 선교사로서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보람차게 보냈다. 이때의 교수들은 존과 제인 힐, 김은석, 심영진, 이신 (1966.09 미국유학), 최요열, 김이영(김찬영, 통역, 1962년 말 입대, 1965.09 미국유학), 소교민(통역),

리차드 래시(Richard and Melba Lash), 김히영(통역 및 음악), 임춘봉 등이었다. 이 무렵 화가였던 이신 목사는 메노라(일곱 줄기 등대)를 양각한 신학교 현판을 제작하였고,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무한 바 있는 임춘봉 목사는 교가를 작사하였으며, 군에 입대한 김찬영 통역의 후임으로 부산에서 알렉스 빌즈의 방송선교부 PD로 있다가 교수진에 합류한 김히영 교수는 교가를 작곡하였다. 대전교도소 교무과장 김치연 및 졸업생들 가운데 이은수, 김은석의 양자 김성철(충남대 졸업), 최용호(80년대 초 미국유학), 천명화(목원대 졸업), 인원영, 최금생(YMCA 간사), 박태규(통역) 등이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에 교수진에 합류하였다. 선교사들로는 프레드 호프만(Fred and Ellie Hoffman)과 힐의 맏딸 버지니아(Virginia)가 합류하였다. 힐의 지도력으로 1960년대에 9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상당수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기존교회들을 섬김으로써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일부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설립하였다.



1960년대 초의 원룸 강의실 겸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시멘트 미장을 마친 후에는 외벽 십자가 밑에 이신 목사가 제작한 현판을 걸었다. 초기에는 네부 바닥으로 마루를 깔았다가 이내 걷어내고 시멘트 미장을 마친 후에는 사진에서 처럼 책걸상을 장의자 형태로 교체하였다. 교사가 건축된 후에는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용되었다.

힐이 재임했던 1960년대 기간에 가장동 캠퍼스에는 선교부와 선교사들을 위한 2층 저택과 단층 주택(소실), 학생들이 만든 시멘트블록 교회당과 기숙사와 몇 채의 작은 직원 숙소들 및 고아들을 위한 단층 벽

돌슬래브주택이 있었다.

1961년경에 힐 선교사 가족과 선교부를 위한 2층 주택과 또 한 채의 단층 주택 및 신학교 기숙사가 지어진 다음, 1962년에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당이 신학교 강의실 겸용으로 지어졌다. 이 교회당은 교사가 건축될 때까지 1960년대 전반기 동안 신학교 원룸강의실로 쓰였다. 처음 지을 때는 마룻바닥이었으나 마루를 들어내고 시멘트바닥으로 바꾼 후 책상을 겸할 수 있도록 책받침을 넓게 만든 장의자를 사용하였다. 교실이 급했기 때문에 안팎의 벽을 시멘트로 미장도 하기 전부터 강의실로 쓰였다. 비록 장소가 누추하고, 책상은 열악하며, 춥고 덥고 배고프던 시절이었지만,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던 때였다. 근로와 학업을 겸했던 이 시대의 청장년들은 오늘날의 청장년들보다 정신적으로 월등히 성숙했었다.

1965-66년경에 존 힐 선교사가 완공시킨 본관 건물. 이로써 한국성서신학교는 교실 두칸, 현관, 교무실과 행정실을 갖추게 되었다.

힐은 1964년에 최초의 교사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현관이 딸린 행정사무실 2칸, 교실 2칸짜리 본관건물이었다. 1959년 여름에 한국에 나와 대전에서 사역을 시작한 존 힐 선교사 가족은 힘겨운 5년을 보낸 후 미국에 돌아가 안식년을 보내고 1965년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면서 선교소식지를 후원자들에게 보낼 때, 3분의 1의 건축공정을 마친 본관 건물의 사진을 실었다. 힐 선교사는 이 건물을 완전히 끝내는데 필요한 경비가 9,500불이라고 적었다. 힐 선교사 내외는 이 건물을 끝내기 위해서 힘겨운 모금전쟁을 펼쳐야 했다.

힐은 건축공정을 끝내고 커튼까지 드리운 이 건물을 몇 년간 교사로 사용하다가 선교사역 30주년이 되던 1969년 봄에 2층으로 올리는 증축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하여 1971년 초여름까지 지연되다가 선교사 조 가맨(Joe Garman)과 김찬영의 도움으로 1972년 초여름에 완공되었다. 그해 1972년 6월에 힐과 그의 가족은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완전히 접고 모든 사역을 김찬영과 패츄리샤(Patricia) 선교사 내외에게 위임하고 귀국하였다. 이때로부터 90년대 말까지 근 30년간 충청이남지역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김은석 목사와 힐 요한 선교사에 이어 김찬영 박사의 지도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대한기독교신학교가 1972년 2월에 정부로부터 4년제 각종학교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또 서울에 소재한 신학교란 점에서 존 힐이 1960년대에 누렸던 충청전라지방의 영향력의 상당부분이 자연스럽게 최윤권 목사와 대한기독교신학교로 쏠리게 되었다.

1972년 6월 2층 증축공사 완공과 존 힐 선교사 가족 송별기념사진. 2층 공사가 완료되어 말끔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현관 위쪽에 아치 모양으로 한글로 '한국성서신학교'라고 음각하였고, 그 밑에 일직선으로 'KOREA BIBLE SEMINARY'라고 새겼다.

존 힐 선교사 가족의 마지막 해였던 1972년은 필자가 한국성서신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한 해이다. 그 덕분에 필자는 존 힐 선교사로부터 한 학기동안 강의를 듣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존 힐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강의였다. 3월에 개강기념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당시 2층 증축을 거의 끝낸 현관 2층 상단에는 교명을 새기기 위한 거푸집이 설치된 상태였다. 그리고 6월 송별 사진에서는 교명을 새기는 작업과 페인트칠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운동장은 정리가 끝나지 않은 채 그대로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존 J. 힐(힐 요한) 선교사는 사진에서처럼 2층으로 증축된 건물과 현관 위쪽에 새겨진 아치 모양의 '한국성서신학교'와 그 밑에 일직선으로 새긴 'KOREA BIBLE SEMINARY' 작업까지 모든 공정을 지켜본 후 파란만장했던 한국에서의 선교사역을 완전히 접고, 모든 사역과 '한국 크리스챤 밋숀'의 재산을 김찬영 박사 내외에게 위임하고 귀국하였다.

7) 존 힐 선교사의 제자들(1960-71년)

(상) 1961년 12월 12일 제1회 졸업생: 좌측부터 고재윤, 김영애, 윤기열, 존 힐. (하) 교수진과 재학생: 앞줄 좌측부터 이은수, 소고민, 김찬영, 존 힐, 이신, 최요열, 김영애, 송명희, 가운데 줄 우측부터 최명순, 유정숙, 한 사람 건너 방충열, 한 사람 건너 박태규, 조사환, 임홍만, 김송자, 뒷줄 우측 첫 번째 박명문, 좌측부터 신영기, 최창윤, 안일승, 이원영.

1960년대를 대전시 서구 가장동 21-5번지 신학교에서 보낸 학생들이 정확히 몇 명이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1972년에 힐은 졸업생이 90여 명에 이른다고만 하였다.[631] 존 힐 선교사가 1960년대 기간에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면, 연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팁은 김찬영 박사(한양대 교육학), 이신 박사(밴더빌트대 목회학), 김히영 교수의 도미(渡美)시점이다. 김찬영 박사는 힐과 함께 부산에서 올라와 한국성서신학교에서 존 힐 선교사의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1962년 말 혹은 63년 초경에 입대하였고, 1965년 9월 5일에 도미(渡美)하여 학업을 마치고 70년 11월 15일 귀국하였다. 이신 박사는 1966년 9월에 도미하여 71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다. 그리고 김히영 교수는 63년 봄부터 71년 8월 12일 음악선교사로 미국에 이민 갈 때까지 존 힐 선교사의 통역과 음악교수를 맡았다. 따라서 김찬영 박사가 함께한 사진은 59년 말부터 62년까지이고, 이신 박사가 함께 사진은 65년까지이며, 김희영 교수가 함께한 사진은 63년 이후 70년까지이다.

---

631)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Taejon Korea, 18 April 1972), http://kccs.pe.kr/rmes002.htm; 初譯:『쎄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再譯: 조동호, http://kccs.pe.kr/rmp002.htm(1999.3).

이곳에 실린 졸업 또는 재학생들의 이름은 파악 가능한 경우에 한한 것이며, 졸업생만 95명에 이른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가운데 대략 25퍼센트 정도만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끝까지 남아 사역하였다. 이 25퍼센트는 70년대 이후 한성신학교 또는 한민학교 졸업생들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잔류한 수치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1970-80년대는 한국에 전도 폭발이 있었던 시대였으므로 졸업생들 가운데 다수가 타 교단에 들어가 성공적으로 목회사역을 이어갔고, 학업을 지속하여 학위를 갖추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복음교회의 윤기열 목사, 라명환 목사, 홍성교회의 유기성 목사, 인천 장로교회의 최정성 목사(한성신학교 교수 엮임), 대천교회의 장세동 목사, 예산교회의 신성철 목사, 인천감리교회의 천명화 목사(한성신학교 교수 엮임) 등이 있다.

1970년대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졸업생들이 꽤 많았다. 이들 중 다수가 미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개척하여 시무하였고, 사업에도 성공하였다.

(1) 추정 가능한 졸업생 명단

제1회(61년 12월): 고재윤, 윤기열, 김영애
제2회(62년 6월): 김송차, 조사환(태영)
제3회(62년 12월): 안일승, 인원영, 남충열, 유정숙, 최명순
제4회(63년 12월): 신영기, 최창운, 송명희, 이은수
제5회(64년 12월): 임홍만, 박병문, 최용호
제6회(65년 6월): 이영선, 하복례, 박경식, 김인숙, 김도영, 김은영, 남동식, 최금생, 강신웅, 김승일, 한욱동, 박문자
제7회(65년 12월): 유근희, 최태시, 천명화, 유문자, 김재업, 라명환, 박영자
제8회(66년 6월): 고원필, 김경주, 조규석
제9회(66년 12월): 송행자, 김영애, 이백호, 김준배
제10회(67년 6월): 최정성, 이덕환, 박태규, 조오환, 박근화, 유기성
제11회(67년 12월): 김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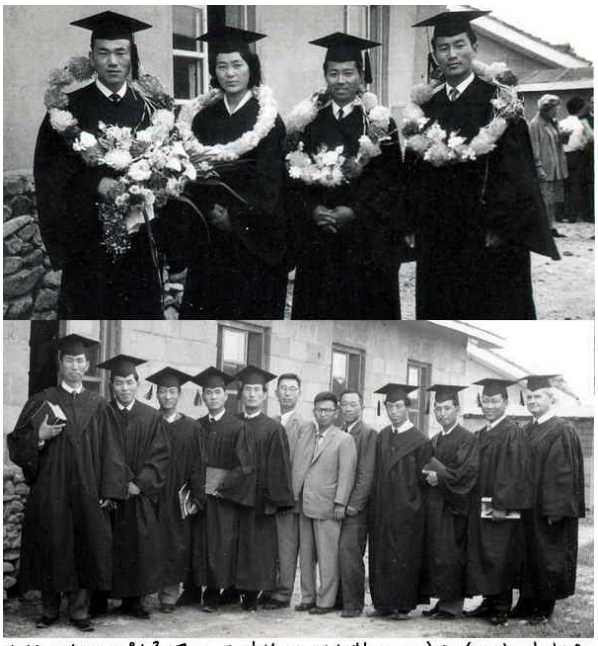
제12회(68년 7월): 김재술, 석만영, 최중원, 이용복, 임병선
제13회(68년 12월): 현정규, 김호규, 이정식, 김규화,
제14회(69년 6월): 안병호, 박군희, 나몽기, 최이선
제15회(69년 12월): 장휘명, 채동수, 김수영, 정진성, 김용임, 최세동, 김순철, 이영호
제16회(70년 6월): 함태욱
제17회(70년 12월): 김영현, 전금자, 최송희
제18회(71년 6월): 송완현, 김정례, 순동식, 김동식
제19회(71년 12월): 오순덕, 박옥채, 강신의, 이사운, 장건일, 지정자, 조경숙, 엄정자, 유덕례
제20회(72년 12월): 박종서, 안승학, 이선재, 조남중, 권영옥, 주형근, 오홍련. <총 95명>

(2) 힐 선교사에게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가나다순)

강신웅, 강신의, 고원필, 고재윤, 권영옥, 권오천, 김경주,
김규화, 김도영, 김동식, 김복례, 김성철, 김송차, 김수영,
김순철, 김승일, 김영애, 김영현, 김용임, 김은미, 김은영,
김인숙, 김재술, 김재업, 김정례, 김준배, 김형주, 김호규,
김효자, 나몽기, 남동식, 남충열, 라명환, 문안심, 박경식,
박군희, 박근화, 박남용, 박문자, 박병문, 박영자, 박옥채,
박종서, 박태규, 서광석, 석만영, 송명희, 송완현, 송행자,
순동식, 신성철, 신영기, 안병호, 안승학, 안일승, 양태윤,
엄정자, 오순덕, 오홍련, 유근희, 유기성, 유덕례, 유문자,
유정숙, 유창윤, 윤기열, 이덕환, 이백호, 이선재, 이사운,
이영선, 이영호, 이용복, 이은수, 이정식, 이종대, 이춘만,
이춘식, 이홍렬, 인원영, 임병선, 임영일, 임홍만, 장건일,
장휘명, 전금자, 전상희, 정수모, 정진성, 조경숙, 조규석,
조남중, 조동호, 조성식, 조사환(태영), 조순례, 조오환, 주형근,
지정자, 지철희, 채동수, 천명화, 최금생, 최명순, 최세동,
최송희, 최용호, 최이선, 최정성, 최중원, 최창운, 최태시,

최창효, 하복례, 한규덕, 한욱동, 함태욱, 현정규, 홍순기
<총 119명>

(3) 미국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



(상) 1963년 12월 졸업생: 좌측부터 이은수(본과 제1회), 송명희, 최창운, 신영기(이상 제4회). (하) 교수진과 내빈들: 좌측부터 임분봉, 김성철, 최요열, 이은수, 이신, 이종만, 임명진, 우측부터 홀힐, 김희영, 심영진, 정인요

이은수 목사(본과1회, 뉴욕 동산교회), 신영기 목사(제4회, 일리노이 병원 정신과 상담의사), 박경식 목사와 김인숙 사모(제6회, 목회은퇴 후 기도원 사역), 김히영 교수(국제 와이즈맨 클럽 총재 역임), 유근희 박사(제7회,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 아시안/태평양 교회 담당자 역임), 이영선 사모(제6회), 하복례 전도사(제6회), 최태시 목사(제7회), 고원필 목사(제8회), 이백호 목사와 박근화 사모(제9회), 현정규 목사(13회)와 오순덕 사모(제19회), 유정숙, 최창효, 장휘명 목사, 김순철 목사(제15회,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국장) 등이 있다. 이영선(6회) 사모의 남편은 미국 C.M.A 교단 감독을 역임하였다.

8) 존 힐 선교사의 교회 건축과 후원

존 힐 선교사는 많은 돈을 모금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늘 선교비가 부족하였다. 그가 활동했던 시절은 한국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도와

존 힐 선교사 때 건축 중인 몇 개의 교회들
좌상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대전 선화동교회(1965년, 김치여 목사), 신탄진교회(1969년, 김용순 목사), 전주 금암교회(1960년대 중반, 최동호 목사), 충북 청원군 양촌교회(1972년, 인원영 목사), 부강교회 (1960년대, 목회자 미상), 경기도 안양교회(1962년, 장주열 목사).

야할 곳이 너무 많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존 힐은 생활비를 줄여야 할 때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힐은 "나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일(한국 교회 후원)을 계속할 것이다"(I will continue to do this work until I go into Heaven)고 한 자신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냈다.[632]

존 힐 선교사는 1960년대 기간에 충청이남지역에서 일생 중에 가장 활발한 사역을 펼쳤고, 생애 황금기인 50대를 보냈다. 거의 매주일 지방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설교하고 침례를 베풀었으며 예배당 건축과 목회자들의 생활을 도왔다.

2. 존 힐 선교사의 동료들

존 힐 선교사의 동료들은, 김은석 목사의 동료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이들이었다. 사진만으로 볼 때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모두 성숙해 보이지만, 그들의 출생연도를 따져보면, 20대

632) 노봉욱, '발간사,'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14-15.

1960년대 중반에 한국성서신학교에서 열린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연합회 뒷줄 우측에 리차드 래쉬, 존 헐, 8번째 최용호, 둘째 줄 좌측에 제인 헐, 셋째 줄 우측부터 6번째 김중현, 8번째 고광석, 14번째 천명화, 둘째 줄 우측부터 장주열, 노봉욱, 임순봉, 장성만, 최도한, 9번째 조규석, 앞줄 우측부터 이종만, 4번째 안일승 (이상 목사).

또는 30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처럼 젊은 청장년들이었다. 아래에 소개한 사진들 속의 인물들도 성낙소, 김은석 등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30대 청장년들이다.

1) 노봉욱 장로

노봉욱 장로(2007년 1월 25일)
에덴 보육원, 연무여자(순의도)중학교 설립자.

노봉욱 장로는 1959년 10월 15일 충남 논산군 연무읍 동산리에 에덴보육원을 설립하였다. 이어 연무 그리스도의 교회, 세광고등공민학교, 학교법인 순의도 학원, 충남 보육교사 교육원 등을 설립 운영하였다.

에덴보육원 원장 또는 이사장으로서 노봉욱 장로는 40여 년간 700여명의 고아들을 길러냈다. 노봉욱 장로는 나희화 사모로부터 3남2녀를 낳았으나 원생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형 동생 누나 언니 등으로 친형제자매의 의를 맺도록 하였다.

노봉욱은 원주대학 사회사업과를 졸업하였고, 중앙대 사회개발 대학원 사회교육과를 수료하였다. 오신초등학교와 서울 호제초등학교에서 교사로서 가르쳤고, 세광고등공민학교 설립 및 동교 교장, 학교법인 순

의도 학원 설립 및 순의도 여중(현 연무여중) 교장, 충남 보육교사 교육원 설립 및 동원장, 사회복지법인 에덴원 이사장 및 에덴보육원 원장, 사단법인 한국 아동복지시설 연합회 충남도지회장,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충남도 부회장, 재단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 이사 및 이사장,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부회장, 논산 YMCA 설립 및 초대이사장, 중국 조선족 어린이 사랑 회장을 역임하였다. 상훈으로는 충남도지사 공로표창 2회, 보건복지부장관 공로표창 2회, 국무총리 공로표창, 제3회 전국사회복지대회 대회장상, 국민포장 수훈,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受勳)하였다.

노봉욱은 평남 용강군 오신면 내덕리 노촌 (노씨만 모여 사는 마을) 부락에서 태어나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에서 약 4Km 떨어진 덕해 장로교회를 다녔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노봉욱은 15세에 서울로 올라와 휘문중학교에 입학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하숙을 정하였다.

중학교에 입학한 1939년 봄 첫 주일 때 성경 찬송가를 옆에 끼고 골목길을 나선 후 찬송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이 돈암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그곳에서 담임 목사였던 최상현 목사와 존 힐 선교사를 만났고, 그분의 자녀인 최윤권 목사, 최윤모 장로도 거기서 만났다. 이후 노봉욱은 힐의 동료로서 일평생을 동역하였다. 노봉욱은 돈암교회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에덴 보육원 건축

나의 인생은 돈암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빛나게 펼쳐졌다. 나는 돈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고, 주교 반사, 유년부 부장도 지냈다. 최상현 목사님으로부터는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도 지어주셨고, 큰 병이 났을 때면 병원비도 대어 주셨고, 그러던 분이

6·25사변 때 이북으로 납치 당하셨으니....

그뿐 아니라 지금도 최목사님 댁과 사돈관계까지 맺고 있고, 이렇게 굳게 맺어진 인연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John J. Hill 선교사님과도 그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 연세 93세) 주안에서의 사랑의 교제, 그분 선교 사업을 돕게 되었으니...

이상의 돈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믿고 그분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바이다.[633]

2) 고재윤 목사

1960년대 장소 미상의 그리스도의 교회, 우측부터 존 힐 선교사, 고재윤 목사

고재윤 목사는 한국성서신학교를 1961년에 제1회로 졸업하였다. 그는 한국성서신학교가 개교된 1959년 12월 1일부터 수강한 첫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개교 직후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앞에서 기념 촬영한 1959-60년 겨울 단체 사진 속에서 고재윤이 발견되고 있다. 고재윤은 졸업 후 목회를 시작하여 문암 그리스도의 교회,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1983-1987년) 등에서 사역하였다. 1970년대에는 한국성서신학교에서 다년간 근무하였다.

3) 김히영 교수

633) 노봉욱, '나와의 만남,'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92.

김히영 교수
1998-99년 와이즈멘 클럽 국제 총재

김히영 교수는 김찬영 목사가 군에 입대하면서 그의 후임으로 1963년 봄에 존 힐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한국성서신학교에서 통역과 음악교수로 수고하였다. 이 무렵 신학교의 이사들은 이종만 목사, 김현숙 전도사, 임명진 장로, 노봉욱 원장이었고, 교수들로는 이신 목사(신학교 현판제작), 임춘봉 목사(교가 작사), 심영진 목사, 최요열 목사 등이었다. 김히영 교수는 교가를 작곡하였다. 그의 지도 아래 최정성, 이백호와 같은 재학생들로 구성된 남성4중창단이 결성되었고, 찬양사역에 힘썼다.

한국성서신학교에 오기 전 김히영은 1957년 이래 알렉스 빌즈(Alex and Betty Bills)가 창립한 부산 소재 '크리스챤 라디오 밋숀'(Korea Christian Mission, CRM)에서 방송프로제작, 음악편집을 맡아 일하였다. CRM에 근무하는 동안 CRM 전속 한국 최초의 남성 사중창단, '넷소리'를 창립하였고, 설교 통역 등을 담당하였다. 1959-60년 무렵에 이신 목사도 부산에 내려가 방송설교를 하였다. 빌즈 선교사는 방송국 허가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자금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1961년에 고향인 미국 텍사스 주로 돌아갔다.

김히영은 1971년 8월 12일 음악선교사로 가족과 함께 미국 미주리주 조플린 소재 오자크 신학대학으로 이민하였다. 조플린에서 1974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근 20년간 봉제공장을 운영하면서 와이즈멘 활동을 하였다. 이후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웰셔 와이즈멘 클럽회장(197-78), 미주 남서 지구 후리웰이 지방장(1981-82), 미주 태평양 남서지구 총재(1987-88), 미주 지역 총재(1955-96), 국제 총재

(1988-99) 등을 동양인 최초로 역임하였다.

4) 김치연 목사

(상) 1960년대 선화동교회 십계석, (하) 1969년 3월 30일 선화동교회, 앞줄 우측 버지니아 힐, 뒷줄 우측부터 김희영, 함명덕, 존 힐, 제인 힐, 폴린과 마크 맥시(일본 가고시마 선교사), 김치연, 고광석, 심영진

김치연 목사는 평안남도 중화군(당시) 출신으로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였다. 오랫동안 대전교도소 교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겼고, 1965년부터 1970년대 기간에는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교수로서 가르쳤다. 퇴임 후 대전 시온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무하였다.

김치연은 1949년에 교도관의 일을 시작하였으며, 1967년 10월 28일자 동아일보 7면 보도에 의하면, 교도관의 날을 맞아 대전교도소장이 18년 동안의 교도관생활에서 1백46명의 좌익수들을 전향시키고 무의무탁한 남녀수형자들에게 짝을 맺어준 공로를 인정하여 "대전교도소 교무과장 金致淵(김치연)(44)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기사를 실었다.[634]

또 1984년에는 대전, 대구, 전주, 청주 등을 돌면서 무려 1050명의 좌익수를 전향시킨 공로로 법무부로부터 교정대상 교화부문을 수상하였다. 이 일로 김대중 노무현 문민정부 때, 여러 차례 과거사진상규명

634) 1967년 10월 28일자 「동아일보」 7면.

위원회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을 들었다.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광복절 행사 도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다가 육영수 여사를 사망케 한 23세의 재일교포 문세광에게 1974년 11월 14일 사형이 집행될 때 김치연 목사가 3분 동안 문세광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문세광은 두 손을 마주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먹였다고 전한다. 김치연 목사는 노환으로 2013년 10월 29일 별세하였다.

5) 김순철 목사

김순철 목사(미국 시카고 한인기독방송국 국장)
김순철 목사는 존 힐 선교사(2009년 11월 4일 별세)의 추모 2주기를 맞이하여 2011년 11월 19일 존 힐 선교사의 유품(사진첩 2개, 다수의 슬라이드 사진, 네거티브 필름, 소수의 선교서신 복사본)을 한국으로 가져와 총회에 전달하였다.

김순철 목사는 1943년 2월 18일 충남 천안시 출생으로 한국성서신학교를 1969년에 제15회로 졸업하였다. 그는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으로써 졸업 후 충남 병천에서 목회하였다. 198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1982년부터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새소망교회를 개척하여 18년간 사역하다가 2001년부터는 1978년에 개국하여 20만 한인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카고 한인기독방송국을 맡아 2020년까지 20년간 헌신하였다. 이 방송은 주변 위스콘신 주부터 인디아나 주까지 청취가 가능하다. 채널 임대비용으로 매월 2만 5천불이 들어가는 큰 선교 사업이다.

시카고기독교방송은 아침 6시부터 밤12시까지 송출되며, 선교사 인터뷰, 선교사의 시간, 설교, 선교현장 리포트, 찬양 등으로 꾸며진다. 김순철 목사는 방송선교의 위력에 대한 간증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1960년대 영천 그리스도의 교회, 김순철 목사(중앙)
좌측 두 번째부터 김희영 교수, 심영진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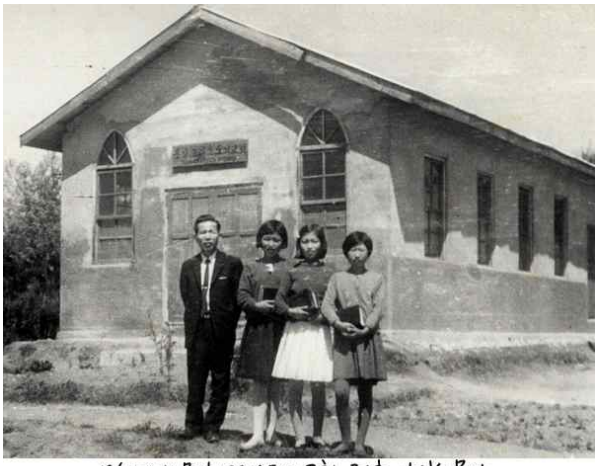
어떤 분이 복잡한 일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고 미시간호수에 빠져 죽으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기독교방송 설교를 듣고 자살을 포기했대요. 호수로 차를 몰고 가면서 들은 방송설교 내용이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이다. 죽을 마음을 가질 정도로 독한 생각을 품었다면, 반대로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요.

김순철은 시카고지역교회 협의회장, 교역자회 회장, 지역평통자문위원 8년, 그리스도의 교회 미주한인교회총회 총회장, 한성미주동문회 회장,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맥코믹 신학교 동문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유등천에서 좌부터 심영진 목사, 김순철(목사), 존 힐 선교사(1960년대)

2011년 11월 19일에는 한성미주동문회 회장의 자격으로 존 힐 선교사 추모 2주기를 맞이하여 존 힐 선교사의 1960년대 유품(사진, 등)을 한국에 가지고 나와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총회에 전달하는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김순철 목사는 2023년 4월 7일 별세하였다.

6) 안일승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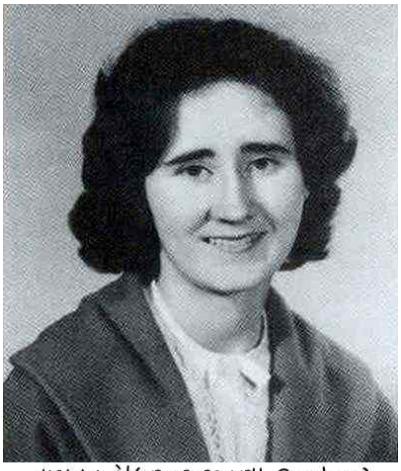

1960년대 문암 그리스도의 교회, 좌측 안일승 목사

안일승 목사는 한국성서신학교를 1962년에 제3회로 졸업한 후 문암, 삼광 등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사역하였다. 특히 그는 존 힐 선교사가 미국에서 보낸 후원금을 지정된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 보았다.

고재윤, 안일승, 김순철 이외에도 최용호(64년, 제5회, 한성 신학교 교수, 다락 그리스도의 교회 은퇴), 최금생(65년, 제6회, YMCA간사, 한성 신학교 교수, 대전횃불회장 역임, 열린 그리스도의 교회), 박문자(65년, 제6회, 부곡 그리스도의 교회), 유근희(65년, 제7회, 박사, 북미주 태평양/아시아 제자들 그리스도의 교회 담당자 은퇴), 최중원(68년, 제12회, 장수 계월 그리스도의 교회), 김호규(68년, 제13회, 경남정보대학 교목실장 및 학장, 대학교회 목사 역임), 안병호(69년, 제14회, 장호원 그리스도의 교회), 장휘명(69년, 제15회, 미국), 김동식(71년, 제18회, 주월 산돌 그리스도의 교회 은퇴), 박옥채(71년, 제19회, 소망 그리스도의 교회), 조남중(72년, 제20회, 평리 그리스도의 교회), 주형근(72년, 제20회,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 등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였거나 지속하고 있다.

7) 버지니아 힐(Virginia Hill)

버지니아 힐은 존 힐 선교사의 딸로서 6·25전쟁 중에 일본에서 보낸 기간을 뺀 유년시절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냈다. 이후 버지니아는 미


버지니아 힐(Virginia Hill, Bendure)

국 미주리 주 조플린 시에 소재한 오자크기독대학(Ozark Christian College)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한국 크리스챤 밋숀(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의 선교사로 1966년 8월 29일 재입국하여 3년만인 1969년 5월 30일 영구 귀국하였다.

한국성서신학교에 머무는 동안 기독교교육, 영어회화, 영어성경을 강의하였고, 여성3중창을 지도하여 조 가맨 선교사의 부흥전도여행(1967년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때 찬양을 불렀다.[635] 버지니아 힐의 서신에 의하면, 부흥전도여행기간에 결신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일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636] 또 충남대학교에서 영어회화를 매주 4시간씩 강의하였고, 매주 화요일 저녁에 6명의 그리스도인 의사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매주 수요일 저녁에 믿지 않는 직업군인 두 명과 몇몇 여성들에게 전도목적으로 영어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였다. 또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30여명의 간호실습생들에게 영어성경을 가르쳤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50여명이 참석하는 대학생친목회(University Bible Fellowship Club)에서 영어성경을 가르쳤다. 이밖에도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쳤다.

가르치는 일 말고도 틈틈이 영아원, 논산 에덴 보육원, 부산 성광원, 임홍만 목사의 장호원 기독중학교, 교회들을 방문하고, 극빈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신학생들, 목회자들, 영아들, 고아들, 복음중학교 학생들, 대전 수침교 아래 거지들의 의식주를 걱정하며 지속적으로 미국의 형제들에게 목적헌금(임홍만 목사의 기독중학교, 논산 에덴 보육원, 부산 성광원, 한국성서신학교 운영기금, 목회자후원기금 등), 특별지원(헌

635) Virginia Hill, "Dear Friends," Christian Envoy to South Korea, October 14, 1967: 2.

636) Christian Envoy to South Korea, 1968년초: 2.

옷가지, 겨울옷가지, 기독교서적, 각종 사전류, 성서지리궤도, 성경, 카메라필름 등) 등을 요청하였다.

버지니아 힐의 서신에 의하면, 1966년에 마크 맥시(Mark and Pauline Maxey) 일본 규슈 가고시마 주재 선교사가 한국성서신학교를 방문하였고, 한국성서신학교는 1967년 봄 학기에 52명이 등록하였으며, 6월에 남학생 5명, 여학생 1명이 졸업하였다. 동년 8월에 고하도에서 목회자 수련회가 개최되었고, 약 65명의 목회자들과 15명의 여전도사들이 참석하였다.

버지니아 힐은 1968년 4월 18일에 논산 에덴보육원으로부터 15명의 고아들을 인수받아 대전 크리스챤 보육원(Taejon Christian Orphanage)을 개원하였다. 보모로는 김은미, 김부금, 조선희, 김은희, 유문자 등이 수고하였고, 고아원은 세계보건기구 공무원인 엘리자베스 멈이 세내들어 거주하던 선교부의 일층에 있었다. 그 후 한국성서신학교 교내에 '스나이더 홀'이라 명명한 단층 주택이 건립되었는데, 대전 크리스챤 보육원이 이 건물에 입주하였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로버트 스나이더(Robert M. Snyder) 박사는 이 건물 이외에도 충남 논산군 연무읍 순의도 중학교(현 연무여자중학교) 설립기금의 3분의 2와 부산 성광원 법인설립을 지원하였다.

대전 크리스챤 밋숀 보육원(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보육원을 설립한 지 만 일 년이 지난 1969년 4월 30일에 버지니아 힐이 쓴 서신에 의하면, 보육원에 아이들이 23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버지니아는 한국에서의 모든 사역을 접고 그해 5월 30일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가는 부모인 존 힐 선교사 내외와 함께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3개월 후 한국에 나온 조와 린다 가맨(Joe and Linda Garman) 부부가 보육원과 신학교 관리를 안식년을 맞은 힐 선교사 내외를 대신해서 10개월간 책

임졌다.[637] 미국에 돌아간 버지니아는 하비 벤두어(Harvey Bendure)와 결혼하여 슬하에 세 명의 딸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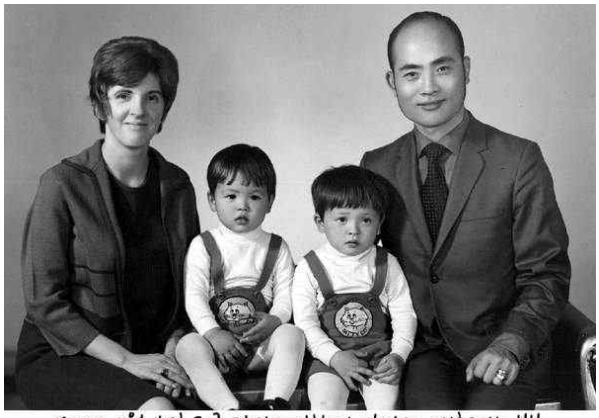
버지니아 힐은 1967년에 한국의 주일 예배의 특징을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그녀가 경험한 독특한 이 한국의 예배 문화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조차, 노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젊은이들에게는 생소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잊힌 문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남기기로 하였다.

> 한국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주일'(주님의 날)
>
> 주일은 한 시간가량 걸리는 새벽 4시30분 기도회(찬양과 기도)로 시작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밥, 김치(맵게 절인 배추), 김 혹은 콩나물국, 그리고 종종, 운이 좋은 날이면, 계란 또는 말린 작은 생선으로 아침을 준비한다. 오전 9시에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인 주일학교가 없다. 대신에 주중에 모임을 갖는다.) 어린이 주일학교는 새신자 그리스도인 고등학교 소녀들 또는 청장년들에 의해 인도된다. 이 예배는 10시까지 이어진다. 대예배가 10시 30분에 시작된다. 그러나 찬양은 10시 15분 혹은 교인들이 오는 대로 곧바로 시작된다. 그들은 목회자를 위해 성미(쌀)주머니들을 들고 와 예배당 뒤쪽 성미상자에 넣는다. 그리고 남성은 예배당 한편 바닥에 그들의 자리를 잡는다. 반면에 여성들은 다른 편 바닥에 그들의 자리를 잡는다.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머리를 숙여 각자 기도를 한다. 개개인은 아끼고 또 아껴서 마련한 각자의 소중한 성경과 찬송가를 지참한다. 그들은 찬송가를 부른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기타 다른 자주 부르는 찬송가들을 부른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작은 흙벽 건물이 폭발할 지경에 이른다. 그러고 나면 한 교인이 대표로 나와 기도한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진다. 교인들, 특히 나이든 남성과 여성들은 감동에 따라 요동치며, 아멘으로 화답한다. 설교자는 성경을 봉독한 후 힘 있게 설교하며,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초청한다. 초청송을 부른 후, 헌금송과 헌금기도를 드린다. 헌금을 걷기 위해 긴 막대기가 달린 헌금바구니를 남집사와 여집사들이 돌린다.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 목사들이 집례한다. 장로들은 남성들에게, 여집사들은 여성들에게 분병과 분잔을 제공한다. 침례식은 날씨가 따뜻할 때 (때로는 심지어 겨울에도) 개울이나 강에서 집례된다. 때때로 가까운 목욕탕('오프로' 혹은 커다란 일본식 욕탕)에서 집례된다. 점심식사는

637) Christian Envoy To South Korea: Virginia Hill-Missionary's Newsletter, Jun. 1966-May 1969.

아침식사와 거의 동일하다. 저녁식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7시 30분 혹은 여름인 경우 9시에도 시작되는 저녁예배에 참석한다. 저녁예배는 주의 만찬이 없는 것만 빼고는 오전 예배와 거의 동일하다.[638]

8) 김찬영 박사


1970년 11월 15일 귀국 당시의 김찬영 박사와 패츄리샤 부부

김찬영 박사는 1936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출생하였다. 김찬영은 부산에 내려가 장성만 목사가 세운 대교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하며 세족회 회원이 되었다. 1959년 8월에 존 힐 선교사 가족이 부산을 통해 입국하였을 때, 통역이 되어 존 힐의 가족과 함께 대전으로 올라왔다. 대전에서 존 힐 선교사의 선교사역들을 돕다가 1962년 4월경에 군에 입대하였다. 제대 직후 1965년 9월 5일 존 힐과 장성만 목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가 존슨성서대학(현 존슨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곳에서 같은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패츄리샤(Patricia Ann Cox)를 만나 1967년 8월 25일 결혼하였다.

존슨성서대학을 졸업한 후 신시내티 크리스천 대학교 성서대학원(Cincinnati Christian University and Cincinnati Bible Seminary)에 입학하여 1969년 5월 10일 졸업하였다. 이후 신시내티 대학교와 루이빌 장로교 신학대학원에서 1년간 수학한 후, 부인 패츄리샤(Patricia Ann Cox)와 자녀들을 데리고 1970년 11월 15일 귀국하였다.

김찬영 박사는 1972년 6월에 존 J. 힐 선교사가 정년으로 퇴임함에 따라, 가장동 유등천 변에 교실 2칸, 행정사무실 2칸, 교회당 1채, 선교

638) "A TYPICAL 'CHU_IL' (LORD'S DAY) FOR A KOREAN CHRISTIAN,"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Missionary Virginia Hill, 1967년 말: 3.

사 사택 2채, 보육원 단층 1채, 기숙사 1동을 물려받고, 1972년 1월 21일 36살의 나이로 한국성서신학교의 제2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이 무렵인 1971년에 프레드와 엘리 호프만(Fred and Ellie Hoffman) 부부가 내한하여 한국 크리스챤 밋숀에 소속되어 사역하면서 프레드는 신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엘리는 대전 오정동 외국인 학교에서 가르쳤다. 한국성서신학교의 운영을 맡게 된 김찬영 교장은 1970-80년대 기간에 힐이 1969년에 시작한 본관 2층 공사를 완공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3층 증축, 우측으로 잇대어 지은 3층 신축교사, 신축교사에 잇대어 북쪽 방향으로 지은 3층 신축 선교관, 1968년부터 보육원으로 사용되던 1층 별관의 3층 증축(여자기숙사)과 부지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

3. 존 J. 힐 선교사의 1976-77년 복귀 시도

1972년 6월에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던 존 힐 선교사 부부가 불과 4년 만에 미국에서 하던 사역들을 접고 1976년 8월 16일 한국에 돌아와 이듬해 1977년에 돌아간 일이 있었다. 선교부와 신학교를 되돌려받기 위해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사건이었다. 김찬영 교장이 신학교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교회에 지원해야 할 일부 후원금을 유용한다는 투서가 힐에게 보내졌던 것 같고, 의심을 품은 힐이 분개하여 한국에 나와 선교부와 신학교를 되찾아 이신 박사, 심영진 목사, 김태수 목사 등 다른 동료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이다. 노봉욱 장로의『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78-79쪽에 의하면, 한국에 돌아온 힐 선교사부부는 당시 기획실장의 방해로 신학교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미국에 출장 중이던 김찬영도 급히 귀국하여 서로 마주보고 앉게 되었다. 노봉욱 장로의 증언에 의하면, 힐과 김찬영의 대화는 싱겁게 끝났다고 한다. 신학교 교장직과 운영권을 내놓으라는 것과 문전박대를 했던 최 모 기획실장을 해임하라는 힐의 모든 요구를 만 40세였던 김찬영이 순순히 응하였기 때문이다. 이때의 일에 대해서 노봉욱은 79쪽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 다음 과제는 학교 운영권 문제요, 김찬영 학장 거취문제였다.... 김찬영

> 학장이 학교 운영하는 동안 시행착오와 잘못도 있지만, 그간의 공도 인정해야 하는 것은 그가 학장 재직 시 학교 부지 확장과 교사 증축 등 이룩한 공도 있고 하니, 그것을 인정 그와 함께 협력하고, 이사장직과 학장직을 안배키로 하되, 우선 Hill 선교사께서 택일토록 권유했다. 드디어 Hill 선교사의 승낙을 얻어 운영권 문제는 일단락 된 듯 했으나, 그 후 곧 번복 백지화되어 원상태로 강경노선으로 선회되었다.[639]

1977년 봄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신 박사, 심영진 목사, 김태수 목사, 김정한 목사 등이 존 힐 선교사와 함께 학교를 접수하기 위해서 찾아와 재학생들을 강의실에 모아놓고 설득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강력히 항거함으로써 그들의 뜻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때의 일을 노봉욱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난항을 거듭하게 된 배후에는 Hill 선교사의 또 다른 측근자 L. 목사 제의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나와의 의견이 다른 그분들과 Hill 선교사집 응접실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Hill 선교사 내외분도 함께 했다.
>
> 토론이 극에 달하자 쌍방은 감정이 격해져 인신공격 등 고성이 오고 가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Jane Hill 사모님이 갑자기 대성통곡하면서 문을 박차고 내실로 들어갔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Hill 선교사 사모님은 본국으로 단신 귀국했고, 뒤를 이어 Hill 선교사도 귀국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로써 한성신학교 운영권은 그대로 김찬영 학장 몫으로 남게 되었다.[640]

힐은 미국으로 떠난 대신에 견제장치로 일본에서 사역하던 밥 워릭(Robert and Joyce Warrick) 선교사 부부를 1977년에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근무케 하였다.

선교사들의 후원비 유용에 대한 의심은 언제나 있었다. 일본에서 커닝햄과 채이스의 분열도 그래서 일어났고, 강명석 목사(전도자)도 주변 인물들로부터 비슷한 유형의 모함을 받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47세에 요절하였다.

---

639) 노봉욱, '힐 선교사의 거룩한 분노,'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79.

640) *Ibid.*

김찬영 박사는 1972년 36살의 젊은 날에 교장의 일을 맡아 그 어렵던 1970년대에 학교를 키워보려는 열망에 학교 부지를 확장하고 교사를 증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었을는지 모른다. 밀가루 한 포대만 집에 있어도 감지덕지하던 시대에 먹고사는 수준이 확연히 달라 보여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교회후원금 유용에 대한 의심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존 힐, 이신, 심영진, 김태수, 김치연, 노봉욱 등의 선배 목사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지 못한 것은 그 후로도 두고두고 가슴 아픈 일이 되었다.

조용호 목사의 Cincinnati Bible Seminary(M.Div) 졸업을 축하 하기 위해 오신 밥과 조이스 워릭(Robert and Joice Warrick) 선교사 부부

1977년에 일본에서 대전으로 건너온 밥과 조이스 워릭 선교사 부부는 한국 실정을 잘 이해하고 협력하다가 별반 문제점이 없어보였는지 1978년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고, 1981년에 은퇴한 후 미국 인디애나 주로 돌아가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별세하였다. 밥과 조이스 워릭은 1965년에 일본에 건너가 고아원을 시작하였다. 일본의 베테랑 선교사인 마크 맥시(Mark Maxey)의 "일본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백년"(Christians in Japan 100 Years, 1883-1983)에 의하면, 밥과 조이스가 운영한 고아원은 도쿄에서 멀지 아니한 사이타마 현 사야마(Sayama)에 있었고, 줄리어스와 버지니아 플리노어(Julius and Virginia Fleenor) 부부가 함께 사역하였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는 도쿄 변두리에 소재한 크리스천 아카데미(Christian Academy)에서 일하였다. 딸 바버라(Barbara)가 1971-72년 사이에 일 년간 그들과 함께 일본에서 사역하다가 돌아갔고, 1977년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정규 교사로 사역하였다.

존 힐은 자신이 보내는 교회후원금을 밥 워릭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였고, 이후 노봉욱 원장, 안일승 목사, 조동호 교수(한성신학교 교회개척후원회), 다시 안일승 목사에게 이 일을 맡겼다. 존 힐 선교사의 교회후원금은 작은 액수로써 한 푼도 착오가 있을 수 없는 목적기부금이어서 대리인은 그 돈을 환전하여 전달하면 끝이었다. 1960년대 힐 선교사의 모금형태를 보면, 대부분 목적후원금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경우 후원자가 지정한 목적대로 써야하므로 존 힐 선교사조차도 임의로 쓸 수 없는 돈이었다.

4.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위해 헌신한 '한국 크리스챤 밋숀' 소속 선교사들

1) 힐 Hill, Carol Virginia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존 J. 힐(John Jesse Hill)과 에스더 에벌린 비반즈(Esther Evelyn Beavans)의 딸로서 오자크기독대학(Ozark Christian College)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한 후, 독립선교사의 자격으로 '한국 크리스챤 밋숀'(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에서 사역하기 위해, 1966년 8월 29일 입국하였다. 한국성서신학교(Korea Bible Seminary)에서 기독교교육, 영어회화, 영어성경을 강의하였고, 여성3중창을 지도하여 조 가맨(Joe R. Garman) 선교사의 부흥전도여행(1967년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때 찬양을 불렀다. 이밖에도 충남대학교에서 영어회화를 매주 4시간씩 강의하고, 선교사 자녀, 의사, 직업군인, 간호실습생에게, 또 대학생친목회(University Fellowship Club)에서 영어성경을 가르쳤다. 또한 틈틈이 영아원, 논산 에덴보육원, 부산 성광원, 임홍만 목사의 장호원, 기독중학교, 교회들을 방문하고, 극빈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신학생, 목회자, 영아, 고아, 복음중학교 학생, 대전 수침교 아래 거지들의 의식주를 걱정하며, 지속적으로 미국의 형제들에게 목적헌금(임홍만 목사의 기독중학교, 논산에덴보육원, 부산 성광원, 한국성서신학교 운영기금, 목회자 후원기금 등), 특별지원(헌옷가지, 겨울옷가지, 기독교서적, 각종 사전류, 성서지리 궤도, 성경, 카메라 필름 등) 등을 요

청하였다.

버지니아는 1968년 4월 22일 논산 에덴보육원으로부터 인수받은 15명의 고아와 당진에서 온 2명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버지니아의 보육원'(Virginia's Orphange)으로 알려진 '대전 크리스챤 보육원'(Taejon Christian Orphanage)을 개원하였다. 보모로는 김은미, 김부금, 조선희, 김은희, 유문자 등이 수고하였다. 보육원은 원래 세계보건기구 공무원인 엘리자베스 멈이 임대하여 거주하던 선교부의 일층에 있었는데, 후에 한국성서신학교 교내에 건립된 '스나이더 홀'이라는 단층 주택에 입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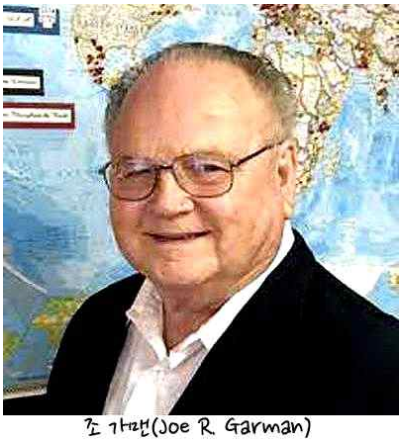
버지니아는 1969년 5월 30일에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가는 힐 부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에서 1971년 10월 7일 하비 벤두어(Harvey Bendure)와 결혼하고 미국에 정착했지만, 한동안 대전 보육원의 후원금을 관리하는 현지 대리인으로 수고했다. 자녀로는 딸 에이미(Aimee), 수산나(Susannah), 룻(Ruth)을 두었다.

[주요저술] "A Typical 'CHU_IL' (Lord's Day) for a Korean Christian," Christian Mission to South Korea Missionary Virginia Hill, 1967년말: 3; "Dear Friends," Christian Envoy to South Korea, October 14, 1967: 2.; Christian Envoy to South Korea, 1968년초: 2; Christian Envoy To South Korea: Virginia Hill-Missionary's Newsletter, Jun. 1966-May 1969.

[참고문헌] 백종구,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교회의 역사』, 쿰란, 2018; 존 J. 힐, "韓國 「그리스도의 교회」 略史", 「쎄메론」 7호(1972), http://kccs.info/rmp002.htm; 노봉욱 편저, 『힐 요한 선교사의 한국 선교』, (재단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 2006.

백종구(전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2) 가맨 Joe R. Garman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신학교육, 부흥전도, 교도소 선교.


조 가맨(Joe R. Garman)

조 가맨 선교사는 미주리 주 조플린(Joplin)에 소재한 오자크 크리스천 대학(Ozark Christian College)을 졸업하였다. 1967년 10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국에서 전국을 돌며 부흥 전도집회를 개최하여 일천여명이 넘는 결신자들에게 침례를 베푼 바가 있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안식년을 맞이한 존 힐(John J. Hill) 가족을 대신하여 1969년에 입국하여 1970년까지 대전을 중심으로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대전시 가장동 소재 한국성서신학교(한성신학교)에서 가르쳤고, 부흥전도집회들을 인도하였으며, 전국의 교도소들에서 설교하였다. 부인 린다(Linda)는 신학교 영내에 거주한 고아들을 돌보았다. 또 1971-72년에는 한국성서신학교 본관 2층 공사가 완공되도록 미국에서 건축자금을 모금하였다.

조 가맨이 교도소 선교에 사명을 갖게 된 계기는 1969년에 미군 군목으로부터 한국 교도소에 수감된 4명의 미국인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한 것이었다. 그러자 한국인 교도소 소장이 조 가맨 선교사에게 한국인 수감자들도 방문할 뜻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후로 한국 전역의 교도소들에서 전임사역을 감당하였다. 한국 교도소 사역이 확고히 자리 잡은 후 조 가맨 부부는 교도소 사역을 지역 교회들에 넘겼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건너가 선교사로 활동하던 중에 체류비자의 갱신이 거부되자, 미국으로 돌아가 1973년 5월 10일에 미주리 주 조플린(Joplin)에서 '미국사회복귀선교회'(ARM, American Rehabilitation Ministries, Prison Outreach International)를 조직하여 40년 넘게 교도소 선교에 힘써왔다. 현재는 1500개 주 및 연방 교도소들에 수감된 120만여 명과 또 다른 3200개 교도소들에 수감된 50만여 명의 수감자들을 섬기고 있다. ARM은 2001년부터 멕시코 교도소 선교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인도, 러시아로 범위를 확장하는 등 국제적으로 노력을 확장하였다. 이후 캄보디아, 태국, 한국(세진회), 필

리핀에 지부 교도소선교회가 추가되었다. 현재 ARM에는 6개 대륙의 교도소들과 유치장들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5개의 국제 지부를 두고 있다.

[주요저술] Joe R. Garman, "ABOUT ARM (American Rehabilitation Ministries)", https://www.arm.org/about-arm/; Joe R. Garman, "Garman marks 40th year serving in prison ministry", https://www.joplinglobe.com/news/lifestyles/garman-marks-40th-year-serving-in-prison-ministry/article_59663132-1431-5db0-8c4e-08a2e7814319.html.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156;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서울: 쿰란출판사, 2018): 150-51, 179-80, 202, 2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397, 436;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Taejon Korea, April 18, 1972, http://kccs.pe.kr/rmes002.htm; 初譯: 『쎄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再譯: 조동호, http://kccs.pe.kr/rmp002.htm(1999.3). Virginia Hill, "Dear Friends," Christian Envoy to South Korea, October 14, 1967: 2.; Christian Envoy to South Korea, 1968년초: 2.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3) 코모 Paul Comeaux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폴 코모(Paul Comeaux)는 조와 린다 가맨(Joe R. and Linda Garman) 부부와 함께 1969년에 입국하여 1970년까지 조 가맨 선교사를 도와 부흥전도집회와 교도소 선교를 하였으며, 대전시 가장동 소재 한국성서신학교(한성신학교) 영내에 거주한 고아들을 보살폈다. 귀국

후에도 폴 코모는 몇 차례 더 선교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였다.

[주요저술]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 (한성신학교, 1991): 156;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 (서울: 쿰란출판사, 2018): 202-03, 264.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4) 김 Patricia Ann (Cox) Kim 1946.05.03.-현재,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패츄리샤 김(Patricia Ann Kim)

패츄리샤(Patricia Ann Cox)는 아버지 조 콕스(Joe Cox)와 어머니 매기(Maggie)에게서 1946년 5월 3일 버지니아 주에서 출생하였다, 1965년에 드류리 메이슨 고등학교(Drewry Mason High School)를 졸업하였고, 1966년 존슨성서대학(현 Johnson University)에 재학하던 중에 한국인 김찬영(교육학 박사)를 만나 1967년 8월 25일 버지니아 주 마틴스빌(Martinsville, Virginia)에서 결혼하였다. 25살 때인 1970년 11월 15일 남편과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입국하여 대전에서 27년간 사역하였다.

패츄리샤 선교사와 남편 김찬영 박사는 한국성서신학교(한성신학교)의 설립자 존 힐(John J. Hill) 선교사가 1972년 6월에 정년퇴임함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챤 밋숀(1964년 4월 17일 설립)과 한국성서신학교(1959년 12월 설립)에 1972년 1월 21일 각각 이사장과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패츄리샤 선교사와 김찬영 박사는 부지확장과 교사

신축 및 대학개편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77년 2월 16일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 한국선교회를 설립인가 받았고, 다음 해인 1978년에는 부설 한성고등기술학교와 한성유치원이 설립되었다. 1981년 2월 16일에는 사립학교 법에 의해 학교법인 성령학원이 설립되었고, 교명을 한성신학교로 변경하였다. 곧 이어 1983년 10월 5일에는 학력인정대학으로 승격되었고, 1984년 11월 5일에는 신학연구원 인가를 받아냈다. 1986년에는 종교음악학과와 사회복지학과를 신설하였고,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에 12만평 부지를 확보하고 교사를 짓고 1989년 7월 이전하였다. 1987년 12월 9일에는 기독교교육과를 신설하였고 입학정원수를 총 180명으로 증원하였다.

패츄리샤 선교사는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었으나 신학교 영내에 있던 보육원의 아동 2남 2녀와 월남에서 온 사내아이 1명, 총 5명을 입양하였으며, 이들을 미국에 보내 공부시켰다. 또 패츄리샤는 신학교 영내에 있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논산 연무읍의 에덴 보육원과 대전 자양동에 있는 피얼스 영아원을 도왔다. 또 패츄리샤는 고아들의 외국 입양과 병든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 무료수술을 받도록 주선하였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1982년 대전시 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1989년 5월 5일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으며, 1991년 5월 5일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패츄리샤 선교사와 김찬영 박사는 1998년에 한국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미국에서 해외 선교를 위한 법인 CRAM Worldwide (Christ Reaching Asia Mission Worldwide)을 공동 명으로 조직하여 베트남, 중국, 북한, 필리핀, 캄보디아 선교에 주력하였다. 베트남을 거쳐 중국으로 옮겨 훈춘시에 거주하면서 훈춘시에 특수교육학교(장애자 150명, 교직원 50명)와 희망외국어학교, 복음식품유한회사(장애자 제빵기술교육 및 간식용 제빵공장), 희망농목개발유한회사(장애아동 재활승마 목장, 가축 목장, 옥수수 콩 경작지)를 세웠고, 인근 양포의 5천여 평 부지에 약 1천여 평의 건물을 지어 고아원(장애자들)과 양로원을 세웠다.

또 패츄리샤 선교사와 김찬영 박사는 북한 나진시로부터 거주증과 명예 시민증을 발급받아 훈춘을 통해서 북한 나진시와 선봉시에 출입하며 진료소 3곳(신해, 유현, 비파에 위치)과 120명을 수용하는 나선고

아원을 헌당하였고(2006년 5월 17일), 빵공장을 건립하여 매일 4-5천명의 아이들에게 빵과 콩 우유를 공급하였으며, 신해 목장과 유치원 및 탁아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밖에도 부모 없는 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수용기술학교와 비즈니스텔을 세웠다. 패츄리샤 선교사 부부는 나선 지역에 들어가 직접 식량과 모포를 비롯한 의류, 약품 등을 지원해왔다.

또 필리핀 바쿠어(Bacoor) 빈민촌에 김상호(전 한성신학교 교수), 전미식 선교사 부부를 파송하여 어린이 학교보내기, 수백여 명의 아이들에게 매달 3만원 지원, 50개 교회 개척 목표를 정하여 23개째 교회개척과 예배당 건립, 무료급식, 식량 및 생필품지원, 집 지어주기 및 수리해주기, 청소년 위기 센터인 샤론의 집(Sharon house) 운영, 빈민지역 14개 교회의 수천여명의 성도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도 캄보디아 나환자촌을 돕고 있으며, 베트남 선교도 지속하고 있다.

[주요저술] Patricia Kim, "CY and Pat Kim with Christ Reaching Asia Mission (CRAM): The Kims serve in China and North Korea", http://storage.cloversites.com/okolonachristianchurch/documents/CY Kim1.pdf; Patricia Kim, "Yesterday, Today, Tomorrow Only By God's Grace", https://cramworldwide.org/50yr-ministry-by-patricia-kim/ [게시: October 4, 2018].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137-47, 156;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서울: 쿰란출판사, 2018): 151-54, 2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446-51. 패츄리샤 김(Patricia Ann Kim) 선교사 http://kccs.pe.kr/rmp021.htm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5) 호프만 Fred Hoffman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선교사, 한국성서신학교 교수.

프레드와 엘리 호프만(Fred and Ellie Hoffman) 부부는 존 힐(John J. Hill) 선교사의 초청으로 1971년에 입국하여 1973년까지 대전에서 한국 크리스챤 밋숀(Christian Mission to Korea)에 소속되어 존과 제인 힐(John and Jane Hill) 선교사 부부와 김찬영 박사와 패츄리샤(C. Y. and Patricia Kim) 선교사 부부와 함께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위해서 사역하였다. 특히 프레드는 한국성서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고, 엘리는 대전 오정동 소재 외국인 유치원에서 주로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쳤다. 이밖에도 신학교의 업무들을 도왔고, 영내에 거주한 고아들을 돌보았다.

[주요저술]

[참고문헌]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를 중심으로 - 1864-1936』(한성신학교, 1991): 156; 백종구, 조동호 공저,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역사』(서울: 쿰란출판사, 2018): 264;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395, 446-47; John J. Hill, "A Short Histor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Taejon Korea, April 18, 1972, http://kccs.pe.kr/rmes002.htm; 初譯: 『쎄메론』 제7호 편집부(한성신학교, 1972); 再譯: 조동호, http://kccs.pe.kr/rmp002.htm(1999.3).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V.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사도 바울 김은석 목사

1. 김은석 목사의 생애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출범과 초기 50년 역사는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선교사들과 그들이 조직한 선교회들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선교사들과 선교회들은 대부분 1980년대에 그들의 시대를 마감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별개로 내국인(indigenous nationals) 목회자들에 의한 토종 선교의 기반은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닦여왔다. 따라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후기 50년 역사는 선교사들이나 선교회들이 아닌 내국인 목회자들에 의해서 이뤄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내국인 목회자들은 선배들이 눈물과 고난으로 닦고 밟아 다져놓은 환원의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성장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진 십자가에 기대어 있다. 제 힘이나 능력으로 선 것이 아니다.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일 수 있고, 그들과 동역한 내국인 목회자들일 수 있으며, 이름도 성도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선배들이 짊어진 십자가에 기대어 환원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선배들의 십자가와 눈물과 땀과 배고픔과 고달픔과 외로움이 켜켜이 쌓

이고 섞이고 다져져 딛고 설만큼 단단한 환원의 반석이 되고 안전하게 딛고 전진할 수 있는 길이 되었다.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는 더 이상의 선교사도 외국의 보조도 없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안에 들어 있고, 해외원조로 일어선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게다가 한국의 교회들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부흥과 성장을 이뤄왔고, 해외에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들이 2020년 12월 기준으로 168개국에 2만2259명에 이르며, 한국교회들이 파송한 외국 국적의 선교사도 1435명이 넘는다. 이 외국 국적의 선교사들의 숫자는 한국교회들과 한국인 개개인이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목회자들(indigenous nationals)을 모두 포함시킨 숫자가 아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이 수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발표한 '2020한국선교현황 통계조사'에 의한 것이다.[641]

이 같은 대전환기에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성장을 도모(圖謀)하고 전진할 방향과 원동력(原動力)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필자는 앞선 아홉 개의 글에서 선교사들과 선교회들에 의한 선교 역사를 기술하는데 주력한 반면, 마지막 글인 열 번째와 열한 번째의 글을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역자들'로 장식하고자 하였다. 김은석 목사는 1946년에 부강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1963년 1월 21일 별세하기까지 대략 16년 동안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수십여 개의 개척교회들이 자력으로 세워지게 하는데 공헌하였다. 물론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선교사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반선교사 정서와 토착적이고 자생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김은석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례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그들의 지원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국인들(Indigenous nationals)의 기도와 노력과 헌신만으로도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나갈

641)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180537.

수 있다는 사표(師表)이다.

김은석 목사가 개척하여 섬겼던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당 내부 모습
1961년 8월 17일 개최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원 안은 김완태 사모, 힐 제인 선교사, 김은석 목사(?), 김찬영 목사

김은석 목사는 성경으로 완전무장한 하나님의 용사였다. 성경만을 읽고, 성경만을 말하며, 성경의 내용만을 설교하고, 성경의 내용만을 가르친, 성경에 목숨 건 성경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김은석 목사가 보여준 실천적 목회자의 삶이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지식은 그의 설교나 강해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마치 성경 전체가 머릿속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신구약성경의 짝을 설명할 때에 사람들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깊은 감명과 은혜를 받았다. 오직 성경만을 말하고 그 성경 위에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세웠던 신약성경교회의 개척자였고,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사도 바울이었다.

1) 해방 전 활동

김은석은 1902년 5월 14일(음력) 황해도 평산군 당구리(속칭 붉은 바위 마을)에서 유교적이며 지주층의 가정의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처음 이름은 김종은이었다. 김은석은 한자와 한학에 박식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자와 한학에 조예가 있었다. 그는 1m 70cm 이상의 키에 70kg정도의 체격의 소유자로 16살 때 자기보다 다섯 살이나 많은 여인에게 부모결정으로 장가를 들었다. 부인은 다섯 살 위였는데 생식기에 문제가 있어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다가 집에 불을 놓았다. 이 방화 이후 집안이 몰락해서 당구리를 떠나 중국으로 건너갔다. 김은석은 중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재혼해서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아들은 세

살 때 사망하고 연이어 부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다.[642] 그는 젊은 시절 크게 실망 중에 있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100독 할 때 성령을 체험하였다. 이후 그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독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암송하였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성령 충만으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643]

김은석은 주로 만주, 일본, 한국을 오가며 복음을 전했다. 1930년대 초 20대 후반의 김은석은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만주 길림성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가 복음전도로 유명 인사가 되어 일본 경찰의 주목을 받자, 한국으로 돌아와 장로교 전도자로 순회하며 전도하였다. 한국에서도 일본 경찰의 탄압이 있자 1935년경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그는 일본에 입국증명서 없이 들어왔기에 늘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 평일에는 막노동판이나 탄광에서 일하고 주일에는 시모노세키(하관), 아사(김성철의 친부 김주일 거주), 덕산(박점상 거주), 동경, 오사카 지방을 순회하며 전도하였다.[644]

말씀 선포에 능력이 임하자 유명세를 타게 되고 특히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김은석은 다시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다. 그는 1936년 시모노세키(하관)에서 김명석(주일)을 만나고, 그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김명석(주일)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자 300명 정도의 교인이 모였다. 그가 "세례와 성만찬을 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의 오순절 역사와 다를 바가 없었다."[645] 김은석은 신사참배를 죄라고 믿어 이를 거부하였다. 그는 주일이면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한국인 교인들을 찾아가 "주 예수

642)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 (도서출판 진흥, 2000), 33-35;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목포그리스도의교회 50년사』 (광주: 도서출판 한림, 2006): 301-04. 김은석 목사의 신장과 체중이 180cm와 80kg정도였다는 목격담이 있으나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로 볼 때, 박점상 목사보다는 작고, 심영진 목사보다는 컸다. 몸도 가날 퍼서 체중이 70kg을 크게 상회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643) 정기철, "김은석목사의 환원운동: 성령운동에서 시작된 환원운동," (서울기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7.

644)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목포그리스도의교회 50년사』: 301-04.

645) 앞의 책: 312.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말라. 신사참배는 죄다"라고 선포하였다. 신사참배 반대로 인하여 그의 신변은 항상 위태하였다. 일본에서 그는 '간다긴세기 신전은석'으로 불렸고, 별명은 합바지를 입고 다니는 합바지(무명바지) 조사(전도사)였다.[646]

김은석은 세 번째 부인을 일본에서 얻게 되었다. 처녀장가는 아니었고, 교회에서 중매로 맺어졌는데, 그분이 김완례이다. 김완례는 품위가 있고 현대적 감각을 가진 인텔리였다. 김은석을 만나 재혼하였으나 남편이 쫓기는 신세라 일본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김완례는 충청도 사람이지만 원래 고향은 이북이었다. 서울에 와서 경성신학교에 다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고 있었다. 김완례의 첫 남편은 충남 연산 사람으로서 결혼하자마자 고향에 좀 다녀오겠다고 한국에 가서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편지가 날아왔는데,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서 가지 못한다."고 했고, 얼마 후에는 "죽었으니까 오지 말라"는 통보가 왔다. 그렇게 남편을 잃고, 전도 부인이 되어 열심히 교우들을 심방하고 다녔는데, 교우들이 접대로 떠준 얼음물을 마시고 냉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로 인해서 김은석 목사와의 사이에 자녀를 갖지 못하였다.

2) 해방 후 활동

김은석은 해방 직전에 한국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전을 받고 귀국하였다. 그러나 한일해협이 봉쇄되어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한국에서 그는 전도생활에 전념하는 한편 서울역 앞에 있는 빨간 색 벽돌(세브란스) 빌딩을 빌려 '백만 귀환동포 영접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였다. 큰 솥을 걸고, 교회에서 쌀을 공급받아, 오가는 사람을 먹이고 재우면서 귀환 동포들의 뒷바라지를 하였다. 당시 한국에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빌딩은 일본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귀환 동포들의 수용소 역할을 하였다. 강신명 목사, 한경직 목사도 그 때 함께 활동하

646) 앞의 책: 301-04.

였다. 또 구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애국활동을 하였다.[647]

초창기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모습

1945년 가을 김은석은 김교인 장로의 초청으로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하였다. 김은석은 부임하자마자 100일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으며, 노회의 자제하라는 권고를 무시함으로써 제명되었다. 이듬해인 1946년에 김은석은 박점상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로 환원하였고, 동년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시작하였다. 김은석은, 마치 사도 바울이 주후 46년부터 63년까지 선교여행을 통해서 키프로스, 터키, 그리스,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운 후 장로를 택하여 목회자로 삼은 것처럼, 1946년부터 1963년까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여 파송함으로써 충청전라지역에 수십여 개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였다.[648]

김은석 목사는 예배 중심의 3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첫째, 교파를 초월하라 - 초교파 운동

둘째, 성경대로, 교리대로 침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셋째, 교회 명칭도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야 한다. 또한 매 주일마다 주의 만찬을 해야 한다.

성경대로 이 세 가지를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그리스도교나

---

647)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 : 35.

648) 채이스는 「한국인 전령」(*The Korean Messenger: Korea for Christ*) 1949년 7월호에서 교회숫자를 10개라고 했다가 돌연 19개로 수정하여 보고한바가 있고, 테일러는 「한국에 그리스도를」(*For Christ in Korea*) 1956년 6월호에서 교회숫자를 75개로 보고하였으며, 「한국에 그리스도를」 1958년 2월호에서 김은석 목사를 "남한에 약 25개 교회를 세운 복음의 옹호자"(Gospel father)라고 보고하였다.

가톨릭교회나 세례 받는 형식이 순수한 침례가 아니었으며 주의 만찬 방법도 가령 신부만 잔을 마시고 신자들은 떡만 받아먹곤 하였다. 이렇게 근본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인근의 교인들이 몰려와 부흥되고 교세가 확장되었다.[649]

1954년 6월 14-19일 신앙실천일치토론회 기념사진(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은석 목사는 1951년 3월 15일 완전한 서울 수복 이후 서울 북아현동 금화산 언덕에 있었던 집을 팔고, 구호물자를 알뜰히 모아 팔아서 대전시 선화동 315번지의 땅 385평을 매입하여 판자로 주택이 붙은 예배당을 지어 선화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였다.[650]

존 힐 선교사가 대전시 가장동에 신학교 교사를 건축하던 1964년 충청이남지역에는 60개의 교회가 있었다(충북 16, 충남 19, 전북 1, 전남 24).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이것을 김은석이 일으킨 부흥운동의 결과로 보았다.[651]

김은석은 말년에 창병(瘡病)으로 고생하였다. 그 때 그는 창병의 치료를 위해서 '강신규'의 거처에 머물며 간호를 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악성루머가 퍼졌고, 루머의 사실여부를 밝히고자 하여 모인 50여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김은석은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를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은 이 사건을 연민과 동정으로 받아들였고, 일생을 가시밭길을 걸으며 복음전파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까지 돌보지 않았던 그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649)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 36-37.

650)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 38, 51; 조동호,『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도서출판 시시울, 2020): 109, 112, 113, 115.

651)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24-25.

이 사건은 김은석 자신에게도 극복하기 힘든 충격이었다.[652]

김은석 목사의 침거는 만 2년을 넘지 않았다.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는 "1958년 4월 26일 오후 청원군 남일면 문주리 고동주씨, 우정예자매 댁에서 (역대기하 ?-21장) 봉독"에서 멈췄다가 "1958년 10월 13일 오후 2시 30분에 부산 침례회 병원에 입원 후 16일에 본서 호세아를 다 봉독"이라는 메모로 완전히 끝이 난다. 참고로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는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도서출판 시시울, 2020) 109-228쪽에 실려 있다.[653]

김은석 목사와 김완례 사모(1958년 4월 15일)
양자 김성철(목사), 양녀 김명순(뒷줄), 양녀 김순희(앞줄)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가 중단된 1958년 이후의 활동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지만, 다행히 몇 장의 사진들이 남아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58년 4월 13일 산상예배기념으로 심영진 목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고(제공 김성철 목사), 그보다 이틀 뒤에 찍은 가족사진(양녀 김명순, 양자 김성철, 김은석 목사, 양녀 김순희, 김완례 사모)이 있으며(제공 박점상 목사), 1960년 김은석 목사와 김완례 사모가 박점상 목사의 침례신학교 졸업식 날 셋이서 찍은 사진이 있다 (제공 김성철 목사). 또 다른 사진은 한국성서신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대전광역시 도마동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심영진 목사 시무) 앞에서 찍은 것으로써 가장 최근의 활동모습을 담고 있다. 한국성서신학교는 1959년 12월 1일에 대전성서신학교라는 이름으

652) 조동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계룡: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2016): 316-17. 강신규는 김은석의 충실한 여성 동료이자 김완례 사모의 올케의 올케 또는 올케의 아들인 김은영 목사의 외숙모였다.

653) http://kccs.info/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내지_최종.pdf

로 앞서 언급한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당에서 20여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1960년 초에 이신 목사가 부산에서 교수진에 합류하였고 교통편을 고려하여 학교를 대전역에서 가까운 선화교회로 옮겼다. 1959년에 부산에서 버트 엘리스 선교사 부부와 조셉 세걸키 선교사 부부가 한국방송밋숀(Korean Broadcasting Mission)을 설립하고 부산문화방송(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여 매일 하루 두 번, 일주일에 세 시간씩 방송을 내보고 있었고, 1958년 12월에 이들 선교사들로부터 방송설교자로 채용된 이신 목사는 1960년 4월 15일 사임할 때까지 부산문화방송을 통해서 매일 밤 10시에 방송설교를 내보고 있었다. 이때 행한 설교들을 모아 기독교문사를 통해서 1980년에 펴낸 책이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다. 또 김은석 목사는 1963년 1월 21일에 별세 하였다. 따라서 이 사진은 1959-60년 겨울철 곧 개교직후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아무리 늦어도 1960-61년 겨울철이다.

존 힐 선교사와 김은석 목사가 방문하여 집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한 장소 불명의 교회 단체사진이다(1960-62년경). 김은석 목사의 성경책과 손가방을 볼 수 있는 사진이자 별세 1-3년 전 모습이다.

이밖에 1960-1962년 사이 존 힐 선교사와 함께 모처의 교회를 방문하여 집회를 가진 후 촬영한 단체사진이 남아 있다. 특히 이 사진 속에는 김은석 목사가 김성철 목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성경책과 가방이 담겨있다(제공 존 힐 선교사). 그 성경책이 바로 성경통독메모가 담긴 책이다.

이밖에 1957년 4월 2일(화)자 논산시 충곡 그리스도의 교회 안촌말 최영식의 장녀 정순 자매(신랑 서은배) 결혼주례 후 기념사진(제공 김성철 목사)이 있고, 양녀 김명순, 양자 김성철, 조OO권사, 부강역장 김윤구 집사, 김은석 목사, 김완례 사모가 함께 촬영한 1958년 7월 4일자 가족사진(제공 김성철 목사), 김은석 목사가 동생들과 함께 찍은 연도 미상의 사진(형제들의 이름은 김종석, 김정원, 김경원 목사, 김종인,

제공 김성철 목사) 및 박점상 목사와 함께 경전여관 앞에서 촬영한 연도와 장소 미상의 사진(제공 존 힐 선교사)이 남아 있다.

김은석 목사와 김완례 사모(1958년 7월 4일)
앞줄 좌측부터 김윤구 집사(부강역장), 김은석 목사, 김완례 사모
뒷줄 좌측부터 양녀 김명순, 양자 김성철, 조00권사

이들 사진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김은석 목사의 공백기(칩거)가 1958년 후반기 또는 1959년 전반기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존 힐 선교사가 재입국하여 대전에서 사역을 시작한 1959년 후반기부터 1963년 1월 21일에 별세하시기 전까지 만 3년간 활동을 재개하였다는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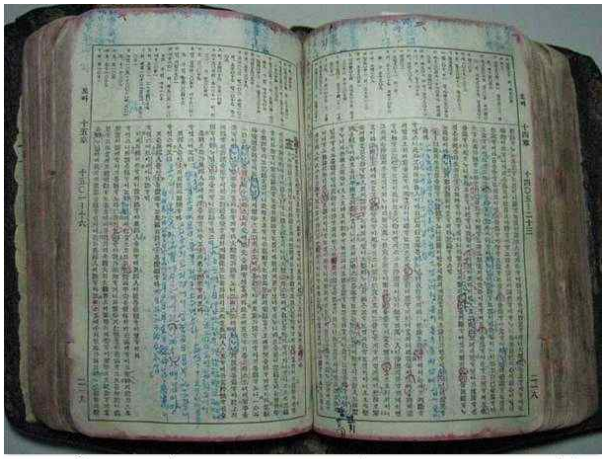
존 힐 선교사가 1959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대전으로 유치한 분은 김은석 목사였다. 김은석 목사는 1963년 1월 20일 '충곡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주일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밤 10시가 넘어 찐 고구마와 날고구마를 먹고 탈장이 되었다. 3년 전 위 수술을 받았던 것이 원인이 되어 복통을 일으켜 앓다가 다음 날 21일(월요일) 최봉석 장로댁에서 별세하였다.[654]

가족 중에는 아무도 임종을 보지 못하였다. 최봉석 장로(당시는 집사, 명달재 목사의 장인)가 김성철 목사에게 김은석 목사의 유언과 남긴 물품을 전하였다. 김은석 목사는 양아들 김성철 목사가 대를 이어 꼭 목사가 되길 바랐다. 그가 그에게 남긴 것은 헐렁한 가방 하나였는데, 그 초라하고 낡은 가방 속에는 구리돈, 납 돈 몇 푼과 가방만큼이나 낡은 성경책 한 권만이 달랑 들어 있었다.

2. 한국의 사도 바울 김은석 목사

654)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 33, 87-89.

1) 김은석 목사와 세상사



김은석 목사의 성경책은 1920-30년대에 출판된 조선어와 한문이 혼합된 선한문 관주 성경책으로써 너덜너덜해져서 김은석 목사가 손수 수차례 제본을 다시 하였는데, 책의 앞뒤 페이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없고, 신약성경을 몸기와 시편 사이에 끼어 넣었으며, 메모를 위해서 간지들을 책들 사이에 끼어 넣고 꿰매었다. 김은석 목사는 이 성경의 행간에 1953년 3월부터 1958년 10월까지 성경통독일지를 메모로 남겼다.

김은석 목사는『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를 보면, 1963년 1월 21일 충남 논산시 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별세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양아들 김성철 목사의 자서전,『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에는 "63년 1월 하순"으로만 나와 있다. 김은석 목사는 양아들 김성철 목사가 군에 입대한지 얼마 안 된 훈련병 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군에서는 이 소식을 훈련 중이라는 이유로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신지 꽤 날짜가 지난 후에서야 알았다. 가족 중에는 아무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고 한다.

김은석 목사의 생신 날짜는 정확하게 음력 5월 14일이다. 성경통독 메모에 생신에 관한 언급이 1955년 7월 3일과 1956년 6월 22일에 두 번 나온다. 모두가 음력 5월 14일이다. 다만 출생연도가 정확하지 않다.『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를 보면, 1902년으로 되어 있는데, 1955년 7월 3일 메모를 보면, "금일 주일 아(我) 생일인데 갈산교회당 골방에서 시편 83:1-89:12까지 봉독함. 완례씨도 내(來)함. 4288년 5월 14일 황우재, 이정자, 암(임?)정례, 집사님들도 내(來)함. 아(我) 출생(出生) 52년 주이다."고 적고 있다. 1955년이 52주년이라면, 1903년생이 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적은 글일지라도 착각이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

문에 1902년생인지, 1903년생인지는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다.

김은석 목사는 매년 한 차례 이상씩, 때로는 자택에서, 때로는 타지에서, 병이 들어 앓아눕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1958년 10월 13일에는 부산침례회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다. 김완례 사모도 건강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김은석 목사는 사모의 병약함이 심령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심한 말까지 적고 있다. 사모의 불평과 불만생활에 화가 나서 쓴 말이다. 그러나 사모의 불만불평에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 년이면 대부분의 날들을 전도 집회며 성경연구집회로 타지에서 보내는 남편, 그것도 먹고살기가 지극히 곤란했던 1950년대, 끼니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역자들을 떼거리로 몰고 들어오는 남편, 그런 남편에게 어찌 불만이 없을 수 있겠는가? 김은석 목사는 하나님의 일과 자기 입장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의 1957년 8월 26일(월)자 메모를 보면 당시의 곤란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1957년 8월 26일(월)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고린도전서 1:1-2:9까지 봉독함. 어젯밤 고린도전서 7장 3절대로 지내었고, 편지를 받은 최춘선, 김영원, 김영숙, 이종만, 설하운, 테일러, 박은병씨가 온 것이었다. 집이 민망함은 완례씨가 항상 불만생활을 함입니다. 심영(령)병이 있음으로 육신병이 임함. 오전 9시 48분경에 고린도전서 3:9-4장말까지 봉독하는 중 내가 크게 각성을 가지게 된 것은 4장 9절과 4장 11절 이하 바울이 경천애인 생활한 것을 보고 위안 받음. 지금 날마다 집에 당함은 생활난입니다. 저녁에 대전 자택에서 고린도전서 5-6장까지 봉독함. 김은영, 최근수, 이신, 김윤구, 김영애, 고광석, 임온년, 7남매가 다녀가심. 최근수, 김은영은 혼인사로, 이신은 목포 강사로[655].

여기서 "고린도전서 7장 3절대로 지내었고"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는 성경말씀대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뜻이다. 일 년의 대부분을 타지에서 보내는 만큼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집이 민망함은 완례씨가 항상 불만생활을 함입니다."는 몰려오는 동역자들을 어찌 대접할 것인가라는 현실문제로 김완례 사모가 화를

655)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도서출판 시시울, 2020): 216-17.

냈을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은석 목사 자신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와 4장 11절의 말씀,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를 통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사도 바울의 것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날마다 집에 당함은 생활난입니다."라는 고백은 자신과 가족의 처지뿐 아니라, 동역자들의 처지가 어떠했는가를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김완례 사모와 힐 제인(Jane Hill) 사모

김은석 목사의 8월 26일(월)자 김완례 사모에 대한 비난은 이보다 4일전에 꾼 꿈과도 전혀 무관치 않은 듯싶다. 1957년 8월 22일(목) 메모에 따르면, 김은석 목사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꿈을 꾸었다. 그 꿈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지난 밤 몽사에는 안해(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에 갔다고 하며 가정물건도 가지고 갔다며 성철이 섭섭함을 보다 나도 기분이 상함을 지내었음." 이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채 험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전도자 김은석 목사의 심리적 불안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는가 싶다. 이 꿈을 꾸기 하루 전인 1957년 8월 21일(수)만 해도 아침에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교회에서 사도행전 26-28장까지를 봉독하면서 "계시로 말미암아 음성을 듣고" 로마서 4장을 봉독하고 있다. "계시로 말미암아 음성을 듣고"와는 상관없이 가정문제, 경제문제, 교회문제, 핍박과 비난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기세를 높여 김은석 목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갈등과 고민을 우리는 1954년 7월 24일자 메모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성경을 봉독 중 들이난(들리는) 말리(말이) 나을(나를) 거짓 선지자라는 말과 나를 불신용

자(不信用者)은(나를 신용하지 못하는 자는) 말만타(말이 많다?) 그런고로 어이할까." 또 1957년 8월 23일(금)자 메모에서는 "저녁집회는 기독교장로회 전도자 지(池)씨가 합석하였는데,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책잡으려는 주의를 표하고 떠났습니다. 지금 각 교회 분위 형편은 대체가 그러하다." 1957년 8월 23일(금)자 메모는 사모에 대한 불안한 꿈을 꾼 다음 날의 일이었다. 그가 유명세를 탈수록 그를 비방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 외부의 비난과 핍박과 내부의 이단과 분열과 갈등과 가난함과 곤고함과 괴로움이 늘 있어 왔다. 그 길을 예수님이 걸었고, 바울 사도가 걸었으며, 한국의 사도 바울 김은석 목사도 걸었던 것이다. 김은석 목사에게도 갈등과 시련은 언제나 있었고, 그 때마다 성경봉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곤 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는 1950년대의 물가지수를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기록들이 있다. 그가 지불한 몇 가지 비용들을 보면, 이발료 120환, 안경 3,200환, 모자 80환, 냉면1기 2백환, 배표 300환, 부강에서 서정리(평택)까지 열차표 890환이었다. 참고로 김은석 목사가 자주 탔던 열차들에는 경부선 5, 6, 14열 급행열차, 호남선 33, 34열차, 전라선 태극호 601열차, 통근차가 있었고, 버스로는 금성버스와 계룡버스 등이 있었다.

2) 신약성경교회들의 개척자

김은석 목사의 충실한 동역자들은 목사 이신(13회), 김재순(24회), 전도사 김명석(26회), 김은영(22회), 고광석(12회), 임남규(10회), 전도희(23회), 자매 강신규(26회), 이혜순(9회), 김숙명(12회), 박종예 등이었다. 이들은 김은석 목사의 동역자들일 뿐 아니라, 순회여행을 함께한 동행자들이기도 하였다. 이름 옆의 가로 속 횟수는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서 이름이 적힌 빈도수이다. 1953년부터 1958년까지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 적힌 목회자, 전도사, 장로, 집사, 성도들의 이름만 하여도 220여명이나 된다. 메모에 적힌 사람들은 아래에 나열한 명단보다 실제로는 더 많다. 편집자가 빠뜨리고 옮겨 적지 못한 이름들

도 꽤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명단은 주소록 명단과 통신 명단과는 별개의 것이다.

강만수 강순임 강신규 강월선 고광석 고동주 곽형도 권영숙
권종철 귀제원 김경수 김경열 김광우 김교인 김규상 김기주 김남산
김눅기 김대석 김도철 김동국 김동열 김만석 김명석 김명순 김봉구
김봉섭 김삼용 김상열 김상옥 김선원 김성철 김숙명 김순식 김영애
김영환 김오봉 김 완 김완례 김윤구 김은영 김일례 김일순 김일제
김재수 김재순 김정만 김주한 김준수 김준철 김창수 김천금 김청길
김칠봉 김칠성 김태규 김태달 김태수 김태열 김향자 김호민 김홍석
김확실 나연찬 노광수 노의수 노이석 도주일 도화당 마은정 목고환
문광예 문대연 문옥자 문원섭 박근영 박기서 박병우 박상호 박순애
박승호 박신상 박신애 박옥순 박용기 박유선 박은병 박인순 박자매
박전도 박점상 박정엄 박종승 박종식 박종예 박진식 박치환 배문순
배윤순 백전순 백정순 서석용 석중한 설하운 성소녀 송석희 송안성
신상득 신숙길 신영두 신정철 안명수 안영천 안혜옥 오연홍 우정예
원교선 원용숙 유재춘 윤근오 윤묘중 윤양춘 윤옥동 윤일상 윤철호
이경님 이공님 이기철 이명근 이문구 이복동 이성하 이숙준 이순애
이 신 이원노 이원화 이은우 이은희 이재균 이재천 이정자 이종만
이종원 이종철 이학재 이한상 이혜순 이홍식 임남규 임미라 임온년
임현건 임혜숙 전대현 전도희 전봉상 전상규 전현동 전현재 정곡간
정귀남 정매실 정옥순 정유순 정찬성 정히건 조국형 조규석 조대식
조봉순 조장환 조종화 조태국 주관보 주기현 주명삼 주안성 지철휘
진성구 진이삭 진종운 진중열 천세영 천정희 최근수 최길수 최병록
최병수 최성대 최성례 최성윤 최순국 최영식 최영임 최요열 최요한
최일복 최장석 최재호 최재화 최정순 최정택 최춘선 최한주 테일러
한명희 한미자 한정석 한홍석 홍기형 홍사윤 황순홍 황하주 황현욱

김은석 목사가 개입한 교회들은 80여개 교회들에 이른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었지만, 타 교단의 교회들도 섞여 있다. 타 교단들의 교회 방문은 대개가 부흥회 인도 때문이었다. 김은석 목사의 주 활동무대는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도였다. 이곳에 그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백일집중성경연구회'를 주도한 지역들도 이들 지역이었다. 이 기간 김은석 목사는 제자양육을 위해서 집을 떠나 이들 지역들에 장기간 머물렀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집엘 다녀오지 않았다. 김은석 목사는 이들 기간에 지역교회들을

순방하며 부흥회를 인도하였고, 인근에 가정교회들을 세웠으며, 목회자를 임명하여 세웠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키워 임명하는 것은 사도 바울 선교의 특징적인 활동이었다. 김은석 목사는 바울과 동일한 수고를 남녀 동역자들과 함께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가 관여하였거나 방문한 교회들은 다음과 같다. 교단의 명칭이 따로 없을 경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다.

경기도 서정리(평택) 교회[656]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1구 1통 30반 천막교회
경남 진주 칠암동 318 교회(김은석 목사 동생 김경원 목사 시무)
경남 통영군 도산면 도선리 1구 그리스도의 교회
경남 함양군 안의면 안의 교회
경북 금능군(김천시) 개령면 대광동 2구 대보 그리스도의 교회[657]
경북 대구 신천동 그리스도의 교회
경북 대구시 동인동 교회
경북 청도군 금천면 명포교회
서울 마포구 아현동 교회
서울 이태원 교회(순복음, 최요열목사)
서울시 도원동 교회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4번지 70호 성결교회
서울시 서대문구 평동 16의 23호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
서울시 성동구 청량리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
서울시 중구 도동 2가 5번 그리스도의회 대한 감리회 감남교회
양동교회(?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연화동 교회
전남 강진군 작천면 작천 교회
전남 강진읍 기룡리 용동 교회
전남 광주 남구 사동 22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광주시 광산동 80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광주시 금동 46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전남 목포 유달 교회 (편집자 주: 최요한 목사가 개척한 순복음교회였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가 이 교회에 있었음)
전남 목포시 죽교동 사구 동 399번지 교회
전남 무안군 지도면 대조리 성결교회 (김완례 사모의 질녀 내외 시무)

656) 박점상 전도사가 침례신학교에 재학할 당시에 학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김은석 목사의 큰 동생 집에서 개척한 침례교회.
657) 편집자 주: 장성우 목사의 부인 김순옥 사모의 모친 김묘암이 설립.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 교회
전남 순천 오순절교회
전남 영광읍 교회
전남 영광읍 도동리 교회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교회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신흥부락 교회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촌교회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
전남 해남 송지면 매화리 교회
전남 해남군 백호리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도림리 김응임 노부인 댁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동리 윤철호씨 댁 동리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화랑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황당교회
전남 해남군 옥천면 화당교회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최정택 형제 예배처소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교회
충남 논산군 부적면 충곡리 교회
충남 대전 선화동 2구 315번지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대전시 반암동 교회
충남 대전시 신탄진 교회 석봉리 집회소
충남 대전시 판암동 교회,
충남 부여군 규암면 노하리 교회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교회(현 교역자회)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교회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리 칠미부락 교회
충남 연기군 동면 월산동 활골교회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교회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면 수리 교회
충북 중원군(충주시) 신이면 화석리 방축골 교회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 교회
충북 청원군 남일면 방서리 교회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교회,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정유순 자매 집 교회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 교회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교회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 새테말 교회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교회
충북 청주시 영운동 교회
충북 충주시 동양면 조동 교회
충북 충주군 소태면 복탄리 교회
형성교회
화동교회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를 보면, 일 년의 대부분을 교회순회와 성경연구집회를 위해서 타지에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행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정확하게 부흥회의 일로 나갔는지, 성경연구집회의 일로 나갔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역자들이 해마다 지역을 바꿔가면서 성경연구집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는 김은석 목사가 메모에서 분명하게 집회의 성격을 밝힌 경우들이다. 이들 집회들의 경우 평일 10-20명, 주말 수십여 명씩 모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954년 5월 14일 부강교회에서 일일 성경학을 마치고 충북 충주군 동양면 조동교회 방문차로 가는 중 강신규, 임혜숙 두 자매와 같이 동행하였다.

동량 그리스도의 교회(충북 충주시 동량면, 1950년대)

1954년 6월 14일부터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번지 2통 4반 해병대 앞 유달 교회당 (최요한 목사 시무, 순복음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 붙이고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

1955년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

1957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 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

이밖에도 부흥회 인도를 언급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최용호 목사

의 박정자 사모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석 목사가 지방에 도착하면 그 날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씩 밤낮없이 집회가 지속되었고, 매번의 집회마다 시간제한 없이 수 시간씩 사경회가 지속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1953년 8월초 전남 강진군 금동면 연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집회소에서 연합성경사경회를 9월 15일까지 개최하다.

상월리 교회(전남 영암군 학산면)

1953년 9월 중하순에 전남 순천시 영동 5번지 오순절교회 부흥회 인도하다.

1954년 2월 중순에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 교회에서 부흥회 인도하다.

1954년 3월 초에 전남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황당교회 부흥회 인도하다.

1954년 6월 초에 대구 동인동 교회 부흥회 인도하다.

1955년 6월 말에 서울 성경신학원 부흥회 인도하다.

1956년 4월 하순에 대전시 판암동 애생원 교회 부흥회 인도하다.

1956년 11월 중순 경북 대구 신천동 그리스도의 교회 부흥회 인도하다.

1957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목포성경연구소에서 전남 전도자 수양회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개최되다.

3)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박점상 목사에 의하면, 1946년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가 시작되었다. 김은석은 부강에서 병원을 개업한 신현창 장로와 더불어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개설하였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는 처음에 '경천학'이라 불렸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의 장이라는 의미"로 신화신학으로 개명되었다.[658]

658)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10.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초기에 공부했던 목회자들은 정찬성, 장주열, 김명석, 김재순, 최요한, 김상호, 구광서, 박점상, 김정만, 창현 함태영, 김동열, 이원노 등이었다. 10여년이 지난 1955년 4월 12일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소수교회당에서 진행된 백일성경연구집회에 참석하여 당일 4시까지 공부한 사람들 중에는 "유경히, 곡봉예, 전도희, 최옥순, 이혜순, 정히순, 김옥히"(이상 여자), "이원노, 박장봉, 차대훈, 나연찬, 김명석, 김웅석"(이상 남자)이었다.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성경연구집회들에 참석한 인원이 평일 10-20명, 주말 수십여 명에 달했다. 이밖에 김교인 장로의 아들 김태수, 김철수, 김명석의 아들이자, 김은석의 양아들 김성철 등이 부강교회 출신이자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한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목사들이며, 이신(이만수)도 6·25때 광주에서 김은석의 설교를 듣고 감리교회에서 신약성서교회로 환원한 목회자요 교수였다. 이처럼 수많은 인재들이 김은석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여 목회자와 교회개척자로서 고난의 길을 걸었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 백일성경연구집회였다. 김은석은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면, 일일, 열흘, 한 달 혹은 한 달 반 등 제한 없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백일집회를 선호하였다. 그가 1945년 가을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백일집회였다. 이런 집회가 일 년에도 몇 차례씩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는 일 년의 대부분을 집을 떠나 타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가족을 거의 돌보지 못했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1953년 8월초 전남 강진군 금동면 연화동 그리스도의 교회 집회소에서 연합성경사경회를 9월 15일까지 개최하다.

(2) 1954년 6월 14일부터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1번지 2통 4반 해병대 앞 유달 교회당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붙이고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659]

659) 유달 교회는 최요한 목사가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무렵에 이적하여 세운 순복음교회였다.

(3) 1955년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 인도하다.

(4)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공부하는 기간에 봉독함.[660]

(5) 1957년 8월 31일(토) 아침은 또한 목포성경연구소에서 7:5-8장까지 봉독함... 김재순, 임남규, 이신, 김은석 4인이 결의 부강서 9월 17일부터 성경공부 시작하기로 함.[661]

이밖에도 1955년 10월 15일부터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 교회당에서 연말까지 성경공부가 있었다. 김규상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1951년경 영광에서 100일 집회가 개최되었다.

둘째, 이동 신학교였다. 김은석은 이신과 같은 동료들과 더불어 해마다 지역을 바꿔가면서 성경연구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장소들로는 부강, 광주, 목포, 해남, 함평, 부여, 오창, 괴산, 충주, 대구 등지였다.

(1) 6·25전쟁 중이던 1951년에는 광주에서 있었다. 이때 교수는 김은석, 이신, 창현 함태영 등이었다.

(2) 1952년에 광주에서 운영되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이신이 시무하던 부여 합송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겼다. 합송은 이홍식이 1950년 3월 19일 개척하였고, 정찬성이 1951년 5월 15일 제1대 목회자로 부임하여 10월까지 시무하였다.

(3) 1953년 8월초에서 9월 15일까지 개최된 연합성경사경회는 전남 강진군 금동면 연화동 집회소에서 열렸다.

(4) 1954년 5월 25일에 백호리 교회에서... 공부하였다.[662]

(5) 1954년 6월 1일(화)부터 10(목)일까지 대구 동인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김은석은 10일간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6) 1954년 6월 14일부터는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 붙이고 최요한 목사가 시무하던 목포 유달 순복음교회에서 백일성경연

660) 이것은 1957년 3월 6일 수요일 메모로써 1957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 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661) 최요한 목사는 8월과 9월에 이 목포에서 속개된 성경연구집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귀키로 마음을 확정하고 목포시 대안동 11번지 자택에서 9월말부터 기도회 모임을 시작하여 10월 1일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담임하던 목포 복음교회는 10월 5일 정식으로 사임하였다.

662) 이 메모는 전남 해남군에서 성경연구집회가 열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구집회가 운영되었다.

(7) 1955년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최된 백일성경연구집회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인도되었다.

(8) 1955년 10월 15일부터 1956년 1월까지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 교회당과 청학동 교회당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가 있었다.

(9) 1957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와 9월 17일부터 시작된 백일성경연구집회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교회에서 인도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성경통독강의였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1954년 4월 21일(수)... 모여든 여러분과 같이 사도행전 5-6장 공부함.

(2) 1954년 4월 23일(금)... 저녁에 부강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공부 오신 분들과 같이 돌려 봉독하야 사도행전 8장 공부함.

소수 그리스도의 교회(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3) 1954년 4월 30일(금)... 명(明) 5월 1일부터는 에스겔을 공부하기로 함.

(4) 1955년 4월 16일(토)...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2월 25일부터 시작한 백일집회에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바 4월 16일은 수십 명이 공부하였다.

(5)1955년 5월 19일(목)자 메모에 의하면,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서 진행된 백일성경연구집회에서는 로마서를 공부하였다.

(6) 1955년 5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남녀 16-18명이 모여 출애굽기를 공부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김은석 목사의 학업방식은 성경통독강의였다. 백일성경연구와 집중공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김은석 목사는 1955년 5월 19일(목)자 메모에서 "금(今)번 이 공부 중에는 천신만고에 난관이

있었다."고 적고 있고, 동년 10월 20일(목)자 메모에서는 "의외(意外)에 이 신생동에 성경 공부한다는 시작이 되여 일기가 치귀서(차가서) 고생이다."고 하였다. 신생동이란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을 말하며, 12월 16일(금)자 메모에서는 "금일 아침은 크게 추웠음(今朝는 大寒이 되엿슴)."이라고 적었다. 김은석과 그의 동료들이 겪었던 고충은 대개가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 또는 가족을 돌보지 못한데서 오는 가족들의 불만이었다.

넷째, 성령 충만함이었다. 김은석 목사는 1945년 가을에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하자마자 100일 집회를 개최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킨 것을 문제 삼아 노회로부터 제명된 것에서 보듯이 김은석 목사 사역의 특징은 성령 충만함이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그 당시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봉례 집사, 김규상(목사), 김교인 장로, 윤정렬 사모, 김철수(목사), 오연우 장로, 전도희 집사, 황 집사, 김복수 집사와 그의 딸 김은영, 박오덕, 장 집사, 전도 부인 민명옥 등 70여 명으로 추산된다."[663]고 하였다. 이들 가운데 김철수, 김복수는 김교인 장로의 자녀들이고, 구봉례 집사는 김규상의 모친이다. 여기서만 목회자가 세 명이 나왔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김규상 목사, 김철수 목사, 전도희 전도사이다. 김교인 장로의 또 다른 두 아들인 김재순과 김태수도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목사가 되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장주열과 최요한도 김은석이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였다.[664] 김규상은 1951년경 영광에서 개최된 100일 집회에 참석하여 김동열과 함께 큰 은혜를 받고, 동년에 16살의 나이로 충곡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였다고 한다. 이신도 감리교신학교를 마치고 1950년 전의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다가 6·25전쟁 때 피난생활을 하던 중 1951년 김은석이 인도하는 광주집회에 참석하여 김은석의 성령 역사에 크게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였다.[665]

다섯 번째 특징은 전도실습이었다. 1955년에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

663)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07.
664)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15.
665)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20-22; 조동호, 『환원 운동사』: 483.

리교회에서 개최된 백일성경연구집회 때인 5월의 성경통독메모를 보면,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남녀 16-18명이 모여 출애굽기를 공부하였고, 27일 금요일에는 동리에 나가서 축호전도를 하였다. 1957년 9월 6일 금요일에는 몇몇 전도자들을 각기 다른 지역교회로 집회가게한 후에 본인도 하이도행 외령호를 타고 석양(夕陽)에 무안군 하의면 하태에서 개척하는 임혜숙 전도사를 위로 방문하여 주일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심방하고 전도하였다.

4) 김은석 목사의 박애정신

김은석 목사의 박애(博愛) 정신을 볼 수 있는 사례들은 많다. 그의 성경통독메모들을 통해서 김은석 목사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 특히 교회와 전도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경비를 써가며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첫째, 김은석 목사는 1957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부모 잃은 고아들을 보육원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종만 목사가 운영하던 인천시 학익동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을 오양균, 김규제, 김규성 세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하고 있다. 3월 23일 토요일 아침에 수원 동생네 집에 들러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인 후 오후에 인천에 도착하였다. 이런 일이 아닐지라도 김은석 목사는 수시로 충남 부여군 합송리 구애보육원, 판암동 애생원, 인천 학익동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인천시 부평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청주시 영운동 박인회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둘째, 김은석 목사는 1955년 7월 29일 금요일 아침에 충북 청주 예배당 구입 문제로 이한상 형제의 부탁을 받고 서울 선교부에 올라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 일도 하루에 처리하지 못하고 오던 길 밤에 천안에 있는 황해여인숙에서 하루 밤을 보내게 된다.

셋째, 김은석 목사는 1956년 7월 10일 화요일 새벽 2시경에 대전 은행동 자택에서 성경 요한복음을 봉독한 후에 새벽 4시 31분발 서울행 제6열 급행열차를 타고 선교부에 가고 있다. 선교부 방문의 목적은 김명석 전도사 부인[666]에게 급하게 도와야할 일이 생겨서 도와줄 방도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뿐만 아니라, 가좌교회의 일과 또 다른 일들도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1955년 12월 27일자 메모에서 김은석 목사는 가좌교회를 "펍박이 심한 개척이다."라고 적고 있어서 매우 어려운 처지의 개척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은석 목사는 가좌교회에서 힘겹게 분투하는 전도희 전도사를 자주 위로 방문하였고, 여러 형제자매들을 불러 모아 그곳에서 성경연구집회를 갖곤 하였다. 또 김은석 목사는 1957년 9월 6일 금요일에 몇몇 전도자들을 각기 다른 지역교회로 집회가게한 후에 본인은 하이도행 외령호를 타고 석양(夕陽)에 무안군 하의면 하태에서 개척하는 임혜숙 전도사를 위로 방문하여 주일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심방하고 전도하였다. 월요일 그곳을 떠날 때, 느낀 점을 이렇게 적고 있다. "오늘 하의에서 떠날 때 임혜숙 자매에 외로와함 보면서 동정심이 심하였다." 주의 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주의 일군들, 특히 여성 사역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김은석 목사는 깊은 동정심을 가졌던 것 같다. 공부할 때나 전도할 때나 항상 그의 곁에는 남성 동역자들과 제자들에 못지않게 헌신적인 많은 여성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넷째, 김은석 목사는 병석에 누운 동역자들을 찾아 위문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1955년 8월 16일자에는 병원에 입원한 고광석 전도사와 판암동 애생원을 김옥여, 이원노, 강신규, 김완례 사모 등과 함께 위로 방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김은석 목사는 자주 병이 나는 김완례 사모의 병간호에도 힘쓰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김은석 목사는 고통 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3. 떠돌이 전도인 김은석과 성경책

1) 성경낙서를 통해서 본 김은석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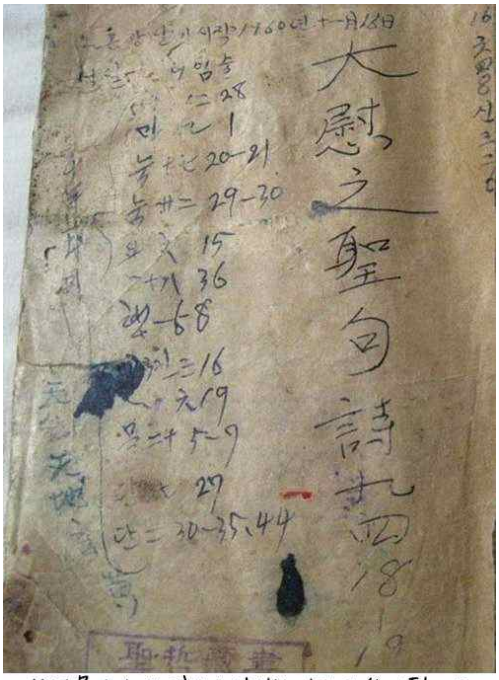
666) 김성철 목사의 생부 생모.

2009년 10월경 미국을 방문한 장성우 목사에게 김성철 목사가 김은석 목사의 성경책을 전달하는 모습이다. 이 책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 루선 밸리(Lucerne Valley)의 바위산 언덕 아래 미션 비전 크리스천 센터(Mission Vision Christian center)에 소장되어 있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책은 1920-30년대에 출판된 조선어와 한문이 혼합된 선한문(鮮漢文) 관주 성경책으로써 너덜너덜해져서 김은석 목사가 손수 수차례 제본을 다시 하였는데, 책의 앞뒤페이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없고, 신약성경을 욥기와 시편 사이에 끼어 넣었으며, 메모를 위해서 간지들을 책들 사이에 끼어 넣고 꿰매어 성경의 일부처럼 만들었으며, 많은 낙서들을 남겨놓았다. 바로 이 오래된 책이 김은석 목사의 손에서 떠난 지 46년 9개월여 만에 필자가 운영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로 오게 되었다. 그의 성경책은 온통 낙서투성이다. 가죽커버를 열면, 첫 페이지에 '大慰之聖句 詩 九四 18-19'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다. 가장 크게 위로를 받는 성경말씀이 시편 94편 18-19절이란 뜻이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150편 끝 여백에 남긴 메모에서 시편의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1954년 7월 25일 주일에 본 시편 94편 9-150편까지 봉독하며 은혜받음 할렐루야 성도의 노래 이 시편을 이와갓치 부족한 자 깃붐으로 봉독함은 진실노 주님의 은혜로다."

김은석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었다. 천년왕국에 관련된 성구를 적어놓은 것을 보면, 그가 전천년설을 믿었던 것 같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뤄진다는 설로써 삶이 피곤하고 곤궁했던 시절에는 대부분 이 전천년설이 유행하였다.

헌금(왕하 12:14-15, 22:7)과 헌물(출 36:3-7)과 헌납물(대상 29:8-14)에



김은석 목사가 성경책에 삽입한 갈지에 쓴 자필 메모. '대위지성구 시 94편 18-19절'라고 썼다. 이 말은 가장 크게 위로를 받는 성구가 시편 94편 18-19절이란 뜻이다.

대한 성구도 적어두었다. 특히 헌금은 계수하지 않는다고 적어 놓았다. 이들 성구들을 통해서 볼 때, 김은석 목사는 사례금에 대해서 정산하지 않았으며, 헌금과 헌물은 풍족하고 넘치게 하되,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을 가르쳤을 것으로 보인다.

구약성경목록이 적힌 곳에 종(縱)으로 "1917년에 중국에서 느진비 성신이 임하야 참예수교회 났타났씀."이라고 써놓고 있는데, 1917년은 김은석 목사가 첫 부인을 맞이했던 때이다. 이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1917년 중국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표아래 산동성 출신의 장로교회 집사들이었던 장빈(안식일준수 주장), 은파(침수세례 주장), 장 바나바(방언은사 주장) 세 사람이 창설한 '참예수교회'(진야소교회)를 두고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김은석 목사가 참예수교회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참예수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예수교회가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 그리스도의교회들과는 달리, 제칠 안식일(토요일) 준수와 방언 말함을 성령세례 받은 것으로 각별히 강조한다는 점을 뺀 나머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과 침례와 매주 성만찬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비슷하다는 점이다.[667] 특히 김은석 목사가 성령의 은사에 관한 정통보수주

667) 자료: http://tjc.or.kr/our_believes.

의 견해와는 달리 성령체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점에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참예수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로 김은석 목사는 1961년 5월 28일 새벽에 꿈 중에서 신명기 4장 8, 31절의 말씀을 들었다고 적고 있다.

김은석 목사가 제칠 안식일 준수를 주장했거나 그날을 지켜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그의 기록들은 그가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석 목사는 교황의 호칭인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Vicarius Filii Dei)를 666으로 믿었던 것 같고, 천주교가 "십계명을 곳친 사실. 요리강령 28 페이지에 참고, 안식일을 일료일노 변한 것. 364년 7월에 나오데게아 총회에서 선언함, 천주교 대요리 문답 제2편 81-83페이지 참고, 개신교에서도 1554년 일료일을 안식일노 변함. 넷재 게명이 인침 밧는 것시다."고 적은 것을 보면, 잠시나마 참예수교회의 안식일준수 주장에 공감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밖에도 '혼인에 관계한 일,' '1955년에 전도한 사람들,' '교회 명칭을 명시함,' '성경연구회 참가자 명단,' '별세자 명단,' 수많은 교회 주소를 각 도별로 적어놓고 있다.

2)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

김은석 목사는 일 년 365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장소와 시간에 매이지 않고 성경을 읽었다. 자신의 교회와 집에서는 물론이고,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의 집에서도 읽었고, 여행 중에 버스와 기차 안에서 읽었으며, 식사 중에 대중식당에서도 읽었고, 역전에서도 읽었으며, 병석에서도 그날 분량을 반드시 읽었다. 다만 1954, 56, 57년 주일에는 주중에 읽던 책을 계속 읽지 않고 욥기를 읽었다.

김은석 목사는 매 장마다 언제 어디서 어디를 읽었는지를 메모해 놓았다. 여기서는 창세기 한 곳만을 살펴보려고 한다.

김은석 목사는 창세기를 다 읽고 나서 빈 공간에 "'하나님'이란 말씀이 총 209회 있다"고 적었다. 그는 창세기에 실린 '하나님'이란 단어에 일일이 체크를 해놓고 그 사용빈도수를 체크했던 것이다. 그는 또 "1954년 1월 17일 주일에 평택(?) 역전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봉독한

창세기를 다 봉독하였다. 봉독한 장소는 역전광장이었다."고 적고 있다. 또 그 옆에는 "출애굽서을 봉독하기 시작함."이라고 적었다. 참고로 김은석 목사는 그 해에 신구약성경 전체를 9월 26일 새벽 3시경에, 전남 광주 사동 다리 밑 자신의 누이 금인의 집에서, 269일 만에 완독을 마쳤다.

김은석 목사의 창세기 통독을 자세히 살펴보면, 1955년, 56년, 57년에 각각 읽고 있는데, 55년에는 1월과 11-12월까지 읽고 있고, 56년과 57년에는 각각 1월에 읽고 있다. 55년에는 매일 아침 한 장씩을, 56년에는 힘닿는 대로 많이, 57년에는 하루 세장씩을 읽고 있다. 1955년 1월의 경우를 보면, 논산 충곡리 교회에서, 부여 합송리 교회에서, 광주 광산동 80번지 집회소 등지에서 주일을 뺀 매일 2장씩을 읽고 있다. 1955년 11월의 경우를 보면, 1955년 11월 2일(수) 시작하여 하루 한 장씩 읽은 후 12월 28일(수)에 끝을 내고 있다. 11월 첫 주에는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손불면 궁산리, 다시 석성리의 교회들을 돌면서 한 장씩 읽었고, 둘째 주에는 광주 김재순 목사 댁, 대전 자택, 충북 부강교회, 문암리 교회, 충주읍 제일 감리교회에서 각각 한 장씩 읽었으며, 셋째 주 주일에는 충주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어서, 감리교회와 성결교회에서 주일을 보내면서 창세기 11장과 12장을 각각 읽었고, 충주시 성남동과 호암리 도장골 성도의 집에서, 대중식당에서 조식 중에, 충주시 앙성면 능곡리와 도장골 성도의 집에서 각각 한 장씩 읽었다. 넷째 주에는 충주 충인동과 소태면 복탄리의 성도의 집과 대전 자택에서, 청주시 영운동 성도의 집과 충주로 가는 길에서 각각 한 장씩 읽고 있고, 다섯째 주에는 충주시 동령면 조동리 교회 강단 뒤에서 읽고 있다.

김은석 목사가 남긴 성경낙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떠돌이 전도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를 존경하였다. 1955년 12월 16일(금) 아침은 전남 함평읍 함평면 석성리 신생동 교회당에서 창세기 40장을 읽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적고 있다. "금일 아침은 크게 추웠음(今朝는 大寒이 되엿슴). 금일 나는 대전을 향거(向去)할 것이다. 간다고만 하면 섭섭해 하니 답답함." 그는 또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가좌교회를 자주 들렀는데, 1955년

12월 27일 아침에 이 가좌교회에서 창세기 49장을 봉독한 후에 이렇게 적고 있다. "이곳은 전도희 자매님이 계심. 핍박이 심한 개척이다." 환난당하는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처자가 있는 집에는 오다가다 혹은 병들어 오갈 곳이 없을 때만 잠시 들렀다. 김은석 목사는 수원에 계신 모친을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뵈었고, 자신의 부인의 이름에는 항상 '씨'를 붙여 존대하였다.

4. 예수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떠돌이 예언자적 삶의 추종자 김은석 목사

1) 김은석 목사의 하나님과의 관계

김은석 목사는 '하나님'이란 단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창세기에 실린 '하나님'이란 단어에 일일이 체크를 해놓고 그 사용빈도수를 209회로 체크했던 그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란 단어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사용빈도수를 112회로 체크하였고,[668] 총 1134절로 되어 있음을 적고 있다. 이는 그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은석 목사는 등불과 관련된 생각이 많았다. 등불은 말씀(계시)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상징할 수 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燈天恒常(등천항상)", 즉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을 밝힘'이라 적고 있고, 헌금관련 성구를 적은 메모지 옆에 열왕기하 8장 19절을 근거하여 "恒常一燈(항상일등) 주심," 즉 '항상 한 등불을 주심'이라고 적고 있다. 또 출애굽기 29장 39절에서는 "朝夕(조석)으로 獻燈(헌등)," 즉 '아침저녁으로 등불을 밝힘'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그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얼마나 희구(希求)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에는 한 가지 특이한 원칙이 있다. 구약과

668) 성경 66권 전체에 쓰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란 단어에 동그라미 마크를 해놓았다.

신약을 함께 읽을 때에는 구약의 책은 장(章)의 순서대로 읽고, 신약의 책은 장(章)의 역순으로 끝장에서 시작하여 첫 장을 향해서 읽곤 하였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을 때에는 언제나 이 원칙을 취하고 있다.

김은석 목사는 가정보다는 교회와 복음전도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예를 들어, 그는 출애굽기를 통독했던 1955년 1-2월 중에서 대전 자택에 머문 날은 단 하룻밤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광주 집회소(김재순)에 있다가 대전 선화동교회로 바로 갔고, 다시 경북 금능군(김천시) 대보교회를[669] 거쳐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수리교회(장천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6일을 머문 후에 대전의 집에 와서는 단 하루 밤만 지내고 다시 논산 충곡교회(안영천)로 옮겨 가서 5일 이상을 그곳에서 머물다가 전남 영광으로 떠나 그곳에서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다. 1954년 2월 2일에도 해남군에서 영산포행 차를 기다리는 중에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고, 1956년 1월 19일에는 목포에서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있다. 출애굽기 통독을 마친 54, 55, 56, 57년의 시점이 모두 1-2월경이고, 57년만 부강교회이고, 나머지 세 번은 전남의 끝자락이어서 김은석 목사는 가정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전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분으로 여겨진다. 또 이런 남편과 아버지를 이해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김완례 사모와 명순, 성철 자녀들의 희생은 김은석 목사에 못지않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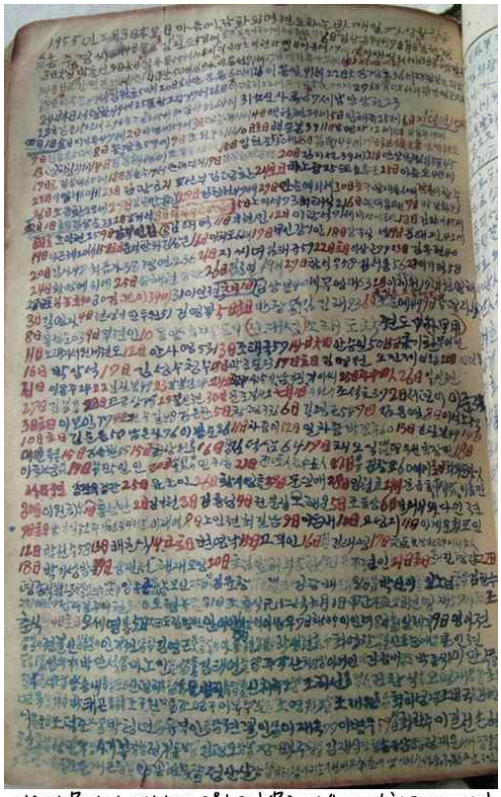
김은석 목사는 일 년이면 대부분의 날들을 전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순방하는데 할애하였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그토록 많았고, 집에도 잘 가지 못했을까? 교통은 물론이고 생활형편이 심히 어려웠던 당시에 타지에서 옷가지들의 세탁은 어떻게 했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다녔을까? 이런 몇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가 성경에 남긴 메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김은석 목사의 이동수단은 버스, 기차, 배 그리고 도보였고, 이렇게 자주 이동했던 것은 집회와 강의와 전도 때문이었다. 숙식은 교회주택이나 성도의 집에서 해결하였고, 세탁은 형편에 따라서 손수 하거나

669) 장성우 목사의 부인 김순옥 사모의 모친 김묘암씨가 설립.

맡겨서 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김은석 목사의 전도활동



김은석 목사가 1955년 3월 3일(목) 마음에 감화되어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나서 실천에 옮긴 날짜와 장소와 대상자의 성별, 이름, 나이를 적은 성경 속 메모지.

김은석 목사의 교회 순방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집회를 포함한 전도활동과 성경강의였을 것이다. 그의 메모는 주로 성경을 어느 장소 누구의 집에서 몇 장까지를 읽었는가에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교회에 왜 갔었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모친방문, 병석 등 특별한 경우들을 빼놓고서는 자세히 적어놓지 않았다. 그러나 "간다고만 하면 섭섭해 하니 답답함"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교회나 성도들이 그의 설교나 강의를 더 많이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서는 항상 크고 작은 집회들이 열렸을 것으로 보인다. 최용호 목사의 박정자 사모는 처녀 때 이 일의 목격자로서 김은석 목사가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교회에 도착하면 그날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씩 밤낮없이 집회가 지속되었고, 매번의 집회마다 시간제한 없이 몇 시간씩 사경회가 지속되었다고 말한다. 실로 그는 존경받는 목사였던 것이다.

김은석 목사가 전도하는 날은 365일 매일이었다. "1955년 3월 3일 목요일 마음에 감화되어 전도하는바 매일 일인씩 할 작정"이라고 적고

이어서 한 페이지 촘촘하게 전도한 일자와 장소와 대상자의 성별, 이름, 나이를 적고 있다. 그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였는가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가 남긴 성경의 한 페이지, 모세오경이 끝나는 신명기와 여호수아 사이의 빈 공간에 3월 3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매일 일인 이상씩 전도하였다. 일일 단위로 전도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빼곡히 적고 있다. 그는 심지어 주일에도 전도를 빼놓지 않았다. 한번 마음에 결정한 것을 실천에 옮기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고 마는 김은석 목사의 의지력과 실천력은 가히 놀랄만한 것이었다. 10월 26일자에 더 이상 글씨를 쓸 공간이 없어서 아주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고 있다. "26일부터 29일까지는 우연이 耳痛症(이통증)이 생기여서 外出不能(외출불능)으로 젼도 못함." 병이 들어 외출을 하지 못할 경우가 아니면, 비록 그날이 주일이든, 생일날이든, 추석 같은 무슨 특별한 날일지라도 전도를 빼놓지 않았던 김은석 목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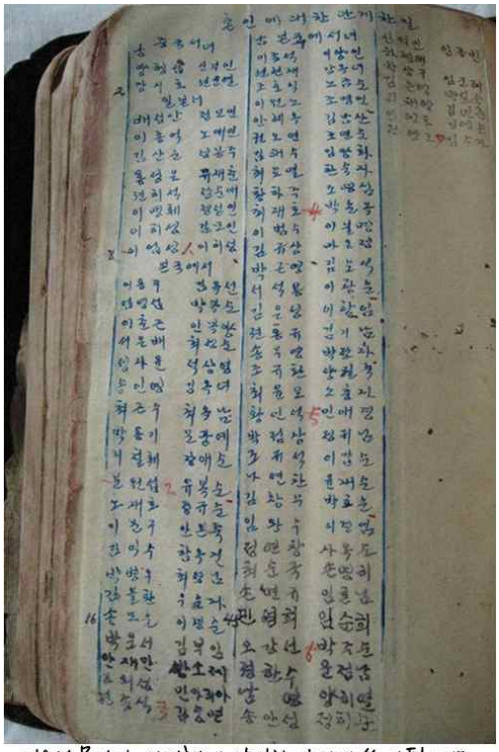
김은석 목사의 전도대상은 남녀노소 군인 경찰 교사부인 등, 구분이 전혀 없었다. 4월 17일 주일날에는 "校先妻(학교 선생의 처) 一人게 젼도"라고 적기도 하였다. 10월 22일 날에는 "목포 평화하숙 주인에게"라고 적고 있다.

김은석 목사의 전도장소는 부강, 대전, 연산, 소태, 충주, 서울, 강진, 상월, 목포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이었다. 김은석 목사는 이동이 잦았기 때문에 성경통독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와 기차를 이용하여 이동 중일 때에도 전도하였고, 출발지와 도착지에서도 전도하였다. 전도를 하지 못한 날은 "불젼인" 혹은 "젼불인"이라고 적고 있는데, 그 숫자가 일년을 통틀어 몇 번 되지 않는다. 특히 8월 20일자에서는 "주님 앞에 죄송함. 금일은 불젼인"이라고 적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고 한 사도 바울의 전도열정에 못지않은 김은석 목사의 열정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토록 김은석 목사는 그의 짧은 일생을 전도 집회와 성경강의를 위해서 헌신하였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입양한 남매가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이 있었지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떠돌이 전도인의 삶을 그대로 추종하였던 것이다. 분명 그는 예수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떠돌이 예언자의 삶을 추종하였던 것이다.

3) 김은석 목사의 인간관계



김은석 목사가 성경책에 삽입한 갈지에 쓴 자필 메모. 주례자로서 혼인에 관계한 총 70쌍 (중국에서 2쌍, 일본에서 8쌍, 본국에서 60쌍)의 신랑신부의 이름이 적혀있다.

김은석 목사의 성공적인 사역의 배후에는 인간관계가 있다.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은 공과(功過)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좋았을 경우에는 과(過)보다는 공(功)이 앞세워지게 된다. 뛰어난 하나님의 일군들에게도 크고 작은 실수가 없지 않다. 이 점은 김은석 목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대에까지 존경을 받는 것은 공(功)이 과(過)보다 크고 인간관계가 좋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은석 목사의 좋은 인간관계를 말해주는 증거들은 많다. 먼저, 그가 관계한 혼인의 일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2쌍, 일본에서 8쌍, 본국에서 60쌍, 총 70쌍이나 된다. 이들 중에는 지철희 목사(벧엘교회에서 소천), 문원섭 목사(유성교회에서 은퇴), 김태수 목사(미국), 최요열 목사(최요한 목사의 동생으로서 조동호 목사의 소년시절 교회 담임목사), 김규상 목사, 박점상 목사, 최순국 목사(미국 시카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61세의 짧은 일생을 마친

김은석 목사로서 70쌍 이상의 혼인에 관계하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는가를 말해준다.

김은석 목사가 1960년에 연하장을 보낸 곳은 개인 38명, 교회 31곳이었다. 당시는 형편이 곤궁한 때였기 때문에 꼭 받아야할 사람들에게만 연하장을 보냈다. 그런 면에서 개인 38명과 교회 31곳은 결코 작지 아니한 숫자이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과 친분을 쌓고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또 양녀 김명순의 결혼통첩을 개인 37명 교회 25곳에 보내고 있다. 연하장을 보낸 곳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이름들도 꽤 발견되었다. 이뿐 아니라, 김은석 목사는 별세자들의 명단까지 적어두었는데, 여기에는 정찬성 목사(1957년 4월 25일), 김재순 목사(1958년 2월 26일), 강순명 목사(1959년 3월 12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이신 목사 부친(1954년 6월 16일)과 이종만 목사의 모친(1957년 8월 14일) 별세 일자까지 적어놓고 있다. 이것은 동료의 기일까지 챙기는 그의 인간적인 면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어진다. 이런 점 때문에 그의 전도사역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고 동역자들이 늘 곁에 있었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위해서 분투하였다. 그의 이런 모습은 그의 다음의 글에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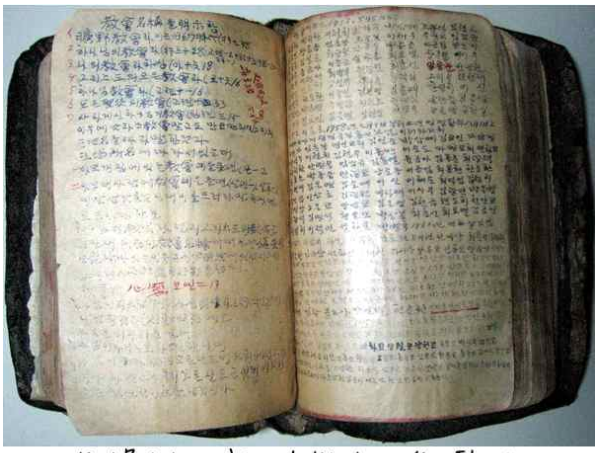
> 1956년 1월 19일 아침 목포시 죽교동 39번지 진성구 장로 댁에서 출애굽기 37-40장 끝까지 봉독하였다. 그런대 이번 또한 출애굽 성경을 봉독하는 중 더욱 깨달은 것은 출애굽이 문제인 동시에 애급에서 나와서 장막 치는 법과 장막 위에서 구름이 덮여서 떠오르고 덮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더욱 깨달은 점이다. 지금 교회들도 다만 한 가지 믿음만으로도 아니요, 사랑만으로도 아니요, 믿음으로써 구체적 문제를 가르치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7절에 나타난 말씀을 아울러 생각할 것이다. 진실로 이런 것을 누구보다 주님 사명을 받아진 교역자가 분명히 알고 가르치면서 행하여야할 것임이니라[670].

베드로후서 1장 4-7절의 내용은 이렇다. "

670)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7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4) 김은석 목사의 성경강의 활동



김은석 목사가 성경책에 삽입한 간지에 쓴 자필 메모.
'교회 명칭을 명시함,' '영양지송신 1958년 5월 5일 발,' '1958년 7월 10일부터 소년성경학교 8월 1일로 9월 10일까지 성경공부 통신 보냄' 및 '1960년 연하장 보냄'이란 제목과 수신자들의 성명이 적혀 있다.

1955년 5월 중에 있었던 메모를 보면, 그가 진행시켰을 법한 여러 일들, 곧 집회, 성경강의, 전도 가운데 한 가지인 성경강의를 확인할 수 있다. 김은석 목사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교회당에서 열고 있던 일백일 성경공부의 과정을 메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8장부터 37장 끝에 적힌 메모를 살펴보면, 1955년 5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남녀 16-18명이 모여 출애굽기를 공부하였다. 그리고 27일 금요일에는 동리에 나가서 축호전도를 하였다. 따라서 성경통독메모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 예를 들면, 김재순, 이신, 이학재, 전도희, 주명삼, 고광석, 권영수, 전도희 등은 김은석 목사와 만나서 신앙체험을 나눴거나 공부에 집중했던 이들로 보인다.

김은석 목사는 1958년 5월 5일에 집중강의 일정을 학생들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이 통보를 받은 이들 가운데는 지철희(벧엘교회), 김교인(부강교회 장로), 임춘봉(한국성서신학교 교수, 교가작사자), 김용순(신탄진교회), 설하운, 최요열(조동호 목사의 소년시절 담임목사), 장주열, 최춘선(흔히 맨발의 전도자로 불리는 목사로 별세 전 30년간 맨발로

거리전도를 하였고 고아원 운영 등 많은 사회사업도 하였으며,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소천), 이종만(인천고아원), 김명석, 이신(미국 밴더빌트대 신학박사), 김정만, 김태수, 김동렬, 강순명(광주 천혜경로원) 등이었으며, 총 65명이었다. 또 1958년 7월 10일부터 소년성경학이 개설된다는 것과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성경공부가 있다는 통신을 총 54명과 6곳의 교회에 보내고 있다.

김은석 목사의 강의 내용 속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된 침례와 매주 주의만찬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교회명칭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있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의 간지에 교회의 명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겨놓고 있다.

교회명칭을 명시함

1. 광야교회라. 이는 구약시대(행 7:38)
2. 하나님의 교회라(행 20:28, 고전 1:2, 갈1:13, 고후 1:1)
3.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마 16:18)
4.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롬 16:16,
5. 하나님 교회라(고전 11:16)
6. 모든 성도의 교회(고전 14:33)
7.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딤전 3:15)

이후에 낫타난 교회말고도 만코만치만 이외는 지명을 따라 말한 것과 또 장소명에 따라서 있는대

一 아모개집에 있는 교회 예를 들면(몬 1:2)

二 아모대 사람의 교회 예를 들면(살전 1:1, 살후 1:1)에 말씀 갓튼 것인대 이를 드러라 말하자면 모도가 다 한분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것인대 지금 이 교회명칭에 대하야 신중이 생각할 바 잇는 이유는 지금 현세에 잇서서 인위적이며 인본주의의 행동을 함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갑주시고 사신 것이라고 행 20:28에 말삼되엿고 고전 14:33에도 하나님은 어지로운 일에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한 일에 하나님이시라 하며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그러하시다 하엿스니 우리 모든 신도는 잇태에 교회를 좀 잘 신중이 생각할 것시다.[671]

김은석 목사는 동일한 페이지의 공간에 두 단어를 각각 삽입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단어는 "心裂(심렬) 요엘 2:13"이고, 다른 단어는 "하

671)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55.

나님 會堂(회당) 시 74:8)"이다.

(욜 2: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시 74:8)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5.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본받은 김은석 목사

1)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

김은석 목사는 성경말씀 그대로 추호(秋毫)도 가감(加減) 없이 그대로 실천하였다. 특히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소개한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와 제자들의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추종하였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그림자와 모형으로 삼고 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는 옛 언약 백성의 지상 이스라엘 나라 건립과 지상 가나안땅의 정복에 관한 말씀이다. 반면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새 언약 백성의 그리스도의 나라 건립과 하늘 가나안땅의 침노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들 책들의 특징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담고 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는 궁극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를 펼치고 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를 펼치고 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침례의 그림자와 모형)를 건넌 옛 언약 백성은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약속의 땅(지상 가나안땅)을 향하여 광야순례를 펼치고 있다. 반면에 세속을 버리고 침례를 받은 새 언약 백성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약속의 땅(하늘 가나안땅)을 향하여 교회순례를 펼치고 있다.

그 순례지가 광야이든 교회이든, 순례에는 필연적으로 배척이 수반된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환란과 핍박이 동반한다. 순례의 길은 모래밭길이요 자갈밭길이다. 순례의 길은 가시밭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 따

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가 배척을 주제로 삼고 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일(눅 4:16-30), 수난 예고(눅 9:44-45),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하신 일(눅 9:52), 그리고 므나 비유를(눅 19:11-27) 통해서 배척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승리의 월계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셨다.

누가는 제자들의 공적활동도 배척으로 시작하고 있다(행 2:14-40).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으며(행 7:59-8:1), 야고보는 순교 당했고(행 12:1-5), 제자들과 바울은 자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았다(행 5:18; 12:5; 14:19; 16:22-24; 23:35). 그러나 이러한 배척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날로 확장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여행을 주제로 삼고 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선교여행을 기록하고 있고(눅 9:51-19:44), 사도행전은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바울의 선교여행을 기록하고 있다(행 13-28장). 특히 누가는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이 유럽의 교회들을 순방한 후에 오순절에 맞추어서 서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행 19:21-21:17). 예루살렘은 순례자가 목적하고 걷는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한다. 비록 그곳에 갇힘과 매 맞음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가야 한다.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음을 누가는 리얼하게 설명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의 심정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가졌던 심정과 똑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의 아픔과 고난을 읽을 수 있다.

>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 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행 20:22-24).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도록 말렸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지 말도록 말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말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행 21:13)고 단호하게 평안과 안일의 유혹을 뿌리쳐 버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국 잡혀서 예수님처럼 다섯 번의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사용된 '성령'이란 용어의 사용 빈도수를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영'(Spirit)이란 단어가 마태복음에 12번, 마가복음에 19번, 요한복음에 17번 쓰이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는 27번, 사도행전에는 28번 쓰이고 있고, '성령'(Holy Spirit)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요한복음에 4번 쓰이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는 11번, 사도행전에는 41번이 쓰이고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full of the Holy Spirit)이란 단어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주요 인물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행동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이 일하고 계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성령 충만함과 사도들(교회)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다.[672]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기도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약성경에 '기도하다'라는 동사와 '기도'라는 명사가 합쳐서 90회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47회가 소개되고 있다. 전체의 52%를 상회하는 많은 숫자이다.

누가는 마가나 마태가 보도하지 아니하는 부분인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으며(눅 3:21-22), '기도하실 때'에 변화산의 체험을 하셨다(9:28-29)고 기록하고 있다. 또 누가는 예수님께서

672) 김득중, 『누가의 신학』(컨콜디아사, 1991): 287-290.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공생애 전에 금식기도(4:1), 병 고치신 후 한적한 곳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5:16),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철야기도(6:12), 제자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전 홀로 기도(9:18),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 기도(11:1),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22:32), 겟세마네기도(22:41-46), 십자가상에서 박해자를 위한 기도(23:34), 그리고 임종 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23:46)를 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간청의 기도(11:5-13), 끈질긴 기도(18:1-8), 그리고 겸손한 기도(18:9-14)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다.[673]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생활에 관해서도 누가는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시간을 정해서 하루 세 번씩 기도하였다(행 2:15; 3:1; 10:3,9,30; 마 27:45-46; 막 15:25, 33-34; 눅 23:44). 기도장소는 주로 성전과 집에서 행하였다(행 2:1,46; 3:11; 5:12,21,42). 그들도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다. 맛디아를 뽑을 때(1:24), 성령을 대망할 때(2:1이하), 무시로 생활 속에서(2:42; 10:3,9), 병자를 고치기 전에(3:1), 감사의 기도(4:23이하), 지도자를 뽑아 안수할 때(6:6), 스데반의 박해자를 위한 기도(7:60), 성령의 외적 증거를 위해서(8:15; 9:17), 중보기도(12:5),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13:3), 옥중에서(16:25), 작별기도(20:36), 그리고 축사(27:35) 등의 기도를 하였다.

누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확실한 동질성은 쉼 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었다. 이 두 가지에 추가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배척당함과 천로역정(天路歷程)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자주 배척을 당한다. 그러나 배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성에로의 순례를 멈추지 않는다. 배척을 극복하고 순례를 성공리에 마치는 힘은 쉼 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다.

성령 충만은 기도와 함께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강조한 핵심 주제들에 속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의 개입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

673) 앞의 책: 264-287.

에도 연속된다는 것이 누가의 역사이해였다.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힘을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보았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갖게 된 힘은 구름기둥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인들의 간절함에서 비롯되었다. 누가는 인류에게 평강의 길을 열었던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모두 성령 충만했던 부모들의 기도응답으로 태어난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이미 성령 충만한 모친의 태중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모태 때부터 성령 충만했었다는 것을 보았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성령 충만한 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져왔고,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된다는 것이 누가의 역사이해였다. 인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할 자들은 이렇게 기도와 성령 충만함에서 비롯되었다.

사도행전이 제시한 과제는 이렇다. 바울이 예수님을 좇아 그분이 가신 가시밭길을 걸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좇아 밟았던 것처럼, 스데반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순례자의 길을 어렵다고 멈추지 말고, 힘들다고 멈추지 말고, 고통스럽다고 멈추지 말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기까지,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완주하자는 것이다.

2)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실천한 김은석 목사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적될 만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은석 목사였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와 핵심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김은석 목사가 바로 그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김은석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대변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이 같은 분을 보았거나 만나본 적이 있는가? 필자를 포함해서 십중팔구 그 대답은 "없어요. 못 봤어요."일 것이다.

김은석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였고, 쉼 없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던 성령 충만한 복음의 일꾼이었다. 따라서 김은석 목사는 기도 중에 혹은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하심을 자주 받았다. 그 사례들을 몇 개 열거해 보고자 한다.

1954년 4월 15일(목) 아침에는 부강 남산 절지 엇던(절터였던) 곳 부속 건물 집안에서 사무엘하 19장을 봉독함. 부강 남산 절은 교회당 것던 때 같이 지었던 것인데 내가 성신 감화되어 기도드리기를 예배당 우에(위해) 절 업해(없애?) 주십소서 하였더니 과연 허러(헐어) 바침이다.[674]

1956년 3월 25일(일) 아침에 마음에 감화됨에 따라 사도행전 1:1-2:12까지를 부강교회당 골방에서 봉독. 주일 아침에 시편 52-62장까지 봉독함. 부강교회당 골방에서.[675]

1955년 8월 25일 새벽 안의 교회 강단에서 잠언 22:22-24:21까지 봉독. 박태수 목(사) 요한복음 5:9-24까지 봉독함. 안의 이성하 씨 댁에서 아침에 잠언 24:22-26:27까지 봉독함. 오전에 안의면 후산(後山) 상(上) 제월당이라는 데서 잠언 26:1-31:31절까지 봉독함. 나의 주님은 나를 이와 같이 한적한 곳으로 부르시고 이 잠언의 오묘한 교훈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정에 전도서 1:1-8:17까지 봉독하면서 참 심히 깨닫는 것은 인생은 만사(萬事) 부지(不知)의 성신님에게 ?(판독 불가). 진실로 이상하도다. 지금 나는 전남 해남군 옥천면 화당교회라는 곳에 가서 지내게 된 때인데 이 경남에 와서 함양군 안의면 상산 제월당이라는 정각에서 잠언과 전도서를 봉독하니 무궁한 인생 무지 무각을 보게 됨이라. 내가 이번 이곳을 온 것은 전연 내 마음이 한 일이 아닌데 나의 주님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나는 아지 못한다. 내가 금일 이곳을 떠나 통영으로 가든지 대전으로 가던지 하려하였는데 김준철 집사 형제가 나를 보고자 한다 함으로 못 떠났는데 이성하 선생님은 대구를 가시었다. 내가 내일은 떠나겠는데 지금 마음은 통영으로 갈 것으로 되어 있음. 통영을 가려는 이유는 김명석 형제가 있는 곳 도산면 교회에서 지금 농촌에 좀 한가한 때니 집회를 좀 하고 가려는 마음인데 이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인 줄 알고 가려함이다.[676]

674)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17.
675)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79.
676)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61.

김은석 목사는 등불과 관련된 생각이 많았다. 등불은 말씀(계시)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상징할 수 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燈天恒常(등천항상)", 즉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을 밝힘'이라 적고 있고, 헌금관련 성구를 적은 메모지 옆에 열왕기하 8장 19절을 근거하여 "恒常一燈(항상일등) 주심," 즉 '항상 한 등불을 주심'이라고 적고 있다. 또 출애굽기 29장 39절에서는 "朝夕(조석)으로 獻燈(헌등)," 즉 '아침저녁으로 등불을 밝힘'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그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얼마나 희구(希求)하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1956년 7월 18일(수) 아침은 충북 청원군 강서면 문암리 교회당 간판 옆에서 사도행전 16:1-19:41까지 봉독함. 아침 식전과 식후도 읽다가 나가서 기도드리다가 사도행전 20장 1절로 23장 26절까지 수리교회당에서.[677]

1956년 12월 13일 새벽 2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 노의수 형제 객실에서 김교인 장로님과 임남규 형제와 동숙하던 중, 起坐禱(일어나 앉아 기도)하다가 나의 사명인 주님이 맥기신 일을 하는바 앞흐로 서울성경신학교로 간다고 한말을 대답한 후 또한 들이난(드러난) 일리(일이) 있슴으로 그만 둘 것을 다시 思에(생각하여) 작뎡(작정)하고 김재순 목사게 편지하고서 지금 이 신생동서 1월시까지 공부한다고 광고하야 사람들리 오난 일과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엇지할가 하다가 성경 빌서(빌립보서)를 보난 중 1장 27-2:1-2, 14을 생각하는 중에서 지금 갓치(같이) 하는 일은 마음을 갖치 하는 일리 되지 못하고 원망과 시기와 분쟁이 표현하는 것을 보아 아무리 생각하여보아도 나는 갓치하지 못하고 따로 떠러저서 내게 맥기신 주님 명령을 실행하여야 갯다는 생각이다. 내가 기도드리다가 성경 보면서 생각하야 이 일을 기록하는 시간은 3시 20분이엿다. 신생동 노의수 집사댁 객실에서 記(기록)함. 김은석 止(?끝).[678]

1957년 9월 7일(토, 추석명절) 아침에 전남 무안군 을구 하의면 하태에서 전도하시는 윤 임혜숙 자매 방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5장까지 봉독함. 아침에 전남 무안군 을구 하으면 하태 윤양춘씨 방에 계시면서 전도하시

677)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90.
678)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94.

는 임혜숙 자매 방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 데살로니가후서 3장까지 봉독함. 본 빌레몬서, 히브리서 4장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하태뒷산에를 나가서 수 시간을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만해천산을 바라보는바 하나님에 능력을 자랑하는 듯함을 보는 중 한 배위가 이상하게 솟아남을 보았습니다. 그 바위 이름은 지실이라고 한답니다. 산에서 내려와 히브리서 5-7:7까지 봉독함. 산에서 본 옥영한 지실이란 바위를 보았다. 저녁에 노루먹이 심방하고 전도한 후 히브리서 7:8-10:23까지 봉독함.[679]

1955년 11월 말 김은석 목사를 사로잡은 것은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서"란 말이었다. 김은석 목사는 자신을 비롯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동료들을 일컬어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1955년 11월 28일(월)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서 1955년 11월 28일 월요일은 충북 충주군 동양면 조동교회를 도착하는데, 강신규 자매님과 정옥순 자매님은 귀녀(貴女) 신실(信實)이를 업고 조동에 도착한 후에 교회당에서 기도드린 후에 주거소(住居所) 방에 입(入)하야 차(此) 에베소서를 1장으로 5장까지 봉독하는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는 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의 주님의 은혜인데 이 에베소서는 각 장을 분해해 보면, 1장은 소망론, 2장은 중생통일론, 3장은 입신(入神)입천(入天)론, 4장은 하나를 이루는 론, 5장은 오묘한 도덕론, 6장은 마귀대적 훈계론이다. 이 에베소는 묵 2장 1절에[680] 말씀한대로 사랑 바렸다(버렸다)고 하신 그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6장에는 마귀를 극대적할 수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심이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하여 씨름하려하는데 우리는 경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면 군인이다. 전쟁군인은 무장을 허술이 못함. 참 성경의 말씀은 오묘한 것이다. 성경전체가 다 생명에 말씀으로 된 것이며 오묘한 것인바 에베소서 하나만도 넉넉히 영생론을 배우고 나갈 수 있다. 1955년 11월 28일 저녁에 조동교회 강신규 자매님 방에서 이상을 생각하며 쓴 것이다.[681]

1955년 11월 30일(수) 아침에 조동교회당 강단 뒤에서 창세기 27장을 봉독함. 신숙길(申淑吉) 형제 같이 있었다. 주 예수님 사랑 안에서 1955

679)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219-220.

680)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681)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68-169.

> 년 11월 30일 오후에 이 책을 봉독하는바 우리가 주님을 봉사하는 교회에 일군이라 하지만은 이 빌립보서에 바울 사도의 말씀함을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평안한 것이며, 주님 교회에서 참된 봉사자라고 하기에 어렵고 되레 죄송한 부족한 박운(薄雲?)과 같다 아니 할 수 없음이라. 강신규 자매와 같이 말함. 조동교회 주거댁에서.[682]

비록 여기에 열거한 사례는 몇 개 되지 않지만, 사실은 그가 남긴 성경통독메모 전체가 김은석 목사의 순례와 기도와 성경통독과 집회와 성령 충만한 삶을 증언한다. 그러나 그 같은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이요, 희생이요, 십자가요, 아림이다. 그러나 김은석 목사는 그 같은 삶을 잘 참아냈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봉사하는 교회에 일군이라 하지만은 이 빌립보서에 바울 사도의 말씀함을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평안한 것이며, 주님 교회에서 참된 봉사자라고 하기에 어렵고 되레 죄송한 부족한 박운(薄雲?)과 같다 아니 할 수 없음이라."고 평가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수고와 겸손이 우리에게 10퍼센트나 20퍼센트만 있거나 있었더라면,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했을까를 그려보자 절로 숙연(肅然)해진다.

6. 김은석 목사의 인생추수

1) 김은석 목사와 세상 즐거움

>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34-39).

682)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68-169.

위의 마태복음 10장 34-39절의 말씀은 인생의 추수에 관한 말씀이다. 가을걷이에서 알곡을 수확하듯이, 인생추수에서는 '자기 목숨'을 수확한다.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다. 참 목숨, 영원한 목숨을 수확한다. 이 목숨은 값비싼 진주나 보물처럼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므로,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가치를 팔아야 한다(마 13장). 여기서 다른 모든 가치는 자기 육신과 일가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말한다. 이런 것들은 현세의 것이요, 참 것들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현세는 내세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러므로 그림자와 모형은 참과 실체를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한다. 영원한 목숨을 수확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목숨을 희생해야 한다. 김은석 목사는 참 자기 목숨을 수확하기 위해서 일생을 하나님의 농장에서 헌신한 농부였다.

김은석 목사는 세상 즐거움을 완전히 끊어버린 사람이었다. 성경에 남긴 메모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는 그의 행적은 1953년부터 1958년까지 무려 6년이나 된다. 일 년 365일 거의 매일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다. 그의 일상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었고 교회순방을 위해서 기차타고, 버스타고, 배타고 이동하는 것이었다. 낮이고 밤이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다. 교회당에서, 강단 앞에서, 강단 옆에서, 강단 뒤에서, 교회의 골방에서, 목회자의 방에서, 자택의 방에서, 다락방에서, 심방한 성도의 방에서, 식사하던 식당에서, 기차에서, 버스에서, 배에서, 정류장에서, 터미널에서, 누구와 있든지, 누구와 동행하든지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디로 향하든지 상관없이,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다. 매일 그렇게 읽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읽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반 전에, 조반 후에, 오후에, 늦은 밤에, 새벽에 읽었다.

170센티미터 이상의 훤칠한 키, 가름하고 잘 생긴 얼굴, 수심이 찬듯하면서도 예리한 눈빛, 짧은 머리, 굵은 테 안경, 허름한 옷, 낡은 성경가방, 이것이 50대 중후반의 김은석 목사의 초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 사진을 찍어 남기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니, 실로 그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부귀 다 버리고,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세상 행복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가치만을 귀하게 여기셨다.

김은석 목사는 사생활이 없었다. 일 년이면 거의 대부분을 남의 교회와 남의 집에 머물렀고, 그것조차도 동역자들과 함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다. 그가 어쩌다 자택을 찾는 경우에도 동역자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마 12:50)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김은석 목사도 함께한 주의 일군들이 그의 형제요 자매였다. 김은석 목사는 자기보다 어린 동역자들까지도 자주 '형'(兄)이라 썼고, '형제'라 호칭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김재순, 김명석, 이신, 최요한 등이 있었다. 진성구, 김교인 장로들을 호칭할 때는 항상 '님'를 붙여 썼다. 동역들이 여성인 경우에도 '님'자를 붙여, 박종예 자매님, 이원화 자매님, 전도희 자매님 하는 식으로 깍듯하게 불렀다.

2) 김은석 목사와 세상의 일

김은석 목사에게 세상일은 그다지 중요치 않았다. 그는 양아들 김성철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주기를 바랐으나 평소 세상공부는 필요치 않다며 학교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김성철 목사가 충남상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것은 순전히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김성철의 친부인 김명석(김주일) 전도사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김은석 목사를 일본에 있을 때부터 추종하였으므로 그 역시 처자식들을 돌보지 못하였다. 처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망 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4-39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비교 삼상 2:29)는 말씀이 있다. 김은석 목사는 1955년 2월 25일(금)부터 6월 4일(토)까지 충북 괴산군 소수면 그

리스도의 교회에서 일백일 성경연구집회를 열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을 5월 27일에 강론하였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취해야 할 가족에 관한 태도를 설파하는 김은석 목사의 목소리에 평소보다 더 무게가 실렸으리라고 생각된다.

1954년 4월 첫 주말에 전남 교회(최요한 목사)를 다녀온 김은석 목사는 다음날인 4월 6일 화요일 아침에 사무엘상 9:9-12:25까지를 대전시 선화동 2구 315번지 교회에서 읽었는데,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었는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런 중에 특별한 일리 엇슴은 나는 금일부터는 가족을 아주 떠나는 것을 선언." 또 같은 날 부강교회로 옮겨서 저녁에 강단 앞에서 사무엘상 13-14장을 읽고는 "사랑받으며 봉독함"이라고 적고 있다. 다음 날인 7일 수요일에도 아침부터 밤까지 사무엘상을 읽었다. 그리고 10일 토요일 주일예배 참석차 대전에 왔고, 주일인 11일에는 교회를 사임하고 유호성 전도사에게 전임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음날 12일 월요일 아침에 평소 습관대로 성경을 읽고 조반 후에 부강으로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부인 김완례 사모가 병이 났고, 병자를 두고 떠날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졌다. 할 수 없이 그는 13일 화요일까지 남아서 병상을 지키다가 14일 수요일 부강으로 떠나고 있다. 그러나 김완례 사모의 병은 그 주간 내내 완쾌되지 못했고, 김은석 목사는 16일 금요일에 돌아와 병든 사모 곁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 그리고 18일 주일을 지킨 후 19일 월요일에 대전시 은행동 2구 1번지 10통 41반으로 이사하였다. 대전 선화동 교회는 김은석 목사가 서울 북아현동 금화산 언덕에 있었던 집을 팔고, 구호물품의 잉여물자를 알뜰히 모아 팔아서 마련한 땅에 건물을 짓고 시작한 자기 교회였다. 그러나 사임을 했으니 집을 비어줘야 했을 것이고, 사모는 이 갑작스런 결정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을 것이다.

이 사건이 있었던 1954년 4월은 김은석 목사의 심경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이 기간에 그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상당히 고무되고 업(up)된 상태였으며, 성경을 읽는 시간도 아침에 국한되지 않고, 늦은 밤이나 한 밤중까지 계속되곤 하였다. 그러나 1958년까지의 행적을 볼 때, 그가 가족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부흥집회와 성경연구집회에 전념하겠다는 뜻이었지, 가족을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다. 어떻든 그의 출가선언은 가족에게 적지 아니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듯 김은석 목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가족은 물론 재산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희생적인 신앙인이었다.

3) 김은석 목사와 세상 명절

김은석 목사에게 설날과 추석 혹은 생일과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은 그의 인생에 전혀 의미가 없었다. 명절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거나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명절을 맞는 일이 적어도 그의 성경메모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1954년 2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가 설 명절이었는데도 그는 집엘 가지 않고 교회를 예방하는 요무(要務)로 2일(화) 전남 해남군 성전시장에서 대전행 차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영산포행 차를 기다렸고, 기다리는 중에서도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다. 1955년은 1월 23일(일)부터 25일(화)까지가 설날이었는데 그는 22-23일(토-일)에 광주 집회소에 있었고, 24일 월요일 설날에서야 대전 선화동에 도착하여 25일까지 이틀 밤을 묵고, 26일(수)에는 다시 경북 금능군(김천시) 개령면 대광동 2구 대보 그리스도의 교회(장성우 목사의 부인 김순옥 사모의 모친 김묘암씨가 설립)에 갔다가 27일(목)에 수리교회로 올라갔다. 1956년은 2월 11일(토)-13일(월)까지가 설날이었는데, 집에서 가까운 부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 성경을 읽고 있었다. 1957년에는 1월 30일(목)부터 2월 1일(금)까지가 설날이었다. 그는 이때에도 부강교회당 골방에 머물며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었다.

이토록 김은석 목사는 오로지 성경만을 읽고 성경만을 가르쳤다. 그는 성경을 사랑했고, 어디를 가든지 성경만큼은 반드시 지참하고 다녔다. 성경과 함께 먹고, 성경과 함께 자고, 성경과 동행하였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받은 은혜를 "1954년 4월 6일 저녁 11시경 근경에 부강교회 강단 앞에서 사무엘상 13-14장까지 사랑받으며 봉독함."이라고 적고 있다. 그는 일 년 삼백육십오일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으며, 전국의 교회들을 순방하며 집회를 열고 또 날짜를 정하여 사람들을 불러놓고 성경을 가르쳤다. 특히 그는 일 년이

면 몇 차례씩 일백일 또는 석 달 동안씩 집중적으로 성경연구집회를 열었다. 1954년 6월 1일(화)부터 10(목)일까지 대구 동인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10일간 부흥회 겸 성경공부를 인도하였고, 1955년 2월 25일(금)부터 6월 4일(토)까지 소수교회에서 일백일 신학공부를 열었으며, 이 기간에 소수교회에 머물렀고, 1957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3개월짜리 성경연구집회를 부강교회에서 열었으며, 김은석 목사는 이 기간 동안에 부강교회에 체류하였다.

김은석 목사는 기도의 용사였다. 그는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강단 앞과 강단 옆과 강단 뒤에서 읽었던 만큼 기도를 겸했음을 알 수 있다. 교회당을 찾아가 성경을 읽은 것은 기도를 겸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가끔씩 금식 중에 성경을 읽었다. 1955년 3월 16일 수리교회에서, 19일 부강교회에서 금식 중에 성경을 읽고 있다.

김은석 목사의 삶은 하나님사랑, 인간사랑, 특히 인간의 영혼을 사랑한 삶이었다. 따라서 그의 삶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경을 읽었고, 인간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국 각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으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을 추구한 삶이었다. 그의 굵고 짧은 삶은 오늘 우리에게 "춘몽 같은 인생, 무엇을 하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4) 김은석 목사가 끼친 충격파

김은석 목사는 그의 생애 마지막 부분인 16년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쳤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해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초기 교회에 큰 부흥을 만들어낸 것처럼, 1950년대 김은석 목사와 그를 작은 예수로 생각할 만큼 그를 신뢰하고 따랐던 그의 동료들이 해낸 수고와 헌신은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 80여 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세워지게 하는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의 공로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김은석 목사와 일부 추종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할 만큼 성경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히 컸다.

김은석 목사의 주일날 성경통독은 평일의 성경통독과 그 내용이 달랐다. 그는 주중에 읽던 책을 계속 읽지 않고, 다른 책들(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을 읽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책이 욥기서이다. 김은석 목사는 1954, 56, 57년에 주일마다 욥기를 읽고 있다. 이 욥기서 40장의 여백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 1955년 4월 17일 주일 석양 5시후 소수교회 방에서 욥기 38:27-40:11까지 봉독. 금일도 섭섭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은 김명석 형제 부인이 육적 생활 불만으로 나를 원망한다 하며 또 김은성이는 활교회(교회활동)를 못가겠다는 뜻을 말함. 그 안해(아내)가 불만 언(言).[683]

이 기록은 출가(出家)를 선언한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료들이 그들의 가족에게 끼친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가늠케 한다. 자녀들은 물론이고 사모들의 원망과 원성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김은석 목사의 양자인 김성철 목사도 그의 자서전에서 비슷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1954년 4월 김은석 목사의 폭탄선언이 김완례 사모를 충격에 앓아눕게 만든 점 등은 당시의 정황을 충분히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김은석 목사를 추종했던 동료들 가운데는 남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성들도 꽤나 많았다. 이점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에게는 여성 협력자들이 많았다. 이들 가운데는 빌립보교회의 창립멤버인 자주옷감장사 루디아(행 16:14, 40),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수년을 함께 동역하며 바울을 위해서라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천막제조업자 브리스길라(롬 16:3-4),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쓴 유오디아와 순두게(빌 4:2-3),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겐그레아교회의 일군 뵈뵈(롬 16:1-2) 등이 있었다. 외경『바울과 테클라 행전』에 따르면, 아름답고 눈물겨운 전설과 미모를 지닌 테클라(Thecla)도 있었다. 이들 여성 동료들의 사역은 사도 바울의 선교에 큰 동력이었다. 여성 동료들의

683)『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45.

사역이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란 점에 있어서는 김은석 목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김은석 목사가 꽤 많은 여성 동료들의 방에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점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아마 그들은 김은석 목사의 집회와 성경연구회를 돕고, 성경토론에 참여했거나 식사와 세탁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과의 잦은 접촉은 말 많은 사람들에게 루머의 빌미를 제공한다. 김은석 목사의 몸을 아끼지 아니한 헌신과 희생으로 얻은 대가는 값으로 매길 수 없으며, 헤라클레스나 바울처럼 무거운 운명의 짐을 짊어지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해냈음에도 불구하고,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불행하게도 말년에는 악성루머에 휩싸이게 되었다.

김은석 목사가 마태복음 통독을 마친 1956년 6월 22일은 마침 음력으로 5월 14일 곧 김은석 목사의 생일이었다. 이 날에 함께 한 사람들 가운데 '강신규'란 자매의 이름이 기록에 나타났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김은석 목사의 동행자로 등장하고 있다.

드러난 메모에 따르면, '강신규'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5년 8월 16일이다. 이날 김은석 목사는 병원에 입원한 고광석 전도사와 대전시 판암동 애생원(愛生園)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김옥여, 이원노, 김완례 사모와 함께 동행하였다. 강신규씨는 김완례 사모의 올케의 올케 또는 김은영 목사의 외숙모이며, 김은영 목사는 김완례 사모의 조카(올케의 아들)이다. 김완례 사모의 또 다른 질녀내외는 전남 무안군 지도면 대조리 성결교회의 전도자였다(장우원, 김은순). 1954년 5월 2일 주일에도 강신규 자매가 등장한다.

> 1956년 6월 22일 (음력 5월) 14일 이 날은 나의 생일입니다. 부강교회 당에서 본서 마태복음 26장 1절로 28장 20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예배 참석하신 분은 강순임, 전도희, 강신규, 김완례, 김눅기, 최병수 조모님과 같이 예배드리었습니다. 이혜순 자매님은 음식 준비하심.[684]

김은석 목사는 말년에 창병(瘡病)으로 고생하였다. 그 때 그는 창병

684)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87.

의 치료를 위해서 '강신규' 자매의 거처에 머물며 간호를 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악성루머가 퍼졌고, 루머의 사실여부를 밝히고자 하여 모인 50여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김은석 목사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를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은 이 사건을 연민과 동정으로 받아드렸고, 일생을 가시밭길을 걸으며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까지 돌보지 않았던 그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은석 목사 자신에게도 극복하기 힘든 충격이었다.

루머는 진실 여부를 떠나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악성이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악성 루머로 인해서 재판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뒤집어쓰신 죄목은 신성을 모독한다는 것과 민중을 선동한다는 것이었으며,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신성을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런 몇 가지 죄목들을 이유로 십자가형에 처해지셨다. 바울도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들을 소요케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죄목으로 4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였으며, 석방되었다가 4년 후 67년경에 로마의 황제 네로 때에 목 베임을 당하였다.

김은석 목사가 창병(瘡病)에 걸렸을 때 자택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은 정말 아쉬운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창병으로 고생할 때 집에 들어가 김완례 사모의 돌봄을 받지 않고, 강신규 자매에게 간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김은석 목사는 김완례 사모를 편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성경통독메모에서 김완례 사모의 이름 뒤에는 언제나 '씨'자가 붙어 나타난다. 혹시 연상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늘 존대하고 있다.

둘째, 김은석 목사는 김완례 사모와 가족들에게 평생 무거운 짐만 짊어지웠다.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전도 집회와 성경강의로 인해서 한 달에 한 번도 집엘 들어가지 못하였다. 집회와 순방이 많았기 때문이다. 1954년 4월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즉 출가선언, 교회사임, 이사로 인한 김완례 사모와 가족이 받은 충격을 언급하였듯이, 비록 그 후로도 가족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긴 하였지만, 말년에 창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김은석 목사로서는 차마 김완례 사모에게 자신의 병든 몸을 의탁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셋째, 강신규 자매는 김은석 목사의 집회를 돕기 위해서 자주 동행했던 전도희, 김숙명 등 여러 여성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김은석 목사는 성경통독메모에 이들 동행자들의 이름들을 자세히 적고 있다.)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봉사하신 존경하는 김은석 목사의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집으로 모셨던 분일 것이다. 김은석 목사나 강신규 자매 사이에 로맨스를 개입시키는 것은 매우 불경한 일이다. 김은석 목사는 이 때 50대 중후반의 나이였고, 일생동안 부부생활을 멀리하고 살았던 분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에로스의 관계로 보려는 것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석 목사는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으며, 날아드는 루머의 돌 세례를 온몸으로 받았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또 다른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과연 김은석 목사는 자신과 세상과 끝없이 싸우며 괴로운 가시밭길을 걸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상의 모든 고뇌를, 지상의 모든 수고를 그에게 짐 지웠으나, 저 장렬한 최후의 날까지 그는 이 수고를 훌륭하게 참아내었다. 비록 그는 한 알의 밀알로써 썩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맺히고 있다.

7. 김은석 목사의 반천련(伴天連)

예수회 신부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1549년 8월 15일 일본에 입국한지 반세기쯤 지났을 때 일본에 기독교 인구가 5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당시 일본인들은 기독교인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신부들을 반천련(伴天連)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천국까지 동행하는 무리'란 뜻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7년 7월에 반천련들은 20일 이내에 일본을 떠나라는 반천련 추방령을 내렸다. 또 조서를 내려 기독교인들을 엄히

다스리라고 명령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측근 가운데 '다까야마 우꼰'이란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배교하라는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각하께 목숨은 드릴 수 있지만, 저의 신앙은 버릴 수 없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이 끝나기 1년 반 전인 1597년 2월 5일 6명의 예수회 신부들과 일본인 기독교인 20명을 나가사키(長崎)시 니시자카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했다. 이것은 동아시아 최초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었다.

김은석 목사에게도 반천련 곧 천국까지 동행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 수가 많아서 여기에 다 일일이 거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료가 가능한 인물들만 선별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김명석(김성철 목사의 친부), 박점상, 김교인,[685] 신현창, 최춘선,[686] 정찬성,[687] 김상호,[688] 김태수,[689] 김재순,[690] 함태영, 이신, 강순명,[691] 이원노, 김정만, 심영진, 장주열,[692] 최요한, 김동열,[693] 김은영, 고광석, 임남규, 전도희, 등이 있다.

1) 김명석(주일) 목사(1906-?)

김명석 목사의 본명은 김주일이다. 그는 1931년 25살 때 일본에 건너가 부인 구봉림과 함께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가까운 바닷가 '야마구찌겡(山口峴) 아사'라는 동리에서 살았다. 그는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26회 언급되었다. 그가 김은석을 처음 만난 것은 1936년 30살 때인 어느 주일날 아침 일본 산구현(山口峴)교회에서였다. 그날 김은석은 초청강사였다. 이후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고 늘 붙어

685) 1956-57년경에 순복음교회로 이적함.
686) 김포교회 설립, 사회사업가. 별세 전 30여년을 맨발로 거리와 지하철에서 전도. 1951년 6월 김은석, 정찬성과 함께 충주시 동양면 조동(동량)교회 설립.
687) 순복음으로 이적함.
688) 순복음으로 이적함.
689) 부강교회 김교인 장로의 아들.
690) 부강교회 김교인 장로의 아들.
691) 광주 천혜 경로원 설립.
692) 최요한 목사의 큰 동서.
693)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 설립.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였다. 해방 후 경남 밀양에 가까운 예림이란 곳에 자리를 잡았으나 김은석을 추종하였으므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이 무렵 자녀를 갖지 못한 김은석에게 둘째 아들 김성철(1938.5.17-)을 1948년경에 양자로 넘겼다.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고,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교회에서 목회하였다.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1955년 후반기에 경남 통영군 도산면 도선리 1구 그리스도의 교회를, 1957년에는 충북 청주 영운동 교회를 섬겼다.

영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충북 청주시, 1950년대)

2) 박점상 목사/장로(1928.03.23. 음력-2024.1.20)

박점상 목사

박점삼 목사는 1928년 3월 23일(음력)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으며, 1933년 4월 여섯 살 때에 묘산면 관기리에 있는 교회를 어머니를 따라 간 것이 믿음생활의 시작이었다. 어머니가 병에 들었으나 약도 없고 나을 길이 없어 점쟁이를 찾았는데, "당신은 큰 신(神)을 믿어야 병이 낫는다."고 하였다. 하루는 꿈에 외국인이 나타났는데, 윗마을 교회에 찾아가서 보니, 강단 옆 벽에 걸린 예수님이 바로 꿈에 본 그분이었다.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서 8킬로미터나 떨어진 교회를 일 년을 열심히 다녔더니, 일 년 후

알게 모르게 병이 다 나아 버렸다. 한편 아버지가 큰 외삼촌의 보증을 섰다가 집안형편이 심히 어렵게 되었으나 어머니는 맥추헌금을 넉넉히 작정하였다. 그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겁도 없이 헌금을 많이 작정하였다고 비방하였다. 하루는 박점상이 아버지가 만들어준 지개를 지고 어머니를 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싸리버섯을 발견하였는데, 두 번에 나눠서 가져와야할 만큼 양이 많았다. 장날에 내다 팔았더니 작정한 헌금을 내고도 돈이 남았다.

1937년 2월 열 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도(東京都) 아다지(足立區)에 위치한 큰 강 건너 꽤 먼 거리의 일본인 교회를 출석하였는데, 그 교회는 매주일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교회였다. 일본에서는 교파이름을 쓰지 않고 '기리스도노 교오카이'(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통칭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침례와 매주 만찬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 누님 댁으로 이사를 들어갔다. 그런데 주변에 교회도 없고 큰 누님은 믿지 않는 분이라 핍박이 있어 주일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루는 김은석 조사(전도사)가 우연히 찾아와 도쿄에서 아주 먼 거리에 위치한 야마구찌겡(山口峴) 도구야마시(德山) 가스가조(春一町) 8032번지를 소개해 주었다. 그곳으로 이사하여 갔더니, 몇 가구가 함께 사는 교회당이었는데, 마침 두 개의 빈 방이 있어서 그곳에서 정착하였다. 그곳 교인들이 예배당을 따로 짓기로 결정하고 건축을 시작하였을 때, 박점상의 모친은 소다제조회사에 다니며 모운 돈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벽돌을 헌납하였다.

이때부터 김은석 목사와 친분을 맺게 되었다. 이때의 김은석의 이름은 일본말로 간다긴세기 신전 은석이었다. 별명은 합바지(무명 바지) 조사(전도사)였고, 시모노세키(하관), 아사(김주일 거주), 덕산(박점상 거주), 동경지방 등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하였다.

김은석 목사가 유명해지는 한편, 일본은 대동아전쟁 때부터 교회에 대한 간섭을 시작하였고, 목사들을 미국의 스파이로 의심했던 일본당국은 요주의 인물로 김은석을 꼽았다. 김은석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예배 시작 전에 현인신現人神으로 믿는 일본 왕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의식)를 거부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었다. 한번은 교회입구 통로에서 잡으러 온 왜경과 김은석이 어깨를 서로 마주치고 지나친 적도 있었다. 이후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김은석은 박점상 가족과 함께 도쿄에 집을 얻어 이사하였다. 노동을 하면서 한 집에서 방 하나씩 차지하고서 김은석, 박점상 가족, 최창신 전도사와 그녀의 외손녀 히로코(홍자)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

박점상은 김은석이 한국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전을 받고 귀국하면서 헤어지게 되었고, 동경교회를 다니다가 18살에 해방이 되어 김은석의 주소를 들고 서울로 나왔으나 혼잡한 기차에 오르면서 지갑(수첩)을 도난당하여 찾지 못하고 고향 합천으로 갔다가 다시 김은석을 찾아 김제군 망경읍으로 갔다.

박점상은 한국에 나오면서 김은석이 맡겨둔 짐 가운데 무거운 것은 가져오지 못하고 코트와 의류만 챙겨왔다. 책은 왜경이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남지 않았다. 1946년 박점상은 망경읍에서 담임목사의 도움으로 주소는 모르지만 김은석이 서울에서 300만 부흥운동의 부흥사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 편지를 쓰고 받는 이의 주소를 무작정 "서울 김은석 목사님 귀하"라고만 써서 부쳤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몇 날이 못 되어 김은석으로부터 망경읍에서 40여리 떨어진 마채본 집사의 딸 집에서 동짓날 만나자는 답신이 왔다. 그러나 김은석은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하고 대신 다른 사람이 와서 김은석 목사의 소식을 전하였다.

김은석 목사 가족이 서울 북아현동에 있을 때 박점상은 이웃에 방을 얻어 살았다. 김은석이 아직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기 이전인지라 재건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을 탐색하였는데,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음을 깨닫고 1946년 박점상과 함께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였다. 김은석은 비록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이 성령운동에서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지만, 침례와 주의 만찬 등의 교리가 성서적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박점상은 1947년 부강으로 내려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일하며 부강교회 건축에 힘을 쏟았다. 그는 1949년 4월 금강에서 침례를 받자마자, 정찬성 목사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에 세운 외령교회

를[694] 개척하여 섬기다가 신탄진 교회로 옮겨가자, 박점상이 외령교회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고 후에 수룡교회를 개척하였다. 1950년 6·25 동란 때 고향 합천으로 피난하였다가 9·28 수복 후 외령교회로 돌아갔으며, 1951년 1·4 후퇴 때 다시 합천으로 피난하였으나 살길이 막막하여 합천 세무서에서 8월까지 일하다가 김은석 목사가 이동 중에 징집당하지 않도록 존 힐 선교사를 통해서 미8군 종교담당자의 이름으로 통행증을 편지에 동봉하여 보내주었으므로 광주로 김은석을 찾아가 그곳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695] 공부하던 자매 정규님과 김은석 목사의 중매로 1951년 8월 13일(음력) 결혼하여 전남 평산리 처가에 신접살림을 꾸렸다.

한편 처가 근방에 있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니던 10여명의 성도들이 평산리에 있었는데, 교회가 30여리나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박점상이 목회하다 온 줄로 알고 교회를 세워달라고 부탁하여 존 힐 선교사에게 개척자금을 요청하였더니, 얼마간의 돈을 보내주었다. 이에 박점상은 신흥교회를 오가면서 눈여겨 보아둔 주포의 빈 집을 사서 그 재목을 배로 운반하여 처가가 내준 땅에 평산리교회를 건축하여 개척하였다. 그 후 얼마 못되어 충북 청원군 강서면 송절리라는 곳에 이성화 장로가 교회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문암교회의 전신)로 환원하자 부임하여 섬기다가 다시 이성화 장로가 교회를 가지고 침례교회로 넘어감으로써 사임하였다. 얼마 있다가 1953년에 존 힐 선교사의 연락을 받고 서울에 올라가 마중 나온 존 힐 선교사의 차를 타고 도강증 없이 한강을 건너 장충동신학교에 입학하여 1년 반을 공부하였다. 1956년에 대전침례신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식구가 일곱 명이나 되었음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소개한 평택 서정리에 김은석의 큰 동생 집에서 서정리침례교회를 개척하였으며, 온양 온천침례교회를, 후에 장항교회를 1960년 졸업 때까지 섬겼다.

침례신학교를 졸업한 후 가족이 많아 받아 주는 교회가 없고, 가족

694) 지철희 목사의 누님 집. 당시 지철희는 12세 정도의 소년이었음. 후에 박점상이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처가 마을의 정귀남 집사의 딸을 지철희에게 소개함.

695) 김은석 목사, 이신 목사, 창현 함태영 목사 등이 운영.

1960년 초 박점상 목사의 침례신학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김은석 목사와 김완례 사모

부양도 문제인데다가 목회하면서 생활에 얽매이면 삯꾼 목회자가 될 것이라 믿어 목회를 그만 두었다. 그러고 나서 대전에서 기술자를 두고 시계방을 운영하면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습득하였고, 서울 남대문에서 노점상과 업자를 상대로 시계수리를 하던 중에 노동청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시계수리1급자격증을 받았다. 1967년 성동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신인 남산동 교회에서 장로안수를[696] 받고 재무로 시무하면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장로회를 조직하여 총무를 맡아 보았다. 1982년에는 생활의 기반을 잡은 후여서 지온어린이집의 부속 교회에서 장로로서 무보수로 목회를 하다가 1983년 1월 남부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겼다. 남부중앙교회는 홍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떤 교인이 구입했던 것을 최윤권 목사가 재구입하여 교회가 지속되게 하였고, 후에 교회가 자금을 마련하여 최윤권 목사로부터 실비로 매입한 교회였다. 1983년 3월 14일 목사 안수를 받고 1950년대 김은석 목사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한 이원노(로) 목사와 함께 협동목사로 부임하여 은퇴할 때까지 담임하였다. 이때 명목상의 담임목사는 최윤권이었다.

박점상 목사는 서울기독대학교 법인이사로 36년간 섬겼고, 동 대학교에서 2009년 8월 24일 선교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현재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이사로 섬기고 있다. 사모 정규님과 더불어 혜숙 목사(전대웅 목사 사모, 방글라데시 선교사) 성희, 성숙, 혜자, 정숙, 정회, 남숙, 남희를 두었다.

696) 이때 김규상 목사 안수 받음.

3) 김교인 장로(1890-1970)

김교인(金敎人)은 김은석 목사를 모셨던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의 장로였다. 민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고 한문성경을 읽고 깨우친 후에 전도인 활동을 하고 선교사로부터 생활비 보조금을 받다가 1936년에 부강으로 이사하여 양약방을 열었다. 오데골에는 김교인 장로가족과 김규상의 모친 구봉례 집사와 작은 어머니 정도가 모이는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교회를 끌고 나갔다.

1944년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 부인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노회가 열려 참석하였다가 김은석 목사를 소개받아 1945년 가을에 담임목사로 모시게 되었다. 김은석 목사는 부임하자마자 100일 집회를 선언하고 시행하여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노회로부터 자제하라는 명령이 시달되었다. 이에 굴복하지 않자, 노회는 김은석을 제명하였다. 이 일로 김교인은 김은석, 정찬성과 함께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였고, 1946년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대전 성화교회 오재건 장로의『신앙체험기』에 의하면, 김교인은 대지 500평을 하나님께 바쳐 부강교회를 짓게 하였으나 후대의 목회자들이 교회대지를 여러 명목으로 조금씩 매도하여 1976년경에는 147평만이 남았다고 한다. 이 대지를 김태수 목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오재건 장로에게 관리를 위임하였고, 오재건은 관리에 어려움을 느껴 재단법인 크리스챤 밋숀에 넘겨 관리하게 하였다.

김교인은 1956-57년경에 순복음교회로 이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에 김교인은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김교인은 최요한이 1946년 10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에 개척하였다가 그 이듬해인 1947년에 함평면 석성리 청학동으로 옮겨 김교인 앞으로 등기된 땅 위에 세운 석성 그리스도의 교회를 순복음교회로 이적 시켰고, 추후 이 교회에 700평 땅을 바쳐 50평 예배당을 짓게 하였다. 이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서 1956년 12월 13일 이후에 김교인과 석성리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와 신생동 교회, 그리고 이들 교회들을 인도했던 노의수 집사(전도사)에 대한 언급이 모두 끊겼다.

순복음교회로 이적할 당시 김교인은 이미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상태였다. 김은석 목사의 1956년 7월 16일(월)자 메모에 의하면, 김교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산18번지에 살고 있었다. 서울에서 그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섬겼으며, 1970년에 숙한으로 신촌교회에서 소천하였다. 사모 김정렬로부터 김재순 목사, 김태수 목사, 김철수 목사, 김복수 권사(2021년 4월 11일 별세, 남편 엄진섭 장로), 외손자 엄규장 목사, 엄규응 목사, 엄규서 목사, 엄규석 목사, 엄규남 목사를 두었다.

큰 아들 김재순(1922-1958) 목사는 해남, 영광, 함평, 금동(광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김은석 목사의 기록에 의하면, 1958년 2월 26일 광주에서 소천 하였다. 김태수 목사는 김은석 목사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고, 1955년 3월 3일 존 힐이 교장으로 있던 서울성서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50년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와 60년대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교수(통역)를 역임하였다. 70년대 중반에 미국에 이민하여 LA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섬겼다. 김철수 목사, 외손자 엄규장 목사, 엄규응 목사, 엄규서 목사, 엄규석 목사, 엄규남 목사도 미국 또는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섬겼다.

4) 신현창 장로

신현창 장로는 의사였다. 상해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일정 때 고국에 돌아와 이북 철산리에서 병원을 개업하였다. 철산에서 진료를 할 때에 늘 형사들이 와서 감시했다고 한다. 이유는 신현창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왔고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다. 신현창은 많은 신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현창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일을 지속하기 어려워 청주로 내려와 이한상 집사가 경영하던 양약방 옆에 병원을 차려 진료하면서 기독교라는 간판을 붙였다. 한편 부강에서는 김규상 목사가 12세 때에 부친께서 돌아가심으로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신현창이 그 집을 구입하여 부강으로 이사하여 병원을 개업하였다. 부강에서 신현창은 1945-6년경 김은석 목사를 만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조직하였고 신학생들을 가르쳤다. 충청과 전라 지역에서

교회들을 개척하였거나 섬긴 수십 명의 그리스도의교회 목회자들이 1950년대 말까지 지속된 이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통해서 배출되었다.

신현창은 1945년에 몸이 약간 불편하여 수양 차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에 왔다가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정철의 집에서 모임을 갖게 하였다(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 개척). 1950년에는 교회사택을 지으셨다. 그리고 1951년 6.25사변 중에 교통사고로 소천하였다.

5) 정찬성 목사(1913.05.06~1957.04.25)

정찬성 목사

정찬성 목사는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반능(半陵)이 고향이다. 친구인 이학재(감리교 장로)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우체국에 근무하는 집배인이었다. 낮에는 편지를 배달하고 저녁에 교회를 다녔다. 일제가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하자, 정찬성은 신앙에 어긋난다며 가미사마에게 절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다리가 얼음 속에 박혀 부상을 입게 되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청주 모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병원에서 성경책을 주며 읽도록 권하였다. 마침 교회를 다니고 있던 터라 기도하기를, "내가 여기서 병을 낫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고 했는데, 기도한 후에 정말 다리가 낫게 되어 김용선 자매와 결혼까지 하였다. 결혼하고 나서야 김용선은 정찬성이 다리를 조금 전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정찬성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노방전도를 다녔는데, 왜경들이 늘 추적하였고, 김상호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 어른들의 핍박도 상당히 심했다고 한다. 그는 믿는 사람들(목사들)의

고발로 체포되어 청주 남조동, 대전 신탄진, 충주로 이송되면서 많은 고문을 당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처형이 사는 만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만주에서는 산에 올라 초근목피 하였고, 구두닦이 통을 만들어 왜경의 눈을 피해가며, "일본의 가미사마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였다. 이 무렵에 만주 길림성에서 김은석 조사(전도사)를 만났다.

해방 후 고향인 충북 괴산군 불정면으로 돌아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연못골 자택에서 반능교회를 하다가 적산건물인 사립학교를 구입해서 교회를 시작하였다. 이 무렵에 만주에서 만났던 김은석 목사와 연락이 닿아 부강에서 해후하였다.

정찬성 목사는 고려통신신학을 수료하였고, 1946년에 시작된 초창기부터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다. 1948년에 신탄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6·25전쟁을 만났다. 전쟁 중에 김정만 목사(정찬성을 스승으로 생각함)가 살던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으로 피신을 하였는데, 1950년 겨울에 북한군에 잡혀 밤새 고문을 당하였다. 북한군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놓아주겠다고 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자 밤새도록 총대로 구타하였다. 아침에 북한군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은 이쪽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총으로 난사하였는데, 당시 정찬성은 기도를 하느라 머리를 들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총알이 살짝 빗나가면서 구사일생하였다. 총알 세례를 받고 난 후, 눈을 뜨고 자기 몸을 꼬집어보니,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정찬성 목사는 충청지방에 7-8군데 교회를 세웠다. 해방 후 고향인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에 돌아와 외령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고, 1948년에 예배인도 차 심방하던 충북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동막교회(현 시골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소속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켜 1949년 4월부터 1950년 6월까지 시무하였으며, 1951년에는 김은석, 최춘선과 함께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의 조선기독교회를 조동(현 동량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켜 건지부락 산 밑으로 예배당을 이전하여 건립하였다.

그밖에도 소태 그리스도의 교회, 삼방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 정찬성은 1951년 5월 15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3구 마을에 이흥

식 전도자가 조남철의 가정에서 1950년 3월 19일에 시작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여 10월까지 1대 목회자로 섬기다가 이신에게 넘겼다. 이신은 그곳에서 김은석, 함태영과 함께 광주에서 하던 신학교를 이어갔고, 정찬성도 참석하여 공부하였다. 정찬성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위해서 약 400여리 떨어진 곳에서 오촌 조카와 가족들을 데리고 간단한 짐만 손수레에 싣고 14일 걸려 이사하였다. 그곳으로 가게 된 동기는 한 독지가로부터 수천 평의 땅을 헌납 받아 5촌 조카(정석기 장로)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자신은 교회를 시무하기 위함이었다.

정찬성 목사는 충남 부여군 합송리 신학교에서 있었던 성령론 논쟁 때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탈퇴하여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때 김상호와 함께 (추측컨대 최요한도 함께, 김교인은 그보다 3-4년 후에) 이적하여 1955년 4월 27일에 목사안수를 받고 기하성의 제1호 목사가 되었다. 이 무렵에 이신 목사도 부여 합송리를 떠났고, 김광수 목사/장로가 1954년 8월 7일 합송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여 1956년 12월 30일까지 섬겼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로 이적한 정찬성은 충주순복음교회의 전신인 오순절 충주교회를 개척하였고, 1957년 2월 15일에는 기하성 본부의 후원으로 신탄진 강희천의 집을 매입하여 삼정순복음교회를 개척하였으나, 삼남 정형기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왜정 때 신사참배 거부로 매를 맞았던 것이 병이 되어 복막염으로 4월 25일에 별세하였다. 별세일자는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 의존하였다. 정찬성 목사는 김상호 목사와 함께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희년 50인 인물'에도 올랐다.

슬하에 인자(목사 사모), 용기(공주 탄천순복음교회 목사), 형기(순복음예광교회 목사), 인순(집사)과 동순(일본 고베순복음교회 사모)을 두었다,

6) 김상호 목사(1922-2007.11.24)

장로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다가 김은석 목사를 만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로 환원하였다.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서 말씀을 배우던 중 김은

김상호 목사(2007년 11월 6일 오산리금식기도원)

석 목사의 권유로 1949년 서울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강좌를 열었던 한국기독교성서신학교(서울성서신학교)를 김은석 목사와 함께 다녔다. 김상호는 이곳 교수들(존 힐, 성낙소, 최요한, 백낙중)의 다른 가르침은 다 좋게 받아들였으나 성령론이 불만스러웠다. 6·25전쟁으로 신학교가 문을 닫자, 부강에 내려와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서 성령론 연구를 계속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이 무렵 김은석 목사는,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09쪽에 의하면, 1951년 늦은 가을에, 대전 선화동 2구 315번지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새로 개척한 상태였다. 아마 이 무렵 어느 날에 김은석 목사가 "김 형제, 교회를 받아 수고 좀 하게."라고 김상호 목사에게 부탁하였고, 김상호는 극구 사양하였으나 청원에 못 이겨 부강교회 제2대 교역자로 부임하였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에서 김상호 목사의 이름은 단 한 차례만 등장하였다. "1957년 2월 23일(토)은... 아침식사 전은 김상호 목사와 담화함." 그러나 김상호 목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를 탈퇴하여 광주에서 개최된 1953년 4월 8일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때 정찬성 목사와 함께 (추측컨대 최요한도 함께, 김교인은 그보다 3-4년 후에) 이적하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희년 50인 인물'에 올랐다.

「순복음가족신문」에 의하면, 김상호 목사는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였고, 충청도 지역에 40여 교회를 개척하였다. 남원순복음교회, 청주순복음교회, 부산순복음교회를 담임하였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 교무국장, 교육처장, 교무처장,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주임목사, 엘림복지타운 원목으로 시무하였다. 김상호 목사는 2007년 11월 24일 별세 하였다.

7) 만교 최춘선 목사(1921-2001.09.08)

맨발의 성자, 만고 최춘선 목사
그는 30여년을 맨발로 거리와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수원행 전철 안에서 소천 하였다. 그는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예수 십자가는 생명의 젖 줄기, 평화의 젖 줄기, 그래서 십자가 젖 줄기 하나, 교회 하나, 교단은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다!"

최춘선 목사는 김은석의 제자로서 김포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개척 시무하였고, 사회사업가였으며, 30여년을 맨발로 거리와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수원행 전철 안에서 별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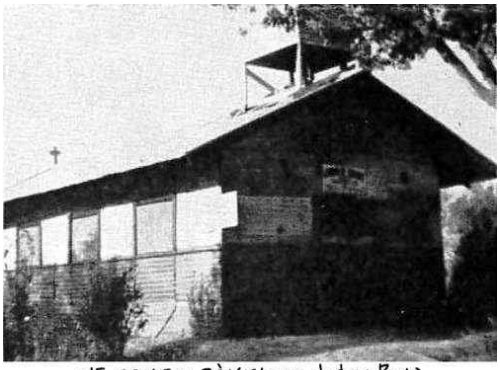
최춘선은 말년에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비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는 생명의 젖 줄기, 평화의 젖 줄기, 그래서 십자가 젖 줄기 하나, 교회 하나, 교단은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다!"

(1) 김은석 목사와의 관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697] 131쪽에 의하면, 최춘선은, 1949년 존 힐 선교사 가족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무하고 있었다. 존 힐도 1972년에 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약사'에서 이 무렵에 김은석의 영향으로 김포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점을 인정하였다. 1951년에는 김은석, 정찬성과 함께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의 조선기독교회를 조동(현 동량제일)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켰다.

최춘선의 이름은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14회 등장하였다. 최초의 언급은 1953년 8월 24일자로 되어 있다. 이 날 최춘선은 김은석, 이복춘, 이시봉과 함께 충북 충주시 남주동 2구 350번지 그리스

697) 김찬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역사: William D. Cunningham의 생애(1864-1936)를 중심으로』(대전: 한성신학교, 1991): 131.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 최춘선 목사)

도의 교회를 시무하는 정찬성 전도자를 상봉하였다. 1957년 6월 6일에는 송안성과 함께 김은석 목사의 대전 자택에 머무른 후 7일 아침에 서울로 올라갔다. 1957년 7월 11일(목) 오후에는 김은석이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 만교 최춘선의 자택에 도착하여 저녁에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스가랴 7-8장을 봉독하였다. 13일(토)에는 김은석과 함께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도당 원경선의 자택에 머물렀다. 1957년 8월 26일에는 편지를 받고 최춘선이 김은석의 대전 자택으로 내려왔는데, 김영원, 김영숙, 이종만, 설하운, 테일러, 박은병도 참석한 자리였다.

최춘선의 이름은 김은석의 통신 및 신화신학성경연구회 명단에 빠짐없이 들어 있다. 김은석은 1958년 5월 5일에 집중강의 일정을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통보하였는데, 이 통보를 받은 이들 가운데 최춘선이 포함되어 있다. 또 1958년 7월 10일부터 소년성경학과가, 8월 1일로 9월 10일까지는 집중성경공부가 있다는 통신자 명단에도 최춘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김은석 목사가 1960년도에 연하장을 보낸 자들의 명단과 양녀 김명순의 혼인 청첩자 명단에도 최춘선의 이름이 들어 있다.

또 『목포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698] 319쪽에 실린 김정만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최춘선은 부강교회 김은석에게 쌀가마를 직접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이토록 최춘선 목사는 김은석 목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목회자였다.

(2) 무소유와 희생의 삶

698)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1956-2006)』(광주: 도서출판 한림, 2006): 319.

최춘선은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목회자였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언제나 존댓말을 하였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등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최춘선은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큰 길에서 인천 국도까지 수십만 평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던 거부였고, 자동차를 다섯 대나 소유하였었다. 그러나 6·25 직후 길에 떠도는 노숙자들과 거지들을 집으로 데려와 거두기 시작하였고, 국가나 단체의 보조 없이 고아들을 길러냈다. 또 유산으로 받은 땅을 실향민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다.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땅을 조금씩 떼어주고서 남은 건 단지 3천 평뿐이었다.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믿었기에 등기도 하지 않았다. 그걸 알고 누군가 그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해 남은 땅마저도 다 빼앗겨 버렸지만 힘든 표정 한번 짓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수백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데리고 서른 번도 넘게 이사를 다녔다.

최춘선 목사의 묘(대전 현충원 제2애국지사 묘역)

내일 아침 먹을 쌀만 남았을 때도 누가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그마저도 퍼주었다. 아내가 "우리 아이들은 무엇으로 먹이냐"고 걱정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기록되어 있다"면서 달랬다. 새 옷을 사다 드리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실 때 다 떨어진 헌옷으로 바꿔 입고 들어오고, 심지어는 "바울아(아들) 너는 따뜻한 옷이 또 있지?"라고 말하며, 아들의 잠바들도 모두 나눠줬다.

최춘선 목사는 독립유공자였기 때문에 도장하나만 찍으면 증손자까지 4대가 학비지원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닐 뿐 아니라, 나라가 반쪽인데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며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최춘선은 5남매를 목사와 교수 등으로 길러냈다.

(3)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은 일본 와세대 대학을 나와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수재였고, 가가와 도요히코와 우치무라 간조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일본 유학시절 군사훈련을 거부하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만주로 가서 광복군의 섭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해방 전후에 김은석을 만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으며, 김포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추측컨대 20여 년 가깝게 고아들을 돌보다가 1970년 초 50세 무렵에 모든 사역을 접고 문서선교와 노방전도에만 전념한 것 같다.

최춘선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데는 2003년부터 '팔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김우현 감독이 맨발로 길거리 전도를 하는 할아버지 최춘선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분의 일상을 다큐로 만든 동영상을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한 이후부터이다.[699]

광복군 섭외부장을 지냈던 최춘선은 대한민국이 분단 상태에 있으므로 아직 완전한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1970년 초 50세 무렵에 "남북통일이 되기 전엔 절대로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미스코리아 유관순, Why Two Korea? 미스터코리아 안중근, Why Two Korea?" 이 외침은 유관순과 안중근과 같은 사람이 참 한국인이며, 그런 이들만 있다면, 왜 두 개의 한국이 있겠느냐는 의미였다고 한다.

아들 최바울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최춘선은 아들의 결혼식 때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었고, 버스기사에게 떠밀려 골반 뼈가 부서졌을 때도, 예수쟁이라는 핍박을 받았을 때도, 발바닥에 유리조각이 박혀 피가 흘렀을 때도 결코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 최춘선은 2001년 9월 8일 80세의 일기로 별세하던 순간까지 30년을 넘게 맨발로 다니며 전도하였고, 별세하던 바로 그 날도 1호선 수원행 열차에서 전도

699) 김우현, 『김우현 다큐북 팔복 I_맨발천사 최춘선: 가난한 자는 복福이 있나니』(서울: 규장, 2004).

하던 중에 의자에 앉은 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대전 현충원 제2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8) 창현 함태영 목사(1914.5.24-1983.11.28)

창현 함태영 목사

창현 함태영은 부친 함봉표의 항일 의병전투참가로 왜경에 쫓기고 옥고까지 치름으로써 가세가 기울고 몇 차례 이사를 다녀야 했던 환경에서 청소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20대 초반에 부친의 유훈, "生則義士 死則義鬼"(살아서는 항일의사가 되고, 죽어서는 항일의귀가 된다)에 따라 항일운동을 꾀하였고, 목사가 된 이후에는 "生則福音 死則麥粒"(살아서는 복음전도자가 되고, 죽어서는 밀알이 된다)의 신조로 도시보다는 농촌, 난민촌, 빈민촌에서 목회자로, 교육 사업가로, 신약성경교회 운동가로 일생을 헌신하였다.

함태영은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순천에서 부친이 세운 사립학교에서 초등학문을 배운 후 17세가 돼서야 비로소 보통학교를 마쳤다. 18살에 부산으로 건너가 고학으로 중학과정을 21살에 마쳤고, 이 기간에 공사장에서 미장, 조적, 조각, 설계 등을 배워 건축 기술자가 되었다. 같은 해 일본군 징용을 피하여 만주에 머물다가 이듬해인 1936년 22세 때 담양선 철도 부설작업 한국인 조장을 맡았는데, 칼을 찬 일본인 조장이 한국인들을 멸시함으로 대항하여 맞서다가 일본인 조장이 빼든 칼에 함태영이 턱에 부상을 입었고, 이를 방어하던 함태영의 괭이에 일본인이 맞아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담양사건은 동아일보에 보도된 사건으로써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본인들이 복수를 하려고 함으로 피신하여 신의주로 갔다. 이때 항일운동의 일환으

로 학교동창 1명과 함께 압록강 철교를 절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1937년(23세)에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선천으로 옮겨 기독교인 정용옥을 만나 결혼하였고, 장모 이봉녀 권사의 권유로 예수님을 믿고 이듬해 24살 때 세례를 받았다. 1941년 27세 때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경찰서에 감금되었으나 탈출 후 만주에서 숨어 지내다가 1944년(30세)에 고향 순천에 혼자 내려와 몸을 숨겼다. 그러나 발각되어 투옥되었다가 8·15광복 때 석방되었다. 함태영은 곧바로 순천고등성경학교에 입학하였고, 장로교 해룡면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사재를 처분하여 전남 승주군 별량면에 장로교회를 개척하였다.

1947년(33세)에 순천성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으로 온 가족이 이사하여 월남난민촌에 임시로 기거하면서 강순명(교역자회) 목사를 도와 천막학교에서 교육과 전도에 힘썼다. 이때 김은석의 가족은 아현동에 거주하였는데, 그의 양자 김성철과 함태영의 장자 함동진이 이 천막학교에서 함께 공부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듬해 10월 19일에 발생한 여순반란사건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무렵 마포가 내려다보이는 도화동산에 대지를 마련하여 주택을 짓고 점포를 운영하면서 종친인 함태영(咸台永)[700] 목사가 학장으로 재직한 조선신학교(현 한신대)에 입학하여 장로회신학교(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하였다. 장로회신학교는 1947년에 조선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신학생 51명이 김재준 목사의 신학입장에 반발하자 총회가 조선신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새로 시작된 신학교이다. 장로교는 기존세력인 통합파에서 1951년에 고려파(고려신학교)와 1953년에 기장파(조선신학교)가 떨어져 나갔다.

함태영은 이 무렵에 북에서 월남한 장로교 재건파신자 정희건을 만나 사귄 후 학업과 생업을 위해서 함께 나무젓가락 공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신약성경교회 운동에 매료되어 그리스도(인)의 교회들로 환원하였고, 서울성서신학교(교장 존 힐 선교사, 현 서울기독대학교)에 편입학하여 1955년 3월 3일 제1회로 조국형, 김봉석, 성수경

700) 심계원 원장 및 대한민국 부통령 역임.

(성낙소 목사의 아들), 김태수(60년대 한국성서신학교 교수역임), 김현숙(60년대 한국성서신학교 이사 엮임), 이종윤, 유현성, 정희건(교역자회 소속), 변승택, 이홍미, 최병식과 함께 졸업하였다.

함태영은 1950년(36세)에 6·25전쟁이 터지자 홀로 고향인 전남 승주군 외서면 장산리로 피신하였다가 공산주의자인 초등학교 친구의 밀고로 붙잡혀 옥고를 치렀으나 선친과 형제들의 도움으로 몰래 풀려나 숨어 지냈고, 가족들은 서울 함락 2주 후에 별도로 피신하였으나 사모 정용옥이 승주군 해룡면으로 친정 식구들을 찾아 나섰다가 공산주의자들의 검문에 걸려 투옥되었다가 탈출 후에 가족이 모두 안전한 부산으로 피신하였다. 부산에서는 1951년 2월 9일 기독교신보사가 주관이 되어 조직된 기독교선무원으로 발탁되어 국방부정훈국 산하에 파견되어 군목으로 종군하였다.

함태영은 1951년 3월에 전남 광주시 방림동의 서병렬(徐炳烈) 목사의 집으로 옮겨 거주하였는데, 이곳에서 이신(李信)을 만나 사귀게 되었다. 이신은 감리교신학교를 마치고 1950년에 전의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다가 6·25전쟁으로 고향 돌산에 피신하여 지내던 때였다.

광주 학동에 창틀까지 축조된 상태에서 6·25전쟁으로 중단된 큰 교회당 건물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신학공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은석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던 전라지방 젊은이들과 통합하기에는 장소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함태영은 1951년 5월에 광주 사직동공원 및 방송국 입구에 사재를 처분한 돈과 부친의 지원금과 영광의 임모 장로의 헌금으로 일본 적산가옥 2층을 매입하여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이 건물에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신학강좌를 개설하였다. 김은석과 김태수의 가족들도 같은 건물에 입주하였다. 의술을 가진 함태영의 셋째 동생 함태중이 재정을 후원하였고, 김은석, 이신, 김태수 등이 교수로 섬겼다. 이 건물에 강순명 전도자가 1952년 7월 13일에 천혜 경로원을 설립하였다. 이때 화가 지망생이었던 이신은 받침에 헬라어로 '로고스' 글자를 삽입한 '메노라'(일곱 가지 등대) 문양과 교명을 새긴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신화신학 성경연구회) 현판을 제작하였다. 10여년 후 이신은 대전 한국성서신학교(한성신학교)의 현판

도 동일한 모양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동년 1951년(37세)에 김은석의 집례로 이신, 최요한, 장주열(최요한의 동서), 김재순(김교인 장로의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또 함태영은 6·25전쟁 중에 통행의 제한을 받는 젊은 신약성경교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종군당시 사귀었던 미8군 군목을 찾아가 통행증에 사인을 받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움을 주었다.

함태영은 동년(1951) 가을에 충남 논산군 부적면으로 이사하여 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교리 그리스도의 교회(현 금성교회)를 개척하였다. 동년(1951)에 이신도 정찬성이 1951년 5월 15일에 부임하여 10월까지 제1대 목회자로 섬긴 합송리 그리스도의 교회(교역자회)로 이주하여 광주에서 운영하던 신학교(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이곳에 개설하였고, 김은석, 함태영, 이신이 교수로 수고하여 김확실, 정찬성 등이 배출되었고, 환원신학 잡지, 「로고스」를 발행하여 전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 배포하였다.

(좌) 창현 함태영 목사의 신조(생즉복음 사즉맥립: 살아서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죽어서는 밀알이 된다); (좌하) 함동진(아동문학가), (우하) 함태중(복음중학교 재정 후원자); (상) 복음중학교 설립기념사진

(1952년 11월 15일, 중앙 함태영 목사, 좌측 이신 목사), 함태영은 이 건물에서 신교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함태영은 1952년 11월 15일에 충남 논산군 부적면 신교리 마을회관을 빌려 복음공민중학교를 설립하였다. 함태영의 가족은 복음중학교 관리와 교사들의 식사제공문제로 거소를 충곡리 교회에서 신교리 교회로 옮겼다. 함태영의 셋째 동생 함태중은 운영후원자로, 막내 함태욱은 영어 강사로, 사모 정용옥은 교사들의 식사제공과 세탁 등으로 헌신하였다. 함태욱은 후일 서울성서신학교를 거쳐 한국성서신학교를 나와 여러 교회들에서 목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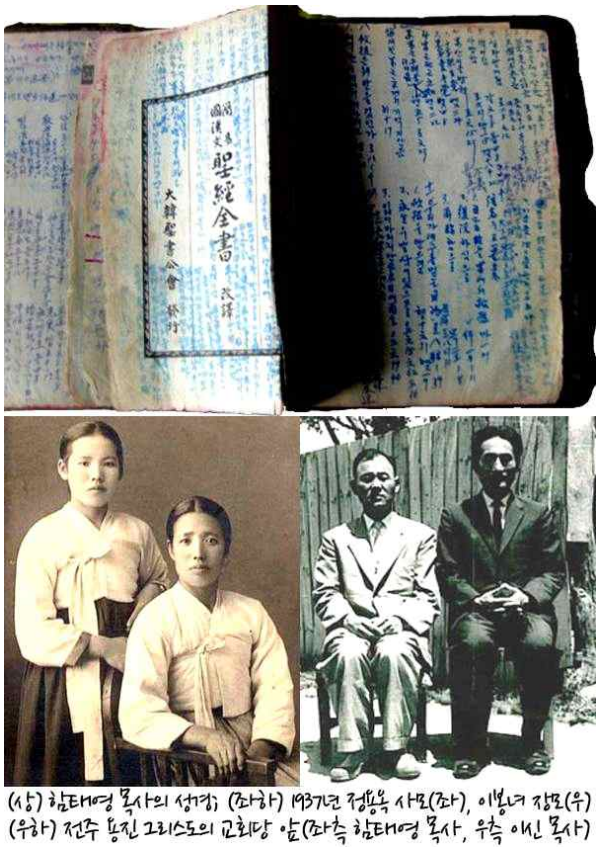
였다. 복음공민중학교는 후일에 창현의 후배 겸 제자인 이춘식 목사가 인수하여 대명중학교로 개명하였다.

함태영은 1953년(39세)에 부친 송암 함봉표 지사(음력 3월 24일)와 사모 정용옥(7월 13일)을 사별하였다. 함봉표 지사는 유림에 속했으나 맏아들 함태영의 목회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으며, 사모 정용옥은 모친과 함께 함태영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목회자가 되게 하였고 영양실조와 병고로 32세에 요절하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하였다. 당시의 궁핍했던 생활을 함태영이 남긴 요약설교지가 각종 이면지, 즉 경리장부, 요금고지서, 영수증, 전단지, 캘린더, 전보지, 결혼청첩장 등이었던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사모가 눈을 감는 날 함태영은 부여 귀암면 합송리 신학교에 가 있어서 임종을 보지 못했다. 사모는 장남 동진에게 "내가 죽은 후에 동생들을 잘 돌보고 아버지를 극진히 모셔라"고 유언으로 당부하였고, 고요히 찬송을 부르며 하늘나라로 가셨다. 동년 1953년 8월 4일 존 힐과 통역 최순국이 신교리교회와 복음중학교를 방문하였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와 복음중학교를 물질로 크게 후원하던 함태중이 중병으로 사경을 헤맸었고, 함태영은 경기도 광주군 분원리 소재 숭실중학교의 교장과 교목을 맡아 이사하였다. 존 힐은 이신과 함께 숭실중학교를 찾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함태영은 동년 11월에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산의 주택을 김모 여전도사에게 기증하여 도원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발점이 되게 하였다.

1955년(41세) 3월 3일에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대학교)를 제1회로 졸업을 하였다. 이 무렵에 함태욱도 서울성서신학교에 입학하였다.

1957년(43세)에 전북 이리로 주거를 옮겨 교회개척장소를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곳이 없어, 주거지를 전주로 옮겨 금암동에 주택을 지었고, 인후동 반공포로 정착촌의 주택을 매입하여 전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겸하여 정착촌 의무실을 개설하였다.

1958년(44세)에는 금암동의 주택을 매각하고, 전북 완산군 용진면 소양리(현 전주시 소재)에 대지 200평에 건평 100여 평의 건물을 매입하여 용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완제품 약종상을 차려 원광대학교에 다니던 장남 동진이 군입대할 때까지 운영케 하였다. 함태영은 자신보다 13세나 아래인 이신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초빙하



(상) 함태영 목사의 성경 (좌하) 1937년 정봉옥 사모(좌), 이봉녀 장모(우)
(우하) 전주 동진 그리스도의 교회당 앞(좌측 함태영 목사, 우측 이신 목사)

여 부흥집회를 개최하고 침례를 베풀며 목회사역을 협의하였다.

1960년(46세)에 청주에서 양로원을 운영하며 교회를 개척하였다. 1962년(48세)에는 목회를 쉬며 시험을 받았다. 대전시 가오동 천변(川邊)에 판자로 움막을 짓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시멘트블록 공장을 운영하며 노동에 시달렸고, 갓 제대한 동진이 작업을 도왔으나 경영이 부실하였다. 이 무렵 타 교단으로부터 유혹이 있었으나 물리치고 신앙노선을 지켰다.

1964년(50세)에 충북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남일면 방서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담임하였다. 건축이 전문이므로 교회를 꾸미고 보수하는 일을 자주 하였다. 한 번은 교회의 지붕을 보수하다가 낙상하여 갈비뼈가 상하는 중상을 입기도 하였다.

1970년(56세) 1월 25일 장남 동진이 최윤권의 주례로 결혼하였고, 1974년(60세)에는 논산 대명중학교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설립자로서 공로표창과 황금메달을 부상으로 받았다.

1975년(61세)에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장자 동진의 집에서 이신, 구강서, 이종만, 조충연, 설하운, 함명덕, 임상규(이상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갑연을 가졌다.

1980년(66세)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방서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목회를 마지막으로 노환(반신마비와 당뇨) 때문에 은퇴하였고, 1983년(69세) 11월 28일 충남 대전시 가오동에서 별세하였다.

창현 함태영(唱泫 咸泰英) 목사는 "生則福音 死則麥粒"(살아서는 복음전도자가 되고, 죽어서는 밀알이 된다)의 신조로 도시보다는 농촌, 난민촌, 빈민촌 등지에서 목회자로, 교육 사업가로, 신약성서교회 운동가로 재물과 재능을 다 바쳐 헌신하였고, 남의 땅에 세운 시멘트 블록 움막과 낡은 찬송가와 성경책과 몇 권의 신학서적만을 남겼다. 이런 공로를 인정하여 2007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75주년 기념대회 때 함태영과 장자 함동진에게 환원상(메달)이 각각 수여되었다.

창현 함태영의 부친, 송암(松庵) 함봉표(咸鳳表)는 항일의병전투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운 독립지사로서 일제의 핍박을 피하여 전남 승주군 외서면 장산리에 정착한 유림에 속하였으나 맏아들 함태영의 목회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사모 정용옥은 친정 모친과 함께 함태영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목회자가 되게 하여 궁핍했던 시절 불평 없이 남편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다가 영양실조와 병고로 32세에 요절하였다.

함태영의 막내 동생 석비 함태욱(晳譬 咸泰昱) 목사는 서울성서신학교(현 서울기독교대학교)와 한국성서신학교(전 한성신학교)를 나와 창현 함태영 목사의 목회활동과 복음중학교에 기여하였고, 장남 함동수 전도자(교역자회)가 시무한 청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동역하였다.

순동식 목사는 창현 함태영의 셋째 사위로서 복음중학교 출신이며, 한국성서신학교를 나와 대전과 홍성 등에서 목회활동을 하였다.

장산 함동진(長山 咸東振)은 함태영의 장자로 전북일보사 서무원, 시사통신 전북지사 무전사, 합동통신 전북지사 부무전사(副無電士) 등 주경야독으로 전주 공업 고등 기술학교 무선통신학과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서울성서신학교(서울기독대학교)와 한국성서신학교(대전)를 각각 중퇴하고, 서울기독대학 통신신학을 나와 서울 응암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개척교회 전도 활동을 하였고, 1970년대에 문서전도의 일환으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 본부'라는 이

름으로 문서전도지를 저술하고, 서신회답도 하였으며, '신약교회'라는 연재물을 필경으로 작성하여 두 곳 교회의 주보에 제공하였다. 현재는 문인(시인, 아동문학가. 서예인, 한국문인협회 회원, 기독교문인협회 회원, 한국아동문학회 회원 등)으로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함동진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1991년 6월 11일(음력4월30일) '창현 함태영 목사 전기'를 작성하였고, 1993년 함태영 탄생 79주년에 수정 증보하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연구에 기여하였다.

9) 이신 목사/신학박사(1927.12.25-1981.12.17)

이신 목사/신학박사

이신의 자녀들이 펴낸『슐리얼리즘과 영(靈)의 신학』[701]에 의하면, 이신(李信, 1927-1981)은 전남 돌산 출신으로 그림그리기를 좋아하여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부산 초량상업학교(부산상고)를 나와 은행원으로 일하면서도 예술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서 얻어진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갈구는 마침내 그로 하여금 신학의 길을 걷게 하였다. 1945년에 결혼한 이신은 이듬해 1946년에 미술도구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감리교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950년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 충남 전의에 전도사로 부임하였으나 6·25전쟁으로 고향에 피신했다가 이듬해 1951년 봄에 김은석이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신학공부와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의 역사에 감동을 받았고, 신약성경교회로 돌아가자는 신약성경교회운동과 일치운동에 공감하여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였다.

1951년 늦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가 조직되어

701) 이신, 이은선, 이경,『슐리얼리즘과 영의 신학』(서울: 동연, 2011).

김은석이 회장으로 뽑혔고, 목사안수식도 있었다. 이때 이신도 장주열, 최요한, 김재순, 함태영, 김동열과 함께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동년 5월에 함태영이 광주 사직동공원 및 방송국 입구에 있던 일본 적산가옥 2층을 매입하여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신화신학 성경연구회)를 개교하였는데, 이때 이신은 교수로 섬기는 일을 처음 시작하였다. 또 이때 이신은 받침에 헬라어로 '로고스' 글자를 삽입한 '메노라'(일곱 가지 등대) 문양과 교명을 새긴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 현판을 제작하였다. 10여년 후 이신은 대전 가장동의 한국성서신학교의 현판도 동일한 문양으로 제작하였다.

1951년 가을에 함태영목사가 충남 논산군 부적면으로 이사하여 충곡리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교리 그리스도의 교회(현 금성교회)를 개척하였고, 이신 목사도 정찬성이 1951년 5월 15일 부임하여 10월까지 제1대 목회자로 섬긴 합송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주하여 광주에서 운영하던 신학교를 옮겨와 김은석, 함태영과 함께 운영하였고, 환원신학 잡지, 「로고스」를 발행하여 전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배포하였다. 이 무렵에 이름을 이만수(李萬修)에서 이신(李信)으로 고쳤다.

이신이 부여 합송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타 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특별한 외적 역사, 즉 사도들과 같은 특정인에게 주어졌던 신유, 예언, 방언 말함과 같은 특별한 은사들이 신약성경의 완성과 신약교회의 창립 이후에도 여전히 특정인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끊겼는가에 대한 견해차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세례의 본질이 신유, 예언, 방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인가, 아니면 구원의 약속을 보증하고 인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동거하심인가를 놓고 목회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이신을 포함하여 김은석을 추종하던 많은 이들은 전자, 즉 특별한 은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성령론을 공유하였으나 선교사들과 성낙소를 비롯한 일부 목회자들은 후자 즉 특별한 은사가 끊겼다는 정통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성령론을 공유하였다. 이 문제는 부여 신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서울 신학교에서도 지속되었다.

이 논쟁으로 인해서 정찬성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탈퇴하여,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때, 부강 교회를 잠시 맡았던 김상호와 함께 (김교인 장로는 그보다 3-4년 후에) 이적하여 1955년 4월 27일에 목사안수를 받고 기하성의 제1호 목사가 되었다. 이 무렵에 이신 목사도 부여 합송리를 떠났고, 김광수 목사/장로가 1954년 8월 7일 합송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하여 1956년 12월 30일까지 섬겼다. 최요한 목사도 이때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떠나 1953년 초부터 유달 교회(순복음)를 개척하여 시무하였고, 1957년 9월까지 목포 복음교회를 담임하다가 1957년 10월 1일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다시 환원하였다. 반면에 1960년대 중반에 최요한의 동생 최요열(순복음신학교 제1회 졸업)은 순복음교회로 다시 넘어갔다.

이런 일련의 문제로 부여 교회를 사임한 이신은 전남 영암 상월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다시 상경하여 존 힐 선교사를 만나 신학교를 도와 일하면서 동역하였다. 이신은 1953년 존 힐과 함께 함태영이 교장 겸 교목을 맡아 옮겨간 경기도 광주 분원 숭실중학교를 격려차 방문하였다. 함태영은 동년 7월 13일에 사모 정용옥과 사별한 후 자신이 설립한 충남 논산 신교리 소재 교회와 복음중학교를 떠나 이곳으로 옮겨왔다.

그 후 이신은 충북 괴산에 있는 수리교회로 옮겨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이 무렵의 상황이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나온다. 이신의 이름은 1954년에 2회, 57년에 11회 나오는데, 이신은 김은석과 함께 목포 유달 교회(순복음)와 본인이 시무하는 수리교회에서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강좌를 열어 가르치고 있었다. 이신과 김은석은 1954년 6월 14일부터 최요한의 목포 유달 교회(순복음) 예배당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현판을 붙여 놓고 백일성경연구집회를 시작하였는데, 이틀 뒤 16일(수) 이신의 부친이 별세하였다. 1955년 2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수리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가 있었고, 1957년에 8-9월에도 목포 유달 교회(순복음)와 수리교회에서 가르쳤다. 이신과 김은석 등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정으로 9월 집회 후에 최요한 목사는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다시 환원하였다.

최요한 목사는 1946년 2월초에 김은석을 만난 이후로 1947년 7월에 영광 무영교회를 환원시키는 등,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에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 10월초에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에 석성(청학동) 그리스도의 교회(손불면 주포리에 세웠던 것을 이전), 1947년 1월초에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702] 1948년 3월초에 광주 사동 그리스도의 교회, 1950년 전북 고창에 고창 그리스도의 교회, 1952년 1월초에 전남 목포시 남교동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1951년 늦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회로부터 동서 장주열, 김재순, 함태영, 이신, 김동열과 함께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최요한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1953년 초에 목포시에 유달교회(순복음)를 개척하였고, 1955년 9월 25일에는 목포 복음교회를 담임하였다. 그러던 최요한 목사는 1957년 8-9월에 김은석, 이신 등이 인도하는 집회들을 통해서 복귀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10월 1일 전남 목포시 대안동 11번지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최요한 목사가 돌아와 오늘의 목포교회로 발전시킨 데에는 이신과 김은석 등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정과 신념과 확신의 공유(공감)가 있어서 가능하였을 것이다.

또 이신은 1957-58년에 1951년 광주에서 만나 교제한 함태영이 전주에 개척한 전주 그리스도의 교회와 용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열고 침례를 베풀었다. 함태영의 장손 함동진도 1958년 6월에 이신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이신은 1959년과 60년 전반기에 부산문화방송을 통해서 매일 밤 10시에 방송설교를 내보냈다. 이때 행한 설교들을 모아 기독교문사를 통해서 1980년에 펴낸 책이,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703]이다. 1959년 초에 부산에서 버트 엘리스 선교사 부부와 조셉 세걸키 선교사 부부가 한국방송밋숀(Korean Broadcasting Mission)을 설립하고 부산문화방송(HLKU)에서 시간을 임대하여 매일 하루 두 번, 일주일에 세 시간씩 방송하였다. 이 방송의 설교자로 이신은 1958년 12월에 테일러 부부, 래쉬 부부, 여러 한국인 사역자들의 추천을 받아 채용되었다.

한편 전 부인 에스더 비반즈(Esther Beavans)의 가출로 1955년 한국

---

702) 1951년 음력 8월 13일부터 거주한 박점상 목사는 자신이 건축하여 개척하였다고 증언함.

703) 이신, 『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서울: 기독교문사, 1980).

을 떠났던 존 힐 선교사가 제인 키넷트와 재혼 후 1959년 여름에 부산으로 입국하였다. 두 달간 알렉스 빌즈 가정에서 머물다가 대전으로 올라와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 등과 함께 그해 12월 1일에 대전성서신학교를 지금의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당에서 20여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였다. 이듬해인 1960년에 이신이 부산에서 교수진에 합류하였고, 교통편을 고려하여 학교를 대전역에서 가까운 선화교회로 옮겼다.

이신은 이후 서울 돈암동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하였고, 1965년 9월부터는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대학교)에서 조직신학과 희랍어를 가르쳤으며, 교회를 사임하고 1966년 9월에 마흔 살의 늦은 나이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림을 그려 학비를 조달하고, 고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까지 짊어지는 고학 끝에 1967년 5월에 네브라스카(Nebraska) 기독대학을 졸업하고, 8월에 드레이크(Drake)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다. 드레이크대학교를 한 해 동안 다니다가 1968년 9월 밴더빌트(Vanderbilt)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옮겨 1969년 12월에 신학석사학위, 1971년 5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귀국직후 삼선동의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임했다가 사임하고 자신이 1958년 6월에 전주 용진교회 부흥회 때 침례를 베푼 창현 함태영의 장손 함동진과 함께 종로2가 한국기원 건물 강당에서 서울기독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혜화동으로 옮겨 1973년까지 지속시켰다. 이때 함동진은 주보발행과 기타 문건을 필경 발행하였다. 이신은 또 월 2회씩 회원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주제를 발표하고 토의를 하는 '포이에티스트'라는 학술모임을 결성하고 이끌었다. 이 모임에 함동진,[704] 강성기,[705] 김소영,[706] 김응삼,[707] 김태수,[708] 방하식,[709] 안광남,[710] 안동수,[711] 최승,[712] 윤기열,[713] 김송자[714] 등이 참석하였다.

---

704) 서기, 일신제강주식회사.

705) 효광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광주 및 부여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서 수학.

706) 시인, 상록서점운영.

707) 호남정유주식회사 훈련과장.

708)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709) 홍제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 중앙일보사 조사부 부장, 미국이민.

1975년 여름 명륜동 산동네의 무허가 집이 시에 의해서 헐리자 수리교회로 내려가 1978년까지 목회하다가 서울 원효로의 친척집에 머물렀고, 1981년 열악한 식사와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설교, 강의, 번역 등의 일을 강행하다가 병을 얻어 12월 17일 오산리 순복음기도원에서 별세하였다.

이신은 1951년 이후 줄곧 1950년대에 김은석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1960년대 전반기에 한국성서신학교(전 한성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대학교)에서 가르쳤고, 목회와 방송선교활동을 겸하였다.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이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강사(문화신학),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윤리학), 그리스도대학교(히브리어 및 신학), 대한기독교신학교(현 서울기독대학교, 조직신학), 순복음신학교 등에서 강의하였고, 윤성범의 '한국종교사학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방송설교를 묶어 만든『산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있고, 번역서로는 니콜라이 베르자이예프(N. Berdyeav)의『노예냐 자유냐』[715]와 별세 후 변선환 박사가 번역을 마무리 짓고 출판한 베르자이예프의『인간의 운명』[716]이 있으며, 유고집으로는『이신의 슐리어리즘과 영의 신학』과『이신 시집: 돌의 소리』[717]가 있다. 이밖에도 1974년 3월 25일자에 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언,' 1980년에 출판된『기독교대백과사전』에 실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전개,' 순복음교회 청년 선교지「카리스마」에 기고한 '카리스마적 신학,' '삶과 죽음,' '이단이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공직으로는 1972년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회장, 1979년 한국기독교신학회 회장을 각각 역임하였다.

이신 목사의 업적은 한국적 그리스도의 교회의 설립, 곧 성경이 가

710) 철학인.
711)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712) 서울영어학원장.
713)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후일 기독교대한복음교회로 이적.
714)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미국이민.
715) N. 베르쟈예프,『노예냐 자유냐』이신 역(도서출판 인간, 1979).
716) N. 베르쟈예프,『인간의 운명』이신 역(현대사상사, 1984).
717) 이신, 이경(엮음) 지음,『돌의 소리: 이신 시집』(서울: 동연, 2012).

르치는 신앙과 교회의 원형태를 회복하여 한국적 토착화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만들려고 한데 있다. 그는 설교 때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논하였고, 종이에 무언가를 끌쩍일 때면 항상 '근본'이라는 단어를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였다고 전한다.

10) 김정만 목사(1927.5.20-2017.8.30)

김정만 목사

김정만 목사는 스스로를 정찬성과 김은석의 제자라고 말한다. 그의 이름은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2회 나온다. 김정만은 1957년 11월 19일에 지철희의 결혼식을 위해서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까지 김은석, 지철희와 함께 갔다. 이듬해 1958년 5월 5일 김은석 목사는 집중강의 일정을 통보하였는데, 김정만은 통보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김정만은 부강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초기에 공부하였고, 정찬성 목사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김정만은 충북 중원이 고향이다. 1945년 12월 하순경에 정찬성 목사가 시무하는 이웃마을 반능교회에 김은석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말씀에 취해 큰 은혜를 받았다. 부흥회 때 침례식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침례를 주면서 자신에게만 주지 않자, 이를 방관치 않고 간청하였다. 이에 김은석과 정찬성은 김정만을 냇가로 데려가 김은석이 위해서 기도하고, 정찬성은 입은 옷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베풀어 주었다. 침례를 받고 나니 너무 기뻤고,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옷이 금세 말랐다고 한다.

1946년 반능교회를 섬기던 중에 담임 정찬성의 권유로 부강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다. 3개월 후 정찬성이 김정만에게 교회를 맡기고 사임하자, 교회를 맡아 일하면서 성경공부를 위해 반능과 부강을 오갔다. 반능에서 부강까지는 80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였지만, 월

요일 새벽예배를 마친 다음 출발해서 저녁까지 걸어서 부강에 도착하곤 하였다.

김정만은 1949년 가을 정찬성, 김은석 두 목사들과 함께 서울 필운동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성낙소, 최상현이 교수로 있던 이곳 신학교에 성령론에 관한 논쟁이 있음을 직접 목격하였다.

어느 날 저녁은 너무 추었던지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고 김정만 혼자만 부강에 도착하였다. 부강에 도착하여 평상시처럼 저녁 예배를 드린 후 식사시간이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자, 김은석은 소금물이라도 끓여오라고 했다. 그 날 저녁은 소금물을 놓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마시는 것으로 식사를 대신하였고, 그 다음날도 새벽예배를 드린 후 아침식사로 간밤에 마시다 남은 소금물로 대신하였다. 그런데 밖에서 배달부가 왔다는 소리가 났고, 나가보니 최춘선이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이 형님네 갖다 드리라고 했다면서 놓고 갔다. 최춘선이 돌아가자마자 김은석은 쌀을 반 가마씩 나눈 후에 "반 가마는 내가 먹고 반 가마는 김형제가 가져가게." 하면서 주었다. 그 때 김정만은 "도대체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스승을 더욱 잘 모셔야겠다고 결심하였다고 한다.

그 후 충주교회에 부임하여 열심히 전도했더니 얼마 되지 않아 4-5백 명이 모이는 교회로 발전하였다. 김정만은 그 교회를 스승인 정찬성에게 넘겨주고, 사모의 친정이 있던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1954년에 예배당을 짓고 헌당예배를 드렸다. 그 때 김은석 목사가 설교를 위해 참석했는데, 큰 딸 순명이 우니까 얼른 안아주었는데, 그만 어린 딸이 실례를 하여 예복이 젖고 말았다. 그러나 김은석 목사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그대로 입고 설교하고 돌아갔다.

그 후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김광희 집사) 교회로 옮겨갔다가 다시 반능교회로 옮겼는데, 폐병을 얻어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월간 한길사(1959)는 김정만 형제가 죽었다고 부고하였다. 그러나 김정만은 기도로 고침 받고 열성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그 결과 원근 각처에서 교인들이 모여들어 격주로 충북 각지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들도 뜻을 같이 하였다.

김정만 목사가 폐병만기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존 힐 선교사가 병문안으로 찾아와 약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김정만은 최후의 수단으로 항상 기도하던 음성 고사리봉을 찾아 하나님께 매달렸다. 일주일이 지나자, 당시 눈이 내려 쌓였었는데, 김정만이 있던 곳은 눈이 녹아 있었고, 앉았던 자리의 소나무는 뽑혀 있었다. 그만큼 혼신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이다. 그리고 몸이 가볍고 상쾌해져 집에 내려와 보니 씻은 듯이 병이 나아 있었다.

그 후 충북 중원군(현 충주시) 신이면 (화석리 방축골 교회)에 개척을 하고, 다시 반능교회로 왔다가 1968년에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갓돈 교회(현 삼방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전 주민들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들 가운데 김정례 집사와 지재성 집사는 갓돈교회를 이루는 기둥이 되었다.

1971년에 강원도 원주교회를 개척하고, 1973년에 서울 상계동 희망촌 교회로 부임하였다가 1981년 12월 이신이 소천 하던 때에 다시 소생하기 어려운 중병을 얻어 연세대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고쳐주었고 오늘의 상계 그리스도의 교회 자리를 매입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셨다. 김정만은 12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993년 이 상계동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은퇴하였다.

목회자로서 김정만은 김은석, 정찬성을 스승목사로 모셨고, 김재순, 최요한, 심영진, 이신, 김상호, 이원로(노), 조길재, 지철희, 이재석, 홍승만(이상 목사), 김교인, 이학재, 김길홍, 조춘식, 박오복(이상 장로), 박양순, 최돌연, 김광희, 박정희, 김옥수, 이희, 김정례, 지재성, 정현매, 권영신(이상 집사) 등을 잊을 수 없는 동료들로 기억하였다.

김정만 목사는 3남1녀를 두었으나 가난하여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다. 한 때는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기기도 하였다. 목회 중에 성령님의 역사도 많았다. 자만할까봐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였다. 교회를 핍박하던 동네 깡패를 회개시키기도 하였다. 쌀이건 보리건 들어오면 신도들에게 나눠줬다. 새끼 돼지를 나눠주며 교인들이 살아갈 방편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정만 목사는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으며 신약성경교회 회복에 힘썼다. 성경에 없는 것은 결코 따르지 않았다. 그 단적인 사례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권사를 세

우지 아니한 것이었다.

11) 장주열 목사(1923.5.4-1983.12.18)

장주열 목사(뒷줄 왼쪽 선교사 좌측)
안양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예식 기념(1961년 3월 19일)

장주열은 최요한 목사의 큰 동서로 불교가정에서 자랐으나, 결혼하기 위해서 선을 본 여자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기에 그 여자와 결혼할 욕심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하였다. 장주열은 약속대로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 영흥교회에서 학습세례를 받고 김순례와 혼인을 하였다.

1946년 1월에 전남지방을 순회하며 부흥회를 인도하던 김은석에게 큰 은혜를 받고, 영흥교회 장로를 설득하여 1946년 2월에 영흥교회에서 김은석이 인도하는 부흥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손아래 동서인 최요한과 처제 김정녀를 그 부흥회에 초청하였다. 그 부흥회에서 최요한과 사모 김정녀, 장주열과 사모 김순례는 교우들과 함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로 인해 일주일 하려 했던 부흥회가 열흘로 연장되었다.

이후 장주열은 최요한이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에서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할 때 직접 교회당을 지었고, 10여리 떨어진 곳에서 신흥교회를 걸어 다니며 봉사하였다.

장주열은 동서 최요한, 함태영, 김재순과 함께 광주와 목포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고, 1951년 늦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교역자회로부터 김은석의 주례로 최요한, 김재순, 함태영, 이신, 김동열과 함께 목사안수를 받았다.

장주열이 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할 때 아들

장복남이 폭격을 맞아 위급한 상태였는데도, 기도하고 교회에 뉘어 놓고 전도를 나갔으며, 15일이 지나자 깨끗하게 치유되었고, 주일 날 주의 만찬을 하려고 잔에 물을 부으면 곧 예수님의 피같이 되었다고 김순례 사모는 회고하였다. 또 공산군에 잡혀 인민재판 중에도 몇 번이고 풀려났으며, 부산에서 성령 대부흥회를 인도할 때에는 조용기 목사까지도 장주열의 안수를 받았다고 김순례 사모는 회고하였다.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는 1958년 5월 5일에 김은석 목사로부터 집중강의 일정을 통보받았고,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신약교회로의 환원'이란 주제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가 개최되었을 때 참석하였으며, 60년대 중반에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연합회에도 참석하였다. 1961년 3월 19일에는 존 힐(통역 김찬영)을 초청하여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내천동 706번지에 소재한 안양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침례식을 거행하였고, 이듬해인 1962년에는 안양교회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장주열 목사는 청주교회, 수원교회, 안양교회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983년 별세하였다. 자녀로는 복남, 성순, 성례, 성님이 있다.

12) 최요한(용환) 목사(1923.01.20-1998.03.28)

최요한은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에서 장로교인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고종황제 시절부터 친가와 외가 모두가 3대에 걸쳐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1944년 1월 20일 역시 장로교인인 김정녀와 목포장로교회에서 결혼하였다. 세례교인이었지만, 1947년 7월 중에 전남 영광지역을 순회하던 중에 침례가 성경적임을 깨닫고 김은석 목사에게 침수세례를 받았다.

(1) 자생적 신약성경교회 활동

최요한은 재건파와 고려파 신앙과 맥이 같이 하였다. 최요한이 김은석을 처음 만난 것은 큰 동서인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흥장로교회 장주열 집사가 우연히 김은석의 순회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큰 은혜를 받

최요한(용환) 목사

았고, 김은석을 초청하여 부흥회를 열자고 교회 장로를 설득하여, 그 날짜를 1946년 2월 초로 잡았다. 장주열은 부인과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손아래 동서 최요한 부부를 찾아가 부흥회 소식을 알리고 참석을 권유하였다.

부흥회 다섯째 날에 진리의 영이 최요한에게 임하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70쪽에 의하면, 최요한은 이날 자기 마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분쟁은 죄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고 한다. 참석한 100여명의 신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였다. 그로 인해 일주일 하려 했던 부흥회가 열흘로 연장되었다. 이 부흥회 기간에 최요한, 김정녀 부부는 김은석을 집으로 초청하여 성경강의를 들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최요한은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 자택에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교회를 개척하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는 최요한이 김은석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자택에서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한 것은 김은석의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7개월이나 앞서는 것이고, 충청이남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자생적 그리스도(인)의교회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김은석이 김교인 장로의 초청으로 부강 오데골 장로교회에 부임한 것은 해방직후인 1945년 가을이었다는 전통적인 주장에 반해, 김규상 목사의 증언에 의존하여 그보다 일 년이 늦은 1946년 가을이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최요한은 1946년 2월 영흥장로교회 부흥회 때 혹은 자신의 집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만 목사는 1945년 12월 하순경에 정찬성과 김은석으

로부터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김정만은 1946년 반능교회를 섬기던 중에 담임 정찬성의 권유로 부강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서 공부하였고, 1949년 가을에는 정찬성, 김은석 두 목사들과 함께 서울 필운동 교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가르치는 성낙소, 최상현과 성령론에 관한 논쟁이 있음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였다. 이 증언은 김은석이 1945년 가을에 부강장로교회에 부임하였다가 1946년 어느 때에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또 박점상 목사는 1946년에 김은석과 함께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환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찬성 목사는 1946년에 공부한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제1기생으로 알려져 있다. 정찬성은 김은석에게 오데골 장로교회를 나온 후 새로 시작한 부강교회의 이름을 로마서 16장 16절을 들어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를 것을 권하였다는 김정만 목사의 증언이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이러한 자료들은 김은석이 부강장로교회에 부임한 것이 1945년 가을이었고,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가 1946년 어느 시점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정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만일 목포교회의 주장처럼, 1946년에 시작된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존재여부를, 다만 몇 개월간이라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된 교회들이라면, 성낙소에 의해서 1927년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 사랑채에 세워진 '기독지교회'(基督之敎會)에 이어 충청이남지역에 자생적으로 생긴 신약성경교회 운동이 될 것이다.

최요한은 1946년 4월에 시작한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 그리스도의 교회가 10월에 50여명에 이르자 김재순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10월 초에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 동네 창고를 대여 받아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였다가 석성리 청학동으로 이사하여 예배당을 짓고, 이름을 '석성리 그리스도의 교회'로 정하였다. 1950년대 중반에는 이 교회의 창립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노의수 집사가 석성리 신생동 교회와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를 인도하였으나 발전하지 못하다가 김재순이 석성리 청학동으로 옮겨와서 신앙촌을 만들어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교회 터가 김재순의 부친 김교인 장로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이 무렵에 김교인은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석성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순복음교회로 이적 시켰고, 700

평 땅을 기증하여 50평 예배당을 짓게 하였다.

김교인은 1956-57년경에 순복음교회로 이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김교인이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에서 1957년부터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김은석의 1954-56년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와 '신생동 교회'가 여전히 노의수 집사(전도사)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었고, 김은석이 내려와 이 두 교회에서 백일성경연구회를 개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은석의 1954년 6월 14일(월)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김은석이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김교인의 집에 잠시 들리고 있고, 8월 8일(일)자 성경통독메모에 의하면, 김은석이 오전에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김교인 장로댁에서 아가서 4장을 읽고, 오후에는 손불면 신흥교회 주택에서 아가서 4-6장을 읽고 있다. 1956년 7월 16일(월)자 언급에 의하면, 김은석이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산18번지 김교인 장로댁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1956년 12월 13일(목)에는 김은석이 김교인과 함께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 노의수의 객실에 머물렀다.

김은석은 1955년 10월 15일부터 1956년 (2월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1월까지 이 두 교회당에서 백일성경연구집회를 열어 노의수 집사 등을 헌신적으로 가르쳤다. 이 백일성경연구집회 때는 유난히 추웠는지, 10월 20일(목)에 일기가 차서 고생이라고 하였고, 12월 16일(금)은 크게 추웠다 ("今朝는 大寒이 되엿슴)고 적었다. 이날 아침 김은석은 대전에 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간다고만 하면 섭섭해 하니 답답함."이라고 적었다. 김은석의 이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청학동 그리스도인 집회소에 대한 언급은 백일성경연구집회 중이었던 1955년 10월 21일(금) 이후에, 신생동 교회는 1956년 12월 13일 이후에 끊겼다. 김교인과 노의수에 관한 언급도 끊겼다.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김은석의 헌신적인 수고에도 불구하고, 순복음교회로 이적한 김교인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다음은 김은석이 남긴 1956년 12월 13일자 성경통독메모이다.

> 1956년 12월 13일 새벽(목) 2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면 석성리 신생교회 노의수 형제 객실에서 김교인 장로님과 임남규 형제와 동숙하던

중, 起坐禱하다가 나의 사명인 주님이 맥기신 일을 하는바 앞흐로 서울 성경신학교로 간다고 한말을 대답한 후 또한 들이난 일리 있슴으로 그만 둘 것을 다시 思에 작뎡하고 김재순 목사게 편지하고서 지금 이 신생동서 1월시까지 공부한다고 광고하야 사람들리 오난 일과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엇지할가 하다가 성경 빌서를 보난 중 1장 27-2:1-2,14을 생각하는 중에서 지금 갓치 하는 일은 마음을 갖치 하는 일리 되지 못하고 원망과 시기와 분쟁이 표현하는 것을 보아 아무리 생각하여보아도 나는 갓치하지 못하고 따로 떠러저서 내게 맥기신 주님 명령을 실행하여야 갯다는 생각이다. 내가 기도드리다가 성경 보면서 생각하야 이 일을 기록하는 시간은 3시 20분이엿다. 신생동 노의수 집사댁 객실에서 記함. 김은석 止.[718]

(2) 1946-50년 기간에 세워진 교회들

최요한은 1946년 4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동년 10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석성리 청학동으로 이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후, 이듬해인 1947년 1월초에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719] 김광음(정귀남의 모친) 집사 집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평산리 교회에 관한 언급은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1953-58)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임춘봉, 박점상, 지철희 등이 목회하였고, 정귀남[720] 집사(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갈라져 오늘에는 무안 현경현화 그리스도님의 교회로 이어가고 있다.

참고로 성낙소 목사는 단기 4286(1953)년 7월 3일에 『신약교회 목회학』를 발행한 바 있다. 이 귀한 책을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가 지철희 목사로부터 기증받아 매우 어렵게 편집한 바가 있다. 지철희는 이 책을 정귀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책 뒷장 겉표지에는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 1958년 2월 10일 구입 지철휘"라고 적혀 있다.

최요한은 1947년 7월에 영광 무영교회 임장로 가정과 김집사 가정을 환원시켜 영광 무영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김재순에게 위임하였

718)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94.

719) 박점상의 처가 마을, 1951년 음력 8월 13일부터 이곳에 거주한 박점상은 자신이 건축하여 개척하였다고 증언함.

720) 지철희의 장인, 정일홍 목사의 부친.

다. 임장로의 딸은 그 후에 김재순의 제수가 되었고, 건축업자였던 임장로가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최요한은 1948년 3월 초에 광주 사동에 김윤선 집사의 소를 팔아 2층집을 세내어 광주 사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 무렵 최요한, 장주열, 김재순, 김동열 등은 광주에서 노방전도에 전념하였다.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에 광주 사동 교회는 1954년 9월 한 달 동안만 언급되었으며, 주소는 광주시 남구 사동 22번지였다. 이후 김동열이 광주 금동 그리스도님의 교회로 명칭을 바꿔 이어가고 있다.

1951년 늦봄에는 광주에서 최초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교역자회가 조직되었고, 초대회장에 김은석이 선출되었으며, 김은석의 주례로 최요한, 장주열, 김재순, 창현 함태영, 이신(이만수), 김동열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추측컨대 안수 장소는 사동교회가 아니라, 함태영이 1951년 5월에 광주 사직동공원 및 방송국 입구에 사재를 처분한 돈과 부친의 지원금과 영광 무영의 임장로의 헌금으로 구입한 일본 적산가옥 2층이었을 것이다. 이 건물은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 겸 신화신학 성경연구회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에 강순명이 1952년 7월 13일에 천혜 경로원을 설립하였다.

최요한은 1950년에 전북 고창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김윤선 집사와 김남수 집사가 영광무영교회가 너무 멀어서 고향인 고창 김윤선 집사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6·25전쟁 중에 8명의 순교자를 낸 곳이다.

이상 언급된 6곳의 교회들은 최요한이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세운 교회들이며, 오늘까지 남아 있는 곳은 김동열 계열의 무안 현경현화 그리스도님의 교회와 광주 금동(사동) 그리스도님의 교회뿐이다.

(3) 1951-55년에 세워진 교회들

최요한은 1951년 봄에 목사안수를 받고나서 장성기도원을 맡아 8개월간 시무하면서 침례와 주의 만찬예배를 드리며, 200여명이 함께 먹고 자며 기도하는 은혜의 동산을 만들었지만, 조순례 원장이 환생론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1952년 1월초에 기도원을 박차고 나와 기도하던 중

에 목포시 남교동 큰 시장 골목상가 2층을 전세 내어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러나 최요한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1953년 4월 8일 광주에서 개최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창립총회 때 (추측컨대 정찬성, 김상호와 함께, 김교인은 그보다 3-4년 후에) 이적하여 1953년 초에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1번지에 목포 유달 교회(순복음)를 개척하였다. 이곳은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진성구 장로가 구입한 건물의 2층이었다. 그러나 최요한은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주의 만찬예배에 대한 신념도 확고해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 김은석은 성경통독메모에서 1954년 6월 14일부터 전남 목포시 죽교동 39번지 2통 4반 해병대 앞 유달 교회당에 '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연구처'라는 간판을 붙이고 백일성경연구집회 등을 인도한 것으로 적고 있기 때문이다.

1955년 9월 25일에는 김사라 집사가 개척한 목포 복음교회를 시무하였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기공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건축이 된 상황에서 교회명칭에 대해 고민하던 중 최요한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로 정하기를 원했고, 제직자들의 투표에서도 그렇게 결정되었으나 창립자인 김사라 집사 측과 교회명칭으로 인해서 갈등이 커지자 1957년 10월 5일에 사임하였다. 그러나 이 교회는 지금도 침례와 주의 만찬을 소중히 여기는 대형 독립교회로 남아 있다.

(4)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최요한은 1957년 8-9월의 집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교회들로 복귀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10월 5일 목포 복음교회를 사임하기 직전에 목포시 대안동 11번지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교회는 당회를 통해서 창립연월을 일 년 앞당겨 1956년 10월 1일로 확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최요한 목사가 장성기도원을 박차고 나온 후, 1953년 초 목포시 죽교동 391번지에 유달 교회(순복음)를 개척할 때까지, 1952년 1월초에 목포시 남교동 큰 시장 골목상가 2층을 전세 내어 1년 정도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한 바

가 있어서 이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는 1957년 9월말부터 사택에서 20여 가정이 모여 기도에 전념하면서부터 잉태되었다. 진성구 장로가 큰 힘이 되어 오늘의 목포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 그는 장로교회에서 장로안수를 받은 이로서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던 중에 최요한을 만나 1952년에 상월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시켰고, 1953년에는 자신의 건물 2층을 유달 교회당으로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57년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척될 때에는 창립멤버로 전 가족이 헌신하였다. 그러나 그는 1968년에 목포 복음교회로 이적하였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1961년)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듬해인 1958년에 적산가옥을 개조하여 예배당 16평, 사택 10평을 마련하였다. 이 가옥은 크기가 200평이나 되는 건물로써 교회가 차지한 공간은 왼쪽 가장자리 26평이었다. 1961년에 이 가옥 뒤편 24평을 구매하였다. 이에 최요한은 50평 크기의 석재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반대하여 1968년에 진성구 협동장로, 1969년에 세 명의 장로들이 목포복음교회로 이적하였다. 최요한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50평 석재 본관건축을 착공하였다.

1971년 말에 1층 50평, 이어서 이층 25평의 석재 예배당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1972년 4월에는 현관을 아치형으로 개조하였고, 1977년 3월부터 3층 25평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총 건평 100평이 완공되었다. 1984년 11월 11일에 26평 아파트 한 채를 목사관으로 구입하였다. 1989년 10월부터 시작하여 교육관 50평을 확장하였다. 1995년 2월 27일에는 산정동 1112-3 대지 1500평을 매입하였고, 1995년 11월 6일에 착공하여 4층 720평의 예배당 건축을 완료하였으며, 1997년 11월 27일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에 헌당예배를 드렸다. 1967년에는 고하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었고, 고하도 교회 옆 자리에 1971년 감람산 기도원이 설립되었다.

최요한은 슬하에 6남 2녀를 두었다.[721] 동생 최요열은 순복음신학교(현 한세대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서 서울 이태원 순복음 교회에서 시무하다가 1960년대 기간에 존 J. 힐 선교사가 막 시작한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교수로 섬겼다. 1965년 12월 5일부터 부천시에 위치한 새소망교회(순복음)를 맡아 크게 성장시켰다.

최요한 목사는 1992년 12월 29일 은퇴 후 1998년 3월 28일(토)에 별세하였다.

(5) 최요한의 신학적 신념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333-359쪽에 의하면, 최요한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40여년을 섬기는 동안 줄곧 3생명, 즉 말씀의 생명, 성령의 생명, 성찬의 생명을 선포하였다. 이는 말씀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속죄와 구속을 상징하는 주의 만찬이 더해져야 비로소 생명의 완전성이 확보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 믿음을 떠받치기 위해서 최요한은 1년에 몇 차례씩 주일 대예배 때 구약의 성막도를 강단 벽에 걸어놓고 지성소의 언약궤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721) 목회자3, 장로2(교수1), 사모1, 집사2(안과의사1).

고, 그 속에 들어있던 돌비들은 말씀의 생명을,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성령의 생명을, 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성찬의 생명을 예표한다고 가르쳤다. 여기서 생명은 상징이나 기념 또는 형식 그 이상의 것,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이며, 구원과 직결되는 생명이다. 따라서 신약성경교회처럼 기도에 전념하는 동시에 신령의 예배, 진리의 예배, 진정의 예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을 강조하였다.

(6) 최요한 목사와 전남지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1950년대 충청전라지역에서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1960년대는 존 힐 선교사와 대전에 세워진 한국성서신학교의 영향력이 상당하였다. 힐의 영향력은 충청권에서 김은석의 것에 못지않았지만, 전남에서는 김은석만큼 크지 못하였다. 반면에 목포교회 최요한 목사의 영향력이 전남에서 점차 커져갔다. 힐 선교사가 은퇴하고 30대 중반의 김찬영 목사가 한국성서신학교의 교장이 된 1970년대부터는 김찬영과 한국성서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전북을 포함한 충청권과 최요한과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남권의 영향력이 점차 양분되어졌다.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 548-550쪽에 의하면, 최요한 목사는 1946년 4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신흥리(궁산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동년 10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포리(석성리 청학동으로 이전)에 그리스도의 교회, 이듬해인 1947년 1월초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그리스도의 교회, 1947년 7월에 전남 영광군에 무영 그리스도의 교회, 1948년 3월초 광주 사동에 그리스도의 교회, 1950년에 전북 고창에 그리스도의 교회, 1952년 1월초에 전남 목포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총 7개 교회를 개척하였다.

5년 후인 1957년 10월 1일에 오늘의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이 무렵에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교회를 환원시켰고, 이어서 진도 군내 그리스도의 교회, 신안 매화 그리스도의 교회, 여수 백초 그리스도의 교회도 환원시켜 총 4개 교회를 환원시켰다. 이후 1963년

에 목포 고하도 그리스도의 교회, 1969년 해남 상공 그리스도의 교회, 1970년 목포 외달도 그리스도의 교회, 1973년 목포 달리 그리스도의 교회, 그밖에 여수 화정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충남 금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여 총 6개 교회를 개척하였다. 1972년 최수신 전도사의 광주 발산 그리스도의 교회, 1981년 광주 무등산 그리스도의 교회, 1986년 광주 그리스도의 교회, 이상 3곳은 최요한 목사의 지원에 의해서 개척되었고, 새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죽교동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형제 그리스도의 교회, 이상 3곳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태가 되어 개척되었다.

이밖에도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 그리스도의 교회, 해남군 화산면 마명리(화산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해남군 화산면 사포리(화산 반석) 그리스도의 교회, 해남읍 부호리 그리스도의 교회, 신안 압해면 고이 그리스도의 교회, 목포 서남 그리스도의 교회, 영암군 영암읍 평리 그리스도의 교회, 이상 7곳이 최요한 목사의 영향을 받아 환원한 교회 또는 개척된 교회들이다.

13) 고광석 목사

고광석 목사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는 1950년대 중반부터 김은석 목사의 제자와 동역자로 활동하였고, 존 힐 선교사가 대전에 정착한 1959년 초창기부터 시작하여 60년대 내내 힐 선교사의 사역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1953-59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722]

첫째, 고광석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학생이었다. 고광석은 1955년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교회에서 진행된 백일집중공부에 참여하였다. 김은석은 이때 이미 그를 전도사로 호칭하였다. 1955년 5월 27일자 메모에 의하면, 이날 남녀 합하여 18명이 공부하였는데, "소수교회당에서 백 일간에 공부하는 중에 공부함. 김재순 목사 서울 가심. 고광석 전도사님은 권영수, 전도희 두 분과 전도 가심."이라고 적었다.

722) 조동호,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도서출판 시시울 2020): 109-228.

김은석 목사의 제자이자 존 힐 선교사의 동역자였던 고광석 목사
(상) 1960년대 장소 미상의 교회. (하) 1960-62년경 대전 신흥교회
좌측부터 임춘봉 목사, 존 힐 선교사, 고광석 목사, 최보열 목사.

둘째, 고광석은 바울의 디모데처럼 김은석의 충실한 제자였다. 김은석이 가는 곳에 바늘과 실처럼 동행하였다. 1955년 6월 18일(토) 오후에 김은석, 김완례 부부와 동행하였고, 7월 8일에는 김은석과 함께 청주에서 소수교회로 향하였다. 또 12월 21일(수) 아침에는 김은석과 함께 서울성서신학교 숙사에서 지냈다. 1957년 4월 27일(토)에는 고광석이 김은석, 김규상 등과 함께 전남 해남군 마산면 장성리에 머물렀다. 김은석 목사의 병문안 또는 부름을 받고 자택을 방문한 기록이 1958년 1월 27일까지 몇 차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고광석은, 김은석의 성서통독메모들을 근거로 볼 때,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이었거나 충북 청주시 영운동이 거주지였거나, 1956년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영운동에 개척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석 목사는 1956년 6월 23일(토) 아침에 청주역에서 기차 타고 소수교회로 가기 위해서 강신규 자매와 함께 영운동 고광석 전도사 집에서 나온 것으로 기록하였고, 8월 17일(금)자 기록에 의하면, 김은석이 김은영, 고광석, 노의수와 함께 충북 청주시 영운동 교회당에 머문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로 영운동 그리스도의 교회는 김은석의 주소록에 남아있지만, 존 힐 선교사의 주소록에서는 찾을 수 없다.

넷째, 고광석은 병약하였다. 1955년 7월 19일 아침에 김은석이 대전 자택에서 부강으로 향하였는데, 부강에 도착해 보니, 고광석 형제가 병중이어서 수리교회에 가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 1955년 8월 16일 김은석은 사모 김완례와 김옥여, 이원노, 강신규와 더불어 병원에 입원한 고광석 전도사를 병문안하고, 대전 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 애생원

(愛生園)을 방문하였다.

고광석 목사는 1960년대 존 힐 선교사의 선교사역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존 힐 선교사는 가족과 함께 1959년 8월에 부산을 통해서 입국하여 대전에 정착하였다. 1959년 12월 1일 심영진 목사가 시무하는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에서 신학교를 개교하고 예배당 앞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에 고광석이 존 힐 부부,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 오재건, 고재윤, 김찬영 등과 함께하였고, 수업시간 혹은 개강예배에도 참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듬해 1960년에는 고광석이 시무하던 선화동교회로 옮겨 수업을 계속하였다. 이후 1960년대 중반에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에 참석하였고, 힐 선교사가 남긴 사진들에서 그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14) 지철희 목사

전남 광주 김동열 목사님을 방문했을 당시 지철희 목사

지철희 목사는 1937년 8월 29일생으로써 소년시절부터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목회자들을 자주 접할 기회를 가졌다. 12세 무렵에 정찬성 목사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교회를 지철희의 누나 집에서 시작한 바가 있고, 20대에는 박점상 목사로부터 전남 무안군 현강면 평산리 교회의 정귀남 집사의 딸을 소개받아 김재순 목사의 약혼식 주례와 김은석 목사의 결혼식 주례로 1957년 11월 말에 결혼하였다. 김정만 목사도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지철희는 젊어서 김은석 목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초기 목회자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교회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교회에서 이뤄진 신화신학 성경연구회에 참석하여 강의와 설교를 듣고 목회자가 되었다. 이 무렵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이혜순, 나

연찬, 김태수, 김철수, 심영진, 박병우, 김정만, 박점상, 김은성, 김은영, 모갑경 등이었다. 지철희 목사는 이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였다.

당시 부강에서 성경공부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가난했다. 나도 그랬지만, 대략 모인 사람들이 100-150명 이상이었는데, 항상 있는 사람은 7-8명 정도로써 대략 식량을 가져오는데 1-2말 가져오고 반찬도 제각기 가져오고 그래서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해서 부강 근처 들녘으로 가서 버려진 배춧잎 무청, 고구마줄기 같은 것 그리고 장날이면 장터에 버려진 먹을 만한 것들을 주어다가 충당하고 없으면 금식하고 그러다가 힘들면 집으로 돌아갔다. 마치 전기충전소와 같이 은혜와 말씀이 그리우면 또 약간의 양식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면서도 불만이 없고 그저 형제자매 모매님 하면서 걱정해주고 위로하였다. 환자가 많이 왔는데, 함께 간호하고 기도하며 누가 무엇을 시키지도 않고 무엇을 하라는 감독도 없었다.

전남 지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왔고, 주로 청주와 대전근방에서 왔다. 충주에서 이종석, 이갑수, 정석기, 이원로(노), 조춘식, 김정만, 지철희, 이안식, 이학재 등이 왔다.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설교를 듣다가 너무나 기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찬송이 나오고, 결국에는 설교자나 듣는 이가 자연히 합창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 하시면 무릎을 꿇은 채로 30-40㎝까지 뛰기도 하였다. 얼마나 뛰었는지 결국 마루 장까지 꺼졌다 한다. 그러다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부강 장날 거리를 급히 오고 가면서 외치기를 이 썩은 보리 찬밥 덩어리들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생명 떡으로 배불림을 받고 쉼을 받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외쳤다.

고 김은석 목사님의 설교는 대략 열변이 아니고 조용한 강의식이었다. 신구약 성경을 오가면서 구약에서 물으면 신약에서 답을 하고 신약에서 물으면 구약에서 답이 나오는데 정확하고 일반적으로 아는 답보다 훨씬 새로웠다. 그래서 듣는 이가 무릎을 치며 기뻐하고 감사하곤 했다. 내가 보기로는 어느 성경학자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통달한 분이었다.

어느 산이든 풀밭이든 앉으면 그 자리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쉬고 먹는 시간외에는 성경을 보고 찾는데, 성경이 걸레쪽같이 낡고 찢어진 것을 보았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존경하고 그에게 모인 것 같다. 그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장 엄격히 가르친 것은 동참 죄를 가르친 것 같다. 그리고 우상타파와 그리고 기성교회 목사들은 바리새인들이다. 그리고 세례 성찬을 왜곡함으로 구원받는 문제도 그들은 어렵다고 하셨다. 그래서 일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을 것이다.[723]

1960년대 초기암교회 성도들과 지철희 목사

지철희 목사는 최요한 목사가 평산리 처가 마을에 1947년 1월 초에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결혼한 1957년에 첫 목회를 시작하였다. 평산리 교회는 1960년대에 대전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가르친 임춘봉 목사와 박점상 목사가 목회하였고, 지철희의 장인인 정귀남 집사(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갈라져 오늘날에는 무안 현경현화 그리스도님의 교회로 이어가고 있다.

참고로 성낙소 목사는 단기 4286(1953)년 7월 3일에 『신약교회 목회학』를 발행한바 있다. 이 귀한 책을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가 지철희 목사로부터 기증받아 매우 어렵게 편집한 바가 있다. 지철희는 이 책을 장인 정귀남 집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였으나 책 뒷장 겉표지에는 "평산 그리스도의 교회 1958년 2월 10일 구입 지철휘"라고 적혀 있다.

김은석 목사가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집중강의 일정을 통보하기 위해서 보낸 1958년 5월 5일자 전보수신자에 지철희 목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김은석은 1958년 7월 10일부터 소년성경학이 개설된다는 것과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성경공부가 있다는 통신문을 총 54명과 6곳의 교회에 보내었는데, 그 속에도 지철희 목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후 지철희 목사는 한국성서신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였고, 1973년에 제21회로 졸업하였다. 지철희는 일평생 교회개척에 힘을 썼으며, 개척 후 교회가 성장하면 미련 없이 새로운 개척지를 향하여 떠나곤 하였다.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벧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무하였고, 암으로 투병 중에 73세의 나이로 2010년 11월 21일 별세

723) http://kccs.pe.kr/xianch28.htm.

하였다.

15) 심영진 목사(1921.2.28-)

심영진 목사

심영진 목사와 김은석 목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근거는 몇 장의 사진들뿐이다. 1958년 4월 13일(주일) 산상연합집회 중에 김은석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고, 한국성서신학교가 설립된 직후, 교수로서 1959-60년 겨울에 존 힐 선교사 부부, 김은석, 김태수 및 오재건, 고재윤, 고광석, 김찬영 등과 함께 자신이 시무한 충남 대덕구 유천면 도마리 성화교회(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지만, 심영진의 이름은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나 통신 및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명단에서 찾을 수가 없다.

심영진 목사는 1921년 2월 28일 출생하였다. 심영진은 유교와 불교를 전전하며 10여년을 방황하다가 계시를 받고 개종하였다. 1953년 충남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309번지 유천면장 손기섭씨 가정에서 성도 9명으로 장로교회를 창립하였고, 1954년 4월에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로 발전된 장소에 천막교회를 세웠다. 1958년 8월에는 흙벽돌로 20평 교회를 신축하고 교회명칭을 성화교회로 정하였다. 한국성서신학교가 1959년 12월 1일에 시작된 장소가 바로 이 건물이었다.

심영진은 바로 이 무렵, 즉 1958년경에 김은석을 만나 환원하였다. 성경을 읽고 세례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그가 받은 약식세례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 일로 고심하고 있던 차에 마침 김은석 목사가 대전 은행동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저물도록 세례에 관해서 토론하였으며, 그 후 일주일간 매일 만나 성경을 놓고 토론하던 중에 더욱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갖게 되었다. 같은 주간에 방서리

교회에서 김은석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회가 있었는데, 함께 가자는 권유를 받고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심영진은 1958년 4월 13일(주일) 산상연합집회에 참석한 기념으로 김은석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상좌 시계방향으로 1954년 천막교회; 1958년 8월에 건축된 20평 크기의 흙벽돌교회; 김은석 목사와 함께한 심영진 목사(산상예배기념, 1958년 4월 13일 주일); 1963년 9월경에 시작한 40평 크기의 시멘트 벽돌교회, 좌측부터 김순철(목사), 심영진 목사, 오재건(장로).

집회에서 돌아온 심영진 목사는 김은석 목사로부터 부부가 대전 유등천에서 침례를 받았다. 심영진은 이 사실을 교회에 알리고 양심상 장로교회를 할 수 없다고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환원시켰다. 1963년 9월에 시멘트벽돌로 40평 교회를 신축한 후 성화교회(聖火敎會)를 도마기독지교회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1975년 12월 4일에 연화 벽돌로 91평 교회를 신축하고 교회 명칭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로 변경하였다. 그 후 5년 만에 500평 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1958년에 환원한 심영진 목사는 1960년대 기간에 한국성서신학교에서 교수로서 가르쳤고 존 힐 선교사와 협력하였다. 또 심영진 목사는 1959년에 개최된 제1회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연합회에 성낙소, 장성만, 최요열, 이신 등과 함께 참석하였고, '신약교회로의 환원'을 주제로 1961년 8월 17일 부강교회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연합회에도 존 힐, 장성만, 박재관, 김동열, 이종만, 정인소, 김찬영, 김성철, 이신, 장주열, 성낙소, 안일승, 고재윤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심영진은 현재의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3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계시록 연의』, 『계시록 서기』, 『성막 조성론』, 『선지자의 사명』, 『

창조와 섭리』를 저술하였고, 은퇴하고 서울 돈암동교회를 담임하다가 다시 대전으로 내려와 개척교회를 섬겼다. 사모 박영자로 더불어 일곱 남매를 두었다.

16) 김동열 목사(1922.09.05.-2008.08.23)

김동열 목사

김동열 목사는 김은석 목사의 신화신학 성경연구회 초창기에 정찬성, 장주열, 김명석, 김재순, 최요한, 김상호, 구광서, 박점상, 김정만, 창현 함태영, 이원노 등과 함께 공부하였다.

1951년경 영광에서 개최된 김은석 목사의 100일 집회에 김규상과 함께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고, 1951년 늦봄에 광주에서 한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교역자회가 조직되어 김은석이 회장으로 뽑혔고, 목사안수식도 있었다. 이때 김동열은 이신, 장주열, 최요한, 김재순, 함태영과 함께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김은석의 성경통독메모에는 1954년 7월부터 1955년 7월까지 만 1년간의 행적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1954년 7월 22일 아침 신탄진 예배당에서 예레미야 2:9-3장을 봉독함. 오정에 신탄교회당내에서 예레미야 4장 봉독. 김도철, 김동렬 합석 교회사 의논함. 밤 부강교회 강단 앞에서 예레미야 5장 봉독.
>
> 1954년 7월 27일 . . . . 저녁에 서울시 동대문구 숭인동 72의 77번지 천세영씨 큰 댁에서 아모스 1-2장을 봉독. 김동열 형과 동류(同留)함.
>
> 1954년 7월 28일 저녁에는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15번지 삼신상회 이기철 형제 댁에서 아모스 8-9장을 봉독함. 동행동류 김동열 형과 모친님. 서울서 대전 자택에 돌아와서 차서(此書) 오바댜를 봉독함.
>
> 1954년 7월 29일(목) 서울서 대전 오는 중 김동렬 모친 분과 동행 중 차내에서 마태복음 14-16장까지 봉독함.[724]

724)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30-131.

1955년 6월 23일(목) 오후에 부강교회당 방에서 에스라 1:1-2:59까지 봉독. 김완례씨 대전가심. 오후에야 마가복음 10:47-12:12과 에스라 2:60-6:7까지 봉독함. 김동렬 형제가 부강교회에서 상봉. 전도희 자매 청주가심.[725]

1955년 7월 12일 아침은 대전 자택에서 이사야 41:1-43:28까지와 누가복음은 10:17-11:20까지를 김은순, 김명순, 김완례씨와 같이 봉독함. 5시 20분 발차로 부강행 차 김동렬 형제 동행. 부강 도착.

1955년 7월 19일 아침 대전 자택에서 새(이사야) 63:9-66:24까지 봉독하고 부강행중 차내에서 누가복음 17:14-18:30까지 봉독함. 부강도착해보니 고광석 형제가 병상에 있어서 수리교회도 못가셨다 함. 작일 18일 김동열목사 내부(來芙, 부강에 오시기로) 약속하였었는데 못 오셨으니 하(何)유사(有事)인가 함이라.

1955년 7월 27일(수) 아침 부강교회 강단에서 예레미야 23:14-25:33까지와 요한복은 2:1-3:24까지 봉독함. 김태열 자매 수리 가심. 서울행 차중에서 마태복음 11-13장까지 봉독. 서울행 하게 되는 사명은 선교사 방문차 김동렬 형 모친님과 삼인 동행. 오후에 교사 1차 요함.[726]

마지막으로 김동열 목사는 김은석 목사로부터 1958년 5월 5일에 집중강의 일정을 통보받고 있다.

김동열 목사는 1960년대부터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Kwang Ju Church of Christ)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님의 교회교역자회'를 이끌었다. 그러나 김동열 목사의 "폐쇄적 근본주의 노선"을 타 교단에서 오해하여 이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광주와 전남지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발전에 타격을 입었다.[727] '그리스도님의 교회교역자회'는 한 때 15개 교회에 이르렀으나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김동열 목사의 두 자제 김승복 목사와 김환 목사가 시무하는 광주 그리스도님의 교회를 포함하여 5개 교회 정도만 남아 있다.

김동열 목사의 신학적 입장은 김승복 목사와 김환 목사가 공동으로 엮어 출판한『요한복음 영해』에 잘 들어나 있다.[728]

---

725)『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52.

726)『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 154-156.

727) 목포그리스도의교회 교회사편찬위원회,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50년사(1956-2006)』: 381.

728) 김동렬,『요한복음 영해(상,중,하1,하2권)』(도서출판 소복,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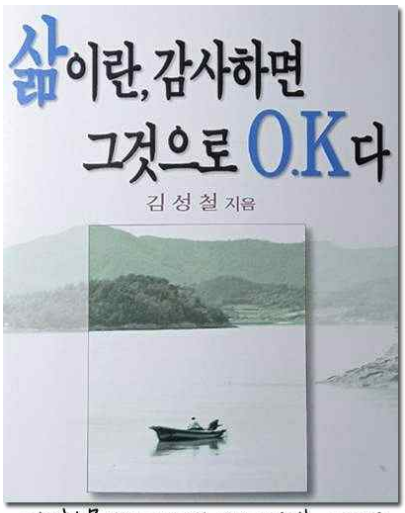
17) 김성철 목사

김성철 목사 부부와 힐로한(John Hill) 선교사(1990년 5월 13일)

김성철은 극한 가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일어선 성공한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목사이다. 그의 성공적인 삶에 작용한 힘은 두 가지였다. 한 가지는 그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오롯이 바친 헌신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자신의 성품 곧 신실함과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이었다.

상당한 부모들이 자식들의 성공에 엄청난 공을 들이지만,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고 따라서 부모들에겐 아쉬움과 회한이 남는다. 그런데 김성철은 양부모든 생부모든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그 어떤 도움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주경야독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마쳤으며, 도미하여 목회에서는 물론이고, 사업에서까지 성공을 거둔 것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러니가 아니라 역설이었다. 김성철의 성공이 자식에게 아무 것도 해준 것이 없고, 남겨준 것이 없는 양부 김은석 목사와 생부 김주일 목사가 오롯이 하나님께 바친 헌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쏟고 대신에 가족과 자식에게는 아무런 정성도 쏟지 못했는데도 가족이 잘되고 자식이 성공한 것은 성공법칙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 역설의 증거가 바로 김성철 목사이다.

김은석 목사가 양아들 김성철에게 남긴 유산은 수차례에 걸쳐 제본을 반복하고, 메모용 속지들을 삽입한 1920-30년대에 출판된 아주 낡은 조선어와 한문이 혼합된 선한문(鮮漢文) 관주 성경책 한권뿐이었다. 그러나 그 한 권의 책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또 돈으로는 살 수 없



김성철 목사의 자전적 에세이(진흥, 2000)

는 위대한 신앙유산이 담겨 있었다. 그 유산은 다름 아닌 김성철의 성공적 삶을 위한 종자씨앗이었다.

김성철 목사의 자전적 에세이집,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를 보면,[729] 일평생 김성철 목사가 받아 누린 그 많은 은총과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양부 김은석 목사와 생부 김주일 목사가, 비록 그들이 아들 김성철에게 물질적으로 잘해준 것이 없고 남겨준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바친 그 지극한 충성과 헌신을 보답한 것이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당연히 김성철 목사가 복을 받게 된 것은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히 신실했고, 진실하고 성실한 불굴의 노력과 특유의 부지런함에 기인한 바가 컸다. 또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며 잘 가르쳐 명문 학교를 나오게 하고, 돈 많이 벌어 억만금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세속적 가치관에서는 중요할는지 몰라도, 자손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에 넉넉한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쳐 그 은총의 보답이 자손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김성철 목사의 삶이 입증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김성철은 1938년 5월 17일 일본 야마구찌(山口) 현(縣) 아사厚狹)에서 김주일(명석) 구봉림 부부 사이에서 2남으로 태어났다. 아사는 시모노세키에서 가까운 바닷가 마을이었다. 위로 세 살이 더 많은 형이 있었다. 네 살 때쯤 아버지가 징용을 피해서 산골 마을 '샛토 쓰스미'로 이사를 했다가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미호'로 이사하였다. 김성철은 이 '미호'에서 여섯 살 때 집에 찾아온 김은석 목사 내외를 처음 뵈었다.

729) 김성철, 『삶이란, 감사하면 그것으로 OK다』(도서출판 진흥, 2000).

전쟁직후에 무법천지가 된 위급한 상황을 피해 온 가족이 시모노세키까지 걷고 또 걸어서 도착하였고, 일본을 탈출하려는 조선인들의 아비규환 속에서 가까스로 부산행 배에 올라 죽을 고생 끝에 부산에 도착하였으며, 밀양시에서 가까운 '예림'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리고 3년쯤 후인 1948년경에 김은석 목사의 양자가 되었다.

집은 서울 북아현동 금화산 언덕에 있었다. 이 집은 양어머니 김완례 사모, 누나 김명순, 어린 김성철의 힘만으로 지은 방 세 칸짜리 집이었다. 양아버지 김은석 목사는 늘 교회들을 순회하였기 때문에 집에 계신 날이 거의 없었다.

1950년 6·25전쟁이 터진 직후에는 13살 어린 나이에 한 달가량 몸져누웠다가 일어난 양아버지 김은석 목사를 모시고 부여 규암면 합송리로 피난을 갔었고, 1950년 9월 중순에 펼쳐진 UN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서울로 되돌아갔다가 1951년 1·4후퇴 때에는, 김은석 목사가 경남 사창(창녕군 부곡면 사창리?) 형제들의 집에 가셨기 때문에, 양어머니 김완례 사모를 모시고, 부강에서 북쪽으로 20여리 떨어진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칠미'라는 시골동리로 가서 3개월 정도 지내다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수리에 계신 친부모 근처로 가서 지낸 후에 서울이 재탈환되고 나서 서울 집으로 되돌아왔다. 그 후에 집을 팔고 대전 은행동으로 이사하였다.

대전에서는 새벽에 조선일보 호남 업무국에 나가 일하며 오후에는 충남상고(당시 남대전 상업고등학교)를 다녔다. 당시 19살(1957년)이었다. 얼마간 잡지와 신문가두판매도 겸하였다.

김성철은 1960년 만 22살이 다돼서야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충남대학교 사학과 야간대학에 입학하면서 새벽에 하던 신문사 일을 그만두고 기독교 세계 봉사회의 간사로 근무하였다.

1960년 5·16군사혁명이 있고나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자는 모든 직장에서 축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김성철은 일본 태생이라 호적이 없었으나 이승만 때 가호적제도가 생겨 호적을 만들 수 있었다. 가호적의 생년월일이 4살이나 줄어 있었는데, 몇 차례의 입영연기 끝에 군에 입대한 것은 1962년 10월경이었다. 김성철은 김은석 목사가 별세한 이듬해 1963년 1월까지도 부관학교 교육병이었다. 이 때문에 김성철은

양아버지 김은석 목사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였다.

1960년은 존 힐 선교사가 대전에 정착하여 신학교를 시작하던 때였는데, 1960년 초에는 신학교 수업을 선화교회에서 하고 있었다. 김은석 목사도 칩거(1958-59년 사이)를 끝내고 활동을 재개한 해였다.

1962년에 김은석 목사의 동향인 황해도 평산 출신의 양재문, 신용출 부부의 4남매 중 둘째 딸이었던 양정애 씨와 약혼하였다. 김성철은 혼전순결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교제하던 여성들과 일정한 선을 넘은 일이 없었다. 약혼자하고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해 학보영장이 나왔고, 10월초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였다. 친구 김만영(찬영)이 6개월 먼저 입대하여 김성철이 입소한 논산훈련소 29연대 1대대 1중대 의무대 기간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다. 훈련소에 근무했던 김진현 병장과 김만영(찬영) 일병이 도움을 줘서 인사행정 주특기를 받아 육군 부관학교에 입교할 수가 있었다.

1963년 1월에 양아버지 김은석 목사가 충남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중에 소천하였지만, 약혼녀로부터 편지를 받고서야 그 전에 이미 전보와 관보 등이 영천 부관학교에 송달되었지만, 교육을 받고 있던 훈련병이어서 규칙상 그것들이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부대에서 일주일 외출증을 끊어줘서 김은석 목사가 돌아가신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약혼녀와 함께 산소에 다녀올 수 있었다.

산소에서 내려와 김은석 목사의 임종을 지켜본 최봉석 집사를 찾아뵈었다. 가족 중에는 아무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였다. 최봉석 집사는 아버지가 운명하시기 전에 아들 김성철을 여러 번 찾으셨다는 것과 성철이가 자기를 이어 꼭 목사가 되어야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은 김은석 목사가 늘 들고 다녔던 낡은 가죽가방과 그 속에 담긴 동전 몇 개와 낡고 오래된 성경책 한 권뿐이었다.

군대생활은 20사단 예하 연대에서 근무하였다. 그 시절 예하 2대대에서 어떤 선임하사가 유언장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을 처리하던 중에 갑자기 양아버지 김은석 목사의 유언 곧 "내 뒤를 이어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를 떠올리게 되었다. 김성철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버

지의 유언을 무수히 되새김질하게 되었고, "부친의 마음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김성철은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서 "그는 내가 미워서도 아니고 오직 신앙만을 위해 사셨는데, 아들 하나 목사 만들려고 세상 공부 외면해 가며 죽으면서까지 바란 유언..."이라고 기술하였다.

김성철이 양정애씨와 결혼식을 올린 것은 제대를 1년 반 정도 앞둔, 즉 군대생활 1년 8개월 정도를 마친 때였다. 결혼식 직후 김은석 목사 산소 곁에서 부부가 찍은 사진에는 인화한 날짜로 추정되는 '1964 7' 이란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있다. 그 후 양정애 사모가 첫 아이를 출산한 때는 김성철이 제대를 10개월 앞둔 때였다. 군대생활을 38개월 했기 때문에 제대는 1965년 12월경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철이 한국성서신학교 졸업식 사진에 처음 등장한 때는 1966년 6월 30일 제8회 졸업식 때이다.

제대 후 대전 교도소 교무과장이었던 김치연 목사가 섬기는 선화교회 재건축의 책임과 관리를 맡았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김은석 목사의 유언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선화교회는 김은석 목사가 1951년 3월 15일 완전한 서울 수복 이후 서울 북아현동의 집을 팔고 대전으로 내려와 대전시 선화동 315번지의 땅 385평을 매입하여 판자로 지은 예배당과 주택이 붙은 건물이었다.

김성철은 신학교를 운영하는 존 힐 선교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김성철은 신학교에서 일인다역을 감당하였다. 그는 서무과장, 기숙사 사감, 급식조달 책임자, 근로 장학생 관리책임자, 문과 과목 교수였다. 이뿐 아니라, 김성철은 충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후 경영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선교부의 총무와 <한국 크리스천 미션> 총무도 맡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첫째, 김성철은 부관학교 인사행정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행정력이 탁월했다. 그 덕분에 한국성서신학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둘째,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김성철은 신학교 업무 뿐 아니라, 조 가맨(Joe R. Garman) 선교사의 전도 집회 때에도 무대장치, 섭외, 포스터 인쇄, 안내문 발송 등의 일도

도맡아 하였다. 조 가맨의 전도 집회는 많게는 1,500-3,000여명까지 모이는 대 집회였다.

셋째, 김성철은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전설적인 인물인 김은석 목사의 아들이었으므로 신뢰도가 높았다. 이런 일도 있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모함으로 인해서 김성철이 사표를 쓰지 않을 수 없었을 때, 존 힐 선교사는 전 직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대단히 섭섭한 날입니다. 오늘로써 신학교를 닫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김성철 씨를 내보내고 나도 미국으로 떠납니다. 실망했습니다." 이런 충격 선언에 난리가 나고 수습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하였다.

김성철 목사의 충남대 경영대학원 졸업 기념사진
양정애 사모, 기수, 기원, 김성철 목사, 조사환 목사, 김찬영 목사

넷째, 김성철은 충남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당시로써는 높은 학력의 소유자였다. 김성철은 충남대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 충남지역 유지급 인사들과 교분을 쌓았고, 계룡 와이즈맨 클럽(30대) 제2대 회장도 역임하였다. 이 무렵 김히영 한국성서신학교 교수는 한밭 와이즈맨 클럽(40대)의 회장이었고, 훗날 국제 총재를 역임하였다.

1970년 사표를 쓰기까지 김성철은 대략 5년간 온갖 궂은 일을 다 맡아 하면서 한국성서신학교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학교를 사직한 후 존 힐 선교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김성철은 대전의 선교부와 서울의 '데이빗 리빙스턴 파운데이션'이란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1972년 미국에 이민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행한 마지막 일이었다.

김성철은 서울에서 각 교역자들이 일하는 40여 곳에 생활비를 보내주고 재단관리, 문서관리, 법적 공문관리, 고아원 협조, 그 모두를 종합해서 미국에 보고하는 일을 맡아했다.

미국에는 1972년 11월 20일에 도착하였다. 미국에 건너가서 조경자격증과 풀 깎기 자격증부터 취득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우미들을 붙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한 자를 도우신다.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김찬영 목사는 미국으로 떠나는 김성철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권면하였다. 그의 권면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수임료만 챙기는 변호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맡겨 영주권 취득이 물 건너갈 뻔했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면부지의 조사관 패튼부부를 알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정확히 처리하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영주권 신청을 맡기게 하셨다.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세워진 한인교회에서 전도사 사역도 하게 하셨다.

김성철 전도사는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도 애리조나의 그 뜨거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데, 폐에 이상이 있었던 것이다. 또 목사안수문제도 마음에 걸렸다. 일찍이 "지금까지 내게 앞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뜻만으로 내 앞길을 가렵니다."라고 서원했지만, 그 서원을 지켜야할지를 결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성철은 아버지 김은석 목사의 유언을 따라 목사가 되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영주권을 받게 될 것이냐 받지 못하게 될 것이냐를 놓고 뜨거운 땅바닥에 앉아 뜨겁게 기도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토롤라 회사의 기술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영수 집사를 붙여 주셨다. 그는 가족과 처가식구들까지 모두 이민을 왔기 때문에 이민에 관련된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말하길,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보증이니, 인터뷰 갈 때 자기 교회에서 보증을 서주겠노라고 했다. 그와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

다.

인터뷰를 한 달 앞두고 지정 병원에 가서 검사받은 결과를 담은 봉투를 받아 들고 열어보지도 않은 채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 중에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줄 터인데 너는 무얼 할 거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고, "내 뒤를 이어 목사가 되라"는 양부 김은석 목사의 유언도 상기되었다. 그래서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다.

존 힐 선교사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크리스천 미션 파운데이션 안에 재미한인을 위한 목사안수제도가 있다고 했다. 3일을 금식하고 신앙간증서를 제출한 후에 존 힐 선교사가 목회하고 있는 시애틀 야키마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1974년 7월 초 금요일에 존 힐 선교사를 비롯하여 총 다섯 분으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로부터 10일 후에 영주권 취득 인터뷰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재정 보증서를 써준 김영수 집사로 하여금 인터뷰에 동행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민관의 질문에 그가 알아서 대답하게 하셨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민관으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묻게 하셨고, "가족을 못 만난 지 2년이 되어 가족이 몹시 보고프다. 매일 아이들이 아른거린다"고 대답했더니, 이민관이 말하기를, "내가 가족이 미국에 이민 올 수 있도록 돕겠다."며 즉석에서 "이 사람의 가족 모두 시급히 이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전문을 한국 대사관에 쳐주게 하셨다. 이런 특별한 은혜로 온 가족이 여권을 내고 특급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1974년 11월 5일 미국에 도착하였다. 한국을 떠나온 지 2년 안에 이뤄진 가족상봉이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 십 수 년째 비자대행 업무를 담당했던 여행사 직원조차도 이런 비자는 처음 봤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나님의 뜻과 양부의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목사안수를 받자마자 영주권 인터뷰에 통과됐고, 영주권을 받고 또 4개월여 만에 특급으로 가족이민이 이뤄지게 되었던 것이다.

김성철 목사는 애리조나 주에서 시작한 첫 목회 때 사례비 전액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되돌려드렸다.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사모가 풍토병으로 고생했고, 둘째 아들이 건조한 기후 때문에 자주 코피를 쏟곤 하였다. 때마침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목회도 하고 식료품가게

도 운영하던 홍린원 목사가 그곳의 습한 기후로 인해서 기관지 천식을 심하게 앓고 있었는데, 지인의 권유로 애리조나 주 피닉스로 요양차 김성철 목사를 찾아오게 되었다. 홍린원 목사는 피닉스에 머물면서 병세가 호전되었다. 그래서 김성철 목사는 그분에게 교회를 떠맡기다시피 하고 가족과 함께 LA로 이사를 하였다. LA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피닉스에서 가족을 괴롭혔던 질병들이 모두 사라졌다. 홍린원 목사는 피닉스가 체질에 맞고, 김성철 목사 가족에게는 LA가 체질에 맞았던 것이다.

LA에서는 글렌데일에 거주하면서 글렌데일 중앙 기독교회를 설립하였다. 목회와 병행한 햄버거 가게의 수입이 신통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두를 빚어서 팔아 돈을 벌게 해주셨다. 햄버거 가게가 잘되자 가게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찾아 제값을 받고 팔아버리고, 채소와 과일을 받아다 파는 가게를 다시 열었다. 건물주가 "당신들은 하늘에서 낸 사람이다"고 말할 정도로 매출이 대단하였다. 돈 셀 시간도 없고 은행에 입금할 시간도 없어서 집 뒤뜰에 장독을 묻어두고 그곳에 돈을 쌓아둘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하였다.

김성철 목사는 자신의 채소가게가 유명해져 지속적으로 큰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접고, 하나님 사역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래서 채소가게를 남에게 세주고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울부짖어 기도하였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나의 일인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채소 과일 장사할 때 열심히 했더니 돈도 벌고 집도 샀는데, 교회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고 기도원에서 내려와 '서부 한인 기독교회'를 세웠다.

김성철 목사는 교회 운영에 관한 몇 가지 방침을 세워 실천하였다.

첫째,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다.

둘째, 헌금함을 비치해 두고 자율적으로 헌금하게 한다.

셋째,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다.

넷째, 헌금한 사람을 호명하거나 주보에 싣지 않는다.

다섯째, 건축 헌금을 걷지 않는다.

여섯째, 교회 출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하는 가정에 한해서 심방한다.

일곱째, 교회 행사는 교인의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실시한다.

여덟째, 주일 예배는 한 시간 안에 마친다.

'서부 한인 기독교회'가 창립 10주년이 되었을 때 출석 교인 수가 350여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부흥하게 된 데에는 김성철 목사의 특유의 부지런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의 일에 사용한데 있었다.

김성철 목사는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공항에서부터 픽업하여 아파트를 얻기까지 집에서 기거하게 해주었고, 아파트를 얻으면 운전면허증을 받을 때까지 운전을 해주거나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소개해서 해결해 주었으며, 어린이가 있으면 학교에 입학시켜 주었고, 미국에 오면 누구나 가져야 할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도 받게 하였으며, 영주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영사관에 동행해서 거주 신고하는 일을 대행해 주었고, 자동차 사는 일도 알선해 주었으며, 보험에 들어야하면 보험을 알선해 주었고,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입원절차를 밟아 주었다.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해 주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통편도 제공하였다.

김성철 목사는 자기 시간을 포기한 채 이민자들의 손과 발과 눈과 입과 귀가 되어주었고, 가능한 한 모든 도움을 주는데 헌신하였다. 그 결과 교회 창립 10주년이 되었을 때 등록교인의 70퍼센트가 초신자들로 채워졌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10퍼센트에 불과했다. 나머지 20퍼센트는 수평이동 교인들이었다.

김성철 목사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도 원칙을 세워 실천하였다.

첫째, 매주 출석해야 할 것,

둘째, 십일조를 생활화해야 할 것,

셋째, 전 가족이 교회에 나와야 할 것,

넷째, 술과 담배를 삼가야 할 것,

다섯째, 이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이어야 할 것.

김성철 목사는 네 개의 이민교회를 개척하여 섬겼고, 두 개의 어린이학교를 세워 운영하였으며, 세 곳의 쇼핑몰(비즈니스)을 매입하여 관

리하였다. 또 안대진 목사와 함께 루선 밸리(Lucerne Valley) 바위산 언덕 아래 세운 '미션 비전 센터'(Mission Vision Center)[730]에 고 김은석 목사의 기념관을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 도서출판 시시울을 통해서 『한국의 바울 김은석 목사』(조동호 지음)를 발간하였다.

730) https://missionvisioncenter.com/.

맺음 말

잊혀 있던 역사를 되살리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과연 그 일이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할 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인가? 잊힌 그대로 두어도 누구도 아쉬울 것이 없고, 어쩌면 발굴하지 않고 묻힌 그대로 두어 영원히 잊히도록 방치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는가? 이 질문은 필자가 종종 자신에게 던졌던 물음이다. 하물며 독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어찌 없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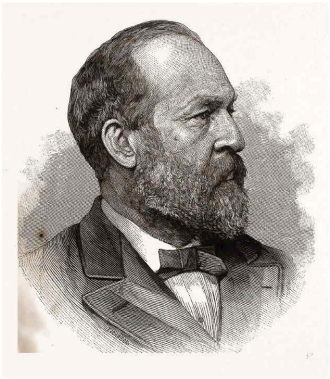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민족의 한이 맺힌 서글픈 역사에 서조차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코끝을 찡하게 만들며 눈가에 이슬이 맺히게 하는 가슴시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바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이야기들 속에 담긴 감동이요, 한이며, 안타까움이다. 잘난 선배이든 못난 선배이든 우리 모두는 선배들이 몸 바쳐 겹겹이 쌓아올린 지층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다. 우리가 딛고 선 지층들 속에 무엇이 매장되어 있는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속에 어떤 보물과 고증학적 파편들이 숨어 있는지 어찌 궁금하지 않겠는가!

만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나라가 실재함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누추하게 살면서도 작지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친 선배들의 상급이 어찌 명예와 부를 누린 이들의 것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1970년대 그리스도(인)의교회들 목회자들

1970년대 그리스도의교회들 교역자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의 그리스도의 교회 성명서



순교자 제20대 미국 대통령 제임스 A. 가필드(James A. Garfield)는 평생 그리스도의 교회(Christian Church)의 교인으로 살다가 별세하였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다년간 교회에서 설교자로 사역하였다. 그는 어떤 숙녀로부터 믿음에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해줄 개념을 갖게 해줄 성명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가필드 대통령이 작성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들(Christians) 또는 제자들(Disciples)이라고 부릅니다.

2.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3.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스도교 체계의 근본적인 진리로 간주합니다.

4. 우리는 회심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5. 우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6. 우리는 장차있을 악인들의 형벌과 의인들의 상급을 믿습니다.

7. 우리는 신성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8. 우리는 매 주일 주의 만찬의 제정을 지킨다.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주님의 식탁이라고 말합니다.

9.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union)을 간구합니다.

10.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규칙서(discipline)입니다.

11. 우리는 모든 의식들(ordinances)이 사도시대에서처럼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견지합니다.

P. H. Welshimer, *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mpany, nd.), pp. 18-19.

President Garfield

Our martyr President, James A. Garfield, who lived and died a member of the Christian Church, and was for some years a preacher in the church, was once requested by a lady to formulate a statement which would give her a more definite idea of our position in matters of faith. The following is a copy of Mr. Garfield's statement:

1. We call ourselves Christians or Disciples.
2. We believe in God the Father.
3. We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our Savior. We regard the divinity of Christ as the fundamental truth of the Christian system.
4. We believe in the Holy Spirit, both as to His agency in conversion and as a dweller in the heart of the Christian.
5. We accept the Old and New Testaments as the inspired Word of God.
6. We believe in the future punishment of the wicked and the future reward of the righteous.
7. We believe that Deity is a prayer-hearing and prayer-answering God.
8. We observe the institution of the Lord's Supper on every Lord's Day. We say it is the Lord's Table, for all the Lord's children.
9. We plead for the union of God's people.
10. The Bible is our only discipline.
11. We maintain that all ordinances should be observed as they were in the days of the apostles.

P. H. Welshimer, *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mpany, nd.), pp. 18-19.